

양양 방언사전

가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양양문화원

양양 방언사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양양문화원



발 간 사

우리 지역은 선사 문화의 시대적 유물이 넓게 분포되어 하나의 큰 선사 문화권을 이루며 유구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근대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해양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태백산맥의 줄기에 대청봉이 우뚝 솟아 있으며, 오색령은 영서와 영동을 이어주는 경관과 단풍이 조화를 이루며 굽이굽이 아름다움의 경관을 간직한 우리 고장은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는 해 오름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양양만의 특성과 선조님들의 생활속에 특색있는 향토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양양문화원은 현대문명 속에 잊혀지고 있는 사투리를 찾아 "양양 방언사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성영, 이재풍 선생님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양양 방언사전은 그 헌신적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투리는 함경도 지역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아 말과 생활습성이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향토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대문명의 발전에서 잊혀지고 있는 양양 사투리를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양양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고 재미나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 지역 사람들과 동질성을 흠뻑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양양 방언 사전은 양양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많은 사투리가 있기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사투리를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양양 방언 사전 발간에 최선을 다해주신 연구위원들과 조사에 많은 도움과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머리말


양양지방은 지형적으로 서부가 남북으로 뻗은 백두대간에 가로막혀 고립된 생활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양양 자철광의 수탈 목적으로 원산항과 연결하는 철도를 개설함으로써 함경도와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경원선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서울과의 왕래도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양양말은 ‘함경도의 억양을 많이 닮았다’ 하고, 또 서울말을 쓴다고 타지역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밥 먹었니?’ 등이 그것입니다.

언어에는 경제성이 내재 되어 있습니다. 줄인 말을 사용하는 예가 그렇고 변형해서 말하는 예가 또한 그렇습니다. ‘영서’를 발음하려면 입천장을 높게 올려 발음하여야 하는데 이를 쉽게 소리내기 위해서 입술에서 나와도 되는 소리, ‘영세’로 발음하여 변형을 이룹니다. 방언 생성의 한 양태이기도 합니다.

긴 세월을 두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지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고유 언어들은 정감 어린 지역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정서가 깃들어 있고 생활이 배어 있고 정신이 스며 있어 지역 문화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 고유의 말들은 생활에서 밀려나게 되고,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교통, 통신, 매체의 발달로 지역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가속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 말을 간직하고 계승 보존시켜가던 비공교육 세대들은 점차 사라지고 그 세대와 더불어 생활하며 말 문화를 공유하던 공교육 세대들도 떠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마저 가면 지방 말은 그 터전을 잃고 소멸해 갈 것 입니다.



양양에는 이 말들을 묶어둔 출판물이 아직 없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시급함을 느끼면서 〈양양 방언사전〉을 편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방언사전인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2021) 편찬에 양양 지역 방언을 담당하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모아오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웃 시·군의 관련 문헌에서 잊혀 가는 양양말을 유추해 발굴하면서,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으며 본 사전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국어사전은 국어를 지키는 바탕이 됨과 동시에 국가를 지키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양양 방언사전〉은 양양말을 지키는 바탕이 됨과 동시에 양양을 지켜가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전 편찬은 방대한 작업이어서 불비한 점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모은 일만여 어휘의 양양말들을 묶어 내보냅니다.

많은 분들의 보완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2021년 12월

김 성 영

목 차

ㄱ	-----	1
ㄴ	-----	66
ㄷ	-----	86
ㄹ	-----	123
ㅁ	-----	123
ㅂ	-----	158
ㅅ	-----	198
ㅇ	-----	249
ㅈ	-----	310
ㅊ	-----	371
ㅋ	-----	384
ㅌ	-----	389
ㅍ	-----	396
ㅎ	-----	407



가: ㉠그 애. ㉡그 아이를 가리키는 말.

- 0.가가 그랬어.
- 0.가가 이렇게 컸어?
- 0.가가 제법이네.

가가부 자손: ㉠각성바지. ㉡성이 각각 다른 사람.

- 1.동네.
 - 0.그 동네는 가가부 자손들이 모여 살아.
- 2.가정.
 - 0.그 집 형제는 가가부 자손이래.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가가주구: ㉠가서.

- 0.저 그늘에 가가주구 얘기하자.
- 0.집에 가가주구 물어봐.

가거래이: ㉠가거라.

- 0.딴 눈 팔지 말고 곧장 가거래이.
- 0.잘 가거래이.

가게?: ㉠가려고? 가는데? ㉡'가라.'는 명령이 아니고, '가려고?'하고 물어보는 말.

- 0.장가는 누가 가게?
- 0.지금 일하러 가게?

가급다(가붙다. 개급다. 개붙다):

- ㉠가볍다.
 - 1.무게가 무겁지 않다.
 - 0.보따리가 가급다.

2.홀가분하고 경쾌하다.

- 0.웃차림이 가급다.

3.말이나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다.

- 0.입과 행동이 좀 가급다.

4.몸놀림이 날쌔고 재다.

- 0.걸음걸이가 가급다.

5.목소리가 무겁고 깊지 않다.

- 0.가구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른다.

6.다루기가 수월하다.

- 0.상대방을 가급게 넘어뜨렸다.

7.빛깔이 밝다.

- 0.빛깔이 가구운 색채다.

8.식사 따위가 간단하다.

- 0.점심 식사를 가급게 마쳤다.

9.심각하지 않다.

- 0.가구운 상처다.

- 0.죄질이 가급다.

10.중대하거나 중요하지 않다.

- 0.일 처리하기 가구운 것들이야.

11.책임이나 부담이 많지 않다.

- 0.맡은 책임이 가급다.

12.단순하고 미치는 영향이 적다.

- 0.일 처리가 가급겠다.

가근방: ㉠근방. 근처.

- 0.그 애는 여기 가근방에 산다.
- 0.물고기가 여 가근방에 숨었어.

가까?: ㉠갈까?

- 0.그러면 내가 먼저 집에 가까?

가까요?: ㉠갈까요?

- 0.저가 먼저 가까요?

가 꺼: ㉡그 애 것.

- 0.그 거 가져야. 건들지 마.

가 꺾지(가 낚지): ㉠그 애 꺾인지.

0.가꺾지 아닌지 낚기민가 해.

0.그 거 가꺾지 몰라.

가꺾다(가꺾다. 가잡다. 개잡다):

㉠가꺾다.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1.거리나 동안이 짧다.

0.여기서 할머니댁이 가꺾다.

2.교분이 친밀하다.

0.그 사람들은 친분이 가꺾다.

3.성질이나 상태가 비슷하다.

0.원숭이는 인간에 가꺾다.

4.어떤 기준에 근접하다.

0.그것은 성공에 가까운 일이야.

5.혈연관계가 멀지 않다.

0.우린 가까운 친척이야.

가꺾(갈게. 갈꺾): ㉠갈게. ㉡갈 것이야.

0.곧 가꺾. 걱정하지 마.

0.생각해 봐서 가꺾. 너무 믿지 말아.

0.일 마치는 대로 가꺾. 미안해.

0.좀 있다 가꺾. 기다려.

가꺾다: →가꺾다.

가 낚지: →가꺾지

가날프다: ㉠가날프다. 연약하다.

0.아가 튼튼하지 못하고 어찌 가날프게 나냐?

가느다하다: ㉠가느다랗다.

0.삼 대가 가느다하다.

가는비: ㉠이슬비.

0.지금은 가는비가 내린다.

가나?: ㉠가니?

0.너 오늘 집에 가니?

0.언제부터 학교에 가니?

가다리(가달. 가달배기. 가달뱅이.

가랭이): ㉠다리. 가랑이.

0.가다리가 길어서 도랑 건너뛰기 좋다.

0.가다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몹시 가난하다)

0.가다리가 찢어지게 바쁘다.

(몹시 바쁘다)

0.바지 가다리가 넓다.

(사회적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0.뱀새가 황새 걸음 하다보면 가다리가

찢어진다.(분에 넘치는 일을 하면 해를 본다는 말)

가다리졌다: ㉠'가랑이졌다', '가랑이졌다'

에서 온 말.

0.소나무가 가다리져서 디딜방아를 만들 수 있겠다.

가달: →가다리.

가달배기: →가다리.

가달뱅이: →가다리.

가대기: ㉠극쟁이 ㉡발을 가는 쟁기.

0.아버지께서 가대기에 소를 매워 밭을 가신다.

0.가대기 날에 밭 고랑이 파진다.

가대이만: ㉠가더니만.

0.아이가 할아버지한테 한 번 가대이만 다시는 안 가.

가더거: ㉠가다거.

0.가더거 돌아오면 못써.

가더래미: ㉠가자마자. 즉시.

0.가더래미 곧장 돌아서 왔어.

가되: ㉠가두어.

0. 병아리를 광주리에 가둬 놔라.
- 가두킨다:** ㉠가둔다.
0. 죄를 지면 감옥에 가두킨다.
- 가따:** ㉠가져다
0. 그거 가따 뒤향려고?
0. 작은택에 가따 줘라.
- 가떡:** ㉠가득. 가떡.
0. 술잔에 술을 가떡 붓는다.
- 가랑이: →가다리.
- 가래삽:** ㉠가래장부.
0. 가래삽을 챙겨라. 가래질하러 가자.
- 가래춤:** ㉠가래춤.
0. 가래춤을 아무 데고 뺄으면 쓰나.
- 가래토시(가래투시):** ㉠가래투.
- ㉠허벅다리 윗부분의 림프선이 부어 오른 명을.
0. 가래토시가 나서 잘 걷지 못해.
0. 다리에 상처가 나서 가래토시가 썼어.
- 가래투시: →가래토시.
- 가래투지:** ㉠야생 호두.
0. 가래투지는 호두보다 알이 작게 들어있어도 맛이 좋다.
- 가랜다:** ㉠가래다'에서 온 말이 아니고, '가리다', '가린다'에서 온 말.
1. 난가리를 가린다.
0. 콩 가리를 가랜다.
2. 낮을 가린다.
0. 아이가 낮을 가랜다.
3. 보이지 않게 가린다.
0. 앞을 가래지 마.
4. 빗을 가린다.
0. 돈을 모아 빗을 가랜다.
5. 오줌 똥을 가린다.
0. 오줌 똥을 가랜다.
6. 음식을 골라 먹는다.
0. 아이가 음식을 가랜다.
- 가루막는다:** ㉠가로막다' '가로막는다'에서 온 말.
1. 앞을 가로막다.
0. 남의 앞을 가로막는다.
2. 말이나 행동을 막는다.
0. 하려는 말을 가로막는다.
3. 앞을 가린다.
0. 시야를 가로막는다.
- 가루세루:** ㉠가로세로.
0. 물건을 만들 땐 가로세루를 잘 맞춰야 한다.
- 가루질러:** ㉠'가로질러다' '가로질러'에서 온 말.
0. 노루가 콩밭을 가로질러 마구 뛰어간다.
- 가루채면:** ㉠'가로채다' '가로채면'에서 온 말.
0. 남의 것을 가로채면 쓰겠나.
- 가롭다(개럽다. 개롭다. 개름다):**
- ㉠가럽다. ㉠피부에 긁고 싶은 느낌이 있다.
0. 가루워도 긁지 마라. 긁으면 더 가롭다.
0. 가루운 데를 긁어 준다. (괴로움이나 불편한 점 따위를 잘 알아서 돌봐 준다는 말)
- 가르거친다(가리거친다. 갈게친다. 걸거친다):** ㉠가로거친다. ㉠앞에서 거치

적거려 일에 방해가 된다.

- 0. 어미소가 논을 가는데 송아지가 따라다니며 자꾸 가르거친다.
- 0. 애야, 앞에서 자꾸 가르거치지 말아라. 길 가는 데 힘이 든다.

가르매(가름배):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양쪽으로 가른 금.

- 0. 언니가 가르매 꼬챙이를 들고 머리 가르매를 탄다.
- 0. 이웃집에 시집 온 새새댁의 가르매가 반듯하다.

가르चे 준다(갈चे 준다): ㉠가르치다, '가르चे 주다'에서 온 말. ㉡지식과 기능을 깨닫거나 익히게 한다.

- 0. 동생 숙제를 가르चे준다.
- 0. 엄마가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चे준다.

가르케 준다(갈케 준다): ㉠가리키다 '가리켜 주다'에서 온 말. ㉡곳이나 방향을 알려 준다.

- 0. 동서남북을 가르케 준다.
- 0. 뒤쪽에 있는 친구네 집을 가르케 준다.

가름배: →가르매.

가리(갈구. 갈그. 갈기): ㉠가루. ㉡보드랍게 부수거나 간 것.

- 0. 가리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말이 많음을 경계하는 말)
- 0. 감자 가리로 감채떡 해 먹자.

가리거친다: →가르거친다.

가마떼기(가마이떼기): ㉠가마니.

- ㉡짚으로 만든 섬.(자루)
- 0. 감자를 가마떼기로 덮는다.

가마이: ㉠가만히. ㉡소리없이 조용히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

- 1. 마음 속으로 곰곰이.
 - 0. 지나간 일을 가마이 생각해 본다.
- 2. 살그머니. 모르계.
 - 0. 가마이 먹지 말고 같이 먹어.
- 3. 소리없이 조용히.
 - 0. 가마이 속삭인다.
 - 0. 떠들지 말고 가마이 있거라.
- 4. 움직임이 없이.
 - 0. 가마이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 5. 지그시.
 - 0. 허리를 가마이 눌러라.

가마이떼기: →가마떼기.

가마잡는다(가마쥘다): ㉠거머잡는다. 거머쥘다.

- 0. 소가 달아나려고 하니 소고삐를 가마잡는다.

가마쥘다: →가마잡는다.

가마챤다: ㉠거머챤다. ㉡휘몰아 잡아챤다. 0. 여자들이 서로 머리채를 가마챤다.

가막살이: ㉠감옥살이.

- 0. 가막살이 안 가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해.

가망가마이(가망가망): ㉠가만가만히.

- 0. 참외 서리는 이숙한 밤에 가망가마이 가야해.

가망가망: →가망가마이.

가망댕이: ㉡가만히 모르계 하는 것.

- 0. 공부하다가 슬쩍 가망댕이 쳐 나간다.

가매: ㉠가마.(가마술 가마). ㉡술보다 큰 술. 흔히 무쇠로 만들며 뚜껑이 없어 널빤지나 대로 만들어 덮기도 함.

0. 송아지 고기가 가매서 설설 끓어.
 0. 가매 밑이 노구솔 밑을 검다한다.
 (제 큰 흠은 모르고 남의 작은 흠을 나무룬다는 말)
 0. 가매에다 소 여물을 끓인다.
- 가매².** ㉠가마.(정수리 가마). ㉡사람 머리의 정수리나 마소 따위의 대가리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난 자리.
 0. 너는 정수리에 가매가 두 개 있구나.
- 가매³.** ㉠가마.(타고다니는 가마). ㉡사람이 안에 타고 둘이나 넷이 들거나 매던 조그만 집 모양의 탈 것.
 0. 가매 태우고 혼든다.
 (추켜 세우는 듯하면서 흔들여 댄다)
 0. 가매 태운다.(그럴 듯하게 추켜 올린다)
 0. 가매 타고 시집 가기는 다 틀렸네.
 (제 격식대로 하기는 틀렸다는 말)
- 가물치 콧구멍:** ㉠흔적이나 소식이 없음. 가물치는 콧구멍이 너무 작아 있는 듯 없는 듯 함.
 0. 그 애가 과일을 보낸다더니 가물치 콧구멍이네.
 0. 금방 돌려준다 하고 돈을 쥐 가더니 가물치 콧구멍이네.
- 가물(가뭇):** ㉠가물. 가뭇.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매마른 날씨.
 0. 가물에 도랑 친다.(가뭇이 들어 도랑이 말랐을 때 도랑을 쳐 미리 대비한다는 말)
 0. 가물에 콩 나듯 한다.(일이나 물건이 드문드문 나타난다는 말)
0. 논밭에 가뭇이 간다.(가뭇이 든다)
 가뭇: →가물.
가버렸다: ㉠갔다.
 0. 그리던 사람이 가버렸다.
 가뭇다: →가뭇다.
가뻘레(가뻘레): ㉠가.
 0. 일하기 싫거든 가뻘레.
 0. 있기 싫거든 가뻘레.
 가뻘레: →가뻘레.
가상사리(가생이. 가세): ㉠가장자리. ㉡물건이나 어떤 장소의 끝에 가까운 부분.
 0. 그 친군 가상사리에 앉아 즐기만 하네.
 0. 발 가상사리까지 풀을 알뜰히 맨다.
가새(가왜. 까새): ㉠가위. ㉡옷감, 종이, 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
 0. 가새가 쇠뿔을 보면 안 든다.(바깥에 함부로 내두르지 말라는 뜻)
 가생이: →가상사리..
 가세: →가상사리
가센?: ㉠가셨나?
 0. 오신 손님이 가센?
가수원: ㉠과수원.
 0. 가수위 가꾸기는 무척 힘이 드네.
가슴(가심): ㉠가슴.
 0. 가슴에 못을 박는다.(가슴 깊이 원통한 생각을 미치게 한다)
 0. 가슴에 불이 붙는다.(감정이 격해진다)
 0. 가슴에 새긴다.
 (오래도록 잊지 않게 단단히 기억한다)
 0. 가슴에 손을 얹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생각한다)

- 0.가슴을 앓는다.(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
- 0.가슴을 짓찡는다.(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는다)
- 0.가슴을 헤쳐 놓는다.(마음속의 생각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는다)
- 0.가슴이 내려앉는다.(몹시 놀라거나 맥이 풀린다)
- 0.가슴이 두근반세근반한다.(가슴이 몹시 세차게 두근거린다)
- 0.가슴이 뜨끔 한다.(충격을 받아 놀라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 0.가슴이 무겁다.(슬픔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가라앉는다)
- 0.가슴이 무너져 내린다.(심한 충격으로 마음을 다잡기 힘들다)
- 0.가슴이 미어진다.(슬픔, 감동, 고통 등으로 견디기 힘들다)
- 0.가슴이 벅차다.(기쁨이나 자부심이 마음에 가득 차서 넘치는 듯하다)
- 0.가슴이 빠근하다.(걱정이나 한탄 따위로 아픈 느낌이 든다)
- 0.가슴이 뿌듯하다.(만족감으로 그득하고 흐뭇하다)
- 0.가슴이 설렌다.(기쁨, 기대, 또는 불안 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 0.가슴이 섬뜩하다.(몹시 놀라서 무섭거나 두려움을 느낀다)
- 0.가슴이 아프다.(마음이 몹시 쓰리다)
- 0.가슴이 찢린다.(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 0.가슴이 찢어진다.(슬프고 괴로움, 불안 등이 커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 0.가슴이 콩알만 해진다.(불안하고 초조하여 마음을 펴지 못하게 된다)
- 0.가슴이 터진다.(슬픔, 괴로운 마음, 분함 따위로 가득 차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낀다)

가슴팍(가심팍): ㉞'가슴'의 변이형.

가슴패기(가심패기): ㉞'가슴'의 변이형.

가슬게(가실게, 가알게): ㉞가을에.

- 0.올 가슬게는 김장 김치를 많이 담가야겠다.
- 0.올 가슬게는 큰 오빠 잔치를 한다.

가시리: ㉞우뭇가시리. ㉠우뭇가시릿과의 바닷말.

- 0.어머니께서 바닷가에서 가시리를 뜯어다 한천 목을 만드신다.
- 0.한겨울에 가시리 목을 먹으면 시원한 맛이 있다.

가시우: ㉞가세요. ㉠명령형과 의문형에 같이 사용된다.

- 0.잘 살펴 가시우.
- 0.안 가시우?

가실같이(갈카리): ㉞가을같이. 추경.

- 0.가실같이를 하면 해충 방제에 도움이 되지.
- 0.추수한 논에 가실같이를 한다.

가실건이: ㉞가을건이.

- 0.올해는 가실건이를 일찍하고 큰오빠 잔치 준비를 해야겠다.

가실게: →가슬게.

가실바람: ㉞가을바람.

- 0.가실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기분이

- 상쾌 해.
- 가실보리:** ㉠밭보리. ㉡가을보리. 겨울 보리.
0.가실보리가 싹이 잘 붙었다.
- 가실비:** ㉠가을비.
0.가실비가 자주 오니 벼이삭에 싹이 나겠다.
- 가심: →가슴.
- 가심알이:** ㉠가슴알이. 마음 고생.
0.가심알이는 마음의 병이라 약도 없다네.
- 가심팍: →가슴팍.
- 가심패기: →가슴패기.
- 가아지(가~지):** ㉠강아지.
0.가아지가 재롱을 부린다.
- 가알게: →가슬게.
- 가여버라:** ㉠가여워라.
0.아이고 가여버라. 새끼 강아지가 죽었구나.
- 가완도(가원도):** ㉠강원도.
0.고향이 가완도래요.
0.가완도 사람을 암하노불(岩下老佛)이라 하렸다.(바위 밑의 늙은 부처라. 순하고 조용하다는 말)
- 가왜: →가새
- 가운뎃다리:** ㉠쫘.
0.고지는 가운뎃다리가 없대.
- 가운데:**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0.감자밭 가운데 옥수수를 드문드문 심었다.
0.장마당 가운데 웃판이 벌어졌다.
- 가운테로(가운트로):** ㉠가운데로.
0.밭 가운데로 다니지 말아라.
0.보리밭 가운데로 고라니가 뛰어간다.
- 가운트로: →가운테로.
- 가원도: →가완도.
- 가위표:** ㉠곱셈표.
0.2하고 가위표, 3하면 얼마? 6.
- 가이면:** ㉠가면.
0.이제 가이면 언제 오나.
0.한번 가이면 다사 오기 어려워라.
- 가작(가작껏. 가작끔. 가적. 가적끔):**
㉠겨우. 고작. ㉡있는 힘을 다해서.
0.가작 한다는 소리가 그거냐?
0.그 돈 가작 모은 거다. 아껴 써라.
- 가작껏: →가작.
- 가작끔: →가작.
- 가재(과재):** ㉠과자. ㉡밀가루나 쌀가루에 설탕, 우유, 버터 따위를 섞어 기름에 튀기거나 구워서 만든 음식.
0.손자 녀석, 가재 봉지를 쥐켜 주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 가재미(가지미. 까재미):** ㉠가자미.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
0.가재미의 눈으로 훑어보지 마. 기분 나빠.
0.가재미는 자기 어머니 보고도 눈을 흘긴다.(가자미는 눈이 한쪽 옆으로 붙어있어 선천적으로 얻은 핀찬)
- 가적: →가작.
- 가적끔: →가작.
- 가제나:**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매우.
0.농번기엔 가제나 바쁜데 왜 그 일을 벌릴라 그래.

가쟁이: ㉠가지.

0.나무 가쟁이가 너무 벌어졌다. 좀
쳐야 겠다.

가주(가주구): ㉠가지고. 소지하고.

0.날씨가 추워졌다. 장갑은 주머니에
가주 다니냐?

0.돈은 항상 가주 다녀라. 언제 쓸 일이
있을지 모른다.

가주구: →거주.

가죽데기: ㉠1.가죽. 2.낮.

1.가죽.

0.가죽데기 허리띠는 튼튼해.

2.낮.

0.가죽데기가 두꺼운 사람이야.

가죽피리: ㉠방귀.

0.가죽피리 분 사람 누구야?

가즈런히: ㉠가지런히. ㉡여럿이 고르게

나란히 되어있는 모습.

0.신발을 가즈런히 놓아라. 신을 때
편하게.

0.옷장의 옷도 가즈런히 정돈하여라.

가지미: →가재미.

가차이(가차히): ㉠가까스로. 겨우.

㉡어렵게 힘들여. 기껏해야 고작.

0.그 때는 입에 가차히 풀칠 할 정도였지.
(먹을거리를 겨우 델 정도라는 말)

0.입학 시험에 가차이 합격했다.

가차하: →가차이.

가잡다: →가깝다.

가치: ㉠개비. ㉡가늘고 길게 찌개 만든

토막의 날개.

0.담배 한 가치만 주게.

0.성냥 가치를 꺼내 그어라.

가트다며?: ㉠같다며?.

0.이것과 저것은 가트다며?

각승바지(타승내기. 타승바지):

㉠각성바지. 타성바지. ㉡자가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

1.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0.그 집은 각승바지야.

2.성이 다른 무리.

0.그 동네 사람들은 각승바지야.

각작각작: ㉠갑작갑작.

0.가려운데를 각작각작 긁으니 시원하다.

각재: ㉠각자.

0.객지에 나가면 각재 알아서 사는 거지
며.

0.이 일은 각재 알아서 해.

각중에: ㉠갑자기. 졸지에.

0.각중에 돈을 달라고 하니 어디서
나오나

0.각중에 찾아와서 도와 달라고 하네.

각쫓가리(곽때기. 곱쫓가리): ㉠마분지.

판지. ㉡종이를 여러 겹으로 발라

두껍고 단단하게 만든 종이. 또는 그
조각.

0.각쫓가리 통에 병아리를 넣었다.

0.그 각쫓가리로 농 밑을 좀 받쳐봐.

간?: ㉠갔나? ㉡떠나거나 지난 것을 말함.

1.떠난 것.

0.마음이 그 사람한테로 간?

0.오신 손님이 간?

2.지난 것.

0.음식 맛이 간?

간 고등애: ㉠자반 고등어. 소금에 절인 고등어.

0.간 고등애 굽는 냄새가 사방에 진동한다.

간 기: ㉡간 짓어.

0.애가 학교에 간 기 공부를 잘 해.
0.아들이 장가를 간 기 애를 낳았어.

간나: ㉢여자 아이의 낮춤말.

0.간나가 까불어. 기분 나쁘게.
0.간나가 재수 없게 길 앞을 건너.
(여자가 남자의 길 앞을 가로질러 건너면 안 된다는 풍습이 있음)

간나 새끼: ㉣여자 아이를 욕하는 말. 때로는 남자 아이를 지칭하기도 함.

0.간나 새끼가 말을 안 들어.

간다민: ㉤간다며.

0.서울대학교에 간다민.
0.이제 곧 군대 간다민.

간다이1: ㉥간다.

0.나 오늘 저녁 너 집에 놀러 간다이.

간다이2: ㉦간단히.

0.점심을 간단히 먹었다.

간당간당: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고, 몹시 위태롭다는 뜻으로 사용.
0.잘못을 저지른 과장의 목이 간당간당한다.

간대로(간대루): ㉨정말로. 진실로.

참말로. 설마.
0.간대로 그럴 리가 있겠나.
0.간대로 그 처녀가 그 집으로 시집 갔을라고...

간대루: →간대로

간뎡이(간뎡이): ㉩간뎡이.

0.간뎡이가 도뎡이(동이)만 하다.(배짱이 크다는 말)
0.간뎡이가 부엌구만.(터무니없이 배짱을 부린다는 말)
0.간뎡이가 크다.(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아니한다는 말)

간들어진다: ㉪재미있게 웃는 소리를 비유하는 말.

0.우물가 여인네 웃음 소리가 간들어진다.

간등간등한다: ㉫간들거린다.

0.속갱이불(관솔불)이 간등간등한다.
0.촛불이 바람에 꺼질 듯 말 듯 간등간등한다.

간뎡이: →간뎡이.

간좌(간좌): ㉬'간추리다.' '간추려'에서 온 말.

0.벼 움큼을 간좌 쥐라.
0.부추단을 잘 간좌라.

간줄군다(간질군다. 갠줄군다. 갠질군다): ㉭간지럽힌다.

0.발바닥을 간줄군다.
0.애기를 간줄귀 봐. 간지럽 타나.

간좌: →간좌.

간질군다: →간줄군다.

간판: ㉮1얼굴. 2졸업장.

1.얼굴.
0.그 사람 얼굴이 간판이지 머.
2.졸업장.
0.간판 따러 소 팔고 논밭 팔아 대학에 보냈지.

갈가마구(갈가마귀): ㉯갈까마귀.

㉸까마귀과의 새.
 0.갈가마구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었다.
 0.갈가마구 떼처럼 달려든다.(여럿이 함께 달려드는 모습을 이르는 말)
 갈가마귀: →갈가마구.
갈가지: ㉸표범의 새끼.
 0.밤에 울면 갈가지가 온다.
갈강버즘(갈강버짐): ㉸마른버짐. 건선.
 0.얼굴에 갈강버즘 올랐다.
 0.갈강버즘은 옛으로 짝어내면 낡는 다지?
 갈강버짐: →갈강버즘.
갈강비: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
 0.갈강비가 오락가락한다.
 0.갈강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갈개: ㉸'갈기다' '갈기어' '갈겨'에서 온 말.
 0.말 안들으면 갈개 쥐.
 0.소가 잘 안가거든 고삐로 엉덩이를 갈개.
갈개: ㉸가을에.
 0.갈개는 큰 산소 시제를 지낸다.
 0.올 갈개 오빠 잔치를 해야 되겠다.
갈개쓰다: ㉸갈겨쓰다. ㉸글씨를 마구 쓴다.
 0.글씨를 갈개쓰지 말고 또박또박 바로 써.
 갈개친다: →가르거친다.
갈고랭이(갈구랭이, 갈구리, 갈구리):
 ㉸갈고랑이. 갈고리. ㉸끝이 뽀족하고 꼬부라진 물건.
 0.갈고랭이를 가지고 높은 나뭇가지를 휘어잡는다.

갈구: →가리.
 갈구랭이: →갈고랭이.
 갈구리: →갈고랭이.
갈군다: ㉸시비를 건다.
 0.사람을 갈군다.
 0.자꾸 갈구면 화 안 나는 사람 없어.
 갈그: →가리.
 갈기: →가리.
 갈개: →가겐.
 갈겐: →가겐.
갈 끼다: ㉸갈 것이다.
 0.곧 갈끼다. 걱정 마라.
 0.오늘 중으로 갈끼다. 너무 심려 마라.
갈라문: ㉸가려면. 가려고 하면.
 0.갈라문 일찍 떠나라.
 0.갈라문 짐보따리 챙겨라.
갈란가?: ㉸가려는가?
 0.그 사람 거기에 갈란가 모르겠네.
 0.자네 거기에 갈란가?
갈란다: ㉸가련다.
 0.거기에 곧 갈란다. 걱정 마라.
갈러났다: ㉸갈라놓았다. ㉸각각 떼어 떨어지게 했다.
 0.두 사람 사이를 갈러났다.
 0.왜 그 사람들을 갈러났다?
갈러센다(갈러스다, 갈레스다):
 ㉸갈라선다. 헤어진다.
 0.그 사람들 둘은 이제 갈러센다. 왜들 그러는지...
 갈러스다: →갈러센다.
 갈레스다: →갈러센다.
갈려는: ㉸가려는.

0. 낚시하러 갈려는가 봐. 낚시대를
챙기는 걸 보면.

0. 일하러 갈려는가 봐. 호미를 들고
나서는 걸 보니

갈른다: ㉠가른다. ㉡쪼개어 나눈다.

0. 사과를 두 쪽으로 갈른다.

0. 땅을 두 필지로 갈른다.

갈보집: ㉠아가씨들을 고용한 술집.

0. 갈보집에 들어앉아 술에 취해 날 새는
줄 모른다.

갈수룩: ㉠갈수룩.

0. 갈수룩 태산이라. (점점 힘들고 견디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갈이: ㉠화투할 때 잃은 돈을 건내지 않는
일.

0. 그 사람 갈이를 잘해. 갈이 놀지 마.

0. 화투판에 갈이 하기 없기다.

갈지재 걸음: ㉠갈지자 걸음.

0. 술에 취했나? 갈지재 걸음을 걷기.

갈 직에: ㉠갈 직에.

0. 갈직에 이 거 꼭 가져 가.

0. 갈직에 친구 집에 들러서 가.

갈채 준다: →가르쳐 준다.

갈카리: →가실갈이.

갈케 준다: →가르케 준다.

갈쿠리: →갈고랭이.

감낭: ㉠양배추.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0. 감낭은 위장에 좋은 채소라지.

0. 앞 밭에다가는 감낭을 심어야 하겠다.

감미롭다: ㉠감미롭다. ㉡맛이 달콤하다.

0. 감주는 감미롭다.

0. 감미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감싸구돈다(싸구돈다): ㉠감싸고돈다.

싸고돈다. ㉡누구를 가운데 두고
두둔하여 행동한다.

0. 자기네 사람만 감싸구돈다.

감재: ㉠감자. ㉡가짓과의 여러해살이풀.

0. 엄마가 감재를 갈아서 시루에 넣고
감자떡을 찌신다.

0. 올해 감재 농사는 잘 됐다.

0. 우리 감재 적 지저 먹자.

감재 강판: ㉠감자를 가는 판.

0. 감재 강판에 감재를 갈아라.

0. 잘못하면 감재 강판에 손까지 간다.

감재바우: ㉠감자 바위. ㉡강원도에서
감자가 많이 나는데 연유되어 강원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함.

1. 강원도 사람.

0. 강원도 감재바우들은 마음이 순해.

2. 촌사람.

0. 감재바우 짓 좀 그만 해라.

감재붕생이: ㉠감자 범벅이 떡. ㉡감자를
갈아 강낭콩을 넣고 시루에 찐 떡.

0. 엄마가 감재붕생이를 찌신다.

0. 엄마가 해 준 감재붕생이가 맛이 있다.

감재술쟁이: ㉠1. 감자 누룽지. 2. 헌데
자국.

1. 누룽지.

0. 감재술쟁이는 구수한 맛이 난다.

2. 헌데 자국. 0. 헌데가 이문 자리에
감재술쟁이 자국이 생겼다.

감재 웅심이: ㉠감자 새알심.

0. 감재 웅심이 하는 집이 붐빈다.

감지득지: ㉠감지덕지. ㉡분에 넘치는 듯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모양.

- 0. 감자라도 주시면 감지득지지요며.
- 0. 칭찬해주시고 후원까지 해 주시니 감지득지지 합니다.

감좌: ㉠감취.

- 0. 꽃감을 감좌냈다 꺼내 먹었다.
- 0. 사탕 빨리 감좌. 애기 불러.

갑~세: ㉠가세. 떠나 가세.

- 0.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갑~세.
- 0. 갑세 갑세, 어서 갑~세.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갑~세.

갑재기(갑짜기): ㉠갑자기. 별안간.

- ㉡생각할 새도 없이 급히.
- 0. 갑재기 소나기가 쏟아진다.

갑짜기: →갑재기.

갑작소리: ㉠갑작스레.

- 0. 갑작소리 비가 오네.
- 0. 갑작소리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네.

갓쟁이: ㉠1.갓장이. 2.갓쟁이.

- 1.갓장이.
- 0.갓쟁이는 갓을 어떻게 만들까?
- 2.갓쟁이.
- 0.그 사람은 갓쟁이야. 갓을 쓰고 다녀.

갓짐치: ㉠갓김치.

- 0.갓짐치는 시원 한 게 맛이 있다.

갓드니: ㉠갓더니.

- 0.외갓댁에 갓드니 외할머니께서 꽃감을 주셨다.

강구: ㉠갯강구. ㉡갯강굿과의 절지동물.

- 연안의 바위 밑에 떼지어 삶.
- 0.강구 잡아 놀래기 낚시 미끼하자.

강기: ㉠감기. 고별.

- 0.콧물나고 열나고 기침하는 걸 보니 강기 걸렸다.

강남콩: ㉠강낭콩.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풀.

- 0.강남콩 밥이 맛이 있다.

강산판다: ㉠한눈판다.

- 0.강산판다 다리에서 떨어진다.

강어구: ㉠강어귀.

- 0.봄철 강어구엔 송어 떼가 나타난다.

강중배기: ㉡거꾸로 뛰어내리는 것.

- 0.아이들이 또갓소(도깨비 소)에서 강중배기로 물속에 뛰어든다.

강지로(강짜로): ㉠강제로. 억지로

- 0.말을 냇가에 끌고 갈 순 있어도 강지로 물을 먹일 순 없다.(제 뜻에 따라야 한다는 말)

강지슥: ㉠강기슥. ㉡강물이 닿는 곳.

- 0.저기 강지슥을 따라가다 보면 외갓집이 나온다.

강짜로: →강지로.

갓다가: ㉠'가져다가', '가져다'에서 온 말.

- 0.무 몇 개 갓다가 먹어.
- 0.빗자루 몇 개 갓다가 써라.

갈애: ㉠갈아. ㉡서로 다르지 아니한 것.

- 0.아이들 둘이 성격이 서로 갈애.
- 0.이 옷과 저 옷은 모양새가 갈애.

개: ㉠하천. ㉡하천에 물이 많이 모인 곳.

- 0.남대천 개에 황어 떼가 올라온다.

개²: ㉡사람 비어.

- 0.개 같은 놈.
- 0.개 같은 년.

개³: ㉞별집.

0.풀이 떨어지는 갯자배기를 들고 어쩔 줄 모른다

개가죽이다: ㉠충분하다.

0.매운탕을 한 가마만 끓이면 먹고 놀기에 개가죽이지 며.

개가 파먹을: ㉠망할.

0.개가 파먹을 놈 같으니라구.

개갈가지: ㉠호랑이 새끼. 또는 삶.

0.삶(살팽이)을 개갈가지라고도 하지.
0.부엉이 우는 곳엔 개갈가지가 나오고, 개갈가지 뒤에는 호랑이가 따라 나온다고 옛날 어른들은 얘기했다.

개거품: ㉠홍분할 때 나오는 거품.

‘계거품’이 변형된 발음인 듯함.
0.자기 보고 한 말도 아닌데 개거품을 물면서 흥분한다.

개고기: ㉠막된 놈.

0.그 사람 개고기야. 상대하지 말아.

개고생: ㉠많은 고생. 쓸데없는 고생.

0.객지에서 개고생하지 말고 고향으로 와.
0.남 밑에서 개고생하지 말고 독립을 해.

개구녕(개구영): ㉞개구멍.

0.개도 개구녕 보고 내쫓으랬다.

개구락지(깨구락지. 깨구리): ㉞개구리.

㉠개구릿과, 청개구릿과, 맹꽁잇과, 무당개구릿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0.개구락지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어렵던 지난 날은 생각하지 않고 잘된 때 호기만 부린다는 말)
0.개구락지도 움추려야 뚱다.(아무리 급해도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

0.개구락지 낮쪽에 물 붓기다.(어떤 처사에 당하여도 태연하다는 말)

개구영: →개구녕.

개굴: ㉞개울.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

0.개굴 치고 가재 잡고.
(일거양득을 한다는 말)

개굴창: ㉞시궁창. ㉠더러운 물이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

0.개굴창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0.개굴창에서 용났다.(빈민 촌에서 용났다는 말)

개굽다: →가굽다.

개금발(깨금발): ㉞양감질. 외발. ㉠한 쪽 발.

0.개금발로 서서 선반에 물건을 내린다.

개긴다: ㉞개간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나게 한다.

0.못 사는 동생이 자꾸 개긴다.

개깎다(개꿍다): ㉠가깎다의 변이형 방언.

0.학교까지 거리가 개깎다.

개꼬리: ㉠옥수수 수염.

0.옥수수는 개꼬리가 시들면 따다 먹어도 된다.

개꿍다: →개깎다.

개누까리: ㉠굵은 알사탕.

0.개누까리 사러 가게에 가자.
0.개누까리 하나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 온다.

개누루(개니): ㉞괘히. 공연히.

0.그 엘 개누루 오라 했어.
0.그 얘긴 개누루 한 소리야.

개나: →개누루.

개다리질: ㉞헛발질.

0. 축구할 때 개다리질 해서 골을 먹었다.

개두릅(개드릅): ㉠엄나무의 어린 순.

0. 봄철 개두릅 맛이라. 씹쌀한 게 봄맛이 나지.

개드릅: →개두릅.

개든다: ㉞덤벼든다.

0. 자꾸 개들지 마. 그러면 진짜 화낸다.

개따(갯다가): ㉞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0. 개따 다시 보자.

0. 개따 올께. 그때까지 좀 기다려.

개떡 같은(개똥나발 같은. 개똥대가리 같은. 개쌌구녕 같은. 개쌌구영 같은.

개좃대가리 같은. 개코뎡가리 같은.

쌌구녕 같은. 쌌구영 같은. 코뎡가리 같은): ㉠보잘 것 없는 것의 비유.

0. 그 개떡 같은 회의는 왜 자꾸 한 대. 성사도 못 하면서.

0. 개떡 같은 그 일은 왜 한 대.

0.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

개똥나발 같은: →개떡 같은.

개똥대가리 같은: →개떡 같은.

개똥두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0. 이번 일은 잘 못 돼서 개똥두 아니다.

개똥불: ㉞반딧불이. ㉠반딧불빛과의 총칭.

0. 여름 밤 하늘에 개똥불이 반짝거린다.

0. 청정한 곳이라야 개똥불을 본다.

개똥생이: ㉠개떡같이 막기는 사람.

0. 그 사람은 개똥생이처럼 막기는 사람

이야.

개똥쇠: ㉠전라도 사람.

0. 그 사람은 전라도 개똥쇠래.

개똥쌍놈: ㉠아주 나쁜 놈.

0. 그 사람은 성질이 아주 개똥쌍놈이야.

개락: ㉞지천. ㉠많이 있어 귀할 것이 없음.

0. 바닷가에 도루묵이 개락이다.

0. 장마에 산사태가 여기저기 개락으로 났대.

개랑개랑하다: ㉠몸이 약하다.

0. 아이가 튼튼하지 못하고 어찌 개랑개랑 하다.

개럽다: →가롭다.

개롭다: ㉞괴롭다.

0. 개롭네. 자꾸 성가시게 굴지 말게.

0. 마음이 개로울 땐 한 잔 하면 좋지.

개롭다: →가롭다.

개름한: ㉞가름한.

0. 아가씨가 개름한 게 예뻐.

개롭다: →가롭다.

개망녕이: ㉞개망나니. ㉠히는 짓이나 성질이 못된 남자를 욕으로 하는 말.

0. 그 애가 어릴 적엔 개망녕이였어.

0. 개망녕이로 크더니 이젠 사람 됐어.

개미잔뎡이: ㉞개미허리.

0. 색시 허리가 개미잔뎡이 같이 가늘어.

개바늘(개바늘): ㉞도깨비바늘.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0. 바지에 개바늘이 붙었다.

개바늘: →개바늘.

개바닥: ㉞평지. ㉠산협에 대한 반대 개념.

- 0.개바닥 눈에 모내기를 한다.
- 0.새마을 사업으로 개바닥에다 논을 일군 대.

개박살: ㉠심히 부서짐.

- 0.개다리 밥상이 개박살 났다.
- 0.씨름 상대 팀이 우리한테 개박살 났지.

개발에 땀 났지: ㉠없던 힘까지 솟아

- 났다.
- 0.잘한다 잘한다 하면 개발에 땀 나지.
- 0.축구를 하는데 펄펄 날았어. 개발에 땀 났지.

개발질: ㉠헛발질.

- 0.축구 시험하는데 개발질 하지 마.

개뻐다(개뻐다. 개뻐다): ㉠고였다.

- 0.비가 와서 빈 그릇에 물이 개뻐다.
- 0.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바위 웅덩이에 개뻐다.

개병대: ㉠해병대.

- 0.개병대 출신은 용감하고 씩씩하다.
- 0.그집 아들이 개병대 나왔대. 대단하군.

개보채다: ㉠개괘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 손해나게 한다.
- 0.자꾸 개보채지 말고 좀 잘해 봐.

개복상(개복숭아. 뽕기복상. 뽕기복상):

- ㉠재래종 복숭아.
- 0.산비탈에 개복상이 많이 달렸더라.
- 0.개복상으로 만든 효소가 천식에 약이래.
- 0.개복상은 밤에 먹는다.(속의 벌레와 같이 먹어야 약이 된다는 말)

개복숭아: →개복상.

개불알두 몰라(개뿔두 몰라. 개씹구영두

몰라. 개씹두 몰라. 개좃두 몰라. 씹두 몰라. 좃두 몰라. 쥐똥구영두 몰라. 쥐똥두 몰라. 쥐불알두 몰라. 쥐뿔두 몰라. 쥐씹두 몰라. 쥐좃두 몰라): ㉠아무것도 몰라.

0.그 사람은 개불알두 몰라. 천치 바보야.
개불알두 없다(개뿔두없다. 개씹구영두 없다. 개씹두 없다. 개좃두 없다. 씹두 없다. 좃두 없다. 쥐똥구영두 없다. 쥐똥두 없다. 쥐불알두 없다. 쥐뿔두 없다. 쥐씹두 없다. 쥐좃두 없다): ㉠아무것도 없다.

0.그 사람은 개불알두 없다. 돈을 꾸

개뿔다: →가굽다.

개뻐다: →개뻐다.

개뻐다구: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 0.그 사람 개뻐다구야. 건드리지 마.
- 0.사람이 개뻐다구 짓은 하지 말아야지.

개뻐하다: ㉠가뻐하다.

- 1.들기 좋은 정도로 가뻐다.
- 0.보따리가 개뻐하다.
- 2.마음에 부담이 없이 가볍고 편안하다.
- 0.열이 내리니 몸이 개뻐하다.

개뿔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개뿔두없다: →개불알두 없다.

개식거린다(개직거린다. 깨직거린다):

- ㉠밥을 먹을 등 말 등 한다.
- 0.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개식거린다.
- 0.간식을 많이 하면 밥 먹을 때 개식 거린다.

개신거리다: ㉠지식거리다. ㉡맥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남이 싫어하건 말건 짓궂게 요구하는 짓을 가리키는 말.

0. 떡 만드는 옆에서 개신거리지 마. 천해 보인다.

개쌍년: 행실이 나쁜 여자를 욕하는 말.

0. 개쌍년 저 말하는 것 좀 봐.

개쌍놈: ㉢행실이 나쁜 남자를 욕하는 말.

0. 쌍놈 씨가 따로 있나. 나쁜 짓하면 개쌍놈 되는 거지.

~개씨: ㉣~개씨.

0. 한 개씨 세어 봐.

0. 두 개씨 세면 빨라.

개씨바리: ㉤결막염. ㉥결막에 생기는

염증.

0. 개씨바리 옳는다. 저리 가.

개씹간나: ㉦허튼 여자.

0. 개씹간나 같으니라구.

개씹구녕 같은: →개떡 같은.

개씹구영 같은: →개떡 같은.

개씹구영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개씹구영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개씹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개씹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개씹 또바리: ㉧결막염의 부적. 짚으로 만든 작은 파리.

0. 결막염 오를라. 짚으로 개씹 또바리 만들어 차라.

개올른다: ㉨'기어오르다', '개올르다'에서

온 말.

0. 자꾸 개올르지 마. 그러면 나 못 참는다.

개와(개화): ㉩호주머니 ㉪옷에 단 주머니.

0. 개와에 손을 넣었다 옆어지면 클 일 난다.

개와집(제집): ㉫기와집. ㉬지붕을 가와로

인 집.

0. 궁궐은 고래등 같은 개와집이다.

개욕: ㉭나쁜 욕.

0. 가가 개욕을 하더라.

0. 나쁜 짓을 했다. 개욕을 먹게.

개우장: ㉮개울.

0. 비 올 때 개우장 가에 가지마. 물이

갑자기 차면 위험하다.

개좃대가리 같은: →개떡 같은.

개좃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개좃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개직거리다: →개식거리다.

개잡다: →가깝다.

개챙피: ㉯매우 심한 창피.

0. 개챙피 당하지 말고 잘 해보자.

0. 약한 팀에게 개챙피를 당했다.

개코나: ㉺별 것 아닌 것이나.

0. 개코나 가진 게 있어야 장사를 하지.

개코댕가리 같은: →개떡 같은.

개탕: ㉻허탕.

0. 이번 장엔 장사가 안돼 개탕쳤네.

개털벙이: ㉼빈털터리.

0. 장사 잘못했다가 개털벙이 됐네.

개팔이: ㉽말썹꾸러기. ㉾성질이 고약한

사람.

0. 그 사람 개팔이야. 건들지 마.

0. 어릴 적에 개팔이로 크더니 이젠 사람

됐어.

개팔자: ㉠하는 일 없이 밥 먹고 놀고
잠만 자는 팔자.

0.개팔자가 상팔자라. 더 말해 뭘 하나.

0.그 사람 개팔자야. 팔자가 아주 늘어
졌어.

개팠다: →개뻐다.

개피(까치): ㉡개비. ㉢가늘게 쪼갠 기름한
토막의 조각이나 날개.

0.장작 한 개피를 난로에 넣는다.

개헤엄: ㉣개처럼 팔다리를 앞뒤로 놀리며
치는 헤엄.

0.물에 가거든 개헤엄이라도 배워라.

개화: →개와.

개황이다: ㉤헛일이다.

0.이번 판엔 난 개황이다. 너가 먹어.

객없이: ㉥쓸데없이.

0.그 일에 객없이 끼어들지 마.

0.남의 일에 객없이 참견 말아.

객을 못 춘다: ㉦맥을 못 춘다.

0.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하고
씨름을 하면 객을 못추지.

갠데: ㉧근데. 그런데.

0.갠데 저 일은 누가 하는 거야.

갠줄군다: →간줄군다.

갠지럽다(갠지럽다): ㉨간지럽다.

1.무엇이 살에 닿아 가볍게 스칠 때
자리자리하게 느껴지는 상태.

0.머리카락이 목에 닿아 갠지럽다.

2.말이 참고 건디기 힘들 때.

0.입이 갠지러워 못 참겠다.

3.아슬아슬한 일을 볼 때 자리자리하게
느껴지는 현상.

0.구름다리를 건널 때 마음이 아슬아슬
갠지러워 못 건너겠다.

갠지롭다: →갠지럽다.

갠질군다: →간줄군다.

갠찮다(갱기찮다. 갡기찮다): ㉩괜찮다.
무방하다.

1.별로 나쁘지 않다.

0.보기보단 사람이 갠찮다.

2.거리낄 것이 없다.

0.늦게 와도 갠찮다.

갠깁한다: ㉪힘겨워한다.

0.짐수레 끌고 언덕에 오르느라 갠깁
한다.

0.힘든 일을 혼자 맡아가지고 갠깁한다.

갠다가: →개따.

갠자배기: ㉫별이 꿀을 저장한 밀 집.

0.갠자배기는 조금만 먹어도 너무 진해서
물린다.

갠주머이: →개와.

갠기찮다: →갠찮다.

갠긴다: ㉬감긴다.

1.줄에 감긴다.

0.연자새에 연줄이 갠긴다

2.약 기운에 감긴다.

0.감기약 기운에 갠겨서 정신 못 차리겠어.

갠변: ㉭강변. 강가. ㉮강의 가장자리에
놓인 땅.

0.갠변에서 목욕도 하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0.그 사람은 갠변에 내댈도 살 사람이야.
(부지런하고 일을 잘해 아무 곳에서
라도 살 수 있다는 말)

거: ㉠거기. 그곳.

- 0.숙제를 벌써 거까지 했어?
- 0.제방을 벌써 거까지 쌓았어?

거게(고. 고계. 고기): ㉠1.그곳에.

- 2.그것이.
- 1.그곳에.
- 0.거게 가서 뭘 할려고.
- 0.오늘 거게 가게?
- 2.그것이.
- 0.거게 꽤 쓸만하지.

거꾸루(거꿀루. 까꾸루. 까꿀루.

- 꺼꾸루. 꺼꿀루): ㉠거꾸로. ㉡차레나 방향이 반대로.
- 0.시곱바늘을 거꾸루 돌린다.
- 0.웃을 거꾸루 입는다.

거꿀루: →거꾸루.

거다(그다): ㉠거기이다. 그것이다.

- 0.거다 그 걸 또 보태?
- 0.거다 술을 또 먹어?

거더들렸다: ㉠걸려들었다. 들켰다.

- 1.걸려들었다.
- 0.찬 테 돌아다니다 감기에 거더들렸다.
- 2.들켰다.
- 0.뺑소니 치다 선생님한테 거더들렸다.

거더쳐: ㉠이어서. 연이어.

- 0.비가 오더니 거더쳐 개었다.
- 0.큰 딸이 오더니 거더쳐 작은 딸이 왔다.

~거덩: ㉠~거든. ㉡하거든. 먹거든.

- 보거든. 말거든.
- 0.사람들이 가거덩 우리도 가자.
- 0.소가 여물을 안 먹거덩 등겨를 줌

뿌려 줘라.

- 0.일을 하거덩 잘 지켜 봐. 잘하나 잘 못하나.

거두미(거드미): ㉠수확. ㉡곡식을

- 거두어들이는 일.
- 0.가을은 오곡백과의 거두미가 있어 풍성한 계절이 된다.

거드머 찬다: ㉠'걸어차다', '걸어찬다'에서 온 말.

- 0.왜 사람을 거드머 차.

거드미: →거두미.

거디간직: ㉡건사하는 일.

- 1.제게 딸린 것을 잘 보살피고 돌봄.
- 0.제 자식이니 잘 거디간직 하겠지.
- 2.물건을 잘 거두어 지킴.
- 0.감자를 얼지 않게 잘 거디간직 해라.

거랑: ㉠도랑. ㉡폭이 좁은 작은 개울.

- 0.거랑에 나가 빨래를 해 온다.

거래서: ㉠그래서.

- 0.밤중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거래서 어떻게 됐나?

거랭이(거러지. 거렁뱅이. 거름뱅이.

거링이. 걸뱅이. 그지. 비렁뱅이): ㉠거지. ㉡밥을 빌어먹는 사람.

- 1.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 0.거랭이 밥 굶 듯 한다.(끼니를 제때에 먹지 못하고 건너 뚬을 이르는 말)
- 2.남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뜻으로 욕하는 말.
- 0.거랭이 같다.(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
- 0.거랭이가 도승지를 붙짱하다 한다.

-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서 도리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동정한다는 말)
0. 거랭이가 말 얻은 격이다.(자기 몸 하나도 돌보기 힘든 처지에 건사하기 어려운 말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뜻으로 괴로운 중에 더욱 괴로운 일이 생겼음을 이르는 말)
0. 거랭이도 손님 볼 날이 있다.(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손님 볼 때가 있으니 깨끗한 옷가지 하나 정도는 간직해 두어야 한다는 말)
0. 거랭이 밥주머니다 (이것 저것 너절한 것들을 되는대로 섞어서 넣어 둔 것을 이르는 말)
0. 거랭이 옷 해 입힌 셈이다.(대가나 보답은 바라지 않고 은혜를 배품을 이르는 말)

거러지: →거랭이.

거러지 꼴신: ㉠거지 꼴.

0. 빨래를 안 빨아 입은 저 거러지 꼴신 좀 봐라.

거렁뱅이: →거랭이.

~거레요: ㉠~거예요.

0. 학교에 곧 갈 거레요.
0. 그 일을 제가 할 거레요.

거름뱅이: →거랭이.

거름데미(걸금데미): ㉠거름데미.

- 두엄데미.
㉡두엄을 싣아 올린 데미.
0. 꾸정물(설겅이물)은 거름데미에 부어라.
0. 따뜻한 봄이 되면 거름데미에서 김이 솟아 오른다.

거룻대(거릿대): ㉠삼지창. ㉡성긴 거름을 퍼 올리는 삼발이.

0. 거룻대로 거름을 퍼 소쿠리에 담는다.
0. 거룻대로 두엄을 논바닥에 골고루 편다.
거릿대: →거룻대.

거렁이: →거랭이.

거마리(그마리): ㉠거머리. ㉡거머릿과의 환형동물.

1. 남에게 달라붙어 괴롭게 구는 사람.
0. 거마리 같이 달라붙는다.(시림들에게 몹시 달라붙어 귀찮게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2. 피를 빨아 먹음.
0. 거마리가 정강이에 붙었다.

거망(거멍): ㉠그슬음. ㉡불에 그슬어 검게 된 부분.

0. 흰옷에 거망 묻을라. 조심해라.

거멍: →거망.

거무: ㉠거미. ㉡거미목 절지동물의 총칭.

0. 거무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준비가 있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
0. 거무 새끼 흩어지듯 한다.(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양을 비유한 말)

거무해(꺼무해, 꺼무티티해, 커무해):

- ㉠거무스름해.
1. 검게 보인다.
0. 사람 얼굴이 좀 거무해.
2. 마음이 검다.
0. 사람이 좀 선명하지 못하고 거무해.

거서: ㉠거기서.

- 0.그 작품들, 모두 거서 거기야.
- 0.응, 그 물건들은 모두 거서 거기야.

~거세: ㉠~것일세.

- 0.그 말이 맞을 거세.
- 0.내 말이 맞을 거세.

거시레미: ㉠거스레미. ㉡거미줄 따위가
그슬려 늘어진 것

- 0.부엌에 낀 거시레미를 걷어내자.

거시름돈: ㉠거스름돈.

- 0.거시름돈을 돌려 받았니?

거양: ㉠그냥.

- 0.거스름돈은 거양 놔둬.

거우: ㉠거위. ㉡오릿과의 새.

- 0.거우가 집을 잘 지킨다.
- 0.거우는 개보다 시끄럽지 않아 좋다.

거저리 눈: ㉡바로 뜨지 못하는 눈.

- 0.거저리 눈으로 그래도 보기는 잘 봐.

거적데기(거적대기. 거치데기):

- ㉠거적대기. ㉡가마니를 펼친 것.
- 0.감자를 거적데기로 덮어라.(햇빛을 보면 독성을 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0.햇간 문은 거적데기로 가려라.(새가 드나들을 방지하기 위함임)

거적대기: →거적데기.

거지: ㉠거저. 그냥.

- 0.그 일은 쉬워서 거지 먹기다.
- 0.이 거 가져가. 거지 주는 거야?

거진(건주): ㉠거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

- 0.감자밭을 거진 다 땀다.
- 0.일이 거진 마무리 되었다.

거짓불(그지뿔. 그짐말): ㉠거짓말.

-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을 함.
- 0.거짓불을 밥 먹듯 한다.(거짓말을 자주 또는 예사롭게 한다)
- 0.거짓불을 보태면~(사실보다 과장해서 말하면~)

거처: ㉡뒤따라 금방

- 1.뒤따라 금방.
- 0.비가 오더니 거처 눈이 내린다.
- 2.순식간에.
- 0.좋은 소식을 듣더니 거처 얼굴이 환해졌다.

거치데기: →거적대기.

거치작거린다: ㉠거치적거린다.

- ㉡움직임에 방해되게 자꾸 여기저기 닿는다.
- 0.앞에서 거치작거리지 말고 저리 비켜.
- 0.자꾸 거치작거리면 일하기 힘들어진다.

거치장스럽다: ㉠거추장스럽다.

- 1.일 따위가 성가시고 귀찮다.
- 0.잔 일이 이것 저것 어찌나 많은지 좀 거치장스러워.
- 2.주체하기가 어렵도록 다루기가 거북하다.
- 0.옷이 커서 좀 거치장스럽다.

~거튼: ㉠~같은,

- 0.나 거튼 사람도 써 주나?
- 0.너 거튼 사람하고는 얘기하기도 싫다.

거퍼: ㉠거꾸. 잇따라. 거듭.

- 0.축구 시험에서 거퍼 두 골을 넣었다.

건내: ㉠건너.

- 1.건너 감.
- 0.뱃사공이 강을 건내 준다.

- 0.소가 강을 건내 간다.
- 2.맞은 편.
 - 0.강 건내 소리친다.
 - 0.강 건내 우리집이 있다.
- 3.뛰어 넘는 곳이나 때.
 - 0.약을 하루 건내콤 먹어라.
- 건네짚는다:** ㉞건너짚는다.
 - 0.너무 건네짚지마. 팔 붙어진다.
- 건네편:** ㉞건너편.
 - 0.건네편에 딸래네 집을 건너다 본다.
- 건늘목:** ㉞건널목.
 - 0.건늘목에 기차오나 조심해라.
- 건다:** ㉞'겉다'에서 온 말.
 - 0.아저씨가 지계를 건다.
- 건다리:** ㉞건달.
 - 1.가진 것 없이 난봉을 부리거나 돌아다니는 사람.
 - 0.건다리들이 행패를 부린다.
 - 2.하는 일도 없이 건들거리는 사람.
 - 0.그 사람 건다리야. 아무 일도 안해.
- 건덕지(건데기. 건디기. 꺾덕지. 꺾데기. 꺾디기. 꺾지):** ㉞꺾터기.
 - ㉞국에서 국물을 뺀 것. 또는 그 알맹이.
 - 1.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국물 이외의 것.
 - 0.나는 국물보다 건덕지가 좋아.
 - 0.소가 처음엔 건덕지만 골라 먹고 국물은 나중에 먹는다.
 - 2.일의 내용. 또는 속내,
 - 0.건덕지가 없으면 국물이라도 있겠지. (좋은 것이 없으면 그만 못한 것이라도 있겠지)

- 0.말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 0.얘기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 건데기: →건덕지.
- 건돌:** ㉞평소에는 말라 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도랑.
 - 0.건돌엔 항상 물이 말라 있다.
 - 0.비가 오니 건돌에 물이 가득 차 흐른다.
- 건드렁거린다:** ㉞건들거린다.
 - 0.건드렁거리지 말고 일 좀 해봐.
- 건등:** ㉞1.그냥. 2.대충.
 - 1.그냥.
 - 0.이번 일은 건등 먹었다.
 - 2.대충.
 - 0.일을 건등으로 하면 되나.
- 건디기: →건덕지.
- 건디린다(근드린다) :** ㉞'건드린다' '건드린다'에서 온 말.
 - 1.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 0.아픈 마음을 자꾸 건디린다.
 - 2.무엇을 조금 움직이게 한다.
 - 0.그거 건디리면 넘어간다.
 - 3.부녀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 0.뒷집 총각이 압집 처녀를 건디린다.
- 건딘다(근딘다): →'건디린다'의 변형.
- 건승:** ㉞건성. ㉞성의 없이 대충 겉으로만 하는 태도.
 - 0.건승으로 책을 읽는다.
 - 0.남의 말을 건승으로 듣는다.
- 건재(꺾재):** ㉞꺾져.
 - 1.물 속에 있는 것을 집어내거나 끌어낸다.
 - 0.물에 빠진 책가방을 얼른 건재.

2. 손해 본 것을 도로 찾는다
 0. 투전하다 잃은 돈은 건재야 돼. .
 3.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구해낸다.
 0. 물에 빠진 사람을 건재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면 오히려 이익을 취하려 든다는 말)

건주: →거진.

건추: ㉠시래기. ㉡배추잎이나 무청을 말린 것.

0. 건추로 된장국을 끓인다.

걸거친다: →가르거친다.

결과(걸귀): ㉠거름을 주어 곡식을 가꾸는 일.

0. 잘 결과야 곡식이 잘 되지.

걸구: ㉠계걸. ㉡마구 먹으려고 하거나 가지려고 탐내는 마음.

0. 걸구가 들렀나. 보지도 않고 먹기만 하네.

0. 흉년에 걸구가 더 든다.(없으면 더 가지려 한다는 말)

걸귀: →결과.

걸금: ㉠거름. 비료. ㉡토지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식물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 뿌려주는 영양 물질.

0. 걸금을 잘해야 낱알이 잘 여물지.
 0. 논밭에 걸금을 낸다.

걸금데미: →거름데미.

걸는다: ㉠걸는다.

0. 아기가 곧잘 걸는다.
 0. 오늘도 하염없이 걸는다.

걸래: ㉠'걸러다', '걸레'에서 온 말.

1.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0. 시동이 잘 걸렸다.

2. 꺼림칙 하다.

0. 섭섭하게 대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3. 시간이 소요 되다.

0. 서울까지 가는데 일곱 시간이 걸렸다.

4. 붙들리다.

0. 통금에 걸레들었다.

5. 운명이 걸려 있다.

0. 이번 일은 내 장래가 걸렸다.

6. 전화를 걸다.

0. 전화가 잘 걸렸다.

걸레들다: ㉠'걸러들다'에서 온 말.

1. 관계하거나 부딪히다.

0. 싸움패에 걸렸다.

2. 꾸며 놓은 구렁에 빠지다.

0. 뒷에 걸렸다.

3. 낚시 등에 걸린다.

0.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에서 온 말.

1. 물건이 매달려 있다.

0. 연이 전깃줄에 걸렸다.

2. 병이 들다.

0. 감기에 걸렸다.

3. 상금 따위가 붙다.

0. 현상금이 많이 걸렸다.

4. 공중에 멈추어 있다.

0. 달이 중천에 걸렸다.

걸레미: ㉠걸레.

0. 걸레미를 뺀다.

0. 걸레미 이리 다와(달라).

걸뱅이: →거랭이.

걸빵: ㉠땀빵. ㉡땀방 끈.

0.붓짐에 걸빵을 걸어라.

0.걸빵이 느슨해졌다.

걸음내기: ㉠달리기 경주.

0.야, 우리 누가 빨리 뛰나 걸음내기 하자.

0.운동회날 걸음내기 해서 공책을 탔다.

걸음하다: ㉡다니다. 오가다.

0.자네 자주 좀 걸음하게.(자주 좀 다니게)

걸찍하다: ㉢걸쭉하다.

1.농담이 상스럽지만 재미있다.

0.농담을 걸찍하게 잘 한다.

2.목소리가 맑지 않고 탁하다.

0.목소리가 걸찍하다.

3.액체가 묽거나 맑지 않고 걸다.

0.콩국이 걸찍한 게 맛이 있다.

걸체: ㉣'걸치다' '걸치어' '걸쳐'에서 온 말.

1.가로질러 걸친다.

0.빨랫줄에 빨래를 걸체 건다.

2.바둑에서 기대어 공격한다.

0.바둑돌을 걸체 놓는다.

3.옷이나 이불을 아무렇게 입거나 덮는다.

0.큰 옷을 걸체 입었다.

4.일정한 시간, 공간, 횟수에 걸쳐 이어진다.

0.여러 방면에 걸체 연구가 이루어졌다.

걸챘다: ㉤'걸쳐', '걸챘다'에서 온 말.

1.기분 좋게 술을 마신다.

0.오늘 막걸리 한자 걸챘다.

2.해가 달이 기울어져 산이나 고개 따위에 걸친다.

0.해가 서산마루에 걸챘다.

검댕이(검댕이): ㉥검둥이. ㉦검은

짐승이나 사람.

0.우리집 개는 검댕이만 네 마리 낳았다.

0.숫가마 옆에서 놀았나? 검댕이가 됐구나.

검부재기(검부쟁이): ㉧가벼운 물건

부스러기.

0.검부재기를 긁어서 외양간에 깔아준다.

0.이 아이가 머 검부재기처럼 가볍잖아!

검부쟁이: →검부재기.

검정깨: ㉨검은 참깨.

0.올해 검정깨가 잘 되었다.

겁대가리: ㉩겁을 낮추어 부르는 말.

0.겁대가리도 없지. 그 일을 네가 맡았어?

0.그 앤 아무 일이 건 겁대가리가 없어요.

게: ㉪기어.

0.참게가 옆으로 게 간다.

0.첫돌 지난 아이가 게 다닌다.

~게: ㉫~에.

0.가을게 언니 잔치한다.

0.지붕게 닭이 올라갔다.

~게끔: ㉬앞의 말을 강조하는 말.

0.잘 먹게끔 해줘라.

0.제멋대로 하게끔 놔 두라.

게더거: ㉭거기다가.

0.그에는 축구를 잘해. 게더가 공부도 잘해.

게따가: ㉮이따가.

0.게따가 올게. 내 것은 놔둬.

0.게따가 우리 자치기 놀이하자.

게란(겨란): ㉯계란. 달걀.

0. 계란을 밥에 넣고 비벼 먹자.
~게로: ㉠~게. ㉡아무 뜻이 없이 '로'가 첨가됨.
 0. 모르게로 해봐.
 0. 좀 알게로 말해 봐.
게붙는다: ㉡자꾸 덤빈다.
 0. 지면서 자꾸 게붙는다.
 0. 게붙어 봤자 머 잇속 있나.
게빡대기: ㉡게 등딱지.
 0. 게빡대기가 엄청나게 크다.
게시무레하다(게심치레하다).
깡게무레하다. 케스므레하다):
 ㉠게슴츠레하다. ㉡잠을 자지 않거나 잠이 와서 눈에 기운이 빠져 보인다.
 0. 잠이 와 눈이 게시무레하다.
 0. 눈이 게시무레한 게 어째 기운이 없다.
 게시치레하다: → 게시무레하다.
게오른다¹: ㉠괴어오른다.
 0. 술이 게오른다.
 0. 죽이 게오른다.
게오른다²: ㉠기어오른다.
 0. 사람이 자꾸 게오르면 쓰나.
게와: ㉠게우다. '게워'에서 온 말.
 1. 먹었던 것을 토한다.
 0. 먹은 음식을 게와. 체했나 봐.
 2. 흠친 재물을 도로 내놓는다.
 0. 과장이 먹었던 돈을 게와 냈대.
게우살이: ㉠겨우살이. ㉡겨우살잇과의 상록 기생 관목.
 0. 참나무에 게우살이가 붙었다.
게운기: ㉠경운기. ㉡동력을 이용하여 논밭을 갈아엎는 농기계.

0. 게운기가 들어와서 농사일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몰라.
게을방학: ㉠겨을방학.
 0. 을 게을방학에 우리 놀러 가자.
게자: ㉠겨자. ㉡십자화과의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0. 울며 게자 먹기다. (역지로 해야 하는 일을 일컫는 말)
게피떡: ㉡팔소를 넣은 반달 모양의 떡.
 0. 설 때 게피떡을 해 먹는다.
겐딘다: ㉠견딘다.
 0. 힘든 일을 잘 겐더야 성공한다.
~겐요(~깼요): ㉠~게요.
 0. 곧 다녀 올 겐요.
 0. 그 일을 제가 맡아 할 겐요.
겐준다: ㉠견준다. ㉡비교한다.
 0. 어느 쪽이 더 좋나 겐준다.
겉백: ㉠결백. ㉡깨끗하고 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음.
 0. 그 사람은 겉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겉혼: ㉠결혼.
 0. 겉혼은 양가의 뜻이 맞아야 이루어 지지.
겼모적어(겼모적어): ㉠겼모적어.
 ㉡미안하고 부끄러워 하는 모양.
 0. 미안하다고 너무 겼모적어 하지 말게.
 겼모적어: → 겼모적어.
 겼모무레하다: → 게시무레하다.
겼기: ㉠시합.
 0. 오늘 겼기를 잘해야 할 텐데...
겼기²: ㉡경제활동 상태.
 0. 요즘 장사 겼기가 좀 어떤가?

쟁기도: ㉠경기도.

- 0. 쟁기도 사람을 경중미인(鏡中美人)이라 했지.(겨울 속의 미인이라. 맑고 예쁘다는 말)

쟁끼: ㉠용기.

- 0. 쓸데없이 쟁끼 부리지 말아.
- 0. 함부로 쟁끼 부리는 게 아니야.

쟁망스럽다: ㉠쟁망스럽다. ㉡말이나

- 행동이 가볍고 방정맞은 데가 있다.
- 0. 쟁망스럽게 놀아서는 못쓴다.

쟁매: ㉠쟁매. ㉡물건을 팔 때 입찰을

- 붙이는 일.
- 0. 쟁매 하는 데 들어가면 싸게 살 수 있어 좋지.

쟁사: ㉠쟁사. ㉡축하할만한 기쁜 일.

- 0. 서울대에 합격했으니 쟁사일세.
- 0. 손주를 봤으니 쟁사가 났네.

쟁상도 보리문둥이(쟁상두

- 보리문둥이):** ㉠쟁상도 사람.
- 0. 쟁상도 보리문둥이를 석전경우(石田耕牛)라 했던가.(돌밭을 가는 소라. 역세디는 말)

쟁상두 보리문둥이: →쟁상도 보리문둥이.

쟁예!(경예!): ㉠경례.

- 0. 차렷, 쟁예!

쟁우: ㉠경우.

1. 사리나 도리.
 - 0. 그 사람은 쟁우가 바른 사람이야.
 - 0. 그건 쟁우에 어긋나는 일이야.
2. 놓여 있는 조건이나 사정.
 - 0. 만일의 쟁우에도 대비해야지.
 - 0. 비가 올 쟁우에는 어떡해.

쟁찰: ㉠경찰.

- 0. 쟁찰이 도둑을 잡았대..

쟁찰서: ㉠경찰서.

- 0. 쟁찰서는 밤낮으로 근무한다.

쟁포대: ㉠경포대.

- 0. 쟁포대에 벚꽃 구경 가세.

겨란: →계란.

경예!: →쟁예!

경첩: ㉠경첩. ㉡이십사절기의 하나. 3월

- 5일경.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따위가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임.
- 0. 경첩에 개구리가 뛰어 나온다.
- 0. 경첩 추위에 물동이가 얼어 터진다. (추위가 아직 남아 있다는 말)

계갈이: ㉠계 유사. 계를 맡아서 처리하는

- 일.
- 0. 계갈이 한다고 저녁에 우리식당으로 모이래.
- 0. 이번 계갈이는 누구 차진고?

계란 노른자: ㉠중심에 선 알맹이.

- 0. 그 사람은 계란 노른자처럼 알뜰한 사람이야.

계서요?: ㉠계세요?

- 0. 주인장 집에 계서요?

계시오니까?: ㉠계시옵니까?

- 0. 요즈음 안녕히 계시오니까?

계추: ㉠계의 추렴. 계모임.

- 0. 문중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여 계추를 한다.

고: →거계.

고개를 넘는다: ㉠고비를 넘긴다.

0. 힘든 일의 고개를 넘는다.

고개말게(고개말랭이): ㉞고갯마루.

0. 고개말게 넘기가 힘들어.

0. 고개말게 우리 발이 있다.

고개말랭이: →고개말게.

고개 진다: ㉞고개 숙인다.

0. 이제 벼 이삭이 고개 진다.

0. 조 이삭도 고개 지더라.

고걸: ㉞그걸. 그것을.

0. 고걸 꼭 샀으면 좋겠다.

0. 고걸 어따(어디다) 쓰나?

고개: →거게.

고고(고그): ㉞고것.

1. 그것을 앞잡아 부르는 말.

0. 고고이 사실이렸다.

2. 그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0. 고고 참 예쁘게도 생겼다.

고구마 같다: ㉞못생졌다.

0. 얼굴이 못나 꼭 고구마 같다.

고그: →고고.

고기: →거게.

고깃저름: ㉞고깃점. ㉞고기의 작은 조각.

0. 오뉴월에 찰떡 한 조각은 고깃저름 하나와 같지.

고까진 거(고깐너머 거): ㉞고까짓 것.

그까짓 것. ㉞겨우 고만한 정도.

0. 고까진 거 머 안 먹어도 돼.

0. 고까진 거 머 안 하면 어때.

고깐: ㉞곳간. 고방.

0. 고간에 과줄 있다. 꺼내 먹어라.

고깐너머 거: →고까진 거.

고내이(고앵이): ㉞고양어. ㉞고양잇과의

짐승.

0. 고내이 낮썩만 하다.(매우 좁음의 비유)

0. 고내이 달걀 굴리 듯.(일을 교묘하고 재치있게 해 나가는 모양)

0. 고내이 목에 방울 달기.(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공연히 의논함을 이룸)

0. 고내이 보고 생선 가게 지키라는 격이다.(부탁했다가 도리어 잃게 됨의 비유)

0. 고내이와 개 사이.(서로 앙숙인 관계를 말함)

0. 고내이 앞에 고기 반찬.(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남이 손 댈 틈 없이 차지해버린다는 뜻)

0. 고내이 쥐 생각하듯.(속으론 해칠 마음이나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의 비유)

고담: ㉞그 다음.

0. 고담에 온 사람 이리 와요.

0. 이것을 먼저하고 그 일은 고담에 하자.

고동선(고동선): ㉞감의 일종. 크고 물에 잘 우러나는 감.

0. 고동선을 소금물에 담가 뚫은 맛을 우려낸다.

고두름(고두름): ㉞고드름. ㉞낙숫물

따위가 흘러내리다가 길게 얼어붙은 얼음.

0. 처마 끝에 고두름이 달렸다.

0. 한겨울엔 고두름이 많이 달린다.

고두름: →고두름.

고동선: →고동선.

고등선(고등애): ㉞고등어. ㉞고등엇과의

- 바닷물고기.
0.오늘 장에 가서 고등선 한 손 사왔다.
고등애: →고등선.
- 고등패기(꼬등패기):** ㉠언덕배기. 언덕바지. ㉡언덕 꼭대기 또는 언덕의 경사가 심한 곳.
0.고등패기 밭에 오르내리자니 힘이 든다.
- 고딤소리(그면소리):** ㉠그런 소리. ㉡그와 같은 소리.
0.그딤소리는 들었거든 잡자코 있어.
0.그딤소리 하지마. 남이 들으면 웃겠다.
- 고라뎡이:** ㉠큰 골짜기.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여 들어간 곳.
0.고라뎡이가 무척 깊다.
0.깊은 고라뎡이엔 혼자 가기가 무섭다.
- 고랑탕:** ㉠골탕. ㉡손해를 입거나 낭패를 보는 일.
0.그 일을 하려면 고랑탕 먹는다.
- 고래심줄:** ㉠고래힘줄의 변한 말.
0.낙심줄이 고래심줄이야. 엄청나게 질겨.
- 고레자기:** ㉠고려자기.
0.고레자기는 값이 엄청나게 나간대.
- 고레장:** ㉠고려장. ㉡고구려 때 나이 많은 사람을 산속 구덩이 속에 버려뒀다가 죽으면 묻었던 일.
0.옛날에는 고레장 하는 일도 있었다.
- 고름:** ㉠고름. ㉡상처에 생기는 누르스름한 액체.
0.상처에 고름 생기기 전에 약 발라라.
- 고르메:** ㉠파랏과의 해초. 동해안 연안 바위에 자란다.
0.고르메를 구워 먹으면 김보다 진한 향이 나온다.
0.바닷가에 고르메 굽으러 가자.
- 고마(고만):** ㉠그만. ㉡그 정도까지만.
0.일 고마 하고 새참 먹으러 나가세.
- 고마와:** ㉠고마워. ㉡고마움의 표현.
0.아이고 고마와. 이 은혜를 언제 갚나.
0.일전에 선물을 보내줘서 고마와.
- 고마이지:** ㉠그만이지. ㉡더 이상 갈 게 없다는 말.
0.물고기 낚시엔 지렁이가 고마이지.
0.해장국엔 물곰탕이 고마이지.
- 고만: →고마
- 고만한:** ㉠그만한. ㉡그만한 정도.
0.고만한 송아지가 또 어디 있나. 사도록 하자.
0.고만한 일 가지고 뭘 그래.
- 고 먼저:** ㉠그 먼저.
0.만딸이 고 먼저 왔다 갔어.
0.보리 타작은 고 먼저 끝내고 밀 타작은 다음에 했지.
- 고목낭게 매미:** ㉠고목 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처럼 큰 것에 작은 것이 붙어 있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저 부부 모양새는 고목낭게 매미가 붙은 것 같다.
- 고무다락:** ㉠고미다락. ㉡지붕 사이의 빈 곳.
0.고무다락에 귀한 것을 보관한다.
- 고무줄 총:** ㉠새총. ㉡가닥진 나무에 고무줄을 걸어 새를 잡는 기구.
0.그 애는 고무줄 총으로 새를 잘 잡아.

고무질방: ㉠행동이 느린 사람.

- 0.그 고무질방한테 일을 맡겨?
- 0.그 사람 고무질방이야. 끼준 돈 빨리 받기 힘드네.

고물짜: ㉠구호 물자. ㉡재난 재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는 물자.

- 0.6.25 전쟁 때 미국 고물짜 덕분에 많이 살아났지.

고뱅이: ㉠무릎과 오금을 통틀어 말함.

- 0.고뱅이가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
- 0.고뱅이 아픈데 뭐가 약이라 했나?

고뽕이: ㉠고삐. ㉡소 코뚜레나 말의 재갈에 잡아 매어 물거나 부릴 때 쓰는 줄.

- 0.소 고뽕이 밝히지 않게 잘 몰아라.
- 0.소 고뽕이 풀릴라 단단히 매어라.

고상: ㉠고생.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는 생활.

- 0.고상 끝에 낙이 온다.(어려운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 0.고상을 사서 한다.(자기 잘못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다는 말)

고상문(고상줄): ㉠고생길. 고생문.

- 0.된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고상문이 열렸다.
- 0.나이 들어 군대에 갔으니 고상문이 흰하지며.
- 0.청상과부가 되었으니 고상문이 흰하다.

고상받기: ㉠항복받기. ㉡조이거나 꺾기로 항복을 받아내는 놀이.

- 0.우리 고상받기 놀이하자.
- 0.아이들이 모래판에서 고상받기 놀이를 한다.

고상줄: →고상문.

고습다(고시다. 꼬소하다. 꼬습다.

꼬시다): ㉠고소하다. ㉡고소한 냄새가 난다.

- 1.볶은 참깨 따위의 냄새나 맛이 난다.
 - 0.어머니께서 볶은 들깨가 고습다.
- 2.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해 한다.
 - 0.고놈이 벌 받는 게 어찌나 고습던지.

고시네(꼬시네. 꼬시레): ㉠고수레.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 0.고시네! 오늘 무사하게 해 주십시오.
- 0.고시네! 즐겁게 놀다 가게 해 주세요.

고시다: →고습다.

고실고실하다1: ㉠고슬고슬하다. ㉡밥이 되지도 질지도 않은 모양.

- 0.밥이 고실고실하게 잘 됐다.

고실고실하다2: ㉠고슬고슬하다.

- ㉡머리카락이 고슬고슬한 모양.
 - 0.머릿결이 고실고실한 게 예쁘다.

고아(고와. 파): ㉠달여. ㉡끓여서 진하게 만드는 일.

- 0.사골을 푹 고아 먹어.
- 0.산후에는 가물치를 고아 먹으면 좋지.

고얌(괘): ㉠고얌. ㉡고얌나뭇과의 열매. 감과 비슷하나 크기가 작다.

- 0.고얌이 감보다 달다.(작은 것이 큰 것보다 오히려 알차고 질이 좋다는 말)
- 0.남의 제사에 고얌 뇌라 감 뇌라 한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말)

고앵이: →고내이.

고와: →고아.

고이기(괘기. 괴기): ㉠고기.

- 1. 먹을거리로 쓰는 온갖 동물의 살.
 - 0. 고이기 값을 한다. (몸집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거나 제구실을 한다)
 - 0. 고이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버려야 좋다는 말)
- 2. 물고기를 줄여 이르는 말.
 - 0. 다 잡은 고이기를 놓쳤네.

고이한(고한): ㉠고얀. ㉡언행이나 성미가 아주 못된.

0. 얘끼, 이 고이한 놈 같으니라구.

고 자래: ㉠그 자리에.

- 0. 가지고 놀다 고자래만 갖다 놔.
- 0. 꿩이를 쓰고 고자래 갖다 놔.

고자바리(고작바리. 꼬작바리):

- ㉡베어낸 소나무의 썩은 그루터기.
- 0. 고자바리 하러 가세.
- 0. 고자바리는 가려두면 잘 마른다.

고작바리: →고자바리.

고재: ㉠고자. ㉡생식기가 완전하지 못한 남자.

0. 그 사람 고재나? 아이를 못 낳게.

고질(깍지. 꼬질): ㉡마소를 먹이기

- 위하여 말려서 썬 짚이나 마른 풀.
- 0. 소 여물 꿩이게 고질을 퍼 오너라.
- 0. 콩 고질은 구수해 소가 잘 먹는다.

고질거리(깍지거리): ㉡고질(여물

거리)을 가려두는 거리.

0. 고질거리 문 꼭 닫아라. 새 들어간다.

고집폐기(옹고집폐기): ㉠고집. ㉡자기

- 의견을 굳게 내세워 버티는 성질.
- 0. 소가 고집폐기가 좀 세서 부리기가 힘들어.

고짱: ㉠그쪽.

- 0. 고짱 것 이리 가져와.
- 0. 자네는 고짱에 일을 하게.

고체: ㉠고쳐.

- 0. 그 나쁜 버릇은 고체.
- 0. 잘 못 된 일은 바로 고체.

고초(고치. 꼬추. 뎡고지): ㉠고추.

- ㉡가짓과의 한해살이풀.
- 0. 고초밭에 물을 준다.
- 0. 고초 썬이 실한 게 잘 달리겠다.

고치: →고초.

고치장(꼬초장. 꼬추장. 꼬치장):

- ㉠고추장. ㉡메춧가루에 질게 지은 밥이나 떡가루를 넣어 버무리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어 담근 매운 장.
- 0. 감자, 보리밥에 고치장 썩썩 비벼 먹던 시절이 생각난다.
- 0. 비빔밥에는 고치장을 넣어야 제맛이 나온다.

고한: →고이한.

고향섭: ㉡바닷가 바위에 자라는 작은 홍합.

- 0. 고향섭도 맛이 꽤 구수해.
- 0. 섭을 못 캐면 고향섭이라도 캐 먹지.

곡간(도장): ㉠고방. ㉡은밀한 방. 주로

- 쌀독을 보관함.
- 0. 곡간에서 쌀을 꺼내 온다.

0.곡간에서 인심 난다.(식량이 넉넉하면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

곡석: ㉠곡식. 곡물.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조, 콩, 수수 따위의 총칭.

0.올해는 날씨를 잘해서 곡석이 잘 여물었다.

0.흉년엔 뱀이 곡석을 먹는다.(흉년엔 기근이 들어서 육식을 하는 뱀까지 곡석을 먹으려 든다는 말의 비유)

곡소리 난다: ㉠우는 소리가 아니고 매우 혼난다.

0.잘못을 저질렀으니 이제 곡소리 난다.

곤자리: ㉠굼벵이. ㉡매미의 애벌레.

0.고구마를 곤자리가 파먹었다.

곤지: ㉠이리. ㉡물고기 수컷의 배 속에 들어있는 흰 정액 덩어리.

0.명태 수놈이라야 곤지가 나오지.

0.곤지로 해장국을 끓인다.

곤지미장대: ㉠빨래 줄을 떠 받치는 장대.

0.빨래가 땅에 닿을까 봐 빨래 줄을 곤지미장대로 더 올린다.

곤체: ㉠'고치다' '고쳐'에서 온 말.

㉡모양이나 위치를 바르게 한다.

0.옷 매무새를 곤체.

곤챌다: ㉠'고치다' '고쳤다'에서 온 말.

1.병을 낫게 한다.

0.아픈 허리를 곤챌다.

0.위장병을 곤챌다.

2.처지를 바꾼다.

0.시집을 잘 가 팔자를 곤챌다.

곤총: ㉠권총. ㉡한손으로 쓸 수 있는 작은 총.

0.형사는 곤총을 몸에 숨기고 다닌대.

곤친다: ㉠'고치다' '고친다'에서 온 말.

1.잘못된 일이나 마음을 바로 잡는다.

0.나쁜 버릇을 곤친다.

2.틀린 것을 바로 잡는다.

0.틀린 답은 곤친다.

3.제도나 이름 따위를 바꾼다.

0.상호를 곤친다.

4.손질하여 잘 만든다.

0.소 잃고 외양간 곤친다.(일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이르는 말)

곤투(곤투): ㉠권투. ㉡두 사람이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0.우리나라 선수가 곤투 시합을 하면 잠을 안 자고 응원을 했다.

0.장정구는 곤투를 잘했고 곤투로 일생을 마쳤다.

곤바루(막바루): ㉠곤바로.

1.바로 즉시.

0.집에 갔다 곤바루 올 게.

2.사실대로.

0.곤바루 말하지 못할까.

3.곧은 방향으로.

0.곤바루 뺨은 길이다.

4.거치지 않고.

0.학교 끝나고 곤바루 집에 오너라.

5.가까이.

0.모퉁이를 돌면 곤바루 가게가 있다.

골군다: ㉠가즈런히 고르게 한다.

- 0.미나리 단을 가지런히 골군다.
- 0.씨래로 논바닥을 평평하게 골군다.

골군다2: ㉠골탕 먹인다.

- 0.힘 없는 애를 자꾸 골군다.

골래: ㉡골라. ㉢골라내는 일.

- 0.주워 온 밤을 좋은 것만 골래.
- 0.씨름 선수는 튼튼한 사람만 골래 뽑는다.

골로(글로, 글루): ㉣1.그 것으로, 2.그 곳으로.

- 1.그 것으로.
 - 0.글로 대만족이야.
 - 0.글로 일단 마무리 하지.
- 2.그 곳으로.
 - 0.글로 가겠어?
 - 0.글로 가면 고향 땅인데 못 가는 신세.

골르다: ㉤고르다

- 1.동사형.
 - 0.하나를 골르니 남은 것이 더 좋아 보인다.
 - 0.골르다 씨골른다.(너무 고르면 그만 못한 것을 고른다는 말)
- 2.형용사형.
 - 0.성적이 쪽 골르다.

골밈한다: ㉥밥을 끓여 허기진 사람에게 실컷 먹인다.

- 0.강아지가 정월 대보름에 골밈한다.(정월 대보름에는 길거리에 음식을 내 물리는 일이 많아서 강아지가 먹을 것이 많음을 비유한 말)
- 0.거지가 굶다가 오늘 실컷 골밈한다.

골방쥐: ㉦생쥐. ㉧집 주변에 사는 작은

- 쥐.
- 0.골방쥐가 방구석에서 나온다.
- 0.저 골방쥐 잡아라.

골아데이(골아덩이): ㉨큰 골짜기.

- ㉩깊은 골.
- 0.그 골아데이 산엔 송이가 잘 난다.
- 0.옛날엔 그 골아데이에 호랑이가 나와 앉았다.

골아덩이: →골아데이.

골짜구(골짜구니, 골태기, 골탱이):

- ㉪골짜기.
- 0.저 골짜구에도 논이 있단다.
- 0.골짜구 논은 응달이져 벼가 잘 안된다.

골짜구니: →골짜구.

골태기: →골짜구.

골탱이: →골짜구.

곰방: ㉫곰방.

- 0.곰방 밥 먹었어.

곰버섯: ㉬까치버섯. ㉭굴곡이 많은 검은 버섯.

- 0.가을엔 곰버섯을 시작으로 송이, 능이가 차례로 나지.

곰이씩 한다: ㉮기척이 없다. 모른 채한다.

- 0.그릇을 빌려 가곤 곰이씩 한다.
- 0.돈을 꾸리 가곤 곰이씩 한다.

곰춘다(곰친다): ㉯감춘다.

- 1.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긴다.
 - 0.돈을 서랍 속에 곰춘다.
- 2.어떤 사실이나 감정 따위를 남이 모르게 한다.

0.기쁨을 곱추지 못한다.

곰치(물곰. 물메기. 물텀벙):

㉠바닷물고기의 하나. 배에 빨판이 있고
껍질에는 진액이 있음.

0.곰치는 옛날에는 먹지 않고 도로
바닷물에 던져서 물텀벙이란 별명을
얻었다지.

0.곰치가 이젠 해장국 감으로 금값이래.
곰친다: →곰춘다.

곰탱이(미련곰탱이): ㉠미련통이. ㉡
몹시 미련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0.그 사람은 곰탱이 같이 일만 할 줄
알아.

0.그양반은 미련 곰탱이야.

곰파구(곰팽이): ㉠곰팡이. ㉡하등 균류의
총칭.

0.음식에 곰파구가 피었다.

곰팽이: →곰파구.

곰단이: ㉠예쁜 여자 아이.

0.우리 곰단이가 왔네.

곰뎡이(곰뎡이. 곰등어. 곰딩이):

㉠돌고래. ㉡돌고래과의 포유동물.

0.곰뎡이 고기가 장에 났더라.

0.곰뎡이 고기 맛은 소고기 같애.

곰뿔: ㉠감기. 고뿔. ㉡주로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는 호흡기 계통의 질환.

0.오뉴얼 곰뿔은 개도 안 걸린다.

0.찬 바람을 쏘였더니 곰뿔이 오는가 봐.

곱사리: ㉠곱게.

0.곱사리 차려입고 어디로 가나.

0.신부가 새 옷을 곱사리 차려입었다.

곱사리킨다: ㉠곱사리킨다.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들.

0.괜히 곱사리끼지 말고 저리 비켜.

곱추(곱새): ㉠곱사. 곱사등어. 곱추.

㉡등이 곱은 사람.

0.그 사람 곱추 장애가 있어.

공구리: ㉠콘크리트를 치는 일.

0.공구리를 치면 단단하지.

0.오늘 다릿발 공구리 친대.

공군다: ㉠고르게 다듬는다.

0.팽이 자루를 매끄럽게 공군다.

0.빨래 방망이를 공군다.

공글대: ㉠곡식을 되나 말로 사고 팔 때
위를 고르는 막대.

0.쌀을 살 때는 공글대를 가볍게 민다.

쌀이 덜 벗어나게.

0.쌀을 팔 때는 공글대를 힘줘 민다.

쌀이 많이 벗어나게.

공긴다: ㉠곰긴다.

1.상처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들게 된다.

0.상처를 놔뒀더니 공긴다.

2.내부에 갈등, 모순, 부패 등이 쌓여
터질 정도에 이른다.

0.내부 갈등이 공긴다.

과개하다: ㉠과거하다.

1.과거 하다.

0.옛날에 할아버지께서 과개하셨대.

2.큰 일을 성사시키다.

0.서울대에 갔으니 과개했네.

과부대돈벤: ㉠과부 대돈 벤. ㉡매달 돈
한 냥에 한 돈씩 늘어가는 매우 비싼
변리 돈.

0.과부 대돈벤을 내서라도 그 돈은 꼭

값는다.

과부조합장: ㉠과부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0. 저사람 과부조합장 같애. 과부들과 잘 어울리는 걸 보면.

과재: →가재.

과질: ㉡과줄. ㉢명절, 잔치 때 쓰기 위하여 만드는 한과.

0. 명절엔 과질을 만들어 먹는다.

0. 떡은 훑쳐 먹어도 과질은 훑쳐먹지 못한다.(과줄은 먹다 보면 곁에 묻힌 광밥(뽕튀기)이 떨어지므로 흔적이 남아 들킨다는 뜻)

곽때기: →각쫂가리.

곽쫂가리: →각쫂가리.

관뒤: ㉣그만뒤.

0. 먹기 싫거든 관뒤.

0. 일하기 싫거든 관뒤.

팔세: ㉤팔시. 팔대. ㉥업신여김.

0. 거지는 팔세 받고 살지 머.

0. 없다고 팔세 말아.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어.

광난: ㉦복통. ㉧복부 통증의 총칭.

0. 음식을 날 것으로 먹었더니 광난이 인다.

광난에 아흠대: ㉨골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0. 그 사람 담배 버릇은 광난(복통)에 아흠대야.

광밥(광밥): ㉪뽕튀기. ㉫쌀이나 옥수수 따위를 튀긴 것.

0. 쌀 광밥을 과줄에 올린다.

0. 옥수수 광밥은 심심풀이 간식으로 좋다.

광애: ㉬광어. 넙치.

0. 광애는 양식이 돼도 가자미는 안된다.

광이: ㉭광이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데 쓰는 농기구.

0. 광이 이리 가져 온.

0. 광이로 감자밭을 파야겠다.

광지리: ㉯광주리. ㉺대, 싸리, 버들 등으로 엮어 만든 등근 그릇.

0. 고욤을 광지리에 담아 삭혀서 겨울에 먹는다.

0. 고추를 따서 광지리에 담는다.

괘기: →고이기.

괘니: ㉻괘히. ㉼공연히. 쓸데없이.

0. 그 아이를 괘니 오라 했어.

0. 그 일을 괘니 했잖나. 다 쓸모가 있겠지.

괘악질(귀역질): ㉽구역질. ㉾차 멀미 등으로 토하고 싶어짐.

0. 차 멀미가 나서 괘악질을 할 뻔했다.

0. 지저분한 것을 보면 괘악질이 절로 난다.

괘기찰다: →괘찰다.

괘기: →고이기.

괴롭다: ㉿괴롭다.

0. 싸움을 하면 마음이 괴롭다.

괴비¹: ㊱식물 고비.

0. 괴비 뜯으러 산에 간다.

괴비²: ㊲힘든 고비.

0. 어려운 괴비는 이제 넘겼다.

괴뻐: ㊳고뻐. ㊴코뚜레나 말의 재갈에

잡아매어 몰거나 부릴 때 당기는 줄.

0. 피삿을 늦춘다.(감시를 누그러뜨려 관대 하게 대한다는 말)

0. 피삿을 죄다.(감시나 주의를 심하게 한다는 말)

괴신다(괴운다): ㉠과일, 제사 음식 등을 제기에 썰어 올린다.

0. 제사에 쓸 대추를 제기에 괴신다.

0. 떡을 편기(떡을 썰는 그릇)에 괴신다.

괴운다: →괴신다.

괘: →고얌.

굉일: ㉡공일. ㉢일 하지 않고 쉬는 날.

0. 굉일은 꼭 쉴 수 있어 좋다.

0. 이번 굉일엔 콩밭을 매자.

~구: ㉣고. ㉤말이나 문장 따위를 병렬로 연결하는 말.

0. 공부하구 놀아라.

0. 남이구 내구 간에 다 잘못이 있구만.

0. 돌구 돌아 여까지 왔다.

0. 떡 많이 얻으려구 애기 업구 시제 지내는 데 따라간다.

0. 모르구 한 일인데 머.

0. 사람 생기구 돈 냈지, 돈 나구 사람 났나?

0. 쳐다보지 말구 내려다보면 편하지.

0. '이리 오너라. 업구 놀자!' 춘향전 대사.

구구: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생각.

0. 그 앤 구구를 잘 해낸다.

0. 어떻게 해야 될지 구구가 안 난다.

구녕(구영, 궁기, 귀영): ㉦구멍.

㉧파냈거나 빠져나가는 길.

1. 기회의 비유.

0. 쥐 구녕에도 별들 날 있다.(언젠가는 기회가 올 날이 있다)

2.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

0. 아무리 어려워도 빠져나갈 구녕은 있다.

3. 파냈거나 뚫어진 자리.

0. 구녕은 깎을수록 커진다.(허물은 변명하고 얼버무릴수록 더욱 드러난다)

0. 구녕을 보아가며 췌기를 깎는다.(형편을 보아가며 거기에 알맞게 일을 해야 한다)

4. 허점이나 약점의 비유.

0. 그물에 구녕이 뚫렸다.

구덕살(꾸덕살): ㉨굳은살. ㉩짚은 마찰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생긴 굳어진 살.

0. 발바닥의 구덕살이 딱딱하다.

0. 손바닥에 구덕살이 박혔다.

구데기(구디기, 까시): ㉪가시. 구더기.

㉫파리의 애벌레.

0. 생선에 구데기 쓸라. 망으로 가려라.

0.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방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

구텅이: ㉬구덩이. ㉭땅을 움푹하게

파거나 파낸 굴.

1. 땅속을 파 들어간 굴.

0. 6.25 전쟁 때는 방공호 구텅이를 뚫지

2. 땅이 움푹하게 패이거나 파낸 곳.

0. 감자 구텅이를 파거라.

구들: ㉮구들. 방구들.

0. 밥 잘 먹고 구들 뜨시면 그게 행복 이지.

구들빼: ㉠구들빼. 구들장. ㉡방고래 위에 놓아 방바닥을 만드는 넓고 얇은 돌.

0. 구들빼를 잘 봐야 거울을 뜨시게 나지.

0. 아버지께서 구들빼를 공들여 놓으신다.

구디기: →구데기.

구람: ㉠도토리. ㉡떡갈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과의 열매.

0. 먼 산에 구람 주우러 가세.

0. 구람은 다람쥐, 곰의 겨울 식량인데 뺏어오면 되겠다.

구람묵: ㉠도토리묵.

0. 구람묵을 먹으면 산골 맛이 난다.

구래요: ㉠그래요.

0. 아저씨 오시라 구래요.

0.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 구래요.

구러던데(그리던데): ㉠그러던데.

0. 구장이 구러던데 우리 동네 전기가 들어온대.

0. 아저씨가 구러던데 아랫마을에 학교가 들어선대.

구렁창: ㉠개골창.

1. 수채물이 흐르는 지저분한 작은 개울.

0. 발을 헛딛어 구렁창에 빠졌다.

2. 어려운 일에 빠진 모양.

0. 일이 꼬여 구렁창에서 헤맨다.

구렁텅이(쿠렁): ㉠구렁. ㉡땅이 움푹하게 팬 곳이나 어려운 환경.

1. 땅이 움푹하게 팬 곳.

0. 구렁텅이에 빠질라. 조심해라.

2.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든 어려운 환경.

0.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왔다.

구렁이: ㉠구렁이. ㉡큰 뱀의 하나. 집

근처의 담이나 돌무덤에 자주 나타난다.

0.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한다.(일을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리버림의 비유)

구름: ㉠구름. ㉡공기중의 수분이 영기어 물방울이나 얼음이 되어 떠 있는 것.

0. 구름 같이 모여든다.(한꺼번에 많이 모여든다)

0. 구름을 잡는다.(뚜렷하지 아니하고 막연해서 건잡을 수 없음의 비유)

구멍동서(구멍동세. 말뚝동서.

말뚝동세): ㉡한 여자를 윤간한 동서.

0.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 구멍동서 된다.

구멍동세: →구멍동서.

구박: ㉡나무를 파서 만든, 함지보다 작은 그릇.

0. 구박에 담아 논 감자 깎아라.

0. 소 먹일 등걸을 구박에 퍼 오너라.

구베: ㉠굽이. ㉡휘어져 굽은 곳.

0. 산 모퉁이 한 구베 돌면 마을이 나온다.

구분다(꾸분다): ㉡구르다 '구른다'에서 온 말.

0. 공이 잘 구분다.

0. 어이들이 언덕에서 데굴데굴 구분다.

구불령하다(꾸불령하다): ㉠굽어있다.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

0. 막대기가 구불령하다.

0. 구불령한 철사를 반듯하게 편다.

구불린다(꾸불린다): ㉠구부린다.

0. 철사를 구불린다.

0.허리를 구불린다.

구석배기: ㉞구석.

1.드러내지 아니하고 치우쳐 있는 것.

0.산골 구석배기에 산다.

2.마음이나 사물의 한 부분.

0.마음의 빈 구석배기를 채울 뉘가
있나?

3.모퉁이의 안쪽.

0.구석배기에 웅크리고 앉은 사람은
누구야?

구술: ㉞구술. ㉠유리나 보석으로 둥글게
만든 것.

0.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다는 말)

구술군다(구술군다. 구시른다):

㉞구술린다. ㉠그럴듯한 말로 상대를
편다.

0.그럴 듯한 말로 살살 구술군다.

0.마음을 솔깃하게 구술군다.

구술군다: →구술군다.

구시른다: →구술군다.

구실치기: ㉞구실치기.

0.야, 우리 구실치기 하자.

구영: →구녕.

구이하니까: ㉞구이하니까.

0.응답은 좋은 약이지만 워낙
구이하니까 쓸 수 있겠나?

구장: ㉞이장. ㉠마을 일을 맡아보는 사람.

0.동네 구장을 새로 뽑는데.

0.동네 구장이 일을 잘 봐야 동네가
편하다.

구찮다: ㉞구찮다.

0.자꾸 매달리니 이젠 구찮다.

구척: ㉞장신. ㉠키가 큰 사람.

0.그 사람 키가 구척이야.

구친다: ㉠날씨가 말썽을 부린다.

0.길을 떠나려는데 날씨가 구친다.

구쿨었다: ㉞부풀었다. ㉠살가죽이 붓거나
부르터 올랐다.

0.걸음을 많이 걸렀더니 발바닥이
구쿨었다.

0.호미질을 했더니 손바닥이 구쿨었다.

구텅이(귀테기. 귀텅이. 귀티기.

귀텅이): ㉞모서리. ㉠물건의 뼈죽 내민
부분이나 모퉁이. 사물이나 마음의 한
구석.

1.모퉁이.

0.책상 구텅이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2.마음 한구석.

0.마음 한 구텅이에 아직도 섭섭함이
남아 있다.

국방군: ㉞국군. ㉠우리나라 군대.

0.6.25전쟁 때 청년들이 국방군에
뽑혀나갔다.

국시: ㉞국수. ㉠메밀가루, 밀가루 등을
되게 반죽하여 손으로 얇고 넓게 밀어
늘고 길게 썰거나 국수틀로 눌러 만든
음식.

0.국시 먹은 배.(실속이 없고 헛뜨다는
뜻)

0.국시 잘하는 솜씨가 수재비 못하랴.
한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와
비슷한 일을 못할 리가 없다는 뜻)

군더데기: ㉞군더더기. ㉸쓸데없이 덧붙는 것.

- 0. 군더데기 붙이지 말고 명료하게 얘기해봐.

군더뜰군다(군더뜰군다): ㉞넘어뜨린다.

- ㉸1. 쓰러뜨린다. 2. 권세를 꺾는다.
 - 1. 쓰러뜨린다.
 - 0. 단지를 군더뜰군다.
 - 2. 권세를 꺾는다.
 - 0. 그 사람 권세를 누가 한번 군더뜰꺾 봐.
- 군더뜰군다: →군더뜰군다.

군더진다: ㉞넘어진다.

- 0. 씨름을 잘 하다 힘없이 군더진다.

군맨두: ㉞군만두. ㉸기름을 발라 불에 구운 만두.

- 0. 군맨두가 더 고소해.

군서방질: ㉞새 서방질.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정을 통하는 짓.

- 0. 그집 아주머니가 군서방질 했다.

굴뚝거리(굴뚝머리): ㉸굴뚝이 있는 곳.

- 0. 굴뚝거리에다 장작을 가린다.
- 0. 굴뚝거리에 오줌동이가 놓여 있다.

굴뚝머리: →굴뚝거리.

굴아구(굴아우): ㉸굴 어귀. 굴에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 0.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아구를 지켜야 돼.

굴아우: →굴아구.

굴이 핀다: ㉸구재가 탄다.

- 0. 굴뚝에 낀 구재에 불이 붙어 굴이 핀다.

굴피낭구(굴피낭그. 굴피낭기):

㉞굴참나무. ㉸참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 0. 굴피낭구 껍질로 지붕을 덮는다.

굴피낭그: →굴피낭구.

굴피낭기: →굴피낭구.

굶물(꼭물): ㉞국물.

- 1. 국, 찌개 따위의 음식에서 건더기를 제외한 물.
- 0. 굶물을 흘렸다.
- 0. 건더기만 먹고 굶물은 남겨라.
- 2. 어떤 일의 대가로 생기는 약간의 이득.
- 0. 굶물이 생기는 일자리다.(가외 이득이 있다)
- 0. 까보면 굶물도 없다.(조그만 이득도 없다)
- 0. 동업을 했는데 굶물도 없이 다 날려버렸어.(동업을 했는데 밀천까지 없어졌다는 말)

굶지렁거린다(굶지렁댄다.

굶지렁거린다. 굶지렁댄다):

- ㉞구물거린다. 굶적거린다. 꾸물거린다.
- 굶적거린다. 굶적댄다.
- 0. 시간이 없는데 굶지렁거린다.
- 0. 바빠 죽겠는데 굶지렁거린다.

굶지렁댄다: →굶지렁거린다.

굶굽하다: ㉞출출하다. ㉸배가 고픈 느낌이 든다.

- 0. 한밤중이 되니 굶굽하다.
- 0. 굶굽하다 하지 말고 냉수라도 마셔.

굶배기(꼭배기):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

- 0. 그 사람 굶배기야. 돈 안 써.

0.굽배기 노릇은 하지 말아야지.

굽어: ㉞굽어. ㉟손가락 발가락 등이
열어서 감각이 없는 상태.

0.손가락이 굽어 오면 입김으로 녹여
봐.

0.추워서 발가락이 굽어 감각이 없다.

긋는다: ㉞긋는다.

1.나무를 태워 숯을 만든다.

0.참나무로 숯을 긋는다.

2.바닷물을 햇볕에 쬐어 소금만 남게
한다.

0.소금을 긋는다.

3.벽돌, 도자기 등을 가마에 넣고 불을
땀다.

0.옹기를 긋는다.

4.불에 익히거나 타게 한다.

0.고기를 긋는다.

5.사진의 음화를 인화지에 옮겨 양화로
만든다.

0.사진을 긋는다.

궁계¹: ㉞궁계에.

0.바늘 궁계 실을 꿰어라.

0.취 궁계 취 들어갔다.

궁계²: ㉞굽겨.

0.정월 대보름엔 개를 궁계.

(푸닥거리하느라 길거리에 먹을 게
준비하니까)

궁구른다(궁군다. 궁근다): ㉞궁구른다.

㉟돌면서 옮아간다.

1.테굴테굴 돌며 옮아간다.

0.공이 때굴때굴 궁구른다.

2.어떤 곳에 누워서 덩군다.

0.모래밭에 누워서 궁구른다.

3.하찮게 내버려지거나 널려 있다.

0.나무밑에 낙엽이 마음 대로 궁구른다.

궁군다: →궁구른다.

궁굼하다: ㉞궁굼하다. ㉟무엇이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다.

0.군에 간 아들 소식이 없어 궁굼하다.

0.시험 본 결과가 나오지 않아

궁굼하다.

궁근다: →궁구른다.

궁기: →궁녕.

궁긴다(경긴다): ㉞굽긴다. ㉟밥이나
먹이를 주지 않는다.

0.형편이 어려워 처자식을 궁긴다.

0.피란 생활에 식구를 궁긴다.

궁텅이(궁둥짜배기. 궁둥파대기.

똥방텅이. 똥짜바리. 방텅이. 방생이):

㉞궁둥이. ㉟앉으면 바닥에 닿는 엉덩이
아랫부분.

0.궁텅이가 가볍다.(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자리를 뜬다는
말)

0.궁텅이가 구리다.(부정이나 나쁜 일을
저지른 장본인 같다는 말)

0.궁텅이를 붙인다.(생활 터전을 잡고
안정한다.)

0.궁텅이가 질기다.(동작이 굼뜨고 일을
오래 끈다는 말)

0.궁텅이로 밤송이 까라면 짚지, 먼
잔소리야.(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먼
군소리야)

0.궁텅이에서 비파소리가 난다.(바쁘게

담아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듦.

0. 귀승을 처내라. 소 여물을 주자.

0. 귀승에서 소가 여물을 먹는데 닭이 올라 모이를 골라 먹는다.

귀신 같다: ㉠힘찬 물골이다.

0. 거지 모양새가 똑 귀신 같다.

귀쌌배기: →귀따시.

귀애: ㉡흙통. ㉢개울 건너에 있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나무 흙을 파서 걸쳐 놓은 나무통.

0. 아버지께서 귀애를 파신다.

0. 도랑 건너 논에 귀애를 놓는다.

귀야지: →귀따시.

귀역질: →괘약질.

귀영: →구녕.

귀재: →귀새.

귀챙이: ㉣귀챙.

0. 귀챙이 파내다 고막 다칠라.

귀태기: →구텡이.

귀텡이: →구텡이.

귀티기: →구텡이.

귀팅이 →구텡이.

귀해준다: ㉣구해준다.

0. 귀중한 책을 귀해준다.

0. 필요한 책을 귀해준다.

꿇방맹이: →귀따시.

꿇싸대기: →귀따시.

꿇: →귀승.

꿇긴다: →궁긴다.

규경: →귀경.

그걸찌나마(그찌나마): ㉤그거나마.

그것이나마.

0. 감자 밥. 그걸찌나마 얻어먹었으면 좋으련만.

갈겐: →가겐.

갈겐: →가겐.:

그그제(그그지께): ㉥그그저께.

㉦그저께의 전날.

0. 그그젯날 왔다 갔어.

그그지께: →그그제.

그기: ㉥그것이.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

1. 그 일을 가리키는 말.

0. 그 기 그렇게 됐나?

2. 손 아래 사람을 가리키는 말.

0. 그 기 그래도 사람 노릇 하네.

그까진 거(그깐너머 거. 그깐느므):

㉥그까짓 것.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것.

0. 그까진 거 내버려 둬.

0. 그까진 거 머 맘대로 하라지.

그깐너머 거: →그까진 거.

그깐느므 거: →그까진 거.

그나블에: ㉥그 때문에.

0. 형이 장사를 했지. 그나블에 거기 따라 다녔지.

그너마(그느마): ㉥그 녀석.

0. 그너마가 그래도 꽤 쓸 만해.

0. 그너마가 일을 잘 해.

그너머: ㉥그놈의. ㉧나쁜 사물을 가리키는 말.

0. 그너머 돈이 뭐래서 그 짓을 해.

0. 그너머 자존심, 그거 밥 먹여주나?

그느마: →그너마.

그느므 새끼: ㉠그놈의 새끼.

- 0.그느므 새끼 일은 안하고 놀러만 다녀.

그다: →거다.

그닷하나: ㉠뭘 그렇나. 실망하는 말.

- 0.어무리 일을 못해도 머 그닷하나.

그든다: ㉠거든다. ㉠남이 하는 일을

도우거나 참견한다.

- 1.남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

0.일을 같이 잘 그든다.

- 2.남의 말이나 행동에 끼어들어 참견한다.

0.곁에서 한마디 그든다.

그따구(그따우): ㉠그따위. ㉠그러한

부류의 대상을 얽잡아 이르는 말.

0.그따구 시시한 얘기는 왜 자꾸 해.

0.그따구 못된 얘기는 이제 그만해.

그따우: →그따구.

그딴 게(그딴 구. 그딴 거): ㉠그런 거.

그런 것.

0.그딴 게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

0.머 그딴 게 가지고 그래.

그딴 구: →그딴 게

그딴 거: →그딴 게

그딴소리: →고딴소리

그라구(그래구. 그리구. 기리구):

㉠그리고. ㉠말이나 문장 따위를 병렬로 연결하는 말.

0.계획을 세우라. 그리구 실천하라.

0.정직하라. 그라구 노력하라.

그라구두(그러구두): ㉠그렇게 하고도,

0.그러구두 그 일을 또 했지.

0.그 사람 그라구두 남아.

그라문(그라문. 그르문): ㉠그러면.

0.그라문 모두 같이 갑시다.

0.그라문 우리 이렇게 하지요.

그라문: →그라문.

그래가주(그래가주구): ㉠그래서.

0.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가주 상 탔다.

그래가주구: →그래가주,

그래구: →그라구

그래구말구(그래구새구. 기리구말구.

기리구새구):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0.그래구말구 그냥 놔 뒤라.

그래구새구: →그래구말구.

그래기(기리기): ㉠‘그렇다’ ‘그러게’에서

온 말. ㉠그렇다고 호응하는 말.

- 1.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받아치는 말.

0.그래기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된다니까.

- 2.그렇다고 긍정하는 말.

0.“나 일등 했어!” “어! 그래기” “애 썼다.”.

그래나 마나: ㉠그러나 마나.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0.그래나 마나 우린 어떻게 하지?

그래나저래나: ㉠그러나저러나.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0.그래나저래나 이 일을 어쩐대?

그래 노니: ㉠그렇게 해 놓으니.

0.그래노니 사방에서 야단법석이야.

0.그래노니 자꾸 큰소리 치지.

그래다와: ㉠그렇게 해 다오.

0.내일 모레 일해 드리지요. 그럼

그래다와.
그래레이(그러러니, 그러러이):
 ㉸그러러니.
 0.그래레이 하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
 였구만.
그래미(그래민): ㉸그러면서.
 0.온다온다 그래미 안 오잖나.
 그래민: →그래미.
그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0.자꾸 그래지 마. 듣기 싫다.
그랴 까야: ㉸그랴 거야.
 0.그 사람 아마 그랴 까야.
그랴 직에: ㉸그랴 직에. 그렇게 할 때에.
 0.그랴 직에 한 대 박아주지.
그랬데이: ㉸그랬다. 그렇게 했다.
 0.오늘 온다고 그랬데이.
그랬잖나: ㉸그렇게 했지 않나.
 0.그건 그렇다고 방금 전에 저 사람이
 그랬잖나.
그랬잖우: ㉸그랬잖소. ‘그렇게 했지
 않았나’의 높임 말.
 0.그때 그 일을 해준다고 그랬잖우.
 그러구두: →그러구두.
그러구새구: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0.그러구새구 내버려 놔 뒤.
그러길레(기레길레): ㉸그러니, 그러하니.
 0.그러길레 내가 뭐랬어. 그건 안된다고
 했지.
 그러러니: →그래레이
 그러러이: →그래레이.
그러모운다: ㉸굽어 모운다.
 0.화투판에서 꺾발이 높아 판 돈을

그러모운다.
그러커덩: ㉸그렇다면.
 0.마음에 안든다? 그러커덩 도로 바꾸지
 그래.
그럭(그룩): ㉸그릇.
 0.추어탕 한 그럭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라구(그럴러구): ㉸그렇게 하려고.
 0.그럴라구 무척 노력했겠지.
 0.정말로 그 사람이 그럴라구.
 그럴러구: →그럴라구.
그렁거: ㉸그런 것.
 0.그렁거 말고 저런 것 말아야.
그렇다니까니(그렇다이): ㉸그렇다니.
 그렇다니까.
 0.그 사람은 그렇다니까니. 조심해.
그렌데: ㉸그런데.
 0.그렌데 그쪽 일은 어쩐다?
 그르문: →그라문.
 그룩: →그럭.
그름(그으름, 꺾름, 꺾슬음, 꺾으름):
 ㉸그으름. ㉸불이 탈 때 연기와 함께
 나오는 미세먼지가 묻거나 뭉친 것.
 0.관솔 불은 그름이 많이 난다.
 0.부엌 아궁이가 그름에 그슬었다.
 그리구: →그라구.
그리느냐?: ㉸그러느냐? 그렇게 하느냐?
 0.그 건 왜 그리느냐?
그리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
 0.그리다 다치면 어떡할라 그래.
 0.그리다 학교 늦을라. 서둘러라.
그리다래: ㉸그렇다고 하더래.
 0.가가(그 아이가) 그리다래.

0.앞으로 잘 산다고 점쟁이가 그리다래.
그리던데: →구러던데.

그리매(기리매. 돈벌거지. 돈벌레):

- ㉞그리마. ㉠그리맛과의 절지동물.
0.그리매가 부엌 바닥에 기어 다닌다.
0.그리매는 징그럽다.
0.기리매는 돈벌거지다.(터지면 지저분
하니 잡지 말라는 뜻인 듯)

그릴까 바: ㉠그릴까 봐. 그렇게 할까 봐.

- 1.그릴까 봐.
0.그릴까 바 내 미리 단도리 해 두었지.
2.그렇게 할까 봐.
0.이젠 일을 그만하세. 아마 그릴까 바.

그마리: →거마리.

그마이다: ㉞그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좋다.

- 0.곰치는 못생겨도 매운탕엔 그마이다.
0.도치 알탕도 매운탕엔 그마이다.

그만침(그맨침): ㉞그만큼.

0.그일을 그만침 했으면 이젠 좀 쉬지.
그맨침: →그만침.

그물망: ㉞부리망. ㉠풀을 뜯지 못하게
소의 주둥이에 씌우는 망.

- 0.논을 고를 때 풀뜯느라고 소가 가지
않아서 그물망을 씌운다.

그뭍: ㉞그뭍. 그뭍날. ㉠음력으로 그달의
마지막 날.

- 0.그뭍 께 다시 만나세.
0.그뭍이 돌아오니 괜히 바빠지네

그식이 장식이다: ㉠한다는 게 만날
그렇다.

- 0.밥반찬이 만날 똑같이 그식이 장식

이다.

- 0.일을 한다는 게 좀 나아지는 게 없이
어떻게 만날 그식이 장식이잖나.

그양(기양, 기양): ㉞그냥.

- 1.그 모양 그대로.
0.그건 놔두고 그양 떠나라.
2.그대로 줄곧.
0.그양 잠만 잔다.
3.대가나 조건 없이.
0.그양 해본 말이야.

그으름: →그름.

그잔아도: ㉠그렇지 않아도.

- 0.그잔아도 내가 물어보러 가려고
했는데 잘 왔다.

그재(그지. 그치): ㉞그렇지.

- 0.그 말이 맞다. 그재.
0.그러니까 아내가 안 그랬단 말이지.
그재.

그재사: ㉠그 때서야.

- 0.알사탕을 준다 하니 그재사 울음을
그친다.
0.할아버지께서는 큰 소리로 말을 하니
그재사 알아들으신다.

그저먹기다: ㉠거저먹기다. 쉽다.

- 0.조밭보다 콩밭 매기는 그저먹기다.

그 적새(그 즉새): ㉞그 즉시.

- 0.꿍이 나니 개가 그 적새 쫓아갔다.
0.바쁘다고 하니 그 적새 일을 거들어
줬다.

그 즉새: →그 적새.

그지: →거랭이.

그자: →그재.

그지뿔: →거짓뿔.

그질로: ㉞그질로. 곧장.

0.쉽힌 말을 듣자, 그질로 돌아섰다.

그짐말: →거짓말.

그짜: ㉞그쪽.

0.그짜엔 몇 명이야.

0.모자라면 그짜편으로 가.

그찌나마: →그걸찌나마.

그치: →그재.

그치만: ㉞그렇지만.

0.그치만 나는 안 갈래.

0.그치만 우리는 괜찮아.

그택이다: ㉸그 모양이다. 늘 그렇다.

0.살림살이가 만날 그 모양 그택이다.

0.하는 짓이 좀 나아지진 않고 만날 그택 이구나.

그투룩: ㉞그토록.

0.그투룩 타일러도 헛일이야.

극정: ㉞걱정. ㉸근심으로 속을 태우는 일.

0.극정도 팔자다.(쓸데없이 걱정만 하는 것을 나무라는 말)

극정꺼리: ㉞걱정꺼리. ㉸걱정이 되는 일.

0.극정꺼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개(근깨): ㉞그러니까. 그러하니까.

0.근개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지.

0.근개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이요?

근근득신: ㉞근근득생. ㉸겨우겨우

살아감.

0.요즈음 근근득신 연명하고 있네.

근깨: →근개.

근낸다: ㉞건낸다.

0.생일에 선물을 근낸다.

근네간다: ㉞건너간다.

0.송아지가 개울을 근네간다.

근네뵈다: ㉞건너뵈다.

0.개울물을 근네뛰어 학교로 간다.

근네짚다: ㉞건너짚다.

0.너무 근네짚다 팔 붙어진다.

근네편: ㉞건너편.

0.개울 근네편에 딸네네 집이 있다.

근드린다: →건디린다.

근단다: →건단다.

근지롭다: ㉞간지럽다.

1.무엇이 살에 닿아 가볍게 스칠 때의 느낌.

0.머리카락이 목에 닿아 근지롭다.

2.마음이 참을 수 없이 자리자리할 때.

0.낮 근지롭게 아양을 피운다.

3.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할 때.

0.입이 근지러워 참지 못한다.

근친다(끄친다. 끈친다): ㉞'그치다.'

'그친다.'에서 온 말.

1.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난다.

0.계속 불던 바람이 근친다.

2.어떤 상태에 이른다.

0.달리기를 하다가 2위에 근친다.

글거리(글기. 끌거리. 끌기):

㉞그루터기.

㉸풀이나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내고 남은 밀둥.

0.콩 글거리에 발 찢릴라. 조심해라.

0.큰소나무 글거리가 썩으면 관솔이 되지.

글구넘어진다: ㉞걸고넘어진다.

1. 씨름에서.
 0. 다리를 글구넘어진다.
2. 생활에서.
 0. 상대방 잘못을 글구넘어진다.

글기: →글거리.

글다: ㉞걸다.

1. 땅이 기름지다.
 0. 집앞 밭이 글어서 고추가 잘 된다.
2. 하는 일이 잘 된다.
 0. 그 사람 손이 글어 농사가 잘 된다.

글로: →골로.

글루: →골루.

글세?: ㉞그러게. ㉞반신반의하는 말.

0. 일 좀 도와 주겠소? 글세?

글세 말이게요: ㉞글세 말입니다.

0. 내일 집에 오겠습니까? 글세말이게요.

글지나마(글찌나마): ㉞그것이나마.

0. 태풍에 다 쓸어진 벼, 글지나마 거두어 들여야지.

글짜(글째): ㉞글자.

0. 낫 놓고 기차도 모르니 글짜를 모르지.

글째: →글짜.

글찌나마: →글지나마.

글차다: ㉞걸차다. ㉞땅이 매우 기름지다.

0. 밭이 글차서 무슨 곡식이든 잘 된다.

글쿠: ㉞1.그렇고. 2.틀리고.

- 1.그렇고.
 - 0.그건 글쿠, 또 말해봐.
- 2.틀리고.
 - 0.앞에 애긴 옳고 뒷 애긴 글쿠, 그래.

글패: ㉞글피. ㉞내일, 모레, 글피 할 때

쓰는 말.

- 0.글패 장날 또 보세.
- 0.글패 쯤이면 좋지.

굽어모른다: ㉞굽어모른다.

- 0.돈을 알뜰히 굽어모른다.

금구다(금구다): ㉞기다려 피하다.

- 0.좀 금구다 보면 비가 그치겠지.
- 0.쏟아지는 빗줄기를 좀 금귀가지고 가야겠다.

금뎡이(금뎡거리): ㉞금뎡어리.

- 0.“금뎡이 보기를 돌같이 하라.” 보통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금뎡거리: →금뎡이.

금사: ㉞검사. ㉞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사법관.

- 0.건너집 아들이 금사가 됐다.

금새(인차): ㉞금방.

- 0.그 일을 금새 해치웠다.
- 0.쏟아지던 소나기가 금새 그친다.

금싸래기: ㉞금싸라기. ㉞황금 싸라기란 뜻으로 아주 귀한 것을 가리킴.

- 0.그 집은 금싸래기 땅만 가지고 있어.
- 0.금싸래기 땅에 알박기했다.

금줄(금줄새끼): ㉞원 새끼. 잡귀를 금하는 줄

- 0.아이를 낳고 원 새끼 금줄을 친다.

금줄새끼: →금줄.

금작스레: ㉞갑작스레. 갑작스럽게.

- ㉞생각할 시간 없이 갑자기.
 - 0.금작스레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
 - 0.금작스레 비가 온다.

금구다: →금구다.

기: ㉠1.것이. 2.물에 사는 게. 3.모임 계.

1.것이.

0.작은 기 빠세다.

2.모임계.

0.기돈 놀이 잘못하면 낭패 본다.

0.자네 기돈 탔나?

3.물에 사는 게.

0.마파람에 기는 감추듯 한다.(음식을 빨리 먹어버림을 일컫는 말)

기간다: ㉠기어간다.

1.기어서 앞으로 나아간다.

0.아기가 영금영금 기간다.

2.자동차 따위가 천천히 간다.

0.눈이 와서 차들이 기간다.

기거품: ㉠게거품.

0.입에 기거품을 물며 덤빈다.

기걸음: ㉠게걸음.

1.옆으로 가는 걸음.

0.옆으로 기걸음 쳐 간다.

2.느린 걸음.

0.기걸음도 그보단 빠르겠다.

기구기관: ㉠가관. ㉡영망진창이다.

꿀벌건이다.

0.요즘 사람들 옷 입은 걸 보면
기구기관이지.

0.일해 놓은 것을 보니 기구기관이구나.

기끈: ㉠기졌. ㉡한참 힘들여.

0.기끈 했다는 게 그것밖에 안 돼?

0.기끈 해 놓으니 나쁘다고 그러네.

기냥: →그양.

기 눈 감추듯: ㉠게 눈 감추듯.

㉡순식간에 감춤.

0.꽃감을 주니 기 눈 감추듯 먹어치운다.

기니까: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0.기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

0.기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 이
말이지?

기다: ㉠것이다.

0.그건 내 기다.

0.저건 네 기다.

기다가: ㉠그러다가.

0.기다가 결정을 아직 못 내렸어.

기다라: ㉠그러더라.

0.사람들이 기다라. 네가 땅곰이라고...

기달린다(기둘룬다): ㉠기다린다.

0.엄마가 기달린다. 가 봐.

0.오랫동안 기달리게 해 놓고 이게
뭐야.

기둘룬다: →기달린다.

기동사나: ㉠기동서방. ㉡기생이나 창기를

돌보아 주며 얻어먹고 사는 사내.

0.뭘 할 게 없어 기동사나 해먹고 사나.

기든다: ㉠기어든다.

1.기어 드나든다.

0.구멍으로 벌레가 기든다.

2.달려든다.

0.눈을 부릅뜨고 기든다.

3.위축되어 움츠러든다.

0.기가 죽어 목소리가 기드는 소리를
한다.

4.좌고 든다.

0.아기가 엄마품으로 기든다.

기듬해: ㉠이듬해. 다음 해.

0.큰아들 잔치하고 기듬해 손자 봤잖소,

기따가: ㉠이따가. ㉡조금 지난 뒤에.

0.기따가 올게. 내 것은 남겨 놔.

기딱지(기빱대기): ㉠계딱지. ㉡계의 등껍질.

0.강아지가 기딱지를 가지고 논다.

0.기딱지를 잡아 제쳐봐. 기장(계의 속)이 나오지.

기래기(기랙지. 기력지. 지력지.

지레기. 질이. 찌레기): ㉠길이.

0.뺨장어 기래기가 한발은 돼.

기래니: ㉠그러니.

0.그러니 그 사람이 흠뻏단 말이지.

기래두: ㉠그래도. 그리하여도.

0.기래두 그게 더 낫겠지.

0.기래두 난 네가 좋아.

기래문: ㉠그러면.

0.기래문 이렇게 하면 어때.

기래봐: ㉠그래 봐. 그렇게 해 봐.

0.어디 기래봐. 다음부터 다신 안 봐 줄테니.

0.좀 잘 기래봐. 어찌 하는 게 그러냐?

기래서: ㉠그래서.

0.기래서 어떻게 됐대?

0.기래서 그렇게 그렇게 됐대.

기랙지: →기래기.

기랜데: ㉠그런데.

0.기랜데 그 것이 말이야, 잘못된 것이 아니야?

기력지: →기래기.

기래길래: →그러길래.

기름뱅이: ㉠개으름뱅이. 게으름뱅이.

0.기름뱅이 발엔 곡식 대신 풀이

자란다.

0.늦잠 자면 기름뱅이 된다.

기름종아리: ㉠뺨소니를 잘 치는 사람. 잘 빠지는 사람.

0.그 기름종아리, 믿을 사람 못 돼.

기리구: →그라구.

기리구말구: →그래구말구.

기리구새구: →그래구말구.

기리기: →그래기.

기리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

0.기리다 큰 코 다친다.

0.기리다 학교 늦을라.

기리매: →그리매.

기린다: ㉠그런다. 그렇게 한다.

0.자가 자꾸 뭐라 기린다.

기막힌: ㉠기막힌.

0.기막힌 일은 없어야지.

0.기막힌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니 할 말을 잃는다.

기벌: ㉠기벌. ㉡소식을 전함.

0.가을에 누나 잔치한다고 작은덕에 기벌 좀 해라.

0.버들개 몇 마리 가지고 무슨 매운탕? 간에 기벌도 안 가겠다.

기부리(발부리): ㉠공기뿌리. ㉡잔 뿌리털.

0.비가 계속해 오니까 벼이삭에서 기부리가 났다.

기빱대기: →기딱지.

기신다: ㉠계신다.

0.어른들 기신다 좀 조용히 해라.

0.집에 어른들 편히 기사나?

기양: →그양.

기여이(기여코): ㉠기여이. 기여코.

1. 꼭. 반드시.

0. 그 일을 기여이 해냈구나.

2. 마침내.

0. 그 여자가 기여이 울음을 터뜨렸다.

기여코: →기여이.

기억: ㉠기억.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함.

또는 그 내용.

0.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0. 옛날 기억이 희미하다.

기와: ㉠기워.

0. 옛날에는 옷이 헤진 데를 기와 입었지.

기운채래: ㉠기운 차려. 힘내.

0. 밥 많이 먹고 기운 채래.

기잖아두: ㉠그렇잖아도.

0. 기잖아두 자넨 부를 참이었었는데
마침 잘 왔네.

기저구: ㉠기저귀. ㉡아이의 대소변을
받아 내기 위하여 다리 사이에 채우는
천이나 종이.

0. 아기 기저구가 젖었다.

0. 아기 기저구 갈아줘라.

기절정풍: ㉠기절초풍. ㉡몹시 놀라

질겁을 함.

0. 폭탄이 터졌는데 모두 기절정풍 하지.

안 그럴 사람 있겠어?

기정: ㉠증편. ㉡막걸리를 조금 탄 뜨거운

물에 맷쌀가루를 걸쭉하게 반죽하여

더운 방에 두어 부풀린 다음 고명을

뿌려서 찐 떡.

0. 기정이 잘 부풀어 올랐다.

0. 기정 떡이 잘 되었다.

기지 마: ㉠그러지 말아.

0. 자꾸 기지 마. 그러면 화 낸다.

기집애(지즈바. 지집애): ㉠계집애.

㉡어린 여자 아이를 낫잡아 이르는 말.

0. 기집애가 경망스럽다.

0. 기집애가 까불면 못쓴다.

기튼날: ㉠그 이튿날.

0. 기튼날 내가 갈 게.

기편: ㉠계 편.

0. 가재는 기편 든다. (자기 쪽 부류의
편을 든다는 말)

길강(질강. 질바닥): ㉠갈바닥.

0. 길강을 새로 닦았다.

0. 길강에 물이 고였다.

길다랗다(씨다랗다. 찢다랗다):

㉠기다랗다.

0. 감 장대가 길다랗다.

0. 오이가 길다랗게 잘 크다.

길러빠져서(길러서. 길러터져서):

㉠계을러빠지다.

0. 사람이 길러빠져서 일이 빨리 되겠나?

길러서: →길러빠져서.

길러터져서: →길러빠져서.

길른다: ㉠기른다.

1. 동식물을 자라게 한다.

0. 양을 길른다.

2.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라게 버려둔다.

0. 수염을 길른다.

3. 육체나 정신을 강하게 단련시킨다.

0. 기본 체력을 길른다.

4. 병을 악화시킨다.

0.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길른다.

깃발꽃는다: ㉠성공한다.

0. 그 사람 농사 짓다 시내에 나가 깃발 꽃았지. 장사를 잘 해서.

깃줄: ㉠줄다리기 줄.

0. 해마다 아래 윗동네가 마을 대항 깃줄 당기기 시합을 한다.

까까: ㉠아기 과자. ㉡아가가 먹는 간식.

0. 가게에 가서 까까 사 오너라.

0. 아가야, 까까 먹자.

까깝하다: ㉠갑갑하다

0. 까깝하다. 커튼을 좀 열어라.

0. 까깝한 놈이 송사한다..(자기에게 필요 해야 움직인다는 말)

까꾸루: →거꾸루.

까꿀루: →거꾸루.

까끄레기(까끄레이. 까끄렝이. 꺼끄레기. 꺼끄레이. 꺼끄렝이):

㉠까끄라기. 꺼끄 러기. ㉡벼, 보리 등의 걸끄러운 수염.

0. 벼나 보리 타작을 하면 까끄레기를 뒤집어 쓴다.

까끄레이: →까끄레기.

까끄렝이: →까끄레기.

~까네: ㉠~까. ~간.

0. 냉수를 마시니까네 시원해진다.

0. 이모택에 놀러 가니까네 꽃감을 주더라.

까달스럽다(까달시럽다): ㉠까다롭다.

0. 그 사람 성질이 좀 까달스럽다.

0. 식성이 까달스러워 음식을 많이 가린다.

까달시럽다: →까달스럽다

까득: ㉠가득. 가득.

0. 두지(광)에 벼를 까득 채운다.

0. 쌀 말을 까득 채운다.

까득하문: ㉠까딱하문.

0. 까득하문 큰 일 날 뻔했어.

까마구: ㉠까마귀.

1. 까마귓과의 새.

0. 까마구 고기 먹었나.(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웃는 말)

0. 까마구 날자 배 떨어진다.(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상관이 있는 것처럼 의심 받게 된다는 말)

0. 까마구 밥이 된다.(거들 사람이 없이 죽어 버려진다는 말)

0. 까마구 손이다.(몹시 까만 손이다)

2. 경찰의 은어.

0. 야! 저기 까마구 똥다. 통금에 걸릴라.

까마구미역: ㉠해캄. ㉡녹조류의 한가지.

0. 까마구미역은 먹어도 되나?

0. 셋돌에 까마구미역이 끼었다.

까마구 밥 똥다: ㉠노변 시체가 똥다.

0. 6.25 전쟁 때 전사한 사람, 까마구 밥 똥지머.

까마구병: ㉡까만 병.

0. 소주 까마구병(4홉 들이 빈병) 하나 들고 가면 옛 바뀐다.

까매: ㉠까맣다. ㉡검거나 기억이 멀다.

1. 검다.

0. 햇볕에 타서 얼굴이 까매.

2. 기억이 아득하다.

0.어릴 적 기억이 까매.

까묵었다: ㉠1.까 먹었다. 2.잊어버렸다.

3.떨어먹었다.

1.까 먹었다.

0.밤을 까묵었다.

0.굴 껍데기를 까묵었다.

2.잊어버렸다.

0.약속을 깜박 까묵었다.

3.떨어먹었다.

0.장사 밑천을 다 까묵었다.

까문진다: ㉠까문진다.

1.높은 데를 파서 깎아 내린다.

0.산을 파서 까문진다.

2.지워 버린다.

0.기억을 까문진다.

0.낙서를 까문진다.

3.인격이나 문제를 무시한다.

0.사람의 자존심을 까문진다.

까물뜨린다(까물띠린다. 까물친다):

㉠까무러친다. ㉡한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0.죽는 것보단 까물뜨리는 게 낫다.

까물띠린다: →까물뜨린다.

까물치: ㉠까물치. ㉡까물치과의

민물고기. 산모의 보혈약 등으로 씀.

0.까물치를 산모에게 달여 먹이면 좋지.

까물친다: →까물뜨린다.

까불어친다: ㉠까불거린다. ㉡경망스럽게 군다.

0.계집애가 몹시 까불어친다.

0.자꾸 까불어치면 화낸다.

까새: →가새

까시: →구데기

까시(까시땡이): ㉠까시.

1.식물의 줄기나 잎에 바늘처럼 뾰족하게 돌아난 부분.

0.장미 까시에 찔렸다.

2.동물의 뼈나 뾰족한 물체.

0.물고기 까시가 목에 걸렸다.

0.철조망 까시에 찔렸다.

3.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

0.말 속에 까시가 있다.(말속에 악의가 있다)

까시낭구(까시낭그. 까시낭기.

까시땡이 낭구. 까시땡이낭그.

까시땡이낭기): ㉠아카시아 나무.

㉡콩과의 상록 교목.

0.까시땡이낭구는 하기도 힘들고 때기도 힘들지만 불은 잘 타.

까시낭그: →까시낭구.

까시낭기: →까시낭구.

까시덤부사리(까시덤불): ㉠까시덤불.

㉡까시가 영킨 숲.

0.까시덤부사리는 옆으로 피해서 가거라.

까시덤불: →까시덤부사리.

까시땡이: →까시.

까시땡이낭구: →까시낭구.

까시땡이낭그: →까시낭구.

까시땡이낭기: →까시낭구.

까시방석: ㉠까시방석.

0.까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억지로 앉았다 나왔네.

까시밭길(까시밭질): ㉠까시밭길. 험한 길.

- 1.가시밭길.
0.그리로 가면 가시밭길이다.
- 2.험한 길.
0.그 사람 가시밭길에 들었어.
- 까시밭길: →까시밭길.
- 까신다:** ㉠가신다. ㉡깨끗이 씻는다.
0.김칫독을 깨끗이 까신다.
0.흐르는 물에 여러번 까셔라.
- 까실군다:** ㉠그슬군다. ㉡털을 태운다.
0.양초불에 눈썹 까실군다.
0.짚으로 개털을 까실군다.
- 까올린다:** ㉠잃어버린다. ㉡장사나 투전을 하다가 돈을 다 잃는다.
0.장사를 하다가 잘 못 돼서 밀천까지 다 까올린다.
0.투전을 하다가 전 재산을 다 까올렸다.
- ~까장(~까정. ~까짐. ~까징. ~꺼정. ~꺼지. ~꺼짐. ~꺼징. ~꺼. ~꺼):**
㉠~까지.
1.일이나 상태 따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말.
0.거기까장 다 했어?
2.시간이나 공간의 한도를 나타내는 말.
0.점심 때까지 와.
3.다시 그 위에 더하여의 뜻을 나타내는 말.
0.갈 길은 먼데 발까장 아프고...
4.극한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말.
0.할 수 있는 데까장 해 보는 거야.
- 까재미: →가재미.
~까정: →까장.
- 까져먹고:** ㉠잊어먹고. 잊어버리고.
- 0.깜박 까져먹고 안 가져왔어.
0.다음부터 까져먹지 마.
- 까조진다(조진다):** ㉠.때린다,
2.망친다의 비속어.
1.때린다.
0.말 안듣는 소를 마구 까조진다.
2.망친다.
0.투전하다 그 좋던 재산 다 까조진다.
- ~까짐: →까장.
~까징: →까장.
- 까챙이:** ㉠까치. ㉡까마뿔과의 새.
0.까챙이 배바닥 같다.(흰소리를 잘하는 것을 조롱하는 말)
0.까챙이 새끼는 다 자란 다음에는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
- 까치: →개피.
- 까치구멍(까치구멍. 까치궁기):**
㉠서까래가 맞물리는 지붕 옆에 내놓은 구멍.
0.까치구멍으론 공기가 통하지.
- 까치구멍: →까치구멍.
까치궁기: →까치구멍.
- 깍데기:** ㉠깍두기.
0.어제 담근 깍데기가 벌써 맛이 들었다.
- 깍쟁이:** ㉠갈퀴.
1.마른 잎이나 나뭇잎 따위를 긁어 모으는 데 쓰는 기구.
0.깍쟁이 챙겨가지고 검불 굽으러 가자.
0.짚 부스러기를 깍쟁이로 긁어 모은다.
- 2.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
0.깍쟁이 짓 그만 하고 돈 좀 쓰게나.
- 깍자: →고질.

깎지거리: →고질거리.

간년어꺼(간느머꺼): ㉠까짓 것. 그까짓 것.

0.간년어꺼 그 일 그만두지머.

간느머꺼: →간년어꺼.

간다: ㉠1. 품는다. 2. 태(맷시)를 부린다.

1. 품는다.

0.암탉이 알을 간다.(알을 품어 부화시킨다는 말)

2. 태를 부린다.

0.그 사람은 멧을 줌 간다.

간뜩하문: ㉠까딱하면. 자칫하면.

0.간뜩하문 큰일 날 뻔했어.

~간요: ㉠~까요.

0.내일은 비가 온다니간요.

0.정말 그렇다니간요.

간지락거리다(간지락꺼린다):

㉠간죽거리다. ㉡쓸데 없는 말을

뱉살스럽고 고 짓궂게 계속 지껄인다.

0.남 앞에서 자꾸 간지락거리다.

0.자꾸 간지락거리면 남들이 싫어 해.

간지락꺼린다: →간지락거리다.

갈개: ㉠방석.

0.거기 갈개 이리 보내라.

갈게몽겐다(갈어몽겐다): ㉠갈아몽겐다.

1.놀리서 몽겐다.

0.아이들이 이불을 갈게몽겐다.

2.어떤 일을 숨기고 질질 끈다.

0.검사가 비위 사실을 갈게몽겐다.

3.억눌러 버리거나 무시한다.

0.남의 자존심을 갈게몽겐다.

갈대기(깁대기): ㉠흠뻑 벗기기.

0.잠 자면 갈대기 벗긴다.

0.갈대기를 벗겨도 모르고 잔다.

갈따구: ㉠각다귀. ㉡모깃과의 곤충.

0.갈따구는 수풀 속에 있다가

어두워지면 나온다.

갈때기(따꼭질): ㉠팔꼭질. ㉡갈딱'하고

숨이 일시 멈추는 현상.

0.갈때기 하면 놀려줘. 그러면 멈춰져.

0.갈때기 할 땐 냉수가 제일이야.

갈린다: ㉠갈긴다. ㉡똥, 오줌을 함부로

싼다.

0.오줌을 아무 데고 갈긴다.

갈보인다(갈보킨다): ㉠알잡아 보인다.

0.갈보이지 않게 잘 해.

0.한번 갈보이면 자꾸 갈본다.

갈보킨다: →갈보인다

갈세: ㉠선세. ㉡전월세집에 들어갈 때

먼저 내는 보증금.

0.갈세 천만원에 월세 삼십만원이래.

갈어몽겐다: →갈게몽겐다.

갈죽기린다: ㉠갈죽거리다. ㉡1. 거칠고

갈끄럽게 따끔거리다. 2. 성가시게 자꾸

덤빈다.

1.따끔거리다.

0.가시가 갈죽기린다.

0.갈죽기리는 가시를 파내자.

2.성가시게 군다.

0.사람이 자꾸 갈죽기리면 못 써.

감감이: ㉠까막눈.

1.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0.글공부를 해서 감감이를 면했다.

2.어떤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0.그 일에 대해선 나는 깜깜이야.

깜뎡이(깜뎡이): ㉠깜뎡이.

1.살빛이 까만 사람.

0.그 깜뎡이 그 사람 말이지,

2.흑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

0.저기 아프리카 깜뎡이 간다.

깜뺱: ㉠깜뺱. 감옥.

0.죄를 지면 깜뺱 신세 지지.

깜초하다(검추하다): ㉠까무잡잡하다.

0.얼굴이 타서 깜초하다.

0.사람이 깜초한 게 어째 그러냐.

깜뎡이: →깜뎡이.

깜대기: →깎대기.

깎데기(깎디기. 꺾떼기. 꺾지. 꺾짚):

㉠꺾떼기. 꺾짚.

1.달걀, 조개 등의 껍을 찢 단단한 물질.

0.달걀 꺾데기를 벗긴다.

2.속에 무엇을 채우고 그 껍을 찢 것.

0.베개 꺾데기를 씌워라.

3.화투에서 꺾수가 없는 패짜.

0.그거 꺾데기야. 그러면 내가 먹었다.

4.아버지.

0.우리집 꺾데기한테 꾸중 들었어.

깜박: ㉠깜박.

1.등불이나 별 따위가 잠깐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모양.

0.등불이 깜박한다.

2.기억이나 의식 따위가 잠깐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모양.

0.약속을 깜박 잊었네.

3.눈이 잠깐 감졌다 뜨이는 모양.

0.노루가 눈 깜박 할 사이에 달아났다.

깜짝거린다: ㉠깜죽거린다. 꺾적거린다.

㉠신이 나서 몸을 방정맞게 움직인다.

0.깜짝거리지 말고 좀 무게 있게 행동해
봐.

깡군다: ㉠지운다.

0.틀린 글자는 깡구고 새로 써.

깡다지: ㉠깡다구. ㉠악착같이 버티는 힘.

0.그 앤 깡따지가 세.

0.머느리가 깡따지로 그 일을 다 해냈어.

깡뚝한다: ㉠분에 넘치게 나선다.

0.오냐 오냐 하면 깡뚝한다.

0.좀 안다고 너무 깡뚝하지 마.

깡보리밥: ㉠뽕보리밥. ㉠보리쌀로만 지은
밥.

0.깡보리밥 먹고 똬지 마라. 배 꺼진다.

0.깡보리밥은 먹기 힘들다.

깡소주(깡쇠주): ㉠맨 소주.

0.깡소주 먹으면 몸이 탈나지.

깡쇠주: →깡소주.

깡자루: ㉠깡제로. ㉠마음에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일.

0.일을 깡자루 시키면 되겠나.

깡조밥: ㉠깡조밥. ㉠맨 좁쌀로만 만든
밥.

0.깡조밥은 먹기 힘들다.

0.깡조밥에 감재(감자)가 섞이면 그래도
좀 괜찮지.

깡철: ㉠깡철.

1.단단한 쇠.

0.칼은 깡철이라야 잘 들어.

2.용이 되기 위해 바다 속에 산다는
이무기.

0. 바다 속에 강철이 지나갔나 봐.
고기가 안 잡혀.

강촌: ㉠벽촌. ㉡두메산골 촌.

0. 강촌 사람은 순박한 데가 있다.

강추위: ㉠강추위. ㉡눈도 바람도 없이
몹시 춥기만 한 날씨.

0. 날씨가 강추위 하나 봐. 볼 끝이
매섭게 시리네.

강파르다: ㉠가파르다.

0. 언덕이 몹시 강파르다.

깨구락지: →깨구락지.

깨구리: →깨구락지.

깨금: ㉠개암. ㉡개암나무의 열매.
생김새는 도토리 비슷하고 맛은 밤과
비슷하다.

0. 깨금 알이 고소하다.

0. 깨금은 밤보다 맛이 있다.

깨금박질: ㉠양감질. ㉡외발 뛰기.

0. 깨금박질 시험하자.

0. 깨금박질 하지마. 배 꺼진다.

깨금발: →깨금발

깨끗하다: ㉠깨끗하다.

0. 방안이 참 깨끗하다.

깨꿀나게: ㉡대단찮게.

0. 깨꿀나게 해 놓고 자랑은...

깨놓고: ㉠까놓고. ㉡숨김없이 털어놓고.

0. 우리 한번 깨놓고 얘기해보자.

깨민다: ㉠깨문다.

0. 아이가 젓꼭지를 깨민다. 이가 나려는
가봐.

깨보생이(깨보숭이): ㉠깨고물. ㉡깨를
볶아 빵아서 만든 고물.

0. 깨보생이를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난다.

0. 깨보생이를 넣고 밥을 비벼 먹는다.

깨보숭이: →깨보생이.

깨부신다: ㉠깨부순다.

0. 살림을 마구 깨부신다.

깨센다: ㉠되살아난다. ㉡허약해졌다가
다시 건강해진다.

0. 감기 몸살에 수척하더니 요새 좀
깨센다.

0. 수술하고 나서 많이 깨쌌어.

깨와: ㉠깨워.

0. 얼른 깨와. 학교 늦겠다.

깨운하다: ㉠깨운하다.

1. 기분이나 몸이 산뜻하고 시원하다.

0. 목욕을 했더니 몸이 깨운하다.

2. 입맛이 산뜻하다.

0. 매운탕 맛이 깨운하다.

깨직거린다: →개식거린다.

깨춤 춘다: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0. 누구 앞에서 깨춤 추고 있나.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앞선 사람 앞에서
겉죽거리는 행동을 빗대어 이르는 말)

깍했다: ㉡죽었다'의 비속어.

0. 쥐가 쥐약을 먹고 깍했다.

0. 쥐틀에 채여 쥐가 깍했다.

깡가리: ㉠뿔과리. ㉡놋쇠로 만든 작은
타악기.

0. 농악놀이는 깡가리가 주도해 나간다.

깡깡거린다: ㉡시끄럽게 떠든다.

0. 깡깡거리고 있어. 기분 나쁘게.

0. 앞으로는 깡깡거리지 마.

깡패래졌다: ㉠몹시 야위었다.

0.강아지가 왜 깡패래졌다.

~꺼: ㉡~짓.

1.말의 뒤에 붙어 사실, 현상 등을 나타내는 말.

0.그건 형 꺼다.

0.그 옷은 내일 입을 꺼다.

2.말하는 이의 확신, 추측을 나타내는 말.

0.비가 올 꺼 같다.

0.내일 비가 개일 꺼 같다.

꺼꾸루: →거꾸루.

꺼꾸롭다(꺼끄롭다): ㉢겉끄럽다.

1.꺼끄러기가 살에 붙어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다.

0.보리 꺼끄러기가 꺼꾸롭다.

2.매끄럽지 못하고 꺼칠꺼칠하다.

0.상어 껍질이 꺼꾸롭다.

3.무난하거나 원만하지 못하고 거북한 데가 있다.

0.상대하기엔 좀 꺼꾸롭다.

꺼꿀루: →거꾸루.

꺼끄레기: →까끄레기.

꺼끄레이: →까끄레기.

꺼끄레이: →까끄레기.

꺼끄롭다: →꺼꾸롭다.

꺼난는다(끄난는다): ㉣꺼안는다.

㉠두팔로 감싸서 품에 안는다.

0.우는 아기를 꺼난는다.

0.혼자서 그 일을 다 꺼난는다.

꺼냥구(끄냥구): ㉤꺼안고.

1.두 팔로 감싸서 품에 안다.

0.우는 아이를 꺼냥구 달랜다.

0.처녀 총각이 꺼냥구 돌아간다.

2.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떠맡다.

0.일을 혼자서 끄냥구 한다.

0.일을 혼자 끄냥지 말지.

꺼들거린다(꺼들꺼들한다. 건들거린다.

건들건들한다): ㉥건들거린다. 건들건들한다.

1.상접고 멋이 없게 행동한다.

0.양반이랍시고 꺼들거린다.

2.하는 일 없이 빈둥거린다.

0.일은 안하고 꺼들거리며 돌아친다.

꺼들꺼들한다: →꺼들거린다.

꺼들인다: ㉦끌어들인다.

0.비가 올라 해서 뱃섬을 꺼들인다.

꺼떡없다(끈떡없다): ㉧까떡없다. 끄떡없다.

㉠1.흔들리지 않는다. 2.장애가 되지 않는다.

1.흔들리지 않는다.

0.그 사람은 그만한 일엔 꺼떡없다.

2.장애가 되지 않는다.

0.좀 손해를 봐도 꺼떡없다.

꺼림직하다(끄림직하다): ㉨마음에 걸린다.

0.고수레를 하지않아 어째 꺼림직하다.

0.아무리 끄림직해 봤자 이미 지나간 일이야.

꺼무리(꺼물. 꺼풀): ㉩꺾대기. 꺾질.

㉠속에 무엇이 있고 그 겉을 썬 것.

0.매미가 꺼무리 벗었다.

0.벼도 꺼물을 벗겨야 쌀이 나온다.

꺼무티티하다: →거무하다.

꺼무하다: →거무하다.

꺼물: →꺼무리.

~꺼장: →~까장.

꺼져: ㉠'비켜, 저리가.'란 뜻으로 사용됨.

- 0. 보기 싫으니 썩 꺼져.
- 0. 저리 꺼져, 방해 놓지 말고.

꺼주하다(떨러주하다): ㉡꺼병하다.

- ㉠모양새가 옹골차지 못하다.
- 0. 옷 매무새가 어찌 그렇게 꺼주하나?

~꺼지: →~까장.

꺼진다: ㉠없어진다. 빠진다.

- 0. 노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슬그머니 꺼진다.

~꺼짐: →~까장.

~꺼장: →~까장.

꺼풀: →꺼무리.

꺾는다: ㉠술을 마신다.

- 0. 퇴근 길에 한잔 꺾는다.

~꺾: →~까장.

~꺾: ㉡~것은.

- 0. 내꺾 건드리지마.
- 0. 네꺾 알아서 해.

꺾덕지: →꺾덕지.

꺾테기: →꺾덕지.

꺾들거린다: →꺾들거린다.

꺾들꺾들한다: →꺾들거린다.

꺾디기: →꺾덕지.

꺾재: →꺾재.

꺾지: →꺾덕지.

~꺾지: ㉡~것인지.

- 0. 이거 섞여 있어서 내 꺾지, 네 꺾지 잘 모르겠다.

꺾진다: ㉡꺾진다.

- 1. 물속에 있는 것을 건져내거나 끌어낸다.

- 0.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 2. 어려운 차지에 있던 상황에서 구해낸다.

- 0.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 3. 손해 본 것을 도로 찾아낸다.

- 0. 본전을 겨우 건진다.

~꺾: ㉡~꺾. ㉠지난 일을 돌이켜 가볍게 후회하는 말.

- 0. 빨리 갔으면 좋았을 꺾.

- 0. 손을 깨끗이 씻을 꺾.

꺾끄롭다: ㉡꺾끄롭다.

- 1. 꺾끄러기 따위가 살에 붙어 따끔거리는 느낌.

- 0. 보리 타작을 했더니 몸이 꺾끄롭다.

- 2. 미끄럽지 못하고 꺾칠꺾칠하다.

- 0. 상어 가죽은 꺾끄롭다.

- 3. 무난하거나 원만하지 못하고 거북한 데가 있다.

- 0. 상대하기가 좀 꺾끄롭다.

- 0. 웬지 문기가 좀 꺾끄롭다.

꺾덕거린다: ㉡꺾떡거린다. ㉠먹고 싶거나 갖고 싶어 입맛을 다지거나 안달한다.

- 0. 그거 먹겠다고 꺾덕거리지 말아. 다 입자가 있어.

- 0. 분수도 없이 꺾덕거리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꺾러주하다: →꺾주하다.

꺾린다: ㉡꺾린다.

- 1. 관계하거나 부딪힌다.

- 0. 집안 일이 마음에 꺾린다.

- 2. 꾸며 놓은 구렁에 빠진다.

- 0. 계락에 꺾렸다.

- 3. 그물. 낚시 등에 잡힌다.

0.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다.
 4. 단속이나 검문을 받게 된다.
 0. 참외 서리하다 걸렸다.
 5. 바라던 것이 들어온다.
 0. 술집을 지나다 술판에 걸렸다.
 6. 병이 든다.
 0. 병에 걸렸다.
- 검는다:** ㉠검어진다. 때가 낀다.
 0. 장난치지 말아라. 옷 검는다.
 0. 흰옷은 잘 검는다.
- 검댕이: →검댕이.
 검추하다: →깎초하다.
 껌디기: →깎데기.
 껌떼기: →깎데기.
 껌자: →깎데기.
 껌절: →깎데기.
- 경검하다:** ㉡경검하다.
 0. 초저녁 달이 넘어가니 밖이 경검하다.
- ~께:** ㉢~께. ~거야.
 0. 공부 다 하고 놀 껌.
 0. 그 곳에 내가 갈 껌.
- 깨꾸름하다(깨끈하다. 깨름하다):**
 ㉣깨끄름 하다.
 0. 일을 미루어 뒤틀더니 어찌 깨꾸름하다.
- 깨끈하다: →깨꾸름하다.
깨든다(끼든다): ㉤끼어든다.
 1. 여럿 가운데 들어가 낀다.
 0. 화투판에 깨든다.
 2.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참견한다.
 0. 남의 일에 함부로 깨든다.
 3. 좁은 틈 사이로 헤집고 들어간다.
 0. 앞 줄에 깨든다.

- 깨름하다: →깨꾸름하다.
~겐: ㉥~거야, 것이야.
 0. 있다가 올 겐.
 0. 있다가 갈 겐.
~겐요: →~겐요.
- 꼬가리:** ㉦담뱃대의 담배 넣는 부분.
 0. 할아버지께서 담배 꼬가리에 담배를 담으신다.
- 꼬갱이:** ㉧꼬갱이. ㉨식물의 줄기. 밑에는 뿌리를 달고 위에는 가지를 뻗는다.
 0. 꼬갱이가 너무 쇠어 못 먹겠다.
 0. 나물 쉰 꼬갱이는 버려라.
- 꼬갈:** ㉩꼬갈. ㉪세모지게 만든 모자.
 0. 꼬갈을 만들어 쓰고 농약 춤을 춘다.
- 꼬감:** ㉫꼬감. ㉬껌질을 벗기고 껌챙이에 껌어 말린 껌.
 0. 꼬감 껌지에서 껌감 빼먹듯 한다.(애써 알뜰히 모아둔 것을 조금씩 털어서 없애는 모양)
 0.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 껌감.(아기가 울 적에 '호랑이 온다'하면 안 그치나 '껌감 보라'하면 그침을 비유해 하는 말)
- 꼬괭이:** ㉭꼬괭이. ㉮단단한 땅을 파는 데 쓰는 연장.
 0. 꼬괭이로 돌을 파낸다.
 0. 굳은 땅은 껌괭이로 파야 한다.
- 꼬끼바리(꼬두바리. 껌바리. 껌아리. 껌뚜바리. 껌지. 껌지바리. 껌바리. 껌지. 껌지바리):** ㉯껌똥.
 0. 운동회날 껌끼바리는 면해야 할텐데...

꼬누(꼬니): ㉠고누. ㉡땅이나 종이 위에 말발을 그려 서로 상대방의 말을 많이 따거나 길을 막음으로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

0. 꼬누를 두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꼬뉘: ㉠겨누어. 조준해.

0. 새총을 꼬뉘 새를 잡아.

꼬니: →꼬누.

꼬다리(꼭다리): ㉠꼭지.

1. 그릇의 뚜껑이나 가구 따위에 붙은 손잡이.

0. 수도 꼬다리를 꼭 잠근다.

2. 앞이나 열매를 지탱하는 줄기.

0. 가지 꼬다리가 약이래.

0. 감 꼬다리를 잘 따거라.

꼬뎡이: ㉠언덕. 구릉.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0. 그 꼬뎡이 오르기가 무척 힘들어.

0. 꼬뎡이에 비탈밭이 있다.

꼬두머리: ㉠곱슬머리. 고수머리.

0. 너는 머리가 꼬두머리구나.

꼬두바리: →꼬끼바리.

꼬두밥: ㉠고두밥. ㉡아주 된 밥.

0. 꼬두밥은 술 담글 때 찐다.

0. 아침밥이 꼬두밥이 됐다.

꼬들빼기: ㉠고들빼기. ㉡국화과의 두해살이풀.

0. 꼬들빼기 맛은 약간 쓰다.

0. 꼬들빼기 장아찌를 담가야겠다.

꼬등패기: →고등패기.

꼬라지(꼴딱서니, 꼴신): ㉠꼬락서니. 꼴.

0. 저 일하는 꼬라지 좀 봐.

0. 일하는 꼬라지 참 못 봐 주겠네.

꼬랑내(꼬린내, 코린내): ㉠구린내.

쿠린내. ㉡구리게 나는 냄새.

0. 두엄 뿌린 밭에서 꼬랑내가 난다.

0. 어디서 꼬랑내가 난다.(어딘가 수상한 데가 있다)

꼬랑뎡이(꼬랭이, 썩대기, 썩뎡이):

㉠꼬랑지. 꼬리. 썩지.

1. 동물의 썩무나나 몸뚱이의 뒤 끝에 나와 있는 부분.

0. 강아지가 꼬랑뎡이를 흔든다.(아양을 띤다)

2. 시물을 찾거나 쫓아갈 수 있을 만한 흔적

0. 꼬랑뎡이가 길면 밟힌다.(나쁜 짓을 계속하면 결국 잡힌다)

0. 꼬랑뎡이를 감춘다.(자취를 감춘다)

0. 꼬랑뎡이를 사린다.(겁이나서 슬슬 피하거나 움추러든다)

3. 사물의 한쪽 끝에 있는 부분

0. 꼬랑뎡이를 단다(더 보태어 말한다. 조건을 붙인다)

0. 무 꼬랑뎡이가 길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단다.

꼬랭이: →꼬랑뎡이.

꼬로망태: ㉡만취된 상태.

0. 저 할아버지 장에 가셨다 꼬로망태가 됐다.

꼬로박는다: ㉡짐을 넘어뜨린다.

0. 소가 짐을 언덕에 꼬로박는다.

꼬린내: →꼬랑내.

꼬매이: ㉠꼬마.

0. 꼬매이가 재롱을 부리며 잘 논다.
- 꼬맨다(꺾맨다):** ㉠꺾맨다.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깎거나 얹는다.
0. 어머니가 양말 뚫어진 곳을 꼬맨다.
0. 할머니가 바지 타진 곳을 꼬맨다.
- 꼬미(꺾미, 꺾미):** ㉠고명. 웃고명.
- ㉡음식의 양념이 되면서 모양을 꾸미기 위하여 음식에 올리는 것의 통칭.
0. 국수에 김 꼬미를 얹으면 맛이 좋다.
0. 지단을 썰어 꼬미로 얹는다.
- 꼬바리: →꼬끼바리.
- 꼬부랭이:** ㉠끝 달이의 낫춤말.
0. 그래도 머슴아 꼬부랭이라고 힘을 쓰네.
0. 머슴아 꼬부랭이 하나 붙들려고 불공을 드렸지.
- 꼬불뜨린다(꺾불러뜨린다):** ㉠꺾부라 뜨린다.
0. 철사를 꼬불뜨려 갈구리를 만든다.
- 꼬불러뜨린다: →꺾불뜨린다.
- 꼬생이:** ㉠꺾투리. ㉡열매 줄거리.
0. 옥수수 꼬생이는 모아서 버려라.
- 꼬소하다: →고습다.
- 꼬습다: →고습다.
- 꼬시네: →고시네.
- 꼬시다: →고습다.
- 꼬시러진다:** ㉠꺾꾸라진다. ㉡앞으로 꼬부라져 쓰러진다.
0. 술에 취했으나, 비틀거리더니 꼬시러진다.
- 꼬시래: →고시네.
- 꼬신다:** ㉠꺾인다. 꺾다.
0. 사람을 살살 꼬신다.
0. 친구를 장사 같이 하자고 꼬신다.
- 꼬아리: →꼬끼바리.
- 꼬양꼬양:** ㉠단단한 모습.
0. 그 할아버지께서 아직도 꼬양꼬양 하시다.
- 꼬작바리: →고자바리.
- 꼬잡는다(꺾잡는다):** ㉠꺾잡는다.
0. 누가 와서 옆구리를 살짝 꼬잡는다.
- 꼬쟁이(꺾지, 꺾창이):** ㉠꺾창이. 꺾치.
- ㉡가늘고 길면서 끝이 뾰족한 쇠나 나무 따위의 물건.
0. 나무 꼬쟁이로 밤송이를 깎다.
0. 꽃감 꼬쟁이 빼 먹듯 한다.(하나 둘 자꾸 줄어드는 현상을 말함)
- 꼬쟁이떡:** ㉠가래떡. ㉡둥글고 길게 만들어 누른 흰 떡.
0. 장사집에서 꼬쟁이떡을 얻어먹었다.
- 꼬쥐(꺾쥐, 꺾쥐):** ㉠꺾려 쥐.
0. 돈 좀 꼬쥐.
0. 쌀 좀 꼬쥐.
- 꼬지: →꺾쟁이.
- 꼬지꺾지:** ㉠꺾치꺾치.
1. 몸이 몹시 마르고 야윈 모양.
0. 몸이 꼬지꺾지 말랐다.
2. 날날이 따지고 캐묻는 모양.
0. 뭘 그렇게 꼬지꺾지 캐물어.
- 꼬질: →고질.
- 꼬창이: →꺾쟁이.
- 꼬챌다: ㉠꺾챌다.
0. 느낌이 가슴에 꺾챌다.
0. 화살이 과녁 정중앙에 꺾챌다.
- 꼬초장: →고치장.

꼬추: →고추.

꼬추장: →고치장.

꼬치장: →고치장.

꼬타리(꼬투렝이): ㉠꼬투리.

1.담배 꼬투리.

0.먹다 버린 담배 꼬타리를 주워 담는다.

2.콩과 식물의 열매를 싸고 있는 껍질.

0.콩이 여무니 콩 꼬타리가 터서 벌어진다.

3.어떤 사건의 실마리.

0.사건의 꼬타리를 캔다.

4.남을 해코지하거나 혈투를 만한 거리.

0.사건의 꼬타리를 붙잡고 늘어진다.

꼬투렝이: →꼬타리.

꼭다리: →꼬다리.

꼭 쥐냈다: ㉠꼭 쥐어 놓았다.

1.용통성이 없다.

0.사람이 빈틈이 없는 것은 좋은데 꼭 쥐 났어. 여유가 없어.

2.빼뺏았다.

0.제는 자기 엄마 꼭 쥐냈어. 송편처럼 빼뺏았어.

끈총: ㉠권총. ㉡한 손으로 쏠 수 있게

만든 작은 총.

0.끈총을 허리띠에서 뽑아 들었다.

끈투: →곤투.

꼴: ㉠꼴. ㉡산과 산 사이가 움푹 패어

들어간 곳.

0.오늘은 산 꼴에 있는 논에가 일을 해야 겠다.

꼴까닥했다: ㉠죽었다.

0.그 침지가 어제 밤에 꼴까닥했다.

꼴난다: ㉠모양새 난다. 모양새를 비웃는 말.

0.기생 옷치장 꼴난다.

꼴딱서니: →꼬라지

꼴뽀바리: →꼬끼바리.

꼴리는대로(좃꼴리는대로): ㉠제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0.꼴리는대로 해 봐.

꼴신: →꼬라지.

꼴짜기: →꼴.

꼴통: ㉠꼴. ㉡머리가 나뺨을 지칭하는 말.

0.아이고 이 꼴통아, 그 것도 못하냐?

꼼꼼히: ㉠빠뜨림 없이 알뜰히.

0.소풍 가는데 빠지는 것 없이 꼼꼼히 잘 챙겨라.

꼼보: ㉠꼼보. ㉡얼굴이 얇은 사람.

0.마마 걸리면 꼼보 된다.

0.요즘은 꼼보가 드물어.

꼼적거리다: ㉠꼼작거리다. 굵적거리다.

꼼작거리다. 꼼지락거리다. 꼼적거리다.

꼼씩거리다. 꼼쩍거리다.

㉡몸을 둔하고 느리게 움직인다.

0.꼼적거리다 해 넘어 가겠다.

0.꼼적거리지만 말고 얼른 좀 해 치워라.

꼼쳐(꼼체): ㉠흠쳐.

0.상점에서 물건을 가방에 꼼쳐 넣는 것을 보았다.

꼼체: →꼼쳐.

꼼뎡이: →곶뎡이.

꼼둥어: →곶뎡이.

뽑덩이: →뽑덩이.

뽑새: →뽑추.

뽑지: →뽑끼바리.

뽑지바리: →뽑끼바리.

뽑: ㉠뽑. ㉡뽑과의 새. 산과 들에 시는데 닭과 비슷하나 꼬리가 무척 길고 아름답다.

0.뽑 대신 닭이다.(알맞은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말)

0.뽑 먹고 알 먹는다.(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된다는 말)

0.뽑 잡는 것이 매다.(실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

뽑고 먹은 자리: ㉢아무 흔적이 없음.

감감 무소식.

0.돈을 빌려가더니 뽑고 먹은 자리야. 아무 소식이 없어.

뽑대기: →뽑랑대이.

뽑대이: →뽑랑대이.

뽑돈: ㉣뽑돈.

0.뽑돈이 생겼어. 한턱 내겠네.

뽑무이: ㉤뽑무니.

1.짐승이나 새의 끌진 곳.

0.소가 일을 너무 해 뽑무이가 빠졌다.

2.엉덩이를 중심으로 한 몸의 뒷부분.

0.뽑무이를 뺀다.(슬그머니 피하여 물러난다)

3.사물의 맨 뒤나 맨 끝.

0.뽑무이를 따라다닌다.(이익을 바라고 부지런히 바짝 따라다닌다)

0.뽑무이를 사린다.(슬그머니 피하려 하거나 달아나려 한다)

뽑수: ㉥뽑수. ㉦짜짜한 수단이나 방법.

0.뽑수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

0.뽑수 부릴 생각은 아예 접어 넣으셔.

뽑어병아리(뽑어병아리): ㉧뽑의 병아리.

㉨무척 약음을 나타내는 말.

0.그 사람 뽑어병아릴세.

뽑어병아리처럼 빠져나가.

뽑짜: ㉩뽑짜. ㉪거저 얻는 물건.

0.뽑짜라면 뒷에도 기어든다.(공짜를 분에 넘치게 좋아한다는 말)

뽑감: ㉫뽑감.

0.오늘은 뽑감을 깎아야겠다.

뽑망우리(뽑봉우리): ㉬뽑망울. ㉭뽑이

피기전 뽑봉오리.

0.뽑망우리가 터질라 그란다.

0.인생도 뽑망우리 적이 있었지.

뽑방석에 앉았다: ㉮호강한다.

0.그 사람 아들 잘 키워서 뽑방석에 앉았어.

뽑발에 앉았다: ㉯여자 숲에 앉았다.

0.저 사람 뽑발에 앉았네.

뽑봉우리: →뽑망우리.

뽑새덕(뽑새덕): ㉰새새시.

0.그 예쁘던 뽑새덕 시절은 다 지나갔네.

뽑새덕: →뽑새덕.

뽑: →고아.

뽑댄다: ㉱피워댄다.

0.사랑방에 모여 담배를 뽑댄다.

0.애들아, 담배 좀 고만 뽑대라.

뽑밥: →광밥.

뽑이다: ㉲허탕이다.

0.제비뽑기에서 뽑이다.

꽤: ㉠자두. ㉡자두나무 열매. 여름철에
나며 신맛이 난다.

0. 올해는 꽤가 많이 달렸다.

0. 신 꽤는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돈다.

꽤끼바리: →꼬끼바리.

꽤대가리(꽤사니, 꽤산머리): ㉠피를
낮추어 부르는 말.

0. 꽤대가리 없이 떠들어댄다.

0. 꽤대가리 없이 그 일은 왜 하니?

꽤맨다: →꼬맨다.

꽤미: →꼬미.

꽤사니: →꽤대가리.

꽤산머리: →꽤대가리.

꽤재재(꽤죄죄): ㉠볼품 없는 모습.

0. 물골이 꽤재재한 게 물에 빠진 병아리
같다.

꽤조지: ㉠꽤보. 꽤쟁이. ㉡피가 많은
사람.

0. 그 사람 꽤조지야. 조심해.

꽤죄죄: →꽤재재.

꽤집다: →꼬잡다.

꽤지: →꼬끼바리.

꽤지바리: →꼬끼바리.

꾸니: ㉠구우니.

0. 고기를 꾸니 맛있다.

꾸덕살: →구덕살.

꾸두쇠: ㉠구두쇠. ㉡인색한 사람.

0. 꾸두쇠처럼 놀지말고 돈 좀 써 봐.

꾸럭꾸럭(꾸역꾸역): ㉠1. 먹는 모양.

2. 참는 모양.

1. 먹는 모양.

0. 굵은 아이가 밥을 만나 꾸럭꾸럭 먹고
있다.

2. 참는 모양.

0. 화가 나도 어떻게 하나. 꾸럭꾸럭
참았지.

꾸레미: ㉠꾸러미. ㉡한데 묶은 물건들.

0. 선물 꾸레미를 풀었다.

0. 열쇠 꾸레미 이리 다와(쥐라).

꾸매(꾸매): ㉠꾸며.

1. 물건을 손질하여 모양나게 만든다.

0. 모양을 보기 좋게 꾸매 봐.

2. 살림을 차리거나 마련하다.

0. 행복한 가정을 꾸맷다.

3. 서식을 꾸며서 만든다.

0. 서류를 꾸매 봐.

4. 거짓으로 둘러대거나 만든다.

0. 그건 꾸매낸 얘기다.

5. 꾸하다.

0. 음모를 꾸매맨다.

꾸물꾸물 한다: ㉠날씨가 좋지 않아 비나
눈이 오려 한다.

0. 날씨가 어째 꾸물꾸물 한다. 눈이
오려나?

꾸분다: →구분다.

꾸불렁하다: →구불렁하다.

꾸불린다: →구불린다.

꾸스러진다(꾸시러진다): ㉠쓰러진다.

1. 한쪽으로 쏠려 넘어진다.

0. 태풍에 가로수가 꾸스러진다.

2. 기업 등이 망한다.

0. 자금난에 시달려 회사가 꾸스러진다.

3. 병이나 과로 따위로 앓아눕거나 죽는다.

0. 독감에 걸려 꾸스러진다.
 꾸스러진다: →꾸스러진다.
 꾸역꾸역: →꾸러꾸러.
꾸정물(자식물): ㉠개숫물. 구정물.
 설거지물. ㉡무엇을 빨거나 씻어
 더러워진 물.
 0. 꾸정물은 두엄 밭에 부어라.
 0. 옛날엔 꾸정물도 아끼며 살았다.
 꾸물: →굶물.
꼭물두 없다: ㉢국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0. 너 자꾸 까불면 꼭물두 없다.
꾼: ㉤군. 구운.
 0. 꾀 감자는 내꺼야.
 0. 꾀 고구마대는 더 좋지.
꾼다: ㉥굽는다.
 0. 생선을 화로불에 꾀다.
꿀돼지: ㉦육십쟁이. 육십꾸러기.
 0. 혼자 먹으면 꿀돼지.
꿀밤: ㉧손가락을 구부려 툭 치는 벌.
 0. 틀렸으면 꿀밤 한 대 맞아.
꿈는다: ㉨액체 등을 입속에 넣고 ‘푸’
 하고 작은 물방울 형태로 내뿜는 것.
 0. 마른 짚을 추기기 위하여 입으로 물을
 물어 꿈는다.
꿈절에: ㉩꿈절에.
 1. 꿈을 꾸는 동안.
 0. 꿈절에 얼핏 들은 것 같애.
 2. 덧 없는 세월.
 0. 젊은 시절이 꿈절에 지나갔다.
 꿈지렁거린다: →굶지렁거린다.
 꿈지렁댄다: →굶지렁거린다.

꿍배기: →굽배기.
 꾀다: →꿍다.
꿍심: ㉪꿍꿍이썸. 꿍꿍이속.
 0. 무슨 꿍심이 있어 찾아왔지?
꿍체넣는다: ㉫감취넣는다.
 0. 뭘 꿍체넣느라고 부스럭거래?
꿍: ㉬구워.
 0. 고기 꿍먹고 가.
 0. 고등어를 지금 꿍.
 꿍귀 먹은 자리: →꿍고 먹은 자리.
 꿍어병아리: →꿍어병아리.
 꿍미: →꾀미.
 꿍바리: →꾀끼바리.
꿍창한다. ㉭꿍뚫는다.
 0. 작살로 놀래기를 꿍창했다.
꾀에: ㉮꾀임에.
 0. 남의 꾀에 뺏지마라.
 꾀지: →꾀끼바리.
 꾀지바리: →꾀끼바리.
꾀새: ㉯꾀괭과리. ㉺놋쇠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 징처럼 생겼는데 손에 가볍게 들
 수 있게 작다.
 0. 꾀새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0. 꾀새를 치면서 농악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상쇠라고 한다.
 꾀매: →꾀매.
꾀민다: ㉻꾀민다. ㉼모양나게 만든다.
 1. 물건을 어울리게 만든다.
 0. 겉모양을 꾀민다.
 2. 거짓으로 둘러대거나 만든다.
 0. 꾀민 이야기야.
 3. 글 따위를 지어 만든다.

0.서류를 꾸민다.

4.찌한다.

0.음모를 꾸민다.

끄나푸리(끄나풀. 끄내기. 끈타불):

㉞끈.

1.물건을 묶거나 꿰거나 매는 데 쓰는 가늘고 긴 줄.

0.끄나푸리 좀 가져 오너라.

2.의지할 만한 연줄.

0.끄나푸리 떨어졌다.(불어 살아가던 길이 끊어졌다)

끄나풀: →끄나푸리.

끄난는다: →꺼난는다.

끄냥구: →꺼냥구.

끄내기: →끄나푸리.

끄낸다: ㉞꺼낸다.

0.할머니가 알사탕을 끄내신다.

끄뎡긴다: ㉞끌어당긴다.

0.좁 걸으면 오금이 끄뎡긴다.

0.다리가 끄뎡겨서 못 걸겠다.

끄들고: ㉞잡아당기고.

0.여자들이 머리채를 끄들고 싸움을 한다.

끄따리(끄타리. 끄텡이. 끄트마리.

끄트바리. 끄티): ㉞끄트머리.

㉞끄트머리에 남은 것.

0.무를 뽑다 끄따리가 좀 남은 거 뽑아 가게.

0.긴 줄을 썼는데 끄따리가 어디까지인지 몰라.

끄래먹자: ㉞끓여먹자.

0.밥 끄래먹을 부엌데기 하나 구했으면

좋겠어.

0.잡아 온 꼭저구를 매운탕으로

끄래먹자.

끄름: →그름.

끄림직하다: →꺼림직하다.

끄스레미: ㉞'그슬음.'의 변형. ㉞불에 그슬어 검게 된 부분.

0.옷에 끄스레미 묻을라. 조심해라.

끄슨다(끄신다): ㉞그슨다.

1.불에 쪼어 가죽만 살짝 타게 한다.

0.부엌 아궁이 불에 강아지 털이 끄슬 었다.

2.햇볕, 연기 등을 오래 쪼어 검게 된다.

0.햇볕에 얼굴이 끄슨다.

끄슬음 →그름.

끄신다: →끄슨다

끄으름: →그름.

끄잡는다: ㉞붙잡는다.

0.술을 먹자고 자꾸 끄잡는다.

0.일을 같이 하자고 자꾸 끄잡는다.

끄친다: →근친다.

끄타리: →끄따리.

끄텡이: →끄따리.

끄트마리: →끄따리.

끄트바리: →끄따리.

끄티: →끄따리.

꼭적거린다(끌적거린다): ㉞긋적거린다.

1.자꾸 이리저리 문지른다

0.머리를 꼭적거린다.

2.글이나 그림 따위를 자꾸 쓰거나 그린다.

0.아무렇게나 글씨를 꼭적거린다.

~끈: →~까장.

끈떡없다: →꺼떡없다

끈친다: →근친다.

끈타불: →끄나푸리.

끌거리: →글거리.

끌기: →글거리.

끌는다: ㉞푼다.

0.짐 보따리를 끌는다.

끌발: ㉞끗발. ㉞끗 수. 화투할 때 나오는 수.

0.오늘은 끌발이 좋다. 돈 좀 따자.

끌적거리다: →꼭적거리다.

끌쳤다(끌꼈다): ㉞긋했다.

0.새포기(역새)에 손이 끌쳤다.

0.철조망에 발이 끌쳤다.

끌꼈다: →끌쳤다.

끊는다: ㉞긋는다.

1.날카로운 것으로 거죽을 문지른다.

0.가려운 데를 끊는다.

2.갈퀴 따위로 긋어 모은다.

0.검불을 끊는다.

3.남을 헐뜯는다.

0.끊어 부스름이다.(아무렇지도 아닌

일을 공연히 건드려 걱정을 일으킨다)

4.남의 감정 따위를 상하게 한다.

0.비위를 끊는다.

5.철필 따위로 등사지에 쓴다.

0.등사지를 철필로 끊는다.

끗발: →끌발.

공킨다: ㉞긋어진다.

0.줄이 갑자기 공킨다.

끝네미: ㉞끝의 늪.

0.끝네미 하나 났더니 그늪이 효도 해.

끝달이: ㉞끝에 달린 것.

0.고추 끝달이가 많이 맺혔어.

0.끝달이까지 알뜰히 거두어들인다.

끝둥이: ㉞막내.

0.나도 끝둥이로 태어났으면 귀여움을 받을 텐데.

끝마금: ㉞끝마감.

0.일은 끝마금을 잘 해야 해.

끝텅이: ㉞끝. ㉞끝에 달린 것.

0.나는 우리집 끝텅이로 태어났다.

0.아버지께서 지게 끝텅이에 도치를 매달고 오신다.

~끼니?: ㉞~것이니? .

0.그건 뉘 끼니?

0.이건 내 끼니 건들지 마.

~끼다(~해다): ㉞~것이다.

0.그건 우리 끼다.

0.저건 네 끼다.

끼든다: →끼든다.

끼레: ㉞긋여.

0.잡아온 뚜거리(꼭저구)로 매운탕을 끼레.

0.저녁때가 되었다. 소 여물을 끼레라.

끼미: ㉞어떤 현상에 대한 낚새, 또는 그곳.

1.낚새.

0.동생이 내 사탕 먹는 끼미를 알아 찻어.

2.그 곳.

0.물윗 끼미(수상리에 있음)에 집이 있다.

0.콜 끼미(콜이진 곳. 하왕도리에 있음)
에 밭이 있다.

깁군다: ㉠끼운다.

0.단추를 깁군다.

0.생선을 대나무 막대에 깁군다.

깁긴다: ㉠끼인다.

0.치마끈이 문틈에 깁긴다.



~ㄴ가배(~ㄴ가뵈): ㉠~ㄴ가 봐.

㉠그런가 봐.

0.오늘 장에 가려는가 배. 짐을 챙기는
걸 보면.

0.눈이 올라는가 배. 흐리는 걸 보니.

0.장마가 지려는가 배.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면.

~ㄴ가뵈: ~ㄴ가배.

나: ㉠나아.

0.올 해 나가 얼만고?

나가다라민: ㉠나가며 즉시.

0.얼음판에 나가다라민 쿠당당 미끄러
졌어.

나가떨어진다: ㉠공중 넘어진다.

0.씨름을 하다가 보기 좋게 나가떨어
졌다.

나께미(날개미): ㉠에밀 낱알 꺾데기.

0.메밀 낱알을 맏돌에 타면 알맹이와
나께미가 나온다.

0.베개 속에다 나께미를 넣는다.

0.나께미를 넣은 베개는 폭신하다.

나나니 좃끝텡이: ㉠구멍벌의 좃 끝.

보잘것없이 매우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

0.엿을 나나니 좃끝텡이만큼 쥐 놓고
생색을 내네.

나노니: ㉠놓아놓으니.

0.나노니 저렇게 컸잖아.

0.나노니 제잘났다고 한다.

나노준다: ㉠나눠준다.

0.할머니께서 떡을 나노주신다.

나달구경: ㉠밥 구경.

0.나달구경 못한 사람 같애.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면.

0.홍년엔 나달구경 하기 힘들지.

나맹긴다: ㉠나가 돌아다닌다.

0.감기 걸리고도 저렇게 나맹긴다.

0.독감이 무섭다. 나맹기지 말아라.

나두: ㉠나도.

0.나두 장에 같이 갈래.

나두룩: ㉠나도룩.

0.땀이 나두룩 일을 열심히 했다.

0.마루 바닥을 윤기가 나두룩 닦았다.

나드리: ㉠출입을 하는 일.

0.아버지께서 나드리 나가셨다.

나라부: ㉠나라히.

0.면사무소에 가 나라부 서서 밀가루를
타왔다.(6.25 때 미국이 지원해준

- 밀가루를 타다 먹었음)
- 나래(날개미):** ㉠날개.
1. 새나 곤충이 날 때에 펴는 부분
 - 0. 나래 붙어진 매다. (기운을 못 쓰는 처지가 되었음을 이르는 말)
 - 0. 나래 없는 봉황이다. (아무 데도 쓸모 없고 보람 없게 된 처지가 되었다는 말)
 2. 비행기 양쪽 옆에 단 부분.
 - 0. 비행기 은빛 나래가 햇살에 번쩍인다.
 3. 어떤 물건에 붙쳐 바람을 일으키는 부분.
 - 0. 바람개비 나래를 돌려라. 벼에 섞인 부스러기를 날리자.
 4. 상품 등이 재빨리 팔린다.
 - 0. 신제품이 나래 돌친 듯이 팔린다.

- 나래쪽지:** ㉠날개 죽지.
- 0. 새 나래쪽지가 붙어진 모양이다. 날지 못한다.

- 나릿가:** ㉠바닷가. 나룻가.
- 0. 나릿가 사람이 오징어를 팔러 왔다.
 - 0. 아버지께서 나릿가에 가서 장작 팔아 도치를 사 오셨다.

- 나마니:** ㉠나이 많은 이.
- 0. 음식은 나마니부터 먼저 드려야 한다.

- 나무(나무):** ㉠나무의.
- 0. 나무 말도 잘 들어야 한다.
 - 0. 나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 나무대기(낭구땡이. 낭그땡이. 낭그땡이):** ㉠나무 막대기.
- 0. 거기 나무대기 가져온.
 - 0. 나무대기로 이불 먼지를 털다.

- 나무린다(나물군다):** ㉠나무란다.

꾸짖는다. ㉠잘못을 꾸짖어 알아듣도록 한다.

- 0. 거짓말하는 아이를 나무린다.
- 0. 그 사람은 나무릴 데 없는 사람이야.

- 나무 해:** ㉠남의 것.
- 0. 나무 해는 건드리지 마.
 - 0. 나무 해는 넘봐서도 아니 된다.

나물군다: →나무린다.

- 나물꼭죽:** ㉠시래기나 산나물, 좁쌀, 고추장 등을 넣고 끓인 죽.
- 0. 나물꼭죽을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지.

나물취: ㉠참취.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 식용함.

- 0. 나물취 나물이 향긋해서 맛이 있다.

나무: →나무.

- 나무구:** ㉠나이가 많이 든 사람.
- 0. 그 사람이 그래 봐도 나무구야.

나무박신: ㉠나무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신.

- 0. 나무박신은 비가 올 때 신는다.

나무발간다(흰나무발간다): ㉠흰소리친다.

- 0. 터무니없이 떠벌리는 말을 한다.
- 0. 나무발까지 말고 잠자코 있어.

나무발난다(당나무발난다): ㉠까뒤집힌다.

- 0. 알려진다.
- 1. 까뒤집힌다.
 - 0. 짚신을 신고 달렸더니 다 나무발난다.
- 2. 알려진다.
 - 0. 싸움하는 통에 모든 일이 다 나무발난다.

나무발분다: ㉠알린다. 마신다. 자백한다.

- 1.알린다.
0.자가 나발붙어 비밀이 탄로났어
- 2.마신다.
0.술을 병째로 나발분다.
- 3.자백한다.
0.제 잘못을 다 나발분다.
- 나발이:** ㉠떠버리. ㉡늘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0.저 나발이 온다. 또 시끄럽겠구만.
- 나뱅이(나부):** ㉠나비. ㉡나비아목 곤충의 총칭. 애벌레는 채소, 나무, 풀잎을 갉아 먹음.
0.봄철이 됐는가보다 나뱅이가 벌써 나왔다.
0.나뱅이는 보기는 좋으나 채소, 나뭇잎을 갉아 먹는 해충이다.
- 나부: →나뱅이.
- 나뻘대기:** ㉠얼굴을 낮추어 이르는 말.
0.나뻘대기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0.나뻘대기가 뻘뻘스럽기도 해.
- 나사가 빠졌어(나사가 풀렸어):**
㉠정신이 좀 나갔어.
0.그 사람 나사가 빠졌어. 어수룩해.
- 나사가 풀렸어: →나사가 빠졌어.
- 나생이:** ㉠냉이. ㉡겨갯과의 두해살이풀.
0.나생이 캐러 가자.
0.봄 나생이 국은 봄 냄새가 난다.
- 나센다:** ㉠나선다.
0.그 사람은 남의 일에도 발 벗고 나센다.
- 나았어:** ㉠물러나 앓아.
0.아궁이 불뚱 된다, 좀 나았어.
- 0.그 일엔 이젠 관심 끊고 좀 나왔어 있어 봐.
- 나원참(나참):** ㉠어떤 상황에 어이가 없을 나타내는 말.
0.나원참 안 그렇대도 자꾸 그러네.
0.나원참 어이가 없네.
- 나으:** ㉠나아.
0.나으 어디로 먹었나.
0.나으 값을 해봐.
- 나으레(나흐레):** ㉠나흘. 4일.
0.몸살이 나서 나으레만에 일어났네.
- 나즈막하다:** ㉠나지막하다.
0.목소리가 나지막한 게 애쁘게 얘기한다.
- 나참: →나원참.
- 나캉(내캉):** ㉠나랑.
0.나캉 씨름할 래?
0.나캉 송이 따러 갈래?
- 나과:** ㉠낱게 하다.
0.아버지께서 지금 송아지를 나과.
- 나흐레: →나으레.
- 낙동강 오리알:** ㉠처량한 신세.
0.그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낙동강 오리알 됐네.
- 낙성:** ㉠낙상.
0.그 사람 소 타다가 낙성했대.
- 낙수:** ㉠낙시.
1.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데 쓰는 도구.
0.낙수 줄을 물에 드리운다.
0.낙수 줄에 물고기가 걸렸다.
- 2.이득을 얻기 위해 사람을 꺾는데 쓰는 수단.

0.낙수를 던진다.(남을 피어내기 위한 수단을 쓴다)

낙었다: ㉠낙었다.

1.낙시로 물고기를 낚는다.

0.월척을 낚었다.

2.여자를 사귈다.

0.예쁜 여자를 낚었다.

3.기회나 행운을 얻는다.

0.좋은 행운을 낚었다.

난기: ㉠1.병이 난 것. 2.병이 낳은 것.

3.아이를 낳은 것.

1.병이 난 것.

0.병이 난기여. 들어 눕는 걸 보면...

2.병이 낳은 것.

0.감기가 난기여. 뛰다니며 노는 걸 보면.

3.아이를 낳은 것.

0.아이를 난기 이번엔 아들이래.

난도: ㉠나도.

0.난도 장에 따라 갈래.

0.난도 운동화 사줘.

난상: ㉠난생.

0.그 일은 난상 처음 겪는 일일세.

난자(난재): ㉠나 앓아.

0.거기 좀 비켜 난자.

난재: →난자.

난쟁이 좇마한: ㉠조그마한.

0.으, 그 난쟁이 좇마한 사람 말이여?

난중(낭중. 내중. 낸중. 냉중. 애중.

앤중. 앵중. 야중. 안중. 양중. 예중.

옌중. 영중): ㉠나중.

0.난중에 난 뿔이 우뚝하다.(아우가

형보다 나음을 비유하는 말)

0.난중이야 산수갑산 같지라도.(일의 결과가 최악의 경우에

이를지라도 오늘은 할대로 한다는 말)

0.난중에 보자는 사람 무서울 게

없더라. (시간이 지나면 김이 빠져

성사되기 어렵다는 말)

난즌: ㉠난전. ㉡장바닥에 펼쳐 놓은 가게.

0.지난 장날 난즌에서 싸구려 하나 샀지.

난개미: →나깨미.

날개미: →나래.

날거루(날걸루): ㉠생 것으로. 생 걸로.

0.고기를 날거루 먹게?

0.날거루 먹으려면 회를 떠야지 머.

날걸루: →날거루.

날과 같이: ㉠나와 같이.

0.날과 같이 장사해 보세.

날기: ㉠마르지 않은 생곡식.

0.날기를 말려야겠다. 마당에 멍석을 펴라.

날래(날랭가라): ㉠빨리. ㉡걸리는 시간이 짧게.

0.남보다 늦게 시작해서 날래 끝냈다.

날랭가라: →날래.

날른다: ㉠나른다.

0.뱃단을 날른다.

0.이삿짐을 부지런히 날른다.

날마둥: ㉠날마다.

0.요즘은 날마둥 비가 온다.

날새(날쌔. 웃날): ㉠날씨. ㉡그날의 기상 상태.

0.날새가 고르지 못하다.

0. 날새가 좀 풀리려나 보다.
날세계: ㉠날렵하게.
 0. 저 아이는 날세계 잘 뿔다.
 날째: →날새.
날써돌이: ㉠날렵한 사람.
 0. 날써돌이 나간다. 길을 비켜라.
날이 꾸물꾸물 한다(날이 꿈틀꿈틀 한다): ㉠비나 눈이 올려고 한다.
 0. 눈이 오려나 날이 꾸물꾸물 한다.
 날이 꿈틀꿈틀 한다: →날이 꾸물꾸물 한다.
날이 들었다: ㉠날이 개였다.
 0. 장마가 그칠려나보다. 날이 들었다.
 0. 날이 들거든 떠나라.
날이 지질거린다: ㉠비나 눈이 오락가락 한다.
 0. 요즈음은 계속 날이 지질거린다.
날자: ㉠도망가자의 속어.
 0. 과수원 권 나온다. 날자, 날자.
날 잡아 잡수: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뜻.
 0. 가진 게 없으니 '날 잡아 잡수'하고 쿡 돈을 안 주네.
날파리: ㉠하루살이. ㉠또는 날아다니는 곤충.
 0. 모기불을 해 놓으면 날파리들이 모여 든다.
남기간유?: ㉠남기겠어요?
 0. 먹던 술을 남기간유?
 0. 잡숫던 밥을 남기간유?
남달르다: ㉠남다르다.
 0. 그 사람은 처신하는 것이 남달르다.

남먼처(남먼침): ㉠남 먼저.
 0. 맡겨진 일을 남먼처 해치웠다.
 남먼침: →남먼처.
남박: ㉠이남박. ㉠쌀 따위를 일 때 쓰는 작은 함지박.
 0. 어머니께서 남박에 쌀을 이신다.
남비: ㉠냄비.
 0. 남비에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
남사스럽다: ㉠남세스럽다. ㉠남보기 창피스럽다.
 0. 옷을 남들처럼 잘 못 입히니 남사스럽다.
 0. 농사를 잘 못 지으니 남사스럽지 머유.
남새: ㉠뱀에 물리는 것.
 0. 맨발로 밭에 들어가면 남새하기 쉽다.
남어난다: ㉠남아난다.
 0. 전쟁 중에도 남아나는 사람은 있어.
남이사: ㉠남이야.
 0. 남이사 전봇대로 콧구멍을 쭈시건말건 왜 참견이야.
남정바리: ㉠감성돔 새끼. ㉠감성돔과의 바닷물고기.
 0. 남정바리가 역수로 들어왔대.
 0. 친구, 남정바리 낚시 가세.
남편: ㉠남편.
 0. 저 남자는 누구 남편이래?
납작하다: ㉠납작하다.
 1. 얇으면서 약간 넓다.
 0. 접시가 납작하다
 2. 기를 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0. 잘난 체하는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낫새: ㉠나잇살. ㉠나이 먹은 정도를

낮잡아 이르는 말.

0.그 사람 낮새가 얼마래?

0.그 사람 낮새가 지극해 보이던데...

낮잘구(낮잘그. 낮잘기): ㉞낮자루.

0.낮잘구가 빠졌어.

낮잘그: →낮잘구.

낮잘기: →낮잘구.

낭거지(냉거지): ㉞나머지.

1.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

0.쓰고 난 낭거지는 모아 두어라.

2.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

0.오늘 못다하면 낭거지는 내일 해라.

낭군다: ㉞남긴다.

0.밥을 먹다 낭군다.

낭구(낭그. 낭기): ㉞나무. ㉞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

0.낭구에 오르라 하고 혼드는 격.(남을
피어 위험한 곳이나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함)

0.오르지 못할 낭구 쳐다보지도 말랬다.
(못할 일은 야에 엄두도 내지 말라는
말)

낭구땡이: →나무대기.

낭그: →낭구.

낭그떼기: →나무대기.

낭그땡이: →나무대기.

낭기: →낭구.

낭중: →난중.

낭챙이: ㉞자기만 아는 얽치없는 사람.

0.그 여잔 낭챙이야. 자기만 알아.

낮가래: ㉞낮선 사람을 싫어하는 ‘가리다.’
에서 온 말.

0.아이가 낮을 가래.

0.개도 낮을 가리지.

낮가죽(낮바닥. 낮배기): ㉞낮. 얼굴.

0.낮가죽이 몹시 두꺼운 사람이다.
(체면이 없는 사람이다)

낮간지롭다: ㉞낮간지럽다. ㉞듣기에 거북
하고 부끄럽다.

0.그런 소리를 들으니 내가 다 낮간지롭
다.

0.그 낮간지루운 소리 그만 해라.

낮바닥: →낮가죽.

낮배기: →낮가죽.

낮뻘대기(낮빼기. 낮짹빼기. 낮짹배기.

낮판대기): ㉞낮을 낮추어 부르는 말.

0.낮뻘대기가 두겹다.(염치가 없고 뻘뻘
스러우며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낮빼기: →낮뻘대기.

낮짹빼기: →낮뻘대기.

낮짹배기: →낮뻘대기.

낮판대기: →낮뻘대기.

날가치(날개피): ㉞날개비.

0.담배 날가치를 꺼내문다.

날개피: →날가치.

내구리: ㉞연기.

0.부엌에서 내구리가 나온다.

내굽다: ㉞연기가 눈코를 쏜다

0.부엌 아궁이에서 연기가 나와 내굽다.

0.모기불은 내굽게 해 놓아야 모기가
달아난다.

내금새(내음): ㉞냄새.

0.명절이 되니 기름 내금새가 사방에서
난다.

0. 튀김집을 지나면 기름 내금새가 진동한다.

내끈재(내끈져, 내뀨재, 내다끈재).

내똥재): ㉠내똥져. 내버려.

0. 고등어 내장은 내끈재라.

0. 여기다 쓰레기를 내끈지지 마.

내끈져: →내끈재.

내뀨재: →내끈재.

내뀨다(내리뀨다): ㉠다 안다.

0. 그 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내뀨다.

내나: ㉠나나.

0. 그 벌레 먹은 건 뇌똥라. 내나 먹게.

내노라한다: ㉠내노라한다.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0.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선 내노라한다.

내다끈재: →내끈재.

내다똥다: ㉠내다 버린다.

0. 말 안들으면 내다똥다.

내달군다: ㉠내쫓는다.

0. 곡식을 먹는 닭을 내달군다.

내똥재: →내끈재.

내래가: ㉠내려가.

0. 언덕 밑에 내래가 봐. ‘소가 있나?’ 하고

0. 내래가긴 쉬워도 올라가긴 힘들다.

내래군다: ㉠내려군다.

0. 묘등지에서 내래군다.

0. 언덕에서 내래굴었다.

내래 굶는다: ㉠내리 굶는다.

0. 제비뽑기 줄을 내래 굶는다.

내래놓는다: ㉠내려놓는다.

0. 무거운 짐을 내래놓는다.

0. 한 근심을 내래놓는다.

내래다본다: ㉠내려다본다.

0. 내래다보지 마. 어지러워!

0. 그래도 자꾸 내래다본다.

내래다지(내리다지): ㉠아래로, 밑으로.

0. 나뭇잎을 내래다지로 훑어.

0. 내리다지로 미끄러졌다.

내래똥다: ㉠내려 똥다.

0. 송아지가 언덕을 내래 똥다.

내래띠린다: ㉠내려뜨린다.

0. 발을 문 앞에 내래띠린다.

내래막: ㉠내리막. ㉡내려가는 길이나 땅의 바다.

0. 내래막 길을 조심해야 한다.

내래바탕(내리바탕): ㉠내리받이.

㉡비탈진 곳의 내려가는 길.

0. 내래바탕에 소 조심해라. 내려 굴라.

내랬다: ㉠내렸다.

1.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하여 옮겼다.

0. 물가가 좀 내랬다.

2. 눈, 비, 이슬 따위가 왔다.

0. 간밤에 이슬이 많이 내랬다.

3. 타고 있던 데서 밖으로 나왔다.

0. 신부가 가마에서 내랬다.

4. 어둠, 안개 따위가 짙어지거나 덮였다.

0. 땅거미가 내래서 어두컴컴하다.

5. 먹은 것이 소화가 됐다.

0. 거북하던 체증이 내랬다.

6. 찢거나 부엌던 살이 빠졌다.

0. 살이 많이 내랬다.

7. 신이 몸에 잡혔다.

0. 신이 내랬다.

8.뿌리가 나서 땅속으로 뻗어 들어갔다.
 0.고추모가 뿌리를 내렸다.
 9.상이나 벌 따위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쳤다.
 0.고을 원님께서 금주령을 내렸다.
 10.판결,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지었다.
 0.자네 참 용단을 잘 내렸네.
 11.가루 따위를 체로 쳤다.
 0.밀가루를 체로 내렸다.
 내리편다: →내편다.
 내리다지: →내래다지.
 내리바탕: →내래바탕.
내리박을 맞는다: ㉠일이 잘 안된다.
 1.사업이 안된다.
 0.그 사업이 쪽 내리박을 맞는다.
 2.좌천 된다.
 0.군에 근무하다 내리박을 맞아 면으로 갔다.
내만치(내만침): ㉡나 만큼.
 0.내만치만 하라 그래.
 0.내만치도 못하면서 뭐 그래.
 내만침: →내만치.
내맡긴다: ㉢내맡긴다. 일임한다.
 1.아주 맡긴다.
 0.일처리를 내맡긴다.
 2.되는 대로 둔다.
 0.운명에 내맡긴다.
내몰군다: ㉣내몬다.
 0.명석에 낀 난알을 먹는 닭을 마당 밖으로 내몰군다.
내배시: ㉤별 생각 없이.
 0.누가 구슬을 달라 하거든 또 내배시

주지 마.
 0.사탕을 달라 히니 내배시 다 내준다.
내버래(내비래, 내뻘래): ㉥내버려.
 0.구질구질한 건 내버래.
 0.잡생각은 다 내버래.
 내비래: →내버래.
내뻘다: ㉦달아난다.
 0.일하다 말고 슬그머니 내뻘다.
내뻘진다: ㉧내다 버린다.
 0.낡은 옷을 내뻘진다.
 0.나쁜 생각은 이젠 다 내뻘지고 살게나.
 내뻘래: →내버래.
내사(내야): ㉨내야.
 0.내사 며 안 먹어도 된다.
 내야: →내사.
내연남: ㉩개구멍서방.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남몰래 계집을 보러 드나드는 사람.
 0.내연남이 항상 문제가 된다.
내우: ㉪부부, 내외.
 1.부부 간에.
 0.내우 간에 며 가릴 게 있나.
 2.남녀 간에.
 0.저 여잔 내우 하나 봐. 남자들을 자꾸 피하네.
 내음: →내금새.
내잖다: ㉫계속 잤다.
 0.오늘 아침엔 그냥 내잖다.
내쫓 빨아라: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친다.
 0.일을 시키니 '내쫓 빨아라'하고 도망친다.

내중: →난중.

내질른다: ㉠내지른다.

- 1. 주먹 받길 등을 힘껏 뺨친다.
- 0. 주먹을 내질른다.
- 2. 소리를 힘껏 지른다.
- 0. 고품을 내질른다.
- 3. 똥, 오줌을 마구 썬다.
- 0. 닭은 똥을 아무 데고 내질른다.
- 4. 아이를 낳는다.
- 0. 아이를 내질러놓고 달아났나네.

내쫓인다: ㉠내쫓는다.

- 0. 밭에 든 송아지를 내쫓인다.

내친짐에: ㉠내친짐에. 하던 짐에.

- 0. 내친짐에 밭을 마주 매지 며.

내캉: →나캉.

내코가 석자다: ㉠내 할 일이 앞에 많다.

- 0. 내코가 석잔데 그 일을 거들어 드릴 수 있겠나.

내튀다: ㉠달아난다.

- 0. 혼을 낼렀더니 내튀고 말았다.

내패댕이친다: ㉠내뺨게친다.

- 0. 하던 일을 내패댕이치고 달아났네.

내 해: ㉠내 것.

- 0. 그건 내 해야. 손대지 마.
- 0. 내 해 네 해 머 가릴 거 있다.

넌들: ㉠난들.

- 0. 일이 안되는 걸 넌들 어찌겠나.

넌중: →난중.

넌름: ㉠널름.

- 1. 혀를 빠르게 내밀었다 들인는 모습.
- 0. 뱀이 혀를 널름 내민다.
- 2. 재빠르게 받아 가지는 모양.

0. 찰떡을 한 입에 널름 받아 먹는다.

넙다뺨다(넙다뺨다): ㉠달아난다.

- ㉠위험을 피하여 도망친다.
- 0. 개가 달려들거든 넙다뺨거라.
- 0. 넙다뺨는 노루 보다 잡은 토끼 놓는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말)

넙다꼐진다: ㉠세게 내던진다.

- 0. 죽은 쥐를 풀숲에 넙다꼐진다.

넙다뺨다: →넙다뺨다.

냉거지: →낭거지.

냉게 준다: ㉠남겨준다. ㉠물품을 남긴다.

- 0. 형이 빵을 먹다 냉게 준다.

냉구리: ㉠매운 연기. ㉠물건이 불에 탈

- 때 독하게 나는 검거나, 뿌연 연기.
- 0. 생송아리는 냉구리가 많이 나온다.
- 0. 냉구리 피우지 마. 눈 시구롭다.

냉긴다: ㉠남긴다. 넘긴다.

- 1. 나머지가 있다.
- 0. 밥을 먹다 냉긴다.
- 2.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전한다.
- 0. 호랑이는 가죽을 냉기고 사람은 이름을 냉긴다.
- 3. 이익을 보게 한다.
- 0. 본전의 배가되는 이익을 냉게 놓았다.

냉맨: ㉠냉면.

- 0. 날씨 더운데 냉맨 먹으러 가세.

냉중: →난중.

~너?: ㉠~나?

- 0. 학교에 가너?
- 0. 맡긴 일이 다 됐너?

너까진게(네까진게. 네까짓게):

㉠네까짓 것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
 0. 너까진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너깐 년(네깐 년. 느깐 년. 느 년. 니깐 년. 니 년): ㉠너 같은 년.
 0. 너깐 년이 그걸 하겠니?
 0. 너깐 년은 생각에도 없다.

너깐 놈(네깐 놈. 느깐 놈. 니깐 놈):
 ㉠너 같은 놈.
 0. 너깐 놈 맘대로 해라. 누가 겁낼 줄 알고.

너덜(느덜. 느들. 니네들. 니덜. 니들):
 ㉠너희들.
 0. 너덜이 왔구나.
 0. 너덜은 잘 있었냐?

너랑나랑: ㉠너하고 나하고.
 0. 너랑나랑 둘이 가자.
 0. 너랑나랑 같이 일하자.

너래바위(너래반석): ㉠너럭바위. ㉠넓고 평평한 바위.
 0. 냇가 너래바위는 놀기가 좋다.
 0. 너래바위에 둘러 앉아 점심을 먹는다.

너래반석: →너래바위.

너매: ㉠너머. ㉠집이나 산 따위 높은 것의 저쪽.
 0. 산 너매로 저녁 노을이 붉게탄다.
 0. 해질 무렵 산 너매 고갯길엔 부엉이가 운다.

너머너머: ㉠너무너무.
 0. 그 일은 너머너머 힘들어.

너베시(네베시): ㉠넋없이.
 0. 김밥을 너베시 남 다 주고 자기는 못 먹는다.

너블레기: ㉠화사. ㉠울긋불긋한 뱀. 독이 약하다.
 0. 저기 너블레기 간다.

너브래: ㉠널려있는 모양.
 0. 쓰레기가 너브래 널려 있다.
 0. 너브래 수다 떨지 마.

너시레: ㉠너스레.
 1. 걸침 막대.
 0. 감자 구덩이에 너시레를 걸쳐놓는다.
 2. 잡다한 이야기.
 0. 너시레 그만 떨고 밥이나 먹어.

너웃너웃: ㉠뉘엿뉘엿.
 1. 해가 지려고 한다.
 0. 해가 서산마루에 너웃너웃 넘어간다.
 2. 토할 것 같다.
 0. 속이 너웃너웃 토할 것 같다.

너이(느이): 냇.
 0. 일할 사람이 너이다.
 0. 나이가 서른 너이요.

너저리: ㉠머저리. ㉠바보 같은 사람.
 0. 너저리 짓 하지 말고 좀 잘 해봐.

너저부레하다: ㉠너저분하다.
 0. 살림살이가 너저부레 흩어져 있다.

너전하다: ㉠바보스럽다.
 0. 사람이 좀 너전한 게 그래.

너줄하다: ㉠너절하다.
 1. 허름하고 지저분하다.
 0. 옷차림이 너줄하다.
 2. 하찮고 시시하다.
 0. 변명을 너줄하게 늘어놓는다.

너캉나캉(니캉나캉. 니하카나카):
 ㉠너랑 나랑. 너하고 나하고.

0.너캉나캉 등산 가자.

0.너캉나캉은 마음이 통해.

너폐: ㉠넓혀.

0.팔을 더 너폐 봐.

0.고무줄을 더 너폐 봐.

넉매가루(녹매가루): ㉠녹말가루.

0.감자 넉매가루 떡은 쫄깃쫄깃한 게
맛이 있다.

넉적다(넉쩍다): ㉠곁연쩍다. ㉡너무

미안하여 낮이 화끈하다.

0.야, 넉적다야. 그런 얘기 그만해라.

넉쩍다: →넉적다.

넌도난도(넌두난두): ㉠너도나도.

0.일이 잘못되면 넌도난도 다 큰 일이야.

넌두난두: →넌도난도.

넌넌하다(늘늘하다. 늘름하다.

늘리리하다): ㉠늘비하다. ㉡많이

흩어져 있는 모습.

0.짜구려 판에 옷이 넌넌하다.

0.집들이 넌넌하게 들어서 있다.

넌부러졌다: ㉡여기저기 흩어졌다.

0.벧죃단이 바람에 여기저기 넌부러졌다.

넌뻥대기(넌판대기): ㉠넌뻥지.

0.마루에 넌뻥대기를 깎다.

0.넌뻥대기를 받쳐놓고 널을 뺀다.

넌찌가이: ㉠넌찌하게. ㉡꽤 너르게.

0.방을 넌찌가이 만들었군.

0.넌찌가이 둘러 앉아 봐.

넌쿤다: ㉠넓힌다.

0.방을 넌쿤다.

0.마당을 넌쿤다.

넌판대기: →넌뻥대기.

넌이뛰기: ㉠멀리뛰기.

0.넌이뛰기 해서 내가 제일 멀리 뛰었어.

넌신거린다(능신거린다): ㉡먹고 싶어

한다.

0.음식 보고 넌신거리지 마. 추해 보여.

넌실거린다(능실거린다): ㉡비웃살 좋게

대한다.

0.그 앤 잘 넌실거린다.

0.잘 넌실거리면 사회성이 좋은 아이지.

넌어지민: ㉠넌어지면서.

0.넌어지민 그래도 난간을 붙들었다.

0.씨름을 할 때 넌어지민서 되걸어 결국
이겼다.

넌체흐른다(넌체흘른다): ㉠넌쳐흐른다.

0.두부 가마가 넌체흐른다.

넌체흘른다: →넌쳐흐른다.

넌데기: ㉡넓은 정도.

0.그 밭 넌데기가 얼마래.

0.얼굴 넌데기가 넓기도 해라.(체면없이
뻔뻔스러움을 이르는 말)

넌떡하다: ㉠넌떡하다.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

0.얼굴이 둥굴 넌떡하다.

넌적코: ㉠납작코.

0.그집 처녀는 넌적코더라.

넌쩍: ㉠넌쩍. 넌죽.

1.무엇을 받아 먹거나 말 대답을 할 때
입을 넌큼 벌렸다 닫는 모양.

0.아기가 밥을 넌쩍 받아 먹는다.

2.몸을 바닥에 대고 넌큼 엎드리는 모양.

0.넌쩍 엎드려 절을 한다.

넌게뜨린다(넌게띠린다. 냉게뜨린다.

냉게띠린다: ㉸넘어뜨린다.
 0. 나무를 베어 냉게뜨린다.
 0. 씨름을 하다 상대를 냉게뜨린다.
 냉게띠린다: →냉게뜨린다.
냉긴다: ㉸넘긴다.
 1.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넘어가게 한다.
 0. 담 너머로 공을 냉긴다.
 2. 책임을 넘겨준다.
 0. 회장직을 냉긴다.
냉큼: ㉸냉큼. ㉸머뭇거리지 않고 가볍게 빨리.
 0. 강아지가 간식을 냉큼 받아먹는다.
 네까진게: →너까진게.
 네까짓게: →너까짓게.
 네깐 년: →너깐 년.
 네깐 놈: →너깐 놈.
네미: ㉸놈. 녀석.
 0. 큰 네미가 올해 학교에 들어간다.
 0. 작은 네민 올해 몇 살이고.
네미룩내미룩: ㉸서로 밀고 있는 모양.
 0. 일을 네미룩내미룩 하지 말고 모두 맡아서 하자고.
네발도지: ㉸네발 달린 짐승.
 0. 네발도지 잡으러 눈 덮인 산에 사냥을 간다.
 네베시: →너베시.
넬진다: ㉸떨어진다.
 0. 떡이 아기 손에서 넬진다. .
넬게다본다: ㉸넘겨다본다.
 0. 뭘 자꾸 넬게다 봐.
 냉게뜨린다: →냉게뜨린다.
 냉게띠린다: →냉게뜨린다.

냉게박힌다: ㉸넘어져 거꾸로 박힌다.
 0. 소가 언덕을 돌다가 그만 냉게박혔다.
냉게받는다: ㉸넘겨받는다.
 0.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한꺼번에 냉게 받았다.
냉게씩운다: ㉸넘겨 씹운다.
 0. 자기가 잘못해 놓고 남한테 냉게 씹운다.
 냉게준다: →냉게준다.
냉게짚다: ㉸넘겨짚다. ㉸남의 마음을 미리 짐작한다.
 0. 그렇게 냉게짚다 팔 붙어지겠다.
냉긴다: ㉸남긴다.
 0. 밥을 먹다 냉긴다.
~노: ㉸~나. ㉸감탄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0. 이 일을 어째노.
 0. 이 일을 언제 다 하노.
 0. 집엔 언제 가노.
노고지나무: ㉸노간주 나무.
 ㉸측백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
 0. 노고지나무 기어오르듯 한다. (서로 말을 자꾸 주고받으며 싸운다는 말)
노골노골하다: ㉸노골노골하다. 노긋노긋하다. ㉸부드럽고 쉽다.
 0. 그 사람은 좀 노골노골하다.
 0. 노골노골하면 말하기 쉽지.
노그네하다(노그니하다): ㉸노곤하다.
 0. 봄이 돌아왔나보다. 몸이 노그네하다.
 노그니하다: →노그네하다.
노나(노네, 노놔, 노뉘, 농가, 농거, 농고, 농귀): ㉸나누어.

0.떡을 반으로 노나.
 0.양쪽 똑 같이 노나.
노난다: ㉸화투에서 곱이 된다.
 0.이번 판엔 내가 노난다.
 0.돈돈 노난다.(두번 겹쳐 노가 난다)
노내기: ㉸노래기. ㉸배각류 절지동물의 충칭.
 0.노내기 회도 먹겠다.(염치도 체면도 없이 치사스럽게 구는 사람의 비유)
 노네: →노나.
 노좌: →노나.
 노취: →노나.
노니 머하노: ㉸놀으니 뭐하나.
 0.노니 뭐하노. 일해야지.
노다: ㉸놀다.
 0.더 노다 가지.
 0.친구들과 노다가 해 지는 줄 몰랐다.
노다지: ㉸언제나.
 0.노다지 일만 하지 않나.
노라리친다: ㉸빈둥빈둥한다.
 0.일은 안하고 노라리친다..
노란자우(노른자우. 노른자우):
 ㉸노른자위. ㉸달걀의 노란 부분.
 1.달걀 속 노란 부분.
 0.계란 노란자우가 맛이 있다.
 2.사물의 중심되는 부분.
 0.그 땅은 시내 노란자우야.
노래본다: ㉸노려본다.
 0.뭐 잘못했나? 자꾸 노래본다.
노랭이: ㉸노랑이. ㉸속이 좁고 인색한 사람.
 0.노랭이 짓 하지 마라. 남한테 욕먹는다.

노루조지(노루쫓. 놀조지): ㉸놋쫓.
 ㉸노를 저을 때 노를 거는 쇠붙이 공이.
 0.노루조지는 흔히 배 뒷전에 달고 노를 건다.
 노루쫓: →노루조지.
노름: ㉸노름. 도박. 투전. 트럼프. 화투.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
 0.그집 아저씨가 노름을 해서 재산을 다 날렸대.
노름판: ㉸노름판. ㉸노름을 벌이는 자리.
 0.애초에 노름판엔 가질 말았어야지.
 노른자구: →노란자우.
 노른자우: →노란자우.
노리대(누루대. 누리대): ㉸누룩취.
 ㉸고산지 대에서 자생하며 당귀와 비슷하고 잎줄기엔 화한 향이 있다.
 0.노리대 무침이 화한 게 좋네.
 0.노리대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노릿노릿하다: ㉸노릇노릇하다.
 0.날이 따뜻하니 개나리 꽃이 벌써 노릿노릿하게 피었다.
노박(늘상. 상다지. 장다지): ㉸노상. 늘.
 0.그는 노박 돈타령이다.
노울: ㉸노을.
 0.저녁 노울이 붉게 물들었다.
노자돈: ㉸저승 갈 때 가져가는 돈.
 0.망인에 노자돈을 넣는다.
노지근하다: ㉸노곤하다. ㉸피곤하고 나른하다.
 0.봄철이 돌아오니 사람이 노지근해진다.

노친네: ㉸늙은 어른.

0. 어디, 노친네는 다들 편하신가?

노터리(노토리): ㉸나이 많은 사람을

비하해 부르는 말.

0. 어느새 노터리가 다 되었네.

0. 노터리들은 병이 많아.

노토리: →노터리.

녹매가루: →넉매가루.

녹받는다: ㉸가루받이 한다.

0. 벼가 처서에 한창 녹받는다.

논골뱅이: ㉸논우렁이. ㉸우렁이와 고등의

총칭. 무논 웅덩이 등에 삶.

0. 논골뱅이도 두렁 넘을 찌가 있다.

(미련하고 못난 사람도 한가지 재주는 있다는 말)

0. 논골뱅이도 집이 있다.(사람으로서 의탁할 집이 없음을 비유해하는 말)

논날 같이: ㉸역수 같이.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모양.

0. 비가 논날 같이 쏟아진다.

0. 논날 같은 비에 눈을 못 뜨겠다.

논말기: ㉸논둑. ㉸논의 가장 자리에 높고

길게 쌓아 올린 둑.

0. 봄철에 논말기를 발라야 물이 세지 않는다.

논밭때기: ㉸논밭 꿩기. ㉸논밭의 한

모퉁이.

0. 논밭때기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0. 논밭때기 없는 농사꾼도 있나?

논빼미: ㉸논배미.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의 하나하나의 구역.

0. 논빼미가 꽤 크다.

0. 논빼미에 물고 보러 간다.

논섬(논슴): ㉸1. 논둑. 2. 논둑에 난 풀.

1. 논둑.

0. 논섬에 풀이 많이 났다.

2. 논둑에 난 풀.

0. 낮을 갈아 들고 논섬을 배러 간다.

논슴: →논섬.

놀갱이(놀기): ㉸노루. ㉸시슴과의 짐승.

0. 놀갱이가 제 방귀에 놀란다.(겉이 많아 하찮은 일에도 잘 놀람을 비유한 말)

0. 놀갱이 꼬리만 하다.(매우 짧다)

0. 놀갱이 피하다 범 만난다.(일이 점점 어렵고 힘들게 된다는 말)

0. 놀갱이 잠자듯 한다.(깊이 잠들지 못하고 깨어남을 이르는 말)

놀군다(놀쿂다): ㉸놀린다.

1. 놀게한다.

0. 자기가 일하고 직원들을 놀군다.

2. 조롱한다.

0. 짚신을 신었다고 자꾸 놀군다.

3. 재주를 부리게 한다.

0. 강아지를 놀군다.

놀기: →놀갱이.

놀램쩌래(놀램쩨): ㉸놀람 걸. 감박할 사이.

0. 그 일을 놀램쩌래 해 치웠네.

0. 흔들리는 이는 놀램쩌래 빼야 한다.

놀램쩨: →놀램쩌래.

놀랬다: ㉸놀랐다. ㉸자동인 '놀랐다'를

피동인 '놀랬다'로 사용함.

0. 갑작스런 폭죽 소리에 깜짝 놀랬다.

0. 캄캄한 밤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깜짝 놀랬다.

놀리꾼다: ㉸놀라게 한다.
 0.야! 하고 깜짝 놀리꾼다.

놀마 하문: ㉸놀만 하면.
 0.놀마 하문 오라 한다.
 0.자(저 아이)는 놀마 하문 방해 놔.

놀아싸서: ㉸놀아대서.
 0.자는 공부는 안 하고 너무 놀아싸서 큰일이야.

놀조지: →노루조지.

놀꾼다: →놀꾼다.

놈: ㉸남. ㉸자신 외에 다른 사람.
 0.놈의 떡이 더 커 보인다.(남의 것에 욕심이 난다는 말)
 0.놈 떡 먹는데 팔고물 떨어지는 걱정을 한다.(남의 일에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0.놈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 하러든다)
 0.놈의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어 말하기는 매우 쉽다)
 0.놈의 흥 한가지면 제흥은 열가지다.(자기는 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적은 흥을 들추어내 말한다)
 0.놈의 장단에 춤춘다.(죽대없이 놀거나 관계없는 일에 덩달아 행동한다)
 0.놈의 다리 굽는다.(남의 일을 자기 일로 알고 일한다)

놈팡이: ㉸놈팡이. ㉸직업 없이 빈들빈들 노는 남자.
 0.그집 아들은 놈팡이래. 빈들빈들 놀기

만 해.

눗날 같이: ㉸역수 같이.
 0.비가 눗날 같이 쏟아진다.
 0.눗날 같은 비가 그칠 줄 모르네.

농가: →노나.
농거: →노나.
농고: →노나.
농귀: →노나

농방기: ㉸농번기.
 0.야! 느(너희)네 농방기 휴가 언제 한다 더니. 모내기에 바빠 죽겠는데...

농새: ㉸농사.
 1.논밭을 가꾸고 거두는 일.
 0.올해 벼 농새가 잘 됐지.
 0.과일 농새도 잘 됐어.
 2.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의 비유.
 0.자식 농새 잘 지었구만.

놔뒹삐래: ㉸놓아두어버려.
 0.소가 집에 가거든 놔뒹삐래.
 0.잠 자거든 놔뒹삐래.

놔 멕인다(놔 지른다): ㉸놔 기른다.
 ㉸들어 네 놓고 기른다.
 0.소를 들에 놔 멕인다.

놔 지른다: →놔 멕인다.

뇌렁다: ㉸노랑다.
 0.새싹이 뇌렁다.
 0.얼굴이 뇌렁다.
 0.씩수가 뇌렁다.

뇌린내(누룬내. 누린내): ㉸노란내.
 ㉸노래기, 양, 염소 따위에서 나는 노린 냄새.
 0.노래기는 뇌린내가 몹시 난다.

0. 염소 고기 뇌린내를 없앤다.
뇌인다: ㉠뇌인다.
 0. 언 손을 난로에 대고 뇌인다.
 0. 어서 와. 춥다. 몸 좀 뇌여라.
누(누야, 누우): ㉠누나. 누이. ㉡남자에 대하여 손 위, 아래인 여자.
 0. 누가 누룽지를 끓여 준다.
 0. 누가 시집가게 됐다.
누기계(뇌기계, 뇌기계): ㉠누구. 누구게
 1.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0. 이 떡 준 사람 누기계.
 2.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0.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기계.
누기인테: ㉠누구한테.
 0. 누기인테 전하라고?
누 꺼(누 끼, 뇌 꺼): ㉠누구 것.
 0. 이거 누 꺼야.
 0. 그것은 누 견대?
 누 끼: →누 꺼.
누데기: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흰옷.
 0. 저 누데기 옷은 버려라.
 0. 누데기도 다 쓸 데가 있다.
누루끼리(누르끼리): ㉠누리끼리.
 누르스름.
 0. 옷이 누루끼리하다.
 0. 흰옷이 낡으면 누루끼리해진다.
 누루대: →노리대.
 누룬내: →뇌린내.
 누르끼리: →누루끼리.
누룽지(솔이끼, 솔쟁이): ㉠누룽지. ㉡솔 바닥에 눌러 붙은 밥.
 0. 어머니께서 누룽지를 끓여 주셨다.

누리대: →노리대.
 누린내: →뇌린내.
 누야: →누.
누예: ㉠누예. ㉡누에나방의 애벌레.
 0. 누예가 이제 녀잠 잤다.
 0. 누예가 빵잎을 퍽퍽 먹어치운다.
 누우: →누.
누케(뇌케): ㉠1. 눅혀. 2. 싸게 해.
 1. 눅혀.
 0. 아, 이리 누케라. 잠이 오나보다.
 2. 싸게 해.
 0. 아, 오줌을 누케라. 으슬뜨린다.
누가램: ㉠눈가림. ㉡남의 눈을 속이는 짓.
 0. 남의 눈가램 하면 그제 오래 갈 줄 아나.
눈거죽: ㉠눈가죽. ㉡눈두덩의 가죽.
 0. 눈거죽이 두꺼운 사람이 있어.
 0. 눈거죽 찢린다. 조심해라.
눈구녕(눈구영): ㉠눈구멍. ㉡눈알이 박혀 있는 구멍.
 0. 눈구녕은 머 멧으로 뚫어놨나? 그걸 못 봤게.
 눈구영: →눈구녕.
눈까리: ㉠눈갈. ㉡눈의 속어.
 0. 눈까리 빼었다.(욕심이 나서 판단을 그르쳤다는 말)
 0. 눈까리 뒤집힌다.(엄청나게 억울하다는 말)
 0. 눈까리 나온다.(심하게 당했다는 말)
 0. 눈까리에 흙 들어간다.(죽어 묻힌다는 말)

눈꺼풀(눈꺼풀리): ㉠눈꺼풀.

0.눈꺼풀에 눈곱이 끼었다.

0.눈꺼풀에 종기가 났다.

눈꺼풀리: →눈꺼풀.

눈꼬비(눈꼽, 눈피비, 눈퀴비): ㉠눈곱.

㉠눈 에서 나오는 진득한 액.

0.야, 눈꼬비 뉘아라.

눈꼴이 시급다: ㉠눈꼴이 시다. 보기 싫다.

0.젊은이들 막 가는 걸 보면 군꼴이 시급다.

눈꼽: →눈꼬비.

눈피비: →눈꼬비.

눈퀴비: →눈꼬비.

눈다래끼(눈다리끼): ㉠눈시울에 나는 작은 부스럼.

0.눈다래끼가 나면 고등어를 먹지 않는다.

눈다리끼: →눈다래끼.

눈뜬 소경(눈뜬 쇠경, 눈뜬 장님):

㉠문맹자. 까막눈. 당달봉사.

1.문맹자.

0.눈뜨고 글을 모르니 눈뜬 소경이지, 뭐냐.

2.당달봉사.

0.눈뜬 소경은 눈을 뜨고도 못 본대.

눈뜬 쇠경: →눈뜬 소경.

눈뜬 장님: →눈뜬 소경.

눈 밖에 났다: ㉠신용을 잃었다.

0.남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눈 새 따먹었다: ㉠눈알이 하얗게 되거나 빠진 상태.

0.저 사람 눈 새 따먹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다.

0.손주를 낳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보이지.

눈이 쾡하다: ㉠눈이 쾡하다. ㉠눈이 쭉 들어가 힘이 없다.

0.감기 앓았냐? 눈이 쾡하다.

눈자구: ㉠눈동자. 눈알.

0.눈자구가 까맣다.

눈자우: ㉠눈자위. ㉠눈알의 언저리.

0.눈자우가 하얗다.

눈절에: ㉠눈결에. ㉠눈 깜짝할 사이에.

0.눈절에 코 베가는 세상인데 정신 바짝 차려라.

눈치: ㉠정어리. ㉠기름기가 많아 기름을 짜기도 한다.

0.앞 바다에 정어리가 많이 났대.

0.예전엔 정어리로 기름을 많이 짰지.

눈탱이(눈팅이): ㉠눈(目)덩이. ㉠눈을 낮추어 부르는 말.

0.눈탱이가 부엌군.

0.눈탱이가 멍들었다.

눈팅이: →눈탱이.

눈허리가 시다: ㉠눈꼴이 시다. 보기 싫다.

0.막기는 꼴을 보자니 눈허리가 시다.

놀러: ㉠이어. 즉시.

0.그 이는 너가 가고 놀러 떠났다.

놀룬다(놀른다): ㉠놀룬다.

0.어머니께서 메주 틀을 놀루고 메주를 빼신다.

놀른다: →놀룬다.

놀쿤다(놀쿤다. 놀쿤다): ㉞놀린다.

㉸1.늘어나게 한다. 2.늘어붙게 한다.

1.늘어나게 한다.

0.엿을 넓게 놀쿤다.

2.늘어붙게 한다.

0.술에 불을 때어 누룽지를 놀쿤다.

뉘귀게: →누גיע.

뉘기게: →누גיע.

뉘 꺼: →누 꺼.

뉘비이불: ㉞뉘비이불. ㉸누빈 이불.

0.겨울에 뉘비이불이 따뜻하다.

뉘엇뉘엇: ㉞뉘엇뉘엇. ㉸해가 지려고 할 때의 모습.

0.서산머리에 해가 뉘엇뉘엇 올라앉았다.

뉘케: →누케.

느그네(느네): ㉞너희네. 너네.

0.이거 느그네 집에 갈 거다. 가져가거라.

0.느그네 집은 언제 타작하니?

느깐 년: →너깐 년.

느깐 놈: →너깐 놈.

느 꺼: ㉸너희네 것.

0.이 고기는 느 꺼야.

0.느 꺼만 가져가고 나머진 남겨 놔.

느꾼다: ㉞늦춘다.

0.일할 날짜를 느꾼다.

0.일을 느꾸지 말고 바로 하여라.

느끈하다: ㉞느끼하다.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기름기가 많다.

0.음식이 기름져 느끈하다.

0.튀긴 음식을 먹었더니 느끈하다.

느네: →느그네.

느 년: →너깐 년.

느덜: →너덜.

느들: →너덜.

느라구: ㉞너희라고.

0.느라구 뭐 괜찮을 것 같아?

느랑: ㉞너희네랑.

0.느랑 같이 식사를 한다.

0.느랑 함께 천렵을 가는 거지.

느레빠져서(느레터져서): ㉸몹시 느려서.

0.느레빠져서 일을 시키면 늦어.

느레터져서: →느레빠져서

느르배기: ㉸고무줄 총.

0.느르배기 총을 만든다.

0.그 애는 느르배기로 새를 잘 잡아.

느른국시: ㉸씻지 않은 칼국수.

0.어머니는 느른국시를 잘 만드신다.

0.느른국시가 구수하다.

느만: ㉞너희네만.

0.느만 놀러 가거나?

0.느만 좋게 됐어.

느물떡거린다(느물찍거린다.

느물떡거린다. 느물찍거린다):

㉞느물거린다. ㉸말이나 행동을

능글맞게 한다.

0.느물떡거리지 말고 바로 얘기해 봐.

느물찍거린다: →느물떡거린다.

느물떡거린다: →느물떡거린다.

느물찍거린다: →느물떡거린다.

느민서: ㉞뉘으면서.

0.책을 가방에 느민서 일어선다.

0.사탕을 입에 느민서 달아난다.

느스레미: ㉸거미줄처럼 늘어뜨린 줄.

0.쌀벌레 느스레미가 생겼다.
느와집: ㉠너와집. ㉡지붕을 널조각으로 덮은 집.
 0.산촌에 가면 느와집이 있다.
 느이: →너이.
느털웃음: ㉠너털웃음. ㉡소리를 크게내어 시원하고 당당하게 웃는 웃음.
 0.느털웃음 한번 멋지게 웃는다.
늑다리(늘걱다리. 늘걱바리. 늘갱이. 늑으바리): ㉠늑은이. ㉡늑은이를 비하해 부르는 말.
 0.이제 늑다리가 다 되었네.
늑대: ㉡음흉한 사람.
 0.그 사람, 늑대야. 상대하지 말아.
늑스리하다(늘스리 하다. 늑으스름 하다): ㉡늑은 듯하다.
 0.자네도 이제 늑스리하다.
느덜머리(느덜이): ㉠넌덜머리. 넌더리. ㉡몹시 싫은 생각.
 0.그 일이라면 이제 느덜머리가 난다.
 느덜이: →느덜머리.
느쟁이(능쟁이): ㉠명아주. ㉡명아जू과의 한해살이풀. 마른 대론 지팡이를 만들. 0.느쟁이 어린 잎은 나물을 해 먹기도 하나 맛이 없다.
 0.느쟁이 대를 말려서 지팡이를 만들면 가볍고 좋다.
늘: ㉠널. 널빤지.
 0.늘로 대문을 만들면 튼튼하다.
 늘걱다리: →늑다리.
 늘걱바리: →늑다리.
 늘갱이: →늑다리.

늘군다: →늘쿂다.
 늘늘하다: →널널하다.
 늘를하다: →널널하다.
 늘리리하다: →널널하다.
 늘상: →노박.
 늘스리하다: →늑스리하다.
늘을 뒸다: ㉡널을 뒸다.
 0.명절 때면 아낙네들이 모여 늘을 뒸는 풍속이 있었다.
 늘쿂다: →늘쿂다.
늘화토(늘하투): ㉡민화투. 48장을 꺾수로 치는 화투.
 0.우리 늘화토 치고 놀자.
 늘화투: →늘화토,
늘어뿐데(늘어뿐데): ㉡늘어버렸는데.
 0.내가 늘어뿐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늘어뿐데: →늘어뿐데.
 늑으바리: →늑다리.
 늑으스름하다: →늑스리 하다.
늑: ㉠늑. ㉡사내의 낮춤 말.
 0.그 늑이나 그 늑이나 다른 게 뭐야.
 0.벼르는 늑 나 실천하는 것 못 봤다.
 늑신거린다: →넘신거린다.
 늑실거린다: →넘실거린다.
능구렁이: ㉠능구렁이. ㉡뱀과의 동물. 집 근처에 나타나는데 검은 가로띠가 있고 독이 없다.
 0.능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위기를 어물쩍하게 넘어감을 이르는 말)
능군다(씰르다. 씰는다): ㉠씰는다. ㉡쌀, 조, 수수, 보리쌀을 절구에 넣고 찼어 속꺼풀을 벗기고 깨끗하게 한다.

0.밭방아간에 가서 보리쌀을 능군다.
능담: ㉠응담. ㉡곰의 말린 쓸개.
 0.옛날에 능담은 만병 통치약으로 쓰였다.
능쟁이: →능쟁이.
능청꾸레기: ㉠능청꾸레기. ㉡능청을 잘 부리는 사람.
 0.그 사람 능청꾸레기야. 재미 있어.
늦동이(늦뎡이): ㉠늦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낡은 자식.
 0.늦동이를 봤더니 그게 효자 하네.
늦뎡이: →늦동이.
놓는다: ㉠놓는다.
 1.속으로 들여보낸다.
 0.가방에 책을 놓는다
 2.다른 것에 섞거나 탄다.
 0.커피에 설탕을 조금 놓는다.
 3.돈을 납부하거나 은행에 입금한다.
 0.은행에 돈을 놓는다.
 4.서류 등을 제출한다.
 0.이력서를 놓는다.
 5.수용한다.
 0.강당에 백명을 놓는다.
 6.어떤 범위 안에 포함 시킨다.
 0.이 문제를 토의에 놓는다.
 7.단체나 학교, 직장 따위에 들여보낸다.
 0.아이를 초등학교에 놓는다.
 8.기계 따위가 작동하게 한다.
 0.스위치를 놓는다.
 9.힘을 들이거나 작용을 한다.
 0.압력을 놓는다.
니: ㉠너. ㉡친구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

0.니는 용빼는 재주가 있느냐?(뽀족한 재주도 없이 남을 홍보는 사람을 핀잔 하는 말)
 0.니 나 할 것 없이.(누구를 가릴 것 없이 무두)
 0.니냐? 내야? 한다.(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니개: ㉠네 개.
 0.복숭아 니 개에 얼마요?
 0.만두를 니 개나 먹었어.
니게미(니기미): ㉡쌍스러운 말을 할 때 앞에 붙이는 말.
 0.니게미 눈골이 사나워 못 봐 주겠네.
니기미: →니게미.
~니까는: ㉠~니까.
 0.그러니까는 네가 그랬다 이말이지.
 0.내가 가니까는 그제야 뒤 따라오더라.
니까진 게(니까짓 게): ㉡너 같은 것이.
 0.니까진 게 그 일을 해내?
 0.니까진 게 뭘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니까짓 게: →니까진 게.
니깐 년: →너깐 년.
니깐 놈: →너깐 놈.
니나노 판: ㉡노는 판.
 0.그집에 니나노 판이 벌어졌대.
니네들: →너덜.
니 년: →너깐 년.
니느므 색기: ㉡너 놈의 새끼.
 0.이거 니느므 색기가 한 짓이지?
니덜: →너덜.
니도나도(니두나두, 닌도난도, 닌두난두): ㉠너도나도.

0.그 일이 잘못되면 니도나도 망신이다.
니두나두; →니도나도.

니들: →너덜.

니똥이 굵다: ㉸너가 제일이다란 뜻으로
빈정거리는 말.

0.그래, 니똥이 굵다, 잘 해 봐.

니맛도 내맛도 아니다: ㉸이맛도 저맛도
아니다. 맛이 없다.

0.내가 끓인 국은 니맛도 내맛도 아니다.

니캉나캉: →너캉나캉.

니하카나카: →너캉나캉.

닌도난도: →니도나도.

닌두난두: →니도나도.

닌들 낸들: ㉸너나 나나.

0.그거야, 닌들아니 낸들아니.

0.다다하면 삼키고 쓰면 뺏는다.(사리의
옳고 그름은 돌보지 않고 이익만
피한다)

0.다다 쓰다 말이 없다.(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다)

다디기: ㉸다대기. ㉸고기 뼈. 고춧가루
양념 등으로 다진 것.

1.고기 뼈.

0.송어 다디기가 들어왔다.

2.양념 다진 것.

0.갈비탕엔 다디기를 좀 넣어야 맛이
나지.

~다라: ㉸~더라.

0.바로 그 사람이 얘기하다라.

0.이 떡을 할머니가 주다라.

다라붙는다(다러붙는다): ㉸달라붙는다.
들러붙는다.

0.여자가 다라붙는다.

0.책상에 다라붙어 공부만 한다.

다락논(다래기논): ㉸다랑논. ㉸다랑이로
된 논.

0.골짜기 다락논이라 벼가 시원치 않아.

0.다락논은 부치기 힘들지.

~다래: ㉸~더래.

0.가다래. 0.떡다래. 0.받다래.

0.자다래. 0.파다래. 0.하다래.

다래기논: →다락논.

다래미: ㉸다람쥐.

0.저 다래미 봐라.

0.다래미 낚자.

다러붙는다: →다라붙는다.

다리깁이(다리몽생이. 다리똥생이.



다(다서): ㉸다섯.

0.하나, 둘, 셋, 넷, 다, 여 쉼 때 다.

다고: ㉸다오.

0.두껍아 두껍아 현 집 줄게 새집 다고.

다구친다: ㉸다그친다.

0.너무 다구치면 주눅이 든다.

다다하대(달달하다. 달씩하다.

달지근하다. 달씩지근하다): ㉸좁 달다.

달착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

다리빼기): ㉠다리를 비하해 부르는 말.

- 0. 다리깡이 허영게 들레(들어내)놓고 그게 뒤흔(무엇인고).

다리꼬뱅이(무릅고뱅이, 무릅고뱅이, 무릅 파구, 무릅팍, 무릅패기): ㉡무릎.

- ㉠정강 이와 넓적다리 사이에 있는 관절의 앞쪽.
- 0. 요즈음 다리꼬뱅이가 아파 잘 걷지 못하겠어.

다리끼): ㉢다래끼.

- 1. 대, 싸리 등으로 만든 작은 바구니.
- 0. 다리끼에 씨앗을 담는다.
- 2. 눈시울에 나는 작은 부스럼.
- 0. 눈에 다리끼가 나서 영 불편해.

다리몽생이: →다리깡이.

다리몽생이: →다리깡이.

다리빼기: →다리깡이.

다무래(다므래): ㉣'다물다', '다무려'에서 온 말.

- 0. 입을 꼭 다무래.

다므래: →다무래.

~다민: ㉤~다며.

- 0. 공부를 그렇게 잘 한다민.
- 0. 일을 그만 두고 논다민.

다바리): ㉥다발, 묶음.

- 0. 소 장수는 돈다바리를 차고 다니지.

다복술): ㉦다복술. 반송.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 0. 다복술은 복스럽다.
- 0. 무덤가에 다복술이 아름답다.

다서: →다.

~다야. ㉡그렇다는 뜻을 부드럽게 하는

붙임 말.

- 0. 오늘 장에 간다야.
- 0. 앞집 딸이 온다야.

다와): ㉧다고, 달라. ㉠아랫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말.

- 0. 호미 이리 다와.
- 0. 성냥 이리 다와.

다체): ㉨다쳐.

- 0. 일을 덤비면 다체.
- 0. 너무 자세히 알면 다체.

다황): ㉩성냥. ㉠마찰하여 불을 켜는 도구의 하나.

- 0. 다황을 눅지 않게 뒤라.
- 0. 다황이 있어야 불을 붙이지.

닥젯다): ㉪단혔다.

- 0. 교문이 닥젯다.
- 0. 점방 문이 닥젯다.

닥달한다): ㉫볶아친다. 급하게 몰아친다.

- 0. 잘 못 된 일에 대해서 심하게 닥달한다.

닥상이다): ㉬충분하다.

- 0. 그만 하면 닥상이다. 더해 뭐하나.

닥어세운다): ㉭닥아세운다. ㉠끔작 못하게 나무란다.

- 0. 잘못에 대하여 단단히 닥어세운다.

단기): ㉮단 것이.

- 0. 복숭아가 단기 좋다.
- 0. 감주가 단기 맛있다.

단다이(단댕이): ㉯단단히.

- 0. 보따리를 단다이 맨다.
- 0. 검불 짐을 단다이 묶는다.

단댕이: →단다이.

단땅이: ㉠여럿이 힘을 합쳐 패를 짜는 일.

- 0.들이 단땅이 해서 덤벼 봐.
- 0.너희들 단땅이 해도 문제 없어.

단장: ㉡당장.

- 0.그 애 단장 오라그래.
- 0.단장 쓸 돈이 없어 찢찢맨다.

단좁하다: ㉡단출하다. ㉠구성원이 적어 홀가분하다.

- 0.식구가 적으니 단좁하다.

단초(댄추): ㉡단추. ㉠옷 따위의 두 쪽을 한 데 붙였다 떼었다 하는 데 쓰는 물품.

- 0.어머니께서 새 옷에 단초를 다신다.
- 0.첫 단초를 잘 까워야 한다.(일은 첫 시작을 바로 해야 수월하게 된다는 말)

닫킨다(닷킨다): ㉡닫힌다.

- 0.현관문이 저절로 닫킨다.

달개 놓는다: ㉠달래 놓는다.

- 0.우는 아기를 젖을 물려 달개 놓는다.

달거고집(달그고집패기): ㉡닭 고집.

- ㉠고집이 센 사람.
- 0.달거고집을 가졌나? 말을 안들어.

달거상다리(달게상다리): ㉡닭의장풀.

- ㉠닭의장풀과의 한해살이풀.
- 0.밭의 달거상다리풀을 뽑아야겠다.

달게든다: ㉡달려든다.

- 1.갑자기 달려와 안기거나 매달린다.
- 0.아이가 엄마품에 달게든다.
- 2.무섭게 덤빈다.
- 0.개가 짖으며 달게든다.
- 3.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임한다.

- 0.짐 나르는 일에 모두 달게든다.

달게똥: ㉡닭의 똥.

- 0.달게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

달게상다리: →달거상다리.

달군다(후달군다): ㉡쫓는다.

- 0.명석에 넌 벼를 쪄아 먹는 닭을 달군다.

달그(달기): ㉡닭. ㉠꿩과의 새. 가축으로 기르며 머리에 붉은 뺨이 있다.

- 0.달그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웁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고 한다)
- 0.달그 쇠 보듯, 쇠 달그 보듯 한다.(아무 관심이 없이 본 듯 만 듯 한다는 말)
- 0.달그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듯 한다.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의 비유)

달그고집패기: →달거고집.

달기: →달그.

달달이: ㉡다달이. 매월.

- 0.달달이 학비 대느라 바쁘다.

달달하다: →다다하다.

달덩이: ㉡달덩이.

- 0.궁뎅이가 달덩이만 한걸 보니 시집갈 때가 됐나보다.

달래: ㉡달려.

- 0.열심히 달래 봐. 등수에 들게.

달래든다: ㉡달려든다.

- 0.뭘 그만한 일 가지고 달래들며 그래.

달래붙는다: ㉡달라붙는다. 들러붙는다.

1. 찰싹 붙는다.

0. 껌이 달래붙었다.

2. 바짝 따른다.

0. 여자가 달래붙는다.

3. 조른다.

0. 내기를 하자고 달래붙는다.

4. 한 곳에만 붙는다.

0. 책상에 달래붙어 공부만 한다.

달룩: ㉠달래. ㉡백합과의 한해살이풀.

평속에 둥근 모양의 흰 비늘줄기가 있다.

0. 야! 따뜻해졌다. 달래 캐러 가자.

0. 달래를 기름 간장에 넣으면 봄철 맛이 난다.

달르다: ㉠다르다.

1. 서로 같지 않다.

0. 살아 온 환경이 서로 달르다.

0. 사람은 성격이 서로 달르다.

2. 두드러지게 표니는 데가 있다.

0. 역시 자네는 달르구만.

달비: ㉠긴 머리카락.

0. 달비가 치렁치렁한 색시가 시집을 가 머리를 올렸다.

0. 달비를 잘라 모아 가발도 만들고 눈섭도 만든다.

달싹하다: →다다하다.

달지근하다: →다다하다.

달싹찌근하다: →다다하다.

닭살: ㉠소름.

0. 날씨가 추운가보다. 피부가 닭살이 된다.

0. 몹시 무서운가보다. 온몸에 닭살이

돋는다.

담박에: ㉠단방에. 단변에. 대변에. 즉시.

0. 내 맘 같아선 담박에 해치웠으면

좋으련만.

담배꽂다리: ㉠꽂초.

0. 담배꽂다리 조심해 버려. 산불 난다.

담배락(담배람뺝, 담벽, 담뺝): ㉠담벼락.

1. 담이나 벽 따위의 총칭.

0. 담배락에 낙서하지 마.

2. 미련하여 사물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유.

0. 담배락하고 말하는 셈이다.(도무지

이해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말해야 소용없다)

담배람뺝: →담배락.

담벽: →담배락.

담부: ㉠담비. 산달. ㉡족제비과의 동물.

족제비와 비슷하나 몸의 길이가 길고 좀 크다.

0. 담부가 벌통을 뒤져 꿀을 먹는다.

0. 담부 모피는 고급품이다.

담뱃대: ㉠담뱃대.

0. 할아버지 담뱃대 이리 가져 온.

담뺝: →담배락.

담성거린다(덤성거린다): ㉠담방거린다.

덤방거린다. ㉡함부로 서둘러 뛰어든다.

0. 담성거리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담세운다: ㉠몰아친다.

1. 한꺼번에 급하게 일을 한다.

0. 비가 올 것 같아서 보리타작을 담세웠다.

2. 심하게 구박하거나 나무란다.

0.반장은 게으름을 피우는 일꾼을 호되게 답세운다.

닷줄: ㉠동아줄. ㉡긱게 만든 밧줄.

0.아저씨들이 냇이 모여 닷줄을 튼다 (드린다).

닷킨다: →달킨다.

당구: ㉠당귀. ㉡승검초의 뿌리, 산부인의 약제로 쓰임.

0.당구는 높은 산에 자생한다.

0.당구 맛은 화하다.

당군다: ㉠담근다.

1.액체 속에 넣는다.

0.온천 물에 온몸을 푹 당군다.

2.술, 김치, 장, 젓갈 등을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려 그릇에 담는다.

0.가을 김치를 당군다.

당킨다(대닌다. 댕킨다. 땡킨다):

㉠다닌다.

1.일정한 곳을 정해놓고 드나든다.

0.그 사람은 처갓집에 자주 당킨다.

2.직장, 학교 따위에 일하러 다닌다.

0.회사에 일하러 당킨다.

3.지나가고 지나오고 한다.

0.사람들이 한길에 많이 당킨다.

4.어떤 곳을 오고 가고 한다.

0.서울 양양간을 버스가 당킨다.

5.어떤 목적이 있어 왔다 갔다 한다.

0.뽕사냥을 당킨다

당나구: ㉠당나귀. ㉡말과의 짐승. 말과 비슷한데 몸은 작고 힘이 좋아 부리기 편하다.

0.당나구는 귀가 크다.

0.당나구 귀치레다.(쓸데 없고 어울리지 않는 치레다)

당나구 기침: ㉠백일해 기침.

0.아가가 자꾸 당나구 기침을 해. 백일해인가 봐.

당나발난다: →나발난다.

당노: ㉠당뇨. ㉡포도당이 많이 섞인 병적인 오줌.

0.그 친구 당노라서 음식을 가려먹어.

당대: ㉠오랫동안.

0.눈가림 하면 당대 안 들킬 줄 알고.

당채: ㉠1.전혀. 2.아주.

1.전혀.

0.그런 짓 어디 가서 당채 하지 마.

2.아주.

0.어제와는 당채 판판이다.

당투지: ㉠호두. ㉡호두나무의 열매.

0.당투지가 많이 달렸다.

0.당투지는 머리에 좋대.

당파: ㉠골파. 쪽파. ㉡백합과의 두해살이풀.

0.당파 김치가 맛이 들었다.

대가바리(대갈바리. 대갈통): ㉠대가리.

㉡머리를 비하해 부르는 말.

0.대가바리 좀 깎아라.

0.대가바리 좀 써 봐.

대갈바리: →대가바리.

대갈통: →대가바리.

대공(대궁): ㉠줄기.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단 식물의 기둥.

0.고추 묘는 대공이 실패야 한다.

0.고추 대공이 실패게 잘 자란다.

대구만: ㉠자꾸만.

0.자가 대구만 싸움을 걸잖나.
 0.대구만 혼자 재미 보지 마.
대국놈: ㉠중국놈.
 0.대국놈은 돈만 알아해.
 0.대국놈들은 자기들끼리 놀아해.
 대궁: →대공.
 대닌다: →당킨다.
대돈벤: ㉡대돈벤. ㉢돈 한 냥에 한 달에 한 돈씩 계산하는 비싼 변리.
 0.대돈벤은 과부들이 잘 쓰는 변리라 면서.
대랜님(되랜님): ㉣도런님.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높여 부르는 말.
 0.대랜님 밥 잡썬요.
 0.이 건 대랜님 옷이다.
대루: ㉥대로.
 0.하는 대루 놔 뒤.
 0.하라는 대루 할 게.
대롭다: ㉦속이 메숙거린다. 속이 아리고 쓰리다.
 0.먹은 고등어가 상했었나? 속이 자꾸 대롭다.
대리미: ㉧다리미. ㉨다리미질을 하기 위해 바닥을 매끄럽게 만든 기구.
 0.대리미로 저고리를 다린다.
 0.우리 딸이 대리미질을 곧잘 하네.
대리싸우: ㉩처갓집에 얹혀서 사는 사위.
 0.그 친구가 처갓집 대리싸우로 들어 간대.
대린다: ㉪1. 다린다. 2. 달인다.
 1. 다린다.
 0.다리미로 옷을 대린다.

2. 달인다.
 0.한약을 정성껏 대린다.
대림질: ㉫다리미질.
 0.다리미에 숯불을 담아 대림질을 한다.
대목수: ㉬집 등을 짓는 큰 목수.
 0.그 사람은 대목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대밀: ㉭대목. ㉮명절 바로 전 경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
 0.대밀 장에 한 몫 봐야겠네.
 0.대밀이라 장이 붐빈다.
대벤: ㉯대변.
 0.내일 대벤 받아 오래.
 0.대벤이 마려워 죽겠다.
대보름: ㉺대보름. ㉻음력 정월 보름.
 0.대보름 날 약밥 다레, 귀 밝히는 약술이며 부럼 식는 생울이라.
대빠람에(댄박에, 댄방에, 댄번에, 댄박에, 댄방에, 댄번에): ㉼단번에. 단방에. 단참에. 대번에.
 0.씨름 시합에서 상대를 대빠람에 쓰러 뜨렸다.
 0.혼인을 대빠람에 승낙해 주셨다.
대수갓댁: ㉽대소가 댁. ㉾큰댁, 작은 댁.
 0.대수갓댁 두루 평안 하신가?
대수롭잖이(대수롭잖이): ㉿대수롭잖게. 별일 아니게.
 0.그 일? 뭐 대수롭잖이 여기던데.
 대수롭잖이: →대수롭잖이.
~대싸더니(~싸더니): ㊀~대어서.
 0.먹어대싸더니 배탈이 났다.
 0.놀아대싸더니 꾸중을 들었지.

대장간(승냥간. 승양간. 풀무간):

㉞대장간. ㉸풀무를 차려 놓고 참숯으로
쇠를 달궈 연장을 만드는 곳.

- 0. 승냥간에서는 쇠붙이를 엿가락처럼
다룬다
- 0. 아버지께서 승양간에 가서서 도끼를
버려 오셨다.

대짚 내: ㉞담뱃대 니코틴 내.

0. 할아버지 담뱃대에서 대짚 내가 난다.

대처(도대처): ㉞대체. 도대체. ㉸어떤
일이나 내용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

- 0. 그 일이 대처 어떻게 돼가는 거야.
- 0. 그렇다면 대처 말이 돼야지.

대추방맹이: ㉸단단한 대추나무 방맹이.

0. 저 사람은 단단하기가 대추방맹이
같다.

대포: ㉞1. 큰 술잔. 2. 허풍선이.

- 1. 큰 술잔.
- 0. 오늘 대포 한잔 하세.
- 2. 허풍선이.
- 0. 대포 말은 십분의 일로 줄여 들으면
돼.

대하야: ㉞대하여.

0. 벼 수매에 대하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물 먹었다: ㉸대학교에 다녔다.

0. 그집 아들은 그래도 대학물 먹었다.

댄긴다: →당긴다.

댄님: ㉞대님.

0. 댄님을 바로 매어라.

댄박에: →대빠람에.

댄방에: →대빠람에.

댄번에: →대빠람에.

댄긴다: ㉞단긴다.

0. 문이 저절로 댄긴다.

댄박에: →대빠람에.

댄방에: →대빠람에.

댄번에 →대빠람에.

댓병: ㉞뒹병. ㉸한되 들이 병.

0. 그 댓병 이리 가져 온.

0. 들이 얹아 소주 댓병을 다 마셨어.

댕기미: ㉸다니면서.

0. 고양이가 생선 넝 댕 댕기미 작폐를
친다.

댕긴다: →당긴다.

댕긴다(땅긴다. 땡긴다): ㉞당긴다.

- 1. 끌어 가까이 오게 한다.
- 0. 그물을 힘껏 땡긴다.
- 2. 줄을 팽팽하게 한다.
- 0. 활 시위를 땡긴다.
- 3. 정한 시일을 앞으로 끈다.
- 0. 젓날을 앞으로 땡긴다.
- 4. 어떤 방향으로 잡아 끈다.
- 0. 방아쇠를 땡긴다.
- 5. 마음이 무엇에 끌린다.
- 0. 호기심이 땡긴다.
- 6. 입맛이 돋우어진다.
- 0. 밥맛을 땡기는 계절이 돌아왔다.

~더거: ㉞~다가

- 0. 하더거 말면 아니함만 못하다.
- 0. 그 사람은 물에더거 물 탄 거 같아.
(야무진 맛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이르 는 말)

더께: ㉞뒹개. 뚜껑.

0. 장단지 더께 덮어라. 파리 쫓라.

더덤한: ㉠어수룩한.

- 1. 좀 어리석은 듯하다.
- 0. 그 사람 좀 더덤한 대가 있어.
- 2. 제도나 규약 따위가 느슨하다.
- 0. 세상이 그렇게 더덤한가.

더데기: ㉠버섯이 다발로 난 모습.

- 0. 산에 송이가 더데기로 났다.
- 0. 싸리 버섯도 더데기로 났다.

~더라미(~더라민): ㉠1. 그 즉시. 2. ~라면서.

- 1. 그 즉시.
- 0. 학교에서 집에 오더라미 송이 따라 갔다
- 2. ~라면서.
- 0. 내 얘기를 하니까 웃더라미.

~더라민: →더라미.

더바지: ㉠더 보태는 것.

- 0. 국수를 더바지 한다.

더부치기: ㉠덧붙이기.

- 0. 사과를 더부치기로 하나 더 준다.

더수기: ㉠어깨.

- 1. 사람의 몸에서 팔이 몸에 붙은 관절의 윗부분.
- 0. 호미질을 했더니 더수기가 아파 죽겠다.
- 2. 옷 소매가 붙은 슬기와 깃의 사이 부분.
- 0. 더수기가 넓은 옷이다.

더와서: ㉠더워서

- 0. 더와서 일을 못하겠다.
- 0. 더와서 잠을 못 이루겠다.

더우: ㉠더위. ㉠여름날의 더운 기운을 나타내는 말.

0. 더위를 탄다.(더위를 견디기 몹시 힘들어 한다)

0. 더위를 먹었다.(더위 때문에 병이 생겼다)

0. 더위를 판다.(정월 대보름 날에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우 사거라'하고 여름 더위를 미리 파는 명절 놀이)

0. 더우 먹은 소 달만 보아도 헐떡인다.
(어떤 것에 한 번 놀라면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겁을 낸다는 말)

더풀더풀: ㉠더필더필. ㉠엷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

0. 성격이 더풀더풀한 게 괜찮아.

더풀이: ㉠더필이. ㉠성미가 침착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사람,

0. 그 사람 더풀이야. 대하기 쉬워.

덕지: ㉠진이나 때가 많이 붙은 상태.

0. 거지는 때가 덕지로 앉은 옷을 입고 다닌다.

덕투: ㉠별로 애쓰지 않아도 일이 잘 되는 것.

0. 그랜 덕투가 있어. 아무 일이건 잘 돼.

던데기(던들배기. 둔데기. 둔드배기.

둔들 배기): ㉠둔덕.

0. 던데기 밭은 물 빠짐이 좋다.

0. 던데기 밭에다는 고추를 심어야겠다.

던들배기: →던데기.

~덜: ㉠1. ~들. 2. ~질.

1. ~들.

0. 애덜은 가거라.

0. 너희덜 끼리 놀아라.

2. ~질.

0.나쁜 일은 하덜 말아.
 0.배부르거든 먹덜 말아.
덜비(돌비): ㉸섯다나 도리 짓고 땅 등
 화투할 때 여덱 곳을 말함.
 0.덜비다. 덜비면 내가 먹었다.
덜익었다(들익었다): ㉸설익었다.
 ㉸무르익지 못했다.
 0.감자가 아직 덜익었다.
덜죽었다(들죽었다): ㉸설죽었다.
 0.뺨이 아직 덜 죽었다.
덜컹: ㉸생각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0.아껴 모아 두었던 돈을 덜컹 내주고
 말았다.
덜통하다: ㉸좁 모자란다.
 0.그 사람은 좁 덜통하다.
 0.덜통하게 굴지 말고 잘해.
덤배: ㉸덤벼.
 0.어디 한번 덤배 봐.
덤배불창: ㉸분수없이 마구 덤비는.
 0.그 사람 덤배불창이야. 말하지 마.
 0.덤배불창으로 덤비는데 두손 들었다.
덤부사리: ㉸덤불.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0.덤부사리가 커야 도깨비가 난다.(무슨
 일이나 조건이 갖춰져야 성사가
 된다는 말)
덤부살이: ㉸남에게 얹혀 사는 것.
 0.덤부살이 삼년에 남의 신세도 많이
 졌구만.
덤불 사둔: ㉸겹사둔. ㉸사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 사둔 관계를 맺은 사이.
 0.그 집들은 덤불 사둔이야.

덤성거린다: →담성거린다.
덤탱이: ㉸누명. ㉸억울하게 뒤집어쓴
 불명예.
 0.그 사람한테서 덤탱이를 뒤집어썼다.
 0.오랫만에 덤탱이를 벗었다.
덧니백이: ㉸덧니박이. ㉸덧니가 난 사람.
 0.흔들리는 이를 빨리 뽑자. 놔두면
 덧니백이 된다.
덧돈: ㉸웃돈.
 0.엄마가 학비에다 용돈 쓰라고 덧돈을
 없해주셨다.
덩거리(덩이, 등거리): ㉸덩어리.
 1.몽쳐서 크게 이루어진 것.
 0.흠 덩거리를 부순다.
 2.몽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0.진흠 한 덩거리 몽쳐라.
 3.어떤 성질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말.
 0.그 사람 골칫 덩거리야.
 0.그 앤 심술 덩거리야.
데고말고(되구말구): ㉸되고말고.
 아무렇게 나. 막
 0.데고말고 만져거리지 말아.
 0.데고말고 지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데까닥(데깅, 제까닥, 제깅, 제꺼덕,
 제깅):** ㉸데깅. 즉시. 곧.
 0.일은 미루지 말고 데까닥 해 치워야
 시원하지.
 데깅: →데까닥.
데다가: ㉸데려다가.
 0.그 앤 데다가 뭐 하려고.
데다본다(디다본다, 디래다본다):
 ㉸들여다본 다.

- 0. 신방 첫날밤은 문틈으로 데다본다.
- 0. 호기심에 자꾸 데다본다.

데다준다: ㉠데려다준다.

- 0. 밤길이 무서워서 데다줬다.

데레(데루, 도루, 되레): ㉠도로.

1. 향하던 길에서 거꾸로 향하여.
0. 가던 길을 데레 돌아왔다.
2. 먼저와 같이.
0. 데레 제자리에 놓아라.

데루: →데레.

데리구(델구): ㉠데리고.

- 0. 애를 데리구 놀아.
- 0. 장에 나 데리구 가나?

데리싸우: ㉠데릴사위. ㉡처가에서 대리고 사는 사위.

- 0. 뒷집 총각이 데리싸우로 들어간대.

데미: ㉠더미. ㉡물건이 많이 쌓인 덩어리.

- 0. 장작데미가 크다.
- 0. 쓰레기 데미가 자꾸 커간다.

~데야(~데요): ㉠~더라.

- 0. 장에 가니 사람이 많데야.
- 0. 마침 가니 밥을 먹데야.

~데요: →~데야.

~데이: ㉠~다.

- 0. 나 집에 간데이.
- 0. 그 일은 내가 한데이.

데잡이(되잡이): ㉡되지않게.

- 0. 거 데잡이 떠들어대지 말아.

데핀다(뜨순다): ㉠데운다. ㉡식었거나 찬 것에 열을 가하여 덥게 한다.

- 0. 할아버지 세숫물을 데핀다.

- 0. 식은 찌개를 화로불에 데핀다.

덴(돌안, 뉘): ㉠뒤란. ㉡집 뒤의 울안. 집 뒷마당.

- 0. 덴에는 장독대가 있다.

0. 덴 장독대에 가서 고추장 퍼 오너라.

델구: →데리구.

델다줘: ㉡데려다 줘.

- 0. 그 애 집에다 델다줘.
- 0. 강아지 새끼를 어미에게 델다줘라.

데미: ㉠데미. ㉡데미 보라는 말.

- 0. 한 번 데미 봐.

데미빈다: ㉠‘데미다.’ ‘데미빈다.’에서 온 말.

1. 달려든다.
0. 저 아이가 자꾸 데미빈다. .
2. 침착하지 못하다.
0. 데미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 봐.

데미지: →고초.

데미: →데미지.

~데미: ㉠~더니.

- 0. 밥을 먹데미 어디로 갔어.
- 0. 잘 놀데미 울잖나.

도(도맹이, 동우): ㉠동이. ㉡둥글고

아かり가 넓으며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질그릇.

- 0. 경칩 추위에 도가 얼어 터진다.(아직 추위가 덜 갔다는 말)

도깨비 방망이: ㉡나오라는 대로 나오는 요술 방망이.

- 0. 너는 도깨비 방망이나? 없는 것이 없구나.

도꾸: ㉠도끼.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

0.도꾸가 제 자루 못 찍는다.(제 허물은
제가 알아서 고치기 어렵다는 말)

0.도꾸 가진 놈이 바늘 가진 놈을 못
당한다.(도끼 같은 큰 무기를 가진
자가 상대방의 사정을 보다가 도리어
작은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 진다는
말)

0.도꾸 대가리 베고 잤나?(밤잠을 편히
못자고 일찍 일어난 경우를 이르는
말)

도꾸빨: ㉠도끼의 등.

0.도꾸빨에 다칠라. 조심해라.

도꾼다: ㉠돋운다.

0.도꾸고 뛰어야 복사빠라.(아무리
도망쳐 봐야 별 수 없다는 말)

도대처: →대처.

도독놈(도독놈. 도독놈. 도독놈.

도독놈. 도적놈. 도적놈. 밤손님):

㉠도독놈.

0.도독놈 개 꾸짖듯.(남이 알을까 봐
입속 으로 중얼거림을 이르는 말)

0.도독놈 개에게 물린 셈.(자기의 잘못
때문에 봉변을 당하여도 아무 말을
못함)

0.도독놈 소 몰 듯.(당황하여 황급히
서두르는 모양)

0.도독놈 불기짝 같다.(매맞은
엉덩이처럼 얼굴이 시푸르죽죽한
사람을 이르는 말)

0.도독놈 부싷돌만한 놈.(하잘것없는
놈이라고 얕잡아 이르는 말)

0.사람 열이서 도독놈 하나 못 지킨다.

(도독놈은 잡기 힘들다는 말)

도독놈: →도독놈.

도독놈: →도독놈.

도두룩하다: ㉠도도룩하다. 두두룩하다.

0.이마가 도두룩한 게 잘 생겼어.

도독놈의 발: ㉠큰 발.

0.발이 크면 도독질하러 잘 다니는 도독
놈의 발이라 하지.

도독놈: →도독놈.

도독놈: →도독놈.

도때기: ㉠도때.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소매상을 상대로 묶어 파는 일.

0.아버지께서는 도때기 시장에서 의류를
때다 파는 소매상을 하신다.

도때이: →도.

도래낸다: ㉠‘도려낸다.’ ‘도려낸다.’에서

온 말. ㉠사물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

0.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래낸다.

도로아미타불(도루아미타불): ㉠허사.

공염불.

0.일이 빗나가 도로아미타불 되었네,

도루: →테레.

도루깨: ㉠도리깨. ㉠곡식의 낱알을

떠는데 쓰는 농구. 장대 끝에 서너 개의
회초리 를 달아 휘둘러 칩.

0.도루깨로 보리를 편다.

도루메기(돌메기): ㉠도루묵.

㉠도루묵과의 바닷물고기.

0.도루메기 잡으러 가자.

0.도루메기가 지천으로 났대.

도루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도리: ㉠간격.

0.사흘 도리로 비가 온다.
도말이: ㉠끝.
 0.이젠 양양장을 도말이로 장사 그만 하겠네.
도매: ㉠도마. ㉡칼질할 때 밑에 받치는 널조각.
 0.도매에 오른 고기다.(어찌할 수 없게 된 운명을 비유하는 말)
도배: ㉠단배. ㉡여럿이 함께 합동으로 절을 하는 것.
 0.설날에 어른께 합동으로 도배를 한다.
도사: ㉠전문가.
 0.그 일엔 그 사람, 이젠 도사가 다 됐어.
도삽쟁이: ㉠무엇을 궁리하여 만드는 사람.
 0.그 사람 도삽쟁이야.
도세: ㉠도무지. 도시. 도저히. ㉡아무리 하여도. 끝끝내.
 0.그 사람 하고는 도세 비교가 안돼.
 0.그 일은 도세 혼자 못하겠다.
 도장: →곡간.
 도적놈: →도둑놈.
 도적놈: →도둑놈.
도툰다: ㉠다툰다.
 0.형제끼리 도투지 말고 잘 지내라.
독새: ㉠독사. ㉡독이 있는 뱀.
 0.풀밭에 갈 땐 독새 조심해라. 물리면 큰일 난다.
독일병정: ㉠독기가 무서운 사람.
 0.저 사람은 똑 독일병정 같애.
돈나물: ㉠돌나물. ㉡돌나물과의 여러해 살이 풀. 어린잎과 줄기는 먹고 즙은

해독제로 씹.
 0.봄철엔 돈나물 물김치가 시원하고 좋지.
 돈벌거지: →그리매.
 돈벌레: →그리매.
돈군다: ㉠돈운다. 부추간다.
 0.화를 자꾸 돈군다.
돈배기: ㉠돈보기. ㉡작은 글씨를 크게 보이게 하는 안경.
 0.할아버지께서 돈배기를 쓰시고 신문을 보신다.
돈챌다: ㉠성났다. 화가 났다.
 0.그 아저씨가 지금 돈챌다. 조심해라.
돌각다리(돌각살): ㉠돌이 많이 있는 곳.
 0.돌각다리 밟은 고추가 잘 된단다.
 돌각살: →돌각다리.
돌개비행기(소금쟁이비행기. 잠자리 비행기): ㉠헬리콥터.
 0.돌개비행기가 떴다.
 0.돌개비행기가 내려 앉는다.
돌다 봐: ㉠돌아다 봐.
 0.이쪽 좀 돌다 봐. 뭐가 있나.
 0.돌다 보지도 않고 일만 하네.
돌덩이(돌등거리): ㉠돌덩이. ㉡돌맹이 보다 크고 바위보다 작은 돌.
 0.무가 얼마나 컸는지 돌덩이만 하다.
 0.황금 보기를 돌덩이처럼 보라 했다.
 (돈에 욕심을 갖지 말라는 말)
 돌등거리: →돌맹이.
돌레짓기: ㉠돌려짓기. 윤작.
 0.밭 곡식은 돌레짓기를 해야 수확이 좋다.
돌른다: ㉠돌린다. ㉡여러 곳으로 보낸다.

0. 새머느리 큰떡을 마을에 돌른다.

돌림빵: ㉠윤간의 속어.

0. 천하에 몹쓸 것이 돌림빵이다.

돌메기: →도루메기.

돌메이(돌바구. 돌빵구. 돌빼이.

돌빵이): ㉠돌멩이. ㉡돌덩이보다 작고 자갈보다 큰 돌.

0. 돌메이를 집어 물 위에 던진다.

0. 돌메이 있는 길은 걷기가 힘들다.

돌무데기: ㉠돌무더기.

0. 돌무데기에 뱀 있다. 조심해야 돼.

돌문애: ㉠돌 문어. 참 문어. ㉡낙깃과의 연체동물.

0. 봄철 바닷가 돌에 돌문애가 꽃구경 하러 나온다.

돌바구: →돌메이.

돌바: →덜비.

돌빵구: →돌메이.

돌빼이: →돌메이.

돌빵이: →돌메이.

돌뿌리: ㉠돌부리. ㉡땅 위로 내민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

0. 돌뿌리를 차면 발만 아프다.(쓸데없이 성을 내면 자기만 해롭다)

돌쌍놈(돌쌍놈. 돌쌍놈): ㉠판상놈.

㉡아주 못된 상놈이란 뜻으로 욕하는 말.

0. 그놈 돌쌍놈이야. 상대하지 마.

돌쌍놈: →돌쌍놈.

돌쌍놈: →돌쌍놈.

돌아가셨다: →가셨다.

돌안 놈: ㉠돌은 놈.

0. 그 놈 돌안 놈이야. 상대하지 마.

돌어센다(돌어스다): ㉠돌아선다.

0. 멧돼지가 쫓겨가다 막다른 골목이면 감자기 돌어센다.

돌어스다: →돌어센다.

돌잔차: ㉠돌잔치.

0. 쌍둥이네 돌잔차, 잘 얻어먹었지.

돌쟁이: ㉠석수. 석공.

0. 돌쟁이가 돌을 다듬는다.

돌저구(돌쩌구):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고정 시키는 암수 쇠붙이.

0. 돌저구를 단단히 박아라.

0. 돌저구에 불나겠다. 그만 좀 드나들 어라.

돌중: ㉠땡추중. ㉡파게하여 승려답지 않은 승려를 낮잡아 이르는 말.

0. 옛날엔 거지 같은 돌중이 많았었지.

돌지둥: ㉠돌기둥.

0. 돌기둥은 썩지 않아서 좋지.

돌짐: ㉠돌김.

0. 돌김은 정말 맛있다.

돌쩌구: →돌저구.

돌칭계: ㉠돌층계. 돌계단.

0. 불국사 돌칭계는 참으로 멋있더라.

돏다가: ㉠뒸다가.

0. 그 빵 돏다가 쥐.

0. 그 일은 좀 돏다가 하지머.

동가리: ㉠동강. 토막. ㉡긴 물건을

짤막하게 자른 부분.

0. 동가리 낸다.(동강 나게 한다)

0. 동가리 난다.(잘라져 토막이 된다)

동개비: ㉠동갑내기.

0.자네와 나는 동개빌세.
 0.동개비는 같이 놀고 같이 늙는다.
동고리(동구리): ㉠목말.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노는 놀이.
 0.아버지께서 동생을 동고리 해줬다.
동고맨다: ㉠동여맨다.
 0.아버지께서 낚자리 줄을 단단히 동고매신다.
동구간: ㉠동기간. ㉡형제자매 사이.
 0.동구간에 뭐 다툼 일 있나.
동구렇다: ㉠동그렇다.
 0.얼굴이 동구런게 잘 생겼네.
동구레미(동그레미): ㉠동그라미.
 0.빗방울이 떨어져 동구레미 그린다.
 동구리: →동고리.
 동그레미: →동구레미.
동네 시어머이: ㉠동네 시어머니.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는 사람.
 0.그 여잔 동네 시어머이야. 돌아다니면서 참견 안 하는 데가 없어.
동박나무(동백나무): ㉠생강나무.
 ㉡늑나뭇과의 작은 낙엽 활엽 교목.
 0.봄이 왔는가보다. 동박나무꽃이 노랗게 피었다.
 0.동박나무 가지는 생강 냄새가 난다.
 0.동박나무 열매로 동박기름을 짜지.
 동백나무: →동박나무.
동상: ㉠동생. ㉡아우나 손아래 누이.
 0.동상, 요즘 잘 있는가?
동상아 댁: ㉡동생의 댁.
 0.동상아 댁이 다니러 왔어.
동세: ㉠동서. ㉡자매의 남편끼리, 남편의

아내끼리 부르는 호칭.
 0.동세 요즘 잘 있나?
동송이: ㉠갓이 퍼지지 않은 갓 솟아오르는 송이.
 0.동송이를 팔뚝만 한 걸 땀어.
 동송이는 특등품이지.
동예맨다: ㉠동여맨다. ㉡끈 따위로 둘러 묶는 것.
 0.감나무 묘목을 벚짚으로 싸서 단단히 동예 매어라. 얼지 않게.
 동우: →도.
동지미: ㉠동치미. ㉡무를 소금에 절이고 소금물에 담가 심심하게 삭힌 물김치.
 0.겨울에 시원한 동지미 국물이 좋지.
동침: ㉠1.굵고 긴 침. 2.남성 성기.
 1.침.
 0.입침은 따갑고 동침은 시끈하다.
 2.남성 성기.
 0.동침 맞은 여자다.
동태: ㉠굴렁쇠.
 0.야! 동태 굴리기 하자.
 0.동태 굴리기는 재미가 있다.
동투: ㉠동티.
 1.땅, 돌, 나무 따위를 잘못 다루어 지신을 화나게 해서 받는 재앙.
 0.삼살 방위를 건드리면 동투가 나지.
 0.오래 묵은 밤나무를 베도 동투가 난다.
 2.공연히 건드려서 스스로 걱정이나 해를 입음을 비유하는 말.
 0.괜히 일을 쭈석거리려 동투를 맞는다.
돼지: ㉠똥보.

0.얼마나 먹었는지 돼지다.

돼지감자(돼지감재): ㉠뽕딴지. ㉡국화
과의 여러해살이풀.

0.돼지감자가 요즈음은 약용으로 쓰인다.
돼지감재: →돼지감자.

되가웃: ㉠되가웃. ㉡한되 반쯤의 분량.

0.고등어 두 손을 보리쌀 되가웃 주고
샀다.

되게: ㉡무르지 않게.

0.죽을 좀 되게 썰라.

되곱체: ㉡다시 곱쳐.

0.끈이 약하거든 되곱쳐 두겹으로 묶어
봐.

되구말구: →데고말고.

되나따나: ㉡되나 안되나.

0.콩이 잘 되나따나 심어야지.

되놈(때놈. 뉘놈): ㉡중국 놈.

0.중국 되놈들은 자기들끼리 놀아 해.

되다: ㉡좀 굳다. 무르지 않고 단단하다.

0.밀가루 반죽이 좀 되다.

되랜남: →대랜남.

되래: →데래.

되먹힌다: ㉠되먹힌다.

0.투전판의 돈이란 먹고 되먹히는
판이라. 예측을 못하지.

되미: ㉠도미. 돔. ㉡도밧과의 바닷
물고기의 총칭.

0.요새 되미가 많이 들어온대. 낚으러
가세.

되박: ㉠되. ㉡곡식을 되는 도구.

0.예전엔 쌀 한 되박에 좁쌀 두 되박이었
는데 지금은 거꾸로야.

되박(되백이): ㉡바닷가 바위에 자생하는
갈색 해조류의 하나. 점질이 많아
회백을 바를 때 삶아 섞는다.

0.되박은 말려서 튀겨 먹으면 맛이 있다.

되배: ㉠도배. ㉡도배지로 벽을 바름.

0.벽에 되배를 하자.

0.새로 되배를 하니 방이 환해졌다.

되백이: →되박.

되뱃조(되뱃지): ㉠도배지. ㉡도배하는데
쓰는 종이.

0.방에 도배를 해야겠다. 되뱃조 사라가자.

되뱃지: →되뱃조.

되살이: ㉡다시 살아남.

0.하천 소에서 월동한 은어가 되살이
은어지.

되에맨다(뉘에맨다): ㉠동여맨다.

㉡끈이나 실 따위로 감거나 묶는다.

0.금이 간 동이 주둥이를 가는 철사로
되에맨다.

되잖이: →데잖이.

되패장친다: ㉡도리어 대장 노릇한다.

0.어디가서 되패장 치지 마.

0.잘 못하는 걸 봐줬더니 되패장
치러드네.

된고비: ㉡힘든 고비.

0.감기 걸렸는데 된고비는 넘겼어.

된벤: ㉡된 변. 힘겨운 일.

0.6.25 때 된벤 안 본 사람 있을까?

된사나(된사내): ㉠된서방. ㉡까다롭고
모진 남편.

0.이제 된사나 만났으니 정신 차리겠지.

된사내: →된사나.

된소리: ㉠언쟁 때 높은 소리.

- 0. 싸울 땐 된소리가 나온다.
- 0. 어른들 된소리 나지 않게 조심해라.

된시어머니: ㉠된 시어머니. 억센 시어머니.

- 0. 된시어머니를 만나 젊은 시절 고생 좀 했지.

된자끄미: ㉠몹시 가파른 언덕.

- 0. 된자끄미서 내려다 보면 바다가 까맣게 보인다.
- 0. 된자끄미 오르기가 무척 힘들어.

됴몐: ㉠동면.

- 0. 됴몐은 동쪽에 있는 면이었다.

됴에몐다: →되에몐다.

두(뒤우): ㉠뒤.

- 0. 송이가 바로 너 뒤에 있다.

~두: ㉠~도.

- 0. 과부는 남편이 없어도 잘 산다.
- 0. 과일을 씻지도 않고 먹으려고 해.
- 0. 그래두 우리 쌀이 최고야.
- 0. 너두 같이 갈래?
- 0. 뿔두 모르고 얘기하기는.
- 0. 시두때두 없이 잔소리다.
- 0. 해두해두 너무한다.

두가리 같은 년: ㉠좀 우둔한 여자를

- 비하해 욕하는 말.
- 0. 두가리 한 죽(열 벌)도 셀 줄 모르는 두가리 같은 년.

두구두구: ㉠두고두고.

- 0. 그 일이 언제 찍 일인데 아직까지 두구 두구 얘기하나.

두근반두근반: ㉠두근두근.

- 0. 잘못된 걸 알까 봐 가슴이 두근반두근

반 한다.

두경: ㉠뚜경. 덮개.

- 1. 그릇이나 물건을 덮는 덮개.
- 0. 냄비 두경을 단아라.
- 2. 만년필에 씌우는 물건.
- 0. 만년필 두경을 씌운다.

두께비: ㉠두꺼비.

- 0. 두께비는 복두께비다. 건드리지 말아라.

두내우: ㉠두 내외.

- 0. 두내우가 의가 좋다.

두두레(뚜드레): ㉠뚜드러. ㉠소리가

-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린다.
- 0. 문을 두두레 봐 사람이 있다.
- 0. 북어를 두두레 부순다.

두두레기(뚜드레기): ㉠뚜드러기. ㉠음식,

- 약물 중독 등으로 피부에 돌기가 돋으며 가려운 증세.

- 0. 상한 음식을 먹고 두두레기가 돋았다.

두돌긴다(뚜돌긴다. 뿔돌긴다.

- 뿔딜긴다):** ㉠뚜드린다.
- 0. 누나가 빨래를 두돌긴다.
- 0. 어머니가 깻단을 두돌긴다.

두똥하다: ㉠두똥하다.

- 0. 주머니가 두똥하다.
- 0. 용돈을 두똥하게 받았다.

두드레기: →두두레기.

두력(드력): ㉠이랑. ㉠고랑과 고랑 사이

- 독진 곳.
- 0. 밭에 감자 심을 두력을 짓는다.
- 0. 논 두력에 콩을 심는다.

두럼(두름): ㉠두름.

- 1. 물고기를 한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묶은 것.

0. 양미리를 한 두렵 샀다.

2.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열 모습 정도

묶은 것.

0. 이 고사리 한 두렵에 얼마요?

두렵다(두릅다): ㉞두렵다.

0. 숙제를 안 해 가면 선생님이 두렵다.

두령상: ㉞동근상.

0. 두령상을 피라.

0. 두령상에 두루 앉아 밥을 먹는다.

두루매기: ㉞두루마기. 겉옷. ㉠외투처럼

입는 우리나라 고유 의 옷.

0. 아버지 두루매기 내다 드려라. 외출 하신다.

두루몽생이: ㉠이것저것 골고루 넣어

만든 버무리 떡.

1. 버무리 시루떡.

0. 두루몽생이 떡이 맛이 있다.

2. 두루 섞어 놓음.

0.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루 몽생이 잼나.

두루박(두리박): ㉞두레박. ㉠물을 퍼

올리는 바가지.

0. 두루박엔 시원한 우물물이 한가득 담겼다.

두루 와(두르 와): ㉞들어 와.

0. 밖에 서 있지 말고 두루 와.

두룬다(둘룬다): ㉞두룬다.

1. 어떤 대상의 둘레를 휘감아 찐다.

0. 울타리를 두룬다.

2. 원을 그리며 돌린다.

0. 솥불을 담아서 휘 두룬다.

3. 떡을 이웃에 돌린다.

0. 이사 온 집이 떡을 이웃에 두룬다.

4. 사람을 마음대로 다룬다.

0. 사람을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휘 두룬다.

5. 없는 것을 구하거나 빌리거나 한다.

0. 모자라는 돈을 두룬다.

6. 곁에 기름을 고르게 바른다.

0. 솔뚜껑에 기름을 두룬다.

두룸: →두렵.

두룸(드룸): ㉞두룸. ㉠두릅나무의 어린

순.

0. 봄철에 두룸을 데쳐 먹으면 봄맛이 나지.

두룸다: →두렵다.

두르 와: →두루 와.

두리: ㉞돌.

0. 밤길은 두리 다니면 좋다.

두리박: →두루박.

두메고라뎡이(두메골짜구니.

두메산골뎡이): ㉞두메산골.

0. 두메고라뎡이에 콩밭이 하나 있지.

두메골짜구니: →두메고라뎡이.

두메산골뎡이: →두메고라뎡이.

두발도지: ㉠두발로 걷는 날짐승.

0. 두발도지 한 마리 추렴하세.

두벌짐(두벌짚): ㉠두 번째로 매는 김.

0. 두벌짐 맬 때가 됐다.

두벌짚: →두벌짐.

두제(두져, 뒤제): ㉞뒤져.

0. 순사(일본 경찰)가 와서 집을 두제 늦그릇을 가져갔다.

두저: →두제.

두지(뒤지): ㉠곡식을 넣어두는 광.

- 0.감자는 두지에 넣어라.
- 0.두지에 가서 고구마 가져오너라.

두집어: ㉡뒤집어.

- 0.옷을 두집어 입었다.
- 0.두집어 생각해 봐. 어떻게 될까.

두척댄다: ㉢뒤척댄다.

- 0.잠이 설개어 일어나지 않고 두척댄다.

둔너(둔노, 둔늬, 둘러, 둘늬):

- ㉣드러누워.
- 0.어디 둔너 봐. 편안하지.
- 0.우리 둔너 얘기하자.

둔너 팔떡 먹기다: ㉤거저 먹기다.

- 0.그 일이라면 둔너 팔떡 먹기다.

둔노: →둔너.

둔늬: →둔너.

둔데기: →던데기.

둔드배기: →던데기.

둔들배기: →던데기.

둔턱: ㉥둔덕, 언덕, 구릉,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 0.밭 둔턱 위로 올라갔다.

둘러: →둔너.

둘러머친다: ㉧메친다, ㉨어깨너머로

- 둘러메어 힘껏 내리친다.
- 0.둘러머치나 메치나 매한가지다.(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한가지라는 말)

둘러민다: ㉩둘러멘다, ㉪물건을 번쩍

- 들어 어깨에 멘다.
- 0.비료 포대를 어깨에 둘러민다.

둘러슨다: ㉫둘러선다.

- 0.말 잘하는 사람 옆에 죽 둘러슨다.

둘레친다: ㉬'둘러대다.' '둘러댄다.'에서 온 말, ㉭말을 꾸며댄다.

- 0.말을 그럴 듯하게 둘레친다.

둘룬다: →두룬다.

둘뤄: →둔너.

둘안: →덴.

들어온다: ㉮들어온다

- 1.밖에서 안으로 향해 온다.
 - 0.문이 열리더니 언니 뒤따라 강아지가 들어온다.
- 2.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 0.계 회원이 추가로 들어온다.
- 3.수입이 늘다.
 - 0.이자가 계속 들어온다.
- 4.전기, 수도 등이 들어온다.
 - 0.전기가 들어온다.
- 5.말이나 글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
 - 0.말귀가 귀에 들어온다.

등갑한다(똥갑한다): ㉯등갑한다.

- ㉺술법을 써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꿈.
- 0.외국산이 국산으로 등갑한다.
- 0.여우가 여자로 등갑하는 옛날 얘기가 재미있다.

등굴다: ㉻등굴다.

- 1.모양이 둥그렇다.
 - 0.보름달이 등굴게 떠 오른다.
- 2.성격이 모가 없이 원만하다.
 - 0.그사람 성격이 등굴다.

등기: ㉼가동질, ㉽야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흔들어 놀리는 놀이.

- 0. 영수야, 동기 하자.
- 0. 동기 동기 동기야, 우리 영수 동기야!

등지리: ㉠큰 바구니.

- 1. 나무 가지로 만든 그릇.
- 0. 싸리나무로 등지리를 만든다.
- 2. 새의 보금자리.
- 0. 까치가 밤나무에 등지리를 틀었다.

뒤 개: ㉠두 개 정도.

- 0. 사과 한 뒤 개 담아라. 등산하면서 먹게.

뒤썼다: ㉠뒤집어썼다.

- 1. 모자, 수건 따위를 머리에 쓴다.
- 0. 털모자를 뒤썼다.
- 2. 온몸을 내리 덮다.
- 0. 먼지를 뒤썼다.
- 0. 이불을 뒤썼다.
- 3. 남의 허물이나 책임을 넘겨받는다.
- 0. 혼자서 죄를 뒤썼다.
- 4. 누구를 그대로 닮는다.
- 0. 아기가 아빠를 뒤썼다.

뒤질병: ㉠죽을병.

- 0. 그 사람이 뒤질병에 걸렸대.

똥: →똥.

똥여맨다: ㉠동여맨다.

- 0. 금이 간 항아리를 철사로 똥여맨다.

뒤간(똥뚜간. 똥소. 똥소간. 정낭.

칙간): ㉠똥간. 똥소. 측간. 화장실.

- 0. 뒤간과 사돈집은 멀어야 한다. (뒤간은 가까우면 냄새가 나고, 사돈집이 가까우면 말이 많아지므로 경계하라는 말)
- 0. 뒤간에 갈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이 다르다. (필요할 땐 다급하게

굴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말)

뒤꼬텡이: ㉠뒤끝.

- 0. 애가 뒤꼬텡이가 짧아 울음을 금방 그친다.

뒤더지: ㉠두더지. ㉠두더짓과의 포유동물.

- 0. 뒤더지가 채마밭에 자꾸 굴을 판다.
- 0. 뒤더지 혼인 같다. (자기 분수는 생각지 않고 엉뚱한 희망을 가진다)

뒤뚜박거리다: ㉠뒤뚱거리다.

- 0. 아기가 이제 뒤뚜박거리며 걸어.

뒤떨고 나간다(뒤뜰고 나간다):

- ㉠내차고 나간다. 싫다하고 나간다.
- 0. 젊은 시절 고향을 마다하고 두떨고 나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도 많니.

뒤뜰고 나간다: →뒤떨고 나간다.

뒤미처: ㉠뒤이어. 뒤따라.

- 0. 형이 가고 뒤미처 동생이 따라갔다.
- 0. 비가 오다 뒤미처 눈이 왔다.

뒤밴다(뒤빈다. 뒤친다): ㉠뒤집는다.

- 0. 아기가 이제 뒤밴다. 길라나 보다.

뒤빈다: →두밴다.

뒤섹긴다: ㉠뒤섹긴다.

- 0. 입쌀 보리쌀이 뒤섹인 밥을 먹는다.

뒤술른다(뒤술른다. 뒤실른다):

- ㉠뒤스른다. ㉠변덕을 부린다. 이리저리 바꾸거나 변통한다.

- 0. 그 사람은 좀 뒤술른다.

뒤술른다: →뒤술른다.

뒤실른다: →뒤술른다.

뒤우: →두.

뒤제: →두제.

뒤졌다: ㉠죽음을 낮추어 이르는 말.

0. 쥐가 고방에서 곡식을 먹으며 말뚱을 부리더니 그거 잘 뒤졌다.

뒤지: →두지.

뒤친다: →뒤뺀다.

뒤통수: ㉡뒤통수. ㉠머리의 뒤쪽. 뒷머리.

0. 뒤통수가 툭 튀어나왔지.

0.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자신도 모르게 손해를 입었다는 말)

뒷간 뒤진다(똥간 뒤진다): ㉠뒷조사를 한다.

0. 장물이 있나 뒷간 뒤진다.

뒷다리: ㉡종아리.

0. 오래 걸었더니 뒷다리가 팽팽하다.

뒷손꾸락질: ㉠뒤에서 하는 욕.

0. 뒷손꾸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잘 해야 돼.

뒷일: ㉠뒷간에서 보는 일.

0. 뒷일 보기가 급했다.

뒷잔뎡이: ㉡허리.

0. 뒷잔뎡이가 길면 게으르다 했지.

뒷태: ㉡뒷모양.

0. 사람은 뒷태도 아름다워야지.

똥갑한다: →똥갑한다.

똥박: ㉡뒤옹박. ㉠박을 쪼개지 않고

구멍을 뚫어 속을 파낸 그릇.

0. 똥박엔 곡식 씨앗을 보관한다.

똥박질: ㉠뒤집거나 바꾸거나 하는 짓.

0. 어떻게 똥박질이 심한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드가: ㉡들어가.

0. 어서 방으로 드가.

0. 얼른 드가서 말해 봐.

드네놓는다(든내놓는다. 들레놓는다):

㉠드러내놓는다.

0. 닭을 드네놓고 키운다.

0. 송아지를 드네놓고 키운다.

드다라: ㉡들더라. ㉠들어가더라.

0. 대학생 가르치는데 돈이 많이 드더라.

드럭: →두럭.

드럽다(드롭다. 드릅다, 디럽다.

디롭다. 디릅다): ㉡더럽다.

1. 때나 찌꺼기가 끼어 지저분하다.

0. 드러운 발로 방에 들어간다.

2. 말과 행동이 순수하지 못하다.

0. 드러운 인간 같으니라구.

3. 못마땅하거나 불쾌하다.

0. 드럽고 치사해서 못 봐 주겠다.

4. 순조롭지 않거나 고약하다.

0. 일이 드럽게 돌아간다.

5. 정도가 심하거나 지나치다.

0. 날씨 한 번 드럽다.

드레놓는다(디레놓는다): ㉡들여놓는다.

1. 밖에서 안으로 갖다 놓는다.

0. 책상을 방안에 드레놓는다.

2. 관계를 맺거나 진출한다.

0. 새 머슴을 집에 드레놓는다.

3. 무엇을 사서 집에 들여놓는다.

0. 술을 사서 드레놓는다.

드레닥친다(디레닥친다): ㉡들이닥친다.

0. 경찰이 막걸리 조사하러 드레닥친다.

(쌀을 아낀다고 술을 못 담귀 먹게 한 적도 있었음)

0. 흥수가 논으로 드레닥친다.

드레댄다(디레댄다): ㉞들이댄다.

1. 바짝 가져다 댄다.
 0. 권총을 드레댄다.
2.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어준다.
 0. 밑천을 드레댄다.
3. 물을 끌어댄다.
 0. 눈에 물을 드레댄다.

드레덤빈다(디레덤빈다): ㉞들이덤빈다.

0. 망나니가 싸움하러 드레덤빈다.

드레뿔다(드리뿔다. 디레뿔다): ㉞들이뿔다. ㉠급히 뿔다.

0. 소나기가 쏟아지니 모두들 드레뿔다.

드레마신다(디레마신다): ㉞들이마신다.

0. 냉수를 시원하게 드레마신다.
0. 막걸리를 드레마신다.

드레맞춘다(디레맞춘다): ㉞들이맞춘다.

0. 밥상 다리를 드레맞춘다.

드레민다(디레민다. 디리민다):

㉞들이민다. 들여보낸다.

1.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들여보낸다.
 0. 쪽지를 문틈으로 드레민다.
2. 바짝 갖다 댄다.
 0. 얼굴을 바짝 드레민다.
3. 돈이나 물건을 제공한다.
 0. 전 재산을 사업에 다 드레민다.

드레받는다(디레받는다): ㉞들이받는다.

0. 소가 사람을 드레받는다.
0. 질병이 상사를 드레받으면 손해다.

드레보낸다(디레보낸다): ㉞들여보낸다.

1. 안이나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0. 입장권 가진 사람을 드레보낸다.
2.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

0. 아들을 대학에 드레보낸다.

3. 양자나 며느리 등이 되게 한다.

0. 양자로 드레보낸다.

드레부순다(디레부순다): ㉞들이부순다.

0. 부부 싸움하다 살림을 드레부순다.

드레붓는다(디레붓는다): ㉞들이붓는다.

1. 쏟아 넣는다.
 0. 물을 길어다 물단지애 드레붓는다.
2. 마구 붓는다.
 0. 갑자기 소나기가 드레붓는다.

드레비춘다(디레비춘다): ㉞들이비춘다.

0. 햇살이 드레비춘다.
0. 조명을 드레비추니 눈을 못 뜨겠다.

드레세운다(디레세운다): ㉞들이세운다.

0. 숲가마에 통나무를 드레세운다.
0.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드레세운다.

드레쐬다(디레쐬다): ㉞들이쐬다.

0. 헐레벌떡 달려와서 숨을 가쁘게 드레쐬다.

드레쌓는다(디레쌓는다): ㉞들이쌓는다.

0. 앞마당에 돌담을 드레쌓는다.

드레쌓인다(디레쌓인다): ㉞들이쌓인다.

0. 눈이 많이 와 처마 끝까지 드레쌓인다.

드레쐬다(디레쐬다): ㉞들이쐬다.

0. 전투기가 기관총으로 마구 드레쐬다.

드레쐬신다(디레쐬신다): ㉞들이쐬신다.

0. 총치가 드레쐬서 잠을 못 잔다.

드레얏힌다(디레얏힌다): ㉞들여얏힌다.

0. 일꾼을 드레얏힌다.
0. 첩을 드레얏힌다.

드레온다(디레온다): ㉞들여온다.

0.강아지를 드레온다.
 0.겨울 양식을 드레온다.
드레주겐(디레주겐): ㉸들여줄 거야.
 모임에 들어오게 한다.
 0.우리 편에 드레주겐 이리와.
드레찬다(디레찬다): ㉸들이찬다.
 0.홍수가 나니 논에 물이 드레찬다.
드레친다(디레친다): ㉸들이친다.
 0.비가 오면서 풍세가 드레친다.
 드릅다: →드렵다.
드름내(드림내): ㉸집들이.
 0.새로 이사 온 집이 드름내 한 대.
 0.드름내 떡이 맛이 있네.
 드릅: →두릅.
 드릅다: →드렵다.
 드리똥다: →드레똥다.
 드림내: →드름내.
드문드문: ㉸다문다문. 떡엄떡엄. ㉸시간
 이나 간격이 배지 않게.
 0.깻모를 드문드문 심었다.
 0.요즈음은 집에 드문드문 나타 나.
드물다: ㉸드물다.
 1.횃수가 잦지않다.
 0.요즘 보기 드물다.
 2.공간이 뜸하다.
 0.고춧모를 드물게 심었다.
 3.흔하지 않다.
 0.산삼은 보기 드물다.
드부: ㉸두부.
 0.드부는 발의 소고기라 했다.
드시గా우: ㉸드세요.
 0.밥 좀 드시గా우.

0.술 좀 드시గా우.
드시다: ㉸드세다. ㉸거칠고 세차다.
 0.봄철엔 바람이 드시다.
 0.팔자가 드시니 과부가 됐지.
드장: ㉸장사의 입제. 장사 드는 날. 제사
 지내고 조객을 받는다.
 0.그때 장사 입제가 오늘이래.
드툰다: ㉸늦춘다.
 1.느슨하게 한다.
 0.허리띠를 드툰다
 2.시간이나 기일을 뒤로 하다 .
 0.계 모임을 하루 드툰다.
득달: ㉸견뎌냄.
 0.학자금 대주느라 득달을 못 하겠어.
 0.장사 밀친을 대어주느라 득달을 못
 하겠다.
~든: ㉸~던. ㉸지나간 일을 가리키는 말.
 0.그 일은 내가 즐겨 하든 일이다.
 0.그 곳은 내가 전에 살든 곳이다.
 든네놓는다: →드네놓는다.
든든해구: ㉸든든하고.
 0.아들이 있으면 든든해구 좋지머.
 0.딸이 있어도 든든해구 좋단다.
들~: ㉸덜~. ㉸덜하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보다 약하거나 적다.
 0.감기가 좀 들해졌다.
 0.들 먹고 들 논다.
 0.올해는 콩이 좀 들 달렸어.
 0.추위가 한결 들해졌어.
들고냉이(들고앵이): ㉸들고양이. 도둑고
 양이.
 0.들고냉이 온다. 생선을 높이 걸어라.

들고앵이: →들고앵이.

들구웁다(들구웁다): ㉠달아난다.

0.복숭아 서리하던 아이들이 주인이 나오니 놀라서 들구웁다.

들구웁다: →들구웁다

들구웁다: ㉠들고 웁다.

0.말 안 듣는 황소를 마구 들구웁다.

들끓었다: ㉠설 끓었다.

0.닭고기가 아직 들끓었다.

들레: ㉠들려.

1.잠깐 들어간다.

0,오는 길에 큰택에 들레 오너라.

2.손에 든다.

0.손자한테 과자를 들레 보낸다.

들레놓는다: →드네놓는다.

들린다: ㉠들른다.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문다.

0.심부름하러 작은택에 잠깐 들린다.

들볶겠다: ㉠들볶였다. ㉡남에게 볶음을 당해 과로움을 겪었다.

0.벼방아 쪼느라고 한참 들볶겠다.

들뽀순다(들뽀신다): ㉠들부순다.

㉡단단한 물건을 두드려 깨뜨린다.

0.뒷집 아저씨가 화가 났는지 살림을 들뽀순다.

들뽀신다: →들뽀순다.

들살에: ㉠등쌀에 ㉡몹시 귀찮게 구는 짓.

0.아이들 들살에 편할 날이 없다.

들어닥친다(들어닥친다): ㉠들어닥친다.

0.소나기가 쏟아지니 물이 들어닥친다.

들어댄다: ㉠들어댄다.

0.억울한 일을 당하여 증거를 들어댄다.

들어뎀빈다: ㉠들어뎀빈다.

0.화가 났는지 마구잡이로 들어뎀빈다.

들어마신다: ㉠들어마신다.

0.더워서 시원한 냉수를 들어마신다.

들어맞춘다: ㉠들어맞춘다.

0.기둥과 도리목을 들어맞춘다,

들어무진다: ㉠들어무진다.

0.벧단을 마당에 들어무진다.

들어민다: ㉠들어민다.

0.벽이 문이라고 마구 들어민다.

들어박는다: ㉠들어박는다.

0.말목을 논둑에 들어박는다.

들어받는다: ㉠들어받는다.

0.상대방 말을 들어받는다.

들어센다(들어스다): ㉠들어센다.

0.비가 와서 처마 밑에 들어센다.

0.동네에 학교가 들어센다.

들어스다: →들어센다.

들어친다: →들어닥친다.

들었다: ㉠1.개었다. 2.떨었다.

1.개었다.

0.비가 오더니 날이 들었다.

2.떨었다.

0.그 일을 마쳤으니 한 근심 들었다.

들은 청 만 청 한다: ㉡들은 체 만 체 한다.

0.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들은 청 만 청 한다.

들음내: ㉠집들이. 입택.

0.새로 이사온 집이 들음내 한 대.

저녁에 오래.

들익었다: →덜익었다.

들죽었다: →덜죽었다.

들지름: ㉠들기름.

0.들지름은 참기름과 섞어두면 오래 보관 할 수 있다.

들짐성: ㉠들짐승.

0.논밭에 들짐성이 어떻게 찌는지 득달을 못하겠네.

들체낸다: ㉠'들추어낸다.' '들취낸다.'에서 온 말.

0.잘못을 조목조목 들체낸다.

들게서: ㉠들켜서.

0.자두 서리하다 들게서 혼났다.

들크무레하다(들크무리하다):

㉠들척지근 하다. ㉡약간 달다.

0.무척 나물이 들크무레하다.

들크무리하다: →들크무레하다.

들하다: ㉠덜하다.

0.이젠 일 좀 덜하고 살아야지.

듬북장(뚝북장): ㉠담북장. 청국장.

㉡콩을 삶아 더운 방에서 발효시킨 된장.

0.듬북장으로 된장 찌개를 끓이면 구수 해서 좋다.

듬죽하다: ㉠듬직하다.

0.아들이 튼튼한 게 듨죽하네.

등강(등생이): ㉠산등생이. 등성이.

등마루.

0.등강에 올라가서 쉬고 가자.

0.등강을 넘기가 힘이 든다.

등거리: →등거리.

등거지: ㉠나무토막.

0.등거지 하러 간다.

0.등거지를 해다 놓고 등거지를 쪼갬다.

등계: ㉠등겨. ㉡벼, 보리의 속 껍질.

0.등계 먹던 개는 들키고, 쌀 먹던 개는 안들킨다.(크게 나쁜 짓 한 사람은 안 들키고 작게 한 사람은 들킨다는 말)

등군다: ㉠교미한다. ㉡동물의 암수가 교접 한다.

0.황소와 암소가 등군다.

등꿈새: ㉠꿈사등이. 곱추.

0.허리를 다치면 등꿈새 된다.

등끝개: ㉠등굽이.

0.할아버지 등끝개 이리 가져 온.

등더수기(등떼기. 등어리): ㉠등덜미.

㉡등의 윗부분.

0.등더수기를 좀 주물러라.

등떼기: →등더수기.

등말기(등말랑): ㉠등마루. ㉡산이나 파도 따위의 두두룩한 부분.

0.등말기에는 지게 헛터가 있다.

등말랑: →등말기.

등생이: →등강.

등싸대기(등싸대이. 등싸댕이.

등짜바리. 등판대기): ㉠등떼기.

㉡등의 속어.

0.등싸대기를 한 대 후려칠라.

등싸대이: →등싸대기.

등싸댕이: →등싸대기.

등어리: →등더수기.

등짜바리: →등싸대기.

등쳐먹는다: ㉡남의 것을 갈취한다.

0.남의 것을 등쳐먹는 일은 그만하고

일해서 먹고 살라구.

등치: ㉞등치.

0. 등치가 그만 하구야. 등치 값을 좀 해라.

등관때기: →등싸대기.

디다본다: →데다본다.

~디마는: ~더니만.

0. 오디마는 왜 돌아서 가네.

0. 잘 먹디마는 왜 안 먹네.

0. 잘 하디마는 앓아 노네.

0. 기분이 좋디마는 좀 그렇네.

디럽다: →드럽다.

디레: ㉞드려.

0. 아버지 냉수 떠다 디레.

0. 잔을 공손히 디레.

디레놓는다: →드레놓는다.

디레다 본다: →데다본다.

디레닥친다: →드레닥친다.

디레댄다: →드레댄다.

디레덤빈다: →드레덤빈다.

디레뒸다: →드레뒸다.

디레마신다: →드레마신다.

디레맞춘다: →드레맞춘다.

디레민다: →드레민다.

디레받는다: →드레받는다.

디레보낸다: →드레보낸다.

디레부순다: →드레부순다.

디레붓는다: →드레붓는다.

디레비춘다: →드레비춘다.

디레세운다: →드레세운다.

디레썬다: →드레썬다.

디레쌓는다: →드레쌓는다.

디레쌓인다: →드레쌓인다.

디레썬다: →드레썬다.

디레썬신다: →드레썬신다.

디레얏힌다: →드레얏힌다.

디레온다: →드레온다.

디레주겐: →드레주겐.

디레찬다: →드레찬다.

디레친다: →드레친다.

디뤼다(디리, 딘다): ㉞뺏다. ㉞몹시

빠르게. 세차게.

0. 소나기가 쏟아지니 디뤼다 뒸다.

0. 돌을 들어 디뤼다 던진다.

디룩디룩: ㉞뒤룩뒤룩.

0. 여자가 살이 디룩디룩 찼다.

디룬다: ㉞두른다

0. 앞 치마를 디루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디룹다: →드룹다.

디릅다: →드릅다.

디리: →디뤼다.

디리댄다: ㉞들이댄다.

0. 못 들어간다고 하니 통행증을 디리댄다.

디리민다: →드레민다.

디린다: ㉞드린다.

1. 물건을 드린다.

0. 냉수를 떠다 디린다.

2. 말씀 을 드린다.

0. 아버지께 상급학교에 가겠다고 말씀 디린다.

디민다: →디레민다.

디친다: ㉞데친다. ㉞끓는 물에 슬쩍 익힌다.

0. 참나물을 끓는 물에 슬쩍 디친다.

딘다: ㉞텐다.

- 1. 뜨거운 것에 피부가 상했다.
- 0. 딴 소 날치듯 한다.(물불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이르는 말)
- 2. 심한 고통을 겪어 진저리가 난다.
- 0. 그 일엔 이젠 뒸다.

딛다: →디렀다.

딩겁: ㉞기겁. ㉞매우 놀라는 일.

- 0. 아이가 침을 맞자니까 딩겁을 하고 달아났다.

딩굴딩굴: ㉞빈둥빈둥. ㉞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양.

- 0. 부모님 밑에서 딩굴딩굴 놀기만 한다.

따개비(딱개비): ㉞샷갓조개. ㉞바닷가 바위 틈에 샷갓처럼 붙어산다.

- 0. 바닷가 바위에서 따개비를 떼다.

따갠다(따다. 때갠다. 때긴다):

- ㉞빠갠다.
- 1. 단단한 물건을 두쪽으로 가른다.
- 0. 장작을 두쪽으로 따갠다.
- 2. 작은 물건의 틈을 넓힌다.
- 0. 조개를 따개서 국을 끓였다.

따겁다(따굽다): ㉞따갑다.

- 1. 몹시 더운 느낌.
- 0. 햇볕이 따겁다.
- 2. 뽀족한 끝으로 찌르는 느낌.
- 0. 가시에 찔렸더니 몹시 따겁다.
- 3. 시끄러운 느낌.
- 0. 귀따겁다 그만 떠들어라.
- 4. 눈길에 매섭고 날카로운 느낌.
- 0. 따거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따구: ㉞따귀.

- 0. 오늘 잘못해서 따구 한 대 얻어 맞았네.

따구(따우): ㉞따위.

- 0. 너 따구가 멀 안다고 그래.
- 0. 네 따구가 그걸 할 수 있어?

따굽다: →따잡다.

따까리(따강. 따경. 두경): ㉞뚜경. 덮개.

- 1. 아가리를 덮는 물건.
- 0. 선거는 따까리를 열어봐야 안다.
- 2. 만년필 따위의 축을 보호하기 위해 덮어씌우는 물건.
- 0. 만년필 따까리를 열렸다.

따강: →따까리.

따경: →따까리.

따꼭질: →갈때기.

따드미질(따디미질): ㉞다듬이질. ㉞천을 두드려 다듬는 일.

- 0. 따드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 0. 따드미 소리가 점차 사라진다.

따듬는다: ㉞다듬는다.

- 0. 무청을 따듬는다.
- 0. 배추를 따듬어 묶었다.

따따하다(따뜻하다. 따습다. 따습다.

따시다. 뜨뜨하다. 뜨시다): ㉞따뜻하다. 뜨뜻하다.

- 1. 견디기에 일맞게 덩다.
- 0. 아랫목이 따따하다.
- 2. 감정, 태도, 분위기가 정답고 포근하다.
- 0. 사람들 마음씨가 따따하다.

따뜻하다: →따따하다.

따러간다: ㉞따라간다.

0.엄마가 장에 가는데 같이 따라간다.

따루: ㉞따로. 별도로.

1.한데 섞이거나 함께 하지 않고 떨어지게.

0.따루 국밥은 밥과 국이 따루 나온다.

2.보통의 것과는 달리. 특별하게.

0.월급 말고도 따루 수입이 있다.

따룬다: ㉞따른다.

0.술을 따룬다.

0.간장을 따룬다.

따름마!(따름마!): ㉞섬마섬마. ㉞따로 섬.

0.처음 서는 아기를 보고 '따름마!

따름마!'하면서 서는 동작을 도운다.

따름마!: →따름마!

따먹었다: ㉞성교했다.

0.눔팡이가 과부를 따먹었다.

따문에(때미레. 때미로. 땀에):

㉞때문에.

0.나 때문에 네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건 핑계다.

0.이번 시험은 너 때문에 졌어.

따바리(또바리. 또아리): ㉞따리.

1.머리 위의 짐을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 짚이나 천으로 만들

0.따바리를 틀어 머리에 얹었다.

0.따바리를 머리 위에 받치면 머리가 편안하다.

2.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모양.

0.구렁이가 따바리를 틀었다.

따발총: ㉞말이 많은 사람.

0.그 여잔 따발총이야.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따배감: ㉞납작한 감.

0.따배감은 달다.

0.따배감을 흥시 앓힌다.

따순다: ㉞따뜻하게 한다.

0.화롯불에 된장찌개를 따순다.

따습다: →따따하다.

따습다: →따따하다.

따시다: →따따하다.

따우: →따구.

따개비: →따개비.

따깝다: ㉞추궁 받았다.

0.일을 잘못해 많이 따깝다.

따깁다(땡깁다): ㉞땡이다.

1.땡임을 당한다.

0.유리창이 비눗물에 깨끗이 따깁다.

2.혼난다.

0.상관에게 몹시 따깁다.

따쟁이: ㉞따정벌레. 갑충. ㉞따정벌레과의 곤충. 등빛은 금빛을 띤 녹색 내지 등적색.

0.따쟁이는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따종이: ㉞닥종이. ㉞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

0.따종이는 천년을 간다지.

따지맞는다: ㉞퇴짜맞는다.

0.회사에 입사원서를 냈다가 따지맞았다.

따는다: ㉞땡는다.

1.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한다.

0.유리창문을 깨끗이 따는다.

2.문질러 윤기를 낸다.

0.윤기가 나도록 구두를 따는다

3.물기를 훑친다.

0. 눈물을 뺏는다.
 4. 새 길을 낸다.
 0. 신작로를 뺏는다.
 5. 평평하게 고르고 다진다.
 0. 집터를 뺏는다.
 6. 학문이나 기술 등을 힘써 배운다.
 0. 학문을 뺏는다.
 7. 품행을 바르게 한다.
 0. 뺏은 방울 같다.(영리하고 똑똑한 어린이를 이르는 말)
뺏아세운다: ㉠뺏아세운다. ㉡뺏짝 못하게 나무란다.
 0. 뒷사람이 아랫사람을 엄하게 뺏아 세운다.
뺏거(뺏기): ㉠다른 것.
 0. 뺏 거는 더 없나?
 뺏기: →뺏거.
 뺏다: →뺏갠다.
뺏따라: ㉠연예인.
 0. 그 사람이 뺏따라판에 쫓아다닌대.
뺏 줄: ㉡다른 줄.
 0. 뺏 줄에 서지 말고 이 줄에 서.
 0. 이 끈은 뺏 줄에 매어.
뺏구: ㉠뺏기. ㉡장미과의 여러해살이풀.
 0. 붉게 익은 뺏구는 먹음직스럽다.
뺏귀: ㉠달려. 대동하여.
 0. 할머니 가시는데 애를 뺏귀 보냈다.
뺏귀낸다: ㉠따라잡는다.
 0. 운동회 달리기할 때 앞 사람을 뺏귀 냐다.
뺏랑무(뺏랑무꾸): ㉠총각무. ㉡뿌리가 몽당한 무.

0. 뺏랑무로 총각김치를 담는다.
 뺏랑무꾸: →뺏랑무.
뺏래: ㉡뺏.
 0. 그 집에 시집간 뺏래가 왔다.
뺏래네: ㉡뺏의 집.
 0. 그집 뺏래네는 잘 산대.
뺏래미(뺏리미, 뺏아): ㉠뺏. ㉡뺏 아이를 귀엽게 부르는 말.
 0. 우리 뺏래미가 다섯 살 되면 유치원 가야지.
뺏로(뺏루, 뺏리): ㉠따로.
 0. 손님 밥상을 뺏로 차린다.
 뺏루: →뺏로.
뺏르다: ㉠다르다.
 0. 감과 고욤은 원래 뺏르다.
뺏른다: ㉠따른다. 닳는다.
 1. 따른다.
 0. 아이가 아버지를 잘 뺏른다.
 2. 닳는다.
 0. 짚신은 바닥이 잘 뺏른다.
 뺏리: →뺏로.
 뺏리미: →뺏래미.
뺏린다: ㉠달린다. 부족하다.
 0. 춘궁기엔 곡식이 뺏린다.
 뺏아: →뺏래미.
뺏을 놓는다: ㉡뺏을 시집 보낸다.
 0. 과년한 뺏을 둔 부모는 뺏을 놓는 일이 걱정거리다.
뺏자석(뺏자속): ㉠뺏자식.
 0. 늙으막에 뺏자석이라도 있으면 좀 낫지.
 뺏자속: →뺏자식

딸쿤다: ㉠따른다.

0. 술을 딸쿤다.

0. 어머니께서 기름을 딸쿤다.

땀때: ㉠땀띠.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받아 생긴 발진.

0. 아기 땀때 난 곳에 가루약을 바른다.

땅거무: ㉠땅거미. ㉡해가 진 뒤 컴컴하기까지의 어스레한 동안.

0. 해가 저 땅거무가 깔리면 무서워진다.

땅긴다: →땡긴다.

땅딸마하다(땅딸막하다): ㉡작달막하다.

0. 처녀 키가 땅딸마하다.

땅딸막하다: →땡딸마하다.

땅땅하다: ㉠뚱뚱하다.

0. 사람이 땡땡한게 당차보여.

땅떼기: ㉠땅.

0. 땅떼기가 넓어야 곡식도 나오지.

땅문세: ㉠땡문서.

0. 땡문세는 꼭 쥐고 있어야 하네.

땅서리간다: ㉠걸늙는다. 걸마른다.

1. 걸늙는다.

0. 벌써 머리에 땅서리가 갔네.

2. 걸마른다.

0. 콩밭에 땅서리가 가서 하얗게 말랐어.

땅심: ㉠땡힘.

0. 땅심이 좋아야 곡식이 잘 되지.

땅잡았다(땡잡았다): ㉡횡재 만났다.

뜻밖에 재물을 얻음.

0. 그집은 솟송아지를 두 마리나 낳았다. 땅잡았구만.

때깐다: →따깐다.

때굽다(때급다): ㉠따깝다.

1.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

0. 상처가 때굽다.

2. 눈길이나 충고 등이 날카롭고 매섭다.

0. 때구운 질책이다.

3. 햇별이 강열하다.

0. 햇별이 너무 때굽다.

때급다: →때굽다.

때긴다: →따깐다.

때까리: ㉠때갈. ㉡물건 등이 눈에 선뜻 비치는 맵시와 빛깔.

0. 소가 번지름한 게 때까리 좋구만.

0. 잘 먹인 돼지고기가 때까리 좋다.

때꺼리: ㉠끼니. ㉡때맞춰 먹는 먹을거리.

0. 때꺼리가 잇어야 밥을 해 먹지.

0. 때꺼리가 떨어진 줄도 몰랐다.

때끔불: ㉠불침. ㉡장난으로 자는 사람의 살에 불꽃을 붙여 놀라게 하는 놀이.

0. 자면 때끔불 놓는다.

0. 때끔불을 당하면 무척 따깝다.

때끔거린다: ㉠따끔거린다.

0. 가시 찢린 데가 때끔거린다.

때눔: →되눔.

때때바리: ㉠말더듬이.

0. 때때발이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아서 들어야 해.

때래: ㉠‘때리다’ ‘때리어’ ‘때려’에서 온 말.

0.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때래.

때래 부신다: ㉡때려 부순다.

0. 깨진 그릇을 때래 부신다.

때래 치운다: ㉡하던 일을 그만둔다.

0. 잘 되지도 않는 장사를 때래 치운다.

때를 에운다: ㉡끼니를 때운다.

0. 식은 죽 한 그릇으로 때를 에운다.
때린다: ㉠(약을)달인다.
 0. 보약을 때린다.
 0. 간장을 때린다.
때마춤: ㉠때마침.
 0. 때마춤 잘 왔네. 의논 할게 좀 있는데...
때만났다(철만냈다): ㉠철만났다. 제철을 만났다.
 0. 여름이 돌아오니 아이들이 냇가에서 때만났네. 하루종일 노네.
때미레: →따문에.
때미로: →따문에.
때와: ㉠때워.
 0. 온 김에 그 일 아주 때와 치우고 가지며.
때킨다: →딱킨다.
땡땡하다: ㉠땡땡하다.
 0. 그 사람은 재산이 땡땡하다.
땡방(땡방): ㉠땡질.
 0. 내가 대신 땡방해주러 왔어.
 0. 어제 허리 꺾인 일을 땡방 한다.
땡방: →땡방.
땡에: →따문에.
땡고추(땡초): ㉠몹시 매운 고추.
 0. 땡고추는 작아도 맵다.(몹집은 작아도 힘이 세거나 하는 말이 아무지다는 말)
 0. 땡고추 먹은 소리를 한다.(뭇마땡하게 여겨 씹쓸해 하는 말)
땡긴다: →땡긴다.
땡깡: ㉠행패.
 0. 깡패가 땡깡을 부린다.
 0. 땡깡 부리는 꼴이 볼상 사납다.

땡땡이 친다: ㉠농땡이 친다. ㉠일에 피를 부리며 게으름을 피우는 짓.
 0. 청소하는데 땡땡이 치지마.
땡뵤(땡뵤, 땡뵤): ㉠땡뵤.
 0. 땡뵤에 얼굴이 까맣게 탔다.
땡비(땡뵤, 불땡뵤): ㉠땡뵤. ㉠땡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의 총칭. 잘 쏘는 사람.
 1. 땡뵤.
 0. 땡비 집을 건드리면 벌이 일시에 기어 나온다.
 2. 잘 쏘는 사람.
 0. 그 여자 땡비아. 건드리지 마.
땡뵤: →땡뵤.
땡뵤: →땡뵤.
땡뵤: →땡뵤.
땡잡았다: →땡잡았다.
땡초: →땡고추.
떠군진다: ㉠떠서 버린다.
 0. 진흙을 떠서 논둑에 떠군져 논둑을 바른다.
떠나가셨다(산으로 가셨다. 상세 나셨다. 청산 가셨다. 황천길 가셨다):
 ㉠가셨다. 돌아가셨다. ㉠죽었다'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
 0. 건너댁 할머니가 떠나가셨다.
떠내래간다: ㉠떠내려간다.
 0. 홍수에 돼지가 떠내래간다.
떠넌긴다(떠넌긴다): ㉠떠넌긴다.
 0. 제 잘못을 남한테 떠넌긴다.
떠넌긴다: →떠넌긴다.
떠맹긴다(떠들어맹긴다): ㉠떠다닌다.

0. 홍수가 나면 바닷가에 쓰레기가 떠뎡긴다.
 떠돌어뎡긴다: →떠뎡긴다
떠뎡긴다(떠뎡긴다): ㉠떠서 밀친다.
 0. 바윗돌을 떠뎡기며 물고기를 잡는다.
떠드레한다: ㉡떠들썩한다.
 0. 무슨 일이 있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떠드레한다.
 떠뎡긴다: →떠뎡긴다.
떠리미: ㉢떨이.
 0. 자야! 떠리미 팝니다. 싸다 싸.
떠맡긴다: ㉣떠맡긴다.
 0.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맡긴다.
떡값: ㉤뇌물.
 0. 떡값이 오고 가면 사회가 혼탁해지지.
떡대가 좋은: ㉥체격이 좋은.
 0. 떡대가 좋은 사람은 씨름 선수로 체격이다.
떡실구(떡실기): ㉦떡시루.
 0. 엄마가 떡실구에 송편을 찐다.
 떡실기: →떡실구.
떡암반: ㉧큰 나무를 넓적하게 깎아 만든 떡 빻는 판.
 0. 떡암반에다 떡을 친다.
 0. 떡암반에서 찰떡을 빻는다.
떡잎사구(떡잎파구. 떡잎파리): ㉨떡잎.
 ㉩썩이 트면 처음에 나오는 잎.
 0. 될성 싹은 작물은 떡잎사구 보면 안다.
 떡잎파구: →떡잎사구.
 떡잎파리: →떡잎사구.
떡정거리: ㉪떡전 거리. ㉫떡을 담아 놓고 파는 거리.

0. 옛날에는 여기에 떡정거리가 있었지.
떡지: ㉬떡지. ㉭상처에서 피나 고름, 진물이 나와 말라붙은 껍질.
 0. 헌데 떡지에서 고름이 나온다.
떡편기: ㉮떡을 쌓아 올리는 그릇.
 0. 떡편기에 떡을 쌓아 올린다.
편재: ㉯편저.
 0. 공을 똑바로 편재 봐.
 0. 자두 한 개 편재.
떨겁다(뜰겁다. 뚫다. 틀겁다. 뚫다):
 ㉺뚫다. ㉻떨떠름하다.
 0. 감이 아직 익지 않아 떨겁다.
떨군다(떨킨다. 떨어뜨린다. 떨룬다. 떨킨다): ㉼떨어뜨린다.
 1.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지게 한다.
 0. 공을 떨룬다.
 2. 붙었던 것을 떨어지게 한다.
 0. 밤나무를 흔들어서 밤을 떨룬다.
 3. 가졌던 것을 빠뜨려 흘린다.
 0. 연필을 그만 떨켰다.
 4. 뒤에 처지게 한다.
 0. 달리기를 하면서 앞의 아이를 떨궜다.
 5. 값을 깎아서 싸게 만든다.
 0. 흥정을 잘 해서 값을 떨켰다.
 6. 옷 등이 닳아서 못쓰게 된다.
 0. 쌀매를 자꾸 타서 옷을 떨켰다.
 7. 물건이 없어져서 뒤가 달리게 한다.
 0. 재고품까지 떨룬다.
 8. 입찰, 면접에서 거른다.
 0. 입찰에서 떨룬다.
 9. 가치, 명성, 지위 따위를 잃게 한다.
 0. 위신을 떨룬다.

10. 고개를 아래로 숙인다.
0. 그는 힘 없이 고개를 아래로 떨군다.

11. 거리가 벌어지게 한다.
0. 본체와 창고는 떨귀 짓는다.

12.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한다.
0. 두 남녀 사이를 떨귀 놓았다.

13. 정도나 수준을 낮아지게 한다.
0. 감기가 입맛을 떨군다.

떨궁이: ㉠ 좀 어수룩한 사람.
0. 으, 그 떨궁이, 좀 멍청하지.

떨귀낸다: →떨군다.

떨긴다: →떨군다.

떨떠름하다: ㉡ 떨떠름하다.
1. 뻘은 맛이 있다.
0. 감이 떨떠름하다.
2.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0. 마음이 내키지 않고 좀 떨떠름하다.

떨레난다(찌깨난다): ㉢ 쫓겨난다.
0. 직장에서 잘못하면 떨레난다.
0. 그집 며느리가 담배 피우다 떨레났대.

떨어떠린다: →떨군다.

떨쿤다: →떨군다.

떨킨다: →떨군다.

떴다: ㉣ 나타났다.
0. 야! 까마구(순경) 떴다. 통금 걸릴라.

떼가리(떼거지): ㉤ 떼거리. ㉥ 무리의
낮춤말.
0. 까마귀 떼가리가 몰려 온다.
0. 참새 떼가리가 몰려 다닌다.

떼거지: →떼가리.

떼꺼지(떼꾸지): ㉦ 떼. ㉧ 심통을 부리는
일.

0. 아이가 알사탕 사달라고 떼꺼지를
부린다.

떼꾸지: →떼꺼지.

떼끔거린다: ㉨ 따끔거린다.
0. 가시에 찔렸나? 손이 떼끔거린다.

떼말긴다(떼맡긴다): ㉩ 떠맡긴다.
0. 그 일은 그 사람한테 따로 떼말긴다.

떼맡긴다: →떼말긴다.

떼보: ㉪ 떼쟁이. ㉫ 떼를 잘 쓰는 아이.
0. 가 떼보야 건드리지 마.

떼킨다(띠킨다): ㉬ 떼인다. ㉭ 빌려 준
것을 받을 수 없게 된다.

0. 계수가 도망가는 바람에 깃돈을 몽땅
떼켰다.

뎨마: ㉮ 나무로 만든 작은 배 무동력선.
0. 뎨마로 해녀를 실어나른다.

또갑질: ㉯ 도깨비 질. 종잡을 수 없이
변하는 짓.

0. 이랬다 저랬다 또갑질이야.

또개비: ㉺ 도개비.
0. 비오는 달밤에 또개비 불 본 사람
있나?

또개비 방망이: ㉻ 도개비 방망이.
0. 또개비 방망이 나왔다. 금 나와라
뚝딱.

또개비시장: ㉼ 도개비시장. 새벽에 잠깐
섰다가 사라지는 시장.

0. 또개비시장 물건은 싸대.

또개비 오줌: ㉽ 술의 은어.
0. 또개비 오줌 먹었다. 또개비처럼 놀게.

또랑: ㉾ 도랑. ㉿ 폭이 좁은 작은 개울.
0. 또랑 치고 가재 잡고.(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0. 또랑에 든 소(도랑 양쪽 둑 풀을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풍족한 형편에 놓인 사람을 일컫는 말)

또릿또릿하다: ㉞또렷또렷하다.

0. 돌 지난 아이가 어찌나 또릿또릿한지.

또바리: →파바리.

또아리: →파바리.

똑갑질: ㉸도깨비처럼 현란하게 구는 사람.

0. 똑갑질만 치지 말고 한 구멍을 파봐.

똑대기(똑때기): ㉞똑똑히. 똑똑하게.

0. 공부 똑대기 해야 한다.

0. 또박또박 똑대기 말해 봐.

똑때기: →똑대기.

똑바루: ㉞똑바로.

1.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곧게.

0. 자세를 똑바루 가져야 한다.

2. 틀림없이 바른대로.

0. 일은 똑바루 배워야 한다.

똑붙어지게(똑소리나게): ㉞확실하게.

0. 그 사람은 일을 똑붙어지게 한다.

똑소리나게: →똑붙어지게.

똥중: ㉞똥중. ㉸중 아닌 중을 낮추어 부르는 방.

0. 중이 되더라도 똥중은 되지 말아야지.

똥간나: ㉸지저분한 여자 아이.

0. 이 똥간나, 저리 비켜.

똥간 뒤진다: →똥간 뒤진다.

똥갈보: ㉞창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

0. 똥갈보는 술집에서 사나?

똥같은소리: →개같은소리.

똥개: ㉸몸을 마구 주는 여자.

0. 저 여자, 똥개래.

똥개망개: ㉞천방지축. ㉸마구 날뛰는 일.

0. 똥개망개 놀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 봐.

똥개 훈련시킨다: ㉸길들인다.

0. 똥개 훈련시키나? 같은 걸 되풀이 시키게.

똥건방: ㉞시건방. ㉸분수에 맞지 않게 뽐냄.

0. 저 애는 똥건방이 들어 버릇이 없다.

똥고집: ㉞옹고집. 외고집.

0. 똥고집 피우지 말고 잘 들어.

똥구녕(똥구영. 똥꼬. 미꾸녕. 미꾸영.

밀구녕. 밀구영. 밀굼): ㉞똥구녕.

0. 똥구녕을 잘 닦아야 한다.

똥구영: →똥구녕.

똥그라하다: ㉞똥그랗다.

0. 얼굴이 똥그라한게 참 예쁘다.

똥꼬: →똥구녕.

똥끗발: ㉸막 나오는 꾀발.

0. 똥끗발 나오러들면 감당을 못해.

똥댕가리: ㉸하찮은 일.

0. 똥댕가리같이. 그 일은 안 해.

똥독: ㉸옛날에는 채소를 인분으로

키웠는데 여기에 기생충이 오염되어 사람이 스치면 이에 해를 입는 일이 있었음.

0. 똥독이 오르면 피부가 붓고 몹시 가렵다.

똥됐다: ㉞망가졌다.

0. 이번 장사엔 똥됐다.

똥따하다(똥땅하다. 똥따하다.

똥땅하다): ㉠똥똥하다. 똥똥하다.

1.살이 찢 모양.

0.사람 생긴새가 똥따하다.

2.팽창되어 부피가 큰 모양.

0.풍선에 바람을 넣으니 똥따해진다.

똥똥개: ㉠화장지.

0.종이 버리지 마라. 똥똥개 하게.

똥땅하다: →똥따하다.

똥똥놈(똥똥놈. 똥똥놈): ㉠음흉하고

인색한 사람을 빗대어하는 말.

0.이 똥똥놈 같은 사람아. 돈 좀 쓰면서 살아라.

똥똥놈: →똥똥놈.

똥똥놈: →똥똥놈.

똥똥간: →똥간.

똥방대이: →궁뎅이.

똥뻘난다: ㉠뻘난다.

0.똥뻘나게 굴지말고 우리와 같이 해.

똥뻘쟁: ㉠헛배쟁.

0.똥뻘쟁 부러 봤자 헛일이야.

똥벼락(똥벼락): ㉠똥감태기. ㉡똥을

뒤집어 쓴 모습.

0.잘못하다 똥벼락 맞는다.

똥벼락: →똥벼락.

똥살: ㉠군살.

0.똥 먹고 그렇게 똥살이 붙었나?

똥심: ㉡똥심을 낮추어 부르는 말.

0.밥 많이 먹어야 똥심이 나오지.

똥오줌 못가린다: ㉡사리 분별을 못한다.

0.그 사람은 똥오줌을 못가린다.(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말)

똥을 밟는다: ㉡똥을 밟는다.

0.아기가 똥을 싸놓고 밟고 앉았다.

똥조: ㉡지질이 나쁜 종이.

0.옛날엔 똥조로 공책을 매 썼지.

똥줄이 까졌다: ㉡흔이 났다.

0.사나운 개가 쫓아와 똥줄이 까지게 달아났다.

똥질: ㉠설사.

0.강아지가 자꾸 똥질을 한다.

똥짜바리: →궁뎅이.

똥치: ㉡창녀를 비하하는 말.

0.그 여잔 똥치야. 지저분 해.

똥칠했다: ㉠망신당했다.

0.위험한 일엔 손 떼. 괜히 똥칠하지 말고.

똥침: ㉡두 손바닥을 합치어 손가락

끝으로 상대방이 항문을 찌르는 짓.

0.똥침을 맞으면 아랫배가 한참 동안 아프다.

똥폼: ㉡형편없는 모양새.

0.똥폼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

0.폼이 영 똥폼이다.

똥기복상: →개복상.

똥들배기: ㉡언덕 위의 메마른 땅.

0.똥들배기 밟이라 곡식이 잘 안 됐어.

0.똥들배기 밟에는 들깨나 심지.

똥: ㉠도. ㉡웃놀이 할 때 ‘도’를 이르는 말.

0.‘똥야!’ 남의 ‘도’를 바리는 소리.

똥놈: →되놈.

똥장: ㉠잔디.

0.요즈음은 똥장 장사가 잘 된다네.

뚜가리: ㉠뚜가리. ㉡나무로 만든 식기.
0. 물고기 매운탕을 한 뚜가리 먹었더니
속이 시원하다.

뚜거리: ㉠꼭저구. ㉡망둥어과의 주연성
어류로 몸의 바탕은 황갈색임.
0. 냇가에 뚜거리 잡으러 가세.
0. 뚜거리탕은 구수해서 좋다.

뚜거리탕: ㉡꼭저구로 만든 탕.
0. 양양의 뚜거리탕은 유명하지.
0. 뚜거리탕 잘 하는 집이 어디 있어?

**뚜겁다(뚜굽다. 뚜급다. 뜨굽다.
뜨급다):** ㉠뜨겁다.
0. 냄비가 뚜겁다. 만지지 말아.
0. 국이 뚜거워. 조심해 먹어.

뚜굽다: →뚜겁다.

뚜급다: →뚜겁다

뚜꺼비(뚜께비): ㉠뚜꺼비. ㉡뚜꺼빗과의
양서류.
0. 뚜꺼비 같은 손자나 봤으면 좋겠네.
(튼튼한 손자를 보고 싶다는 말)
0. 뚜꺼비 파리 잡아 먹듯 한다.(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너름널름 받아
먹는 모양을 이르는 말)

뚜겁다(뚜굽다): ㉠뚜겁다.

1. 두께가 두툼하다.
0. 책 두께가 뚜겁다.
2. 집단의 규모가 크다.
0. 독서층이 뚜겁다.
3. 어둡이나 안개가 짙다.
0. 땅거미가 뚜겁게 내려앉았다.

뚜께비: →뚜꺼비.

뚜경: →따까리.

뚜꿍다: →뚜겁다.

뚜돌긴다: →두돌긴다.

뚜드레: →두드레.

뚜딜미: ㉠뚜드리며.

0. 아줌마들이 냇가에서 발래를 뚜딜미
얘기한다.

뚜렁: ㉠뚜렁. ㉡논이나 밭의 가장자리에
작게 쌓은 둑.
0. 논뚜렁에 쥐구멍 있을까. 찬찬히
살핀다.

뚜레박(뜨레박): ㉠뚜레박.

0. 뚜레박 줄이 닳았다.

뚝(뚝방): ㉠뚝.

1. 홍수 예방이나 저수를 목적으로 둘레를
높이 쌓은 언덕
0. 뚝을 높이 쌓는다.
0. 홍수에 뚝이 무너진다.
2. 높은 길을 내려고 쌓은 언덕.
0. 강뚝에는 시원한 바람이 분다.

뚝밤: ㉡손가락으로 이마를 톡 치는
가벼운 별.
0. 뚝밤 한 대 맞아!
0. 우리 뚝밤 맞기 놀이 할래?

뚝방: →뚝.

뚝저구: ㉠뚝중개. ㉡방둥어과의 주연성
어류로 몸 빛깔은 검은색을 띤.

0. 돌 밑의 뚝저구 낚는 재미도 쏠쏠하지.

뚝바라(뚝버라): ㉠뚝어라.

1. 구멍을 낸다.
0. 단추 구멍을 크게 뚝바라.
2. 막힌 곳을 통하게 한다.
0. 하수도 구멍을 뚝바라.

3. 장애물을 해친다.
 0.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 봐.

4. 해결할 길을 찾아낸다.
 0. 물품 판로를 돌파라.

5. 마음이나 미래를 예측한다.
 0. 사람 마음을 돌파 본다.

뜰바라: →뜰바라.

똥덩이(똥뎡이): ㉞똥뎡이.
 0. 자꾸 먹었더니 똥덩이가 되나보다.

똥따하다: →똥따하다.

똥단지: ㉸1. 똥똥한 단지. 2. 엉뚱한 소리.
 1. 똥똥한 단지.
 0. 똥단지 감자가 똥똥하고 크다.
 2. 엉뚱한 소리,
 0. 똥단지 같이 그 짓은 왜 하니.

똥땅하다: →똥따하다.

똥뎡이: →똥뎡이.

똥기복상: →개복상.

똥돌긴다: →두들긴다.

똥딜긴다: →두들긴다.

똥다: ㉞똥다.
 0. 장기를 똥다.
 0. 바둑을 똥다.

뜨겁다: →뚜겁다.

뜨급다: →뚜겁다.

뜨덕국: ㉞수제비. ㉸밀가루 반죽을 뜯어
 넣고 끓인 국.
 0. 뜨덕국도 구수한 게 좋지.

뜨뜨하다: →따따하다.

뜨락(뜨럭): ㉸문 앞에 쌓아 올린 단.
 0. 비온다. 명석 말아 뜨락에 올려놔라.

뜨락: →뜨락

뜨레박: →뚜레박.

뜨막하게: ㉸마음이 뜨게.
 0. 요즈음 뜨막하게 대했더니 집에 잘 안
 와.

뜨막하다: ㉸뜨물게 있는 모양.
 0. 처갓집에 뻘질나게 다니더니 요즈음은
 좀 뜨막하다.

뜨미(띠미, 띃물): ㉞진딧물.
 ㉸진딧물과의 곤충.
 0. 오이에 뜨미 끼었다. 농약을 쳐야겠다.
 0. 사과나무에도 뜨미가 끼어 살충제를
 쳤다.

뜨순다: →테핀다.

뜨시다: →따따하다.

뜨물: ㉸쌀 씻은 물.
 0. 뜨물은 소 여물에 넣어라.

뜰겁다: →떨겁다.

뜸다: →떨겁다.

뜸복장: →듬복장.

뜻백게: ㉞뜻밖에.
 0. 뜻백게 낫선 손님이 찾아 왔다.

띠꿈한다: ㉞뜨꿈한다. ㉸양심에 질리는
 모습.
 0. 잘못을 지적하니 마음이 띃꿈한다.

띠꿈거린다: ㉸따꿈거린다.
 0. 가시에 찢린 게 자꾸 띃꿈거린다.

띠동갑내기: ㉸동갑 띃. 같은 띃. 열두살
 차이 나는 사람.
 0. 자네와 나는 열두살 띃동갑내기네.

띠먹는다: ㉞떼먹는다.
 0. 돈을 띃먹었다.
 0. 떡을 띃먹었다.

띠미: →뜨미.

띠민다: ㉸띠민다. 떼민다.

0. 언덕길에 짐수레를 힘껏 띠민다.

띠어: ㉸뛰어.

0. 줌 띠어와 봐.

0. 빠르게 띠어 봐.

띠킨다: →떼킨다.

띠킨다: ㉸뜨인다.

0. 왜 잘 못된 것만 눈에 띠킨다.

띰다: ㉸띰다.

0. 바지에 붙은 밥풀을 띰다.

0. 철 지난 벽보를 띰다.

띰물: →뜨미.

띰하다: ㉸1. 머리가 아프다. 2. 상처가 덧난다.

1. 머리가 아프다.

0. 감기가 올라나 왜 머리가 띰하다.

2. 상처가 덧난다.

0. 상처가 덧날라나. 왜 자꾸 띰하다.

0. 장에 갈라다 말았다.

0. 그 일을 할라다 그만 뒀다.

~라미: ㉸~라며.

0. 그 일을 하라미.

0. 김을 매라미.

0. 나무 하라미.

~라오?: ㉸~럽니까?

0. 내일 또 올라오?

0. 그 일을 마주 할라오?

~란가?: ㉸~라느냐?

0. 일을 할란가?

0. 집에 갈란가?

~래미: ㉸아들. 딸을 귀엽게 부르려고 붙이는 말.

0. 아들래미가 잘 생겼네.

0. 딸래미가 예쁘군.

~래서: ㉸~라서.

0. 너는 집이 여기래서 좋겠다.

~래요(~래유): ㉸~랍니다. .

0. 빨리 오래요.

0. 이걸 햇감자래요.

0. 그럼 그렇게 하래요.

~래유: →~래요.

~러: ㉸~라.

0. 그 것도 잘 몰러.

~러구만: ㉸~로구만.

0. 누군가 했더니 자네러구만.

~르: ㉸~를.

0. 누구르 오라고.

0. 나르 오라고?

~라나?: ㉸~려나?

0. 나무하러 갈라나?

0. 발 매러 갈라나?

~라다: ㉸~려다.



마(마아): ㉠모아.

0.바람에 흩어진 깃단을 한데 마.

마가리: ㉠오막살이. 오두막. ㉡작고 낮은 초가집.

0.마가리 하나 꾸리고 살 능력이 되나?

마갈: ㉡골짜기 끝.

0.산골 마갈에 논 한 마지기 있지.

마고: ㉠말고.

0.그날 오지 마고 다음날 와.

마구간: ㉠마구간. 외양간. ㉡말을 기르는 곳인데 흔히 소를 기름.

0.마구간에 쇠똥 쳐내라.

0.마구간은 깨끗해야 한다.

마구다지(마구잡이): ㉠마구잡이.

0.그 사람 마구다지로 일을 해.

마구잡이: →마구다지.

마구할머이(마구할멈): ㉡옛날 전설 속에 나오는 할머니.

0.옛날엔 마구할머이 귀신 얘기가 많았지.

마구할멈: →마구할머이.

마굿섬(마굿짚): ㉡마구간에 끼는 깔개.

0.마구간에 마굿섬을 깔아준다.

마굿짚: →마굿섬 .

마금: ㉠마감.

0.오늘 영업 마금 했습니다.

마까?: ㉠말까?

0.그 일을 할까? 마까?

마꾼다: ㉠맞춘다.

0.학생 교복을 마꾼다.

마논: ㉡모아 놓은.

0.마논 돈이 있어야 학교 보내지.

마누래: ㉠마누라.

0.아들하고 마누래 자랑 하는 거 팔불출 이래.

마눌: ㉠마늘.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 갖은 양념에 사용된다.

0.올해 마늘이 잘 되었다.

0.마늘을 깎더니 눈이 시겁다.

마늘쫑(마늘쫑): ㉠마늘쫑.

0.마늘쫑을 뽑아서 장아찌를 담는다.

마늘쫑; →마늘쫑.

마다: ㉠모아다.

0.흩어진 벼단을 모두 마다 놓아라.

마당바야: ㉡원동기 방아.

0.마당바야를 차려 놓고 벼를 찧는다.

마당 송년: ㉠마당 흥년.

0.벼 죽정이가 많아 마당 송년 들었다.

마당심: ㉡무더기 산삼.

0.뒷집 삼마니가 마당심을 발견해서 부자 가 된다.

마댕이(마딩이): ㉠마당질. 바심질. 타작.

㉡곡식의 이삭을 털어 거두는 일.

0.비오기 전에 조 마댕이를 잘 했다.

0.벼마댕이는 날씨를 봐가면서 해야겠다.

마도: ㉠모아도.

0.흩어진 깃단을 마도마도 끝이 없네.

마두: ㉠마디. ㉡줄기에 가지나 잎이 나는

부분.

0.마두에 용이라.(일이 한꺼번에
일어남을 이르는 말)

마들가지: ㉠마들가리. ㉡실 등이 엉켜
맺힌 자리.

0.실이 마들가지에 걸려 잘 안 나온다.

마들다: ㉠마디다. ㉡잘 없어지지 않는다.

0.애쓰고 번 돈이라야 마들지.

마덩이: →마덩이

마딱드린다: ㉠마주친다.

0.모퉁이를 돌다가 옛친구와 마딱드렸다.

마루테기(말기): ㉠마루터기. ㉡산마루,
용마루의 두드러진 턱.

1.산마루.

0.저 마루테기에 올라가 쉬어가자.

2.용마루.

0.초가집 마루테기를 마주 덮는다.

마롭다(마릅다): ㉠마렵다. ㉡대소변이
나오려는 느낌이 있다.

0.오줌이 몹시 마롭다.

마룽: ㉠마루. ㉡방 안이나 밖의 바닥에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0.마룽에 걸쳐 앉았다.

0.여름에 마룽은 시원해서 좋다.

마른간: ㉠마른반찬. ㉡물기 없이 만든
반찬.

0.도시락엔 마른간을 넣는다.

마른벌이: ㉠노름판. ㉡놀음을 벌이는
자리.

0.오늘 마른벌이 한 판 벌이세.

마른병개: ㉠마른병개. ㉡맑은 하늘에서
치는 번개.

0.청청 하늘에서 마른병개가 치네.

마른 쥐정: ㉠생쥐정. 술이 안 취한
상태에서 하는 쥐정,

0.마른 쥐정 하지 마. 멧쩍어,

마른지침: ㉠마른기침. ㉡가래가 나오지
않는 기침.

0.마른지침이 자꾸 나와.

마롭다: →마롭다.

마빠구(이마패기): ㉠이마. 이마빼기.

㉡얼굴의 눈썹 위부터 머리털 난
데까지의 부분.

0.마빠구 피도 안 마른 놈이 까불어.
(몹시 어린 놈이 까분다는 말)

0.마빠구가 까졌다.(염치없는 짓을
잘한다는 말)

마빠구 벗겨졌다(이마빼기 벗겨졌다):

㉠공짜를 좋아한다.

0.마빠구 벗겨진 걸 보니 공짜 좋아하
겠군.

마새(마새질): ㉠말쌩. ㉡트집이나
문젯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

0.애가 마새를 일으켰다.

0.소가 마새를 부린다.

마새질: →마새.

마세: ㉠마시게.

0.어려워 말고 어서 마세.

마수구리: ㉠마수걸이.

0.똥! 오늘 마수구리가 좋다.

마수와(마습다): ㉠맛있다.

0.가자미 구워놓은 것이 무척 마수와.

0.아주머니가 주신 찰떡이 마수와.

마습다: →마수와.

마슬(마실): ㉠마을.

- 1.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 0. 어린적에 한 마슬에 같이 살았다.
- 2. 이웃에 놀러다니는 일.
 - 0. 마슬에 간다. (이웃에 놀러 간다)

마실: →마슬.

마야: →마.

마웃: ㉠인분. 분노. ㉡똥오줌.

- 0. 마웃으로 채소를 가꾸니 기생충이 많았다.

마은: ㉠마흔. ㉡열의 네배가 되는 수.

- 0. 내 나이 마은 살, 불혹(不惑)이라.
 - 0. 흔들 려선 안되지.

마음고상(매음고생): ㉠마음고생. ㉡마음 속으로 겪는 고생.

- 0. 그 동안 꺾은 일 겪느라고 마음고상이 컸지.
- 0. 마음고상도 다 한 때 겪는 일이야.
 - 0. 그도 지나가.

마음꺼(매음꺼): ㉠마음껏. ㉡마음에 흡족 하도록.

- 0. 소풍이다 마음껏 놀아봐.
- 0. 자두가 익었다. 마음껏 따먹어.

마음꺼: →마음껏.

마음절(매음절): ㉠마음 절. ㉡마음의 바탕. 마음 속에는.

- 0. 마음절엔 꼭 이길 것 같은데.

마이: ㉠많이. ㉡수효, 분량이나 정도가 일정 수준보다 많다.

- 0. 공부 가르치는 데 돈이 마이 들어간다.
- 0. 아직 할 일이 마이 있다.

마이(메이): ㉠모이. ㉡닭이나 날짐승의

모이.

- 0. 닭 마이 줘라.
- 0. 닭 마이를 잘 주면 알을 잘 낳지.

마인: ㉠망인. ㉡죽은 사람.

- 0. 울다가 마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냐?
 - (일을 하다가 무슨 일어나고 물어보는 격)

마장: ㉠소를 매어두는 곳.

- 0. 마장에 소 내다 매어라.
- 0. 마장에서 송아지가 뛰어논다.

마재: ㉠맞아.

- 0. 그 말이 마재.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주: ㉠마저. ㉡남김없이 모두.

- 0. 이거 마주 가져 가.

마주막(마즈막): ㉠마지막. ㉡일의 순서나 시간에서 맨 끝.

- 0. 마주막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해.

마즈막; →마주막.

마지게 크다(매지게 크다. 짜들어 크다): ㉡잘 크지 않고 느리게 크다.

- 0. 돼기밭이라서 콩이 마지게 크다.

마지모해: ㉡마지 못해.

- 0. 장사하는 데 마지모해 따라갔더니 수입이 괜찮네.

마짱: ㉠마작. ㉡중국에서 건너온 내기 놀이.

- 0. 오늘 마짱 한판 하지.

마짱하다: ㉠묵직하다.

- 0. 보따리 짐이 꽤 마짱하다.

마참(마춤): ㉠마침.

- 0. 마참 잘 왔네. 그렇지 않아도 만나려고 했는데.

마체: ㉠마쳐.

0.오늘 일은 이제 그만하고 이것으로 마체.

마춤: →마춤.

마치말다: ㉠마침맞다. ㉡어떤 경우나 기회 에 알맞다.

0.어서 오너라. 마치말게 잘 왔다.

0.말뚝 길이를 마치말게 잘라라.

마카(마강. 마커. 마경. 마크. 말강.

말경): ㉠모두.

0.남기지 말고 마카 먹어라.

마강: →마카.

마커: →마카.

마경: →마카.

마크: →마카.

마들거린다(머들거린다): ㉡걸린다.

거치적거린다.

0.운동화에 모래가 들어가 마들거린다.

0.일하는 것마다 마들거리며 잘 안된다.

마한 놈: ㉡나쁜 놈.

0.마한 놈 같으니라고, 그 짓은 왜 해.

마했다: ㉠망했다.

0.이번 장시는 그만 마했다.

막개든다: ㉠막 대든다. ㉡맞서서 달려든다.

0.개가 짖으면서 막개든다.

막나니(후래새끼. 후래아들. 후래자식.

후래자식): ㉠호래자식. 호래아들.

㉡막돼먹은 자식.

0.자식이라야 막나니 하나 두고 살아가네.

막냉이: ㉠막내. ㉡형제 자매 가운데

마지막에 낳은 아이.

0.그 앤 막냉이라서 제멋대로 키웠더니

버릇이 좀 없어.

막니: ㉠사랑니. ㉡마지막에 나는 작은 어금니.

0.막니가 나느라고 입안이 아파.

0.막니는 뽑는 게 좋대.

막덩이(막디기): ㉠막대기. ㉡가늘고 기름한 나무나 대나무의 토막.

0.막덩이 들고 소를 몰아라. 그러면 소가 말을 잘 듣는다.

막디기: →막덩이.

막바루: →곧바루.

만고강산이다(망고강산이다. 만고 땡이다):

㉡그만이다.

0.배 부르고 등 뜨시면 만고강산이지며.

만고 땡이다: →만고강산이다.

만고태평이다: ㉡근심 걱정이 없다.

세상에 편하다.

0.그 사람 요즘 퇴직하고 만고태평이다.

만낸다: ㉠만난다.

1.만나게 된다.

0.둘이 서로 좋아 자꾸 만낸다.

2.비, 눈, 바람 따위를 맞게 된다.

0.소나기를 만낸다.

3.마주보게 된다.

0.만내자 이별이다.(서로 만나자 헤어짐을 말함)

4.어떤 때나 일을 맞는다.

0.좋은 세월을 만낸다.

5.인연으로 관계를 맺는다.

0.남편을 잘 만난 여자다.

6.선, 길, 강 따위가 서로 닿는다.

0.강이 서로 만내는 곳이다.

만땡이: ㉠가득. 가득. 그득.

- 0.배가 만땡이 찼어.
- 0.잔에 술을 만땡이 채워.

만리장성을 쌓는다: ㉠동침을 한다.

- 0.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만반지수: ㉠만반진수. ㉡상위에 가득한

- 귀하고 맛있는 음식.
- 0.상 위에 만반지수 차려 놓고 임 을 땡기다린다.

만전: ㉠만장.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 지은 글의 깃발.
- 0.그 할아버지 장례 때 만전이 삼십장이나 섰대.

만제끼린다(만져끼린다): ㉠만진다.

- 1.여기저기 손을 대어 주무르거나 쥘다.
- 0.할머니께서 고추를 만제끼린다.
- 2.다루거나 손질한다.
- 0.언니가 머리를 만제끼린다.
- 3.어떤 물건이나 돈 따위를 주무른다.
- 0.아버지께서 돈다발을 만제끼린다.

만져끼린다: →만제끼린다.

만침(망큼. 맨치): ㉠만큼. 만치.

- 1.앞 말과 거의 같은 수량이나 정도. 또는 실컷의 뜻.
- 0.배부를 만침 먹었다.
- 2.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뜻하는 말.
- 0.너에게서 받은 만침 돌려준다.

말가웃(말가웃): ㉡한 말하고 반가량의 분량.

- 0.쌀이 한 말가웃 되네. 그냥 갖다 먹게.

말가웃: →말가웃.

말괄냉이: ㉠말괄량이. ㉡말이나 행동이 덜렁거리는 여자.

- 0.으, 그 말과냉이 여자 말이여?

말구부치(말꾸부치): ㉠말귀. ㉡말의 뜻.

- 0.그 앤 말 구부치를 잘 못 알아 들어.
- 0.말구부치나 알아 듣고 하는 얘기여?

말기: →마루테기.

말꼬랭이: ㉠말꼬리. 말끝.

- 0.말꼬랭이 자꾸 잡지 마. 버릇된다.

말꼬지: ㉠말뚝. ㉡땅에 두드려 박는 기둥이나 몽둥이. 끝이 뾰족하다.

- 0.말꼬지에 소를 매어라.
- 0.논두렁에 말꼬지를 박자. 논둑이 쳐지지 않게.

말꼬타리(말꼬투렝이): ㉠말꼬투리.

- ㉡어떤 일이 생기게 된 말의 동기.
- 0.그 말꼬타리에 의미가 있어.

말꼬투렝이: →말꼬타리

말꾸부치: →말구부치.

말도리: ㉡마을에 놀러 나가는 것.

- 0.할머니께서 말도리 나가셨다.

말두모해: ㉠말도 못해. ㉡말도 못할

- 정도로 엄청나다.
- 0.비가 와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말두모해.

말뚝박았다(말뚝박았다): ㉡그 직에 머물렀다.

- 0.군대 가서 말뚝 박고 장기근무 한 대.

말따구: ㉠말 따위.

- 0.말따구 하고는 참.
- 0.무슨 말따구가 그래?

말뚝동서: →구멍동서.

말뚝동세: →구멍동서.

말뚝박았다: →말뚝박았다.

말래: ㉠말래.

- 1. 젖은 것을 마르게 한다.
- 0. 빨래를 빨래줄에다 걸어 말래.
- 2. 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 0.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래.
- 3. 퍼졌던 물건이 둘둘 감긴다.
- 0. 퍼 놓은 종이 가 자꾸 말래.

말래든다: ㉠말래든다.

- 1. 종이가 말린다.
- 0. 종이가 짜꾸 말래든다.
- 2. 어떤 일에 휩쓸린다.
- 0. 엉뚱한 일에 말래들었다.

말량: ㉠언덕 꼭대기.

- 0. 말량에 있는 밭은 가물이 잘 든다.

말른다: ㉠마른다.

- 0. 햇볕에 빨래가 잘 말른다.

말마따나: ㉠말처럼.

- 0. 그애 말마따나 그건 그렇지.

말뻘다구(말뻘다구): ㉠말뻘. ㉠성질이

- 온순 하지 않고 뻘뻘뻘한 사람,
- 0. 그 사람 성질이 뻘뻘뻘한 게 말뻘다 구 같애.

말뻘다구: →말뻘다구.

말싸움: ㉠말다툼. ㉠말로 옳고 그름을

- 가리는 다툼.
- 0. 말싸움하다 진짜 싸움할라.

말쌈(말쌈): ㉠말쌈.

- 1. 남의 말의 높임말.
- 0. 한 말쌈 하시지요.
- 2. 자기 말의 낮춤 말.

- 0. 말쌈 드리기 죄송합니다.

말쌈: →말쌈.

말아먹었다: ㉠망가졌다. 잘못됐다.

- 0. 이번 장사는 말아먹었다.

~말어: ㉠~말어

- 0. 가지 말어. 0. 먹지 말어.
- 0. 놀지 말어. 0. 하지 말어.

말장하다(말정하다): ㉠말짱하다.

말정하다.

- 1. 흠이 없고 온전하다.
- 0. 말장한 물건을 버렸구나.
- 2. 정신이 맑고 또렷하다.
- 0. 술에 취했어도 정신은 말정하다.
- 3. 속셈이 있고 약속바르다.
- 0. 피가 말정하다.
- 4. 전혀 터무니 없다.
- 0. 말장한 거짓말일세.

말질: ㉠마질. ㉠말을 퍼뜨려 말썹을

- 일으키는 일.
- 0. 그 여자는 말질을 잘해.

말짱: ㉠모두.

- 0. 말짱 이리와 봐.
- 0. 인심을 잃으면 말짱 헛일이야.

말짱 도루묵(말짱 도루묵): ㉠모두 헛 일.

- 0. 이번 일은 말짱 도루묵이야.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말챙건: ㉠말참견. ㉠남의 말에 끼어들어

- 말하는 것.
- 0. 말챙건 하지 말고 저리 비켜.

말치: ㉠도롱이. ㉠짚이나 바다말 따위로

- 엮은 우장.
- 0. 아버지께서 말치를 걸치고 논김을

매신다.
 말강: →마카.
 말강: →마카.
말코 같다: ㉠보기 싫다.
 0.보기 싫게 말코 같은 소리 하지 마.
말판: ㉠끝의 형국.
 0.제대 말판에 사고쳤지머야.
말하자문: ㉠말하자면.
 0.말하자문 그렇단 애길새.
맛디린다: ㉠맛을 들인다.
 0.자꾸 먹으면 맛디린다.
맛뵈기: ㉠맛보기. ㉠맛보는 음식.
 0.이것은 맛뵈기로 차린 거야.
맛이 갔다: ㉠맛이 변했다.
 0.호박 반찬이 맛이 갔다.
맛질하다(못질하다): ㉠목적하다.
 ㉠보기보다 꽤 무겁다.
 0.단지가 꽤 맛질하다. 장이 들었나?
 0.망치가 맛질하다.
망: ㉠맷돌. ㉠곡식을 기는데 쓰는 기구.
 0.망에다 콩을 간다.
 0.망에다 갈아야 콩탕이 맛있다.
망가트린다: ㉠망가뜨린다. ㉠부수거나 망가지게 한다.
 0.쟁기 망가트릴라. 만지지 말아라.
 0.너 그거 망가트리면 아버지한테 혼난다.
 망고강산이다: →만고강산이다.
망근다: ㉠만든다.
 0.아버지께서 지계를 망그신다.
망금: ㉠망금. ㉠조금 전이나 후.
 0.이제 망금 잤어.

0.망금 여기 있었는데.
 0.망금 구워낸 빵이다.
 0.망금 일을 마쳤다.
망둥이: ㉠망둥어. ㉠망둥엇과의 바닷물고기.
 0.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러드나?
 (분수없이 남을 따라 하려는 사람을 나무라는 말)
망우리: ㉠망월 놀이. ㉠정월 대보름날 덩이 불을 휘돌리며 달맞이하는 망월 놀이.
 0.망우리 하러 가자.
 0.'망우리야, 망우리야!'하며 불덩이를 휘두른다.
망칙하다: ㉠망측하다. ㉠어이가 없고 민망 하다.
 0.사돈 앞에서 춤을 추다니 망칙하다.
 망큼: →만침.
망통(망통): ㉠뿔. 화투에서 두장 수의 합이 10이 되는 수.
 0.망통이면 내가 먹었다. 나는 뿔.(같은 수가 두장인 것)
망티기: ㉠망태. 망태기. ㉠기는 새끼나 노끈으로 엮어 걸머지게 만든 가방.
 0.아버지께서 망티기에 송이를 가득 따 오셨다.
망할(빌어먹을): ㉠잘못된 일.
 0.이런 망할, 하필 이때 소나기가 오나.
망훈다: ㉠망하게 한다.
 0.선거 하는데 돈을 대느라 살림을 망훈다.
맞꾼다: ㉠맞춘다. 주문한다.

0.아이가 군대를 제대해서 양복을 한 벌
맞꾼다.

맞다디린다: ㉠마주친다.

1.만난다.

0.모퉁이를 돌다가 사람과 맞다디린다.

2.대결한다.

0.형제가 맞다디래 언성을 높힌다.

맞센다(맞슨다): ㉠맞선다.

0.친구와 잘 지내다 공연히 맞센다.

맞슨다: →맞센다.

맞어디린다: ㉠맞아들인다.

0.손님을 반갑게 맞어디린다.

맞장뜨다: ㉠마주 겨룬다.

0.맞장뜨며 싸우면 무슨 잇속 있겠나?

맞재비로: ㉠대신에.

0.부모가 없으면 형을 부모 맞재비로
섬긴다.

맞전: ㉠물건을 살 때 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치르는 돈.

0.저 물건을 사야 되겠는데 맞전이
있어야지.

맞중이한다: ㉠서로 마주친다.

0.엄마 마중 나갔다가 삼거리에서
맞중이 했다.

맞창낸다: ㉠맞구멍 낸다.

0.끌로 나무 구멍을 파서 맞창을 냈다.

매: ㉠매 ㉠제사 때 올리는 밥.

0.매를 떠서 제사에 올린다.

매가 개벼우면 된다: ㉠매를 가볍게
치면 오히려 우습게 본다는 말.

0.길드리는 소가 말을 잘 안들어. 매가
개벼우면 된다.

매가리: ㉠힘. 맥. 기운.

0.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매가리가
없다.

매굽다: ㉠매운 연기가 난다. 매운 맛이
있다.

1.매운 연기.

0.모깃불 연기가 몹시 매굽다.

2.매운 맛.

0.고추가 몹시 매굽다.

매꼬롱하다(매끄롱하다): ㉠토라져 있다.

0.꾸중을 듣더니 매꼬롱해가지고 있잖나.

매끈진다(미끈진다): ㉠매어 던진다.

0.씨름을 하다 상대를 매끈진다.

매끄롱하다: →매꼬롱하다.

매끄럽다: ㉠매끄럽다. 미끄럽다.

0.얼음판 위라서 무척 매끄럽다.

매끄름하다(매끔하다): ㉠매끈하다.

0.옷차림이 매끄름하다

0.회초리를 매끄름하게 다듬는다.

매끔하다: →매끄름하다.

매긴다: ㉠말긴다.

1.어떤 일을 남에게 위임한다.

0.자기 일을 남에게 매긴다.

2.물건의 보관을 남에게 부탁한다.

0.짐 보따리를 잠깐 매긴다.

3.하게 내버려 둔다.

0.모든 일은 자율에 매긴다.

매냥건(매냥끈): ㉠마냥 켜. ㉠언제까지나.

0.매냥건 놀다가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래.

매냥끈: →매냥건.

매닥질: ㉠매대기.

1.반죽이나 진흙 따위로 아무 데나
뒤바르 는 짓.

0.진흙으로 방바닥에 매닥질을 친다.

2.일이 몹시 바빠 허덕이는 것.

0.김치 하느라 하루 종일 매닥질 쳤다.

3.정신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몸짓.

0.술이 취해 매닥질 친다.

매달래: ㉞매달려.

0.남에게 너무 매달래 있지 말고 자립해
봐.

매두(매디): ㉞매디. 매듭

1.대, 갈대, 나무 따위의 줄기에 가지나
앞이 나는 부분.

0.매두에 웅이다.(힘든 일이 겹친다는 말)

2.뼈끼리 맞닿는 부분.

0.뼈매두가 쭈신다.

3.새끼, 실 따위가 엉키어 맺힌 곳.

0.바느질 실끝을 매두지게 해라. 빠지지
않게.

매디: →매두.

매래치(멜치. 머르치): ㉞멜치. ㉠멜치과의
바닷물고기. 젓갈, 조림 등을 만들.

0.매래치 젓을 김장김치에 넣는다.

매랜없다(매랜두없다. 매랜지사없다):

㉞형편없다. ㉠일의 경과, 결과 따위가
매우 좋지 못하다.

0.그 집 아들 살림살이는 매랜없다.

0.매랜없던 사람이 이젠 사람 됐어.

매랜두없다: →매랜없다.

매랜지사없다: →매랜없다.

매랜한다: ㉞마련한다.

0.언니가 시집 가는데 가져갈 살림 그릇

을 매랜한다.

매렵다(매릅다. 매릅다): ㉞마렵다.

0.오줌이 매렵다.

매릅다: →매렵다.

매릅다: →매렵다.

매마르다(매말르다): ㉠거름기도 없고
물기도 없다.

0.언덕배기 받이 몹시 매마르다.

매말르다: →매마르다.

매미 몽상: ㉠매미의 탈바꿈.

0.매미 몽상 벗었다.(매미가 탈바꿈
하였다)

매습다: ㉞매섭다.

1.날씨가 차다.

0.날씨가 매습다. 단단히 차려 입고
나가야겠다.

2.성질이 날카롭다.

0.눈초리가 매습다.

매시쫄다(매시쫄다): ㉞매스겁다.

1.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다.

0.체했나? 속이 왜 매시쫄다.

2.비위에 거슬리고 아니쫄다.

0.거들먹거리는 꼴이 정말 매시쫄다.

매시쫄다: →매시쫄다.

매식거린다: ㉞매숙거린다. ㉠매스꺼운
그낌이 난다.

0.체했나? 속이 자꾸 매식거린다.

~매야로: ㉞~처럼.

0.아버지매야로 너도 목수 일을 배워라.

매양: ㉞모양.

0.네 매양으로 돈을 막 쓰면 나중에
거덜난다.

매우하다: ㉸매운기가 있다.
 0.담배를 피우면 방안이 매우하다.
매음고생: →마음고상.
매음절: →마음절.
~매이: ㉸~모양새.
 0.그 사람은 그럴매이가 못돼.
매지게 크다: →마지게 크다
매지그네하다(미지그네하다):
 ㉸매지근하다. 미지근하다. ㉸더운기가 있다.
 0.방이 이제 좀 매지그네하다.
매출하다(매출하다): ㉸가늘고 매끈하다.
 0.회초리가 매출하다.
 0.사람이 매출하게 생겼어.
매출하다: →매출하다.
매케(미케): ㉸(김을)매게 해.
 0.감자밭 김은 일꾼한테 매케.
매케 있다: ㉸매여있다.
 0.저 사람은 직장에 매케 있으니 어쩔 수 없고.
매케하다: ㉸그슬음 냄새가 난다.
 0.부엌 야궁이 냄새가 매케하다.
매코: ㉸매부리코. ㉸매부리같이 끝이 뾰족 하게 내리 숙은 코.
 0.그 집 아저씨는 매코야.
매한가지다: ㉸같다.
 0.둘러치나 매치나 매한가지다.
매헨타(매했다): ㉸나쁘다. 좋지 않다.
 0.치마를 짧게 입으면 남 보기에 매헨타.
매했다: →매헨타.
맥 개: ㉸몇 개. ㉸확실하지 않거나 그리

많지 않은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말.
 0.밤을 맥 개 주웠나?
 0.감자를 맥 개 깎아라.
맥난다: ㉸맥 빠진다.
 0.하루 종일 일했더니 이제 맥난다.
맥땀: ㉸식은땀. ㉸몸이 쇠약하여 병적으로 나는 땀.
 0.요즈음은 맥땀이 자꾸 나와.
맥사가리(맥살. 맥새가리): ㉸매가리. 맥. 기운.
 0.맥사가리가 없어 밥을 못 먹겠네.
 0.힘든 일 하느라 맥사가리 다 빠졌네.
맥살: →맥사가리.
맥새가리: →맥사가리.
맥이난다: ㉸힘이 빠진다. 싫증이 난다.
 0.온종일 일했더니 이제 맥이난다.
맥주병이다: ㉸수영을 못한다.
 0.난 맥주병이야. 깊은 물에 못 들어가.
맥힌다: ㉸막힌다. 1.구멍이 막힌다.
 2.기가 막힌다.
 1.구멍이 막힌다
 0.굴뚝이 그슬음에 맥힌다.
 2.기가 막힌다.
 0.숨이 맥힌다.
맨강변: ㉸맨 강변. 빈 강변.
 0.맨강변에 천막을 치고 천렵을 한다.
맨경(민경. 색경. 체경): ㉸거울.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보는 물건.
 0.맨경이 조그만 하다.
 0.언니는 작은 맨경으로 얼굴을 본다.
맨날: ㉸만날.
 0.맨날 땡그렁 땡이야.(살림이 넉넉하여

만사에 걱정이 없음)

~맨다: ㉠~긴다.

0. 쥐는 고양이만 보면 설설 맨다.

0. 너는 왜 그 사람만 보면 찢찢 매니?

맨다지: ㉡맨. 빈. 매나니. ㉢침가가 없는.

0. 맨다지 밥만 먹는다.

0. 맨다지 손으로 물고기를 잡겠어?

맨도: ㉣면도.

0. 아버지께서 매일 맨도로 수염을 깎으신다.

맨두: ㉤만두.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소를 넣고 빚어서 삼거나 찌거나 기름에 지져 만든 음식.

0. 맨두를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

0. 북 맨두(큰만두)는 누구한테 돌아갔나?

맨드래미: ㉦맨드래미. ㉧비름과의 한해살이 풀. 꽃은 닭의 볏 모양임.

0. 장독대에 맨드래미 꽃이 예쁘게 피었다.

맨든다(맹근다. 맹긴다): ㉨만든다.

1. 기술과 힘을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룬다.

0. 아버지가 지계를 맨든다.

2. 규칙이나 법, 제도 따위를 정한다.

0. 규칙을 맨든다.

3. 모임, 단체 따위를 조직한다.

0. 계를 맨든다.

4. 허물 상처 등을 생기게 한다.

0. 가시를 꺾다 흠집을 맨든다.

5. 돈을 마련한다.

0. 소 팔아서 등록금을 맨든다.

6. 틈, 시간 등을 짜낸다.

0. 기회를 맨든다.

7. 말썽을 일으키거나 꾸며낸다.

0. 일거리만 맨든다.

8. 글, 노래 등을 짓는다.

0. 시를 맨든다.

9. 무엇을 되게 한다.

0. 자식을 의대에 보내 의사로 맨든다.

10.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게 한다.

0. 일을 서두르게 맨든다.

맨몸등거리: ㉩맨 몸둥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

0. 신부가 맨몸등거리로 온다면서.

맨무식쟁이: ㉪판무식쟁이. ㉫아주 무식한 사람.

0. 6.25전쟁 무렵엔 맨무식쟁이가 많았어.

맨박: ㉬면박. ㉭면전에서 꾸짖거나 나무람.

0.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맨박을 주면 어떡해.

맨송맨송: ㉮맨송맨송.

1. 털이 없이 반반한 모양.

0. 다리에 털이 없어 맨송맨송하다.

2. 산에 나무나 풀이 없는 모양.

0. 산에 나무가 없어 맨송맨송하다.

3.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한 모양.

0. 취기가 없이 맨송맨송하다.

4. 심심하고 멧쩍은 모양.

0. 할 일이 없어 맨송맨송 논다.

맨싸덩이(맨싸둥이. 싸덩이): ㉯맨뭉.

발가숭이. ㉺발가벗은 알몸똥이.

0. 아이를 맨싸덩이로 해가지고 다니냐?

맨싸둥이: →맨싸덩이.

맨장: ㉠맨장.

0. 맨장님이 동네에 나오셨다.

맨적거린다(맨지락거린다. 맨지작

거린다): ㉠만지작거린다. ㉡가볍게 만진다.

0. 장터에서 물건을 살까말까 맨적거린다.

맨지락거린다: →맨적거린다.

맨지작거린다: →맨적거린다.

맨진다: ㉠만진다.

1. 손을 대어 주무르거나 쥘다.

0. 그거 맨지지 마. 때 묻는다.

2. 다루거나 손질한다.

0. 옷 매무새를 민진다.

3. 어떤 물건이나 돈 따위를 가진다.

0. 오랫동안 목돈을 맨진다.

4. 물건을 다룰 줄 안다.

0. 삼촌이 기타를 맨진다.

맨치: →만침.

맨갈다: ㉠말갈다.

1. 흐리지 않고 맑다.

0. 냇물이 맨갈다.

2. 국물 따위가 진하지 않고 묽다.

0. 국물이 맨갈다.

3. 정신이나 의식 따위가 또렷하다.

0. 정신이 아주 맨갈다.

맨똥맨똥하다: ㉠말똥말똥하다.

1. 눈빛이나 정신이 맑고 생기가 나는 모양.

0. 정신이 맨똥맨똥하다.

2. 눈망울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모양.

0. 남의 얼굴을 맨똥맨똥하게 쳐다본다.

맨쑥하다: ㉠말쑥하다. ㉡지저분함이 없이

말쑥하고 깨끗하다.

0. 맨쑥하게 차려 입고 장으로 간다.

맨치: →매래치.

멤: ㉠마음. ㉡속에 품은 생각.

0. 하고 안하는 건 제 멤이지며.

0. 누구 멤대로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나?

멤돌짜: ㉠멤돌. ㉡곡식을 가는데 쓰는 기구.

0.멤돌짜를 이리 가져오너라. 밀을 갈아 부침개 해 먹자.

멤건: ㉠망건.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0.멤건 쓰고 세수한다.(일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비웃는 말)

0.멤건 쓰자 과장이다.(시기를 놓쳐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말)

멤근다: →맨든다.

멤금: ㉠방금.

0.그 사람멤금 왔다 갔어.

멤긴다: →맨든다.

멤공이: ㉠둔재. ㉡둔한 사람.

0.멤공이 짓 하지 말고 잘 해봐.

멤년: ㉠명년.

0.멤년에 또 만나세.

멤물(멤물단지. 멤탕): ㉠맨 물. 멧힌 데가 없는 사람.

1. 맨 물.

0.막걸리가멤물이잖나.

2. 멧힌 데가 없는 사람.

0.그 사람멤물이야. 말할 것 없어.

멤물단지: →멤물.

멤서: ㉠멤세. ㉡약속하거나 다짐하는 것.

0.저번에 맹서 맹서 했는데 또 안 지켜?
맹송맹송하다(맹송맹송하다):

㉞맹송맹송하다. 민송민송하다.

1.털이 없어 반반한 모양.

0.다리가 털 없이 맹송맹송하다.

2.산에 나무나 풀이 없어 반반한 모양.

0.산이 풀도 나무도 없어 맹송맹송하다.

3.술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아 말짱한
모양.

0.술을 꽤 마셨는데도 맹송맹송하다.

4.일거리나 생기는 것이 없어 멧쩍은
모양.

0.할 일 없이 맹송맹송 세월만 보낸다.

맹송맹송하다: →맹송맹송하다.

맹어: ㉞망상어. ㉟망상엇과의 바닷물고기.

몸빛은 붉은 구릿빛을 띤.

0.맹어가 요즘 한참 들어온대. 바닷가
낚시하러 가세.

맹이 길다: ㉞맹이 길다.

0.맹이 길기도 하다. 아직도 안
돌아가셨 다니...

맹절: ㉞맹절.

0.맹절에는 다 모여 일가 회락의 기쁨을
갖는다.

맹주: ㉞맹주. ㉟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짠 천.

0.맹주 바지 저고리는 맹절에 입게 손질
해 둔다.

맹창: ㉞맹창.

0.소리를 잘하면 맹창이 되지.

맹추우다: ㉞강추우다.

0.이번 추우는 맹추우다. 조심해라.

맹충이: ㉞맹추. ㉟뚝뚝하지 못하고 흐리
멍당한 사람을 얹잡아 하는 말.

0.이 맹충이야. 그것도 모르니?

맹치(중치): ㉞맹치. ㉟가슴뼈 아래
한가운데의 우묵하게 들어간 곳.

0.맹치 끝은 급소다.

0.소화가 안되어 맹치끝이 늘 소복해.

맹탕: →맹물.

맹태: ㉞맹태. ㉟대구과의 바닷물고기.

0.예전엔 맹태가 많이 났었지.

0.이젠 동해안에서 맹태가 안 난대.

맹태포: ㉞북어포.

0.맹태포를 싸 가지고 벌초하러 간다.

맹판: ㉞생판. ㉟1.생소하게. 2.전연.

1.생소하게.

0.맹판 처음 겪는 일이어서 서툴러.

2.전연.

0.맹판 모르는 일이지머.

맹패: ㉞맹패.

0.우리집엔 아버지와 어머니 맹패가
나란히 걸려있다.

맹함: ㉞맹함.

0.국회의원 입후보 한 사람이 맹함을
돌린다.

맹긴다: ㉞말긴다.

0.애써 벌어들인 돈을 부모에게 맹긴다.

머: ㉞머.

0.먹을 것 머 없어?

0.사람은 머든지 잘 해야 돼.

머구리: ㉞잠수부. ㉟잠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

0.머구리 작업을 하면은 잠수병에

걸리기 쉽대.

머냐?: ㉠무엇이나? '뭐냐?'에서 온 말.
0.그게 머냐? 좀 보자.

머라: ㉠'머어라' '뭐라.'에서 온 말.
0.머라 해도 그 사람, 말 들을 사람 아니야.

머르(머를): ㉠무엇을.
0.머르 가져오라고?
0.내일은 머르 할 건데.

머를: →머르.

머리깡이: ㉠머리카락. 머리칼.
㉠머리털의 날개.
0.머리깡이가 바람에 날린다.
0.머리깡이가 떨어졌다.

머리태: ㉠머리채. ㉠길게 늘어뜨린 머리칼.
0.누나가 머리태를 빗고 있다.

머숨: ㉠머슴. ㉠농가에서 고용살이하는 남자.
0.머숨살이 삼년에 장가도 못갔다.

머스마(머시마. 머시매): ㉠사내아이.
0.이 머스마가 그래도 사내아이처럼 구네.

머시기(머시끼): ㉠무엇. 어떤.
1.무엇.
0.저 머시기 먹으러 가세. 칼국수 말이야.
2.어떤.
0.저 머시기 있잖나. 그 사람 말이야.

머시끼: →머시기.
머시마: →머스마.
머시매: →머스마.

머야(머이야): ㉠무엇이야.
0.머야 어디 좀 보자.
0.속에 든 것이 머야.

머우(멍우): ㉠머위.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
0.머우 나물 하러 가세.
0.머우 즐기 반찬이 좋지.

~머유: ㉠앞의 말을 부드럽게 높이는 말.
0.그러면 좋지머유.
0.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한다지머유.

머이: ㉠무엇이.
0.머이 그렇대?
0.머이구 머이구 다 그렇대.

머이야: →머야.

머틀거린다: →마틀거린다.

먹갈다: ㉠보잘 것 없다.
0.보리개떡은 맛이 먹갈다.
0.낮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쇠가 먹갈다.

먹거리: ㉠먹을 거리.
0.먹거리 촌에 가야 먹을 게 많지.

먹고지: ㉠단체로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쌀 따위.
0.상두 먹고지 쌀은 봉두로 된다.

먹구대학생: ㉠실업자.
0.요즘 할 일이 없어 먹구대학생 됐네.

먹구렁이: ㉠먹구렁이. 누룩뱀. ㉠뱀과의 구렁이. 등은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을 띤 가로무늬가 있음.
0.먹구렁이가 담 밑을 지나간다.

먹더거: ㉠먹다가.
0.음식 먹더거 싸리가 들렸다.

먹어비래(먹어뿌래. 먹어빼래):

㉞먹어버려.
 0.그까짓 것 눈 딱 감고 먹어버래.
 0.맛있는 것은 먼저 먹어버래.
 먹어뿌래: →먹어버래.
 먹어빠래: →먹어버래.
먹어 조진다: ㉞먹어 없앤다.
 0.그 좋던 재산 다 술 먹어 조진다.
먹을등 말등: ㉞먹을지 말지.
 0.아이가 밥을 먹을등 말등 한다.
 0.소가 여물을 먹을등 말등 한다.
먹을려고: ㉞먹으려고.
 0.이제 밥을 먹을려고 해.
먹일려고: ㉞먹이려고.
 0.아기 우유 먹일려고 하던 참이야.
먹자촌: ㉞먹을 거리 촌.
 0.먹자촌에 들러 만찬을 즐긴다.
먹초(먹총이, 먹통): ㉞귀가 먹은 사람.
 0.그 사람 먹초야 크게 말해야 돼.
 0.먹초 하고는 얘기 하기 힘들어.
 먹총이: →먹초.
먹칠한다: ㉞망신 당한다.
 0.그 일 잘못하면 공연히 얼굴에 먹찰
 하지.
 먹통: →먹초.
먹투성이: ㉞먹투성이. ㉞온몸에 먹물을
 묻혀서 더러워진 상태.
 0.서당에 보냈더니 먹투성이만 해 왔다.
먼: ㉞무슨.
 0.먼 얘긴데 그래.
 0.먼 그런 사람이 있을라고.
먼데기(문데기, 문지): ㉞먼지. ㉞가늘고
 보드라운 티끌.

0.먼데기가 뽀얗게 앉았다.
 0.문데기를 뒤집어 썼다.
먼산배기: ㉞먼산바라기. ㉞먼 산을
 바라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0.저기 먼산배기 밥 얻으러 온다.
먼제(먼제께, 먼젓번): ㉞먼저께. 먼저번.
 0.그 일, 먼제 다 해 났어.
 먼제께: →먼제.
 먼젓번: →먼제.
먼지터리개(먼지털개, 털개): ㉞먼지떨이.
 0.먼지터리개로 장롱 위를 털다.
 먼지털개: →먼지터리개.
먼처(먼침, 먼체): ㉞먼저. ㉞시간이나
 순서상으로 앞설 때.
 0.그가 먼처 입을 열었다.
 0.먼처 실례하겠습니다.
 먼침: →먼처.
 먼체: →먼처.
멀구: ㉞머루. ㉞머루과의 개머루,
 왕머루의 총칭.
 0.지금쯤 산에는 멀구가 익었겠다.
멀기: ㉞파도.
 0.멀기가 세서 오늘은 미역 따러 못
 가겠다.
멀꼬러미: ㉞물꼬러미. ㉞우두커니 한
 곳만 바라보는 모양.
 0.멀꼬러미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멀더궁이(멀떠궁이): ㉞명칭한 사람.
 0.그 사람 멀더궁이야.
 0.멀더궁이짓 그만 좀 해라.
 멀떠궁이: →멀더궁이.
멀정히(멀짱이, 멀째이): ㉞멀쩡히.

㉸아무 렇지도 않다.
 0. 고춧모가 바람이 불었는데도 멀정히 서 있더라.
 0. 약속을 어겼는데도 멀정하더라.
 멀짱이: → 멀정히.
 멀째이: → 멀정히.
멀찌가이(멀찍하이): ㉸ 멀찌가니. 멀찌 감치. 멀찍이.
 0. 멀찌가이 서서 바라만 보고 있지.
 멀찍하이: → 멀찌가이.
멀킹멀킹하다: ㉸ 물कु물कु하다.
 ㉸ 물크러질 정도로 물렁한 그낌이 든다.
 0. 감자가 썩어서 멀킹멀킹하다. 이젠 감자죽말을 걸러야겠다.
멈춰: ㉸ 멈춰.
 0. 비가 와서 하던 일을 그만 멈춰 버렸다.
멈춷거린다: ㉸ 멈춷거린다.
 0. 소가 가다가 자꾸 멈춷거린다.
멋대가리읍다: ㉸ 멋없다. ㉸ 격에 맞지 않다.
 0. 노는 꼴이 멋대가리읍다.
멋도 모르고(뿃두 모르구): ㉸ 무엇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0. 멋도 모르고 얘기 하지마.
 0. 멋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
멋실거린다(멋판다): ㉸ 멋을 부린다.
 0. 멋쟁이가 멋실거린다.
멋장이(뿃쟁이): ㉸ 멋쟁이. ㉸ 멋이 있거나 멋을 잘 부리는 사람.
 0. 그 사람은 멋장이야. 멋을 있는 데로 낸다.

멋판다: → 멋실거린다.
멍?: ㉸ 멍나?
 0. 개가 밥을 멍? 안 멍?
멍당구: ㉸ 멍 ㉸ 부딪쳐서 피부 속에 생긴 피멍.
 0. 의자에 부딪쳐 멍당구가 들었다.
 0. 멍당구가 들면 오래간다.
멍멍탕: ㉸ 개장국. ㉸ 개고기를 끓여 만든 국.
 0. 옛날엔 멍멍탕을 즐겼는데 이젠 차츰 사라지고 있어.
 멍우: → 머우.
멍우리: ㉸ 멍울. ㉸ 작고 둥글게 엉기어 굳어진 덩어리.
 0. 목에 멍우리가 섰다. 편도선이 잘못된 모양이다.
멍청도: ㉸ 충청도.
 0. 멍청도! 도의 별명도 도의 멍청에서 따 왔군.
 0. 멍청도는 청풍명월이란 별명도 있지.
멍충이: ㉸ 멍청이. 멍탕구리. ㉸ 어리석고 정신이 흐릿한 사람.
 0. 멍충이 하곤 얘기가 안돼.
 0. 이 멍충아, 일 좀 똑바로 해라.
메가지(메강지. 멕아지. 모각지. 모강지): ㉸ 모가지. ㉸ 목의 속어.
 0. 메가지가 열 개라도 모자라겠다.(하는 짓마다 무모하고 위험함을 경고하는 말)
 0. 메가지를 자른다.(직장에서 쫓겨난다)
 0. 메가지가 떨어진다.(직위에서 물러난다)

메강지; →메가지.

메갯(메끼, 미갯): ㉞미끼.

- 1.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
 - 0. 붕어 메갯은 떡밥이 좋다.
 - 0. 뱀장어 메갯은 미꾸라지가 좋다.
- 2. 피어내는 물건이나 수단.
 - 0. 사람을 피일려면 돈 메갯을 던져야지.

메꿀짜기(멧꿀짜기): ㉠두메산 꿀짜기.

- 0. 메꿀짜기 받은 꿀이 깊어 햇별이 잘 들지 않는다.
- 0. 메꿀짜기 논이라 벼가 시원찮다.

메꾼다: ㉞메운다.

- 0. 갈바닥 파인 곳을 흙으로 메꾼다.

메끼: →메갯.

메나리: ㉞미나리. ㉠미나릿과의

- 여러해살이 풀. 잎, 줄기가 식용임.
- 0. 메나리는 향긋한 향이 있으며 해독제 이기도 하지.

메네: ㉞1. 면허. 2. 면회.

- 1. 면허.
 - 0. 경운기는 메네가 없지 아파.
- 2. 면회.
 - 0. 군에 간 아들의 메네를 간다.

메누리(며누리, 미누리, 안아):

- ㉞며느리. 자부. ㉠아들의 아내.
- 0. 메누리가 미우면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밧게 보면 좋은 것도 억지로 힘을 잡는다)
- 0. 메누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밧다.(한 사람이 미우면 그에 딸린 사람까지도 밧게 보인다)
- 0. 메누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한다.(며누리는 시아버지에게 귀염을 받고 사위는 장모에게 사랑을 받는다)

- 0. 메누리가 커 시어머니 되면 된시어머니 티를 낸다.(자기가 힘들 때 일은 생각 하지 않고 그 위에 오르면 아랫사람에게 더 심하게 한다는 말)

메눌치: ㉞금낭화. ㉠현호색과의 여러해살이풀.

- 0. 메눌치는 관상용으로도 좋다.

메등강(외등지, 외등강, 외등지,

묘등지, 묘등강, 미, 미등지, 미등강,

미등지): ㉞묘, 뒬, 뒬등.

- 0. 메등강에서 미끄럼 탄다.
- 0. 메등강에서 놀지 마. 그 집 할아버지한테 혼난다.

메뚜기: ㉠어린이 자치기 놀이의 작은 막대.

- 0. 자치기 메뚜기가 멀리 날아간다.

메뚜이기(메뛰기, 메띠기, 미뛰기):

- ㉞메뛰기. ㉠메뛰깃과에 속하는 곤충의 총칭.
- 0. 메뛰기도 오뉴월이 한창이라.(제 때를 만난 듯이 날뛰는 사람을 풍자하는 말. 모든 것은 그 전성기가 매우 짧다는 말)

메뛰기: →메뛰이기.

메띠기: →메뛰이기.

메물: ㉞메밀.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

- 0. 세모난 메물은 한 모만 땅에 닿으면 싹을 틔운다.
- 0. 메물국수는 구수한 맛이 있다.

메식거린다: ㉠토향 것 같다.

0. 왜 속이 자꾸 메식거린다.

메씩: ㉡메꽃. ㉠메꽃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

0. 예전엔 논두렁에 난 메씩 뿌리를 캐 먹었지.

메쌀: ㉡멧쌀. ㉠메벼에서 나온 찰기가 적은 쌀.

0. 메쌀을 물에 담궜다가 뻥아 절편을 만든다.

메우켰다: ㉡메워졌다.

0. 샛돌(샘물이 나오는 작은 도랑)이 이번 홍수에 메우켰다.

메이: →마이.

메자리(뫼자리. 산자리): ㉡뫼 자리.

0. 메자리가 좋아야 땅인도 편하고 집안도 잘 된다던데...

메주다: ㉡1. 못난이다. 2. 재주가 없다.

1. 못난이:

0. 그 여잔 꼭 메주처럼 생겼어.

2. 재주가 없다.

0. 그 사람 재주가 메주야.

메칠: ㉡머칠. ㉠몇 날.

0. 메칠 있다 간다 그래.

0. 이제 설이 메칠 안 남았다.

메킨다: ㉠1. 막힌다. 2. 먹고싶다.

1. 막힌다.

0. 중치가 메킨다.

0. 구멍이 메킨다.

2. 먹고싶다.

0. 물이 메킨다.

멕살: ㉡멕살. ㉠목 아래 살. 또는 그

부분.

0. 사람들이 멕살을 잡고 싸운다.

멕아지: →메가지.

멕이: ㉡멕이.

0. 꾸정물은 버리지 말고 소 멕이 해라.

멕인다: ㉡멕인다.

1. 먹게한다.

0. 할머니가 손자에게 밥을 멕인다.

2. 배게한다.

0. 장관지에 기름을 멕인다.

3. 욕을 먹게 한다.

0. 잘못을 저지르게 해서 욕을 멕인다.

4. 주먹따위로 상대에게 힘을 가한다.

0. 상대에게 주먹을 한 방 멕인다.

5. 뇌물을 받게 한다.

0. 관리에게 돈을 멕인다.

6. 사람을 양육한다.

0. 가족을 멕여 살린다.

7. 기계나 틀 따위에 물건이나 재료를 넣는다.

0. 여물 끓일 짚을 작두에 멕인다.

멕통 따는 소리: ㉠돼지 멕통 따는 소리.

0. 돼지 멕통 따는 소리를 한다. (노래를 못하여 소리만 지름을 이르는 말)

멘도: ㉡면도. ㉠얼굴에 난 잔털이나 수염을 깎는 일.

0. 멘도 잘못하다 볼 멘다.

멘목: ㉡면목. 체면.

0. 나는 미안해서 자네 볼 멘목이 없네.

멘박: ㉡면박. ㉠면전에서 나무람.

0. 사람을 그렇게 면전에서 멘박을 주면 어떻게 하나.

멘사무소(멘소, 민사무소): ㉞면소.

면사무소. ㉸면의 행정 사무 처리를 하는 곳.

0. 아버지께서 멘사무소에 동생 출생 신고 하러 가신다.

멘사포: ㉞면사포. ㉸결혼식 때 신부가

머리에 쓰고 늘어뜨리는 투명한 천.

0. 신부가 멘사포를 쓰고 들어선다.

멘상: ㉞면상. 용모. ㉸얼굴의 생김새.

0. 멘상을 보는 것이 관상이라. 멘상이 잘 생기고 볼 일이야.

멘서기(민서기): ㉞면서기. ㉸면에서

사무보는 사람.

0. 자네 아들이 멘서기라면서.

0. 어떻게 해서 멘서기에 들어갔나?

멘양말(멘양발): ㉞면양말. ㉸면으로 짠

양말.

0. 멘양말은 구멍이 잘 뚫린다.

멘양발: →멘양말.

멘장: ㉞면장. ㉸면의 행정을 주관하는

공무원.

0. 멘장은 아무나 하나? 알아야 멘장 하지.

멘했다: ㉞면했다.

0. 숙제를 해가지고 가 벌을 멘했다.

멜시: ㉞멜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0. 사람 멜시하면 못쓴다.

멜종: ㉞멜종. ㉸생물의 한 종류가 모두

사라짐.

0. 멜종될 위기종은 보호되어야 한다.

멧골짜기: →메골짜기.

멧토끼: ㉞산토끼. ㉸토끼과의 짐승.

0. 멧토끼 잡으러 가세. 여럿이 가야 한편은 몰고 한편은 잡지.

멧: ㉞멧. 생명.

0. 멧이 길어야 백년?

멧당: ㉞멧당. ㉸좋은 집터나 무덤 자리.

0. 멧당에 집 지으면 자손이 번창하고 부자가 되지.

0. 멧당에 묘를 써야 후손이 잘되지.

멧복: ㉞멧복.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

0. 가신 이의 멧복을 빈다.

멧이루: ㉞모양으로.

0. 신부 아버지가 없어 삼촌이 아버지 멧이루 식당에 가 앉았다.

멧일: ㉞멧일.

0. 멧일에 또 보기로 하고 헤어졌다.

멧절: ㉞멧절.

0. 이번 멧절엔 다 오너라.

멧주(멧지): ㉞멧주. ㉸명주실로 짠 피륙.

0. 멧주 바지, 저고리는 맵시가 난다.

멧줄: ㉞멧줄. ㉸사람의 목숨.

0. 사람 멧줄이 길기도 하지.

멧줄 놓는다: ㉞죽는다.

0. 그 사람이 멧줄을 놓았구먼.

멧지: →멧주.

멧찰: ㉞멧찰. 명패. 이름표.

0. 멧찰을 안 달고 등교했다가 벌 받았다.

멧치: ㉞멧치. ㉸가슴뼈 아래 가운데

움푹하게 들어간 곳. 급소임.

0. 체했나? 멧치끝이 왜 더부룩하다.

며누리: →메누리.

머르치: →매래치.

명이나물: ㉸산마늘.

0.명이나물은 마늘 냄새가 난다.

멘소: →맨사무소.

모각지: →메가지.

모강지: →메가지.

모개(모괘): ㉸모괘. ㉸모과나무 열매.

가을에 익으면 노란색을 띄며 향이 좋다.

0.가을엔 모개 향이 그윽하다.

모갱이(모구): ㉸모기. ㉸모깃과에 속하는 곤충의 총칭.

0.모갱이 다리에서 피 뻗는다.(교묘한 수단으로 약한 사람을 착취한다)

0.모갱이도 낮짜이 있지.(염치없고 뻘뻘스럽다는 말)

0.모갱이 보고 칼 뻗는다.(사소한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성을 낸다)

모괘: →모개.

모구: →모갱이.

모구장: ㉸모기장. ㉸모기를 막으러 치는 장막.

0.모구장 밖으로 모기가 앵앵 돈다.

모긔불: ㉸모깃불.

0.짚을 태우다 풀을 덮으면 연기가 나면서 훌륭한 모긔불이 된다.

모깁(모욕): ㉸목욕. ㉸머리를 감으며 몸을 씻는 일.

0.모깁하러 목욕탕에 가자.

0.한겨울에 냉수로 모깁하는 사람도 있다.

모꼳(모꿈): ㉸못. ㉸목재 따위를 고정 시키는데 쓰는 물건. 쇠.

1.물건을 고정 시킨다.

0.의자에 모꼳을 박는다.

2.남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다.

0.여인의 가슴에 모꼳을 박은 사람이다.

3.어떤 사실을 깰 수 없도록 분명하게 한다.

0.규정을 만들어 대모꼳을 박는다.

모꿈: →모꼳.

모냥: ㉸모양.

1.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의 모습.

0.머리 모냥이 단정하다.

2.외부에 부리는 멋, 맵시.

0.모냥이 있다.(보기에 좋다)

3.어떠한 실태나 되어가는 꼴.

0.사는 모냥이 말이 아니다.

4.위신이나 체면.

0.모냥이 개털가죽 같다.(체면과 명예를 완전히 잃었음을 가리키는 말)

5.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

0.오리 모냥으로 뒤뚱거리며 걷는다.

6.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

0.이제 비가 올 모냥이다.

모냥새: ㉸모양새.

0.웃차림 모냥새가 어찌 좀 어색하다.

모네: ㉸모녀.

0.그 집은 모네가 둘이 살아.

모녕이야: ㉸모양이야. ㉸그런가보다.

0.이제 비가 올 모녕이야. 흐리는 걸 보면.

모다(모도, 모둥): ㉸모두.

1.전체를 말함.

0.이것은 우리 모다의 책임이다.

2. 일정한 수효나 양을 한 데 합친 것.

0. 이거 모다 얼마요?

3. 빼거나 넣지 않고.

0. 밥을 남기지 말고 모다 먹어라.

모다 놓는다(모도 놓는다): ㉠모아 놓는다.

0. 넣어 놓은 곡식을 한데 소복히 모다 놓는다.

모도: →모다.

모도 놓는다.: →모다 놓는다.

모두걸음: ㉠모걸음. ㉡옆으로 가는 걸음.

0. 왜 모두걸음 치면서 법석을 떠나.

모든다: ㉠모은다.

1.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합친다.

0. 낙엽을 주워 한데 모든다.

2. 특별한 물건을 구하여 가진다.

0. 골동품을 사서 모든다..

3. 돈이나 재물을 쓰지 않고 쌓아 놓는다.

0. 돈을 모두어 둔다.

4. 마음이나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한다.

0. 의견을 한데 모든다,

5. 여러사람을 한 곳에 오게 한다.

0. 회원을 모든다.

6. 다른 사람의 흥미나 관심을 끈다.

0. 인기를 모두는 가수다.

7. 조각을 한데 맞추거나 쌓아서 무엇을 만든다.

0. 바다가 띄울 배를 모든다.

모듈매: ㉠몰매. 못매. ㉡여럿이 덩벼들어 때리는 매.

0. 상급생한테 끌려가면 모듈매를 맞는다.

모듬: ㉠모임.

0. 남들 모듬에 빠지지 말아라.

모듬: →모다.

모래무치: ㉠모래무지. ㉡잉엇과의 민물고기. 모래 위나 밑에 산다.

0. 모래무치 매운탕은 구수하다.

모래불: ㉠모래밭. 백사장.

0. 모래불에서는 씨름하기가 좋다.

0. 우리 모래불에서 불짐 하자.

모랭이: ㉠모롱이. ㉡산모통이의 휘어 들린 곳.

0. 산 모랭이를 돌아가면 집이 나온다.

모르겠어(모르것어): ㉠모르겠어.

0. 어찌된 영문인지 통 모르겠어.

0. 알겠어. 모르겠어? 똑바로 말해.

모르것어: →모르겠어.

모른대두: ㉡모른다 해도.

0. 그건 난 모른대두 그러네.

모미: ㉠몰며.

0. 소를 모미 가거라.

모밀: ㉠메밀.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

0. 오늘 모밀 국수 추렴하세.

모살이: ㉠사름. ㉡모가 땅에 뿌리를 내려 생생하게 푸른 빛을 띠게 되는 상태.

0. 모내기한 모가 모살이를 잘 했다.

파릇파릇해졌다.

모새: ㉠모사. ㉡제사 지낼 때 신령께 바치는 술을 따르는 모래 그릇.

0. 향로 옆에 모새 그릇을 놓는다.

모세: ㉠모셔.

0. 오는 손님을 극진히 모세라.

모소리(모솔기): ㉠모서리. ㉡모가진 가장자리.

0. 책상 모소리에 부딪칠라.

모솔기: →모소리.

모숨(모습): ㉞모숨. ㉠길고 가느다란

물건이 한 줌 안에 들만한 수량.

0.담뱃잎 한 모습 씩 집어 다와.

0.벼를 한 모습씩 벤다.

모습: →모습.

모싱기: ㉞모내기.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

0.모싱기 철엔 부지깥이도 한목한다.

(모내기 할 땐 바빠서 모두가 할 일이
있다는 말)

모아라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0.귀가 쫑쫑해서 잘 모아라듣는다.

0.모아라들으면 대충 넘어가.

모예: ㉞오여.

0.진 놀이 할 사람 여기 모예.

모와: ㉞못 와.

0.너 그거 안 주면 우리 노는데 모와.

모욕: →모깡.

모욕재개: ㉞목욕재계. 목욕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일.

0.마을 제사엔 모욕재개하고 근신하여야
하지.

모자른다(모잘른다. 모잘린다.

모재린다. 모잘린다): ㉞.모자란다.

1.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0.잠이 좀 모자른다.

2.지능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낮다.

0.사람이 좀 모자른다.

모자리: ㉞못자리. ㉠뱀씨를 뿌려 모를

기르는 논.

0.아버지께서 모자리에 피를 뽑으신다.

모잘른다: →모자른다.

모잘린다: →모자른다.

모재: ㉞모자.

0.바람에 모재 날아간다.

모재걸개: ㉞모자걸이.

0.모재걸개에 모재가 걸려있다.

모재린다: →모자른다.

모잘린다: →모자른다.

모중삽: ㉞모중삽.

0.모중삽으로 모중을 떠 옮긴다.

모지리: ㉞모조리. ㉠하나도 빠지 않고

모두.

0.돈을 모조리 긁어모은 것이 이거다.

모쫑: ㉠모를 나르는 일꾼.

0.모쫑! 못단 가져와.

0.하루 종일 모쫑하기 힘이 든다.

모과(모타): ㉞모아.

0.흠어진 감자를 모두 모과.

모타: →모과.

모태(적쇠): ㉞적쇠. ㉠고기나 생선

따위를 굽는 기구. 철사로 그물 뜨듯이
쥬음.

0.푹치를 모태에 굽는다.

0.김을 모태에 굽는다.

모탕이: ㉞모통이.

1.변두리나 구석진 곳.

0.방 모탕이에 앉아 있다.

2.일정한 범위의 어느 부분.

0.나도 한 모탕이 거들겠네.

모툰다: ㉞모은다.

0.화전놀이 할 쌀을 모툰다.

모하게: ㉞못하게.

0.일을 모하게 자꾸 방해를 놓는다.

목구녕(목구영): ㉞목구멍.

0.목구녕 때 벗긴다.(고기를 먹는다는 말)

0.목구녕에 풀칠한다.(끼니를 때우고 산다는 말)

목구영: →목구녕.

목달갱이: ㉞목에 매는 끈.

0.강아지를 목달갱이 해라.

0.목달갱이 끈이 느슨하다.

목더수기: ㉞목덜미. ㉞목의 뒤쪽 부분.

0.목더수기가 쭈신다. 좀 주물러라.

목두꾼: ㉞목도꾼. ㉞무거운 나무나 돌을

뺏줄로 얹어 어깨에 매고 옮기는 일꾼.

0.예전에 산관에서는 목두꾼이 주로 나무를 날랐지.

0.목두꾼 해먹고 사는 사람이 꽤 많았지.

목맨다: ㉞애원한다.

0.좋은 일거리를 자기 달라고 목맨다.

목백일홍: ㉞배롱나무.

0.목백일홍 꽃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내내 핀다.

목시: ㉞몫.

1.여럿이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

0.제 목시를 나누어 들었다.

0.문밖에 나간 사람 목시는 있어도 자는 사람 목시는 없다.

2.업무의 비중.

0.그 사람은 두 사람 목시를 해낸다.

목재이(목쟁이): ㉞1.모가지. 2.산등성이.

3.곳.

1.모가지.

0.목재이가 떨어진다.(어떤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0.목재이가 열 개라도 모자란다.(하는 짓마다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

2.산등성이.

0.저 목재이에 올라가서 쉬자.

3.곳.

0.장사를 하려면 목재이가 좋아야 해.

목쟁이: →목재이.

목줄대(목쭈대): ㉞목줄띠. 목구멍.

0.목줄대가 굵은 기 사람이 좀 억세.

목쭈대: →목줄대.

목치미: ㉞목침. ㉞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0.할아버지께서는 딱딱한 목치미를 베고 잘도 주무신다.

목캐: ㉞목화. ㉞아욱과의 한해살이풀.

씨를 싸고 있는 면화는 솜, 무명실의 원료가 됨.

0.목캐 면화는 솜이불에 넣는다.

0.목캐에서 무명실을 뽑아 무명천을 만든다.

목캐생이: ㉞목화송이.

0.목캐생이 따게 됐더라. 빠지기 전에 따러 가자.

목도시: ㉞목덜미. ㉞목의 뒤쪽 부분의 살

0.거 돼지 목도시 한 근 주시오.

문지: ㉞먼지.

0.문지 난다. 장난치지 마.

문지구덩이: ㉞먼지 많은 곳.

0.그 집은 몬지구텡이에서 살더라.

몰개(몰개미): ㉠모래.

0.강변에 가서 몰개 줌 퍼 오너라.

0.몰개 밭에서 씨름을 한다.

몰개미; →몰개.

몰군다(몰쿤다): ㉠모은다. 몬다.

1.모은다.

0.방이 좁아 안쪽으로 좀 몰군다.

2.몬다.

0.산토끼를 위에서 내리 몰군다.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잘 내리뛰지를 못한다)

몰래(몰러): ㉠몰라. ㉡꾸미는 말

‘모르게’가 아니고, 타동사 ‘모르다’로 쓰이는 예임.

1.알지 못한다.

0.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래.

2.이해하지 못한다.

0.그게 무슨 말인지 몰래.

3.기억하지 못한다.

0.그 사람이 누군지 몰래.

4.일처리를 잘한다.

0.그 사람은 실패를 몰래.

5.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0.그 애는 운전할 줄 몰래.

6.어떤 일에 관심이 없다.

0.가진 말건 나는 몰래.

몰래²: ㉠몰려. ㉡한곳으로 모인다.

0.인기 상품엔 사람들이 몰래.

몰러; →몰래.

몰른대두: ㉡모른다 해도.

0.그 일은 난 몰른대두 자꾸 물어보네.

몰미: ㉠덜미. ㉡흔들림 때문에 일어나는 매스껍고 어지러운 증상.

0.어릴 땐 차 몰미가 나더니 이젠 괜찮아.

몰미러: ㉠통밀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전부 평균으로 쳐서.

0.이 오징어 몰미러 얼마요?

몰쿤다; →몰군다.

몸댕이(몸동아리. 몸둥이. 몸등거리.

몸똥아리): ㉠몸똥이. ㉡몸의 중심체. 사람이나 동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낮추어 부르는 말.

0.몸댕이로 때운다.(돈으로 해결할 것을 일을 해 주거나 벌을 받아 해결한다)

0.몸댕이에 뺏다.(익숙해졌다)

몸동아리; →몸댕이.

몸둥이; →몸댕이.

몸등거리; →몸댕이.

몸똥아리; →몸댕이.

몸살: ㉠안달. ㉡조급히 걱정하며 속을 태우는 것.

0.여행 안 간다고 몸살이나서 야단이잖나.

몸씨리(몸썰머리): ㉠몸서리. ㉡몹시 싫증 나거나 무서워 몸이 떨리는 일.

0.그 일은 이제 몸씨리가 나네.

몸썰머리; →몸씨리.

몸을 푼다: ㉠출산한다.

0.딸이 몸을 푼다.

몸조래: ㉠몸조리. ㉡허약해진 기력을 회복하도록 몸을 보살핌.

0.그럼 몸조래 잘 해요.

몸푸: ㉠몸통. ㉡중간 부분.

0.몸푸가 굵은 막대기가 필요하다.

몹쌀: ㉠몹쌀.

0. 몹쌀 감자는 버리고 쓸 것만 골라라.

못빼기: ㉠못뽑이. ㉡박힌 못을 뽑는데 쓰는 연장.

0. 거기 못빼기 가져오너라.

못잡어먹어 야단이다: ㉠괴롭히지 못해 야단이다.

0. 너희들은 왜 서로 못잡어먹어 야단이니?

못쟁이: →멋쟁이

못중: ㉠모내기를 할 때 모를 날라주는 사람.

0. 모가 달린다. 못중 모가지고 와.

못탕: ㉠모탕. ㉡나무를 패거나 쪼개거나 자를 때 받치는 나무.

0. 못탕 주변에 서지 말아. 나무 조각 된다.

몽낫: ㉠나무 가지 칠 때 쓰는 대장간에서 버린 낫.

0. 오늘은 몽낫 가지고 송아리(소나무 가지) 하러 가자.

몽당엔필: ㉠몽당연필. ㉡길이가 짧고 몽툰 연필.

0. 몽당엔필을 참대나무에 끼워서 사용했다.

몽뎡이: ㉠몽뎡이.

0. 몽뎡이를 들면 소가 말을 잘 듣는다.

몽덕: ㉠누명. ㉡억울하게 뒤집어쓴 불명예.

0. 몽덕을 씌우지 마. 억울하게.

0. 몰래 씌운 몽덕을 벗었다.

몽조리(몽지리): ㉠몽조리.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다.

0. 몽조리 여기 모여봐.

0. 있는 돈 몽조리 모아 봐.

몽지리: →몽조리

몽창(몽청. 몽턱): ㉠몽땅. 몽땡. 몽텡.

㉡한 부분이 대번에 잘리는 모양.

0. 노루가 뒷에 걸려 발목이 몽창 끊어졌다.

0. 푸줏간 아저씨가 쇠고기를 한칼 몽창 끊어 저울에 단다.

몽치매기(몽치미): ㉠나무 토막으로 만든 베개. 목침.

0. 몽치매기는 딱딱하다.

0. 할아버지께서는 딱딱한 몽치미를 베고 잘도 주무신다.

몽치미: →몽치매기.

몽탁하다: ㉠몽탕하다. ㉡짧고 굵다.

0. 그 집 며느리 키가 좀 몽탁해.

뒤통지: →뒤통강.

뒤통강: →뒤통강.

뒤통지: →뒤통강.

뒤통신다: ㉠뒤통신다.

0. 어른을 잘 뒤통신다.

0. 신주를 잘 뒤통신다.

뒤통자리: →뒤통자리.

뒤통지: →뒤통강.

뒤통강: →뒤통강.

무갱이: ㉠묵은 것. 오래된 것.

0. 소가 무갱이라서 귀신 다 뺏어.

말귀를 다 알아들어.

무과(무구와): ㉠무겨워.

0. 혼자 들면 무과. 같이 들어.

무구와: →무과.

무굽다: ㉠무굽다.

1. 무게가 많이 나간다.
0. 체중이 무겁다.
2. 언행이 신중하다.
0. 입이 무겁다.
3. 책임, 비중이 중대하다.
0. 맡은 책임이 무겁다.
4. 기분이 언짢거나 우울하다.
0. 머리가 무겁다.
5. 병이나 죄가 심하거나 크다.
0. 죄가 무겁다.
6. 힘이 빠져서 느슨하다.
0. 발걸음이 무겁다.
7. 동작이 느리고 둔하다.
0. 궁둥이가 무겁다.
8. 세금이 너무 많다.
0. 세금이 너무 무겁다.

무꾸(무우): ㉠무. ㉡십자화의 한해살이,

- 또는 두해살이풀.
0. 무꾸를 뽑는다.
0. 무꾸를 절여 김치를 담근다.

무너메: ㉡물 너머에.

0. 무너메 밭에 곡식이 잘 됐다.

무네(무노): ㉠문어. ㉡낙짚과의

- 연체동물. 몸빛은 환경에 따라 변함,
0. 봄철엔 바닷가에 꽃무네(작은 문어)가
나온다.

무노: →무네.

무닥대기: ㉠마구잡이. ㉡무지하게 계획
없이.

0. 무닥대기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래도
땅은 거짓말을 안 해.

무대뽀: ㉡무지막지한 사람.

0. 그 사람 계획도 없이 무대뽀로 일
해.
0. 상관이 무대뽀면 줄병이 고생하지.

무데기(무디기): ㉠무더기. ㉡많은 물건을
한 데 모아 수북히 쌓은 더미.

0. 딸기를 무데기로 가려놓고 판다.
0. 그 감자 무데기를 소쿠리에 담는다.

무든다: ㉡무디어진다

0. 낫을 마구 쓰면 날이 무든다.

무디기: →무데기.

무뚝: ㉠문득.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0. 무뚝 엄마 생각이 났다.

무릅고뱅이: →다리꼬뱅이.

무르: ㉠물을.

0. 시원한 무르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무릅고뱅이: →다리꼬뱅이.

무릅파구: →다리꼬뱅이.

무릅팍: →다리꼬뱅이.

무릅패기: →다리꼬뱅이.

~무리하다(~므리하다): ㉠~하다. ~듯하다.

0. 시래기 국이 들크무리하다.
0. 앵두와 양앵두는 비스무리하다.

무명실: ㉠무명실. ㉡솜을 자아 만든 실.

0. 무명실은 약해서 잘 끊어진다.

무설미: ㉠수수떡.

0. 붉은 무설미 떡은 아기 생일 때
해준다.

무술: ㉡무쇠 술.

0. 무술을 사와서 기름칠을 하고 질을
들인다.

무스럽다(미섭다): ㉠무섭다. ㉡무서움을 느낀다.

1. 상대방의 위력에 놀려 마음이 약해져서 두렵다.
0. 선생님이 무스럽다. 조용해.
2. 정도나 수준 따위가 놀랄 만하다.
0. 더위가 무섭게 기승을 부린다.
3. 어떤 사실이 걱정스럽다.
0. 무스럽다 하니까 바스락 거린다.(남의 약점을 알고 더욱 혼란하게 한다)
4. 어떤 일을 하자마자의 뜻으로 쓰이는 말.
0. 돈이 생기기 무섭게 저금을 한다.

무신: ㉠무슨.

1. 의문을 나타내는 말.
0. 무신 일로 찾아 왔나?
2. 예상 외로 못마땅함을 강조하는 말.
0. 무신 물건이 이모양이야.
3. 일의 내용이나 특성을 모를 때 쓰는 말.
0. 그 사람에게 무신 죄가 있을까?
0. 무신 뽀족한 수가 없을까?(아무런 신통한 수단이 없다는 뜻으로 난처한 지경에 이르는 말)
4. 반의적인 뜻을 강조하는 말.
0. 무신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소.

무신날: ㉠평일.

0. 무신날에 장에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

무심절에: ㉠무심결에.

0. 무심절에 쳐다 봤더니 반색을 한다.

무심쿠: ㉠무심코. ㉡아무런 생각이나 뜻이 없이.

0. 무심쿠 물어봤더니 자세히 알려주었다.

무안시럽게: ㉠무안스럽게. ㉡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낮이 없음.

0. 무안시럽게 머 자꾸 물어보고 그래.

무악재기(무탕): ㉠어탕. ㉡무와 물고기를 넣고 끓인 국. 국물보다 건더기가 더 많다.

0. 무악재기는 제사 때 어탕으로 올린다.
0. 무악재기 맛은 구수해서 좋다.

무우: →무꾸.

무우말랭이: ㉠무말랭이.

0. 무우말랭이로 김치를 담그면 식감이 좋다.

무우종다리: ㉠무장다리. 무 꽃대.

0. 무우종다리가 나오면 씨를 받아야겠다.

무자숙: ㉠무자식.

0. 무자숙 상팔자라더니 죽을 때 임해서는 그것도 아니야.

무재: ㉠썩아. 썩어.

0. 푸나무(푸른 나무)를 거기다 무재 놔.

무지: ㉠무척. 매우. 대단히.

0. 가을 무가 무지 커.
0. 시험에 합격해서 무지 기쁘다.

무진다: ㉠썩는다.

0. 앞뜰에 벧가리를 무진다.

무찔하다(묵질하다): ㉠묵적하다.

0. 보따리가 꽤 무찔하다.

무체먹는다: ㉠무쳐먹는다.

0. 나물을 기름 간장에 무체먹는다.

무개: ㉠묵혀.

0. 김치를 삼년 무개. 그러면 깊은 맛이 나온다.

무탕: →무와채기.

묵간장: ㉠진간장. ㉡오래 묵어서 진하게 된 간장.

0.장독에 가서 묵간장 좀 퍼 오너라.

묵논: ㉠부치지 않고 묵는 논.

0.산골짜기에 묵논이 많이 생겼다.

0.묵논엔 미나리를 심으면 좋겠다.

묵는다: ㉠먹는다.

1.음식을 섭취하는 일.

0.아침밥은 묵는다.

2.마음을 다짐하는 일.

0.단단히 마음을 묵는다.

묵은지: ㉠묵은 김치.

0.묵은지로 장국을 끓인다.

묵질하다: →무절하다.

~문(~믄): ㉠~면.

0.돈 있으면 빵 사 먹자.

0.그 일은 자네가 하문 어때.

0.거기 내가 가문 어때.

0.그거 내가 알문 안돼?

문구녕(문구영): ㉠문구멍.

0.아기가 크면서 문구녕도 따라 올라간다.

문구사(문구점): ㉠문방구점. ㉡화용품과 사무용품의 판매점.

0.문구사에 들러 연필을 샀다.

문구영: →문구녕.

문구점: →문구사.

문꼬리: ㉠문고리. ㉡문을 여닫거나

잠그는데 쓰는 쇠고리.

0.문꼬리 꼭 잠귀라.

0.문꼬리에 메달리면 문이 쳐진다.

문댄다(문질른다): ㉠문지른다.

0.어머니께서 낫그릇을 윤기가 나도록 문댄다.

문데기: →먼데기.

문뎡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0.문뎡이가 동냥 왔다.

0.문뎡이가 지나간다.

문뎡이꽃: ㉠철쭉.

0.문뎡이꽃 꺾으러가면 문뎡이가 잡아 간다.(독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뜻)

문새: ㉠문서. 사연.

1.문서.

0.논, 밭 문새를 꼭 쥐고 안 내놓는다.

2.사연.

0.간단히 얘기하지 무슨 문새가 그리 기나.

~문서(~미, ~민서): ㉠~면서.

0.간다문서 왜 돌아와?

0.걸어 오문서 반갑게 인사를 한다.

0.그걸 자네가 한다문서. 잘 해봐.

0.먹으문서 말하지 마. 밥알이 튀어나와.

0.문을 열고 나가문서 지결여댄다.

0.일하문서 잡담하지 마. 일에 하자가 생겨.

문조: ㉠한지. 창호지. ㉡문을 바르는 얇은 종이.

0.문을 바르려고 문조에 풀칠을 한다.

문주방: ㉠문지방. ㉡문 밑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댄 나무.

0.문주방이 높으면 드나들기 힘들다.

0.문주방이 높다.(거래하기가 힘들다)

문자: →먼데기.

문지둥: ㉠문 기둥. ㉡문에 세로댄 나무.

0.문이 문지둥하고 이가 잘 맞는다.

문질른다: →문댄다.

문친다: ㉠무친다.

0.봄 나물을 문친다.

문틈 새간(문틈 생간): ㉠문틈 사이.

0.문틈 새간으로 통바람이 들어온다.

문틈 생간: →문틈 새간.

문푸레나무(뭉푸레나무. 뭉푸레나무.

문푸레나무): ㉠물푸레나무. ㉡물푸레 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0.문푸레나무 껍질을 물에 넣으면 푸른 빛깔이 나온다.

0.뭉푸레나무는 재질이 단단하여 도리깨에 사용한다.

물가재미: ㉠배 주위에 노란 띠가 없는 가자미.

0.물가재미 회 쳐 먹세.

물감재: ㉠습해 입은 감자.

0.물감재는 녹말기가 적어 맛이 덜하다.

물개: ㉠혜엄 잘 치는 사람.

0.그 사람은 물개야. 혜엄을 너무 잘 쳐.

물건(송아지. 연장): ㉠남자의 성기에 대한 은어.

0.물건이야 좋지? 써먹지 못해 그렇지.

물고지: ㉠무릇.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어린 잎과 비늘 줄기는 식용함.

0.6.25 전쟁 때는 먹을 것이 없어 물고지를 캐서 먹기도 했지.

물곰: →곰치.

물구베: ㉠물굽이. ㉡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

0.물구베 치는 곳엔 조심해야 한다. 달려 들어가면 헤나지 못한다.

물군다(물룬다. 물쿤다): ㉠무른다.

0.싸게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물군다.

물까마구: ㉠물까마귀. ㉡물까마귀과의 새. 계곡 물속에서 먹이를 얻는다.

0.물까마구가 폭포 뒤쪽에 둥지를 틀었다.

물끄러미(물끄르미): ㉠물끄러미.

㉡우두커니 한 곳만 바라보는 모양새.

0.할아버지께서 물끄러미 먼 산만 바라 보신다.

물끄르미: →물끄러미.

물도: ㉠물동이. ㉡물을 길는데 쓰는 동이.

0.경칩 추위에 물도가 나간다.(경칩 추위에 물동이 얼어 터진다는 말. 아직도 추위가 남았다는 말)

물때: ㉠물이끼. ㉡물이끼과의 이끼류. 습지, 물속에 자생한다.

0.물때가 앓아 미끄럽다. 조심해라.

물래: ㉠'물리다.' '물려'에서 온 말. ㉡산 것을 도로 주고 돈을 돌려받는 것.

0.이 옷이 잘 맞지 않아요. 도로 물래 주세요.

물래: ㉠비켜. 물러나.

0.복잡한데 저리 물래.

물랭면: ㉠물냉면. ㉡평양냉면.

0.물랭면을 평양냉면이라 했지.

물러당하다: ㉠물렁하다.

0.복숭아가 너무 익어 물러딩하다.
물레방간(물방간): ㉠물레방아. 물레방앗간.
 ㉡물길을 이용해 방아를 찧는 방앗간.
 0.엄마가 물레방간에 밀을 빵으러
 가셨다.
물레준다: ㉠물려준다.
 0.예전엔 교과서를 물레주며 공부했지.
 물룬다: →물군다.
물맨두: ㉠물만두. ㉡물에 넣어 삶은
 만두.
 0.나는 물맨두가 더 좋더라.
물먹었다: ㉠1.손해 봤다. 2.애먹었다.
 1.손해 봤다.
 0.이번 장사엔 물먹었다.
 2.애먹었다.
 0.일 하러 갔다가 얼마나 힘든지 물먹었다.
 물매기: →곰치.
물문애: ㉠물 문어. 삶지 않은 문어.
 0.물문애는 삶으면 맛이 나오지.
물미: ㉠물매. ㉡비탈진 정도.
 0.물미가 뜨다.(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말)
물밑 흥정: ㉠비밀 흥정.
 0.물밑 흥정을 잘 해봐.
 물방간: →물레방간.
물버들: ㉠갯버들. ㉡버드나무과의 낙엽
 활엽 관목. 개울가에 자생한다.
 0.물버들 피리 불며 소를 먹었지.
물벼락: ㉠물벼락. ㉡갑자기 세차게 쏟아
 지는 물.
 0.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져 물벼락
 맞았다.
물샬툼바구없이: ㉠물샬툼없이.

0.보를 물샬툼바구없이 잘 들어막는다.
물아구: ㉠물꼬. ㉡물 통로,
 0.물은 물아구부터 대는 거지.
물앵경: ㉠물안경.
 0.물앵경 쓰고 섬(동해안 담치) 따라
 간다.
물어대싼다: ㉠자꾸 묻는다.
 0.아기가 꼬치꼬치 자꾸 물어대싼다.
물외: ㉠오이. ㉡박과의 한해살이덩굴풀.
 0.여름엔 물외 김치가 시원하지.
물웅덩이(물궁덩이): ㉠물웅덩이. ㉡물이
 괴어 있는 웅덩이.
 0.여기 물웅덩이 있다. 조심해.
물윗기미: ㉠물 윗동네. 수상리.
 0.그 집 새댁이 물윗기미서 왔다.
물장사: ㉠다방업. 술장사.
 0.물장사가 돈이 많이 남는데.
물질: ㉠물길. ㉡물을 보내거나 물이
 흐르는 통로.
 0.산비탈로 물질을 돌리면 받을 논으로
 만들 수 있다.
물청때(물청태): ㉠물이끼. ㉡물이끼과의
 이끼류.
 0.바위에 물청때가 앉으면 무척 미끄럽다.
 물청태: →물청때.
물커덩한다(밀커덩한다): ㉠물경한다.
 ㉡몽크 러질 듯이 물렁하다.
 0.썩은 감을 밟았더니 물커덩한다.
 물군다: →물군다.
물군다: ㉠1.날씨가 썩다. 2.물렁물렁하게
 된다.
 1.날씨가 썩다.

0. 날씨가 너무 더워 아주 물컾다.
 2. 물렁물렁하게 된다.
 0. 복숭아가 너무 익어 이젠 물컾다.
 물컾덩이: →물웅덩이.
물킨다: ㉸물렁물렁하게 만든다.
 0. 생감을 광주리에 담아 물킨다.
물탱이: ㉸물기가 많이 배어있는.
 0. 벧단이 물탱이라서 무겁다.
 물텀병: →곰치.
 뭉푸레나무: →문푸레나무.
뭉대놓고: ㉸뭉터대고. 덮어놓고.
 ㉸혜아려 보지 않고 마구.
 0. 뭉대놓고 말하지 마. 억울한 사람 있어.
 뭉질하다: →맛질하다.
뭉게진다: ㉸뭉너지다.
 1. 쌓인 물건이 허물어진다.
 0. 큰 비에 독이 뭉게진다.
 2. 뭉이 힘을 잃고 쓰러진다.
 0. 뭉이 뭉게지듯 주저앉는다.
 3. 권력이 소멸한다.
 0. 그 좋던 권세가 하루 아침에 뭉게진다.
 4. 질서나 체계 따위가 파괴된다.
 0. 질서가 뭉게진다.
 5.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진다.
 0. 공든탑이 뭉게진다.
 6. 어떤 한계점이 붕괴된다.
 0. 건강이 뭉게진다.
 7. 감정이 안정을 잃고 내려앉는다.
 0. 억장이 뭉게진다.
뭉기적거린다: ㉸뭉그적거린다. ㉸일이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한다.

0. 일은 하지않고 자꾸 뭉기적거린다.
뭉생이(뭉심이. 뭉싱이): ㉸버무리떡.
 ㉸쌀가루에 팔, 콩, 밤, 감껍데기 등을
 넣고 찐 시루떡.
 0. 뭉생이 떡이 구수한 게 맛이 있다.
 뭉심이: →뭉생이.
 뭉싱이: →뭉생이.
 뭉창: →몽창.
 뭉탁: →몽탁.
뭉태기(뭉탱이. 뭉티기): ㉸뭉치. ㉸한데
 뭉치거나 말린 덩이.
 0. 저 돈 뭉태기 좀 봐.
 0. 소고기 한 뭉태기 샀다.
 뭉탱이: →뭉태기.
 뭉티기: →뭉태기.
 뭉푸레나무: →문푸레나무.
뭉꼬?: ㉸뭉엇인고?
 0. 이게 뭉꼬?
 0. 저건 뭉꼬?
뭉라냐면: ㉸뭉엇이라 하나면.
 0. 그 사람이 뭉라냐면 널 도와 주겠대.
뭉라했더니: ㉸꾸증을 했더니.
 0. 일을 잘 못해서 뭉라했더니 토라져
 있잖나.
뭉루: ㉸뭉. 뭉엇으로.
 0. 뭉루 가져오라고?
 0. 뭉루 심어야 돈을 벌 수 있나?
뭉이: ㉸뭉엇이. 뭉슨.
 0. 뭉이 어때서 그래. 괜찮구만.
뭉이게: ㉸뭉엇이게.
 0. 뭉이게 가지고 그래. 어디 좀 보자.
뭉하라: ㉸뭉엇 하러. 뭉하러

0. 거긴 뭐하러 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뭔: ㉠무슨.

0. 빵 사줄 게. 뭔, 안 먹어도 돼.

뭇두 모르구: → 멧도 모르고.

~므리하다: → ~무리하다.

믄: → 문.

믄프레나무: → 문푸레나무.

미: → 메등강.

~미: → 문서.

미고: ㉠메고. ㉡물건을 어깨에 올려
놓거나 짊어지고.

0. 6.25 때 피란 길엔 어른이고 아이고
이고 지고 미고 갔다.

미기: ㉠메기. ㉡메깃과의 민물고기. 입이
크고 비늘이 없으며 미끄미끈한 점액이
있음.

0. 미기 낚시는 밤이 제격이다.

미긴다: → 맥인다.

미갓: → 메갓.

미끈진다: → 매끈진다.

미짱스럽다.(미팔스럽다. 미상스럽다):

㉠미짱스럽다. 미팔스럽다.

0. 미짱스럽게 그런 얘기는 왜 하니?

0. 미짱스럽게 보이지 마.

미꾸녕: → 똥구녕.

미꾸락지: ㉠미꾸라지. ㉡기름종갓과의
민물고기. 논, 개천 등지의 진흙 속에
산다.

0. 미꾸락지는 보양식이다.

미꾸영: → 똥구영.

미꿈: ㉠똥구멍.

0. 이야기야 이리 온. 미꿈 님자.

미끄덩한다(밀크덩한다): ㉠미끈둥한다.

㉡부드러우며 미끄럽다.

0. 손에 쥔 미꾸라지가 미끄덩하고
빠져나간다.

미끄름: ㉠미끄럼. ㉡얼음판, 눈 위나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일.

0. 얼음판에 미끄름 타러 가자.

0. 미끄름 타면 재미가 있다.

미끼럽다(미끼롭다): ㉠미끄럽다.

0. 길 바닥이 미끼럽다. 조심해야 되겠다.

미끼롭다: → 미끼럽다.

미누리: → 메누리.

미다: ㉠1. 막히다. 2. 메다.

1. 막히다.

0. 하수도 구멍이 미다.

0. 감격해 가슴이 미어 말이 안 나온다

2. 메다.

0. 나무토막을 어깨에 미고 날랐다.

미등지: → 메등강.

미등강: → 메등강.

미등지: → 메등강.

미뚜기: → 메뚜이기.

미련곰텡이: → 곰텡이.

미뤄: ㉠미뤄.

0. 그 일은 힘든데 내일로 미뤄.

미르기(미리기): ㉠미룩보살. ㉡후세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는 미룩보살.

0. 후세에 미르기가 나타나 중생을 제도
한대.

미리기: → 미르기.

미리들: ㉠미리미리. ㉡미리를 강조한 말.

0. 어, 미리들 왔구만. 그럼 오늘 일

잘해보세.
 미섭다; →무섭다.
미숫가루: ㉠미숫가루. ㉡참쌀이나 다른 곡식은 볶거나 찌서 간 가루.
 0.배가 고플 때 미숫가루 한 숟갈 물에 타 먹으면 좋지.
미시리: ㉠바보.
 1.지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0.미시리 같이 그 게 무슨 것이냐?
 2.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알잡거나 욕으로 일컫는 말.
 0.그를 믿는 내가 미시리지.
미식거린다: ㉠메스거린다. ㉡메스꺼운 느낌이 난다.
 0.점심 먹은 것이 체했나? 속이 자꾸 미식거린다.
미안스럽다: ㉠미안스럽다.
 0.약속을 못 지켜 미안스럽다.
미역국 먹었다: ㉠낙방했다.
 0.입사 시험에서 미역국 먹었다.
미역귀부레기: ㉠미역귀. ㉡미역 줄기 밑둥치에 귀처럼 달린 부분.
 0.미역귀부레기를 통졌다. 먹어라.
미영: ㉠무명. ㉡목화에서 뽑은 무명실로 짠 피륙.
 0.미영으로 바지, 저고리를 해 입고 농사 일을 하지.
미와: ㉠미워.
 0.말 잘 안 들으면 미와.
미운털이 백힌다: ㉠미움을 받는다.
 0.미운털이 백히지 않도록 잘 해.

미적지그네하다(미적지그니하다):
 ㉠미적 지근하다. ㉡뒤가 선명하지 않다.
 0.그 일이 뒤가 미적지그네 한 데가 있어.
 미적지그니하다: →미적지그네하다.
미쟁이: ㉠미장이. 미장공. ㉡시멘트벽을 바르는 사람.
 0.미쟁이 기술을 배워야겠는데.
미주아리: ㉠미주알. 향문. 밑구멍.
 0.6.25 전쟁 때 군 노력 동원에 나간 소가 미주아리가 빠져 왔다.
 미지그네하다: →매지그네하다
미추렇다(미출하다. 밀쑥하다): ㉡몸이 호리호리하고 키가 크다.
 0.과가 잘 자라 미추렇다.
 0.늬집 아들인지 미추렇게 잘 생겼다.
 미출하다: →미추렇다.
미치갱이: ㉡미치광이.
 0.정신이 돌면 미치갱이가 되지.
미치미치하다: ㉡미친듯하다.
 0.사람이 미치미치한 게 좀 그래.
미친다: ㉠메친다. ㉡어깨 위로 올려 넘어뜨린다.
 0.너무 세게 미치지 마.
 0.둘러머치나 미치나 매한가지여.
미칠: ㉠머칠.
 0.이 일을 미칠 만에 다 했나?
 미케: →매케.
 ~민: ㉠~며.
 0.올해 장가 간다민.
 0.그 일을 자네가 본다민.
 민경: →맨경.

민구스럽다(밍구스럽다): ㉠송구스럽다.

- ㉡두렵고 거북한 데가 있다.
- 0.말씀 드리기 민구스럽습니다만.
- 0.민구스럽습니다만 딱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다지: ㉠민. ㉡꾸미거나 딸린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 0.민다지 홀몸으로 살려왔단 말이지.

민메누리: ㉠민며느리. ㉡며느리 삼으려고 민머리인 채로 데려다 기르는 계집아이.

- 0.민메누리로 이 집에 와서 가정을 이뤘다.

민미하다(민밋하다): ㉠밍밍하다. 싱겁다.

- 0.나물 간이 좀 민미하다.

민밋하다: →민미하다.

민사무소: →멘사무소.

민생고: ㉡배고픔.

- 0.민생고부터 해결하고 일하지.

~민서: →~문서.

민서기: →멘서기.

민줄댄다: ㉡넌더리 나게 한다.

- 0.그 애가 자꾸 와 민줄댄다.
- 0.민줄대거든 오지 못하게 해.

민화투: ㉡전통적 방식으로 치는 화투.

- 고스뚱의 전 단계.
- 0.심심한데 우리 민화투 치자.

밀갈구(밀갈기): ㉠밀가루. ㉡밀을 빵아 만든 가루.

- 0.밀갈구로 수재비국을 끓여 먹는다.
- 0.6.25 전쟁 땐 밀갈구 포대로 옷을 해 입었다.
- 0.밀갈구 장사하면 바람이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가 온다.(일이 공교롭게도
매번 뒤틀어진다는 말)

밀갈기: →밀갈구.

밀개: ㉠고무래. ㉡편편하게 고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

- 0.모내기 할 논을 밀개로 논을 민다.

밀개졌다: ㉡헛물켰다.

- 0.선거운동 따라다니다 떨어지니 밀개졌다.

밀군다: ㉠미룬다.

- 1.기일을 넘긴다.
- 0.바쁜 일이 있어 날짜를 밀군다.
- 2.일을 넘긴다.
- 0.일을 남에게 밀군다.

밀굽: →똥구녕.

밀귀(밀귀): ㉠미뤄.

- 0.그 때까지 힘들거든 뒤로 밀귀.

밀귀제킨다(밀귀제킨다): ㉠밀어댄다.

- 0.너무 밀귀제끼지 말아. 아프다.

밀귀제킨다: →밀귀제킨다.

밀레장사: ㉠이장. ㉡산소를 옮기는 일.

- 0.그덕 오늘 밀레장사 지낸대.

밀막는다: ㉠가로막는다.

- 0.남의 얘기를 그렇게 밀막고 나서지 말아.

밀망스럽다: ㉠민망스럽다.

- 0.친구가 꾸중을 듣는 것이 밀망스럽더라.

밀쑥하다: →미추렇다.

밀장문(밀창. 밀창문): ㉠미단어.

- ㉡옆으로 밀어 여닫는 방식의 문.
- 0.말소리가 시끄러워 밀장문을 닫는다.



밀적: ㉠밀가루 부침개.

0.비도 오는데 오늘 밀적이나 부쳐먹지.

밀지울: ㉡밀기울. ㉢밀을 뺀 채로 쳐서 남은 찌끼.

0.밀지울은 죽썰서 개 주어라.

0.밀지울을 여물에 넣는다.

밀창: →밀장문.

밀창문: →밀장문.

밀커덩한다: →물커덩한다.

밀퀴: →밀귀.

밀크덩한다: →미끄덩한다.

밧팔시럽다: →미팡스럽다.

밧상스럽다: →미팡스럽다.

밍겐다: ㉣몽겐다.

1.문질러 으깨거나 짓 아간다.

0.담배 꾀초를 구두발로 밧겐다.

2.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룬다.

0.일을 밧게기만 하고 앉아 있다.

밍구스럽다: →민구스럽다.

밍기적댄다: ㉤일을 자꾸 미루는 것.

0.밍기적 대지 말고 얼른 해봐.

0.일을 자꾸 밧기적댄다.

밧구녕: →똥구녕.

밧구영: →똥구녕.

밧두바리(밧둥지): ㉥밧둥치. 밧둥.

0.나무 밧두바리를 끊어.

밧둥지: →밧둥지.

밧천: ㉦불알. 고향.

0.밧천도 없다.(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바(바우레기, 바초레기): ㉧밧줄. 참바.

㉨세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꼰 줄.

0.바를 꼰 때는 어른들 넷이 모여 일하신다.

0.줄다리기를 하려고 긴 바를 가져와 늘어 놓는다.

바각지: ㉩바가지.

1.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그릇.

0.집에서 새는 바각지 들에 나가도 쉰다.(집에서 잘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못한다)

2.터무니 없이 많은 요금이나 물건 값을 치르는 것.

0.바각지를 췌다.(속임수에 걸려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치르거나 어떤 일을 도맡아 책임을 지게 됐다는 말)

3.아내가 남편에게 늘어놓는 불평불만의 소리.

0.아내가 바각지를 굵는다.

4.곡식을 세는 단위

0.감자를 한 바가지 담아온다.

바개미: ㉪바구미. ㉫바구밧과 곤충의 총칭.

0.쌀에 바개미가 났다. 까붙어 내야겠다.

0.보리쌀에도 바개미가 났다.

바개미다(뺧한다): ㉬혹한다. ㉭무엇을

매우 좋아한다.

0.그 사람 노름엔 바개미야.

바구미: ㉠바구니. ㉡대나 짜리 등으로
걸어서 속이 깊숙하도록 만든 그릇.

0.감자를 바구미에 담아 오너라.

~바기: ㉠~배기.

1.나이를 먹은 나이.

0.두 살바기라서 잘 걸어.

2.무엇이 차 있는 것.

0.알바기 도루묵이다.

3.특정한 것을 나타냄.

0.진짜바기다.

0.공짜바기다.

바깥날세(바깥날씨): ㉠바깥 날씨.

㉡밖의 날씨.

0.바깥날세 좀 봐라. 비가 오겠는가.

바깥날씨: →바깥날세.

바깥어른(바깥어른. 바깥을신네):

㉠바깥어른. ㉡바깥양반의 높임말.

0.바깥어른께 여쭙 봤느냐?

바깥어른: →바깥어른.

바깥을신네: →바깥어른.

바깥일: ㉠바깥일.

0.바깥일은 내가 할테니 걱정을 말아요.

바깥쪽: ㉠바깥쪽.

0.인기척이 나서 바깥쪽을 한참 내다
봤다.

바꿈이(방꿈이): ㉠방앗공이. 외손자.

㉡외손자는 친손자에 비해 쓸모없다는
뜻으로 쓰임.

0.외손자를 위하러면 방꿈이를 위하지.

(외손자는 끝내는 핏줄 찾아 자기집

으로 간다는 말)

바파: ㉠바뀌.

0.입장을 한번 바파 생각해 봐.

바파치기: ㉠바뀌치기.

0.산부인과 병원에서 잘 못하여 아기가
바파치기 됐다.

바꾸(바쿠): ㉠바꾸.

1.돌거나 구르게 하기 위하여 둥근 테
모양으로 된 물건.

0.구루마 바쿠에 기름을 쳐야겠다.

2.어떤 돌레를 빙 돌아 본디 위치까지
이르는 횟수를 세는 단위.

0.동네를 한 바쿠 돌았다.

0.운동장을 두 바쿠 빙 돌았다.

바꾸킨다: ㉠바뀌진다.

0.운동화 바꾸킨다. 잘 찾아 신어.

바누질: ㉠바누질. ㉡바늘로 옷을 짓거나
꿰매는 일.

0.어머니 바누질 솜씨가 좋다.

0.바누질 그릇을 이리 가져오너라.

양말을 꿰매야겠다.

바늘: ㉠바늘.

0.어머니께서 큰 바늘로 양말을
꿰매신다.

바늘루 찢러도 피 한 방울 안나온다:

㉠인색하다.

0.그 사람은 바늘루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바늘방석: ㉠앉아 있기 힘든 자리.

0.거기에 앉아 있자니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애.

바다리: ㉠말벌. 왕벌. ㉡말벌과의 벌.

몸은 갈색 털이 나 있고 독침이 강함.
 0.바다리한테 쏘이면 죽는 수가 있어.
바둥거리다(바둥대다): ㉠바둥거리다.
 바둥대다.
 0.바둥거리면 멀 해. 돼가는 대로 살지.
 0.바둥거리려 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야.
 바둥대다: →바둥거리다.
바라질: ㉠산후를 돌보는 일.
 0.친정 엄마가 딸 바라질을 해 줬대.
바람간수: ㉠산후 조리.
 0.산모는 바람간수를 잘 해야 한다.
바람꾼(바람쟁이): ㉠바람 피우는 사람.
 0.그 사람 바람꾼이야.
바람맞았다: ㉠1. 실연 당했다. 중풍 맞았다.
 1. 실연 당했다.
 0.뒷집 총각이 앞집 처녀한테 바람맞았다.
 2. 중풍 맞았다.
 0.고혈압 앓던 뒷집 할머니가 바람맞았다.
 바람쟁이: →바람꾼.
바람절에: ㉠1. 바람절에. 2. 잠깐 사이에.
 1. 바람절에.
 0.바람절에 들은 애긴데 그 사람이
 갔대.
 2. 잠깐 사이에.
 0.청춘이란 바람절에 지나가.
바래질: ㉠바라지. ㉠산후 조리 바라지를
 하는 일.
 0.누가 상후 바래질은 해 줄 사람은 있나?
바란다: ㉠바란다.
 0.못사는 사람은 일은 안하고 도와줄
 때만 바란다.
바루: ㉠바로.

1. 똑바로.
 0.공 좀 바루 차봐.
 2. 즉시.
 0.학교 갔다 놀지 말고 바루 와.
바리: ㉠마리. 소의 짐. ㉠소의 숫자와
 소에다 지키는 짐.
 1. 짐승의 수.
 0.암소가 황송아지 한 마리 낳았다.
 2. 소에다 지키는 짐.
 0.그집 며느리가 살림을 한 마리 신고
 왔다.
바뿌재?: ㉠바뿌지?
 0.요즘 무척 바뿌재?
바사진다: ㉠부서진다.
 0.나이를 먹으니 이가 자꾸 바사진다.
바소가리(바소구리): ㉠소구리. ㉠대나
 짜리로 위는 트이고 밑은 단히게 엮어
 만든 성긴 그릇.
 0.바소가리에 두엄을 담아 논, 밭에
 낸다.
 바소구리: →바소가리.
바숨(바숨, 바시미): ㉠바심. 타작.
 마당질.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는 일.
 0.오늘은 보리 바숨이 하자.
 0.벼 바숨이 할땐 사람을 많이 얻어야
 겠다.
 바숨: →바숨.
 바시미: →바숨.
바야: ㉠방아. ㉠곡식을 찧거나 뺨는 기구.
 0.명절 땐 떡바야 찧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0.가는 년이 보리 바아 찡주고 가나?(갈 때는 뒷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

바우: ㉠바위. ㉡부피가 큰 돌.

0.바우 밑에 가재가 살라고.(역센 사내 하고 사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

0.바우를 차면 제 발만 아프다.(일시 흥분으로 무모한 짓을 하면 자기만 해롭다는 말)

바우레기: →바.

바우짜갑(바우툼바구니. 바우툼새):

㉠바위툼.

0.저 바우짜갑에 뿌리 박고 선 소나무 좀 봐.

바우툼바구니: →바우짜갑.

바우툼새: →바우짜갑.

바운다: ㉠음식을 만든다.

0.제사 음식을 바운다.

0.잔치 음식을 바우느라 야단이다.

바지가다리(바지가달뱅이. 바지가랭이):

㉠바짓가랑이.

0.바지가다리가 너무 좁구나.

바지가달뱅이: →바지가다리.

바지가랭이: →바지가다리.

바지런한: ㉠부지런한.

0.바지런한 사람은 집안이 깨끗하다.

0.바지런한 사람 집은 윤택하다.

바지저고리: ㉠무능력자.

0.그 사람 바지저고리야. 쓸 데가 없어.

바초레기: →바.

바쿠: →바꾸.

바쿤다: ㉠바꾼다.

0.서로 필요한 것을 바꾼다.

박고지(박꼬지): ㉠박. ㉡박과의 한해살이풀.

0.여문 박고지로는 바가지를 만들어 쓴다.

0.올 추석엔 안 여문 박고지를 따다가 박나물을 해야겠다.

박꼬지: →박고지.

박는다: ㉠찍는다.

0.사진을 박는다. 기념이 되게.

박달무: ㉠조선무. ㉡둥글고 단단한 재래의 무를 왜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0.박달무로 채국을 끓이면 왜무보다 더 구수하지.

박죽: ㉠밥주걱. ㉡밥을 푸는 주걱.

0.어머니께서 박죽으로 밥을 푸신다.

0.박죽에 밥풀이 묻었다.

반고개 넘었다: ㉠일을 반 넘게 했다.

0.오늘 일도 반고개 넘었다.

반공일: ㉠토요일.

0.오늘은 반공일이니 일찍 와서 소 먹여라.

반굽다(방굽다): ㉠반갑다. ㉡바라던 일이 성취되거나 그리던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기쁘다.

0.시험에 합격했다니 반굽다.

0.반굽게 만났으니 한잔 하세 그려.

반기: ㉠본 것이.

0.어제 반기 또 보고 싶네.

반다시: ㉠반드시. 꼭.

0.내일 일하러 반다시 와야 해.

반도: ㉠반두. ㉡물고기를 몰아 잡을 수 있게 만든 그물.

0.반도 가지고 천렵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반드름하다(밴드름하다. 뺨드름하다):

㉠뺨드레하다. ㉡실속 없이 외모만 뺨드르르하다.

0.새 옷을 해 입히니 사람 모습이 반드름 하다.

반바이: ㉠반반히. ㉡생김생김이 얇전하고 예쁘다.

0.앞집 아가씨가 반바이 차려 입고 어디로 간다.

반죽이 맞는다(죽이 맞는다): ㉠손발이 맞는다.

0.그 두 사람은 서로 반죽이 맞아.

반지: ㉠본지.

0.그 사람 반지가 꽤 오래 됐지.

반지그릇(반짓그릇): ㉠반질고리.

㉡바느질 그릇.

0.반지그릇에서 바늘과 실을 꺼낸다.

0.반지그릇엔 형형색색의 실과 천이 들어 있다.

반지름하다(번지름하다. 뺨지름하다.

뺨지름 하다): ㉠반지르르하다.

㉡윤기가 반질 반질 난다.

1.윤이 나는 모양.

0.머리결이 반지름하다.

2.겉만 그럴듯한 모양.

0.말만 반지름하다.

반지손가락(반지손가락지. 반지손꼬락.

반지손꾸락): ㉠약손가락. 약지.

㉡엄지손가락에서 넷째 손가락.

0.여자는 그래도 반지손가락에 반지가

하나 끼어 있어야지.

반지손가락지: →반지손가락.

반지손꼬락: →반지손가락.

반지손꾸락: →반지손가락.

반짓그릇: →반지그릇.

반짜가리(반쪼가리): ㉠반쪽.

0.콩 반짜가리도 나누어 먹는다는데.

반쪼가리: →반짜가리.

반탱이(반땡이): ㉠함지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그릇.

0.반탱이에 감자를 가득히 담았다.

반땡이: →반탱이.

반팔: ㉠반소매.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짧은 소매.

0.더워서 반팔 소매를 입고 나셨다.

반평생: ㉠반평생. ㉡평생의 절반.

0.반평생을 살아도 아직 철이 안 들었 다네.

반푸덕(반푸득): ㉠반쫂 마른 고기.

0.오징어는 반푸덕이일 때 제일 맛있다.

0.명태가 반푸덕일 때 조림을 하면 맛이 좋다.

반푸득: →반푸덕.

받어디린다: ㉠받아들인다.

1.돈이나 물건을 받는다.

0.외상값을 받어디린다.

2.받아서 제것으로 한다.

0.문화를 받어디린다.

3.남의 요구를 들어준다.

0.여러 의견을 받어디린다.

4.조직체 구성원이 되게 한다.

0.회원으로 받어디린다.

받채: ㉠받혀. ㉡'받다'의 피동.

0. 소한테 받챘다.

0. 농 밭을 받채라.

발: ㉠통발. ㉡대, 싸리 등으로 통처럼

역어 만든 고기 잡는 도구.

0. 발에 고기가 많이 들었구나.

발가둥이(빨가둥이): ㉠발가숭이.

㉡발가벗긴 아이.

0. 아이 옷을 벗겨 발가둥이가 됐구나.

0. 발가둥이 애를 목욕시킨다.

발고락(발구락. 발꾸락): ㉠발가락. ㉡발

끝에 갈라진 다섯 개의 가락.

0. 발고락도 크고 작다.(일과 사정은 모두 같지 않다는 말)

0. 발고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들어앉아 있다.(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

발광친다: ㉠미친 듯이 날뛰다.

0. 길들이는 소가 몹시 발광친다.

발꾸락: →발고락.

발군다(발쿂다):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한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다.

1.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한다.

0. 철사를 발군다.

2.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다.

0. 틀려 있는 것을 발군다.

발꾸락: →발고락.

발꿈머리(발뒤꿈머리): ㉠발꿈치.

발뒤꿈치. 발뒤축.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 불룩한 부분.

0. 오래 걸었더니 발꿈머리가 아파 온다.

발뒤꿈머리: →발꿈머리.

발락 까졌다(발랑 까졌다): ㉠사람이

너무 약게 논다.

0. 그 아이가 서울 물 좀 먹더니 발락 까졌더라.

발랑 까졌다: →발락 까졌다

발래낸다(발린다): ㉠가려낸다. 골라낸다.

㉡분간하여 추려낸다.

0. 생선 구이에서 뼈를 발래낸다.

0. 갈비에서 살코기를 발래낸다.

발른다: ㉠바른다.

1. 종이나 형겉 따위에 풀칠을 하여 다른 물건에 붙인다.

0. 장지문에 창호지를 발른다.

2. 풀, 도료, 화장품 등을 묻힌다.

0. 얼굴에 분을 발른다.

3. 이긴 흙이나 시멘트를 다른 물체에 붙인다.

0. 벽에 이긴 흙을 발른다.

발린다: →발래낸다.

발모강지(발목쟁이): ㉠발모가지.

㉡발목을 비하해 부르는 말.

0. 새 발모강지가 부러졌다.

발목쟁이: →발모강지.

발바리: ㉠부지런한 사람.

0. 그 사람 발바리야. 무척 부지런해.

발방아: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쪼개 만든 방아.

0. 보리 쪼으러 발방아간에 가자.

0. 발방아 쪼어 먹기 힘이 든다.

발버둥친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우겨댄다.

0. 아이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친다.

0. 아이가 사탕을 사달라고 발버둥친다.

발부리: →기부리.

발싸: ㉞발써.

- 1. 이미, 오래 전에.
- 0. 그 소식은 발싸 들었다.
- 2. 예상보다 빠르게.
- 0. 아이가 발싸 들었다.

~**발을 받는다:** ㉠기운을 받는다. 효과를 받는다.

- 0. 약발을 받는다.
- 0. 곡식이 비료발을 받는다.

발짜구(발짜국): ㉞발자국.

- 0. 새하얀 눈 위에 구두 발짜구가 났다.

발짜국: →발짜구.

발채: ㉞발치.

- 1. 누울 때 발을 뺀 곳.
- 0. 단칸방 발채서 새우잠을 잤다.
- 2. 어떤 곳의 아래 끝부분.
- 0. 사람들 발채서 일을 배웠다.
- 3. 발이 있는 쪽.
- 0. 발채에 시선을 떨구고 걷고 있다.

발쿤다: →발군다.

발툽: ㉞발툽. ㉠발가락 끝을 덮어

- 보호하고 있는 뽕 같은 단단한 물질.
- 0. 발툽이 빠지도록 뛰었다.(있는 힘을 다해 일했다)

밟힌다: ㉞어른거린다.

- 0. 그냥 보낸 아기가 눈에 자꾸 밟힌다.

밤꼬생이: ㉞밤송이.

- 0. 밤꼬생이 가시에 찢릴까 봐 조심스럽게 밤을 줍는다.

밤새곤: ㉞밤새겇. 밤새도록.

- 0. 밤새곤 삼국지를 읽다가 이튿날 학교

가서 잠이 와 혼났다.

밤생이: ㉞밤송이.

- 0. 밤생이는 무척 따가워.

밤손님: →도둑놈.

밤을 팬다: ㉠밤을 샌다.

- 0. 투전꾼들이 투전하느라고 밤을 팬다.

밤중이다: ㉞전혀 모른다.

- 0. 그 일에 대해선 감감한 밤중이다.

밥덩이: ㉞밥 덩이.

- 0. 찌은 밥덩이 하나 얻어 먹었으면 배가 안 고프련만.

밥벌거리: ㉞밥벌레. ㉠식충.

- 1. 손자를 잘 크라고 천하게 부르는 말.
- 0. 우리집 밥벌거리 밥을 잘 먹지.
- 2. 무위도식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 0. 그 사람은 밥벌거리. 식충이야.

밥보재기: ㉞밥보자기.

- 0. 파리 쫓까 봐 밥보재기로 밥을 덮는다.

밥숟가락 놓는다: ㉠죽는다.

- 0. 명이 다해 밥숟가락을 놓는다.

밥심: ㉠밥힘. 밥을 먹어서 나오는 힘.

- 0. 농부는 밥심으로 일한다.

밥쟁이: ㉠밥히는 사람. 식모나 주부를

- 낮추어 부르는 말.
- 0. 밥쟁이를 어디서 하나 구해야겠는데.

밥통이다: ㉠1. 먹고 사는 길. 2. 바보 같은 사람.

- 1. 먹고 사는 길.
- 0. 그직은 그 사람 밥통인걸.
- 2. 바보 같은 사람.

- 0. 그 사람 뭘 잘 모르는 밥통이야. 더는 묻지 마.

밥튀정: ㉠밥투정. ㉡밥을 더 달라거나 싫다고 짜증을 부리는 짓.

0.아기가 왜 자꾸 밥튀정을 한다.

밥티(밥풀떼기): ㉠밥알. ㉡밥의 낱알의 알.

0.불에 붙은 밥티를 떼어먹는다.

0.밥티를 흘리지 말고 먹어라.

밥풀떼기: →밥티.

방간: ㉠방앗간. ㉡방아로 곡식을 찧거나 뿜는 곳.

0.방간에 보리방아 찧러가자.

0.떡을 뿜으러 방간에 간다.

방겐다(방긴다): ㉠반가워 한다.

0.외갓집에 갔더니 외할머니가 무척 방겐다.

방구: ㉠방귀. ㉡배속의 음식이 부패 발효 되면서 생긴 가스가 항문으로 나오는 구린내.

0.방구 편 놈이 성낸다.(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성낸다는 말)

0.방구가 잦으면 똥나오기 쉽다.(무슨 일이나 소문이 잦으면 일어나기 쉽다는 말)

방구리(방굴): ㉠방울. 방울이.

㉡구슬같이 동글동글하게 맺힌 액체 덩어리.

0.비누 방구리 생겼다.

0.비가 한 두 방구리 떨어진다.

방구워한다: ㉠반가워한다.

0.외할머니께서 무척 방구워한다.

방구쟁이: ㉠방귀쟁이.

0.보리밥을 먹으면 방구쟁이가 된다.

방굴: →방구리.

방굽다: →반굽다.

방긴다: →방겐다.

방꽂이: →씨꽂이.

방댕이: →궁뎅이.

방맹이: ㉠방망이. ㉡무엇을 치거나 두드리는데 쓰기 위하여 길고 둥글게 깎아 만든 도구.

0.어머니께서 방맹이로 저고리 옷감을 다듬질 한다.

0.남의 일에 방맹이 든다.(남의 일에 방해를 한다는 말)

방생이: →궁뎅이.

방아다리: ㉠방아깨비. ㉡메뚜기과의 곤충.

0.방아다리 다리를 잡고 있으면 방아를 찧는다.

방애: ㉠방어. ㉡전갱이과의 바닷물고기. 몸은 1m가량이고 방추형임.

0.가을 방애고기는 맛이 있다.

방우: ㉠방위. ㉡동서남북으로 정한 기준.

0.집은 방우를 봐 짓는다.

0.묘자리도 방우를 살핀다.

방축: ㉠방죽. ㉡물을 가두기 위해 막은 둑.

0.이번 홍수에 방축이 터졌다.

방치: ㉠망치. ㉡두드리는 데 쓰는 연장.

0.방치로 못을 박는다.

발떼기(발뻬기): ㉠발뻬기. ㉡발의 한 구획.

0.변변한 발떼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0.산비탈 발떼기엔 고라니가 들어서 못 쓰겠다.

발뻬기: →발떼기.

배: ㉠벼. ㉡벧과의 한해살이풀.

0.올해 배농사가 잘 됐다.

0.태풍에 배가 쓰러졌다.

배가 맞는다: ㉠마음이 맞는다.

0.배가 맞는 사람 하나 맞춰 가지고 와.

0.배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기가 쉽다.

배가 고푸다: ㉠배가 고푸다.

0.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푸다.

배구레{배꾸레}: ㉠배 들레.

0.소 배구레가 부른 걸 보니 잘 먹었군.

배갈: ㉠바갈.

0.배갈에 누가 왔나 보다. 인기척이 난다.

배갈사둔(배꺄사둔): ㉠바갈사둔. ㉡남자

사둔을 일컫음.

0.배갈사둔은 다 무고하시냐?

배꺄양반(배꺄양반): ㉠남편. 바꺄양반

0.우리 배꺄양반은 일을 잘 한다.

배꺄일(배꺄일): ㉠바꺄일. ㉡밖의 일.

0.배꺄일은 주로 남자들이 하지며.

배꺄사둔: →배꺄사둔.

배꺄양반: →배꺄양반.

배꺄일: →배꺄일.

배꺄진다(버꺄진다): ㉠벗겨진다.

0.바람에 쓴 모자가 배꺄진다.

배꺄 꺄는다(배꺄 꺄진다. 배꺄 꺄는다.

허리 꺄는다): ㉠몹시 웃는다.

0.얘기하는 것이 하도 우스워 배꺄 꺄는다.

배꺄 꺄인다: →배꺄 꺄는다.

배꺄레: →배꺄레.

배꺄 꺄는다: →배꺄 꺄는다

배꺄다(꺄꺄다. 꺄꺄다): ㉠벗꺄다.

1.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한다.

0.신부 면사포를 배꺄다.

0.신비를 배꺄다.

2.누명 따위에서 벗어나게 한다.

0.혐의를 배꺄다.

0.누명을 배꺄다.

3.꺄꺄이나 가죽을 떼어낸다.

0.양과 꺄꺄을 배꺄다.

4.붙은 것을 꺄어낸다.

0.때를 배꺄다.

0.칠한 것을 배꺄꺄다.

5.썩우거나 덮었던 것을 꺄어낸다.

0.김치 뚜껑을 배꺄다.

6.입은 옷을 벗게 한다.

0.아이 옷을 배꺄다.

0.양말을 배꺄다.

7.잠긴 것을 열리게 한다.

0.빗장문을 배꺄다.

0.자물쇠를 배꺄다.

8.복사한다.

0.공책을 배꺄다.

0.숙제를 배꺄다.

배꺄빙신: ㉠배꺄빙신. ㉡태어날 때부터

성하지 않은 사람.

0.그 애는 원래 배꺄빙신이야.

배꺄가지(꺄꺄지. 꺄꺄가지. 꺄꺄지):

㉠꺄꺄지. 종기. ㉡꺄꺄하게 부어오른 작은 부스럼.

0.목덜미에 배꺄꺄가지가 난기 자꾸 아파.

배꺄미: ㉠꺄꺄성돔. ㉡꺄꺄성돔과의

바닷물고기.

0. 오늘 배드미 낚시 가세.

0. 배드미 귀 먹으면 맛 좋지.

배떼기(배띠기. 배지): ㉠배. ㉡배를

속되게 부르는 말.

0. 제 배떼기가 부르면 남의 배 고프 줄 모른다.(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남의 사정을 모른다)

배똥덩이(배불독이. 배불띠기):

㉠배불뚝이. ㉡배 똥똥이.

0. 먹고 놀기만 하면 배똥덩이가 되지.

배띠기: →배떼기.

배락: ㉠벼락.

1. 공중의 전기와 땅 위의 물체 사이에 방전하는 현상.

0. 배락치는데 우산들고 나서지 마.

2. 몹시 호된 꾸지람을 비유하는 말.

0. 배락같은 불호령이 내렸다.

3. 몹시 다름의 비유.

0. 배락 맞을 소리.(천벌 받아 마땅할 만큼 당찮은 소리)

0. 배락치는 하늘도 속인다.(속이려면 못 속일 것이 없다는 뜻)

배락같이(백락같이): ㉠벼락같이.

벽력같이.

0. 큰할아버지께서 배락같이 고향을 지르신다. 화가 나신 모양이다.

배란간: ㉠별안간. 갑자기.

0. 날이 흐리더니 배란간 소나기가 쏟아진다.

배란박(배람박. 배람 짹. 배람 짹):

배름박. 배름 짹. 배름 짹): ㉠바람벽.

㉡방을 둘러막은 둘레의 벽.

0. 배란박에 쓴 거미줄을 걷어낸다.

0. 배란박을 바른다.

배람박: →배란박.

배람 짹: →배란박.

배람 짹: →배란박.

배래: ㉠벼래.

0. 굽벙이 파먹은 감자는 배래.

배래기(배룩): ㉠벼룩. ㉡벼룩과의 기생 곤충.

0. 배래기도 낫짜이 있다.(너무도 뻥뻥스럽 다는 말)

0. 배래기 부랄만 하다.(아주 작다는 말)

0. 배래기 간을 내어 먹는다.(하는 짓이 몹시 잘거나 인색하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뜯어낸다는 말)

배래먹는: ㉠빌어먹는.

0. 배래먹는 처지에 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다.

배루: ㉠벼루. ㉡먹을 가는 기구.

0. 배루에 먹을 갈 때는 새심을 들이고 글씨를 쓸 때는 쇠심을 들여라.

배룩: →배래기.

배룩시장: ㉠벼룩시장. ㉡온갖 중고품을 팔고 사는 만물 시장.

0. 여기에 배룩시장이 어디 있소?

배른다(벌른다): ㉠벼른다.

0. 배르는 토끼 재 못 넘는다.(벼르기만 하다보면 성사되기 쉽지 않다는 말)

배름박: →배란박.

배름 짹: →배란박.

배름 짹: →배란박.

배멀미: ㉠뱃멀미. ㉡배를 닦을 때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는 것.

0. 배멀미 나면 감당을 못하지.

배미: ㉠뱀. ㉡파충류 뱀목의 척추동물
총칭.

0. 배미 본 까치 짓어대듯.(뱀을 본
까치가 야단스럽게 짓어대듯 몹시
시끄럽게 떠드는 모양)

배불독이: →배똥덩이.

배불띠기: →배똥덩이.

배슬(배실): ㉠벼슬. ㉡1. 날짐승 벗.
2. 사회적 지위.

1. 날짐승 벗.

0. 암탉 배슬이 발갛게 되는 것을 보니
이제 알을 낳겠다.

2. 사회적 지위.

0. 아전도 배슬이라고 설친다.

배시시(뻘시시): ㉠살짝.

0. 아이가 혼자 일어나 배시시 문을 열고
나온다.

배실: →배슬.

배씩: ㉠바씩.

1. 물기가 마르거나 타버리는 모양.

0. 나뭇가지가 배씩 말랐다.

2. 아주 가까이 달라 붙거나 우기는 모양.

0. 배씩 껴안는다.

3. 몹시 긴장하거나 힘을 주는 모양.

0. 어깨를 배씩 움추린다.

4. 갑자기 늘거나 주는 모양.

0. 눈에 물이 배씩 줄었다.

5. 몸이 매우 마른 모양.

0. 병치레 하느라 몸이 배씩 야위었다.

배아서(배와서): ㉠'배우다.' '배워서.'에서

온 말.

0. 열심히 배아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0. 배아서 남 주냐? 내게 다 좋지.

배와서: →배아서.

배지: →배떼기.

배 지내간 자리: ㉠흔적 없다.

0. 배 서리 해 가면 배 지나간 자리지며.

배차: ㉠배추.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0. 배차를 다듬는다.

0. 배차 한 접을 김치 담근다.

배차쌈: ㉠배추쌈.

0. 배차쌈은 큼직한 게 좋다.

배차짚지: ㉠배추짚지.

0. 배차짚지는 두었다가 봄철 나면 무쳐
먹어야겠다.

배추잎사구(배추잎파구. 배추잎파리):
㉠만원권.

0. 투전판에 배추잎사구가 펠럭인다.

배추잎파구: →배추잎사구.

배추잎파리: →배추잎사구.

배추김치: ㉠배추김치.

0. 가을엔 배추김치를 많이 담근다.

배튼다: ㉠뻘는다.

0. 나물 먹다 즐거리를 배튼다.

백게: ㉠뱃게. ㉡1. 바깥에. 2. 그것 외에

1. 바깥에.

0. 백에 누가 왔나 보다.

0. 백에 누가 있소?

2. 그것 외에.

0. 사탕이 두 개 백게 없어.

백낮에: ㉠대낮에. 한낮에.

0. 백낮에 술을 마시다니. 어지간하군.

백노지: ㉠갱지.

0. 백노지를 잘라 책을 맨다.

백락같이: →배락같이.

백말 궁뎅이나 흰말 궁뎅이나

매한가지다: ㉠서로 다를 것이 없다.

0. 백말 궁뎅이나 흰말 궁뎅이나 그게
그거지 며.

백목: ㉠백목. 분필.

0. 선생님들은 백목가루를 먹고 산다.

백살기: ㉠백설기. ㉠쌀가루를 시루에 찐
떡.

0. 백설기를 자꾸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난다.

백여우(백여시. 백영갱이): ㉠간사한
여자.

0. 그 여자 백여울세.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

백여시: →백여우.

백영갱이: →백여우.

백인다: ㉠박힌다.

0. 흥시가 떨어지니 흥시에 모래가 백인다.

백장: ㉠백정. ㉠짐승을 잡는 사람.

0. 소 백장이 사람 잡는다.(백정질 하던
사람이 서툰 솜씨로 사람을 치료하다
잡는다는 말)

백주대낮: ㉠대낮.

0. 글세. 백주대낮에 도둑이 들었대.

백지왓: ㉠인산인해.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모인 모양.

0. 양양 삼일운동 때 장관에 태극기를 든
사람이 백지왓이엇대.

백호야 한다: ㉠아니라고 딱 잡아땀다.

0. 물건을 가져갔는데 아니라고 백호야
한다.

0. 돈을 꾸 갔는데 아니라고 백호야
한다.

백힌다: ㉠박힌다. ㉠박힘을 당한다.

0. 벽에 옷걸이 못이 백힌다.

0. 물방울 무늬가 점점이 백힌 천이다.

밴덕: ㉠변덕. ㉠이랬다저랬다 잘 변하는
성질이나 태도.

0. 밴덕이 죽 꿇듯 한다.(변덕을 심하게
부린다는 말)

밴두리: ㉠변두리. ㉠중심이 아니고
가장자리가 되는 것.

0. 언덕 밴두리에 밭이 있다.

밴드름하다: →반드름하다.

밴명: ㉠변명.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그
까닭을 말함.

0. 구구한 밴명을 늘어놓지 말고 진실을
말해 봐.

밴밴하다: ㉠반반하다.

1. 바닥이 고르고 반듯하다.

0. 길바닥이 밴밴하다.

2. 생김생김이 얌전하고 예쁘장하다.

0. 얼굴이 밴밴하다.

3. 물건이 제법 쓸만하고 보기에 좋다.

0. 밴밴한 옷 한 벌이 있다.

4. 지체가 상당하다.

0. 어느 모로 보나 밴밴한 집안이다.

밴지름하다: ㉠반지르르하다. ㉠매끄럽고
윤이 나는 모양.

1. 윤기가 난다.

0. 머릿결이 밴지름하다.

2.말이 그럴 듯하다.

0.말은 뻔지름하게 잘 하지.

뻔질거린다: ㉠뻔질거린다.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

0.일은 하지않고 뻔질거린다.

뻔질뻔질하다(뻔질뻔질하다): ㉠반질반질하다. 뻔질뻔질하다.

0.마루 바닥이 얼마나 잘 닦았는지 뻔질뻔질하다. :

뻔갈다: ㉠뻔갈다.

0.사과가 이제 뻔겉게 익어간다.

뻔거서부터: ㉡어려서부터.

0.불알이 뻔거서부터 같이 컸는데...

뻔꺼(뻔꺼): ㉠뻔 것. ㉡색다른 것.

0.뻔꺼 아니야.

0.장에 가면 뻔꺼뻔꺼 다 있어.

뻔른다: →뻔른다.

뻔명: ㉠뻔명.

0.사람 뻔명을 자꾸 지어 부르지 마.

뻔을 지른다(염장을 지른다): ㉡화나게 한다.

0.쓸데없이 남의 뻔을 지른다.

뻔이 꼬인다(뻔이 난다): ㉡마음에 들지 않아 심사가 몹시 뒤틀림을 이르는 말.

0.사춘이 논 사면 뻔이 꼬인다.

0.뻔이 꼬이거든 논을 사.

뻔이 난다: →뻔이 꼬인다.

뻔창지머리: ㉠'뻔 창자.'에서 온 말.

㉡마음 씹씹이.

0.뻔창지머리가 고약해.

0.뻔창지머리를 잘 써야 해.

뻔장우: ㉠뻔장어. ㉡참장어과의 민물고기.

민물에 살다가 바다에 나가 실란함.

0.민물 뻔장우 한 마리 먹었으면 기운이 부족 나겠다.

뻔대기: ㉠뻔때기. ㉡뻔의 속어.

0.뻔대기 철관 깔았나? 세계 나오네.

뻔밑콩: ㉡밥을 하기 위하여 쌀을 얹힐 때 밑에 까는 콩.

0.뻔밑콩 누룽지가 더 맛있다.

뻔살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굳은 상태.

0.체했나? 뻔살이 쫄쫄해 온다.

뻔장 틀려서(숫장틀려서): ㉡마음이 뒤틀려서.

0.나 원 참. 뻔장 틀려서 못 견디겠네.

버강지(보강지. 아궁지): ㉠아궁이.

0.버강지에 군불을 지펴라.

0.버강지 불에다 감자를 구워 먹는다.

버께진다: →뻔께진다.

버당: ㉠버덩. ㉡평평한 들.

0.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버당에 나가 소를 먹인다.

버들갱이(버들기): ㉠버들치. ㉡잉엇과의 민물고기.

0.넷가에 버들갱이 잡으러 가자.

0.버들갱이는 일급수 냇물에 산다.

버들기: →버들갱이.

버들껍거린다(퍼들껍거린다):

㉡발버둥질 친다.

0.송아지가 누워서 버들껍거린다.

버들군다(뻔들군다. 뻔들군다.

뻔들군다. 뻔들군다): ㉠바로 잡는다.

㉡굽은 것을 뻔드러지게 한다.

0.굽은 철사를 버들군다.

버래기(버랭이. 베랭이): ㉡그릇 등을

담는 큰 질그릇.

0. 버레기에다 작은 그릇을 모두 담아라.

0. 버레기 설거지물을 두엄 밭에 버린다.

버렸다(베렸다): ㉠버리다. '버렸다.'에서 온 말.

1. 쓰지 못할 것을 버렸다.

0. 쓰레기를 버렸다.

2. 관계를 끊고 돌보지 않았다.

0. 가정을 버렸다.

3. 떠나다. 등지다.

0. 속세를 버렸다.

4.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0. 혹사하여 몸을 버렸다.

5. 체념하고 포기했다.

0. 희망을 버렸다.

6. 동작을 끝냄을 나타낸다.

0. 먹어 버렸다

0. 돈을 다 써 버렸다.

버랭이: →버레기.

버르쟁머리(버르쟁이. 버릇대기.

버리떼기. 버리띠기): ㉠버르쟁머리.

㉡버릇을 속되게 이르는 말.

0. 버르쟁머리 없이 그 게 무슨 짓이나?

버르쟁이: →버르쟁머리.

버릇대기: →버르쟁머리.

버리떼기: →버르쟁머리.

버리띠기: →버르쟁머리.

버버리(병치. 애배): ㉠병어리. ㉡청각과

언어능력을 앓은 사람.

0. 버버리 냉가슴 앓듯 한다.(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고 걱정함)

0. 버버리 속은 어미도 모른다.(설명을 듣지 않고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버버리장갑: ㉠병어리장갑.

㉡엄지손가락만 가르고 나머지는 한데 들어가도록 만든 장갑.

0. 유치원 아이는 버버리장갑이 좋아.

버섭(버썩): ㉠버섯. ㉡포자로 번식하는 고등균류의 총칭.

0. 버섭은 독이 있는 것도 있다.

버썩: →버섭

버즘: ㉠버짐. ㉡백선균에 의해 일어나는 피부병.

0. 버즘 옮을라. 가까이 오지 마.

버푸래기(버풀. 부푸래기): ㉡천이 넓어 부풀어 오른 실가지.

0. 장갑이 떨어져 버푸래기가 난다.

0. 썰매 타지마, 바지 궁둥이에 버푸래기 난다.

버풀: →버푸래기.

벽(정재. 정지): ㉠부엌.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밥을 짓거나 음식을 만드는 곳.

0. 벽에 가면 더 먹을까, 방에 가면 더

먹을까.(어느쪽이 더 나올까 하여

망설이는 모양을 비유하는 말)

벽데기(벽디기. 부엌데기): ㉠부엌데기.

㉡식모를 닳추어 부르는 말. ㉢부엌일을 맡아하는 여자,

0. 엄마가 너무 힘들어 벽데기 한 사람 구해야겠다.

0. 밥을 얻어먹기 위해 벽데기 하러 간다.

벽디기: →벽데기.

벽벽거린다(뽀뽀거린다): ㉸큰소리로 주장 한다.

0.그렇게 벽벽거리지만 말고 차분히 얘기 해봐.

벽아구리(벽아궁지): ㉸부엌 아궁이.

0.벽아구리에서 연기가 나온다.

벽아궁지: →벽아구리.

번더지(번디기): ㉸번데기.

㉸완전변태하는 곤충류의 변태 전 상태.

0.누에고치 번더지는 맛이 좋다.

번덕질: ㉸펴 바르는 것.

0.누에가 고치 지으려고 번덕질 한다.

0.모내기 하려고 씨레로 논바닥을 번덕질 한다.

번맹이질 친다: ㉸발버둥 친다. 몸부림 친다.

0.아가가 사탕 안 사준다고 번맹이질 친다.

번버이: ㉸번번히. 매번.

0.번버이 지각을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번지름하다: →반지름하다.

번지수 잘못 짚었다: ㉸잘못 알았다.

0.번지수 잘못 짚었어. 다시 알아봐.

~벌(~뽀): ㉸항렬. 촌수.

0.너한테는 숙부 벌이 된다.

0.형 벌이 된다.

벌거지(벌격지. 벌기): ㉸버러지. 벌레.

㉸곤충이나 기생충 따위의 하등동물의 총칭.

0.벌거지도 밟으면 꿈틀한다.(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건드리면 성을 낸다는 말)

0.벌거지 먹은 배춧잎 같다.(얼굴에 검버섯이나 기미가 많이 난 모양을 이르는 말)

벌격지: →벌거지.

벌건 대낮: ㉸한낮.

0.벌건 대낮부터 술이야?

벌게: ㉸벌겉게 달았어.

0.부(불)젓가락이 달아서 벌게.

0.난로가 달아서 벌게.

벌기: →벌거지.

벌력거린다: ㉸벌렁거린다. ㉸몸의 일부가 재빠르고 크게 움직이는 모양.

0.급한 일을 당하여 가슴이 벌력거린다.

벌적스럽다(벌쩍스럽다): ㉸분에 넘치고 요란스럽게 화려하다.

0.웃이 너무 벌적스럽다.

0.너무 벌적스럽게 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해.

벌쩍스럽다: →벌적스럽다.

법세기친다: ㉸법석친다. ㉸여럿이

어수선하게 떠드는 모양.

0.잔치집인가? 여러 사람이 모여 법세기 친다.

빙그렇게(봉그렇게. 봉그렇게):

㉸봉긋하게.

0.빵이 빙그렇게 솟아 올랐다.

0.비누 방울이 빙그렇게 솟아 올랐다.

빙치: →버버리.

빙투마리: ㉸끝이 뭉툭한 모양.

0.깃줄 끝을 빙투마리지게 해. 그래야 잡고 당기기 좋아.

베: ㉸벼. ㉸벧과 벼속의 한해살이풀.

겉질을 까면 쌀이 나온다.

0.오늘은 베 타작을 한다.

0.베 방아를 찧으러 간다.

베갯마구리(벼갯마구리): ㉠베갯모.

㉡베개의 양 끝에 대는 꾸밈새.

0.베갯마구리에 황새 수가 놓여져 있다.
장수하라고...

베갯잇기(벼갯잇기): ㉠베갯잇. ㉡베개의

겉을 덧씨는 형꼴.

0.어머니께서 베갯잇기를 시치신다.

베라벨(베라벨끼, 벨끼벨끼, 벨벨끼):

㉠별의 별. 온갖 것.

0.베라벨 소릴 다 하는군.

0.장에 가면 베라벨 물건이 다 있다.

베라벨끼: →베라벨.

베락감투: ㉠벼락감투. ㉡자격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얻은 벼슬.

0.베락감투는 오래 가지 못한다지?

베락공부: ㉠벼락공부. ㉡시험 때가

되어서야 갑자기 서둘러 하는 공부.

0.베락공부도 안 하는 사람보단 하는
사람이 낫다.

베락령(불호령): ㉠벼락 같은 령. 갑자기

엄한 령을 내리는 것.

0.그런 일을 하면 할아버지께서

베락령을 내린다.

베락출세: ㉠벼락출세. ㉡미미하던 사람이

갑자기 출세하는 것.

0.베락출세 할 길이 어디 있다던가?

베랑: ㉠벼랑. ㉡낭떠러지의 험하고

가파른 언덕.

0.소 물고 갈 땐 베랑을 조심해야 한다.

베랑 끝에 몰린다: ㉠막바지에 몰린다.

0.장사가 안되어 베랑 끝에 몰린적이
있지.

베랬다: →벼랬다.

베랭이: →벼랭이.

베린다: ㉠벼린다. ㉡당금질을 한다.

0.낮을 베리러 대장간에 갔다.

0.쇠는 베래야 강해진다.

베보자(베보재기): ㉠삼베 보자기.

0.베보자 이리 가져온. 떡시루에 덮자.

베보재기: →베보자.

베씨: ㉠벼씨.

0.오늘은 베씨를 담귀야겠다.

베아리(벵아리): ㉠병아리.

0.암탉이 베아리를 깐다.

0.베아리가 귀엽다.

베알갱이: ㉠벼 알갱이.

0.바심이할 때 베알갱이 한 톨이라도
알뜰히 거둬들여야지.

베잘구(베잘그, 베잘기): ㉠삼베자루. 벼
자루.

1.삼베자루.

0.베잘구에다 다린 한약을 넣어 찐다.

2.벼 자루.

0.베잘구를 실어라. 벼 방아 찧으러 가자.

베잘그: →베잘구.

베잘기: →베잘구.

베잡다: ㉠비좁다.

0.좁은 방에 여럿이 자니 늘 베잡다

베킨다(보킨다, 뵈인다, 뵈킨다,

옛뵈킨다): ㉠보인다. 옛보인다.

0.상처를 의사한테 베킨다.

0.맞선을 베킨다.
백: ㉠백.
 0.백에다 금 굿지 마.
 0.백에다 진흙을 바른다.
백걸이: ㉠백걸이.
 0.아버지께서 백걸이에 옷을 거신다.
백돌: ㉠백돌.
 0.백돌을 잘 쌓아야 벽이 튼튼하다.
백시계: ㉠백시계. 벽에 거는 시계.
 0.백시계가 멈췄다. 밥 줘라.(태엽을 감아라)
백장: ㉠백장. ㉠벽을 뚫고 낸 불박이장.
 0.백장에 접어둔 옷을 꺼낸다.
백지: ㉠1.벽지. 2.백지. 3.벽촌.
 1.벽지.
 0.벽에 백지를 새로 바른다.
 2.백지.
 0.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다.(일을 협력하면 수월하다는 말)
 3.벽촌.
 0.백지에 발령이 났다면서. 다니기 힘들겠다.
백창우(백창호): ㉠1.벽창호. 2.귀머거리.
 1.벽창호.
 0.그 사람 고집불통 백창우야.
 2.귀머거리.
 0.귀가 백창우야. 아무것도 못 들어.
 백창호: →백창우.
백촌: ㉠백촌. ㉠외진 곳에 있는 마을.
 0.백촌 사람들은 순박해서 좋다.
벤경: ㉠벤경. ㉠이미 정해진 것을 다르게 바꾸어 새로 고침.

0.그렇게 자주 벤경 시키면 혼란스러워지는데...
벤덕꾸러니(벤덕쟁이): ㉠벤덕꾸러기.
 벤덕 쟁이.
 0.그 사람 벤덕꾸러기야. 믿지 못해.
 벤덕쟁이: →벤덕꾸러니.
벤방: ㉠벤방. ㉠가장자리 되는 쪽.
 0.나라는 벤방을 잘 지켜야 한다.
 벤소간: →뒤간.
벤심(벤질): ㉠벤심. ㉠마음이 변함.
 0.우리는 벤심 말자. 굳은 약속을 했지.
벤자리: ㉠벤자리.
 0.의자 벤자리에 차례로 앉는다.
 벤질: →벤심.
벤죽: ㉠벤죽. 가장자리.
 0.어디가서 벤죽에 앉지마라.
벤집: ㉠벤집.
 0.농촌에는 벤집이 많이 생긴다.
벤틈(벤틈바구): ㉠벤틈.
 0.돌담 벤틈에 돌을 끼운다.
 벤틈바구: →벤틈.
벨: ㉠벨. ㉠태양, 지구, 달을 제외한 천체.
 0.장성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벨 따기다.
벨그: ㉠벨 것.
 0.벨그 가지고 다 그러네.
벨꼬라지(벨꼬락서니, 벨꼴): ㉠벨꼴.
 ㉠남의 눈에 거슬러 보이는 꼴.
 0.벨꼬라지야. 눈 뜨고 못 봐주겠네.
 벨꼬락서니: →벨꼬라지
 벨꼴: →벨꼬라지.
 벨끼벨끼: →베라벨.

벨나게: ㉠벨나게. ㉡보통 것과 크게 다르게.

0. 이 감자는 벨나게 크다.

벨로(벨루, 벨반): ㉠벨로. ㉡대단치 않게.

0. 그건 뭐 벨로 다를 게 없는데.

0. 머 소문만 야단스럽게 냈지 직접 보니 벨로다.

벨루: →벨로.

벨말씀: ㉠벨말씀.

0. 벨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벨반: →벨로.

벨벨까: →베라벨.

벨사람: ㉠벨사람. ㉡별난 사람.

0. 벨사람 다 보겠네. 안 그래도 괜찮아.

벨생각: ㉠벨생각. ㉡별다른 생각.

0. 벨생각을 다 하십니다.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

벨소리: ㉠벨소리. ㉡별다른 소리.

쓸데없는 소리.

0. 개평 좀 주라. 벨소리 다 하시네.

벨 일: ㉠벨 일.

0. 요즈음 벨일 없지?

벨종: ㉠벨종. ㉡1. 별다른 사람. 2. 특별한 종류.

1. 별다른 사람.

0. 그 사람 벨종이야. 믿어도 돼.

2. 별다른 종.

0. 설악산에서 벨종 야생화가 발견 됐대.

벨호: ㉠벨호. 별명.

0. 그 사람 벨호가 머더라.

벵씨: ㉠벵씨. ㉡씨 벵.

0. 오늘은 벵씨 담그는 날이다.

벵긴다: ㉠벵긴다.

0. 아이의 젖은 옷을 벵긴다.

벵단: ㉠벵단.

0. 벵단이 말랐더라. 저 들어야겠다.

벵짚: ㉠벵짚. ㉡벼이삭을 떨어낸 줄기.

0. 벵짚을 추려서 새끼를 끈다.

0. 벵짚은 겨울철 소 간식거리가 된다.

벵: ㉡1. 아픈 병. 2. 빈 병.

1. 아픈 병.

0. 강아지가 벵이 나서 밥을 안 먹는다.

2. 빈 병.

0. 빈 벵을 들고 옛 바퀴 먹으러 간다.

벵각: ㉠벵각. 벵자.

0. 그 사람은 요즘 벵각이야. 영 기운을 못 차려.

벵나발: ㉠벵나발. ㉡병을 들고 나발 불듯이 안의 것을 먹는 일.

0. 벵나발 불지마. 위가 고생 해.

벵신: ㉠벵신.

0. 벵신 육갑한다.(벵신이 하는 짓을 비하해 하는 말)

벵아리: →베아리.

벵원: ㉠벵원.

0. 옛날에는 벵원이란 문턱도 몰랐다.

(벵원에 다닐 형편이 안되어 병원에 다닐 생각도 못 했다는 말)

벵치레: ㉠벵치레. ㉡병을 앓아 치러내는 일.

0. 환자가 있으면 벵치레 하는 일이 그리 쉽나?

벵투개비(벵투바리, 벵투생이, 벵똥치.

병몽태기: ㉠병주머니. ㉡갖가지 병이 많은 사람을 비유한 말,
0. 늙으니 병투개비가 되네.

병투바리: →병투개비.

병투생이: →병투개비.

병풍(평풍. 평풍): ㉠병풍. ㉡바람을 막거나 무엇을 가리기 위해 방에 치는 장식용 가구.

0. 병풍을 쳐서 외풍을 가린다.

0. 병풍을 쳐서 방안의 격식을 갖춘다.

벨: ㉠벨.

0. 한낮에 벨이 어찌나 뜨거운지 꼼짝 못하고 있었어.

벼개(비개): ㉠베개. ㉡자거나 누울 때에 머리에 괴는 물건.

0. 벼개를 고인다.

0. 벼개를 높으게 벤다.(안심하고 태평스럽 게 지낸다)

벼갯마구리: →베갯마구리.

벼갯잇기: →베갯잇기.

벼름박: →베람박.

벼꺼: →벨꺼.

벼로다: →벨루다.

벼루다: →벨루다

별진잘숙: ㉡절름발이가 걷는 모양을 이르는 말.

0. 절름발이가 별진잘숙 걸어온다.

병따까리(병뚜껑. 병뚜껑): ㉠병마개.

㉡병의 아가리를 막는 마개.

0. 병따까리를 연다.

별짜리: ㉠1. 장성급. 2. 전과자.

1. 장성급.

0. 그집 아들이 장성급 별짜리아.

2. 전과자.

0.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 별짜리아.

병뚜껑: →병따까리.

병뚜껑: →병따까리.

병몽치: →병투개비.

병몽태기: →병투개비.

보강지: →벼강지.

보게는: ㉡보기에는.

0. 보게는 사람이 괜찮던데...

보낸갑다: ㉡보낸 것 같다.

0. 그 집에서 빌려 온 그릇을 보낸갑다.

보느라문: ㉡보다 보면.

0. 환자를 보느라문 나올 때가 있겠지.

보담도: ㉠보다도.

0. 죽는 거 보담도 기절하는 게 낫지.

보대기(보두기. 보디기): ㉠보드기. 잔술.

㉡작은 소나무.

0. 6.25 전쟁 때는 땀감이 없어 보대기 까지 다 찍어다 뺐지.

보덜 말아(보들 말어): ㉡보질 말아.

0. 눈꼴이 사납거든 아예 보덜 말아.

0. 소문이 두렵거든 새서방을 보덜 말아.

보두기: →보대기.

보드럽다: ㉠부드럽다.

1. 거칠거나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0. 옷감이 매우 보드럽다.

2. 성질이나 태도가 곱고 순하다.

0. 그 사람 성질이 보드러워.

3. 움직임이 유연하다.

0. 동작이 매우 보드럽다.

보들 말어: →보덜 말아.

보디기: →보대기.

보리개떡: ㉠보리등겨로 만든 떡.

0.보리개떡은 맛이 없다.

0.이 건 보리개떡이다.(보잘 것 없다는 말)

보리등개: ㉠보리 등겨.

0.보리등개로 보리개떡을 만들지.

보리문뎡이(보리문딩이): ㉠경상도

사람을 지칭하거나 친밀감을 표시할 때 쓰는 말.

0.저 사람은 보리 문뎡이야.

보리문딩이: →보리문뎡이.

보리바아: ㉠보리 방아. 성교.

1.보리방아.

0.가는 년이 보리바아 짚어주고 가나?
(가는 년이 때 거리를 만들어 놓고 가느냐?'를 이르는 말)

2.성교.

0.가는 년이 보리바아 짚어주나?(‘가는 년이 성교를 해주나?’를 이르는 말)

보리장나무: ㉠보리수나무. ㉠보리수

나뭇과의 낙엽 활엽 관목.

0.보리장나무에 보리장이 역수로 달렸어.

보리해등: ㉠뚝. ㉠갈조류의 해조. 뿌리는

나뭇가지 모양. 줄기는 원주형임.

0.바닷가에 보리해등 따러 가자.

0.보리해등을 무쳐 먹으면 바다향이 난다.

보명개: ㉠갯가나 하천가에 쌓인 보드라운 흙.

0.보명개 흙에는 고구마가 잘 된다.

보문서: ㉠보면서.

0.늘 보문서 뭘 그래.

0.눈팔지 말고 앞을 보문서 길을 가거라.

보생이(뽕생이): ㉠깨를 볶아서 빵은 고명.

0.보생이를 닦는다.

0.보생이를 반찬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난다.

보선: ㉠버선.

0.보선을 신으면 고무신을 신어야지.

보섭(보섭날): ㉠보습. ㉠쟁기에 맞추는 삼각형의 솥조각.

0.보섭을 가대기(밭을 가는 농기구)에 끼운다. 밭을 갈려나 보다.

보섭날: →보섭.

보쌈개: ㉠보쌈.

1.귀한 집 딸이 남편을 둘 이상 뒤야 할 팔자일 때 팔자땀을 시키려고 밤에 남의 남자를 보자기에 싸서 업어다가 딸과 재운 뒤 죽이던 일.

0.뒷집 머슴이 간밤에 보쌈에 잡혀갔다.

2.가난하여 혼기를 놓친 총각이 과부를 몰래 보에 싸서 데려와 아내로 삼던 일.

0.옆집 과부가 간밤에 보쌈에 업혀 갔대.

보양탕: ㉠보신탕. 개장국. ㉠개고기를 고아 끓인 국.

0.예전엔 먹을 것이 부족해서인지 보양탕을 많이 먹었지.

보예쥐: ㉠보여쥐.

0.숙제 좀 보예쥐.

보재기: ㉠보자기. ㉠물건을 싸는 작은 보.

0.책을 보재기에 싸가지고 학교에 간다.

0.떡을 삼배 보재기로 덮어라.
보케줘: ㉠보여줘.
 0.성적표 좀 보케줘.
 보킨다: →베킨다.
보탕이: ㉠보통이. ㉠물건을 보에 싸서
 꾸러놓은 덩이.
 0.야, 그 천 보탕이 이리 가져오너라.
 바지 떨어진 데를 꿰매자.
보플: ㉠보풀. 보푸라기. ㉠보풀의 날개.
 0.장난치지 마라. 옷에 보플이 난다.
보햇집: ㉠보화전. 포목전.
 0.보혜집에 들러 누나 혼수를 꿴다.
복대림(복때리미, 복때림): ㉠복달임.
 ㉠복날에 그 해의 더위를 물리치는
 뜻으로 고기를 꿴여 먹는 일.
 0.초복일세. 오늘 복대림 하세.
복상(복쌍): ㉠복숭아. 복사. ㉠복숭아
 나무의 열매.
 0.복상이 탐스럽게 잘 익었다.
 0.여름엔 복상 장수, 가을엔 배 장수.
복상뼈(복상씨): ㉠복사뼈. ㉠발목 부근에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
 0.복상뼈에 굳은 살이 박혔다.
 0.복상뼈가 배긴다.
 복상씨: →복상뼈.
복새: ㉠하천 하류에 생기는 미세한 흙.
 0.비가 많이 와 눈에 복새가 들어왔다.
 벼에 지장이 있겠다.
복실복실: ㉠복슬복슬. ㉠짐승이 살이
 찌고 털이 많은 모양.
 0.강아지가 복실복실 하구나.
 복쌍: →복상.

복장: ㉠복판.
 0.장마당 복장에는 물건도 많다.
복장이 터진다: ㉠기슴이 터진다.
 0.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복장이
 터진다.
복쟁이(뽕쟁이, 뽕쟁이): ㉠복. 복어.
 ㉠참복과의 바닷물고기의 총칭. 강한
 독이 있다.
 0.뽕쟁이 치듯한다.(어부가 먹지 않는
 복이 걸린 것을 뱃전에 치듯 되는
 대로 마구 후려치는 것을 이룸)
 0.뽕쟁이 알을 먹으면 죽는다.
복조랭이: ㉠복조리. ㉠한해의 복을 받는
 다고 해서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부엌,
 마루, 안방 벽에 걸어놓는 조리.
 0.복조랭이를 마루 문 위에 건다.
복지개(복지끼, 뽕지개): ㉠밥그릇 뚜껑.
 0.아버지 밥은 복지개 덮어 아랫목에
 두어라. 오늘 늦게 오신다.
 복지끼: →복지개.
볶어친다(흠볶어친다): ㉠볶아친다.
 ㉠바쁘게 재촉한다.
 1.닥달한다.
 0.볶어치면 아이가 주눅 든다.(기를 펴지
 못한다)
 2.서두른다.
 0.볶어치면 일이 더 안 돼.
본대(본새, 본애): ㉠본디. 본래. 본시.
 ㉠사물이 전해 내려온 처음.
 0.그 집은 본대 가까운 집인데 어려서
 멀리 이사 갔지.
본둥만둥(본청만청): ㉠본척만척. 본체만체.

0.아기가 엄마를 봐도 본둥만둥 놀기만 한다.

본사나: ㉠본남편.

0.본사나 버린 년이 어디가면 잘살까?

본새: →본대.

본애: →본대.

본전치기: ㉠본전 장사.

0.이번 장에는 본전치기 밖에 못했네.

본 집에: ㉠본 김에. ㉠본 기회에.

0.떡 본 집에 제사 지낸다.(여건이 될 때 처리한다는 말)

본청만청: →본둥만둥.

본토백이: ㉠본토박이.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

0.그 사람은 본토백이야. 말할 것 없어.

불라고: ㉠보려고.

0.너를 불라고 여까지 왔다.

불라치면(불라치문): ㉠보노라면.

0.가만두고 불라치면 가관이지.

불라치문: →불라치면

불러는: ㉠보려는.

0.그 영화 불러는 사람이 많대.

불상(불쌍): ㉠보기.

0.불상 사납다. 그만 하게.

0.불상 사나운 일을 무엇하러 해.

불수룩이(불수룩이): ㉠불수룩.

0.불수룩이 예뻐진다.

불수룩이: →불수룩이.

불짱: →불상.

불일 보고: ㉠대소변 보고.

0.불일 보고 올게.

불장(불짱): ㉠불일.

0.너는 안한다고? 그러면 넌 불장 다 봤다.

불짱: →불장.

불태기(뺨. 뺨다구. 뽀라지. 뽀.

뽀때기. 뽀태기): ㉠볼따구. 뺨따귀.

㉠얼굴 볼을 닦추어 부르는 말.

0.불태기에 밥풀이 묻었다.

0.할머니께서 불태기를 어루 만진다.

봄바람에 말씨가 튼다: ㉠봄철 쌀쌀한

셋바람에 살이 잘 튼다는 말.

0.봄바람에 말씨가 튼는데 조심해.

봄추(봄추우): ㉠봄추위.

0.봄추를 야단스럽게 하네.

봄추우: →봄추.

붓살: ㉠보. ㉠독을 짙고 흐르는 냇물을 막아둔 시설.

0.봄철엔 붓살 손질이 분주하다.

붕개(붕애): ㉠붕송. ㉠물건을 찌서

선물로 보냄. 또는 그 물건.

0.거동이 불편하신 어른께 붕개 찌는 일은 우리 조상님들의 미풍양속이다.

붕구리: ㉠붕오리.

0.꽃 붕구리가 예쁘다.

붕그렇게: →병그렇게.

붕다리: ㉠붕지.

0.자두를 붕다리에다 모두 넣어라.

붕단: ㉠채단.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청색과 홍색의 비단.

0.언니 붕단이 왔다. 어디 보자.

붕담배(붕초): ㉠붕지에 넣은 담배.

0.할아버지께서 붕담배를 담뱃대에 담으신다.

봉두: ㉠고봉. ㉡쌀을 훑지 않고 고봉으로 되는 것.

0. 쌀은 봉두로 된다.

0. 쌀을 봉두로 판다.

봉벤: ㉠봉변. ㉡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당함.

0. 괜히 봉벤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봉아리 빠진다: ㉠재산 따위가 크게

없어진다.

0. 딸 셋 시집 보내면 살림이 봉아리 났지.

봉애: →봉개.

봉양: ㉠복령. ㉡베어낸 솔뿌리에

기생하는 불완전 균류의 하나.

0. 봉양 캐러 가서.

0. 요즘 봉양 값이 좋다.

봉잡았다: ㉠횡재했다. ㉡뜻밖의 재물을 얻었다.

0. 뒷집 총각이 무남독녀한테 장가 간대. 봉잡았네.

봉창: ㉠손해 본 것을 보충하는 일.

0. 저번 장에 손해 본 걸 이번 장에 봉창했다.

봉초: →봉담배.

받기다: ㉠본 것이다.

0. 너는 언제 그 사람을 받기다. 어느 척하는 걸 보면.

봤재: ㉠보았지.

0. 그 전에 그 영화 봤재.

보기싫다: ㉠보기 싫다.

0. 보기 싫으면 피하면 되지.

0. 보기 싫은 짓은 하지 마라.

되인다: →베킨다.

되잡다(비잡다): ㉠비좁다.

0. 고추모를 좀 되잡게 심었다.

0. 되잡게 앉질 말고 넓게 앉아.

되킨다: →베킨다.

뵘이여: ㉠뵘이여.

0. 앞에 나서면 욕먹는 뵘이여.

0. 잘난 체하면은 남이 싫어하는 뵘이여.

부게: ㉠복어. ㉡말린 명태.

0. 부게 뜯고 손가락 뺀다. (허위, 과장을 나타낸다는 말)

0. 부게껍질 오그라들 듯한다. (재산 따위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

부꾸: ㉠복. ㉡뿌리를 싸고 있는 흙.

0. 무 밭에 부꾸를 준다.

0. 배추는 부꾸를 안 쥐도 된다.

~부다: ㉠~보다. ㉡추측이나 막연한 의향을 나타내는 말.

0.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비가 올러 나부다.

0. 그 일은 이젠 그만 들까부다.

부두자리(부드자리): ㉠부들자리.

㉡부들로 만든 자리.

0. 부두자리는 폭신해서 좋다.

부동케안는다: ㉠부동켜안는다. ㉡서로 마주 껴안는다.

0. 오랜만에 만난 자매가 서로 부동케 안는다.

부드자리; →부두자리.

부디킨다: ㉠부대킨다. ㉡무엇에 시달려서 괴로움을 당한다.

0. 송아지가 어미소가 가는데 자꾸 부다킨다.

부랄: ㉠불알. 고향.

- 0. 부랄 두 쪽 밖에 없다.(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라는 말)
- 0. 부랄 밑이 근질근질 한다.(가만히 앉아있질 못한다는 말)
- 0. 부랄 밑을 긁어준다.(남의 비위를 살살 맞춰주며 아첨한다는 말)

부랄이 발게서부텀: ㉠어려서부터.

- 0. 그친군 부랄이 발게서부텀 아는 친군데 뭐.

부랄친구: ㉠죽마고우. ㉠어릴 적 친구.

- 0. 그 친군 부랄친구야.

부래 뇌(부러 뇌): ㉠짐을 내려놓아.

- 0. 소 짐을 부래 뇌라. 무겁잖다.

부럼(부스럼. 부시럼): ㉠부스럼.

- ㉠피부에 나는 종기의 총칭.
- 0. 정월 대보름날 아침 부럼 깨문다.
- 0. 부럼을 깨물면 일년 내내 종기가 안 난다더라.

부레먹는다: ㉠부러먹는다. ㉠일을 시켜 먹는다.

- 0. 소를 너무 부레먹지 마. 힘들어한다.
- 0. 일꾼을 심하게 부레먹고 품삯은 적게 준다.

부러 뇌: →부래 뇌.

부루뚝다(부름뚝다): ㉠살이 부풀어 올랐다.

- 0. 낮질을 했더니 손바닥이 부루뚝다.
- 0. 많이 걸었더니 발바닥이 부루뚝다.

부릅다: ㉠부릅다.

- 0. 사과밭 있는 집 아이가 부릅다.

부름뚝다: →부루뚝다.

부배(부벼. 비배): ㉠비벼.

- 1. 두 물체를 마주대고 문지른다.
 - 0. 어머니께서 빨래를 부배 빠신다.
- 2. 몽쳐지게 손바닥 사이에 넣고 문질러 돌린다.
 - 0. 경단을 손바닥에 부배 만든다.
- 3. 어떤 재료에 다른 재료를 넣어 버무린다.
 - 0. 밥에 달걀과 간장, 기름을 넣고 부배 봐. 맛있는 비빔밥이 되지.
- 4. 송곳 등으로 구멍을 뚫으려고 이리저리 돌린다.
 - 0. 송곳을 누르면서 부배봐. 구멍이 뚫어지지.

부벼: →부배.

부살개(부살기. 불살개. 불살기):

- ㉠불쏘 시개. ㉠장작 숯 등에 불을 피울 때 불이 쉽게 옮겨 붙게 하려고 먼저 피우는 종이, 나뭇잎, 관솔 따위.
- 0. 부살개 짓지 않게 잘 간수해라.
- 0. 소깡이(관솔)는 부살개로 좋다.

부살기: →부살개.

부새우: ㉠곤쟁이. ㉠연못에서 자라는 작은 새우.

- 0. 부새우 뜨러 가자.
- 0. 부새우 젓갈 맛이 일품이다.

부생이: ㉠짜증. ㉠복받치는 역정이나 싫증

- 0. 아이가 자지 않고 자꾸 부생이를 친다.
- 0. 부생이 부리지마.

부석부석: ㉠부어 있는 모양.

- 0. 얼굴이 왜 부석부석하다.

부세(부쇄): ㉠부수어. 부서.

- 0. 그집 아저씨가 화가 나서 재산을 마구

부세.
 부쇄: →부세.
 부스럼: →부럼.
부시력거린다: ㉞부스력거린다.
 0.자꾸 부시력거리지 마. 잠 좀 자게...
부시레기(뿌시레기): ㉞부스러기.
 1.잘게 부스러진 찌꺼기.
 0.과자 부시레기라도 그게 어디아.
 2.쓸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
 0.부시레기라도 걷어 모아야 먹고 살재.
 3.하찮은 사람이나 물건.
 0.근심 부시레기랑은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부시럼: →부럼.
부신다: ㉞부순다.
 1.단단한 물건을 여러 조각 나게 두드려 깨뜨린다.
 0.메주 덩어리를 잘게 부신다.
 2.물건을 두드리거나 깨뜨려 못쓰게 한다.
 0.곽통을 부시어 넓적하게 편다.
부실부실: ㉞부슬부슬. ㉞비나 눈이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모습.
 0.눈이 부실부실 내린다. 겨울이 오나 보다.
부싯돌마하다: ㉞조그마하다.
 0.부싯돌마한 게 까불어치고 있어.
부애(부애): ㉞부아. ㉞분하거나 노여운 마음.
 0.참고 있자니 슬그머니 부애가 났다.
 0.결국은 부애를 터뜨리고 말았다.
부야라 한다: ㉞아니라고 한다.
 0.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부야라 하던대.

부애: →부애.
부어집이다: ㉞부영이 집이다. 쓰면 자꾸 생기는 집이다.(부영이는 없어지면 자꾸 먹이를 물어다 놓기 때문임)
 0.그 집은 부어집이다.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집이다.
 부억떼기: →벽떼기.
부영이 방구: ㉞옹두리. ㉞나뭇가지가 상한 자리에 결이 맺혀 혹처럼 몽푹해진 것.
 0.부영이 방구 핀 가지로 방망이를 만든다.
부재: ㉞부자. ㉞잘 사는 집. 부자간.
 1.잘 사는 집.
 0.그 집은 부재집이야.
 2.부자 간.
 0.그 양반과 그 사람을 부재 간이야.
부절(부절가락. 부젓갈): ㉞화룻불을 돌우는 젓가락.
 0.부절로 화룻불을 돌운다.
 0.화로에 감자를 부절로 묻는다.
 부절가락: →부절.
 부젓갈: →부절.
부주: ㉞부조. ㉞남을 거들어 도와 줌.
 0.오늘 잔칫집에 부주를 얼마 해야 하나.
부지깁이: ㉞부지깁이. ㉞불을 지피는 막대.
 0.부지깁이로 불을 지핀다.
 0.모내기철에는 부지깁이도 한 뭉 한대.
 (모내기 철에는 일이 바빠 하찮은 사람도 한 뭉 한대는 말)
부직부직(뿌직뿌직. 삐적삐적): ㉞싫은 데도 자꾸 우겨대는. 자꾸 덤비는.

0.안된 데도 부직부직 우기더니, 그것
봐. 안 되잖나.

부질군다(분질군다. 뿌질군다. 뽕긴다):

㉠부러뜨린다. ㉡단단한 물건을 꺾어서
부러지게 한다.

0.마른 나뭇가지를 부질귀 불을 지핀다.
0.흙을 많이 뜨다가 삽자루를 부질꿨다.

부채님: ㉠부처님. ㉡불도를 깨달은 성인.

0.부채님 가운데 토막.(마음이 어질고
순한 사람의 비유).

0.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채님
손바닥이야. (아무리 애를 써도 만날
그 자리라는 말)

부챗다: ㉠부챗다.

1.우편이나 사람을 통해 편지나 물건을
보낸다.

0.편지를 부챗다.

2.어떤 기회에 맡긴다.

0.안건을 회의에 부챗다.

3.번철에 지짐이질을 한다.

0.빈대떡을 번철에 부챗다.

4.일을 어떤 상태에 부친다.

0.그 일은 불문에 부챗다.

5.논 밭을 다루어 농사를 짓다.

0.밭에 콩을 부챗다.

6.부채로 바람을 일으킨다.

0.부채로 얼굴을 부챗다.

부치미(부칭개. 찌지미): ㉠부침개.

지짐이.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이나
누름적 등의 총칭.

0.부치미는 손쉽게 해 먹을 수 있어 좋아.

부칭개: →부치미.

부탁하네: ㉠부탁하네.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맡김.

0.내일 일을 좀 부탁하네.

0.자식 공부 좀 부탁하네.

~부텨: ㉠~부더.

0.냉수부텨 마셔라.

0.언제부텨 열이났나?

0.지금부텨 그러지 마.

0.감자를 굵은 것부텨 골라라.

0.이제부텨 공부 열심히 해라.

부푸: ㉠부피.

0.이 짐보따리는 부푸가 너무 크다.

부푸래기: →버푸래기.

북데미: ㉠북데미. ㉡짚, 풀 따위가

뒤엉켜진 멩덩이.

0.닭이 북데미 가리에 알을 낳았다.

북돋귀준다: ㉠북돋워준다. ㉡기운 정신

따위를 더욱 높여 준다.

0.기분을 북돋귀준다. 기가 살아나게...

북두갈구리: ㉠북두갈고리. ㉡북두처럼

생긴 갈고리.

0.소 질매 바에는 북두갈구리가

달려있어 소 짐을 조일 수 있다.

북뻘: ㉠영치 등뻘.

0.소 북뻘를 가져와 삶는다.

북새: ㉠북서풍.

0.북새가 불어오며 날씨가 껏어진다.

북세기(북세통. 북생이): ㉠법석.

㉡여러 사람이 어수선하게 떠드는 모양.

0.잔치집에 사람들이 모여 북세기 친다.

북세통: →북세기.

복생이: →복세기.

분답스럽다: ㉞번잡스럽다.

- 0. 분답스럽게 자꾸 그러지 마.
- 0. 집이 분답스러워 도서관에 간다.

분별없다: ㉞분별없다.

- 0. 분별없이 마구 떠들어 대지 마.

분사떼기없다(분사없다. 분수머리없다):

㉞분수없다.

- 1. 사물을 분별할만한 지혜가 없다.
 - 0. 분사떼기없이 떠들어치긴.
- 2.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가 넘다.
 - 0. 분사떼기없이 욕심을 부린다.
- 3. 각자가 이를 수 있는 한계를 넘다.
 - 0. 분사떼기없는 농담이다.

분사없다: →분사떼기없다.

분수머리없다: →분사떼기없다.

분질군다: →부질군다.

분추: ㉞부추. ㉞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

- 잎줄기는 비노의 약재로 씀.
- 0. 이른 봄 첫 분추는 막내 사위에게 준다. (몸에 좋다는 말의 비유)
- 0. 분추는 잘라 먹으면 계속 잎이 자라 올라온다.

불(불까): ㉞모래밭. 모래톱.

- 0. 불에 나가 불 째질을 한다.

불거뜨린다(불긴다): ㉞부러뜨린다.

- ㉞단단한 물건을 꺾어서 부러지게 한다.
- 0. 연필심을 자꾸 불거뜨린다.
- 0. 팽이질 잘못하면 자루를 불거뜨린다.

불광: ㉞불이 탈 때 나는 빛과 열.

- 1. 빛.
 - 0. 관솔은 불광이 밝아 코쿨(벽등불) 불을

밝힌다.

2. 열.

- 0. 장작불은 불광이 좋아 방이 뜨시다.

불군다(불린다. 불군다): ㉞불어나게 한다.

- 0. 절약하여 재산을 불군다.
- 0. 발을 물에 담가 불군다.

불기: ㉞상추. ㉞국화과의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풀.

- 0. 봄철에 겨울을 난 불기는 맛이 진하지.
- 0. 불기는 싸드름 한 맛에 먹는다.

불긴다: →불거뜨린다.

불까: →불.

불나게(불나케): ㉞잣거나 심하게. 또는 빠르게.

- 0. 불나게 다니더니 그 일을 결국 성사 시켰구만.
- 0. 불나게 서두르더니 그 일을 빨리 했구만.

불나뱅이: ㉞불나방. ㉞불나방과의 곤충.

- 0. 여름 밤에 불을 켜면 불나뱅이가 모여 든다.

불나케: →불나게.

불독벨(뿔뿔벨): ㉞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일.

- 0. 사탕 안 시준다고 불독벨을 부리잖나.

불땡땡: →땡땡.

불르다: ㉞부르다.

- 0. 옥수수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르다.

불른다: ㉞부른다.

- 1. 말이나 행동 따위로 남을 오라고 한다.
 - 0. 강아지를 불른다.

2. 명단 따위를 소리내어 읽는다.
0. 출석을 불른다.
3. 말을 받아적도록 또박또박 읽는다.
0. 전화번호를 불른다.
4. 노래를 한다.
0. 노래를 불른다.
5. 값이나 액수를 얼마라고 말한다.
0. 불르는 게 값이다. (값이 일정하지 않다)
6. 소리내어 외친다.
0. 만세를 불른다.
7. 어떤 일을 위해 나서게 한다.
0. 조국이 나를 불른다.
8.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0. 화는 화를 불른다.
9. 청하여 오게 한다.
0. 의사를 불른다.
10. 가리켜 무엇이라 말한다.
0. 그를 보고 천재라 불른다.
11. 먹은 것이 많아 배속이 팍 찬 느낌이다,
0. 배 불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 사정을 모른다.
12. 불룩하거나 부풀어 오른다.
0. 임신하여 배가 불른다.
불린다: → 불군다.
- 불머리:** ㉠숯불이나 화롯불을 쪼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머리가 아픈 증세.
0. 불머리로 아픈 사람, 동치미 국물을 먹여라.
- 불머스마:** ㉠여성스럽지 않고 남자아이 같은 여자아이.

0. 그 앤 불머스마 같은 여자 애야.
- 불머슴아:** ㉠선머슴아. ㉡장난이 심하고 몹시 덜렁거리는 사내아이.
0. 그 불머슴아, 장난이 보통이 아니야.
- 불벨더위:** ㉠불별더위. ㉡햇별이 몹시 내리쬐릴 때의 더위.
0. 불벨더위에 곡식들이 시든다.
- 불살개: → 부살개.
불살기: → 부살개.
- 불숙(불쑥):** ㉠갑자기.
0. 어느날 옛친구가 불숙 나타났다.
불쑥: → 불숙.
- 불알 깎다:** ㉠정관을 수술한다.
0. 예비군이 불알 까면 그날 훈련은 면제.
- 불알 두쪽 밖에 없다:** ㉠가진 것이 없다.
0. 그 사람은 불알 두쪽 밖에 없다.
- 불알시계(추시계):** ㉠추가 달린 시계.
0. 벽에 걸린 불알시계가 열두시를 알린다.
- 불알이 발게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0. 그 사람하고는 불알이 발게서부터 아는 사이야.
- 불어재킨다:** ㉠불어댄다.
0. 밤새도록 바람이 세차게 불어재킨다.
- 불영갱이:** ㉠불여우. ㉡몹시 여우 짓을 하는 사람.
0. 저 여잔 불영갱이 같애.
- 불이나게:** ㉠부리나케. ㉡아주 급하게.
0. 지각할까 봐 불이나게 달려갔다.
- 불잠:** ㉠바닷가나 강가의 모래불(모래사장)에서 밤에 지는 잠.

0.오늘 우리 불잠 자자. 그래, 갈개하고
덮개 가지고 나와.

불찜: ㉠해수욕이나 천렵 가서 바닷가나
강가 모래불(모래톱)에서 햇볕에 달궈진
모래를 덮고 하는 찜질.

0.우리 모래 불찜 하자. 그래, 순서를
정하고 차례로 덮어 주기.

불군다: →불군다.

불호령: →배락령.

붓뚜껑: ㉡붓뚜껍. ㉢붓의 축을 끼워두는
물건.

0.쓰던 붓을 고른 다음 붓뚜껑을 씌운다.

붓자루: ㉣붓대. ㉤붓을 쥐게 된 부분.

0.붓자루에 먹물이 묻지 않게 조심해서
다룬다.

붕그렇게: →병그렇게.

붕어빵이다: ㉥닭았다.

0.그집 부자는 붕어빵이야.

붙들렀다: ㉦붙들렀다. ㉧붙들을 당했다.

0.범인이 경찰에 붙들렸다.
0.장모님한테 붙들래 하루 더 묵었다.

붙잡했다: ㉨붙잡혔다. ㉩붙들려 잡히다.

0.달아나던 송아지가 붙잡혔다.
0.쫓기던 닭이 붙잡혔다.

붙전질 못한다: ㉪붙어있질 못한다.

0.어디 가서 붙전질 못하고
돌아다니기만 해.

붙쳤다: ㉫'붙이다.' '붙였다.'에서 온 말.

- 1.맛달아 떨어지지 않게했다.
0.벽에 도배지를 붙쳤다.
- 2.맛달게 했다.
0.책상을 붙채 놓았다.

3.가깝게 지내게 했다.

0.두 남녀를 붙채 주었다.

4.암수를 교미시켰다.

0.암소와 황소를 교미 붙쳤다.

5.불을 탄 곳으로 붙게 했다

0.연탄불을 다른 연탄에 붙쳤다.

6.떨리게 했다.

0.감시원을 붙쳤다.

7.노름, 싸움, 흥정을 이루어지게 했다.

0.흥정을 붙쳤다.

8.다른 의견을 보냈다.

0.다른 조건을 붙쳤다.

9.내기에 돈을 걸었다.

0.내기에 백만원을 붙쳤다.

10.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0.따귀를 올려 붙쳤다.

11.말을 걸었다.

0.서먹서먹한 사람에게 말을 붙쳤다.

12.이름을 지어 달았다.

0.갓태어난 아이 이름을 지어 호적에
붙쳤다.

13.마음을 당기게 했다.

0.그 일에 취미를 붙쳤다.

14.큰 소리로 구령을 외쳤다.

0.하나! 둘! 셋! 네! 구령을 붙쳤다.

15.웃놀이에서 말을 발에 달았다.

0.모, 개를 쳐서 말을 웃놀이 발에 붙쳤다.

비개: →벼개.

비개(비케, 피케): ㉬비켜. ㉭'비키라'는
명령조의 말.

- 1.무엇을 피하여 있던 곳에서 물러난다.
0.좀 비개 봐. 잘 안 보인다.

2. 방해가 되지 않게 물건을 놓았던
곳에서 옮긴다.
0. 그 물건을 한쪽 옆으로 비껴 놔라.
0.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리
비껴.

비꾸롭다(비끼롭다): ㉞부끄럽다.

- ㉞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남을 대할
면목이 없다.
0. 비꾸롭게 자꾸 그러지 마.
0. 신부는 비꾸루어 얼굴을 못 든다.

비끼롭다: →비꾸롭다.

비네: ㉞비녀. ㉞여자의 쪽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장신구.
0. 신부가 커다란 비네를 꽂았다.

비네를 꽂친다(비네를 질른다):

- ㉞쪽진다. 여자의 머리를 감아올린다.
0. 어머니께서 정대 앞에 앉아 비네를
꽂친다.

비네를 질른다: →비네를 꽂친다.

비늘: ㉞비늘. 미늘.

1. 어류, 파충류등의 몸 표면을 덮고 있는
단단하고 작은 조각.
0. 생선 비늘을 벗긴다.
2. 물고기 비늘 모양의 총칭.
0. 갑옷엔 구리판으로 된 비늘을 단다.
3. 미늘.
0. 비늘을 단다.(기와의 위쪽 아래 끝이
아래쪽의 위 끝을 덮어 누르게 단다)
비들기: ㉞비들기. ㉞비들기목 새의 총칭.
귀소성을 이용하여 통성용으로 이용함.
0. 이른 봄부터 비들기가 알을 배느라고
“두두 우두두”하고 울어댄다.

비뚜루(삐뚜루, 삐뚫루): ㉞비뚜루.

- ㉞비뚫 어지개. 바르지 않게.
0. 글씨가 비뚜루 써졌다.
0. 일을 비뚜루 배우지 말고 바로 배워야
한다.

비렁뱅이: →거렁이.

비른내: ㉞비린내. ㉞생선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0. 미역줄기 무침에서 비른내가 난다.
0. 콩치에서 비른내가 많이 난다.

비리한: ㉞비릿한.

0. 어항 포구에 가면 비리한 냄새가
난다.

비리비리한: ㉞어리어리한. ㉞일이나
행동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듯하다.

0. 아가 왜 비리비리한 게 그러냐.

비리칙칙하게: ㉞비굴하게.

0. 비리칙칙하게 그건 왜 부탁하니.

비말이 한다: ㉞비에 흠뻑 젖는다.

0. 갑작스런 소나기에 그만 비말이 한다.

비배: →부배.

비스가니(비스가이, 비스거니,

비스거이, 비스툼이): ㉞비스듬히.

0. 물이 흐르는 우산을 비스가니 세운다.

비스가이: →비스가니.

비스거니: →비스가니.

비스거이: →비스가니.

비스무리하다(비젓하다): ㉞비슷하다.

0. 둘 다 키가 비스무리하다.

비스툼이: →비스가니.

비싸리: ㉞조룩싸리. ㉞콩과의 낙엽 활엽

관목.

0.비짜리로 빗자루를 만든다.

비아리: ㉠병아리.

0.암탉이 비아리 아홉 마리 깎다.

비알(삐알): ㉠강파른 비탈.

0.산비알 돌아갈 때 소 조심해 몰아라.

0.비알이 너무 가파르다.

비양기(비항기. 비항개. 비항기):

㉠비행기.

0.비양기 타고 여행 간다.

0.비양기 태운다.(남을 추켜 세운다.)

비양장: ㉠비행장.

0.비양장이 무척 넓다.

비와버래(비와빠래): ㉠비워버려.

1.안의 것을 치우거나 먹어서 없앤다.

0.잔치국수 한그릇을 똑딱, 비와버렸다.

2.밖으로 나가서 아무 것도 없게 한다.

0.집을 비외버래.

비와빠래: →비와버래.

비우(비웃살): ㉠비위. 녀살.

0.그엔 비우가 좋아. 아무 데고 잘가 어울려.

비웃살: →비우.

비잡게(소잡게): ㉠비좁게.

0.왜 이렇게 비잡게 앉았어. 좀 넓게 앉아.

비젓하다: →비스무리하다.

비지떡이다: ㉠보잘 것 없다.

0.값이 싼 게 비지떡이야.

비지장: ㉠비젓국. ㉠비지로 끓인 국.

0.비지장 먹고 용트림 한다.(실속은 없으면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민

다는 말)

비진다: ㉠빚는다.

0.추석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여앉아 송편을 비진다.

비짜리(빗자리. 빗잘구. 빗잘기.

빗잘기): ㉠빗자루. ㉠먼지나 쓰레기 따위를 쓸어내는 기구.

0.수수대로 비짜리를 맨다.

0.비짜리로 거미줄을 걷는다.

비케: →비께.

비케센다(피케센다. 피케스다):

㉠비켜선다. ㉠몸을 옮기어 물러선다.

0.우차가 지나가 길가로 비케했다.

비킨다: ㉠보인다.

1.보인다.

0.날이 밝으면 길이 잘 비킨다.

0.연못 속에 흰구름이 비킨다.

2.눈에 뜨이게 한다.

0.허점을 비킨다.

3.남이 알도록 한다.

0.글씨를 써 비킨다.

비탈배기: ㉠비탈. ㉠산이나 언덕의

비스듬 하게 기울어진 곳.

0.비탈배기에 들깨밭이 있다.

비항기: →비양기.

비항개: →비양기.

비항기: →비양기.

빈걸로: ㉠빈손으로.

0.친정에 가는 게 빈걸로 갔나.

빈다: ㉠벤다. ㉠상처를 낸다.

0.낯질하다 손을 빈다.

0.손 빌라. 칼 조심해라.

빈달: ㉠비탈. 언덕, ㉡산이나 언덕의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곳.

0. 빈달 밭에 감자를 심는다.

0. 빈달 밭은 물빠짐이 좋다.

빈대젓: ㉠빈 젓. 속이 차지 못하여 들어붙은 젓.

0. 애미가 빈대젓이야. 짝들어 붙었어.

빈벙: ㉠빈벙.

0. 빈벙을 모아서 팔아 용돈을 만든다.

빈주뎡이: ㉠맨입.

0. 빈주뎡이만 잘 나불거리.

빈준다(빈춘다): ㉠비춘다.

0. 아이들이 거울 조각으로 빛을 빈춘다.

빈춘다: →빈춘다.

빈친다: ㉠비친다.

0. 구름이 걷히니 햇살이 빈친다.

빈털벙이: ㉠빈털터리. ㉡재산을 다 없애고 가난뱅이가 된 사람.

0. 그 사람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벙이가 됐다.

빌레준다: ㉠빌려준다. ㉡남의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나중에 도로 돌려주거나 대가를 갚기로 하고 얼마 동안 쓰도록 한다.

0. 친구에게 책을 빌레준다.

0. 은행이 돈을 빌레준다.

빌미 빌미: ㉠빌며 빌며.

0. 잘못을 저지르고 빌미 빌미 애걸한다.

빌어먹을: →망할.

빌어먹을 강아지: ㉠비루먹을 강아지.

㉡피부병 걸릴 강아지.

0. 빌어먹을 강아지, 저리 가거라. 피부병

웁길라.

빗방굴: ㉠빗방울.

0. 빗방굴이 굵은 게 떨어진다.

빗자리: →비짜리.

빗잘구: →비짜리.

빗잘기: →비짜리.

빗짚기: →비짜리.

빙군다(빙긴다): ㉠1. 그냥 넘어간다.

2. 피한다.

1. 그냥 넘어간다.

0. 이번 제비도 또 빙군다.

2. 피한다.

0. 소나기가 쏟아져 비를 빙군다.

빙그빙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

0. 물레방아는 빙그빙그 잘도 돈다.

빙긴다: →빙군다.

빙신: ㉠병신.

0. 병신이 따로 있다. 병들면 병신이지.

빙아리: ㉠병아리.

0. 암탉이 빙아리 열두 마리 깼다.

빗잔차: ㉠빗잔치. ㉡빗쟁이들이 몰려와서 빗 대신 물건을 가져가는 일.

0. 그 집이 장사하다 망해서 빗잔차 한 대.

빛나리: ㉠대머리.

0. 나이 들어 어느새 빛나리가 됐다.

빛 좋은 개살구다: ㉠실속이 없다.

0. 장사 한다 해야 빛이 많아 빛 좋은 개살구지머.

빠구리(빠꿈이): ㉠1. 혹하는 사람. 2. 남녀 교접하는 것.

1. 혹하는 사람.

0. 그 사람 투전하는 데 빠구리아.
 2. 남녀 교접하는 것.
 0. 씹히는 데 빠구리아.
빠그러진다(빠그러진다): ㉠부서진다.
 0. 그 께작에 올라서면 빠그러진다.
빠꾸미: ㉠1. 바구미. 2. 전문가. ㉡바구미와 곤충의 하나.
 1. 바구미.
 0. 목은 쌀독에 빠꾸미가 생겼다.
 0. 보릿쌀 독에도 빠꾸미가 났다.
 2. 전문가.
 0. 그 사람 흥정에 빠꾸미다.
빠꿈이: →빠구리.
빠니(빠니, 빠니): ㉠뻘히. 뻘히. ㉡눈을 고정해 쳐다보는 것.
 0. 빠니 쳐다보지 마. 남들이 욕한다.
빠달군다: ㉠나쁘게 내보낸다.
 0. 내 빠달구기 전에 잘해.
 0. 빠달굴려면 빠달구라지머. 누가 겁낼 줄 알고.
빠들군다: →버들군다.
빠들군다: →버들군다.
빠드름하다: ㉠1. 빠듯하다. 2. 뻘하다.
 1. 빠듯하다.
 0. 옷감이 빠드름하게 자란다.
 2. 뻘하다.
 0. 물건 값이야 빠드름 하지머. 다 그렇게 파니까.
빠리빠리하다(빠릿빠릿하다): ㉠행동이 민첩하다.
 0. 행동이 느릿한 것보다 빠리빠리한게 더 좋지.

빠릿빠릿하다: →빠리빠리하다.
빠뻘이: ㉠1. 뻘뻘하게. 2. 빠듯하게.
 1. 뻘뻘하게.
 0. 고추 모종이 빠뻘이 섰다.
 2. 빠듯하게.
 0. 운동화 살 돈이 빠뻘이 자란다.
빠순다: ㉠바순다. 부순다. ㉡두들겨 잘게 깨뜨린다.
 0. 누룩을 잘게 빠순다.
 0. 볶은 참깨를 빠순다.
빠작빠작: ㉠바득바득. 빠득빠득.
 0. 너무 빠작빠작 우기지 마.
~빠져서: ㉠몹시 심해서.
 0. 추워빠져서 장에 가겠나?
 0. 더워빠져서 발을 매겠나?
 0. 소가 느레빠져서 쓰겠나.
빠찌(뺏지): ㉠놀이딱지. ㉡두꺼운 종이를 접어 만든 사각형 놀이딱지.
 0. 다 쓴 공책 걸장을 뜯어 빠찌를 접는다.
빠찌치기(뺏지치기): ㉠딱지치기.
 ㉡놀이딱지를 땅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쳐서 뒤집 히면 따먹는 아이들 놀이.
 0. 야! 우리 빠찌치기 하자.
빠춘다: ㉠빠뜨린다.
 0. 나를 빠추지 말고 넣어 놔.
빠세다(뺏시다): ㉠보기보다 힘이 세다.
 0. 몸은 작아도 힘이 빠세다.
 0. 당나귀는 무척 빠세다.
빠시다: →빠세다.
빠작거린다: ㉠바글거린다. 빠글거린다.

㉸잔거품이 일며 끓어 오른다.
 0. 된장이 짹짹거리며 끓는다.
빹작빹작: ㉸쪄그라들며 끓는 소리.
 0. 빹작장이 빹작빹작 끓는다.
빹작장(빹작장): ㉸육고기, 버섯 등을 넣어 되직하게 끓인 된장.
 0. 된장을 넣고 빹작장을 끓인다.
 0. 보리밥에 빹작장을 비벼 먹는다.
빹한다: →바개미다.
빹드름하다: →반드름하다.
빹지름하다: →반지름하다.
빹갱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
 0. 빹갱이들이 완장 차고 설친다.
빹끈뒤집어쓴다: ㉸몹시 바쁘다.
 0. 잔치 손님 격노라 빹끈뒤집어쓴다.
빹끈한다: ㉸1.잠시. 2.갑작스럽게 화낸다.
 1.잠시.
 0. 번개시장은 빹끈하게 섰다 과장한다.
 2.갑작스럽게 화낸다.
 0. 그만한 일로 빹끈해서야 쓰나.
빹대가 세다: ㉸술을 많이 먹는다.
 0. 그 사람 빹대가 세다.
빹딱고개: ㉸매우 가파른 고개.
 0. 빹딱고개를 넘자니 힘이 든다.
 0. 빹딱고개에 등짐이라. 힘든 일이지.
빹락종이: ㉸얇고 윤기 나는 종이.
 0. 빹락종이를 그림 위에 놓고 그림 본을 뜬다.
빹랑: ㉸빨리.
 0. 빹랑 이리 와.
빹래장대: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장대.

0. 빨래장대에 잠자리가 앉았다.
빹르게: ㉸빠르게.
 0. 노루가 무척 빹르게 달아난다.
빹찌: →배들가지.
빹핀다: ㉸밟힌다.
 0. 소 고비 바삭 땡겨라. 쇠 밭에 빹핀다.
빹지: →빠찌.
빹지치기: →빠찌치기.
빹꾸: ㉸구멍.
 1. 구멍난 물건.
 0. 양말이 빹꾸났어.
 2. 구멍난 사람.
 0. 저 처녀는 빹꾸난 처녀야.
빹떡 모자: ㉸빵 모자.
 0. 빹떡 모자가 예쁘다.
빼(빼골): ㉸빼.
 0. 몸이 야위어 빼가 드러난다.
빼골: →빼.
빼기표: ㉸빨셈표.
 0. 빼기표가 있는 셈이 더하기표가 있는 셈보다 더 어렵다.
빼강생이: ㉸야위어 뼈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
 0. 먹는 건 어디 가고 빼강생이가 되었나?
빼깨진다: ㉸벗겨진다.
 0. 고무신이 자꾸 빼깨진다.
 0. 굴껍질이 잘 빼깨진다.
빼꿈이(빼꿈이): ㉸눈이 작은 사람.
 0. 빼꿈이 눈도 보기는 잘 본단다.
 0. 빼꿈이 눈으로 바늘을 찾았어.
빼긴다: →배긴다.
빼니: →빠니.

빼다구(뺨다구. 빼다구. 뺨다구):

㉠빼다귀.

- 0. 빼다구 해장국을 먹자.
- 0. 흥살무니(앞니 빠진 사람)가 빼다구 추렴한다.
- 0. 쇠 빼다구 같은 사람.(성질이 부드럽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

빼달이(빼랍. 설합): ㉠서랍. ㉡책상,

- 문갑 따위의 여달이 상자.
- 0. 빼달이 문을 꼭 잠근다.

빼대: ㉠빼대.

- 1. 몸을 이룬 골격.
 - 0. 척추동물은 빼대가 다 있지.
- 2. 사물의 열개.
 - 0. 글의 빼대를 간추린다.
- 3. 사람의 인품.
 - 0. 빼대 있는 집안이다.(문벌이 반듯한 집안이다)
 - 0. 빼대 있는 사람이다.(심지가 곧고 쫓대기가 있는 사람이다)

빼도 못 추린다: ㉡참패한다.

- 0. 그 사람하고 씨름하면 빼도 못 추린다.

빼들가지: →배들가지.

빼랍: →빼달이.

빼마두(빼매두): ㉠빼마디.

- 0. 빼마두가 쪽쪽거리 잠을 못 이룬다.

빼박았네(빼쌌네): ㉡빼 닳았네. 꼭

- 닳았네.
- 0. 아이구, 아이가 아버지 빼박았네.

빼뱅이치는: ㉡뺨소니치다 ‘뺨소니치는’

- 에서 온 속어.
- 0. 공부할 때 빼뱅이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빼빠지게: ㉡골병들게.

- 0. 잇속 없는 일, 빼빠지게 일해 봐야 몸만 버린다.

빼시시: →배시시.

빼쌌다: →빼박다.

빼족구두: ㉠뺨족구두.

- 0. 앞집 처녀가 빼족구두를 신고 어디로 가나?

빼족하다(뺨쪽하다. 뺨쪽하다):

- ㉠뺨쪽하다. 뺨쪽하다.
- 0. 멧돼지 입은 빼족하다.
- 0. 봄이 되니 새싹이 빼족하게 올라온다.

빼짱우(뺨장우. 뺨장우. 뺨장우):

- ㉠질경이. ㉡질경잇과의 여러해살이 풀.
- 0. 빼짱우 어린 잎은 나물로 먹는다.
- 0. 빼짱우 씨는 이뇨제로 쓰인다.

뺨다구: →빼다구.

뺨질뺨질하다: →뺨질뺨질하다.

뺨하다: ㉠뺨하다. 뺨하다.

- 1. 밝은 빛이 비치어 환하다.
 - 0. 호롱불을 비치니 밤길이 뺨하다.
- 2. 일의 내용이 분명하다.
 - 0. 그 일이야 뺨하지. 그렇게 되는 것이.
- 3. 잠깐 틈이 있다.
 - 0.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좀 뺨하다.
- 4. 병세가 좀 회복된다.
 - 0. 병세가 좀 뺨하다.

뺨할 틈 없다: ㉡한가한할 틈 없다.

- 0. 요즈음은 얼마나 비뺨지 뺨할 틈 없다.

뺨쪽하다: →빼쪽하다.

뺨: →볼태기.

뺨(뺨): ㉠뺨.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최대한으로 뺨은 거리.
 0. 오이가 한 뺨하고 반이다.
 0. 손가락 한 뺨 꽃을 땅이 없다.
뺨다구: →볼태기.
뺨장우: →뺨장우.
뺨친다: ㉠뺨친다. ㉡상대를 능가한다.
 0. 학교는 늦게 들어갔지만 공부는 남보다 뺨친다.
뺨장우: →뺨장우.
뺨갈구(뺨갈그, 뺨갈기): ㉠뺨가루.
 0. 그 사람은 화장을 해서 뺨갈구를 강물에 뿌렸다는구만.
뺨갈그: →뺨갈구.
뺨갈기: →뺨갈구.
뺨긴다(뺨긴다): ㉠뺨긴다.
 0. 삼대를 삶아 껍질을 뺨긴다.
뺨속: ㉠뺨속.
 0. 얼음을 먹으니 뺨속까지 시원하다.
뺨장우: →뺨장우.
뺨조각: ㉠뺨조각.
 0. 먹고 남은 뺨조각은 개에게 준다.
뺨뺨이: ㉠1. 사교춤. 2. 야바위.
 1. 사교춤.
 0. 그 사람 뺨뺨이 잘 돌린다.
 2. 야바위.
 0. 뺨뺨이 판에 들었다 돈을 다 날렸다.
뺨이친다: ㉡도중에 도망친다.
 0. 수업이 안 끝났는데 뺨이친다.
뺨그네하다: ㉠뺨근하다. ㉡근육이 피로하여 움직이기 불편하다.
 0. 많이 걸었더니 팔다리가 뺨그네하다.

뺨그러진다: →뺨그러진다.
뺨꾸기(뺨꾸기): ㉠개미귀신.
 ㉡명주잠자리 애벌레.
 0. 개미귀신이 과놓은 함정에 개미를 넣어 뺨꾸기를 잡는다.
 0. 뺨꾸기 잡는 재미에 소가 콩밭에 든 걸 몰랐다.
뺨니: →뺨니.
뺨덕다리(뺨청다리): ㉠뺨정다리.
 ㉡구부렸다 폈다를 못하는 다리.
 0. 저기 뺨덕다리가 뒤뚱거리며 온다.
뺨덕뺨덕하다: ㉡성격이 부드럽지 못하고 좀 딱딱한 사람.
 0. 그 사람 성질은 뺨덕뺨덕하다.
 0. 성질이 좀 뺨덕뺨덕 해도 멧은 있는 사람이야.
뺨들군다: →뺨들군다.
뺨들군다: →뺨들군다.
뺨청다리: →뺨덕다리.
뺨벅거린다: →뺨벅거린다.
뺨데기: ㉠뺨데기. ㉡완전변태 하기 직전의 고정된 상태.
 0. 누에고치 뺨데기는 맛이 있다.
뺨때: ㉠본때. ㉡본보기가 될만한 됴됨이.
 0. 뭐라 그리거든 뺨때를 한번 보여줘.
뺨뺨이: ㉡양심의 가책을 잘 모르는 사람.
 0. 그 사람 좀 뺨뺨이야. 부끄러워할 줄 몰라.
 0. 뺨뺨이 같은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
뺨지름하다: →뺨지름하다.
뺨질나게: ㉠1. 자주. 2. 분주하게.
 1. 자주.

0. 그 사람 뻘질나게 오더니 요즘은 뜬해.
2. 분주하게.

0. 쥐가 광에 뻘질나게 드나든다.

뻘히(편히): ㉠물끄러미. ㉡우두커니 한
곳만 바라보는 모양.

0. 무얼 그렇게 뻘히 쳐다봐.

뻘: ㉠개펄. ㉡갯가의 개흙이 깔린 땅.

0. 뻘 밭에는 조개가 많다.

~뻘: →뻘.

뻘쭙하게(뻘쭙하게): ㉠틈새가 있게.

0. 대문이 뻘쭙하게 열렸다.

뻘쭙하게: →뻘쭙하게.

뻘끗하면: ㉠1. 말하면. 2. 특하면.

1. 말하면.

0. 내가 입을 뻘끗하면 다 큰일 나.

2. 특하면.

0. 뻘끗하면 돈을 달라니 득달을 하겠나.

뻘쟁이: ㉠거짓말쟁이.

0. 그 사람 뻘쟁이야. 같이 말하지 마.

뻘집난다: ㉠탄로 난다.

0. 뻘을 자꾸 치면 뻘집난다.

뻘치놓는다: ㉠제외한다.

0. 까붙면 뻘치놓는다.

뻘다구: →뻘다구.

뻘매두: →뻘매두.

뻘다구: →뻘다구.

뻘호두(뻘호두): ㉠뻘오디. ㉡뻘나무의
열매.

0. 뻘호두 따먹으러 가자.

뻘깰다: ㉠뻘깰다. ㉡장작을 가른다.

0. 수박을 뻘깰다.

0. 장작을 뻘깰다.

뻘닥하다: ㉠반 건조된 상태다.

0. 명태가 뻘닥하다.

0. 오징어가 뻘닥하다. 맛있겠다.

뻘도시: ㉠구멍에 알맞게 들어가는 모양.

0. 밭에 버선이 뻘도시 들어간다.

0. 포도주병 마개가 뻘도시 들어간다.

뻘라지: →불태기.

뻘로찌: →배들가지.

뻘생이: →보생이.

뻘긴다: ㉠볶인다.

1. 볶임을 당하여 익는다.

0. 콩이 열에 의해 뻘긴다.

2. 남에게 볶임을 당하여 괴로움을 겪는다.

0. 아이들에게 뻘긴다.

3. 속이 불편하다.

0. 음식 먹은 것에 체했나? 속이 뻘긴다.

뻘닥양지(뻘닥양지): ㉠몹시 더운 양지.

0. 뻘닥양지에서 감자를 캔다.

0. 뻘닥양지에서 콩밭을 맨다.

뻘닥양지: →뻘닥양지.

뻘쟁이: →복쟁이.

뻘직개: →복직개.

뻘짱장: →뻘짜장.

뻘쟁이: →복쟁이.

뻘는다: ㉠볶는다.

1. 음식을 그릇에 담아 불에 익힌다.

0. 콩을 뻘는다.

2. 사람을 못살게 군다.

0. 심부름하는 아이를 달달 뻘는다.

3. 머리칼을 곱슬곱슬하게 볶는다.

0. 머리칼을 두루 말아 뻘는다.

뻘어친다: ㉠'볶아치다'. '볶아친다'에서 옹

말. ㉸몹시 급하게 몰아친다.

0.아에게 너무 뺨어친다. 정신 못 차리게.

뺨은 밥: ㉸볶은 밥.

0.나는 뺨은 밥을 먹고 싶다.

뽕때: ㉸본때. ㉸본보기가 될만한 모양.

따끔한 맛.

1.본보기.

0.뽕때가 나는 옷이다.

0.야! 뽕때 없이 놀지 마.

2.따끔한 맛.

0.까불거든 뽕때 한번 보여줘.(까불면 겁을 한번 주라는 말)

뽕: →불태기.

뽕때기: →불태기.

뽕태기: →불태기.

뽕: →뺨.

뽕낸다: ㉸자랑하며 모양낸다.

0.새옷 입고 뽕낸다.

0.너무 뽕낸다..

뽕호두: →뽕호두.

뽕갔다: ㉸반했다. ㉸무엇에 대하여 취하여 흘렀다.

0.첫 눈에 뽕갔다. 그래서 결혼했지.

뿌꾸기: →빠꾸기.

뿌닥질: ㉸빨로 떠 받는 일.

0.뿌닥질 하는 소가 힘이 세다.

0.황소도 언덕이 있어야 뿌닥질 하지.

(기델 곳이 있어야 힘을 쓴다는 말)

뿌달구지: ㉸불거진 옹이.

0.나무 뿌달구지를 다듬어라.

0.뿌달구지에 걸릴라. 조심해라.

뿌덕하게: ㉸약간 덜 마른 상태.

0.명태가 뿌덕하게 말랐다.

뿌러진다: ㉸부러진다.

0.얼음판에 넘어지면 팔 뿌러진다.

뿌럭지(뿌레기): ㉸뿌리. ㉸땅속에 묻혀 식물을 지탱하거나 사물의 근본이 되는 것.

1.식물의 뿌리.

0.우슬 뿌럭지가 무릎에 약이래.

2.깊이 박힌 물건의 밑둥.

0.이가 썩어 뿌럭지만 남았다.

3.깊이 자리잡아 굳어진 일의 근본.

0.뿌럭지 없는 나무 없다.(무엇이든 근본이 있다는 말)

0.뿌럭지가 깊다.(연유하는 바가 오래다)

0.뿌럭지를 뽑는다.(근본을 깨끗이 제거해 버린다는 말)

뿌레기: →뿌럭지.

뿌리채: ㉸뿌리째.

0.무를 뿌리채 뽑는다.

0.나무가 바람에 뿌리채 뽑혔다.

뿌순다(뿌신다): ㉸부순다.

1.단단한 물건을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린다.

0.흙덩이를 잘게 뿌순다.

2.만들어진 물건을 깨뜨려 못쓰게 만든다.

0.헌 담장을 뿌순다.

뿌시레기: →부시레기.

뿌신다: →부순다.

뿌직뿌직: →부직부직.

뿌질군다: →부질군다.

뿌데기: ㉸북데기. 부스러기. ㉸짚, 잡풀 등이 뒤엉킨 뭉덩이.

0.벼 뺏데기에서 벼 이삭을 고른다.
뺏: ㉠노여움.
 0.야. 선생님 뺏 났어 조용해.
뺏군다(뺏꾼다): ㉡불린다. ㉢불어나게 한다.
 1.차차 늘어 커지거나 많아진다.
 0.돈을 자꾸 뺏군다.
 2.몸집 따위가 커진다.
 0.놀고 먹기만 하며 몸집만 뺏군다.
 뺏긴다: →부질군다.
뺏끈한다: ㉡불끈한다. ㉢성질을 왈칵 낸다.
 0.조그만한 일에 머 뺏끈한다.
뺏다구(뺏대. 뺏등가지. 뺏따구. 뺏딱지):
 ㉡화.
 0.가만히 있는 나를보고 욕을 하니 뺏다
 구가 안 나겠어?
 뺏대: →뺏다구.
 뺏등가지: →뺏다구.
 뺏따구: →뺏다구.
 뺏딱지: →뺏다구.
 뺏뚝뺏: →불뚝뺏.
뺏었다: ㉢'불어나다', '불었다'에서 온 말.
 0.비가 와서 강물이 많이 뺏었다.
뺏찌레하다: ㉡불그레하다.
 0.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뺏찌레하다.
 뺏꾼다: →뺏군다.
뺏까뺏까하다: ㉡비슷비슷하다.
 0.너희 둘의 키가 서로 뺏까뺏까하다.
뺏개댄다: ㉡비비댄다. ㉢자꾸 대고 비비
 댄다.
 0.소가 나무 뿌리에 이마를 대고
 뺏개댄다. 가려운 모양이다.
뺏개질: ㉡비게질. ㉢소나 말 등이 나무나

돌에 비비는 짓.
 0.소가 나무다 대고 뺏개질을 한다.
 기운이 솟아나는 모양이다.
뺏거덕거린다: ㉡뺏격거린다. ㉢단단한
 물체가 서로 마찰하는 소리를 낸다.
 0.우차 바퀴가 뺏거덕거리며 굴어간다.
뺏까번쩍: ㉢별쩍스럽게 요란한 것.
 0.옷 차림이 너무 뺏까번쩍 해.
 0.뺏까번쩍 차려입고 어디로 가나.
뺏꾸: ㉢좀 모자라는 사람.
 0.그 사람 좀 뺏꾸야.
 0.뺏꾸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뺏꿈이: →뺏꿈이.
뺏끈덕하면: ㉢미끄러지면. 잘못하면.
 0.뺏끈덕하면 큰 일이야. 조심해.
 뺏긴다: →배긴다.
뺏대고: ㉡1.견디고. 2.밀고.
 1.견디고.
 0.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끝까지
 뺏대고 올라간다.
 2.밀고.
 0.뺏뺏한 사람들 속으로 뺏대고
 들어간다.
뺏들다: ㉡비뺏다. ㉢바르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0.줄이 좀 뺏들다.
뺏뚜렝이: ㉡뺏뺏이. ㉢입이 비뺏어진
 사람.
 0.돌 베개 베고 자면 뺏뚜렝이가 된 대.
 뺏뚜루: →비뚜루.
 뺏뺏루: →비뚜루.
뺏시시: ㉡비스듬히.

0. 감불 짐이 빠시시 넘어간다.
 빠알: →비알.
 빠적빠적: →부직부직.
빠제(빠져): ㉠썰어.
 0. 감을 빠제 말린다.
 빠져: →빠제.
빠져나온다: ㉠새어 나온다.
 0. 두부보가 터져서 두부가 빠져나온다.
빠지개: ㉠익은 감을 일정한 두께로 썰어 말린 것.
 0. 감 빠지개가 덜 마르면 약간 짙은 맛이 난다.
 0. 감 빠지개가 쫄쫄쫄쫄한 게 맛이 들었다.
빠지않는다: ㉠비우지 않는다.
 0. 장마철이라 비가 하루도 빠지않는다.
빠진다: ㉠빠친다. ㉠마음이 비틀어져 토라진다.
 0. 조그만 일에도 잘 빠진다.
빠적: ㉠1. 살짝. 2. 버적.
 1. 살짝.
 0. 얼굴만 빠적 내밀곤 어디로 갔어.
 2. 버적.
 0. 사람이 요즘 왜 빠적 말랐어.
빡빡하다: ㉠빡빡하다. ㉠물기가 적어 부드러운 맛이 적다.
 0. 닭곰탕이 빡빡하다.
 0. 쪽저구 매운탕이 빡빡하다.
빡하다: ㉠틈이 생긴다.
 0. 비가 계속 오더니 이제 좀 빡하다.
빨 때가 없다: ㉠비울 때가 없다.
 0. 그 식당은 손님이 빨 때가 없다.

빨쭙하다: →빠쭙하다.
 빨긴다: →뺏긴다.



~사: ㉠~야. ~어.
 1. ~야.
 0.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쭈시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0. 내사 마 그렇다 치고, 너는 왜 그러나.
 2. ~어.
 0. 동네에서 놀았사.
 0. 하루 종일 일했사.
사개(사과): ㉠사과. ㉠사과나무의 열매.
 0. 빨간 사개가 탐스럽게 익었다.
 0. 사개 껍질에 사과가 가득하다.
 사과: →사개.
사고뭉테기(사고뭉텅이): ㉠사고뭉치.
 ㉠늘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0. 그 사람 사고뭉테기야.
 사고뭉텅이: →사고뭉테기.
사군다(사킨다): ㉠사군다.
 0. 학교에 들어가 새 친구를 사군다.
사귀: ㉠'사귀다', '사귀어'에서 온 말.
 0. 친구를 잘 사귀라.
사그라든다(사그러진다): ㉠점점 줄어들어 없어진다.

0. 아기 울음 소리가 차츰 사그라든다.
 0. 그 좋던 장작불이 점점 사그라든다.
 사그러진다: →사그라든다.
사그잔: ㉠사기잔.
 0. 사그잔에 술이 찰찰 넘친다.
사그전: ㉠사기전. ㉡사기그릇 가게.
 0. 사그전에 들러 사기그릇을 고른다.
사그파리: ㉠사금파리. ㉡깨진 유리 조각.
 0. 사그파리에 손 벨라. 조심해라.
 0. 사그파리는 멀리 갖다 버려라.
 사간다: →사군다.
사나: ㉠'사나이'. '사내'에서 온 말. 남편.
 0. 그래도 제 사나 말이라면 잘 들어
사나자석(사내자석): ㉡남자 아이.
 0. 사나자석이 웅졸해가지고 쓰겠나?
 사내자석: →사나자석.
사닥다리: ㉠사다리.
 0. 감나무에 사닥다리를 놓고 오른다.
사둔: ㉠사둔. ㉡혼인한 두 집의 부모들끼리, 또는 그 두 분의 같은 항렬이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르는 말.
 0. 사둔 남 말하네.(제 잘못은 제쳐두고 남의 잘못만 나무란다는 말)
 0. 사둔의 팔촌.(남이나 다름없는 먼 인척, 또는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의 남에 대한 비유)
사룬다: ㉠태운다.
 0. 축문을 사룬다.
사마구: ㉠사마귀. 또는 곤은 곤살.
 1. 곤충을 잡아먹는 벌레.
 0. 사마구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2. 살갓에 돋는 곤은 덩이.

0. 발에 난 사마구가 자꾸 받힌다.
사무: ㉠사뭇. 아주. 거리낌 없이.
 1. 거리낌 없이.
 0. 사무 흥에 겨워 어쩔 줄 모른다.
 2. 판관으로:
 0. 예상과는 사무 판관이다.
 3. 줄곳.
 0. 사무 바쁘기만 하다.
 4. 마음에 사무침.
 0. 사무 깜짝 놀라 일어섰어.
사무롭다(싸무롭다): ㉠사납다.
 1.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억세거나 생김새가 험하고 무섭다.
 0. 성질이 몹시 사무롭다.
 0. 사무루운 개, 콧등 아물 날이 없다.
 (난폭한 사람을 늘 싸움만하며 상처가 미처 나을 사이가 없다)
 2. 비나 바람 따위가 몹시 거칠고 심하다.
 0. 비 바람이 사무롭다.
 3. 여건이나 사정 따위가 순탄하지 못하고 나쁘다.
 0. 팔자가 사무루워 장가도 못 갔다.
 0. 꿈자리가 사무루워 뒤숭숭하다.
사바리(사발대기): ㉠사발. ㉡사기로 된 밥그릇이나 국그릇.
 0. 사바리 깨질라. 살살 씻어라.
사발문애(사발문어): ㉡사발 만한 문어.
 0. 사발문애가 맛 있다.
 사발문어: →사발문애.
사방천지: ㉠사방팔방. ㉡모든 방향이나 방면.
 0. 사방천지가 밝아온다.

사벨: ㉠사벨. ㉡죽어서 이별함.

- 0. 이삼십대 사벨한 과부는 수절을 해도 사십대 사벨한 과부는 수절을 못한다.

사사망정: ㉡할까말까 망설이는 것.

- 0. 보리 타작을 할까말까 사사망정일세.
- 0. 장사를 할까말까 사사망정일세.

사생겔단(사생절단): ㉠사생결단. ㉡죽고

- 살기를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
- 0. 사생겔단하면 무서울 게 없다.

사생절단: →사생결단.

사시우?: ㉠사세요?

- 0. 어데 사시우? 0. 바닷가에 사시우?

사요리: ㉠학꽂치. 공미리. ㉡학꽂치과에

- 속하는 바닷물고기.
- 0. 사요리를 많이 낚았다.
- 0. 봄철 사요리 회는 일품이지.

사우(싸우. 싸위): ㉠사위.

- 0. 사우는 백년지객이다.(사위는 늘 어렵게 대한다는 말)
- 0. 사우도 반 자식이다(사위에 대한 정이 자식 못지 않다는 말)
- 0. 사우 사랑은 장모가 한다.(장모가 사위를 극진히 아낀다는 말)

사으레(사을. 사흐레): ㉠사흘. 3일.

- 0. 그럼 사으레 장날 보세.
- 0. 잔치가 이제 사으레 남았다.

사을: →사으레.

사제밥: ㉠사갓밥. ㉠초상집에서 죽은

- 사람의 넋을 부를 때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밥. 세 그릇을 떠서 담 밑에 놓았다가 발인할 때 치움.

- 0. 초상이 나면 사제밥부터 짓는다.

사족을 못쓴다(사지를 못쓴다):

- ㉡두려워서 또는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두려워서.

- 0. 넌 선생님이라면 왜 사족을 못쓴다
- 2. 너무 좋아서.

- 0. 고기라면 좋아서 사족을 못쓴다.

사지를 못쓴다: →사족을 못쓴다.

사춘: ㉠사춘.

- 0. 사춘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다는 말)

사춘성야: ㉠사춘형.

- 0. 사춘성야가 장가 간단다.

사춘 행수: ㉠사춘 형수.

- 0. 사춘 행수가 누룽지를 끊어 주신다.

사태기: ㉠사타구니. 살. ㉡다리 사이 부분.

- 0. 사태기에 점이 있어.
- 0. 진드기가 사태기에 붙었다.

사팔떼기(사팔띠기): ㉠사팔뜨기. ㉡사팔

- 눈을 가진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 0. 그 집 아이 눈이 사팔떼기야.

- 0. 사팔떼기는 군대에 안 간다.

사팔띠기: →사팔떼기.

사흐레: →사으레.

사흘걸기(사흘걸이. 사흘돌기):

- ㉠사흘돌이. ㉡사흘에 한 번씩.
- 0. 추위가 사흘걸기로 온다.

사흘걸이: →사흘걸기.

사흘돌기: →사흘걸기.

삭다리(삭당가지. 싹다리. 싹당가지):

-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죽은 나뭇가지.
 0. 삭다리는 잘 탄다.
 0. 삭다리 치기는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이지.

삭당가지: →삭다리.

삭월세: ㉠사글세.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살면서 다달이 내는 세,
 0. 내집을 마련하여 삭월세 신세를 면해야 되겠다.

산고라멩이(산골짜구니. 산골짜궁이.

산꼴): ㉠산꼴. 산꼴짜기.

0. 산고라멩이 논이라 벼가 시원치 않게 되었어.

0. 그집은 산고라멩이에서 살다 이사 왔대.

산꼴짜구니: →산고라멩이.

산꼴짜궁이: →산고라멩이.

산꼬멩이: ㉠산 언덕.

0. 산꼬멩이에 밭이 있어 부쳐 먹기 힘들다.

0. 산꼬멩이 밭은 곡식도 잘 안된다.

산꼭디기(산등강. 산말기. 산말량이):

㉠산꼭대기. 산등성이. 산마루.

0. 산꼭디기에 오르니 시야가 확 트인다.

0. 산꼭디기에 독송이 밭이 있다.

산꼴: →산고라멩이.

산댁: ㉠사돈댁 부인.

0. 산댁 장에 오셨소?

0. 산댁, 다들 무고하시지요?

산데미: ㉠산데미. ㉡산만큼.

0. 일이 산데미처럼 쌓였는데 언제 다 하나.

0. 벗짚가리를 산데미 같이 쌓아 올린다.

산돼지: ㉠멧돼지.

0. 겨울철에 눈오거든 산돼지 사냥 가세.

0. 예전엔 산돼지를 사냥해 잡아먹어서 농가 피해가 적었지.

산등강: →산꼭디기.

산말기: →산꼭디기.

산말량이: →산꼭디기.

산모랭이(산모링이. 산모탱이): ㉠산모통이.

0. 산모랭이를 돌면 마을이 나온다.

0. 산모랭이에서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산모링이: →산모랭이.

산모탱이: →산모랭이.

산목련: ㉠함박꽃. 함박꽃나무.

0. 봄철에 산에는 산목련이 피어난다.

0.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산목련 꽃이 피네.

산바래질: ㉠산후 바라질.

0. 애기 낳고 산바래질을 잘 해야 한다.

0. 애기 낳으면 금줄을 치고 산바래질을 하느라 정성을 쏟는다.

산비알(산빈달): ㉠산비탈. ㉡산기슭의

몹시 경사진 곳.

0. 산비알 돌 때 조심해라.

0. 산비알 돌다 소가 내려 굴었다.

산빈달: →산비알.

산삼꾼(삼꾼. 심꾼): ㉠심마니. ㉡산삼

캐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

0. 산삼꾼도 운이 따라야 산삼을 만나지.

0. 산삼꾼은 산삼 무더기를 만나면 팔자를 고치지.

산신령: ㉠호랑이.

0. 산신령은 공포의 우상이었다.

0.산신령께 길운을 빈다.
 산으로 가셨다: →떠나가셨다.
 산자리: →메자리.
산죽: ㉞조릿대. ㉟뱃과의 여러해살이 식물.
 조리를 만든다.
 0.산죽으로 조리를 만든다.
 0.산죽 바구니는 튼튼하다.
산지슬(산지슬카리): ㉞산기슭. ㉟산의
 아랫부분.
 0.산지슬 받은 그늘이 저서 곡식이 잘
 안된다.
 산지슬카리: →산지슬.
산질: ㉞산길.
 0.산질이 무섭다.
 0.밤에 산질은 조심해서 가야 한다.
산짐성: ㉞산짐승.
 0.산짐성이 농작물에 해를 많이 끼친다.
 0.산길에서는 산짐성을 만나기가 쉽다.
산추낭구(산추낭구, 산추낭기):
 ㉞산초나무. ㉟운향과의 낙엽 활목 교목.
 0.산추낭구에 산초가 익었더라.
 0.산추낭구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짠다.
 산추낭구: →산추낭구.
 산추낭기: →산추낭구.
산태미(삼대미, 삼태미): ㉞삼태기. ㉟대,
 짚, 싸리 등으로 엮어 흙,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그릇.
 0.산태미에 거름을 담아 소쿠리에 붓는다.
 0.산태미로 앞 가리기.(속이 뻥히 들여다
 보이는 일을 속이려 드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
살게: ㉞살려.

0.잡은 매미를 살게 쥐.
 0.넷가에서 잡은 가재도 도로 살게 줬다.
살갱이(살기): ㉞살. 살갱이. ㉟고양잇과
 동물의 산 짐승. 성질이 사나움.
 0.살갱이가 닭을 잡아갔어.
 0.호랑이 없는 골에 살갱이가 대신한다.
살고낸대(살귀낸다, 살레낸다): ㉞살려낸다.
 0.시드는 고춧모를 물을 주어 살고낸다.
 0.강아지가 죽어가는 걸 약을 먹여 살고
 낸다.
살곰살곰: ㉞살금살금. 살살.
 0.고양이가 살곰살곰 기어간다.
살굴라문(살릴라문): ㉞살리려면.
 0.깻모를 살굴라문 물을 쥐.
 0.병아리를 살굴라문 닭 엄마한테 돌려
 쥐.
 살귀낸다: →살고낸다.
**살그마니(살그마이, 살그머이,
 슬그마니, 슬그마이, 슬그머이):**
 ㉞살그머니. 슬그 머니. ㉟남이 모르게
 던지시.
 0.친구가 살그마니 다가선다.
 0.그리고 살그마니 사탕을 건넨다.
 살그마이: →살그마니.
 살그머이: →살그마니.
 살기: →살갱이.
살덩이(살등거리): ㉞살덩이.
 0.쇠고기 살덩이를 베어 저울에 단다.
 살등거리: →살덩이.
살라당살라당: ㉞살랑살랑. ㉟서늘한
 바람이 가볍게 부는 모양.
 0.이제 바람이 살라당살라당 불어오기

시작한다.
 살레난다; →살고낸다.
살려는: ㉠살려는.
 0.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될텐데...
 0. 장에는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살릴라문: →살굴라문.

살모새(살무사): ㉠살모사. ㉡독사의 일종. 머리가 삼각형임.
 0. 살모새는 빛깔이 거무튀튀 하다.
 0. 살모새는 조심해라. 물리면 무섭다.
 살무사: →살모새.

살미(살민, 살민서): ㉠살민서.
 0. 그 돈은 살미 천천히 갚아라.
 0. 살미 갚다 보면 다 갚겠지.
 살민: →살미.
 살민서: →살미.

살어생전: ㉠살어생전.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0. 살어생전에 원하온대 성공하게 하옵소서.
 0. 살어생전에 못 이룬 것, 저승에 가면 이룰까.

살작: ㉠살작.
 1. 남 모르는 사이에 재빠르게.
 0. 투전판에서 살작 빠져나왔다.
 2. 힘 들이지 않고 가볍게.
 0. 살작 뛰어내려라.
 3. 심하지 않게 약간.
 0. 시금치를 살작 데친다.
 4. 표나지 않게 가만히.
 0. 비밀을 살작 알려준다.
살작꿈보: ㉠살작꿈보. ㉡약간 엷은 꿈보.

0. 그 처녀가 살작꿈보래.
 0. 살작꿈보래도 잘 못 알아 봐.
살저름: ㉠살저름.
 0. 쇠고기 살저름 한번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0. 오뉴월에 고기 살저름 얻어먹기 힘들지.

살쥐: ㉡작은 쥐. 살살거리는 사람.
 0. 그 앤 살쥐야. 말하지 말아.
 0. 살쥐처럼 살살거린다.

살피¹: ㉠경계. ㉡논, 밭의 경계.
 0. 밭 살피를 조심해 간다. 뱀이 있을까 봐.

0. 살피는 정확히 해놓고 살아야 한다.
살피²: ㉠살피. ㉡눈에 빠지지 않도록 발바닥에 대는 덧신.
 0. 살피를 신으면 눈에 덜 뺏는다.
 0. 살피를 신고 돼지 사냥을 떠난다.

삼꾼: →산삼꾼.
 삼대미: →산태미.

삼살방(삼살방우): ㉠삼살방위. ㉡이 방위에 건축, 개축, 묘를 쓰지 못한다.
 0. 삼살방을 건드리면 동티가 난대.
 0. 삼살방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삼살방우: →삼살방.

삼숙이(삼식이): ㉠삼세기. ㉡삼세기과의 바닷물고기.
 0. 삼세기를 낚았다.
 0. 삼세기는 매운탕이 일품이야.

삼신할머이: ㉠삼신할머니. ㉡아이들 점지해 준다는 전설 속의 할머니.
 0. 자식을 가지게 해 달라고

삼신할머이께 치성을 올린다.
 0.삼신할머이가 점지하면 아들을 낳는다.
삼십육개(삼십육개 줄행랑): ㉞삼십육계.
 도망.
 0.불리하면 삼십육개라. 몰라?
 0.삼십육개도 하나의 전술이다.
 삼십육개 줄행랑: →삼십육개.
삼오제: ㉞삼오제. ㉠장사 지낸지
 삼일만에 지내는 제사.
 0.그집 삼오제가 오늘 저녁 이래.
 0.삼오제에는 장사때 못간 조문객이
 조문 한다.
삼자대면(삼지대면): ㉞상조 대면.
 ㉠서로 마주 보고 시비를 가림.
 0.그런지, 안그런지 삼자대면 시켜보면
 알아.
 0.삼자대면까지 갈 일을 왜 해.
삼절치기: ㉞삼등분.
 0.갈비를 삼절치기 해 나눠 봐.
 0.끈을 삼절키기로 해서 나눈다.
 삼지대면: →삼자대면.
삼척냉골(삼척맹방): ㉞삼척냉골.
 ㉠차디찬 방의 비유.
 0.방바닥이 차기가 삼척냉골이잖나.
 0.방이 삼척냉골이면 불을 때야지.
 삼척맹방: →삼척냉골.
삼천포로 빠진다: ㉠영똥하게 간다.
 0.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삼춘: ㉞삼춘. 숙. 숙부. ㉠아버지의 형제.
 0.올해는 삼춘이 장가 간다.
 0.삼춘하고 송이 따러 간다.
삼치레: ㉞삼칠일. 세 이레. ㉠아이를

낳은지 세 이레 동안 지키는 여러 가지
 금기.
 0.삼치레가 지났으니 이젠 방문해도
 되겠지.
삼개(생개. 생켜): ㉞삼켜.
 0.쓴 약을 억지로라도 삼개.
 삼태미: →산태미.
삼툇개: ㉠삼을 툇는 도구.
 0.거기 삼툇개 이리 가져 온.
 0.삼툇개로 삼을 훑어 삼을 삼는다.
삼판: ㉞산판. ㉠산에서 벌목을 하는 곳.
 0.삼판에서 나무를 벤다.
 0.삼판에서는 목도꾼이 나무를 나른다.
삼수씩: ㉞삼수.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0.삼수씩 뿌리는 위장병에 좋다지.
 0.삼수씩을 캐러 간다.
삿갓조개(삿갓조개): ㉞따개비.
 ㉠따개비과의 절지동물의 총칭.
 0.삿갓조개나 골뱅이도 매운탕 거리로
 좋지.
상가(상가두. 상개두. 상구. 상구두):
 ㉞아직도. 여태. ㉠때가 되지 않았거나
 미처 이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
 0.상가 비가 오나?
 0.그 일 다 마치려면 상가 멀었어.
 상가두: →상가.
상각: ㉞상객. ㉠지위가 높은 손님.
 0.조카 결혼식에 상각으로 가야겠다.
 0.상각을 극진히 모신다.
상간: ㉞사이.
 0.꽃이 하루 이틀 상간에 그만 다 졌어.

상개두: →상가.

상구: →상가.

상구까장(상구까정. 상구까지. 상구까징.

상구꺼장. 상구꺼정. 상구꺼지.

상구꺼징. 상기까지): ㉠아직까지.

0. 상구까장 안 갔느냐?

0. 그 일을 상구까장 다 못했다고...

상구까정: →상구까장.

상구까지: →상구까장.

상구까징: →상구까장.

상구꺼장: →상구까장.

상구꺼정: →상구까장.

상구꺼지: →상구까장.

상구꺼징: →상구까장.

상구두: →상가.

상구머리: ㉠상고머리. ㉡스포츠머리.

0. 상구머리 깎으니 시원하고 좋구만.

상기까지: →상구까장.

상나무: ㉠향나무. ㉡측백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

0. 울릉도는 고목 상나무가 많다더라.

상노터리(상늘거바리. 상늘걱다리.

상늘걱바리. 상늘격이): ㉠상늪은이.

㉡늪은이를 비하해 이르는 말.

0. 한두 해 가다보니 어느새 상노터리가
되었다.

상늘: ㉠상널. ㉡젯상 판.

0. 상늘을 꺼내서 젯상을 만든다. .

상늘거바리: →상노터리.

상늘걱다리: →상노터리.

상늘걱바리: →상노터리.

상늘격이: →상노터리.

상다지: →노박.

상두계: ㉠상포계. ㉡초상을 치를 때 드는
비용을 서로 도와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

0. 연말 상두계 한다고 모이래.

0. 초상이 나면 상두계에서는 상두쌀과
비용을 모아 장사를 치른다.

상두꾼(상애꾼): ㉠상여꾼. ㉡상여를 매는
사람.

0. 상두꾼이 상여를 매고 마을을 나선다.

상두재비: ㉠상쇠. ㉡두레패, 굿중패,
걸림패, 농악대에서 팽과리를 치면서
이끄는 사람.

0. 농악놀이를 하는데 상두재비가 잘해야
잘 된다.

상머슴: ㉠상머슴. ㉡일을 잘하는 장정
일꾼.

0. 상머슴 새경은 쌀 여섯가마니래.

상세나섰다: →떠나가섰다.

상애(상애틀. 큰틀): ㉠상여. 행상.

㉡사람의 시체를 묘지까지 실어 나르는
제구.

0. 옆집 할머니 상애가 나가는구나.

상애꾼: →상두꾼.

상애틀: →상애.

상체기: ㉠상처.

1. 부상당한 자리.

0. 가시에 찔려 상체기가 났어.

2. 피해를 입은 흔적.

0. 마음의 상체기가 컸던 모양이야.

상체 자국: ㉠상처 자국.

0. 얼굴에 상체 자국 날라.

0.어릴 때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

상킨다: ㉠삼킨다.

- 1.입에 넣어 목구멍으로 넘긴다.
- 0.밥을 상킨다.
- 2.남의 것을 불법으로 차지한다.
- 0.사기쳐서 남의 땅을 상킨다.
- 3.나오는 눈물이나 웃음 따위를 억지로 참는다.
- 0.눈물을 상킨다.

상판대기(쌍통. 쌍판대기): ㉠상판대기.

- 인상. ㉠얼굴에 대한 비속어.
- 0.얼굴 상판대기 꼴 좋다.
- 0.상판대기가 팽과리 같다.(파렴치한 사람을 일컫는 말)

상팔자: ㉠상팔자. ㉠씩 좋은 팔자.

- 0.개팔자가 상팔자지. 근심 걱정 없고...

새가빠졌다: ㉠죽었다. ㉠죽음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

- 0.취가 뒷에 걸려 새가빠졌다.

새간(생간): ㉠사이.

- 0.남의 말 새간에 끼지 말아라.
- 0.말 새간에 드는 사람, 따로 있어.

새간났다: ㉠분가했다.

- 0.삼촌이 장가들더니 새간났다.
- 0.우리집 옆에 새간나 온 사람이 새살림을 차렸다.

새게듣는다: ㉠새겨듣는다. ㉠말하는 뜻을

- 잘 헤아려 듣는다.
- 0.말하는 뜻을 잘 새게듣는다.

새졌다(새졌다): ㉠1.삭혔다.

- 2.가라앉혔다.

1.음식을 삭게한다.

0.식혜를 새졌다.

2.분한 마음을 가라앉힌다.

0.울분을 참고 새졌다.

새졌다: →새졌다.

새경: ㉠사경 ㉠머슴살이 하고 받는 곡물.

- 0.그 사람은 새경 다섯 가마니에 머슴을 산대.
- 0.오년 동안 새경 살아 논을 샀대.

새경꾼: ㉠머슴.

0.새경꾼 십년에 남은 건 나 홀로세.

새경살이: ㉠머슴살이.

- 0.내땅이 없으니 새경살이 신세가 되었지.
- 0.오죽하면 새경살이를 하겠나.

새구무리하다(시구무리하다): ㉠약간

- 시다.
- 0.막걸리가 오래 되어 맛이 새구무리 하다.
- 0.새구무리한 막걸리로 식초를 만든다.

새그(새기. 신뺑이. 심뺑이. 뺑뺑이):

㉠새것. 새사람.

- 1.새것.
- 0.군복을 새그로 빼 입고 휴가를 간다.
- 2.새사람.
- 0.선임하사가 새그가 왔어.

새기: →새그.

새갓(새갓): ㉠새갓. ㉠비나 햇볕을

가리기 위해 대나 갈대로 엮어 만든

썩우개.

0.새갓을 썩운다.(책임을 지운다)

0.아버지께서 새갓을 쓰고 눈물 보려

가신다.

새꼬래기: ㉠새끼. ㉡짚으로 끈 줄.
 0. 새꼬래기는 짚 두줄기를 손바닥에 엮어서 놓고 비벼 꼬는 거야.
 0. 새꼬래기로 지붕을 단단히 엮는다.

새끈거린다: ㉠새근거린다. ㉡뺨마디가 자꾸 시다.
 0. 손목이 새끈거린다.
 0. 무릎이 새끈거리 잘 못 걸췘다.

새다리: ㉠사다리. 사닥다리.
 0. 새다리를 단단히 잡아라.
 0. 새다릴 놓고 감나무에 올라간다.

새닥(새새닥, 신비, 심부, 심비):
 ㉠새떡. 새색시. 신부.
 0. 그 집에 새 새닥이 들어왔다.
 0. 그 집 새닥이 너무 예쁘대.
 0. 옛날엔 새닥이 연지곤지를 찍었지.

새따먹었다: ㉠눈이 멀었다.
 0. 그 애 한쪽 눈 새따먹었다.

새루: ㉠새로.
 0. 계산을 새루 해 봐. 잘 안 맞는다.
 0. 놀기만 하다 일을 새루 시작하였다.

새목(새묵): ㉠위산이 역류하는 것.
 0. 가루 음식을 먹었더니 새목이 올라온다.
 0. 송편을 먹었더니 새목이 올라온다.

새묵: →새묵.

새미: ㉠쌈.
 0. 여기 새미 나온다.
 0. 산비탈에 새미 물을 쳐낸다.

새벽(새벽, 새벽, 새벽): ㉠새벽.
 0.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나절 일을

했다.

0. 여름 새벽 일은 시원해서 좋다.

새백: →새벽.
 새벽: →새벽.
 새벽: →새벽.

새빨간: ㉠터무니없는.
 0.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
 0. 그건 누가 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갱이: ㉠골수 빨갱이. 골수 공산주의자.
 0. 6.25전쟁 때 새빨갱이 짓 하다가 죽었지.
 0. 새빨갱이 씨가 따로 있나? 어떻게 하다 가 그렇게 됐겠지.

새새닥: →새닥.

새아(새애기): ㉠1. 새 며느리. 2. 새 애기.
 1. 새 며느리.
 0. 새아는 아직 서툴다. 너무 서둘지 마라.
 2. 새 애기.
 0. 새아가 운다. 젖 줘라.

새아부지: ㉠의붓아버지.
 0. 새아부지 밑에선 살아도 새어머니 밑에선 힘들대.
 0. 새아부지가 잘해주신다.

새애기: →새아.

새어머이: ㉠계모.
 0. 새어머이는 데리고 온 애들과 차별이 심하대.

새이새이: ㉠사이사이.
 0. 감자밭 이랑 새이새이에다 옥수수를 심는다.

0.감자밭 새이새이에 뿌린 배추가 잘 자란다.

새이치기: ㉠새치기.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끼어드는 짓.

0.체면이 있지. 새이치기를 어떻게 해.

0.새이치기 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지.

새쪽빼쪽(삿쪽뻗쪽): ㉠잘 빠치는 짓.

0.그애는 새쪽빼쪽이야. 잘 빠져.

0.새쪽빼쪽하면 상대하기 힘들지.

새치: ㉠임연수어. ㉡취노래밧과의 바닷물고기.

0.새치고기 껍질이 무척 맛이 있다.

0.새치고기 껍질로 씹 씹 먹다 부자가 망했대.(새치고기 껍질로 씹싸먹으면 맛은 있으나 돈이 많이 들어 부자도 망한다는 말)

새침때기: ㉠새침때기. ㉡천연덕스레 시치미를 떼는 사람.

0.그 색시는 새침때기야. 말하기 힘들어.

0.새침때기 하곤 같이 놀기 힘들지.

새포기: ㉠억새. ㉡벧과의 여러해살이 풀.

0.늦가을엔 흰 새포기 꽃이 장관을 이룬다.

0.새포기 밭에 조심해 다녀라. 살갓 베인다.

색경: →맨경.

색골이: ㉠호색가.

0.사람이 색골이처럼 생겼다.

0.그 사람 색골이야. 여자 좋아해.

색기: ㉠새끼.

1.자식.

0.색기 많이 둔 소, 길마 벧을 날 없다.
(자식 많은 부모가 일이 많다는 말)

0.자식 색기 많은 집,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많으면 탈도 많다는 말)

2.짚으로 끈 줄.

0.색기에 맨 돌이다.(남이 하지는 대로 하는 사람)

3.남자 아이를 욱히는 말.

0.그 색기는 멋쩍어.

색시: ㉠접대부.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0.색시를 돈주고 데려와 장사를 한다며?

0.물장사는 색시 장사지머.

색시장사: ㉠접대부 장사.

0.색시장사 하기도 힘드네. 돈주고 사오면 자꾸 달아나.

0.색시장사가 물건 장사와 같겠나?

색인다(색힌다): ㉠삭힌다. ㉡삭계한다.

0.식혜를 색인다.

0.명란젓을 색인다.

색힌다: →색인다.

삿갓: →새갓.

삿갓조개: →삿갓조개.

삿들: ㉠샘물이 나오는 작은 도랑.

0.삿들엔 차가운 샘물이 흐른다.

0.삿들엔 옹고지(쌀미꾸리)가 산다.

삿재: ㉠왕겨. ㉡벼의 겉 겨.

0.삿재로 모깃불을 피운다.

0.삿재를 닭장에 깬다.

삿질: ㉠삿길. 사잇길.

0.삿질이 가까워서 좋다.

0.삿질로 질러가다 똥 썬다.(잔 피를

부리다 낭패를 본다)
 셋쪽뺨쪽: →새쪽뺨쪽.
 생간: →새간.
생감: ㉠날감. ㉡익거나 우리지 않은 감.
 0.생감은 짧아서 못 먹겠다.
 0.딱하면 생감이요 철석하면 홍실(홍시)이지.(얼핏 보면 알아차려야지)
생거: ㉠날것.
 0.가제 생거 먹지 말아. 기생충이 있어.
 0.가제 생거 먹으면 폐디스토마 걸린다고 했겠다.
생깡어: ㉠생깡어.
 0.용돈이 좀 넉넉히 생깡어. 0.낮선 돈이 생깡어.
생겨란(생계란. 생달걀. 생달걀이):
 ㉠날계란. 날달걀.
 0.매일 아침 생겨란을 먹는다.
 0.암탉이 방금 낳은 생겨란은 따끈따끈하다.
 생겨란: →생겨란.
생고상: ㉠생고생.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
 0.질러가다가 생고상 했네.
 0.그 사람 일을 사서 생고상이지머.
생그리하다: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난다.
 0.냉이국이 생그리하다.
 0.봄나물 향이 생그리하다.
생기: ㉡생 것이. 날 것이.
 0.오징어는 생기 더 좋더라.
 0.오징어 생기 있으면 회 쳐 먹지.
생낸다(쌩낸다): ㉡발정한다. 암내 낸다.

㉡성호르몬에 의하여 성적 충동이 일어남.
 0.개가 생내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엉뚱한 개하고 잘 붙는다.
 0.생내는 암소는 황소에게 데리고 가면 순해진다.
생다지: ㉡1.생소한. 2.처음 하는.
 1.생소한.
 0.생다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맞선을 본다.
 2.처음하는.
 0.생다지 처음하는 일이라 서툴지머.
 생달걀: →생겨란.
 생달걀이: →생겨란.
생당썩: ㉠사철썩. 인진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약으로도 씀.
 0.생당썩 엿을 과 먹으면 속병이 떨어진다.
 0.밭에다 생당썩을 심는다.
생똥 썬다(쌩똥 썬다): ㉡몹시 힘이 든다.
 0.모르는 일을 맡아 하다가 생똥 썬다.
 0.힘든 일을 해내느라고 생똥 썬다.
생베: ㉠날벼. ㉡갓 베어 마르지 아니한 벼.
 0.추석때 천신할 생베를 베어다 훑는다.
 0.생베를 말려 방아를 찧는다.
생보리: ㉠날보리. ㉡갓 베어내어 마르지 아니한 보리.
 0.생보리가 나오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지.
 0.덜 익은 생보리를 베어다 가마에 넣고 볶는다.(끼니를 이어 대느라고...)
생즌에: ㉠생전에. ㉡좁처럼. 평생에.

1. 줍처럼.

0. 놀러 가더니 생즌에 안오네.

2. 평생에.

0. 이산 가족은 생즌에 한 번 만나 볼까?

생절이: ㉠겉절이.

0. 봄철 부추 생절이는 시원한 맛이 있다.

0. 상추 생절이도 맛이 있다.

생주정(생취정): ㉠강주정. 건주정.

㉡술에 취한 채하고 하는 주정.

0. 술도 몇 잔 안 먹고, 생주정 하지 마.

0. 생주정이 어찌 싱겁다.

생취정; →생주정.

생질: ㉡생 길. 새로 내는 길

0. 생질을 꿰으며 사냥을 간다.

0. 생질 눈길이라 힘이 든다.

생김치: ㉠날김치. ㉡아직 삭지 않은 김치.

0. 생김치는 삭혀서 먹어야지.

0. 생김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생짜배기: ㉡음식이나 일이 무르익지 않은 것.

1. 음식.

0. 돼지고기가 아직 익지 않았어.
생짜배기야.

2. 일.

0. 한번 해보지도 않은 일을 생짜배기로 시킨다.

생추: ㉠상추. ㉡국화과의 한해, 또는 두해 살이 풀.

0. 생추밭에 똥 싼 개는 저개저개 한다.
(한번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의심을 받는다는 말)

생캐: →삼캐.

생켜: →삼켜.

생킨다: ㉠삼킨다.

1. 음식이나 약을 입에 넣어 목구멍으로 삼킨다.

0. 약을 꿀꺽 생킨다.

2. 남의 것을 불법으로 차지한다.

0. 빌린 돈을 돌려 주지 않고 꿀꺽 생킨다.

3. 눈물이나 웃음 따위를 억지로 참는다.

0. 나오는 눈물을 꿀꺽 생킨다.

서~(스~, 스이): ㉠셋.

0. 쌀이 서 되.

0. 보리쌀이 서 말.

서거리(써거리. 저버리): ㉡명태 아가미.

0. 서거리로 젖을 담근다.

0. 서거리 깎두기가 잘 삭았다.

서낭덩이(서왕덩이): ㉠서낭. ㉡서낭신 (성황신)이 붙어 있는 나무가 있는 곳.

0. 서낭덩이에 호랑이가 나와 앉는데.

0. 서낭덩이를 지나려면 으스스 하다.

서너네댓: ㉠서너너댓. ㉡셋이나 넷, 또는 넷이니 다섯.

0. 사람이 한 서너네댓 모였더라.

0. 천렵을 하려면 그래도 한 서너네댓이 가야지.

서넛이(서넛이): ㉡셋 또는 넷이.

0. 한 서넛이 어울려서 해 봐.

0. 서넛이 어울리면 못할 게 없지.

서넛이: →서넛이.

서루(서루서루): ㉠서로. 서로서로.

0. 서루 모르는 사이야?

0. 서루 잘 지네.

서루서루: →서루.

서럽다: ㉠서럽다.

0. 집 없는 사람은 서럽다.

0. 밥을 굶고 자자니 서루워 잠이 오지 않는다.

서속: ㉠조. ㉡벧과의 한해살이풀. 이삭은

크고 낱알은 자디 잠.

0. 올해는 서속을 좀 많이 심어야겠다.

0. 바람 분다. 달밤이라도 서속을 베야겠다.

서왕탱이; →서낭탱이.

서이: ㉠셋.

0. 하나, 둘, 서이, 너이.

0. 오늘은 일꾼이 서이서 일한다.

석가래: ㉠서까래. ㉡마룻대(상량)에

걸쳐지른 나무. ‘스’자 모양의 양쪽 걸침대.

0. 용마루에 석가래를 양쪽으로 걸어 지붕을 만든다.

석는다: ㉠혼합한다.

0. 입쌀과 보리쌀을 석는다.

0. 보리밥에 감자를 섞는다.

석세다: ㉠억세다.

0. 그 여잔 입이 무척 석세다.

0. 너무 석세다 했더니 결국은 사고쳤어.

석수쟁이: ㉠석수. 석공. ㉡돌을 쪼아

물건을 만드는 사람.

0. 석수쟁이는 눈에 돌 부스러기가 잘 들어간다.

석해(써개): ㉠서개. ㉡이의 알.

0. 머리에 석해 쓸었다.

0. 석해 훑듯 한다.(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살살이 조사한다는 말)

선군(성군): ㉠모내기할 때 논을 먼저

고르는 일꾼.

0. 모내기할 때 선군은 새벽부터 논을 삶는다.(모내기 일꾼들이 오기 전에 논을 고르게 삶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0. 선군은 일을 일찍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간다.

선머슴: ㉠차분하지 못하고 매우 거칠게

덜렁거리는 사내아이.

0. 선머슴처럼 사람이 좀 뼈덕뼈덕해.

0. 선머슴처럼 놀지 말고 좀 차분하게 해 봐.

선몽: ㉠현몽. ㉡꿈속에 나타남,

0. 아들 임신할 때 용이 선몽했다.

선상(선상님): ㉠선생. 선생님.

0. 한문 선상이 마을에 생겼다.

0. 모르거든 선상한테 가 물어봐라.

선상님: →선상.

설낙목(솔랑목): ㉠설해 목. ㉡눈이 많이

와 피해를 입은 나무.

0. 올해는 유난히 설낙목이 많이 생겼다.

0. 설락목이 많이 지는 해는 사람을 많이 던다지?

설다: ㉠서럽다.

0. 엄마가 돌아가면 딸들이 더 설다.

설둔한다: ㉠주선한다.

0. 그 사람은 일을 잘 설둔한다.

0. 설들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지.
설뒤졌다(설뒤졌다): ㉠덜 죽었다.
 0. 뱀이 설뒤졌다. 더 죽어.
 설뒤졌다: →설뒤졌다.
설라문에: ㉠그래 가지고.
 0. 씨름을 이겨가지고 설라문에 황송아지를 탔다.
 0. 옥수수를 일찍 심어가지고 설라문에 일찍 먹었다.
설베미(설비미): ㉠설빔. ㉡설에 새로 차려 입는 옷이나 신.
 0. 설이 돌아오니 아기에게 색동옷을 설베 미로 해 입힌다.
 0. 설이 돌아오면 아이들은 설베미를 해 입고 좋아한다.
 설비미: →설베미.
설새한다: ㉠설사한다.
 0. 소에게 쇠뜨기 먹이면 설새한다.
 0. 기름진 거 먹으면 설새한다.
설설긴다: ㉠쨌쨌맨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
 0. 쥐가 고양이 앞에선 설설긴다.
 0. 죄 진사람, 경찰 앞에서 설설긴다.
설쌌다: ㉠설쌌다. ㉡꼭 삶지 않았다.
 0. 닭고기를 설쌌다. 꼭 삶아라.
 0. 설쌌은 말대가리다.(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의 비유)
설었다(슬었다): ㉠꿀 등이 물기가 빠져 굳어졌다.
 0. 꿀이 오래 되어 설었다.
설끗하다: ㉠설끗하다. ㉡거칠고 성기다.
 0. 뜨게질 해 만든 옷이 설끗하다.

0. 짚신을 삼은 것이 설끗하다.
설피 운다: ㉠슬피 운다.
 0. 엄마 죽은 딸이 설피 운다.
 0. 설피 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설합: →빼닫이.
설흔: ㉠서른. ㉡열의 세배 되는 수.
 0. 나이 설흔이면 이립(而立)이라 스스로 자립해야지.
 0. 설흔 과부는 넘겨도 마흔 과부는 못 넘긴다.(서른 살의 과부는 혼자 살아도 마흔 살의 과부는 혼자 못 산다는 말)
섬이 든다(슴이 든다. 철떼기 든다.
철떼기 든다): ㉠철이 든다. ㉡나이가 들어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생긴다.
 0. 애가 이제 섬이 든다.
 0. 이십사절기를 알면 섬이 든다고 했지.
섬찍하다(섬젓하다): ㉠섬찍지근하다.
 ㉡무섭고 꺼림칙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0. 밤길을 가자니 어제 섬찍하다.
 0. 서낭당을 지나자니 섬찍하다.
 섬젓하다: →섬찍하다.
섬: ㉠담채. 홍합. ㉡동해안 바닷가 바위 밑에서 자라는 조개. 또는 여성의 성기를 이룸.
 1. 조개.
 0. 섬을 못 따면 바지락이라도 캐 먹지.
 2. 여성의 성기.
 0. 섬을 누가 여성의 성기라 했나?
섬국: ㉠섬(홍합)으로 끓인 국.
 0. 동해안 가서 섬국 안 먹고 오면 다시 갔다 오란다.

섭대기: ㉠작물이 자란 덩치.

- 0. 옥수수 섭대기도 놀라워.
- 0. 작물은 우선 섭대기가 좋아야 결실을 잘 하지.

섭쓸린다(쉽쓸린다. 슴쓸린다).

업쓸린다): ㉠휩쓸린다. 휩싸여 쓸린다.

- 0. 친구들과 잘 섭쓸린다
- 0. 친구들과 섭쓸리며 해지는 줄 모른다.

섭하다: ㉠섭섭하다.

- 0. 섭한 얘기는 하지 말아.
- 0. 섭한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섯다: ㉠화투 두장의 꽃수로 겨루는 화투.

- 0. 셋다! 00 원. 땅이면 먹어.
- 0. 셋다하다 꽤가망신한 사람 많지.

성(성아. 시아. 영아. 형아. 히아):

㉠형.

1. 부모가 낳은 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 0. 성만한 아우없다.(나이 더 먹은 형이 어린 아우보다 낫다는 말)
2. 동기나 같은 항렬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 0. 성 하는 대로 따라 갈게.
3. 일반 남자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존칭하는 말.
 - 0. 성, 오랜만이요.

성가시롭게: ㉠성가시게. 귀찮게.

- 0. 성가시롭게 자꾸 보체지 마.

성군: →선군.

성기: ㉠선 기. 선 것이.

- 0. 나무가 꽃꽂이 성기 아주 커.
- 0. 키가 우뚝 성기 기골이 장대해.

성긴다: ㉠섬긴다.

- 0. 의붓아버지를 극진히 성긴다.
- 0. 의붓어머니도 극진히 성긴다.

성냥가치(성냥개피): ㉠성냥개비. ㉠성냥 날개비.

- 0. 성냥가치를 녹지 않게 간수 한다.
- 0. 성냥가치로 딱총 놀이를 한다.

성냥개피: →성냥가치.

성님(형님): ㉠형님. ㉠형을 높여 부르는 말.

- 0. 성님 오시래요.
- 0. 성님이 무섭게 야단치신다.

성수: ㉠형수. ㉠형의 아내.

- 0.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성수가 어머니 맞잡이다.
- 0. 집안 일을 성수께서 다 맡아 하신다.

성심견(성심끈): ㉠성심 끈.

- 0. 남의 일이라도 성심견 해야 한다.
- 0. 성심견 일하면 남이 다 알게 되지.

성심끈: →성심견.

성야: →성.

성양(성예): ㉠성냥. ㉠마찰하여 불을 켜는 제구.

- 0. 성양을 부뚜막 뒤에 녹지 않게 보관 한다.
- 0. 성양이 녹으면 불이 잘 안켜진다.

성예술: ㉠홍정이 잘 되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같이 먹는 술.

- 0. 오늘 성예술이 맛이 좋네.
- 0. 성예술 먹기도 힘드네.

성예: →성양.

성제: ㉠형제.

- 0. 성제가 의가 좋아.

0. 성제는 용감했다.

성질머리(승미, 승질, 승질머리.

천성머리): ㉠성미. 성질. ㉡마음

썸썸이.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 바탕.

0. 성질머리가 급하다.

0. 성질머리 하고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해.

세: ㉢혀. ㉣동물의 입안 아래쪽에 붙어 있는 기관.

0. 세가 잘 돌아간다.(거침없이 지껄인다는 말)

0. 세가 짧다.(반말을 한다는 말)

0. 세를 내두른다.(두렵거나 감탄해서 말을 못 한다는 말)

0. 세를 찬다.(마음이 언짢을 때 혀끝으로 입천장을 쳐서 소리를 낸다는 말)

세가난다: ㉤1. 덧난다. 2. 탈이 난다. ㉥더 악화된다.

1. 덧난다.

0. 종기가 점점 세가난다.

2. 탈이 난다.

0. 모임에 돈이 생기면 세가난다.

세가 빠졌다(세살 빠졌다. 세가

빠졌다): ㉦죽음을 말하는 비속어.

0. 쥐가 곡식 자루를 뚫더니 쥐뜰에 걸려 세가 빠졌다.

세가빠지게(세빠지게. 세가빠지게.

세빠지게): ㉧혀가 빠질 정도로 힘들게.

0. 세가빠지게 일해봤자 남는 건 없고.

0. 세가빠지게 일 할 필요 없어. 나만 손해야.

세간살이: ㉨살림살이.

0. 세간살이를 잘해야 먹고 살지.

0. 세간살이를 늘리며 사는 게 보람이지.

세경: ㉩사경. ㉪농가에서 머슴에게 주는 연봉.

0. 세경 얼마에 머슴 산대?

0. 상머슴은 세경이 여덟 가마래.

세까락(세까래): ㉫서까래. ㉬지붕을 받치는 나무.

0. 세까락을 다듬는다.

0. 기와집은 세까락이 쪽 고르다.

세까래: →세까락.

세꼬부랭이: ㉭혀꼬부랑이.

0. 술이 취했나? 세꼬부랭이 소릴 하게.

0. 세꼬부랭이 소리가 나오면 그만 먹어 야지.

세끄트마리(세끄트머리, 세끄트바리):

㉮혀끝.

0. 세끄트마리를 조심해야 돼.

0. 세끄트마리 잘못 놀리다 낭패 보지.

세끄트머리: →세끄트마리.

세끄트바리: →세끄트마리.

세루다지로: ㉯세로로.

0. 고기를 세루다지로 내려 잘라.

0. 밧줄을 세루다지로 내려뜨린다.

세 밀(시아래): ㉺세 전. 혀 밀.

1. 세 전.

0. 세 밀에 한번 더 만나세.

2. 혀 밀.

0. 세 밀에 종기가 났어.

세빠져서: ㉻억센 것을 나무라는 말

0. 고집이 세빠져서 남의 말은 안들어.

0. 소가 기운이 세빠져서 끌어도 잘 안

따라와.

세빠지개: →세가빠지개.

세빠질 병: ㉠죽을 병.

0. 세빠질 병에 걸렸나?

0. 아파도 세빠질 병에만 걸리지 말아야 돼.

세 살바기: ㉡세 살배기. ㉢세 살 먹은 아이.

0. 손주가 이제 세 살바기야.

0. 이제 세 살바기가 될 알겠나.

세숫대: ㉣세숫대야.

0. 세숫대에 세숫물을 담는다.

0. 세숫대에 세숫물 떠다 할아버지께 드린다.

세쌀 빠졌다: →세가 빠졌다.

세쌍뎡이(세쌍둥이): ㉤세쌍둥이.

0. 옆집 아줌마가 세쌍뎡이를 낳았다.

0. 세쌍뎡이라, 오똥하겠네.

세쌍둥이: →세쌍뎡이.

세아래: ㉥혜아래. ㉦짐작으로 기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한다.

0. 대충 세아래 봐. 몇개나 되나.

0. 세아래 보나마나 그냥 몽땅 넘겨.

섹유(섹이지름): ㉧섹유. ㉨가연성 광물질 기름.

0. 상점에 가서 섹유 한 되 사 오나.

0. 섹유 값이 올랐대.

섹이버섯: ㉩섹이버섯. ㉪깊은 산 절벽에서 자란다.

0. 섹이버섯 따려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며?

섹이지름: →섹유.

셀자리: ㉫설 자리.

0. 셀자리 앉을 자리를 가릴 수 있어야지.

0. 셀자리 찾아 서는 사람, 몇 되나.

셈긴다: ㉬셈긴다.

0. 어른들을 극진히 셈긴다.

0. 부모님을 살아 생전에 잘 셈긴다.

셋바늘(헛바늘): ㉭헛바늘.

0. 몸이 피곤해서 셋바늘이 돋았다.

0. 셋바늘이 돋았거든 꼭 쉬어야 한다.

셋바닥(헛바닥): ㉮헛바닥. ㉯혀의 입천장으로 향한 면.

0. 셋바닥에 가시가 돋았다.

0. 셋바닥을 조심 해라.(남의 말을 조심해라)

0. 셋바닥을 빼 물었다.(일이 몹시 힘들다)

0. 셋바닥을 내민다.(같이 먹겠다고 한다)

0. 셋바닥을 놀린다.(무심코 남의 말을 한다)

0. 셋바닥 아래 도끼 들었다.(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조심하라는 말)

0. 셋바닥이 꼬부라졌다.(병이 들거나 술이 취해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

~쌌다: ㉰~쌌다.

0. 아버지께서는 장에 가쌌다.

0. 오늘은 손님이 오쌌다.

소고리(소구리, 쏘구리): ㉱소구리.

㉲대나 나무로 위가 트이게 둥글게 만든 그릇.

- 0. 소고리를 지게에 얹는다.
- 0. 소고리에 두엄을 퍼담는다.
- 0. 능이버섯을 많이 따서 소고리 하나 가득 담았다.

소곰(소금): ㉞소금.

- 0. 반찬엔 소곰을 조금씩 넣도록 해야겠다.
- 0. 부뚜막의 소곰도 집어넣어야 짜다. (실천을 해야 성과가 난다는 말)

소구리: →소고리.

소곰: →소금.

소곰쟁이(소금쟁이): ㉞잡자리.

- ㉞잡자릿과 곤충의 총칭.
- 0. 소곰쟁이가 바지랑대에 앉았다.
- 0. 소곰쟁이 떼가 하늘을 뒤덮었다.
- 0. 소곰쟁이 날개 같다. (모시 따위가 매우 얇고 고옴을 비유한 말)

소근거린다(소근닥거린다. 쏘근거린다.

- 쏘근닥거린다):** ㉞소곤거린다. ㉞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소리로 말한다.
- 0. 무슨 얘긴지 아까부터 소근거린다.
- 0. 소근거리는 소리를 알아듣질 못하겠다.

소근닥거린다: →소근거린다.

소금꽃(소금태): ㉞소금떡. ㉞소금기가

- 내배어서 허영게 영긴 조각.
- 0. 등에 소금기가 내배더니 소금꽃이 피었다.
- 0. 소금꽃이 피도록 땀을 흘렸다.

소금을 봤다: ㉞추웠다.

- 0. 간밤엔 어찌나 추운지 소금을 봤다.

소금덩이(소금덩이. 소금등거리):

- ㉞소금버께. ㉞소금이 영기어서 굳어진

덩이.

- 0. 소금이 솔어 소금덩이가 되었다.
- 0. 소금덩이를 부순다.

소금덩이: →소금덩이.

소금등거리: →소금덩이.

소금쟁이: →소금쟁이.

소금쟁이비행기: →돌개비행기.

소금태: →소금꽃.

소까지: ㉞솔가지.

- 0. 마른 소까지를 꺾어다 불을 피운다.
- 0. 소까지를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난다.

소갱이(속갱이): ㉞판술. ㉞송진이 많이

- 영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또는 소나무의 그루터기가 썩으면서 송진이 가운데 모여 영긴 속 고갱이.
- 0. 소갱이는 불이 잘 붙는다.
- 0. 소갱이 하러 산에 간다.

소갱이불: ㉞판술 불.

- 0. 코쿨에 소갱이불을 붙여라.
- 0. 소갱이불을 들고 말도리 간다.

소뽕놀이(소뽕장난): ㉞소뽕놀이. ㉞살림 놀이.

- 0. 우리 소뽕놀이 할래?
- 0. 소뽕놀이에 해지는 줄 모른다.

소뽕장난: →소뽕놀이.

소꾼다: ㉞쑤는다. ㉞가려 뽑는다.

- 0. 고춧모가 너무 뽕소 소꾼다.
- 0. 채소를 소꾼다.

소낙비(소내기): ㉞소나기.

- 0. 소낙비가 그치거든 가거라.
- 0. 소낙비가 역수로 쏟아지더니 홍수가 났다.

소내기: →소낙비.

소댕이(소두뱅이): ㉠술뚜경. ㉡부침개 단위.

- 1. 술뚜경.
 - 0.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댕이 보고 놀란다. (한번 놀란 가슴은 비슷한 것을 보고도 놀란다는 말)

- 2. 부침개 단위.
 - 0. 파전 부침개 한 소댕이 먹었으면 좋겠다.

소두뱅이: →소댕이.

소두뱅이 운전수: ㉠주부. ㉡주부를 장난끼로 부르는 말.
0. 머느리를 얻고서 소두뱅이 운전수를 면했네.

소래기: ㉠큰 소리.
0. 참새가 눈에 들거든 소래기 질러 쫓아라.

소리개(솔개미): ㉠솔개. ㉡수릿과에 속하는 새. 들쥐, 개구리 등을 잡아먹는다.
0. 소리개 떴다. 병아리 조심해라. (솔개가 병아리를 채가기 때문임)
0. 소리개 까치집 뺏듯 한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음을 이르 말)

소먹이: ㉠1. 소먹이. 2. 소를 먹이는 일.
1. 소먹이.
0. 헛간에 소먹이가 가득 하다.
2. 소를 먹이는 일.
0. 소먹이를 잘 해야 소가 기운을 쓴다.

소방울(쇠방울): ㉠워낭. ㉡마소의 턱 아래에 다는 종.

- 0. 소방울 소리에 소 있는 곳을 찾는다.
- 0. 소방울 소리에 저녁 해가 저문다.

소벤: ㉠소변.
0. 가만히 있어. 소벤 좀 보고.
0. 길머리에서 소벤을 본다.

소시랑(쇠시랑): ㉠쇠스랑. ㉡쇠로 갈퀴 모양의 밭을 만든 농기구.
0. 소시랑으로 논 가를 쫓다.
0. 소시랑으로 두엄을 찍어 삼태미에 담는다.

소실: ㉠식구. 가족.
0. 소실이 몇인고?
0. 소실들을 데리고 이사를 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소용이 없다.
0. 도둑 들고 문수리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머.

소잡다: →비잡다.

소적: ㉠메밀가루로 풀을 쭈어 굳힌 식품.
0. 제사 때는 어머니께서 소적을 만드신다.
0. 소적 거리는 얇은 불에 오래도록 저어야 한다.

소지: ㉠소제. 청소.
0. 학교에서 소지하느라 늦었어.
0. 소지할 때 뺑소니치지 마.

소개: ㉠숨.
0. 목화로 소개를 만든다.
0. 숨틀집에 가서 소개를 틀어 와야 되겠다. 숨 이불 만들게...

소태 맛: ㉠쓴 맛.
0. 고들빼기가 소태 맛이다.

0.익모초도 소태 맛이야.

소하다: ㉸적다.

0.사경이 다섯 가마라. 좀 소한데요.

0.대접이 너무 소한 것 같습니다.

속갱이: →소갱이.

속꺼풀(속껍지): ㉸속껍데기. 속껍질.

㉸겉 껍질 안에 겹으로 있는 껍질.

0.밤의 속껍풀은 매우 짧다.

0.잣의 속껍풀은 먹어도 좋다.

속껍지: →속꺼풀.

속도 위반: ㉸혼전 임신.

0.연애를 해도 속도 위반은 하지 말아야지.

0.속도 위반이면 어때. 자식만 보면 되지.

속백이: ㉸소박이. ㉸소를 넣어 만든 음식.

0.오이 속백이 김치를 담가야겠다.

0.오이 속배기가 맛이 들었다.

속사포: ㉸말 빠른 사람.

0.그 여잔 속사포일세. 얼마나 말이 빠른지 몰라.

속알머리: ㉸마음 슴슴이.

0.그 애는 속알머리 없이 잘 토라져.

0.속알머리 하고는, 쫓쫓.

속알이: ㉸속병.

0.그 여잔 속알이 병이 있어.

0.속알이는 위장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병도 있지.

속았소(속았소): ㉸수고했소.

0.오늘 그 일 다 하느라 많이 속았소.

속여먹는다(속여먹는다): ㉸속인다.

0.처음 들어온 사람을 속여먹는다.

0.사람을 속여먹으면 쓰나.

속여먹는다: →속여먹는다.

속치매: ㉸속치마.

0.속치매는 좀 짧게 만든다.

0.속치매 보일라. 조심해라.

손: ㉸물고기를 세는 단위. 두 마리.

0.고등어 한 손 사 왔다.

0.장작을 한짐 지고가 딱지 두 손과 맞바꿨다.

손구락(손꼬락, 손꾸락): ㉸손가락. ㉸손

끝에 달려있는 다섯 개의 가락.

0.손구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아무 일도 하지 않고 뻘뻘스럽게 논다)

0.손구락 안에 든다.(어떤 무리 가운데 몇 되지 않게 특별하다)

0.손꾸락으로 하늘 찌르기.(하늘보고 원망해 봤자 결국은 제 잘못이라는 말)

0.내 손꾸락에 장을 지지겠다.(상대방이 어떤 일을 혀려 할 때 도저히 이를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때 하는 말. 또는 자기 주장이 틀림없다고 장담할 때 하는 말)

손금보다: ㉸노름하다.

0.손금보다가 집안 망군 사람 많지.

0.손금보면 재미 없어. 분수대로

살아야지.

손꼬락: →손구락.

손꾸락: →손구락.

손꼬텡이: ㉸손끝.

0.손꼬텡이를 조심해여 돼.(투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손돌목추(손돌목추위): ㉞강추위.
 0. 손돌목추를 하면 도루묵이 많이 나지.
 0. 어서 손돌목추를 해야 할텐데...
 손돌목추위: →손돌목추.
손떡개(손떡지): ㉞손 두께.
 0. 손떡개가 커서 손 기운이 세다.
 0. 남자는 손떡개가 커야지.
 손떡지: →손떡개.
손마두: ㉞손마두.
 0. 농사 짓느라 손마두가 다 꺾었네.
손매가지(손매각지. 손모각지. 손모강지. 손목쟁이): ㉞손목.
 손모가지. ㉠손목을 낮추어 부르는 말.
 0. 손매가지 호박 처맷나?(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는 말)
 0. 손 버릇이 나쁘면 손매가지를 붙들어 매야 돼.
 손매각지: →손매가지.
 손모각지: →손매가지.
 손모강지: →손매가지.
 손목쟁이: →손매가지.
손살이 풀린다: ㉠손에 힘이 빠진다. 할 마음이 없어진다.
 0. 장마 끝에 홍수가 나니 손살이 풀린다.
 0. 요즈음 손살이 풀려 아무 일도 못하네.
손아구: ㉞손아귀.
 0. 손아구가 엄청나게 세네.
 0. 우리 손아구 씨름 하자.(손아귀를 한 사람은 벌리고, 한사람은 오르는 놀이. 교대로 실시한다)
손아랫사랑(손알사랑): ㉞내리사랑.

0. 손아랫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은 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
 0. 자식들은 손아랫사랑으로 자라난다.
 손알사랑: →손아랫사랑.
손없는 날: ㉠가리는 방위가 없는 날.
 음력 1~2일은 동쪽, 3~4일은 남쪽, 5~6일은 서쪽, 7~8일은 북쪽에 손이 있어 피한다. 9~10일은 전방위 손이 없다.
 0. 손없는 날 이사를 한다.
 0. 손없는 날보다도 삼살방을 더 가려야 한다.
손없는 달: ㉠음력 윤달.
 0. 손 없는 달에 집수리를 해야겠다.
손예: ㉞손녀.
 0. 손예 딸이 예쁘다.
 0. 손예가 대학을 나와 취직을 했다.
손우엿(손웃): ㉞손 위.
 0. 손우엿 사람에게겐 각듯해야한다.
 0. 송우엿 사람에게겐 항상 공손해라.
 손웃: →손우엿.
손자구(손자죽): ㉞손자국.
 0. 컷볼을 맞아서 손자구가 났잖나.
 0. 뭐 그렇게 손자구가 나도록 때렸나.
 손자죽: →손자구.
손장난: ㉠노름. 자위행위.
 1. 노름.
 0. 손장난 즐기면 집안 망구지.
 2. 자위행위.
 0. 손장난으로 성욕구를 채우는 사람도

있지.

손잡이: ㉞손잡이. ㉟어떤 것에 덧붙여 손으로 잡게 된 부분.

0. 손잡이가 튼튼하다.

0. 냄비 손잡이가 뜨겁다.

손주(손지): ㉞손자. ㉟아들의 아들.

0. 손주가 왔다.

0. 손주가 잘 논다.

손지: →손주.

손톱깎개(손톱깎개): ㉞손톱깎이.

0. 손톱 깎자. 손톱깎개 가져 온.

0. 언니가 손톱깎개로 손톱을 예쁘게 깎는다.

손톱자구(손톱자죽, 손톱자구).

손톱자죽: ㉞손톱자국.

0. 얼굴에 손톱자구 날라. 아기 손톱을 깎아줘야겠다.

0. 얼굴에 난 손톱자구가 평생 간다.

손톱자죽: →손톱자구.

손톱: ㉞손톱. ㉟손가락 끝에 있어 그 부분을 보호하는 딱딱하고 얇은 뼈조각.

0. 손톱도 안들어간다.(사람 됨이 무척 야무지고 인색하며 굳다)

0. 손톱 물도 튕긴다.(일하기 싫어 놀면서 지낸다)

0.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아무 일도 거들지 않는다)

0.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0. 손톱 발톱 다 뺏도록 일한다.(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쓴다)

0. 손톱 밑에 가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쓰는 줄은 모른다.

(사소한 일이나 이익에는 밝아도 큰 일이나 큰 손해에는 어둡다)

손톱깎개: →손톱깎개.

손톱자구: →손톱자구.

손톱자죽: →손톱자구.

솔가지(솔아치, 송아리): ㉞솔가지.

㉟살아 있는 소나무 가지.

0. 산에 솔가지 하러 간다.

0. 솔가지 나무를 한가리 했다.

솔개미: →소리개.

솔딱솔딱(솔 짹솔 짹): ㉞살 짹살 짹.

0. 돈 좀 모아 둔거 솔딱솔딱 다 쓰네.

0. 감 꺾이 빼먹듯 솔딱솔딱 다 빼 먹었네.

솔랑목: →설낙목.

솔방구(솔빵구리, 솔빵굴): ㉞솔방울.

㉟소나무 열매의 송이.

0. 솔방구로 불을 지피면 참 잘 붙는다.

0. 솔방구로 조형을 만들면 재미있는 작품이 나온다.

솔빵구리: →솔방구

솔빵굴: →솔방구

솔수네기: ㉞솔순.

0. 솔수네기 뽑아다 솔술을 담근다.

0. 솔수네기 술에서는 솔향이 나온다.

솔아치: →솔가지.

솔잎개비: ㉞솔잎.

0. 생솔잎개비로 솔잎 술을 담근다.

0. 마른 솔잎개비로는 불을 지핀다.

솔직하니: ㉞솔직하게.

0. 솔직하니 말하게. 우물쭈물 하지 말고.

0.솔직하니 내 돈 좀 벌었네.
 솔짝솔짝: →솔딱솔딱.
솜방망이(솜방치): ㉠1.솜방망이. 2.무른 벌.
 1.솜방망이.
 0.솜방망이로 징을 친다.
 2.무른 벌.
 0.솜방망이 판결을 내린다.
 솜방치 →솜방망이.
솜저구리: ㉠햇저고리. ㉡솜을 넣어 만든 저고리.
 0.솜저구리가 있으면 겨울을 따뜻이 나지.
 0.아버지께서 솜저구리를 입으시고 나드리 나가신다.
송고송고: ㉠곤지곤지 ㉡젓먹이 아이에게 왼손바닥에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댔다 댔다 하며 따라 하는 시늉을 내는 말.
 0.우리 아기 ‘송고송고’ 하지.
송구: ㉠송기. ㉡소나무 껍질 속의 얇은 속 껍질.
 0.야! 우리 소나무 송구 해 먹으러 가자.
 0.송구를 해 먹으면 소나무는 상처가 난다.
송구떡: ㉠송기떡.
 0.일제 강점기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송구떡을 다 해 먹었다.
 0.그런데 송구떡이 그렇게 맛이 있단다.
송방: ㉠구멍가게. ㉡조그맣게 차린 가게
 0.송방에 가서 성냥 사 오너라.
 0.사탕 사러 송방에 간다.
 송아리: →솔가지.

송아지: →물건.
송장: ㉠고기몰이 틀. 싸리, 버드나무 가지 등을 엮어 만듦.
 0.송장 만들어 꼭저구 후리러 가자.
 0.송장을 묶어 가지고 천렵을 한다.
송장 목숨: ㉠죽은 목숨.
 0.전장에 나가면 송장 목숨이나 매한가지 야.
송판떼기(송판띠기): ㉠송판.
 0.송판떼기로 빙구를 만든다.
 0.송판떼기로 칠성판을 받친다.
 송판띠기: →송판떼기.
 솔이끼: →누룽지.
 솔쟁이: →누룽지.
쇄(쇠색기): ㉠소. 쇠. ㉡숫과 포유동물.
 0.쇄가 꼴을 먹고 쟁기를 끈다.
 0.쇄 잃고 외양간 고친다.(이미 실패한 뒤엔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말)
 0.쇄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애써 번 것을 절약하여 쓰라는 말)
 0.쇄 침쟁이다.(아무렇게나 무엇을 잘 맞추는 사람을 이르는 말)
 0.쇄가 옷췌다.(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본 경우를 이르는 말)
 0.쇄한테 물렸다.(뜻밖의 상대에게 해를 입은 경우를 이르는 말)
 0.쇄 뜨물 췌듯이 마신다.(물 따위를 한꺼번에 많이 들어켜는 모양)
 0.쇄 푸주간에 들어가듯 한다.(어떤 곳에 무척 가기 싫어하는 모양)
 0.쇄 잡아 먹췌다.(아주 음흉한 일을 하췌다는 말)

- 0. 쇠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
- 0. 쇠가 크면 왕노릇 하나.(힘 만으로는 큰 일을 못하며 반드시 훌륭한 지략을 가져야 한다는 말)
- 0. 쇠 궁둥이에다 꼴을 던진다.(둔한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효능이 없음의 비유)
- 0. 쇠 보고 한 말은 안 나도 처 보고 한 말은 난다.(아무리 다정한 사이라도 말을 삼가라는 말)

쇠서(쇠서): ㉠쇠어서. 채소 따위가 너무 자라 단단해져서.

- 0. 나물이 쇠서 못 먹겠다.
- 0. 짬거리가 너무 쇠서 싫어야겠다.

쇠견(쇠견머리): ㉠소견. ㉡생각이나 의견.

- 0. 좋은 쇠견을 내 봐.

쇠견머리: →쇠견.

쇠경: ㉠소경.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사람.

- 0. 쇠경 개천 나무란다.(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만 탓한다는 말)
- 0. 쇠경 단청 구경하기다.(내용도 모르면서 사물을 본다는 말)
- 0. 쇠경 보고 '눈 멀었다'하면 싫어한다.(누구도 결점을 지적하면 싫어한다는 말)
- 0. 쇠경 매질하듯 한다.(옳고 그름을 판별 못하고 일을 함부로 처리한다는 말)
- 0. 쇠경 문고리 잡듯 한다.(우연히 어떤

일을 이루거나 맞힘)

- 0. 쇠경 제 죽을 날 모른다.(무엇이나 다 아는 체해도 제 앞 일은 모른다)
- 0. 쇠경 코끼리 만지고 말하듯 한다.(객관적 사실은 잘 모르면서 일부분만 보고 해석한다)
- 0. 쇠경 잠 지나마나 하다.(일을 해도 하나하나해서 일의 성과가 없다)
- 0. 쇠경 제 닭 잡아먹기다.(횡재라고 좋아하는 일이 결국은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없이 된 일)

쇠고집폐기: ㉠황소고집. ㉡매우 센 고집.
0. 그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지 쇠고집 폐기야.

- 0. 쇠고집폐기 부러봤자 제만 손해지머.

쇠꼽(쇠꼽덩이, 쇠꼽, 쇠꼽덩이, 쇠, 쇠뿔): ㉠쇠. ㉡쇠붙이의 총칭.

- 0. 담금질을 잘한 쇠뿔은 단단하다.
- 0. 양양 광산에선 쇠뿔 돌을 캐냈지.

쇠뿔덩이: →쇠뿔.

쇠뿔: →쇠뿔.

쇠뿔덩이: →쇠뿔.

쇠때(쇠때): ㉠자물쇠. ㉡여닫게 된 문을 채워서 열지 못하게 잠그는 쇠.

- 0. 쇠때를 채운다.
- 0. 쇠때로 문을 단단히 잠궈라.

쇠띠기: ㉠쇠뜨기. ㉡속새과의 여러해살이 풀.

- 0. 밭가에 쇠띠기 풀이 어찌나 번지는지.
- 0. 쇠띠기는 설사를 해서 소도 못 먹인다.

쇠명: ㉠소 입에 곡식이나 풀을 뜯지 못하도록 씌우는 망.

0.소명 씹워라. 밭 가는데 콩 뜯어
먹을라.

0.논을 갈 때도 쇠명을 씹워야 편하다.

쇠맥이: ①1.소가 먹을 거리. 2.소 먹이는
일.

1.소가 먹을 거리.

0.잔 감자는 모아서 쇠맥이 한다.

2.소 먹이는 일.

0.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쇠맥이러 산에
간다.

쇠미역: ①갈조류 미역과의 해조. 보통
미역에 비해 잎이 두껍고 세며 동그란
구멍이 나 있다.

0.쇠미역을 무쳐 먹으면 맛이 있다.

0.마른 쇠미역은 구워서 먹는다.

쇠방울: →소방울.

쇠뺨(쇠뺨다구. 쇠뺨다구): ①쇠뺨.

1.쇠뺨.

0.쇠뺨를 푹 고아서 먹었으면 좋겠다.

2.역센 사람.

0.그 사람 쇠뺨야.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쇠뺨다구: →쇠뺨.

쇠뺨다구: →쇠뺨.

쇠색기: →쇠.

쇠시랑: →소시랑.

쇠심줄: ①1.질김. 2.고집이 션.

1.질김.

0.뉘싯줄이 쇠심줄이야. 안 끊어져.

2.고집이 션.

0.그 앤 고집이 쇠심줄이야.

쇠전(쇠즌): ①우시장. ②소를 사고 파는

시장.

0.쇠전에 가서 황소를 한 마리 사 왔다.

0.쇠전에 자주 가면 쇠 값을 알 수 있지.

쇠즌: →쇠전.

쇠풀: ①풀. ②마소에게 먹이는 풀,

0.소가 잘 먹는 쇠풀을 한 소쿠리 베어
왔다.

쇠인다: ①속인다.

0.남을 쇠이면 못 쓴다.

0.잘 쇠이는 사람은 따로 있다.

셋대: →쇠때.

쇠편: ①송편. ②반죽한 멥쌀 가루에 팥,
콩, 밤, 꽃감 따위 소를 넣고 빻어
솔잎을 깔고 찐 떡. 추석에 많이 해
먹는다.

0.자! 모두 쇠편 빻으러 오너라.

0.누구 쇠편이 더 예쁜가 보자.

수구러진다: ①수그러진다.

1.마음이나 기운이 고요해진다.

0.치숫던 흥분이 수구러진다.

2.숨결, 기침 따위가 순해진다.

0.기침이 이제 수구러진다.

3.바람, 물결 따위가 잠잠해진다.

0.거세던 파도가 점점 수구러진다.

4.부기가 가라 앉는다.

0.성내던 부기가 수구러진다.

5.성난 것이 활기를 잃는다.

0.성난목소리가 수구러진다.

수구레: ①숙여.

0.머리 수구레. 이마 다친다.

수까락(수갈): ①순가락. ②밥이나 국물을
떠먹는 식사용 기구.

0.밥에 수갈도 안댄다.(밥을 먹지 않는다는 말)

0.수까락을 놓는다.('죽는다'의 완곡한 표현)

수갈: →수까락.

수깅: ㉠숯. ㉡나무가 타고 남은 검은 덩어리.

0.수깅이 검정 나무란다.(자기 흠은 생각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낸다는 말)

수꾸때(수꾸땡이. 쉬끼때. 쉬끼땡이):
 ㉠수숫대. 수수깅. ㉡수수이 줄기.

0.밭에 가서 수꾸때를 걷어 와야 하겠다.

수꾸땡이: →수꾸때.

쉬끼때: →수꾸때.

쉬끼땡이: →수꾸때.

수대것(수대기): ㉠만물. ㉡손대지 않은 처음 것.

0.수대것은 따로 두어라.

0.수대것은 어른들 드리고 먹어라.

수대기: →수대것.

수력: ㉠수렁. ㉡진흙이 모인 웅덩이.

1.진흙 웅덩이.

0.수력 논엔 소가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

2.헤어나기 힘든 처지.

0.약의 수력에서 빠져나왔다.

수무날(쉬무날): ㉠스무날. 스물 되는 날.

0.그럼 수므날 일 하기로 하세. 그러지.

수물: ㉠스물. ㉡열의 배 되는 수.

0.나이 수물이면 약관(弱冠)이라. 마음을

가다듬어야지.

0.나이 수물에 장가를 갔다.

수므: ㉠숨을.

0.수므 혈덕이며 달려왔다.

0.혈레벌덕 수므 몰아 쉰다.

수악스럽게(송악스럽게): ㉠험악스럽게.

0.수악스럽게 그 게 무슨 짓이냐?

수영(쉬영): ㉠수양. ㉡남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음.

0.부잣집이 가난한 집 아이를 수영 아들로 데려왔다.

0.수영 딸이 친 딸보다 잘 한 대.

수운: ㉠쉬운.

0.세상에 수운 일은 하나도 없어.

수이: ㉠수의. ㉡염습할 때 시체에 입히는 옷.

0.죽어서 입을 수이를 미리 장만해 둔다.

0.수이는 마지막 옷이라 잘 썩는 것이어야 한다.

수제: ㉠수저. ㉡숟가락과 젓가락.

0.밥상에 수제를 놓는다.

0.수제 그릇은 정갈하게 보관한다.

수평저울: ㉠천칭. ㉡수평으로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

0.수평저울에 한약을 단다.

수풍: ㉠단독. ㉡상처에 균이 들어가 부어오르는 병.

0.굽힌 데 약 발라라. 수풍할라.

0.못에 찢리면 수풍하기 쉽다.

숙맥이다(쑥맥이다): ㉠야무지지 못하다.

0.그 사람 숙맥이야.

0.속맥이라도 사람은 좋아.

순경(순사): ㉠순경. ㉡경찰공무원
최하위직.

0.순경한테 야간통금 걸릴라. 조심해라.

0.순경이 술 조사 나오니 술 단지를
들고 대밭으로 들어간다.

순다지: ㉠순전히.

0.이번 일이 잘된 건 순다지 자네
힘이네.

0.순다지 노력만 해가지고 되겠어?
머리도 써야자.

**순데기(순뎡이. 순동이. 순둥이.
순디기):** ㉠순한 아이.

0.우리 순데기. 잘도 놀지.

0.아이가 순데길세 그려.

순뎡이: →순데기.

순동이: →순데기.

순둥이: →순데기.

순디기: →순데기.

순사: →순경.

순어거지(순억지): ㉠생억지. ㉡생판으로
부리는 억지.

0.순어거지로 덤비는 사람 있어.

0.그건 순어거질세. 이치에 맞지 않아.

순억지: →순어거지.

순을 죽인다(순을 칩인다): ㉠순 죽인다.
생기를 죽인다.

0.배추에 소금을 뿌려 순을 죽인다.

0.순을 죽인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근다.

순을 칩인다: →순을 죽인다.

순가락 놓는 날: ㉠죽는 날.

0.살다가 순가락 놓는 날이 언젠지

아나?

0.순가락 놓는 날이 끝나는 날이건만
사람들은 욕심을 놓을 줄 모른다.

술가재: ㉠갓 탈피한 가재.

0.그것은 술가재다 놔 줘.

0.술가재는 속살이 적고 껍질이 무르다.

술고래(술단지. 술푸대): ㉠술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0.술고래는 선천적이다.

0.그 사람 술고래야. 많이 마셔도 끄떡
없어.

술단지: →술고래.

술 대줍: ㉠술 대접. ㉡술을 차려놓고
대접함.

0.오늘 술 대줍 잘 받고 갑니다.

0.술 대줍 잘하면 잔치 잘 지냈다고
한다.

**술또깨비(술쥐정꾼. 술쥐정뱅이. 술지랄
정이):** ㉠주정뱅이. ㉡술주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0.저기 술또깨비 온다.

0.술또깨비 만나면 애를 먹지.

술새(술쥐정. 술지랄): ㉠술주정. 주사.
㉡술에 취해 하는 못된 행동.

0.술새 있는 사람은 조심 해야 돼.

0.술을 잘못 배우면 술새 부리지.

술을 푼다: ㉠술을 먹는다.

0.좋은 친구를 만나면 밤새도록 술을
푼다.

0.술을 푼며 정담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술쥐정: →술새.

술취정꾼: →술또깨비.

술취정병이: →술또깨비.

술지랄: →술새.

술지랄쟁이: →술또깨비.

술찌게미: ㉠술지게미.

- 1.막걸리를 거르고 난 찌꺼기.
- 0.술찌게미로 죽을 쑤 먹고 취한다.
- 2.술 열기로 눈가에 끼는 눈곱.
- 0.눈가에 술찌게미 끼었다.

술코: ㉠주독코. ㉡술의 중독으로 코가 붉게 변하는 증상.

0.술코가 되면 코 끝이 빨갱게 변한다.

술푸대: →술고래.

숨게(숨케, 송게): ㉠숨겨.

- 0.보물찾기 한다. 잘 숨게 놔.
- 0.처녀와 젊은 여자는 잘 숨게.(6.25전쟁 때 군인들이 붙잡아가 망귀 놓으니까)

숨귀(송귀): ㉠심귀.

- 0.고춧모를 정성껏 숨귀라.
- 0.곡식을 숨귀야 낱알을 먹지.

숨박꼭질: ㉠숨바꼭질.

- 1.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아이들 놀이.
- 0.우리 숨박꼭질 할래?
- 2.헤엄을 칠 때 물속으로 숨는 것
- 0.헤엄을 숨박꼭질 하듯 친다.
- 3.무엇이 숨었다 보였다 하는 일.
- 0.별들이 모여서 숨박꼭질 한다.

숨게: →숨게.

숨게: ㉠쉽게.

- 0.일을 서두를 거 없이 천천히 숨게 해.
- 0.그저 숨게 숨게 살다 가는 거지머.

숫놈: ㉠수놈. ㉡짐승의 수컷.

0.병아리 숫놈은 시세가 없다.

0.소는 숫놈이 시세가 난다.

숫벙아리(숫비아리, 숫빙아리):

㉠수평아리.

- 0.양계장에선 숫벙아리를 골라 죽인다지.
- 0.숫벙아리 신세가 따분하군.

숫비아리: →숫벙아리.

숫빙아리: →숫벙아리.

숫사둔: ㉠수사둔. ㉡사위 쪽의 사둔.

- 0.그러면 자네가 숫사둔이 되네.
- 0.얘기 이사람, 숫사둔이 뭐야.

숫장틀러서: →뱃장틀러서.

숫재: ㉠1.숫자. 2.숫제(아예, 진실로)

- 1.숫자.
- 0.나이는 숫재에 지니지 않아.
- 2.숫제.
- 0.쟁기를 빌려가더니 숫재 자기 것처럼 쓰고 있구만.

숫체네: ㉠숫처녀. 숫색시.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

0.자네가 그 여자 숫체넌지 어떻게 알아.

숫해: ㉠많아.

- 0.산에 가면 나물이 숫해.
- 0.덤불에 딸기가 숫해.

송: ㉠흉. ㉡비웃을 만한 거리. 비난을 받을 만한 점.

- 0.송 없는 사람 없다지만 그 분은 정말로 송이 없는 사람이야.
- 0.송 각각, 정 각각.(결점이 있을 때는 흉 보고, 좋은 점이 있을 때는 칭찬한다는 말)

송계: →숨계.

송귀: →숨귀.

송내: ㉞흥내.

0.자는 원송이 송내를 잘 내.

0.남의 송내 잘 내는 사람도 재주야.

송년: ㉞흥년. ㉠수해, 풍해, 냉해, 충해

따위로 농사가 잘 되지 않은 해.

0.올해 마당 송년 들었어.(이삭이 잘
익지 않아 알곡이 적게 난다는 말)

0.송년에 밥 빌어 먹겠다.(일을 몹시
굽뜨게 하고 또 수완이 없는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송물스럽다(송물시럽다): ㉞흥물스럽다.

㉠음하게 생긴 사람이나 동물.

0.농촌엔 빈집이 많아 송물스럽다.

0.송물스러운 집은 철거를 하는 게
좋지.

송물시럽다: →송물스럽다

송본다: ㉞흥본다. ㉠남의 결점을 들어
말한다.

0.남의 송보지 말아. 다 제 얼굴에
침뱉기야.

0.제 흥 열가진 사람이 남의 흥 한가지
보고 송본다.

송약스럽다: →수약스럽다.

송작: ㉞흥작. ㉠농산물 수확이 평년을
밑도는 일.

0.장마가 지더니 올 농사는 송작일세
그러.

0.송작이면 날뽀 팔아 벌어먹어야지.

송잡힌다: ㉞흥잡힌다.

0.남의 말을 하다 보면 송잡힌다.

0.송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지.

송척스럽다: ㉞흥척스럽다.

0.그 얘기, 너무 송척스럽다.

0.송척스러운 얘기는 하지마.

송탱이(송통이. 싱통이. 신통이.

심통이. 싱애. 싱통이): ㉞도치. 뚝지.

㉠도척과의 바다 물고기.

0.송탱이 찌개를 끓인다.

0.송탱이 알을 소금에 절여 찌면 맛이
일품이다

송터: ㉞흥터.

0.엉덩이에 어릴 적 송터가 남아 있지.

0.여럿이 함께 죽은 사람은 송터 보고
식별한다.

송통이: →송탱이.

송허물: ㉞흥허물.

0.송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0.송허물 덮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

숯거멍(숯검댕이): ㉠숯검정.

0.숯덩이 만지지 마. 숯거멍 묻는다.

0.옷에 숯거멍 묻었다. 빨아야겠다.

숯덩이: ㉞숯. 숯덩이.

0.숯덩이 불씨로 불을 살린다.

0.숯덩이 불은 연기가 안나 좋다.

~숯어서(~숯어서): ㉞~싫어서.

0.공부하고 숯어서 학교에 들어갔다.

0.자고 숯어서 방으로 들어갔다.

0.놀러가고 숯어서 눈치만 살핀다.

쉐미(쉬엄. 썰미. 씨미. 췌미): ㉞수염.

나룻.

1.성숙한 남자의 입가, 턱에 나는 털.

0.노인의 췌미가 길다.

0.쉐미가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배가 불러야만 체면을 차릴
수 있다는 말)

2.옥수수나 보리 등의 낱알 끝이나
사이에 난 까끄러기나 털 모양의 것.
0.옥수수 쉐미가 시들면 옥수수를 따
먹어도 된다.

3.동물의 입 근처에 난 뺏뺏하고 긴 털.
0.고양이 쉐미가 예쁘다.

쉐서: →쇄서.

쉐요: ㉠췌요.

0.일을 그만하고 췌 췌요.

웬내: ㉠웬내. ㉡음식 따위가 쉬어서 나는
시금한 냄새.

0.보리밥에서 웬내가 나는 것을 어머니
께서는 물에 말아 드신다.

웬밥: ㉠웬밥.

0.애전엔 웬밥도 버리지 않고 먹었다.

쉬끼(쉬시): ㉠수수. ㉡뱃과의
한해살이풀.

0.쉬끼를 훑고 난 대로 비를 맨다.

0.아이 첫돌엔 붉은 쉬끼 떡을
해먹는다. (잡귀 물러가라고)

0.쉬끼 잎의 붉은 얼룩은 썩은 새끼줄
타고 오르다 떨어진 호랑이의 피라는
전설이 있다.

쉬무날: →수무날.

쉬쉬하다: ㉡췌 냄새가 난다.

0.식은 밥이 쉬쉬하다.

0.감자떡이 오래되어 쉬쉬한 냄새가
난다.

쉬시: →쉬끼.

쉬시빗잘기: ㉠수수비.

0.쉬시빗잘기는 집에서 요긴하게 사용
된다.

쉬슨다: ㉠췌슨다. ㉡파리가 알을 낳는다.

0.생선을 망으로 가려라. 파리가 췌슨다.

쉬염: →쉐미.

쉬영: →수영.

쉬킨다: ㉡췌게 한다.

0.소로 논을 갈다 한참 동안 쉬킨다.

췌덩이: ㉠췌덩이. ㉡췌 살에 본 아이.

0.우리집 막내이는 췌덩이지.

0.췌덩이가 잘 크다.

췌쓸린다: →췌쓸린다.

췌들: ㉠췌들. ㉡칼, 낫 등을 가는 돌.

0.농가엔 집집마다 췌들이 다 있지.

0.췌들은 농가의 필수품이지.

췌통이: →췌통이.

스~: →서~.

스나 앉으나: ㉠서나 앉으나.

0.다리가 짧아서 스나 앉으나 같애.

스래(쓰래): ㉠쓰래. ㉡흙덩이를 부수고
논바닥을 고르는 연장.

0.널빤지로 스래를 만든다.

0.스래로 논바닥을 고른다.

스래질(쓰래질): ㉠쓰래질. ㉡흙덩이를
부수고 논바닥을 고르는 일.

0.스래질을 잘 해야 모가 잘 심긴다.

0.스래질을 하며 소 모는 소리가
정겹다.

스러워: ㉠서러워.

0.접동새는 무엇이 스러워 그리 슬피
울어애나.

0.스러워 마라. 그도 지나간다.
스메든다: ㉠스며든다.
 0.빗물이 옷에 스메든다.
 0.비가 와서 땅에 물이 잘 스메든다.
스므나무: ㉠스물 남짓.
 0.나이가 한 스므나무 됐을까?
스물떡한다(시물떡한다): ㉠시치미뻔다.
 0.자기가 해 놓고도 스물떡한다.
 0.시물떡 잘 하는 사람 있어.
스물스물: ㉠스멀스멀. ㉡살갓에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0.옷속에서 뭐가 스물스물한다.
 0.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간다.
 스아: →서~
스틀다: ㉠서틀다.
 0.숨씨가 스투다.
 0.영 스투어서 잘 못한다.
스푼어치: ㉠서푼. ㉡보잘 것 없는 값을 이르는 말.
 0.일을 잘 거들지 않으면 스푼어치도 없어.
스달열흘: ㉠백일. ㉡석달 하고 열흘.
 0.스달열흘 불공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스삼년: ㉠석삼년. 구년.
 0.스삼년 머슴살이에 남은 건 논 한 마지기라.
스무당: ㉠서툰 무당.
 0.스무당 굿하듯 한다.(서툴게 넘어가려고 하는 짓)
 0.스무당이 사람 잡는다.(사람 병을 고친다고 약 대신 굿을 하라 하다 사람

잡는다)
스하품: ㉠선하품. ㉡흥미 없는 일을 할 때 나오는 하품.
 0.스하품만 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 뒤. 다 쓸모 있을 테니.
스달: ㉠선달.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
 0.스달 그믐날 흰떡 맞듯한다.(몹시 두들겨 맞는 모습의 비유)
 0.스달이 둘이라도 시원치 않다.(시일을 아무리 늦추어도 일의 완성을 기약할 수 없음의 비유)
스달그믐: ㉠선달그믐. ㉡음력 십이월 마지막 날.
 0.아 글새 생일이 스달그믐날이지 뭐야.
 0.생일이 스달그믐날이면 어자피 떡은 먹겠네.
슬: ㉠설. ㉡음력 정월 초하룻날.
 0.슬이 돌아올 땐 손꼽아 기다린다.
 0.설이 돌아오면 설을 설 짚이 없어 슬픈 슬이 되었다는 속설도 있지.
 슬그마니: →살그마니.
 슬그마이: →살그마니.
 슬그머이: →살그마니.
슬그적거린다(실그적거린다): ㉠성의 없이 천천히.
 0.남의 일이라고 한가하게 슬그적거린다.
 0.슬그적거리지 말고 일을 해야지.
슬께: ㉠슬프게.
 0.친정 어머니가 돌아가니 딸이 그렇게 슬께 운다.
 0.슬께 울어야 소용 있다. 가신

넘인데...

슬무시(실무시): ㉠살며시.

- 0.방에 슬무시 들어간다.
- 0.슬무시 다가와 살며시 알려준다.

슬베미(슬빔, 슬빔): ㉠설빔, ㉡설에 새로 차려 입거나 신는 신.

- 0.엄마가 슬베미 옷 만드는 걸 보느라 밤잠을 안 잔다.
- 0.슬베미 해입고 세배하러 나선다.

슬빔: →슬베미.

슬빔: →슬베미.

슬었다: →설었다.

슬적(실쩍): ㉠슬쩍.

- 1.남이 모르게.
 - 0.할머니께서 슬적 돈을 주셨다.
- 2.가볍게.
 - 0.도랑을 슬적 건너 뛰었다.
- 3.약간.
 - 0.옷깃을 슬적 스쳤다.
- 4.가만히.
 - 0.중요한 얘기를 나에게만 슬적 얘기해 주셨다.

슬적슬적(실적실적): ㉡천천히 슬슬.

- 0.남의 일처럼 일을 슬적슬적 한다.

습군다(습군다, 심군다, 싱군다): ㉠습는다.

- 1.풀, 나무 뿌리나 씨앗 따위를 땅속에 묻는다.
 - 0.눈에 모를 습군다.
 - 0.밭에 콩을 습군다.
- 2.마음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한다.
 - 0.마음에 좋은 인상을 습군다.
- 3.새로운 사상이나 문화를 뿌리박게 한다.

0.미개 사회에 문화를 습군다.

4.사람을 집단에 넣는다.

0.유능한 사람을 요직에 습군다

5.정해진 틀이나 대상에 꽂아 넣는다.

0.머리털을 머리에 습군다.

습이 든다: →섬이 든다.

습콩: ㉡논두렁 콩.

0.올해는 습콩이 꽤 쓸쓸하게 됐다.

습쓸린다: →섬쓸린다

승(쌩): ㉠성,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의 칭호.

0.승씨가 먼고?

0.그렇지 않으면 내 승을 간다.

승강내기: ㉡잘 하려고 서로 앞다투는 것.

0.승강내기로 받을 매었다.

0.형제가 승강내기로 공부를 한다.

승거: ㉠선거, ㉡대표자나 임원을 뽑음.

0.동네 구장 승거 한다면서.

0.승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

승겁다(싱겁다): ㉠싱겁다.

1.짜지않다.

0.나물 무침이 좀 승겁다.

0.고드름장아찌처럼 승겁다.(매우 멋없고 싱겁기만 하다는 말)

2.말이나 행동이 다소 멋쩍다.

0.승거운 사람.

3.술이나 담배 따위의 맛이 독하지 않다.

0.술이 좀 승겁다.

4.주위 여건에 체격이 어울리지 않는다.

0.승겁게 키만 크다.

승갱이(신갱이, 실난질, 실랑이,

싱갱이, 씨구닥질): ㉠승강이,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여 옥신각신함.

0.우시장에서 흥정하느라 옥신각신 승경이 친다.

0.밭고랑 김을 먼저 매려고 서로 승경이 한다.

승격: ㉠성격. ㉡사람의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

0.그 사람 승격이 좋아.

0.사람은 승격이 좋아야 하니.

승군다: → 승군다.

승갈: ㉠성갈. ㉡성질을 거칠게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

0.그 사람 승갈이 좀 있어.

0.또 승갈을 부리나?

승낸다(쌩낸다. 쯥낸다): ㉠성낸다.

㉡홍분하여 거친 기운을 나타낸다.

0.그만한 일로 너무 승낸다.

0.승내면 뭘하나. 둥글둥글하게 살지.

승냥간: → 대장간.

승미: → 성질머리.

승바지(승씨): ㉠성바지. ㉡성의 종류.

0.자네는 무슨 승바진고?

승벽: ㉠성벽.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0.그 사람 고집부리는 승벽이 있어.

0.여간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승벽이 있어.

승씨: → 승바지.

승 안찬다: ㉡성 안찬다. 마음에 안찬다.

0.빵 반 조각 먹고 승 안차지.

승양간: → 대장간.

승질: → 성질머리.

승질머리: → 성질머리.

~슌다: → ~슌다.

시 개: ㉠세 개.

0.만두를 시 개 먹었다.

0.이 복숭아 시 개만 주세요.

시겁다(시구롭다. 시굽다. 시급다):

㉠시다.

1.맛이 식초와 같다.

0.시겁거든 뺏지나 말고, 엽거든 검지나 말지.(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

2.눈이 강한 햇빛을 받아 찢리는 듯하다.

0.눈이 시겨울 정도로 빛이 강하다.

3.뼈마디가 빠져서 시근시근하다.

0.손목이 시굽다.

4.하는 짓이 비위에 거슬린다.

0.하는 짓을 보니 눈꼴이 시굽다.

0.시굽지도 않아서 군내부터 난다.(꽤먹지 않은 것이 잠깐부터 뼈며 노숙한 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시겁떤다: ㉠호들갑떤다. ㉡경망스럽게 야단을 피우는 말이나 행동.

0.그렇게 시겁떨면 못 써.

시골떼기(시골띠기. 촌띠기):

㉠시골뜨기. 촌뜨기. ㉡촌스러운 사람.

0.시골떼기는 옷을 잘 입어도 촌스러워.

0.시골떼기처럼 옷이 뭐 그러냐.

시골띠기: → 시골떼기.

시구롭다: → 시겁다.

시구무리하다: → 새구무리하다.

시굴창: ㉠시굴창. ㉡더러운 물이 모인 곳.

0.시굴창에선 냄새가 난다.

0. 시굴창에서 용 났다.(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

시굼털터름하다: ㉠시굼털털하다. ㉡맛이 조금 시면서 텁다.

0. 자두맛이 좀 시굼털터름하다.

0. 배 속이 시굼털터름하다.

시굼다: →시겁다.

시긱둥한다(시긱둥한다): ㉠시긱둥한다.

㉡달갑지 않거나 못마땅해 한다.

0. 마음에 내키지 않는지 시긱둥한다.

시글벽적하다(씨글벌쩍하다):

㉠시글벽적 하다. 시글시글하다.

㉡요란스럽게 떠드는 모양.

0.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느라 시글벽적하다.

0. 잔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시글벽적하게 얘기를 한다.

시굼다: →시겁다.

시긱둥한다: →시긱둥한다.

시겹했다(씨겹했다): ㉠흔났다. 심겹했다.

㉡놀라거나 힘들어서 정신이 빠질 지경이었다.

1. 놀라거나 힘들거나 시련을 당해서 정신이 빠질 지경에 이른다.

0. 개가 달려들어서 시겹했다.

0. 말 한 번 걸었다가 시겹했다.

2. 호되게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다.

0. 군대 가서 게으름 피우다가 상사한테 시겹했다.

시꾸릅다(시끄릅다. 씨꾸릅다):

㉠시끄릅다.

0. 장터에 가면 흥정하느라 왁자지껄

시꾸릅다.

0. 교외 길은 시꾸릅지 않아 좋다.

시꾼다(시꾼다. 씨꾼다. 씨꾼다):

㉠다툰다.

0. 장터에서 사람들이 시꾼다.

0. 시꾸는 곳엔 피하는 게 제일이다.

시꿈두(시꿈두. 시꿈두): ㉠꿈쩍도.

0. 뭐라해도 시꿈두 안하고 있다.

0. 시꿈두 안하거든 내버려 놔둬.

시끄릅다: →시꾸릅다.

시나매(시누매. 시눔해): ㉠시나브로.

㉡1.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2. 천천히.

1.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0. 모아둔 돈을 시나매 다 썼다.

2. 천천히.

0. 감자를 그렇게 시나매 깎으면 언제 다 깎노.

시누매: →시나매.

시누우: ㉠시누이. ㉡남편의 누이.

0. 시어미 역정보다 시누우 눈살이 더 얇다.

0. 시누우가 시집을 간단다.

시눔시눔: ㉠시름시름.

1. 병이 조금씩 자꾸 앓는 모양.

0. 시눔시눔 앓더니 저렇게 누워있네.

2. 비, 눈 따위가 조금씩 자꾸 내리는 모양.

0. 눈이 시눔시눔 내린다.

시눔해: →시나매.

시다(씨다. 씨다): ㉠세다.

1. 힘이 세다.

0. 그 사람은 힘이 시다.

- 2.주량이 크다.
0.그 사람은 주량이 시다.
- 3.물, 불, 바람 따위의 기운이 세거나 빠르다.
0.바람이 시게 분다.
- 4.기질 따위가 강하다.
0.콧대가 시다.
- 5.감촉이 딱딱하고 뻣뻣하다.
0.살결이 시다.
- 6.운수나 터 따위가 나쁘다.
0.팔자가 시다.
- 7.일이 벅차서 감당해내기가 힘들다.
0.맡은 일이 너무 시다.
- 8.장기, 바둑 등의 수가 높다.
0.바둑 실력이 시다.

시드레하다(씨드레하다): ㉸시들하다.

- 1.생기가 없다.
0.겻잎이 가물에 시드레하다.
- 2.보잘 것없다.
0.감자가 잔 것이 시드레하다.
- 3.마음에 차지 않는다.
0.엄마가 시드레한가봐. 혼자 노네.

시뚝배기: ㉸잘 빠치는 사람.

- 0.그 사람 시뚝배기야. 잘 빠쳐.
0.시뚝배기도 천성인가?

시럽다(시름다. 씨럽다. 씨름다.

씨리다): ㉸씨리다.

- 1.몸의 한 부분에 찬 기운을 느낀다.
0.장갑을 끼어도 손 끝이 시럽다.
- 2.찬 것 등에 닿아 통증을 느낀다.
0.얼음을 먹었더니 이가 시럽다.
- 3.빛이 강하여 바로 보기 어렵다.

0.달밤에 메밀꽃이 눈이 시럽도록 희다.
시롭다: →시럽다.

시뫼(시뫼살이): ㉸시묘. ㉸부모의 거상으로 묘 옆에 움막을 치고 삼 년을 사는 일.

- 0.효지는 시뫼를 산다.
0.시뫼는 살아서 부순 소용 있다.

시뫼살이: 시뫼.

시무살: ㉸스무살.

- 0.시무살이면 군대 갈 나이가 됐구나.
0.남아 나이 시무살이면 약관(弱冠)이라 했지.

시물떡한다: →스물떡한다.

시믈다: ㉸심는다.

- 0.오늘 모를 시믈다. 집에서 일 좀 거들어라.

시상만사(시상사): ㉸세상만사. 세상사.

- 0.시상만사 다 제 맘 먹기에 달렸지.
0.시상만사가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있던가.

시상사: →시상만사.

시상없어도(시상없어두): ㉸세상없어도.

- 천하없어도. 꼭.
0.시상없어도 그 사람은 온다.
0.시상없어도 그 사람은 꼭 합격 할 꺼야.

시상없어두: →시상없어도.

시상에: ㉸세상에.

- 0.시상에 그 망나니가 국회의원이 됐대.
0.시상에 그 집이 부자가 됐대.

시시깍절하다(씨시깍절하다):

㉸시시꺠렁 하다.

㉔시시하고 꼴답지 않다.

0.시시껍질하게 놀지 마.

0.시시껍질한 얘기는 안 하는 것이 더
좋아.

시시부시: ㉔모르는 사이에.

0.돈이 시시부시 다 나간다.

0.명맥이 시시부시 사라졌다.

시아: →성.

시아래: →세밑에.

시아린다: ㉔헤아린다.

0.사람이 몇 명이나 시아래 봐.

0.마늘 한 접을 시아린다.

시아바이(시아버이. 시아부지.

씨아버이): ㉔시아버지. ㉔시아버지의
예삿말.

0.시아바이가 그러시든?

0.시아바이께서는 건강하시더냐?

시아버니: ㉔시아버지의 높힘말.

0.시아버니께선 무고하시더냐?

시아버이: →시아바이.

시아범(시아비. 씨애비): ㉔시아버지의
낮춤말.

0.시아범이 뭐라 하던?

시아부지: →시아바이.

시아재비: ㉔시숙. 시아주비. ㉔남편의
아래 형제.

0.장가 안간 시아재비가 셋이나 된다우.

0.시아재비들이 일을 잘 거들어요.

시아주버이(시아즈버이): ㉔시숙.

시아주버니. ㉔남편의 형.

0.아직 장가 안간 시아주버이도
계신다우.

시아즈버이: →시아주버이.

시아미(시어머이. 시어멈. 씨애미):

㉔시어머니를 낮추어 부르는 말.

0.시아미 하고 며느리 갈등은 왜
있는지...

0.시아미가 죽으니 아랫목 차지가 내
차지다.

시아비: →시아범.

시안하다: ㉔희한하다. ㉔매우 드물게
신기 하다.

0.그 돌 참 시안하다.

0.세상에는 시안한 일도 많지.

시어머이: →시아미.

시어멈: →시아미.

시운¹: ㉔수은. ㉔은백색의 액체 금속.
독성이 있음.

0.시운을 쓰면 몸에 해롭대.

0.시운을 약으로 쓰는 돌파리 의사가
있던가?

시운²(시워서): ㉔쉬운.

0.시운 숙제여서 얼른 해치웠다.

0.공부를 잘 하니 시운 거지.

시워서: →시운.

시원하다: ㉔뜨겁다. 얼큰하다.

1.뜨겁다.

0.목욕탕 물이 시원하다.

2.얼큰하다.

0.매운탕이 시원하다.

시용: ㉔시늉. ㉔어떤 모양이나 동작을
흉내 내는 것.

0.죽는 시용 하지 마.

0.벌레를 건드리면 죽은 시용을 하고

가만히 있지.

시적시적: ㉞천천히.

0. 시적시적 일하면 그 일을 언제 다 하나.

0. 시적시적 하게나. 일이 끝이 있던가?

시절이 잘 됐다: ㉞농사가 잘 됐다.

0. 올해는 시절이 잘 됐다.

0. 시절이 잘 돼야 먹을 것이 많지.

시죽시죽(시쪽시쪽): ㉞히죽히죽.

㉞맥없이 웃는 모습.

0. 자꾸 시죽시죽 웃기만 하지 마. 남은 속상해 죽겠는데.

0. 시죽시죽 웃는 사람, 맥 빠진 사람이야.

시지부지: ㉞호지부지. ㉞분명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넘기는 모양.

0. 일을 시지부지하게 마치면 못쓴다.

0. 처음엔 대단하더니 나중에 시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어.

시쪽시쪽: →시죽시죽.

시쪽 웃는다: ㉞히죽 웃는다. 웃음을 슬쩍 웃는다.

0.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시쪽 웃는다.

0. 비웃음을 시쪽 웃는다.

시컷(시큰): ㉞실컷. ㉞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0. 오랜만에 밥을 시컷 먹었다.

0. 밤 늦게 돌아왔다고 어머니한테 꾸중을 시컷 들었다.

시케: ㉞시켜.

0. 소 일 좀 그만 시케라. 소도 쉬 가며 살아야지.

시쿠둥하다(씨큰둥하다): ㉞시큰둥하다.

1. 말이나 행동이 주체넘고 건방지다.

0. 그녀석 거동이 요즘 좀 시쿠둥하다.

2. 달갑지 않거나 못마땅하여 시들하다.

0. 대답이 왜 좀 시쿠둥하다.

시쿤다: →시꾼다.

시쿰두: →시꾼두.

시큰: →시컷.

시쿰두: →시꾼두.

시타: ㉞싫다.

1. 마음에 들지 않는다.

0. 그 사람이 나는 시타.

2. 하고 싶지 않다.

0. 공부하기가 시타.

시하르버이(시할버지): ㉞시할아버지의 예사말.

0. 시하르버이는 건강하시고?

시할망구: ㉞시할머니의 낮춤말.

0. 시할망구가 나무라던?

시할머이: ㉞시할머니의 예사말.

0. 시할머이는 편하시고...

시할버지: →시하르버이.

시할애비(시헬비): ㉞시할아버지의 낮춤말.

0. 시할애비가 뭐야. 시할아버지지.

시헬비: →시할애비.

신갱이: →승갱이.

신갱질: ㉞신경질. ㉞신경이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도 잘 흥분하는 성질.

0. 신경질 너무 부리지 마. 힘들어.

0. 신경질 잘 내는 사람이 있어.

신갱통: ㉞신경통. ㉞일정한 감각 구역에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통증.

0. 요즘 어깨에 신경통이 와서 죽겠어.

0. 나이 들면 따라오는 게 신경통이지.

신긱: ㉠내림긱. ㉡무당이 되려고 신이 내리기를 비는 긱.

0. 무당 딸은 신긱을 하고 무당이 되더라.

신긴다(심긴다. 싱긴다. 아신다):

㉠생긴다. ㉡일거리를 잇따라 대어준다.

0. 벼 타작하는데 벧단을 신긴다.

0. 짚을 써는데 벧짚을 신긴다.

신들매: ㉠들매.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동여매는 일.

0. 눈이 오면 끈으로 신들매를 하고 나선다.

0. 설피는 신들매를 단단히 해야 벗어지지 않는다.

신맹나게: ㉠신맹나게.

0. 농악대가 신맹나게 돌아간다.

0. 마을 사람들도 신맹나게 돌아간다.

신발떼기(신발띠기): ㉠신. 신발.

0. 신발떼기 좀 온전한 것으로 신고 다녀라.

0. 온전한 신발떼기가 있어야지.

신발띠기: →신발떼기.

신바: →새닥.

신뺑이: →새그.

신주머이: ㉠신주머니.

0. 시주머이 가지고 학교에 가거라.

0. 신주머이에 신을 넣고 교실로 간다.

신질로(신질루): ㉠곧바로. ㉡그 즉시.

0. 학교에서 돌아와서 신질로 소먹이러

갔다.

0. 학교에 갔다 오더니 신질로 놀러 달아났어.

신질루: →신질로.

신킨다: ㉠신긴다.

0. 새로 사 온 아기 꼬까신을 신킨다.

신통이: →송탱이.

실경: ㉠시렁. ㉡물건을 엮기 위해 방이나 마루의 벽에 가로지른 두 개의 긴 나무.

0. 바느질 그릇을 실경에서 내린다.

0. 갓을 실경 위에 얹으신다.

실구(실그. 실기): ㉠시루. ㉡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질그릇. 밑에 구멍이 나 있다.

0. 실구에다 증편을 찐다.

0. 실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실구적거린다(실구죽거린다):

㉠실룩거린다

0. 몸을 비틀며 실구적거린다.

0. 입을 옆으로 실구적거리며 말을 한다.

실구죽거린다: →실구적거린다

실그: →실구.

실그머니(실그머이): ㉠슬그머니.

0. 실그머니 빠져나가더니 다시 안 오네.

0. 떨어진 돈을 실그머니 줍는다.

실그머이: →실그머니

실그적거린다: →슬그적거린다.

실금실금: ㉠슬금슬금. ㉡남이 모르게 눈치를 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양.

0. 아이가 실금실금 참외밭에 들어가 참외를 탄다.

0. 죄진 아이가 실금실금 달아난다.

실기: →실구.

실난질: →승쟁이.

실눈까리: ㉠실눈. ㉡가늘게 뜬 눈.

0. 실눈까리 뜨고 왜 사람을 쳐다 봐.

실래: ㉠실려.

0. 소 길마에다 두엄을 실래라.

0. 길마에는 무거운 짐이 가득 실래 있다.

실랑이: →승쟁이.

실마두(실매두): ㉠실마디.

0. 실마두에 걸려 바느질 실이 빠져 나오지 않는다.

실매두: →실마두.

실무시: →슬무시.

실오래기: ㉠실오라기.

0. 실오래기 하나 거치지 않은 맨 몸 아길세.

실적실적: →슬적슬적.

실쩍: →슬적.

실큰: ㉠실컷.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0. 자두를 실큰 먹어라.

0. 오늘은 일만 실큰 했다.

실타리: ㉠실타래. ㉡실을 풀어 쓸 수

있게 사려 놓은 뭉치.

0. 엄마 바느질 그릇에 실타리가 들어 있다.

심: ㉠힘.

1. 사람, 동물 등이 몸을 움직이는 근육의 작용.

0. 심 많은 소가 왕 노릇 하나?(힘 뿐만 아니라 지력도 있어야 한다는 말)

2.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0. 심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

3. 견뎌낼 수 있는 한도.

0. 심이 자라는 한 견뎌 보자.

4. 알거나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재주.

0.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심이 있다.

5. 세력이나 권력

0. 심을 얻는다.(도움을 받아 자신감, 용기, 기운 따위를 얻는다)

0. 심을 빌린다.(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6. 은혜, 은덕.

0. 어머니의 심으로 나는 자랐다.

7. 효력, 효능.

0. 약 심으로 감기에서 벗어났다.

8. 폭력.

0. 심을 심으로 대항 말라.

심가작견(심가작껏. 심가작끈.

심가지끈. 심가지껏. 심가지끈. 심껏.

심끈): ㉠힘껏.

0. 내 심가작견 한기 그래.

0. 심가작견 농사를 짓는다.

심가작껏: →심가작견.

심가작끈: →심가작견.

심가지끈: →심가작견.

심가지껏: →심가작견.

심가지끈: →심가작견.

심거무(심당구. 싱거무): ㉠멍.

㉡부딪혀서 피부 속에 퍼렇게 멧힌 피.

0.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서 심거무 들었다.

심군다: →슴군다.

심긴다: →신긴다.

심껏: →심가작건.

심꾼: →산삼꾼.

심끈: →심가작건.

심다리: ㉠허벅다리.

0.심다리 허영게 들어내 놓고 다니지 마라.

심당구: →심겨무.

심든다: ㉠힘든다.

1.힘이 쓰인다.

0.황소 다루기가 심든다.

2.어렵거나 곤란하다.

0.견더내기 심든다.

심바람: ㉠신바람. 어깻바람. ㉡신이 나는 일.

0.그 사람 장가 가더니 심바람이 났어. 남의 일도 잘 해줘.

심벽심벽하다: ㉡열매가 무르고 물기가 많다.

0.복숭아가 무른 것이 심벽심벽하다.

심부: →새닥.

심부림(심부름): ㉠심부름. ㉡남의 시킴을 받아 해주는 일.

0.아이가 심부림 갔다.

0.애가 심부림을 곧잘 해.

심부름: →심부림.

심비: →새닥.

심뺨이: →새그.

심뽕: ㉠심보. 마음보.

0.심보가 고약하다.

0.심보를 잘 써야 해.

심술꾸레기(심술단지. 심술보.

심술쟁이. 심술탱이. 심술튀이):

㉠심술꾸레기. ㉡심술이 많은 사람.

0.빵을 혼자서 다 먹으면 심술꾸레기.

심술단지: →심술꾸레기.

심술머리(심통머리): ㉠심술. ㉡고집을

부리거나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보.

0.그 사람 심술머리가 고약해.

심술보: →심술꾸레기.

심술쟁이: →심술꾸레기.

심술탱이: →심술꾸레기.

심술튀이: →심술꾸레기.

심심초: ㉠담배.

0.오늘도 하 심심하니 심심초나 피워 볼까?

심씨다: ㉠힘씨다.

0.나보다 심쨌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심자랑: ㉠힘자랑.

0.심자랑 너무 하지 마.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어.

심줄: ㉠힘줄.

1.근육의 바탕이 되는 질긴 살의 줄.

0.질기기가 고래 심줄 같아.

2.혈관, 혈맥 등의 총칭.

0.심줄이 튀어나와야 혈관 주사를 놓기 쉽다.

심통머리: →심술머리.

심통이: →슴탱이.

심관: ㉠슴관. 버릇.

0.세살 때 든 심관 여든까지

간다.(습관은 고치기 힘들다는 말)
십발이: ㉠십륙차.
 0.십발이치는 기운이 세서 산관 비탈을
 막 올라간다고.

십쌍: ㉡십상.
 1.꼭 알맞은 일이나 물건을 두고 이르는
 말.
 0.이 천이 주머니 만들 감으로 쓰기에는
 십쌍이다.
 2.씩 잘 어울리게.
 0.재떨이로 쓰기엔 십쌍 좋다.
 3.'십상팔구'의 준말.
 0.술 자주 마시다기는 몸 버리기
 십쌍이다.

십월(10월): ㉢시월.
 0.십월 달엔 추수가 한창이지.

십팔번: ㉣애창곡.
 0.자, 이 좋은 분위기에 십팔번 한마디
 하지.

싯둑이: ㉤잘 빠치는 사람.
 0.그 애는 싯둑이야, 잘 빠쳐.
 0.오죽 못났으면 싯둑이가 됐을라고.

싯죽뺏죽(싯죽뺏죽): ㉥잘 빠치는 모습.
 마음이 비틀어져 잘 토라지는 모습
 0.그 애는 싯죽뺏죽 잘 빠쳐.
 0.싯죽뺏죽 빠쳐보야 제만 손해지 머.

싯죽뺏죽: →싯죽뺏죽.

싯타: ㉦싫다.
 0.난 싯타. 그 일이 싫어.

싱거무: →십거무.

싱거운소리(싱구운소리): ㉧신소리.
 ㉠상대방 의 말을 재치있게 슬쩍

받아넘기는 말.
 0.싱거운소리 그만하고 진짜 얘기를 해
 봐.

싱쟁이: →승쟁이.
 싱구운소리: →싱거운소리
 싱군다: →승군다.
 싱굽다: →승굽다.
 싱긴다: →신긴다.
 싱애: →승탱이.
 싱통이: →승탱이.

싸가지(싸갈머리): ㉨버릇을 낮추어
 이르는 말.
 0.싸가지 없게 굴지 마.
 0.싸가지 없게 그게 무슨 짓이니?
 싸갈머리: →싸가지.

싸고지다(싸구지다. 싸다. 코사다):
 ㉩고소하다. ㉡미운 사람이 애먹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해 하는 마음.
 0.말 안듣더니 벌 받는 거, 고거 싸고지다.
 싸구돈다: →감싸구돈다.

싸구레판: ㉪싸구려판.
 0.시장 장바닥에 가면 맨 싸구레판일세.

싸구리: ㉫싸구려.
 1.값이 싸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
 0.싸구리 물건은 품질이 떨어져.
 0.저기 싸구리 장사 왔다. 가 보자.
 2.상인이 손님을 끌기 위해 싸다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
 0.싸구리! 싸구리! 공장 떨어 싸구리!
 0.말만 잘하면 공짜다, 공짜. 싸구리,
 싸구리.

싸구지다: →싸고지다

싸그리: ㉠강그리.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0. 소가 여물은 싸그리 먹어치웠다.
 0. 싸구려 장수가 물건을 싸그리 팔아 버렸다.

~싸니: ㉠~대니. ㉡그러기만 하니.
 0. 일은 안 하고 나돌아싸니.
 0. 장난감 사달라고 졸라싸니 애가 빠진다.

싸다: →싸고지다.

싸다구(싸대기. 싸바구): ㉠뺨. 불. 귀싸대 기.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 아래의 살이 많이 붙은 부분, 뺨을 낮추어 부르는 말.
 0. 컷싸다구를 한 대 갈겼다.
 0. 날씨가 추워서 싸다구가 얼얼하다.

싸대기: →싸다구.

싸대기(싸대친다. 싸댕긴다):
 ㉠싸다닌다. ㉡여기저기 체신없이 분주히 돌아친다.
 0. 동네 방네 싸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0. 나가 싸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박혀 있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싸대친다: →싸대기.

싸댕긴다: →싸대기.

~싸더니: →~대싸더니.

싸뎡이; →뎡싸뎡이.

싸뎡인다(싸뎡인다): ㉠실, 끈으로 둘러 묶는다.
 0.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싸뎡인다.
 0. 눈길에 짚신을 싸뎡인다.

싸뎡인다: →싸뎡인다.

싸두름하다(싸드름하다. 싹싸름하다. 싹싸름하다. 싹시름하다): ㉠좁 쓰다.
 0. 씹바귀 잎이 싸두름하다.
 0. 싸드름한 음식은 심장에 좋다지.

싸드름하다: →싸두름하다.

싸래기(싸리기): ㉠싸라기. ㉡부서진 쌀알.
 0. 쌀 싸래기는 닭 모이 주자.
 0. 싸래기밥을 먹었나, 왜 반말이야.

싸래기눈: ㉠싸라기눈. 싸락눈.

0. 야! 눈이 온다. 싸래기눈이다.

싸리: ㉠음식 먹다 잘못되어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 현상.
 0. 물 먹다가 싸리가 들렸다.

싸리기: →싸래기.

싸리쟁이: ㉠싸리. 싸리나무.

0. 싸리쟁이 빗자루는 편리하고 튼튼하다.

싸리버섯: ㉠싸리버섯. ㉡싸리버섯과의 버섯. 약한 독이 있으나 물에 우려 식용을 한다.
 0. 비가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초가을엔 싸리버섯이 잘 나겠다.

싸무: ㉠싸움을.

0. 친구들과 싸무 하지 말고 잘 놀아라.

싸무롭다: →사무롭다.

싸므: ㉠쌈을.

0. 점심에 상추 싸므 먹었다.

싸바구: →싸다구.

~싸서: ㉠ ~대서.

0. 요즈음은 자꾸 돈 달라고 해싸서 못 견디겠네.

싸악 다(싸크 다): ㉸모두 다.

0.싸악 다 모여봐.

싸우: →사우.

싸움박질(쌈박질): ㉸싸움질.

0.놀더라도 싸움박질 하지 마.

싸위: →사우.

싸즌: ㉸싸전. 미전. ㉸쌀과 곡식을 파는 가게. 미전.

0.싸즌에 가서 밥 달라고 한다.(성질이 매우 급함을 비유하는 말)

싸지른다: ㉸싼다. ㉸똥이나 오줌을 누다.

0.아기가 똥을 싸지른다.

싸크 다: →싸악 다.

싸다리: →삭다리.

싸당가지: →삭다리.

싸쓸이: ㉸판쓸이. ㉸화투판에서 판돈을 모두 가져오는 일.

0.판돈을 싸쓸이 하잖나.

쌀가매: ㉸쌀가마. ㉸쌀을 넣는 가마니.

0.쌀가매를 창고에 가득 쌓으면 밥 안먹어도 든든하지.

쌀난박(쌀남박. 쌀름박): ㉸이남박.

㉸쌀을 이는 나무 그릇.

0.통나무로 쌀난박을 깎는다.

0.쌀난박에다 쌀을 인다.

쌀남박: →쌀남박.

쌀단지: ㉸쌀독. ㉸쌀을 넣어 두는 독.

0.쌀단지에 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산다.

쌀되박: ㉸쌀되. ㉸쌀을 되는데 쓰는 그릇.

0.쌀을 쌀되박이나 가져야 친립을 갈

텐데...

쌀뜸물: ㉸쌀뜨물. ㉸쌀을 씻고난 뿌연 물.

0.쌀뜸물은 버리지 말고 소 줘라.

쌀름박: →쌀남박.

쌀린다: ㉸세게 달린다.

0.자전거를 타고 냅다 쌀린다.

쌀몸뎅이(쌀몸둥아리. 쌀몸등거리.

쌀몸뎅이): ㉸맨몸.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

0.아가가 쌀몸뎅이잖나.

쌀몸둥아리: →쌀몸뎅이.

쌀몸등거리: →쌀몸뎅이.

쌀몸뎅이: →쌀몸뎅이.

쌀바늘: ㉸민 바늘. 실을 꿰지 않은 바늘.

0.쌀바늘로 두지 말고 실을 꿰어 두어라.

쌀버러지(쌀벌거지. 쌀벌격지. 쌀벌기):

㉸1.쌀벌레. 2.밥벌레.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

1.쌀벌레.

0.쌀버러지가 쌀을 값아 먹는다.

2.밥벌레.

0.일하지 않고 밥먹는 쌀버러지 신세는 면해야지.

쌀벌거지: →쌀버러지.

쌀벌격지: →쌀버러지.

쌀벌기: →쌀버러지.

쌘은: ㉸쌘은.

0.쌘은 호박에 이두 안들어갈 소리 하자마. (어림없는 소리라는 말)

쌘는다: ㉸쌘는다.

0.술에다 나물을 쌘는다.

쌈박질: →싸움박질

쌈지돌: ㉠부싷돌. ㉡단단한 석영 돌.

0.쌈지돌에 부싷깃을 올려놓고 쇠로
마찰을 일으켜 불씨를 얻는다.

쌈지쑥: ㉠부싷깃.

0.쑥을 볶아 비벼서 쌈지쑥을 만든다,
쌈쑥하다: →싸두름하다.

쌈쑥하다: →싸두름하다.

쌈~: ㉡욕을 할 때 강도를 높이는 말.

0.쌈늬.

0.쌈년.

쌈가다리(쌈가달): ㉡쌈 가다.

0.쌈가다리 길 옆에 우물이 있다.

쌈가다리졌다(쌈가달뻥이졌다):

㉠쌈갈졌다. ㉡두갈래로 갈라졌다.

0.나무가 쌈가다리졌다.

0.쌈가다리진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하나?

쌈가달: →쌈가다리.

쌈가달뻥이졌다: →쌈가다리졌다.

쌈간나: ㉠상년. ㉡쌈년. ㉢버릇없는 여자를
욕하는 말.

0.쌈간나 까불지 말아. 재수 없어.

쌈것(쌈늬. 쌈늬): ㉠쌈늬. ㉡상늬.

㉢신분이 낮은 남자. 버릇없는 남자를
욕하는 말.

0.이 쌈것아, 본을 좀 받고 살아라.

쌈늬: →쌈것.

쌈느므: ㉠쌈늬의.

0.이 쌈느므 소가 말을 안들어.

쌈늬: →쌈것.

쌈뎡이(쌈둥이. 쌈뎡이): ㉠쌈둥이.

쌈쟁아.

㉡한 태에서 나온 두 아이.

0.그집 애는 일란성 쌍뎡이래

0.쌍뎡이 집에 심부름 같다 오너라.

쌈둥이: →쌈뎡이.

쌈뎡이: →쌈뎡이.

쌈방굴(쌈방울): ㉠불알. ㉡고환.

0.아이를 뭐 낳았대? 쌈방굴 차고

나왔대.

쌈방울: →쌈방굴.

쌈심지: ㉡열을 올리는 것.

0.남의 일에 왜 쌈심지야.

쌈욕: ㉡쌈스러운 욕.

0.쌈욕은 쌈늬들이나 하는 욕이다.

쌈통: →상관때기.

쌈관대기: →상관때기.

쌈팔년도: ㉡지나간 옛날.

0.나도 쌈팔년도엔 잘 나갔었지.

쌈금질(쌈김질): ㉠쌈세김질.

0.소가 쌈세김질을 잘하면 건강하단
말이야.

쌈세김질: →쌈세김질.

쌈레댄다: ㉡패댄다. 사정없이 마구
때린다.

0.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마구

쌈레댄다.

쌈빈다: ㉠훔친다.

0.장에 가면 쓰리꾼이 지갑을 쌈빈다.

쌈빠지게: ㉠힘들게.

0.쌈빠지게 일해 봤자 남는 건 없고
이거 농사 일 해 먹겠어?

쌈우친다: ㉠재우친다. 몰아친다.

0.자기 주장만 맞다고 쌈우친다.

쌔인다: ㉠쌔인다.

0. 흙탕물이 나가 논에 모래가 쌔인다.

쌔들(쌔기): ㉠쌔아. ㉡목화씨를 빼는 기구.

0. 쌔들에서 목화를 틀면 빗물(목화씨)은 똑똑 떨어지고요 구름(목화)은 슬슬피어나지요.

쌔골: ㉠쌔골. ㉡쌔을 밝히는 사람.

0. 그 사람 쌔골이라지.

쌔쌔기: ㉠제트비행기.

0. 6.25 전쟁 때 쌔쌔기를 처음 보았지.

쌔쌔기판(쌔쌔이판):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하는 형국.

0. 화투장을 돌리는 것이 쌔쌔기판이야.

쌔쓰고: ㉡교태부리고.

0. 아이구, 쌔쓰고 있네. 그런다고 봐 줄줄 알고?

쌔빵이: →쌔그.

쌔지: ㉠쌔지. ㉡담배, 부시 따위를 넣는 주머니.

0. 아버지 담배 쌔지가 어디로 갔나?

쌔걸: ㉡생것을.

0. 오징어는 쌔걸로 회쳐 먹어야지.

쌔낸다: →생낸다.

쌔똥 썬다: →생똥 썬다.

쌔쌔이판: →쌔쌔기판.

쌔: ㉡흥분해서 내는 소리.

0. 쌔, 그 짓을 계속할래?

쌔개: →석해.

쌔거리: →서거리.

쌔거바리(쌔격다리. 쌔배기): ㉡썩은 나무 등걸.

0. 썩거바리 나무는 열이 적다.

쌔격다리: →썩거바리.

쌔근새: ㉡뱃짚이 썩은 것.

0. 올해는 지붕 쌔근새를 걷어내야겠다.

0. 쌔근새 속에는 굼벵이가 많다.

쌔: ㉠1. 많이. 2. 썩.

1. 많이.

0. 따뜻한 아랫목으로 썩 들어앉아라.

2. 썩.

0. 사탕을 두개씩 나누어 주어라.

쌔 나세: ㉡얼른 나세.

0. 잘못된 사람 썩 나세.

쌔 나안자: ㉡멀리 물러나 앉아.

0. 화로가 뜨겁다. 썩 나안자.

쌔는다: ㉠썩는다.

1. 두가지 이상의 것을 한데 합친다.

0. 쌀에 보리를 썩는다.

2. 어떤 말이나 행동에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함께 나타낸다.

0. 거짓말을 썩는다.

쌔배기: →썩거바리.

쌔 비케: ㉡멀리 비켜.

0. 돌 내려 준다. 썩 비케.

쌔씩: ㉡얼른얼른.

0. 그 적은 일 썩씩 해 치워라.

쌔은 슨달: ㉡스달은 빨리 간다는 말.

0. 썩은 슨달은 한 뒤개 있었으면 좋겠다.

쌔러덩하다: ㉠쌔렁하다.

1. 조금 춥다.

0. 찬바람이 부니 좀 쌔러덩하다.

2. 갑자기 놀라 멈칫하다.

0.기분이 안맞아 썰러덩하다.
 3.허전한 느낌이 든다.
 0.가게에 손님이 없어 썰러덩하다.
 썰: →승.
 썰낸다: →승낸다.
썰(씨, 씨어): ㉟썰어. ㉠더러운 것을 없애라는 말.
 0.쌈 거리를 깨끗이 썰.
 0.손발을 깨끗이 썰.
 썰가 빠졌다: →세가 빠졌다.
 썰가빠지게: →세가빠지게.
썰긴다(썰인다. 썰힌다): ㉟썰힌다.
 0.작은 감자는 모아서 썰긴다.
 썰다: →시다.
썰런됐다: ㉟썰런됐다.
 1.말이나 글 따위가 어색하지 않고 능숙하게 다듬어졌다.
 0.말솜씨가 썰런됐다.
 0.문장이 썰런됐다.
 2.모습이 환하고 말쑥하다.
 0.몸매가 썰런됐다.
 0.옷차림이 썰런됐다.
썰무져서(썰물딱져서): ㉟드져서.
 0.팔자가 썰무져서 이 고생일세.
 썰물딱져서: →썰무져서.
썰버렸다(썰코썰타): ㉠많다. 많고 많다.
 0.자두는 우리집에 썰버렸다.
 0.싸리나무는 산에 가면 썰버렸다.
 썰빠지게: →세가빠지게.
썰운다(썰워친다): ㉟우긴다.
 0.너무 썰운다. 상대방 의견도 참작해야지.

썰워친다: →썰운다.
 썰인다: →썰긴다.
 썰힌다: →썰긴다.
 썰코썰타: →썰버렸다.
 썰고리: →소고리.
 썰구리: →소고리.
 썰근거린다: →소근거린다.
 썰근닥거린다: →소근거린다.
쏘나기(쏘낙비, 썰내기): ㉟쏘나기.
 0.갑자기 썰나기가 마구 쏟아진다.
 썰낙비: →쏘나기.
 썰내기: →쏘나기.
쏘댕긴다: ㉟쏘다닌다.
 0.쏘댕기지만 말고 일 좀 해라.
쏘주(쏘주): ㉟소주.
 0.쏘주 한잔하지.
 0.회사에서 썰주 도수를 점점 낮추고 있어.
쏘켓다(쏘였다. 썰켓다): ㉟쏘였다.
 0.벌한테 썰켓다.
 썰앗소: →속앗소.
썰어라: ㉟썰어라.
 0.무 채를 잘게 썰어라.
 썰기: →썰들
 썰미: →썰미.
 썰: →썰핥.
썰긴다: ㉟속인다.
 0.사람을 자꾸 썰긴다.
 썰핥: →썰핥.
 썰미: →썰미.
 썰였다: →썰켓다.
 썰주: →소주.

쇠꿨다: →쏘꿨다.

쇠푼: ㉞돈.

- 0. 쇠푼이 있어야 장엘 가지.
- 0. 주머니에 쇠푼이 있으면 든든하지.

쑤든다: ㉞시든다.

- 1. 꽃, 풀 따위가 물기가 말라 생기가 없어 진다.
- 0. 가물이 와서 발작물이 쑤든다.
- 2. 기운이 빠져 생기가 없고 풀이 죽는다.
- 0. 나이만 먹고 이젠 쑤두는 인생이다.

쑤들쑤들하다(쑤들쑤들하다):

- ㉞시들시들 하다.
- 0. 모종의 고구마 순이 왜 쑤들쑤들하다.

쑤들쑤들하다: →쑤들쑤들하다.

쑤세: ㉞쑤셔.

- 0. 가마니에 벼가 잘 안 들어가거든 쑤쑤 봐.

쑤덕거린다(쑤떡거린다): ㉞수군거린다.

- 쑤군거린다.
- 0. 여럿리 모여 무슨 일을 쑤떡거린다.

쑤떡거린다: →쑤떡거린다.

쑤맥이다: →순맥이다.

쑤석거린다(쑤씩거린다. 쑤석거린다):

- ㉞쑤씩거린다.
- 1. 잇따라 들추고 뒤지며 쑤신다.
- 0.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자꾸 쑤씩 거린다.
- 2.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쑤시거나 꺾어 마음을 들썩이게 한다.
- 0.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쑤씩거리지 마.

쑤시럽다: ㉞쑤스럽다. ㉞어색하고

싱겁다.

- 0. 그 얘기 자꾸하면 쑤시럽다. 그만 해라.

쑤씩거린다: →쑤씩거린다.

쑤미: →쑤미.

쑤석거린다: →쑤석거린다.

쑤신다: ㉞쑤신다.

- 1. 신체의 한 부분이 찌르듯이 아프다.
- 0. 옆구리가 자꾸 쑤신다.
- 2. 틈새를 막대기로 찌른다.
- 0. 이쑤시개로 이를 쑤신다.
- 3. 사실을 알아내려고 이모저모 조사한다.
- 0. 기자가 비리를 쑤셔 알아본다.
- 4. 일자리를 얻으려고 여기 저기 알아본다.
- 0. 일자리를 구하러 여기저기 쑤셔본다.

쑤겁다(쑤겁다. 쑤굽다. 쑤굽다):

- ㉞쑤다.
- 1. 맛이 소태 맛과 같다.
- 0. 산도라지는 그냥 먹으면 쑤겁다. 물에 울귀 먹어야 한다.
- 2. 입맛이 없다.
- 0. 감기 탓인지 입맛이 쑤겨워 먹히지 않는다.
- 3. 마음이 언짢고 괴롭다.
- 0. 쑤겨운 웃음을 꺾 참았다.

쑤졌나?: ㉞되겠나?

- 0. 그 일을 그렇게 막 하면 쑤졌나.
- 0. 옷 어른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쑤졌나.

쑤구단맛(쑤구단맛): ㉞쑤맛 단맛.

- 0. 쑤구단맛 다 봤다. 뭘 안 해 봤겠나.

쑤닥거린다(쑤닥거린다): ㉞쑤란다.

㉠자꾸 스친다.
 0. 새 옷을 입었더니 사타구니가 자꾸 스닥거린다.
쓰라레: ㉠쓰라려.
 0. 뭘 잘못 먹었나? 속이 자꾸 쓰라레.
 쓰래: →스래.
 쓰래질: →스래질.
쓰러매긴다(씨러매긴다): ㉠모두 말긴다.
 0. 힘든 일은 모두 나한테 쓰러매긴다.
쓰레박: ㉠쓰레받기. ㉠쓰레기를 받아 담는 기구.
 0. 쓰레박을 이리 가져 온. 쓰레기 담자.
쓰잘 때 없는 소리: ㉠ 쓸 때 없는 소리.
 0. 쓰잘 때 없는 소리 자꾸 떠들지 마.
쓰케있다(씨케있다): ㉠쓰여있다.
 0. 현수막에 큰 글씨가 쓰케있다.
쓸개빠지게: ㉠쓸개가 없는 사람처럼 멧힌 데가 없게.
 0. 쓸개빠지게 그게 무슨 소리야.
 0. 저 사람 저 쓸개빠지게 떠들어댄다.
쓸어진다: ㉠1. 사라진다. 2. 쓰러진다.
 1. 사라진다.
 0. 봄이 돌아오니 눈이 차차 쓸어진다.
 2. 쓰러진다.
 0. 태풍에 기로수가 쓸어진다.
쓸었다(씨었다): ㉠슬었다. ㉠알 등을 낳아 붙였다.
 0. 나비가 배추잎에 알을 쓸었다.
 0. 이가 머리에 서캐를 쓸었다.
쓱바구: ㉠쓱바귀.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 뿌리와 잎은 쓴 맛이 나며 식용한다.

0. 쓱바구 맛이 쓱쓰름하다.
쓱새: ㉠쓱는 솜씨.
 0. 그 사람 쓱새가 보통이 아니야.
 0. 쓱새가 해픈 사람은 돈이 붙어나질 않는다.
쓱쓰름하다: ㉠쓱쓰레하다. 쓱쓰름하다.
 ㉠1. 쓰다. 2. 기분이 안 좋다.
 1. 쓰다.
 0. 도라지 반찬이 쓱쓰름하다.
 2. 기분이 안 좋다.
 0. 그 애길 들으니 어째 마음이 쓱쓰름하다.
 쓱낸다: →승낸다.
씨: ㉠씻어.
 0. 손을 깨끗이 씨.
 ~씨: ㉠~씩.
 0. 두 개씨 세어봐.
씨가리: ㉠때. ㉠많은 수.
 0. 그집들은 씨가리가 많아.
씨갈머리: ㉠씨알머리. ㉠남의 얘기를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
 0. 그 씨갈머리 없는 소리 하지 마.
씨갑(씨갓): ㉠씨앗. ㉠곡식의 씨.
 0. 씨갑을 부쳐야 할 텐데 비가 그치지 않는구나.
 0. 가을 김장 씨갑을 부친다.
씨개: ㉠1. 시켜. 2. 쓰개.
 1. 시켜.
 0. 부엌에 불좀 때라고 씨개.
 2. 쓰개.
 0. 쟁기 좀 씨개 빌려 줘.
 씨겁다: →쓰겁다.

씨구닥질: →승갱이.
 씨구단맛: →쓰구단맛.
 씨굽다: →쓰굽다.
 씨글벌적하다: →시글벌적하다.
씨글씨글(우글우글): ㉠많이 모여 있는 모습.
 0. 장날에 사람들이 씨글씨글하게 모여 들었다.
 씨굽다: →쓰굽다.
 씨깎했다: →시깎했다.
씨꾸냥해: ㉠심사가 뒤 틀려.
 0. 왜 씨꾸냥해가지고 말도 안한다.
 0. 씨꾸냥해 봤자, 자기만 손해지 며.
 씨꾸롭다: →시꾸롭다.
 씨꾼다: →시꾼다.
씨끄레: ㉠시끄러워.
 0. 씨끄레. 더 말하지 마.
 0. 세상이 왜 이렇게 씨끄레. 테스 형.
씨내림: ㉠씨내리. ㉡남자를 붙잡아다 씨를 받고 처단하는 일.
 0. 그 양반집은 씨내림 해서 이들을 봤대.
씨는 거: ㉠쓰는 것. 사용하는 것.
 0. 그 거 씨는 거야. 가져가지 마.
 씨다: →시다.
씨다듬는다: ㉠쓰다듬는다.
 0. 할머니께서 손자 머리를 씨다듬는다.
 씨닥거린다: →쓰닥거린다.
 씨드레하다: →시드레하다.
씨드름하다(씨드름하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0. 밥이 씨드름한지 잘 먹지 않네.

씨드름하다: →씨두름하다.
 씨라: →씨라.
씨래기: ㉠시래기. ㉡1. 배추 잎이나 무청을 말린 것. 2. 쓰래기.
 1. 시래기.
 0. 씨래기 국이 구수하다.
 0. 씨래기 된장국은 겨울이 제맛이다.
 2. 쓰래기.
 0. 벗짚 씨래기를 깨끗이 치워라.
 씨러매긴다: →쓰러매긴다.
씨러진다: ㉠쓰러진다.
 0. 태풍에 감나무가 씨러진다.
 씨럽다: →시럽다.
씨렁씨렁: ㉠쓰렁쓰렁. ㉡한가하게 움직이는 모양.
 0. 만날 씨렁씨렁 놀지만 말고 일 좀 해라.
 씨롭다: →시럽다.
 씨리다: →시럽다.
씨물쌀(씨몽살): ㉠물쌀. ㉡가족이 모두 죽음.
 0. 6.25전쟁 때 씨물쌀 당한 집들 더러 있지.
 씨몽살: →씨물쌀.
씨물떡한다: ㉠1. 모른 척한다, 2. 안 그런 척 한다.
 1. 모른 척한다.
 0. 돈을 꾸기곤 씨물떡한다.
 2. 안 그런 척한다.
 0. 웃기고는 씨물떡한다.
씨미: ㉠쓰면서.
 0. 영어 단어 외울 땐 씨미 외웠다.

씨발(씨부랄, 씨팔): ㉠못마땅하다고 할 때 쓰는 욕.

0. 씨발 죽어라 하고 일했는데 욕하고 있어.

씨버린다(씨벌린다):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0. 자꾸 뭐라고 씨버린다.
0. 혼자 씨버리지 말고 남의 말 좀 들어봐.

씨벌린다: →씨버린다.

씨부랄: →씨발.

씨시껍질하다: →시시껍질하다.

씨아버이: →시아바이.

씨알이 맥히나: ㉠말이 통하나.

0. 교섭을 잘 해 봐. 씨알이 맥히나.

씨애미: →시아미.

씨애비: →시아범.

씨어: →씨.

씨친다: ㉠씻는다.

0. 찜거리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씨친다.

씨케: ㉠1. 시켜. 2. 식혀. 3. 쓰게 해.

1. 시켜.

0. 이젠 일을 좀 그만 씨케. 공부해야 돼.

2. 식혀.

0. 콩죽을 더 씨케라. 뜨겁지 않게.

3. 쓰게 해.

0. 붓글씨를 씨케.

씨케있다: →쓰게있다.

씨쿤다: →시쿤다.

씨큰둥하다: →시쿠둥하다.

씨팔: →씨발.

씨팔년: ㉠1. 씨 팔년. 2. 씨 할년.

㉠여성 성기를 비하하여 욕하는 말.

1. 씨 팔년.

0. 씨팔년 될려고 화류계로 갔나?

2. 씨 할년.

0. 저 씨팔년이 또 뭐라 그래.

씩었다: ㉠씩었다.

1. 더운기가 없어진다.

0. 죽이 썩었다.

2. 열성이 줄다.

0. 마음이 썩었다.

3. 감정이 누그러진다.

0. 성질이 썩었다.

4. 땀이 마른다.

0. 땀이 썩었다.

씩사바리(씩스바리): ㉠시시덕이.

㉠실없이 웃으며 계속 지껍이는 사람.

0. 썩사바리처럼 싱겁게 시시덕거리긴.

씩스바리: →씩사바리.

썰 끼다: ㉠쓸 것이.

0. 이 거 제사 때 썰 끼다. 먹지 말아라.

썰다가: ㉠'썰다', '쓸다가'에서 온 말.

0. 방을 썰다가 동전을 주웠다.

썰데 없이: ㉠'썰데 없이. 필요 없이.

0. 썰데 없이 그 말은 왜 했어.

썰래서: ㉠'썰리다', '쓸려서'에서 온 말.

㉠기우러져서.

0. 지게 짐이 한쪽으로 썰래서 바로 잡는다.

썰른다: →능군다.

썰모: ㉠썰모. ㉠쓸만한 가치.

0. 썰모 없게 된 가재도구를 다 버린다.

0. 썰모 없는 사람은 오라하지 말아.

씹는다: →능군다.

씹가다리(씹가달뽕이, 씹가랭이):

㉠여자 다리를 비하해 하는 말.

0.씹가다리 펄럭이고 어디로 달아났는지 누가 아나?

씹가달뽕이: →씹가다리.

씹가랭이: →씹가다리.

씹간나: ㉠상년, 허튼 계집, ㉠막된

여자를 욕하는 말.

0.씹간나, 까불어치네.

0.씹간나, 입 못 다물어?

씹 같이: ㉠여자 성기를 비하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욕하는 말.

0.씹 같이 그 일은 왜 한 대.

0.씹 같이 싫은 걸 왜 자꾸 하라고 해.

씹구녕 같은: →개떡 같은.

씹구영 같은: →개떡 같은.

씹는다(씹어댄다, 씹어버린다): ㉠흐름

들어 나쁘게 말한다.

0.말로 잘도 씹는다.

씹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씹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씹씨름하다: →싸두름하다.

씹어댄다: →씹는다.

씹어버린다: →씹는다.

씹힌다: ㉠어른거리다, ㉠언뜻언뜻 생각이
난다.

0.죽은 강아지가 얼핏얼핏 씹힌다.

씻거라(씻체라): ㉠씻어라.

0.손을 깨끗이 씻거라.

0.발도 깨끗이 씻거라.

씻체라: →씻거라.



~아: ㉠~어.

0.밥을 먹을 때 꼭꼭 씹아.

0.등을 좀 긁아.

아가리 배: ㉠수륙 양륙정을 신고 다니는
배.

0.아가리 배에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을

실었대.

0.1. 4 후퇴 때 피난민들이 아가리 배
타고 나왔다.

아갈빠리질(아갈빨질): ㉠말질, ㉠말을
옮기며 말썽을 일으키는 일. 또는 자꾸
우는 짓.

1.말질.

0.아갈빠리질 자꾸 해 쌓더니 기어코
말썽을 일으키네.

2.우는 일.

0.아갈빠리질 그만하고 이젠 좀 그쳐라.

아갈빨질: →아갈빠리질.

아구(아구창, 아구뽕이, 아구통):

㉠입의 속어

0.아구 조심해.

0.아구 다물어.

아구(아구리, 어구): ㉠아귀.

1.사물이 갈라진 곳.

0.손 아구가 세다.

2.씨의 짝이 트고 나오는 곳.

0.강낭콩 아구가 짝이 텃다.

3. 일정한 수량 따위에 들어맞다.

0. 백만원 아구가 찼다.

아구다툼: ㉠말다툼.

0. 입이 억센 여자는 아구다툼을 잘하지.

0. 아구다툼 해 봤자 입만 더러워지지.

아구리: →아구.

아구창: →아구.

아구텡이: →아구.

아구통: →아구.

아궁지: →버강지.

아깨(아끄매, 아끼매): ㉠아까. 조금 전.

0. 아깨 내가 뭐라고 했지?

0. 아깨처럼 하면 돼.

아깝다(아깝다): ㉠아깝다.

0. 작은 감자를 버리자니 아깝다.

0. 아껴워도 버릴 건 버리고...

아껴: ㉠아껴.

0. 새 그릇은 아껴 쓴다.

0. 돈을 아껴 써라.

아깝다: →아깝다.

아끄매: →아깨.

아끼매: →아깨.

아나: ㉠1. 아느냐? 2. 아이냐? 3. 예 있다.

1. 아느냐?

0. 너 그 사람 아냐?

2. 아이냐?

0.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른이 아니
아냐?

3. 예 있다.

0. 아나, 이거 받아라.

아농새(아덜농새): ㉠자식 농사.

0. 아농새 잘 지었네.

0. 뭐니뭐니 해도 아농새가 첫째지.

아니꾸운: ㉠아니꾸운. ㉠비위가 뒤집혀
불쾌한.

0. 세상에 아니꾸운 일이 하나둘인가.

0. 상관이 아니꾸우면 출세하게나.

아다래(아더래, 알다래, 알더래):

㉠알고 있더래.

0. 그 사람이 벌써 그 사실을 아다래.

아다마다(알구말구, 알다마다):

㉠알고말고. ㉠알고도 남음이 있다.

0. 그 일은 잘 아다마다 하지머.

아달맹이: ㉠알맹이.

0. 그 땅은 아달맹이 땅이야. 달갈
노른자지.

아더래: →아다래.

아~덜: ㉠1. 아들. 2. 아이들.

1. 아들.

0. 애는 우리 아덜이야.

2. 아이들.

0. 아덜이 마당에 많이 모였어?

아덜네: ㉠아들네. ㉠아들의 집.

0. 아덜네는 잘 있는지 모르겠다.

아덜농새: →아농새.

아덜레미(아덜리미, 아들레미,

아들리미, 아들자속): ㉠아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

0. 우리 아덜레미, 학교에 들어갔지.

0. 아덜레미 하나 있다가 군대 갔어.

아덜리미: →아덜레미.

아등바등: ㉠아등바등. ㉠억지스럽게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모양.

1. 억지스럽게.

0.아등바등 해 봤자 옳은 일 같지 않아.
2.우겨대는.

0.아등바등 좀 그만 해라.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아들놈(아들놈): ㉠아들놈.

0.아들놈이 공부를 곧잘 해.

아들놈; →아들놈.

아들레미: →아덜레미.

아들리미: →아덜레미.

아들자숙: →아덜레미.

아람(아람드리): ㉠아름. ㉡두팔을 벌려
껴안은 둘레의 길이.

0.밤나무가 두 아람은 되겠다.

아람드리: →아람.

아래기(알락): ㉠아람. ㉡밤이나 도토리
익어 떨어질 상태.

0.추석 무렵에 밤이 아래기 들지.

0.밤이 벌써 아래기가 들었더라.

아래 데: ㉠남도. ㉡남해안 지방.

0.갈치는 아래 데 고기야.

0.그집 며느리는 아래 데 사람이래.

아래 우: ㉠아래 위.

0.사람은 아래 우를 챙길 줄 알아야
경우가 서지.

아래 짝: ㉡아래 쪽.

0.큰골 아래 짝 밭에는 콩을 심자.

아랫거: ㉠아랫것.

0.아랫거한테 말 함부로 놓지 마.

0.아랫거가 버릇이 없어져.

아랫묵(아랫묵): ㉠아랫묵. ㉡온돌방에서
아궁이에 가까운 쪽의 방바닥.

0.아랫묵은 따시다.

0.시어미가 죽으니 아랫묵 차지가 내
차지다.

아랫묵: →아랫묵.

아리까리하다(아리삼삼하다):

㉠알쏭달쏭하다. ㉡알듯말듯하다.

0.그 집이 여긴지 저긴지 아리까리하다.

0.부탁을 들어줘야지 할지 말아야 할지
아리까리하다.

아리다: ㉠아래다.

0.그 사람 나이가 우리보다 훨씬 아리다.

아리삼삼하다: →아리까리하다.

아매: ㉠아마.

0.오늘 딴 송이는 아매 한 닷 근 쯤
나갈 거다.

0.큰 딸이 아매 내일쫓 올 거다.

아모: ㉠아무.

1.꼭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대명사.

0.거기에 아모나 가나?

2.어떤 사물 따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말.

0.아모 날에 와도 좋아.

아무긋두: ㉡아무것도.

0.난 무슨 말인지 아무긋두 못 알아
들겠네.

아무기나(아무따나. 아문기나): ㉡아무
것이나.

0.난 머 아무기나 좋아.

0.점심, 아무기나 먹지며.

아무따나: →아무기나.

아무래문(아무러문): ㉡1.아무러면.

2.아무러면.

1.아무러면.

0.아무래문 굶겠느냐? 이민을 가자.
 2.아무려면.
 0.암, 아무래문, 그렇고 말고.
 아무러문: →아무래문.
아무치두(아문치두): ㉠아무령지도.
 0.산길을 밤에 가도 무섭기는커녕
 아무치두 앓더라.
아무케나: ㉠아무렇게나.
 0.그것은 아무케나 해도 괜찮아. 좀
 쓰면 버릴 건데머.
아무케도: ㉠아무렇게 해도.
 0.아무케도 상관 없어.
 아문기나: →아무기나.
아문데: ㉠아무 데.
 0.아문데도 다 좋아. 어디든 따라 갈테
 니까.
 아문치두: →아무치두.
아물군다: ㉠아물게 한다.
 0.상처가 난 것을 약을 발라 아물군다.
아뭇정애: ㉠아무 곳에.
 0.취풍은 아뭇정애도 못 쓴다.
 0.늙은 고무신은 옛이나 바퀴먹지, 늙은
 운동화는 아뭇정애도 못쓴다.
아버니(아버이, 아버지): ㉠아버지.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일컫는 말
 0.아버니 밥 잡수시래요..
 아버이: →아버니.
아범(아비, 애비): ㉠아버지를 윗사람이
 부르는 말.
 0.아범 밥 먹으라 해라.
 0.아범 어디 갔느냐?

아부러(아블러): ㉠아올러. ㉠그것과
 함께. 합하여.
 0.복숭아, 자두 아부러 얼마요?
 0.아주 하는 김에 그 일과 아부러 함께
 하지.
 아부지: →아버니.
 아블러: →아부러.
 아비; →아범.
아사무사: ㉠1.어렵푼이. 2.알쏭달쏭.
 1.어렵푼시 생각이 날 듯 말 듯.
 0.그 길이 아사무사 해.
 2.알쏭달쏭 확실하지 않은.
 0.아사무사한 일은 덤비지 마.
아삼육(1.3.6): ㉠단짠. ㉠매우 친근한
 사이.(도리짓고맹에서는 1.3.6으로
 짓는다)
 0.그 둘 사이는 아삼육이야.
아새끼: ㉠남자를 욕하는 말.
 0.아새끼 못난 건 엉텅이에 빨난다고
 했지.
아순대로: ㉠아쉬운 대로.
 0.우선 아순대로 갖다 써.
아습다: ㉠아쉽다.
 1.미련이 남아 서운하다.
 0.여름방학이 끝나니 아습다.
 2.필요한데 없다.
 0.돈이 필요한데 없으니 아습다.
아시우?: ㉠아세요?
 0.오늘 동네 할아버지들 모시는 거
 아시우?
 아신다: →신긴다.
아어머이: ㉠아이 어머니.

0.아기가 운다. 아어머이, 젓쥐라.
아오(아웁): ㉠아흙.
 0.여덟, 아오, 열.
 아웁: →아오.
아웅다웅: ㉠아웅다웅.
 0.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아은: ㉠아흔. ㉠열의 아흙 배 되는 수.
 0.아은 살 나이에도 정정하시다.
 0.나이 아은이면 졸수(卒壽)라. 졸업할 나이도 됐지.
아이: ㉠아니.
 0.학교에 아이 간다고 저러잖나.
 0.학교에 아이 가면 어찌려고 그래.
아이(아이김. 아이짐): ㉠초벌 김. 애벌 김. ㉠처음 매는 김.
 0.조 밭은 아이 김을 비롯해서 두벌 김도 매어야 곡식을 먹는다.
아이가?: ㉠아닌가?
 0.이 거 너희네 집 거 이이가.
 0.이 사람 옛친구 아이가. 오랜만일세. 반갑네 그려.
아이구(아이구머니나):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좋은 때. 힘들 때. 놀랄 때. 기막힐 때 내는 소리.
 0.아이구, 이게 누구야. 오랜만일세.
 아이구머니나: →아이구.
 아이김: →아이.
아이다(아이라. 아이여): ㉠아니다.
 1.어떤 사실을 부정할 때 쓰는 말.
 0.이건 무씨가 아니다.
 2.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강하게 긍정할 때 쓰는 말.

0.아인게 아이다. 그건 진짜 그렇다.
 아이라: →아이다.
아이래요: ㉠아니래요.
 0.그쪽 길이 아이래요. 이쪽이래요.
아이면: ㉠아니면.
 0.이 게 아이면 저 게나?
아이바아(아이방아): ㉠애벌방아. ㉠첫 번째로 대강 찢는 방아.
 0.보리는 아이바아를 찢고나서 더 썰군다.
 아이방아: →아이바아.
 아이여: →아이다.
아이잠: ㉠첫잠. ㉠누워서 처음 든 잠.
 누에 첫잠.
 0.아이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0.누에가 이제 아이잠을 잤다.
아이저녁(아이저낙. 아이저녁. 아이지낙. 아이지녁): ㉠초저녁.
 0.아이저낙에 식구가 모여앉아 저녁을 먹었다.
 아이저낙: →아이저낙.
 아이저녁: →아이저낙.
 아이지낙: →아이저낙.
 아이지녁: →아이저낙.
 아이짐: →아이.
아자씨: ㉠아저씨. 아재(손아래). 아주버니.
 1.아버지 형제에서 3촌을 벗어난 남자.
 0.저 건너댁 당숙(5촌) 아자씨 오시라 그려라.
 2.친척 관계가 아닌 남자 어른을 정답게 부르는 말
 0.우리 이웃집 아자씨다.

- 0. 집배원 아자씨가 오신다.
- 0. 아자씨, 아자씨하면서 길 짐만 지운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남을 이용한다는 말)

아장구(아챙이, 아치): ㉠가지.

- 0. 소나무 삭정이 아장구를 탄다.
- 0. 감나무 아장구를 쳐 낸다.

아재?: ㉠알지?

- 0. 재 너머 밭에 가는 길을 아재?

아조: ㉠아주.

1. 매우, 썩.
 - 0. 옷이 아조 비싸다.
2. 영영, 영원히.
 - 0. 연이 줄이 끊어져 아조 하늘 높이 가버렸다.
3. 완전히, 전혀.
 - 0. 약속을 아조 잊어버렸다.
 - 0. 어제와는 아조 딴판이다.
4. 남의 잘난 체하는 말이나 행동을 비웃는 말.
 - 0. 아조 제법이네.

아주머이(아주머이, 아지미):

㉠아주머니. 형수.

1. 부모와 같은 항렬인 여자.
 - 0. 아주머이한테 갖다 드려라.
2. 남자가 자기 나이 또래나 손위가 되는 남자 아내를 부르는 말.
 - 0. 아주머이도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세요?
3. 친척이 아닌 기혼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
 - 0. 아주머이들 잘 놀다 오세요,

아주머이: →아주머이.

아주버이: ㉠남편 위 형제를 부르는 말.

- 0. 이거 아주버이 댁에 갖다 드려라.

아죽(아죽까장, 아죽꺼정, 아죽꺼, 아죽, 아죽근, 아죽꺼): ㉠아직.

- 0. 그 사람 아죽 안 왔어.

아죽까장: →아죽.

아죽꺼정: →아죽.

아죽꺼: →아죽.

아죽하구(아죽하군): ㉠아직은.

- 0. 아직하구 다리는 괜찮아.

아죽하군: →아직하구.

아즈랭이(아지랭이): ㉠아지랑이. ㉠맑은

- 0. 봄날 공중에 아른거리는 공기 현상.
- 0. 봄 들판에 아즈랭이가 아른거린다.
- 0. 아즈랭이 피는 언덕에 처녀들이 봄나물 을 캔다.

아죽: →아죽.

아죽근: →아죽.

아지: ㉠가지.

- 0. 자두나무 아지가 너무 뻗어 아지 치기를 해야겠다.

아지랭이: →아즈랭이.

아지미: →아주머이.

아죽꺼: →아죽.

아쭈: ㉠아주. ㉠잘난 체하는 것을 비웃는 말.

- 0. 아쭈, 제법 잘 하네.

아챙이: →아장구.

아척나절에(아춤나절에, 아춤절에, 아침절 에): ㉠아침결에.

- 0. 아척나절에 여자가 남의 집에

들락거리 면 재수가 없다.

아침에(아침에): ㉠아침에. ㉡날이 세어서 얼마 되지 않은 때.

0.아침에 참새가 제일 먼저 일어나 짹짹 거린다.

0.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입이 그리워 운다.

아침나절에: →아침나절에.

아침절에: →아침나절에.

아침: →아침.

아침에: →아침에.

아침절에: →아침나절에.

아파: ㉠아파.

0.감기에 걸리니 골이 아파.

0.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파 죽겠어.

아편: ㉠아편. ㉡양귀비 열매의 진액을 모은 것. 지시제, 진통제로 쓰임.

0.물 갈아 먹고 배 아플 때 아편 먹으면 잘 낫지.

아편쟁이(아편쟁이): ㉠아편 중독자.

0.아편쟁이가 한번 되면 헤어나지 못한다.

아파다: ㉠아파다.

1.몸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 있거나 괴롭다.

0.배가 아파다.

2.마음이 괴롭고 쓰리다.

0.가슴 아파다.

3.어렵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로 생각이 많이 괴롭다.

0.머리가 아파다.

악다구리: ㉠악다구리. ㉡서로 성내며 욱하고 싸우는 것.

0.서로 맞붙어 악다구리를 친다

0.서로 악다구리를 퍼붓는다.

악짜같이: ㉠악착같이. ㉡끈기있고 매우 모질게.

0.하기 힘든 일을 악짜같이 해냈다.

0.누굴 닮아 그렇게 악짜같은 지 모르겠어.

안(안덜. 안들. 안소실): ㉠아내. 처.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에 대하여 이르는 말.

0.안에서도 무고한가?

0.안에서는 뭘 하고?

안경잡이: ㉠안경쟁이. ㉡안경을 쓴 사람.

0.야, 저 안경잡이 온다.

안고름: ㉠안 옷고름. ㉡옷의 안깃을 의미어 잡아매는 고름.

0.안고름이 풀렸다. 단단히 매어라.

안글라: ㉠안그렁나.

0.일은 열심히 해야 돼. 안글라.

안놈: ㉠안놈.

0.병아리는 안놈만 키운다. 알을 빼려고.

안늘쟁이(안늘공이): ㉠안늘은이.

0.안늘쟁이는 집에 있어.

안늘공이; →안늘쟁이.

안덜: →안

안들: →안.

안보케: ㉠안 보여.

0.자네 요즘 잘 안 보케. 어디 갔다 왔나?

안소살: →안.

안야: →메누리.

안안팍: ㉠안팍. 부부.

0.안안콧이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
했어.

안전빵: ㉠안전함.

0.그일을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전빵이다.

안친: ㉠안주인. 권택. ㉡집안의 여자주인.

0.안친이 마음이 좋아서 잘 있다 간다.

안주(안죽. 안죽두. 안죽. 안직):

㉠아직. 아직도.

0.심부름 안주 안갔어?

0.안주까지 안가면 어찌려고...

안주장: ㉠내주장. ㉡아내가 집안 일을

맡아 처리함.

0.그 집은 안주장으로 살림을 해.

안주쿤다: ㉠았게 한다.

0.신부가 큰절을 할 때는 양쪽에서
찌들고 안주쿠고 일어세우고 한다.

안주하구(안죽하군): ㉡아직 하곤.

0.안주하구 다리가 괜 찰아.

안죽: →안주.

안죽꺼(안죽곤. 안죽꺼. 안죽곤.

안직꺼. 안직곤): ㉠아직까지.

0.안죽꺼 그일을 다 못했니?

안죽곤: →안죽꺼.

안죽두: →안주.

안죽하군: →안주하구.

안죽: →안주.

안죽꺼: →안죽꺼.

안죽곤: →안죽꺼.

안즐뱅이(안질뱅이): ㉠았은뱅이.

1.일어나 앓기는 하여도 서거나 걷지
못하는 장애인.

0.안즐뱅이가 되어 들어앓았대.

0.안즐뱅이 용 쓴다.(힘든 일에 애만
쓴다는 뜻)

2.키가 작거나 높이가 낮은 물건.

0.안즐뱅이 시계다.

0.안즐뱅이 소나무다.(반송을 가리키는
말)

안지게: ㉠았게.

0.거기 안지게.

0.편안히 안지게.

안직: →안주.

안직꺼: →안죽꺼.

안직곤: →안죽꺼.

안질꺼: ㉡았을 꺼.

0.앓아! 응, 안질꺼.

안질뱅이: →안즐뱅이.

안질뱅이저울(았은저울): ㉠았은뱅이
저울.

0.감자를 안질뱅이 저울에 달아보자.
무게가 얼마 나오나.

안체: ㉡솔에 넣어.

0.쌀을 일어서 솔에 안체라.

안춘다: ㉠았힌다.

0.감을 광주리에 넣어 홍시를 안춘다.

안킨다: ㉠안긴다.

0.아기가 엄마한테 달려가 안킨다.

안팍꼼새: ㉡안팍 곱사등이.

0.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 안팍꼼새가
되었나.

안할말루: ㉠마기말로. ㉡실제라고

가정하고 하는 말로.

0.안할말로 그렇다면 가만 안 둔다.

앉안일: ㉠앉은일.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

0. 아버지께서 겨울이 되면 앉안일로 대자 리를 만드신다.

앉은저울: →안질뽕이저울.

알갠어(알갠어): ㉠알갠어.

0. 알갠어, 무슨 말인지.

0. 알갠어, 그리로 갈게.

알거러지(알거렁뱅이, 알그지):

㉠알거지. ㉡무일푼 되어 거지꼴인 사람.

0. 그 사람 투전하다 알거러지 됐다.

알거렁뱅이: →알거러지.

알갠어: →알갠어.

알고먹는다(알귀먹는다): ㉠알겨먹는다.

㉡남의 것을 피어서 빼앗아 가진다.

0. 동생 사탕을 알고먹는다.

알고준다: ㉠알려준다.

0. 내일 반회 한다고 모이라고 알고준다.

알과부: ㉠까막과부. 망문과부.

㉡첫날밤도 치르지 못한 처녀 과부.

0. 그 여잔 신랑이 첫날밤도 못자고 죽었다. 알과부야.

알구말구: →아다마다.

알군다(알긴다, 알쿤다): ㉠알린다.

1. 알게한다.

0. 잔칫날을 알군다.

0. 겹날 모이라고 알군다.

2. 어떤 사실을 소개하여 알게 한다.

0. 반상회 날을 알군다.

3. 어떤 사실을 나타내거나 표시한다.

0. 출발 시간을 알군다.

알귀먹는다: →알고먹는다.

알그리하다(얼그리하다): ㉠알근하다. 알뽕뽕하다.

0. 장에 가서 사돈을 만나 한잔했더니 알그리하다.

알그지: →알거러지.

알근척(알근체): ㉡아는 척. 아는 체.

0. 나를 알근척 하지 마. 그럴 일이 있어.

0. 저 사람 알근척 하지 마. 성질이 못된 사람이야.

알근체: →알근척.

알긴다: →알군다.

알끼다: ㉡알 것이다.

0. 오늘이 내 생일인 줄 다 알끼다.

알다래: →아다래.

알다마다: →아다마다.

알더래: →아다래.

알락: →아래기.

알락이 든다: ㉡밤이 여무는 상태.

0. 추석 때가 되니 밤나무 밤이 알락이 든다.

알락밤: ㉡밤이 여물어 떨어진 밤.

0. 새벽으론 알락밤 주우러 밤나무 밑으로 간다.

알랐다: ㉠알았다. ㉡병에 걸려 시달리는 것.

0. 배탈이 나 한참 동안 알랐다.

0. 요즘 고뿔에 걸려 알랐다.

알랑미: ㉠안남미. ㉡인도차이나반도

안남지 방에서 생산되는 쌀.

0. 알랑미는 찰기가 없어 밥맛이 안난다.

알랑방구: ㉠알랑방귀. ㉡이양을 떨며

말하는 것.

0.알랑방구 귀지마. 거짓인 줄 다 알아.

0.알랑방구 편다고 누가 봐줄 줄 알고?

알레준다: ㉞알려준다.

0.장마당에 곡마단이 왔다고 알레준다.

알레진다: ㉞알려진다.

0.대관령 씨감자가 좋다고 알레진다.

알로: ㉞아래로.

0.형제가 알로 몇이나 되나.

알맞초: ㉞알맞추어.

0.마침 알맞초 잘 왔네. 할 얘기가 있는데....

알밤: ㉞날밤. ㉞자지 않고 새우는 밤.

0.투전 하는 사람들은 알밤 꼬박 새우지.

알배기(알배차, 알배추): ㉞결구 배추.

0.알배기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근다.

알배차: →알배기.

알배추: →알배기.

알뻘다: ㉞근육통이 왔다.

0.등산을 했더니 다리에 알뻘다.

알어 든뻘다: ㉞알아 드러누웠다.

0.아저씨는 감기몸살이 와서 알어 든뻘다.

알어먹는다: ㉞알아듣는다.

0.무슨 말인지 뜻을 알아먹는다.

알우?: ㉞알아요?

0.그집 처녀가 시집 가는 거 알우?

알짜비기: ㉞알짜배기.

0.그 땅은 알짜비기 땅이지.

알쫄: ㉞알만한 일.

0.거기 가 보면 알쫄이 있어.

알케준다(알코준다, 알퀴준다):

㉞알려준다.

1.곳이나 방향을 알려준다.

0.동네에 온 손님에게 이장네집을 알케 준다.

2.내용을 알려준다.

0.아이 숙제를 알케준다.

알코준다: →알케준다.

알쿤다: →알군다.

알퀴준다: →알케준다.

알타리무(알타리무꾸): ㉞총각무.

㉞뿌리가 작은 무의 한가지.

0.알타리무로는 총각김치를 담가야겠다.

알타리무꾸: →알타리무.

암늬: ㉞암늬.

0.뽕 암늬를 까투리라 하재.

암달기: ㉞암타이.

0.암달기 알 낳았나 보다.

암반(암반 짝): ㉞안반. 떡판. ㉞떡을 칠 때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

0.암반에다 찰떡을 친다.

0.암반에다 가래떡을 민다.

0.얼굴이 암반 같은기 심성이 곱다.

암반 짝: →암반.

암사나(암사내): ㉞여자 같은 남자.

0.암사나처럼 놀지 말고 좀 씩씩하게 나서봐.

암사내: →암사나.

암사둔: ㉞암사둔. ㉞며느리 쪽의 사둔.

0.암사둔이 있으면 솟사둔도 있겠네.

앗다(엣다): ㉞여기 있다.

0.앗다. 과자 받아라.

0. 앓다. 떡 받아라.

앓다지기: ㉠그렇다치고.
0. 앓다지기, 멀 그걸 가지고 그러나.

앗소(엇소. 옛소. 옛소): ㉠여기 있소.
0. 앓소. 용돈 받으시오.
0. 앓소. 양말 신으세요.

앗싸(앗싸라비아): ㉠좋다. ㉠좋을 때 나오는 소리.
0. 앓싸! 구슬치기 구슬이 맞았다.
0. 앓싸.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앗싸라비아: →앗싸.

앗싸리: ㉠아예. ㉠처음부터.
0.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앓싸리 접어치우 고 말지.

앗쌀하다: ㉠솔직하다.
0. 남자는 모름지기 앓쌀해야지 남자답지.

앙개: ㉠안개.
0. 아침 앙개가 끼는 걸 보니 오늘은 해가 뜨겁겠다.

앙그렇게: ㉠안 그렇게.
0. 다음부터 앙그렇게. 염려 말아.

앙간힘: ㉠안간힘. ㉠몹시 애쓰는 힘.
0. 애기가 뒤칠려고 안간힘을 쓴다.

앙발구: ㉠악바리. ㉠고집이 세며 모진 사람.
0. 너무 앙발구 노릇 하지 말아. 억지로 안 돼.

앙콧하다: ㉠앙콧하다. ㉠영똥한 생각을 가지고 제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
0. 그 야자, 고 앙콧하다. 그걸 자기 걸로 빼 돌리네.

앞가람(앞뺨음): ㉠앞가람.
0. 사람이 신세를 지면 자기 앞가람은 하고 살아야지.

앞가지났다: ㉠손해 봤다.
0. 이번 장사는 앞가지가 났다. 돈이 줄었어.

앞니 빠진 갈가지: ㉠앞니 빠진 호랑이.
0. 그 사람 이젠 앞니 빠진 갈가질세.
앞뺨음: →앞가람.

앞서간다: ㉠앞서간다.
0. 아기가 아장아장 앞서간다.

앞자비(앞재비): ㉠남의 앞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
0. 사람이 남의 앞자비 노릇은 하지 말아야지.
앞재비: →앞자비.

앞초매(앞치매): ㉠앞치마. 행주치마.
0. 새 언니가 앞초매를 가리고 요리를 한다.
앞치매: →앞초매.

애: ㉠물고기의 간.
0. 명태 애로 국을 끓이면 둘이 먹다 하나 가도 모른다.
0. 명태 애가 그렇게 맛있나?

애가빠진다(애빠진다): ㉠몹시 안타깝고 초조하게 속을 태우거나 마음을 졸인다.
0. 소가 말을 안들어 애가빠진다.
0. 심부름 간 아이가 오지 않아 애가빠진다.

애교덩거리(애교등어리): ㉠애교 덩어리.
0. 그애는 우리집 애교덩거리야.
애교등어리: →애교덩거리.

애교풀: ㉠애교풀.

0. 애교풀로 나무판을 단단히 붙인다.

애기씨: ㉠애기씨 ㉡여자 아이에 대한
높임 말.

0. 애기씨 혼사가 들어온다.

애께: ㉠애껴.

0. 연필을 애께 써라.

0. 고무신을 애께 신어라.

애킨다: ㉠애킨다.

1. 아깝게 여긴다.

0. 양념을 애킨다.

2. 소중히 여기어 함부로 쓰지 아니한다.

0. 시간을 애킨다.

3. 마음에 들어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

0. 사람을 애킨다.

애늘갱이: ㉠애 늙은이.

0. 아이가 애늘갱이 짓을 한다.

애다(예다): ㉠여기다.

0. 애다 집을 지으면 좋겠다.

애달군대(애말린다): ㉠졸인다. ㉡속을
태우거나 조바심 나게 한다.

0. 애가 자꾸 애달군다.

애따가: ㉠있다가.

0. 좀 애따가 올까

애러워: ㉠어려워.

0. 그 일을 혼자 하자니 감당하기가
애러워.

0. 그렇게 애러우면 어울려서 하던지
하지.

애루어: ㉠외로워.

0. 형제가 없으면 나중에 애루어.

0.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애루어 하셔.

애리다: ㉠아리다.

1. 허끝이 알싸한 느낌이 있다.

0. 허끝이 애리다.

2. 다친 살이 찌르듯이 아프다.

0. 상처가 애리다.

3.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다.

0.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애리다.

애말린다: →애달군다.

애물단지(애물등거리): ㉠애물. ㉡애를
태우는 물건이나 사람.

0. 낡은 물건들은 애물단지처럼 두지
말고 버려.

애물등거리: →애물단지.

애미: ㉠어미.

1. 어머니의 낮춤 말.

0. 애미가 부른다. 가 봐라.

2. 새끼를 낳은 동물의 암컷.

0. 강아지가 애미 젖을 잘 먹는다.

애배: →버버리.

애비: →아범.

애빠진다: →애가빠진다.

애성: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가짐.

0. 애성이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다.

애순네기: ㉠애순. ㉡어린 순.

0. 나무 밑에 나온 애순네기를 처낸다.

애송이: ㉠애송이. ㉡애티가 나서 어러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

1. 사람.

0. 애송이를 데리고 뭍 얘기하나.

2. 물건.

0. 고춧모가 아직 애송이야. 옮겨심기가 일러.

애시당초: ㉠애초. 애당초.
 0. 그 일이라면 애시당초 생각도 말았어야지.
 0. 그 일은 애시당초 틀렸다 했더니.

애전하다: ㉠애잔하다. ㉡약하고 가련하다.
 0. 강아지가 죽은 것이 애전하다.

애중: →난중.

애짤은: ㉠나쁜. 좋지 않은.
 1. 좋지 않은 물건.
 0. 애짤은 감자는 버리고 좋은 감자만 골라 담아라.
 2. 좋지 않은 일이나 생각.
 0. 애짤은 일에는 아예 들어서질 말아라.

액막이: ㉠액막이. ㉡앞으로 닦칠 액을 미리 막는 일.
 0. 액막이 곳을 하면 액을 막을 수 있나?

안경(앵경): ㉠안경.
 0. 거 내 안경 가져오너라.

앵긴다(앵긴다): ㉠앵긴다. 준다.
 1. 앵긴다.
 0. 아이가 엄마 품에 덥석 앵긴다.
 2. 준다.
 0. 아이한테 과자 한 봉지를 앵긴다.

앵정머리(앵정머리): ㉠앵정머리.
 0. 앵정머리 없게 딱 거절 당했어.

앵중: →난중.

앵기하다: ㉠아릿하다. ㉡좀 매운맛이 난다.
 0. 무가 좀 앵기하다.

앵하다: ㉠억울하다. ㉡애먼 일을 당해

분하고 답답하다.
 0. 앵하게 당했구만.
 0. 앵하게 뒤집어 씌우지 마.

앵띠다: ㉠앵되다. ㉡애틀이 있어 어려 보인다.
 0. 사람이 아직 앵띠다.

앵경: →앵경.
 앵긴다: →앵긴다.
 앵중: →난중.

야그(야기): ㉠야기. 이야기.
 0. 누가 야그 좀 해 봐.
 0. 야그 거리가 있어야 야글 하지.

야기: →야그.

야단법석: ㉠야단법석.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들고 시끄러운 판.
 0.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느라고 모여 야단법석이다.

야들: ㉠아이. 아이들.
 0. 야들이 집에 있나?
 0. 야들 보고 소 내다 매라 해라.

야마니: ㉡염치가 없이 체면을 차릴 줄 몰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0. 그 사람 야마니야. (염치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0. 야마니가 폭 까졌다.
 0. 야마니 까진 짓 하지 마.

야매: ㉡정식 거래가 아닌 뒷거래.
 0. 야매 장삿꾼이 왔는데 무척 싸대.

야무락져(야물딱져): ㉠야물져.
 1. 언행이나 일 처리가 빈틈이 없고 옹골차다.
 0. 그 사람은 생김생김이 야무락져.

0.그 사람 아무락져 무슨 일이든 틀림 없어.

2.사람됨이나 씩씩이가 옹골차다.

0.살림을 아무락지게 잘 한다.

야물딱져: →아무락져.

야바구(야바우): ㉠야바위. ㉡속임수로 돈을 따는 중국 노름의 하나.

0.야바구 판을 돌린다. 돈 놓고 돈먹기다. 돈없으면 집에 가라.

0.야바구판에 들지 마라. 돈 잃기 십상이다.

야바우: →야바구.

야밤도주: ㉠야반도주.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함.

0.그집 며느리가 야밤도주했다.

0.야밤도주 할 일이 뭐람.

야부리까부리: ㉠이것이냐? 저것이냐?

0.야부리까부리데 며. 일단 일을 저질러 봐.

야수교: ㉠예수교. 기독교.

0.그 집들은 야수교 믿는데.

야악스럽다; ㉠영악스럽다. ㉡악고 모질고 사납다.

0.그 여자 야악스럽다. 상대하지 말아.

야야(야야이): ㉠아이를 다정하게 부르는 소리.

0.야야, 이리온.

0.야야, 비오나 봐라.

야야이: →야야.

야양(애양): ㉠양양. ㉡양양을 언어 경제적 으로 쉽게 발음하여 일어나는 현상.(보통 사투리는 이 원리에 의해

발생 되는 일이 많다)

0.야양 오일장은 상당히 크다.

0.야양 우시장에 가 암소 한 마리 사 왔다.

야우었다: ㉠야위었다.

0.몸살을 알았다 하더니 몸이 많이 야우었다.

야중: →난중.

야지: ㉠야유. ㉡빈정거리며 놀림.

0.야! 너무 야지 놓지마. 너도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야차하면: ㉠여차하면 ㉡어느 순간 잘 못하면.

0.야차하면 큰 일이다. 조심해라.

야트다(여트다): ㉠알다. 야트막하다.

0.넷물이 야트다 하여 아이들이 놀기에 좋겠다.

야튼: ㉠여하튼. 어떻든.

0.야튼 해봐. 어떻게 되든 결말이 나겠지.

야편: ㉠이 아이 편.

0.야편에 보내지머.

야펜쟁이: →아펜쟁이.

약손가락(약손꼬락. 약손꾸락):

㉠약손가락. 약지. ㉡엄지손가락으로부터 네 번째 손가락.

0.약을 약손가락으로 짓는다.

약손꼬락: →약손가락.

약손꾸락: →약손가락.

약수물: ㉠약수. ㉡약이되는 물.

0.오색 약수물은 옛날부터 유명했지.

약올린다(약통올린다): ㉠화나게 한다.

0.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만 약올린다.
약지른다(약질른다): ㉠1.약을 넣는다.
 2.뇌물을 준다.
 1.약을 넣는다.
 0.술에다 약을 질러 약술을 만든다.
 2.뇌물을 준다.
 0.상관에 약지르면 만사가 형통이지.
약질른다: →약지른다.
약차하게: ㉠만만치 않게.
 0.이번 일에 돈이 약차하게 들었을 텐데.
약통올린다: →약올린다.
약판다: ㉠수다스럽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한다.
 0.수다스럽게 약팔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안중: →난중.
알구적거리며(알구죽거리며): ㉠알기죽거리며. 일기죽거리며. ㉡허리나 입을 이리저리 잇따라 움직인다.
 0.여자가 알구적거리며 걸어간다.
알구죽거리며: →알구적거리며.
알구진: ㉠알곳은. ㉡성질이 야릇하고 짓곳은.
 0.그 사람은 알구진 사람이야. 대하기 힘들어.
알다랴다: ㉠얇다.
 0.책 두께가 알다랴다.
알미롭다(알미릅다): ㉠알뻘다.
 0.그 애는 주는 거 없이 알미롭다.
알미롭다: →알미릅다.
암생이질: ㉠도둑질.
 0.가만히 암생이질 치면 못써.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
암즌하다: ㉠암전하다. ㉡성품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단정하다.
 0.암즌한 색시가 좋더라.
암챙머리(암탕머리. 염챙머리):
 ㉠암통머리. 암치.
 0.그 여잔 암챙머리 없는 여자야. 남의 앞 물건을 툭툭 채어 가.
암탕머리: →암챙머리.
양글기: ㉠양그루. 이모작.
 0.밭 곡신은 보통 양글기로 경작하지.
양기: ㉠거지. ㉡특히 머리를 흐트러뜨린 지저분한 거지.
 0.자꾸 울면 양기한테 시집 보낸다.
양견(양끈): ㉠양겂. 한겂.
 0.밥을 양견 먹어라. 배 고평라.
양끈: →양견.
양념딸: ㉠고명딸. ㉡아들 많은 집의 외딸.
 0.양념딸로 막내딸 하나 뒀네.
양눔(양늬): ㉠양늬. 서양인.
 0.양눔들은 코가 크고 살빛이 희지.
양눔: →양늬.
양동우: ㉠양동이. ㉡함석으로 만든 원통형의 동이.
 0.불에 타다 남은 함석으로 양동우를 만든다.
양발(양발짝): ㉠양뻘.
 0.무명 양발은 하루 신으면 구멍이 난다.
양발짝: →양발.
양복떼기(양복띠기): ㉠양복. 서양식의 의복.

0. 양복떼기만 걸쳐 입으면 신사나?
 양복떼기: →양복떼기.

양색시: ㉠양갈보. 양공주. ㉡서양 사람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자.
 0. 저 여자 양색시아. 지저분 해.

양석(양석거리): ㉠양식. 식량.
 ㉡떡을거리.
 0. 6.25전쟁 때는 양석이 없어 죽국을 끓여먹고 얼굴이 부었지.

양석거리: →양석.

양손잡이: ㉠양손잡이. ㉡오른손과 왼손을 같은 힘으로 사용하는 사람.
 0. 양손잡이는 사는데 더 편리하겠어.

양수겸장: ㉠양수겸장. ㉡장기에서 두 개의 말이 동시에 장을 부르게 되는 경우.
 0. '양수겸장이야!' 어찌할 수 없이 지는 구면.

양심보따리: ㉠양심. ㉡옳고 그름, 선악을 바르게 가려 행하려는 의식.
 0. 사람은 양심보따리가 발라야지.

양양댄다(앵앵댄다. 용용댄다): ㉠트집 잡으며 자꾸 대든다.
 0. 마누라가 자꾸 뭐라고 양양댄다.
 0. 자꾸 양양대지 마. 나 화난다.

양중: →난중

양지기: ㉠양재기. ㉡안팎 양쪽에 범랑을 올린 그릇.
 0. 양지기는 빨리 끓어 좋다.

양지달걀(양지달걀): ㉠양지에서 몸을 달걀.
 0. 양지쪽에 가서 양지달걀 하자.

0.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에는 안가고 양지달걀을 한다.
 양지달걀: →양지달걀.

양짱: ㉠양쪽.
 0. 양짱 다 비슷해. 더 싸우지 말아.

양치소곰(양치소곰. 양치소곰):
 ㉠양치소곰. ㉡양치질에 쓰는 소금.
 0. 양치소곰은 부드러운 것이 좋다.

양치소곰: →양치소곰.
 양치소곰: →양치소곰.

앞으게(앞이): ㉠앞게.
 0. 무씨는 앞으게 물어야 싹이 잘 나온다.

앞이: →앞으게.
 애양: →야양.
 애중: →나중.
 애펍머리: →애펍머리.
 애펍: →나중.

앵매리(앵미리): ㉠앵미리. ㉡앵미릿과의 바닷물고기.
 0. 앵매리가 지천으로 났대.
 0. 6.25 전쟁 땐 앵미리로 끼니를 때웠대.

앵미리: →앵매리.

앵앵거린다: ㉠앵앵거린다. ㉡모기, 벌 등이 내는 소리.
 0. 저녁이 되니 모기가 앵앵거린다.

앵앵댄다: →양양댄다.
 앵중: →나중.

~어: ㉠~아. ㉡밝은 소리 ~아가 어울릴 곳에 어두운 소리 ~어가 들어가는 현상.
 0. 물건 값을 깎어.
 0. 밥그릇에 밥을 담어.
 0. 서지 말고 앉어.

0.이떡 받아.
 0.지금 콩을 갈어.
어거지: ㉠억지. ㉡잘 되지 않을 일을 무리하게 해내려는 고집.
 0.어거지가 세다.(억지 부리는 힘이 세다)
 0.어거지를 세운다.(무리한 고집을 끝까지 부린다)
 0.어거지가 사촌보다 낫다.(남에게 의지하 기보다는 어거지라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낫다)
 어구: →아구.
어구(입새): ㉠어귀. 입구. ㉡드나드는 뿔의 첫머리.
 0.마을 어구에 장승이 서 있다.
어구똥하다(어그똥하다): ㉠어기똥하다. 엉뚱하다.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분수에 지나치다.
 0.그 사람 좀 어구똥하다.
어구적거린다(어구정거린다).
어그적거린다. 어그정거린다):
 ㉠어기적거린다. ㉡팔다리를 부자연스럽게 구부려 천천히 걷는다.
 0.옆집 영감이 다리가 아파 발걸음이 어구적거린다.
 어구정거린다: →어구적거린다.
어귀: ㉠어구. ㉡말의 마디나 구절.
 0.그 시조 어귀가 잘 맞지 않다.
 어그똥하다: →어구똥하다.
 어그적거린다: →어구적거린다.
 어그정거린다: →어구정거린다.
어근비근하다: ㉠비슷하다.

0.둘이 키가 어근비근하다.
 0.하는 일이 어근비근하다.
어긋장(어긋짱): ㉠어긋장. ㉡어긋나게 하는 행동.
 0.남의 일에 어긋장 놓지 말아.
 어긋짱: →어긋장.
어깨: ㉠견달. 불량배.
 0.젊었을 적에 어깨 노릇 좀 했지.
어깨쪽지: ㉠죽지. ㉡팔과 어깨가 이어진 관절 부분.
 1.사람의 몸에서 팔이 붙은 관절의 윗부분.
 0.어깨쪽지가 자꾸 아프다. 오십견인가?
 0.어깨쪽지가 처져있다.(힘이 빠져 어깨가 늘어져 있다)
 0.어깨쪽지를 으쓱거린다.(뺨내고 싶은 기분으로 으스댄다)
 0.어깨쪽지를 나란히 한다.(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비슷한 힘을 가진다)
 0.어깨쪽지가 움추려든다.(떳떳하지 못하게 여겨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기분을 느끼 는 모습)
 2.짐승의 앞다리가 붙은 부분.
 0.황소의 어깨쪽지가 튼튼하게 잘 생겼다.
 3.새의 날개쪽지.
 0.새의 어깨쪽지가 붙어졌다.
어냥: ㉠낭떠러지.
 0.어냥에 소 떨어질라. 조심해 몰아라.
어느듯: ㉠어느덧.
 0.어느듯 해가 서산머리에 올라앉았다.
어느마: ㉡어느 여석.

0. 어느마가 우리 참외 따왔어?
어느맘때(어느때): ㉠어느 때.
 0. 어느맘때 같까?
어느날: ㉠어느 날.
 0. 우리 어느날 모일래.
 어느때: →어느맘때.
어느새: ㉡어느새.
 0. 어느새 그 일을 다 했어?
어데: ㉡어디.
 1. 잘 모르는 어느 곳.
 0. 어데 가는데?
 0. 어데 개가 짖느냐 한다. (남의 말을 무시하여 들은 체도 않는다는 말)
 2. 반어적인 의문.
 0. 여기가 어데라고 함부로 얘기 하느냐?
어두루(어둘루, 얼로, 얼루): ㉡어디로.
 0. 어두루 오라고 했나?
 0. 어두루 가도 매한가지다.
어두스름하니: ㉡어두침침하니.
 0. 어두스름하니 재에서 부엉이가 운다.
어두하다: ㉡어둑하다. ㉠조금 어둡다.
 0. 날이 아직 어두하다.
어둔 년에: ㉡어둔 녘에. ㉠어두운 때나 무렵.
 0. 어둔 년에 늦게 들어왔어.
 어둘루: →어두루.
어드렇게: ㉡어떻게.
 0. 어드렇게 됐대.
 0. 어드렇게 됐는지 통 알 수가 없어.
어드매(어디매): ㉡어디에.
 1. 잘 모르는 어느 곳.
 0. 자네 집이 어드매 있나.

2. 꼭꼭어 말하기 어려운 점.
 0. '어드매 개가 짖느냐?' 한다. (남이 하는 말을 무시하여 들은체도 않는다)
 0. 어디맨가 쓸쓸해 보여.
 3. 장소, 범위가 매우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
 0. 여기가 어드매라고 큰소리 치느냐?
 4. 꼭 정하지 않고 모두란 뜻.
 0. 우리나라 강이란 강은 어드매든 다 들었다.
 어디매: →어드매.
어따: ㉡어디에다.
 0. 어따 대고 반말이야.
 0. 어따 대고 오줌을 누느냐?
어떠하랴구: ㉠어떻게 하랴고.
 0. 이 일은 그렇고, 그러면 저 일은 어떠하랴구.
어떡해: ㉡1. 어떻게. 2. 어떡해.
 1. 어떻게.
 0.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
 2. 어떡해.
 0. 이 일을 망쳐서 어떡해.
어려: ㉡어려.
 0. 모종이 아직 어려서 이식을 못하겠다.
어련할랴구: ㉡어련하겠지.
 0. 자네가 한 일이니 어련할랴구.
어렵다: ㉡어렵다.
 1.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
 0.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렵다.
 2.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
 0. 살림살이가 어렵다.
 3. 대하기에 성미가 까다롭다.

0. 성미가 까다로워 대하기가 어렵다.
 4. 상대방이 두려워서 조심스럽고 거북하다.
 0. 시부모 앞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5. 힘이 드는 일을 한다.
 0. 어루운 걸음을 한다.(힘든 곳을 간다)
어리배기: ㉠어리석은 사람.
 0. 그 사람 어리배기야. 어리어리 해.
어리버리하다(어리숙하다. 어리하다):
 ㉡어수룩하다. 어리석다.
 0. 어리버리한 사람 꼬이지 말아. 죄 된다.
 어리숙하다: →어리버리하다.
 어리하다: →어리버리하다.
어리해: ㉢술이나 약 기운 등에 취하여 어리둥절하다.
 0. 한 잔 술에 어리해.
어림반푼어치두 없는: ㉣어림없는.
 ㉤가망이 전혀 없는.
 0. 어림반푼어치두 없는 생각 말아.
어맛뜨거! ㉥맛 뜨거워!
 0. 어맛뜨거! 부절이 달아 있었구나.
어매이(어머이): ㉦어머니.
 1. 자기를 낳은 여성.
 0. 어매이가 솔이끼를 끊어 주셨다.
 2. 자기를 낳은 여성처럼 삼은 사람.
 0. 저의 어매이로 모시겠습니다.
 3. 자식을 가진 여자를 이르는 말
 0. 여기 어매이들 많이 모이셨네.
어매이야!(어머이야!. 어머이야라!.
어머이여라!): ㉦어머니! ㉧흔히 여자들이 놀리는 소리.

0. 어매이야! 깜짝이야.
 0. 어매이야! 그 애가 일등을 했다고?
 어머이: →어매이.
 어머이야!: →어매이야!
 어머이아라!: →어매이야!
 어머이여라!: →어매이야!
어물쩍하고: ㉨어물쩍하고. ㉩말이나 행동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모양.
 0. 그 녀석 어물쩍하고 넘어가네.
어블레(어울레): ㉪어울러.
 0. 아기들이 한 데 어블레 잘 논다.
어상간하다(어상당하다. 어이상반하다):
 ㉫엇비슷하다.
 0. 값이 어상간하다. 그런 선에서 흥정을 하지머.
 0. 그거와 그걸 맞바꾸면 어상간하겠다.
 어상당하다: →어상간하다.
어서: ㉬어디서.
 0. 그 사람 어서 왔대?
어서들: ㉬어서어서. ㉬일이나 행동을 재촉하는 말.
 0. 어서들 나가세 점심이 왔네.
어서 오시갸우: ㉬어서 오십시오.
 0. 어서 오시갸우, 그 동안 편히 계셨는 지요?
어성내기(어치기): ㉭얼치기. ㉮첫 새끼를 갖을락 말락한 암소.
 0. 지난 장날 어성내기 암소 한 마리 사 왔네.
 0. 6.25 때 집 탈 때 외양간에 매어둔 어성내기 암소가 같이 탔다.

어시다: ㉠어지빠르다. ㉡정도가 넘치거나
치져서 어느 쪽에도 맞지 않다.

0. 지금 점심 먹기는 아직 어시다.

어시댄다(으시댄다): ㉠으스댄다. ㉡잘난
체하며 뽐낸다.

0. 기운 세다고 너무 어시댄다.

어신 때: ㉠비어있는 때.

0. 어신 때 먹으러 오라니 반갑소.

어여: ㉠어서.

1. 빨리, 곧이란 뜻으로 재촉하는 말.

0. 어여 하라는 대로 해.

2. 반갑게 맞아들이거나 권하는 말.

0. 어여 오게.

0. 어여 앉아요.

0. 어여 드세요.

어엽다: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힌다.

0. 잘못된 자기가 하고 책임은 나를
지라니 참 어엽다.

어영비영: ㉠어영부영. ㉡되는대로

행동하는 모양.

0. 그 녀석 어영비영 놀기만 해.

어올래: →어블래.

어이?: ㉠뭐라고?

0. 어이? 머란지 잘 안들려.

어이상반하다: →어상간하다.

어이새끼: ㉡어미 소와 새끼.

0. 어이새끼 끼워서 흥정하세.

어자침: ㉡어제 아침.

0. 그 사람이 어자침에 왔다 갔어요.

어쟁이떠쟁이(으쟁이뜨쟁이):

㉠어중이떠중이. ㉡여러방면에서 모인

사람들을 낚잡아 이르는 말.

0. 어쟁이떠쟁이 다 모여서 뭘 한 대.

어중쭙해(우중쭙해): ㉡좀 우둔해.

0. 그 사람 좀 어중쭙해.

어지가이: ㉠어지간히.

0. 낫그릇 어지가이 닦아라. 구멍 나겠다.

어지낙(어찌낙): ㉠어저녁.

0. 어지낙에 일을 다 마치고 잤지.

어지롭다(어지럽다): ㉠어지럽다.

0. 빙빙 돌면 어지롭다. 그만 해라.

어지롭다: →어지롭다.

어지뽕뽕하다: ㉠어지빠르다. ㉡정도가
넘치거나 치져서 어느 쪽에도 맞지않다.

0. 비가 오락가락 하니 일하기가 어지
뽕뽕 하다.

어질군다: ㉠어지른다. ㉡정돈되어 있는
것을 어지럽게 한다.

0. 아이들이 방바닥을 어질군다.

어짜노(어째노. 어째니. 우짜노.

우째노. 우째니): ㉠어찌하니. 어떡하니.

0. 송아지 영 넘어 간 걸 이제사 어짜노.

0. 일이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와서
어짜노.

어째노: →어짜노.

어째니: →어짜노.

어째라구: ㉠어찌라고. ㉡어떻게 하라고.

0. 저 일을 어째라고 하다가 그만두냐?

어째문: ㉠어찌면.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 하건대.

0. 어째문 내일 비가 개일지도 몰라.

어쨌?: ㉡어디다 치웠나?

0. 나 준다던 사탕 어쨌?

어쩐지: ㉠어쩐지. ㉡어찌된 까닭인지.
0.어쩐지 좀 이상하더라니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어쩔: ㉠어쩔. 어찌면.
0,어쩔 나가 내일 갈지도 몰라.

어쭈구리: ㉡아주'의 낮춤 말.
1.아주. 전혀.
0.어쭈구리, 빵 빠졌네.(큰 손해를
당하여 완전히 거덜 남을 이르는 말)
2.남의 잘난 체하는 말이나 행동을
비웃는 말.
0.어쭈구리, 곧잘하네.
0.어쭈구리, 제법이야.

어찌냐: →어지냐.

어치가: →어성내기.

어테 왔어?: ㉡어떻게 왔어?
0.그 먼 길을 어테 왔어?

어트가면(어트가문): ㉡어떻게 하면.
0.그 일을 어트가면 그렇게 잘 하니.
0.글씨를 어트가면 잘 쓰니.

어트가문: →어트가면.

어뜨게(어티게): ㉠어떡해. 어떻게.
1.종결어미로서의 어떡해.
0.엎질러진 물인데 뭘 어뜨게.
2.부사로서의 어떻게.
0.이 과일은 어뜨게 먹니?

어특하구: ㉠어떡하고. 어떻게 하고.
0.강아지는 어특하구 여행을 가.
0.뒋 일은 어특하구 그냥 가나.

어티게: →어뜨게.

어푼(어픈. 어플. 얼릉): ㉠얼른.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0.어푼 먹어.
0.어푼 가자.
0.어푼 따라와.

어픈: →어푼.

어플: →어푼.

어하다: ㉠우물쭈물하다. ㉡우물거리며
흐리멍덩하게 하는 모양.

0.어하다 좋은 싸구려 다 놓친다.

억눌룬다(억눌른다): ㉠억누른다.
㉡스스로 참거나 압력을 받는다.
0.숫는 감정을 억지로 억눌룬다.

억눌룬다: →억눌룬다.

억머구리: ㉠악머구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 울고불고하는 모습.
0.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다고
사람이 억머구리야.

0.집이 물에 떠내려간다고 억머구리야.

억시다: ㉠억세다.

- 1.폼은 뜻이 굳고 세차다.
- 0.기질이 억시다.
- 2.생선 뼈나 잎 줄기가 뻗뻗하다.
- 0.탱자나무 가시가 억시다.
- 3.팔, 다리, 골격 따위 힘이 세 보인다.
- 0.손 아귀가 억시다.
- 4.운수 따위의 좋고 나쁜 정도가 심하다.
- 0.억시게 운이 좋았어.
- 5.말투 따위가 거칠고 무뚝뚝하다.
- 0.경상도 사나이는 말투가 억시다.

억에 없는: ㉡분수에 넘게.

0.아, 글세. 억에 없는 일이지.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나?

억지루: ㉠겨우. 가까스로. 간신히.

0. 어려운 일을 억지루 해냈다.
억지춘양: ㉠억지로 그 역할을 하는 것.
 0. 억지춘양으로 노래를 불렀다.
언가이(언간이, 언칸이): ㉠어지간히.
 0. 일을 언가이 하고 마쳐라.
 언간이; →언가이.
언나(언난이): ㉠어린 아이.
 0. 언나가 슬금슬금 기어 온다.
 0. 언나가 잘도 논다.
 언난이; →언나.
언년이: ㉠계집아이. ㉠아이보다 더 자란 여자 아이.
 0. 언년이가 일을 곧잘 해.
 0. 언년이가 집안 일을 잘 거들어.
언는: ㉠얼른. 빨리. 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0. 식기 전에 언는 먹어라.
 0. 심부름 언는 갔다 오너라.
언덜배기(언들배기): ㉠언덕배기.
 0. 언덜배기 받은 부처 먹기 힘이 들어.
언득(언득): ㉠언뜻. 문득.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0. 언득 깨달았다.
 0. 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떠 올랐다.
 언들배기; →언덜배기.
 언득; →언득.
언막절에: ㉠깜짝할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0. 술개가 언막절에 병아리를 채 갔다.
 눈 깜짝할 사이야.
언만하면(웬만하면): ㉠어지간하면.
 0. 언만하면 그 쯤에서 흥정을 하지.

언잡다(언잡다): ㉠언잡다.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다.
 0.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언잡다.
 0. 너무 언잡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 보세.
언제던지: ㉠언제든지. 아무 때나.
 0. 언제던지 놀러 와. 대 환영이야.
언진다: ㉠엷는다.
 0. 씻은 그릇을 찬장 선반 위에 언진다.
 언잡다; →언잡다.
언체 뇌(언체 뇌): ㉠엷혀 뇌.
 0. 세 윗이다. 말밥을 한테 언체 뇌.
언챙이: ㉠언챙이. ㉠입술이 선천적으로 갈라진 사람.
 0. 언챙이는 밥 먹을 때 불편스럽겠다.
 언체 뇌; →언체 뇌.
언친다: ㉠체한다. ㉠먹은 음식이 잘 삭지 아니하고 위 속에 답답하게 남아 있다.
 0. 언친다, 천천히 먹어라.
 0. 공짜 탐내다 언친다.(공짜를 좋아하다 잘못 걸린다는 말)
 언칸이; →언가이.
얼개미: ㉠체. 어레미. ㉠구멍이 굵은 체. 가루를 치거나 액체를 받거나 거르는 데 쓰는 기구.
 0. 얼개미는 메밀 껍데기를 거를 때 쓰지.
 0. 술 거를 때 얼개미를 받친다.
얼게(얼게): ㉠'얼리다', '얼러'에서 온 말.
 0. 음식이 상할라. 밖에 내놔 얼게.
얼굴: ㉠얼굴.
 1. 눈, 코, 입이 있는 얼굴.
 0. 얼굴이 핀다.(얼굴에 살이 오르고

- 화색이 돈다)
- 2.얼굴의 생김새, 용모.
- 0.얼굴을 내민다.(모임에 모습을 나타낸다)
- 0.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이다.
- 3.남에게서 얻은 신용, 평판, 체면, 명예.
- 0.무슨 얼굴로 그를 대하나.
- 0.얼굴 가죽이 두껍다.(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을 모른다)
- 0.얼굴이 팽파리 같다.(염치가 없고 뻔뻔스럽다)
- 0.얼굴이 뜨겁다.(부끄럽거나 창피해서 남은 불 면목이 없다)
- 0.얼굴에 첩관 깔았다.(몹시 뻔뻔스러워 브끄러워 하지 않는다)
- 0.얼굴을 깎는다.(체면을 잃게된다)
- 0.얼굴에 똥칠한다.(체면을 꾸긴다. 창피를 당한다)
- 0.얼굴에 모닥불 쏘아 붓듯한다.(매우 부끄러워 낮이 뜨거움을 이룸)
- 4.심리상태가 나타난 형상.
- 0.쓸쓸한 얼굴일세.
- 0.얼굴이 반쪽이다.(병이나 고통으로 얼굴이 무척 수척해졌다)
- 0.얼굴에 외꽃이 피었다.(얼굴이 누렇게 떠 병색이다)
- 5.어떤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
- 0.연극계의 새 얼굴이다.
- 0.얼굴이 팔린다.(얼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
- 0.얼굴을 판다.(얼굴이 알려진 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다)

- 6.어떤 사물을 대표하는 부분.
- 0.서울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 얼군다:** ㉠얼린다. ㉡얼게 한다.
- 0.장갑을 끼지 않아 손을 그만 얼군다.
- 얼그리하다(얼괴하다):** ㉠얼근하다.
- 얼큰하다. ㉡취기가 돈다. 맵다.
- 1.취기가 돈다.
- 0.장에서 한잔했더니 얼그리하다.
- 2.맵다.
- 0.고추를 먹었더니 얼그리하다.
- 얼떨절에:** ㉠얼떨결에. ㉡복잡해서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판에.
- 0.얼떨절에 일을 해준다고 그만 대답을 했네.
- 얼떼기(얼띠기):** ㉠얼뜨기. ㉡얼빠진 데가 있는 사람.
- 0.학교 가서 얼떼기처럼 놀지 말고 다부지게 굴어.
- 얼뜨린다:** ㉠잠깐 기절한다.
- 0.물돌을 망치로 치면 밑의 물고기가 얼뜨린다.
- 0.얼뜨린 물고기는 빨리 집어야 한다. 조금 있으면 정신을 차려 달아난다.
- 얼띠기: →얼떼기.
- 얼러덩똥똥:** ㉠얼렁똥똥. ㉡얼버무려 남을 슬쩍 속이는 모양.
- 0.얼러덩똥똥 넘기려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 봐.
- 얼럭(얼럭대):** ㉠긴 장대.
- 0.산에가서 얼럭을 해 온다.
- 0.얼럭으로 얼럭가리를 만든다.
- 얼럭가리:** ㉠긴 장대로 만든 곡식 걸이 대.

0. 긴 장대로 얼룩가리를 만든다.

0. 콩단을 얼룩가리에 가린다.

얼룩대: → 얼룩.

얼레리꼴레리(올레리꼴레리):

㉠아이들이 놀리는 말.

0. 얼레리꼴레리! 입술에 밥풀이 붙었다.

얼로: → 어두루.

얼루: → 어두루.

얼른다(얼린다): ㉠달란다.

0. 우는 아이를 사탕을 주며 얼른다.

얼룽: → 어푼.

얼룽 비캐: ㉠얼른 비켜.

0. 얼룽 저리 비캐. 바쁘다.

얼린다: → 얼른다.

얼매(엄매. 움매. 월매): ㉠얼마.

1. 잘 모르는 수량이나 정도.

0. 사과 개수가 모두 얼매요?

2. 정하지 않은 수량이나 정도

0. 이 돈 얼매 안되지만 여비에 보태
써라.

3. 밝힐 필요가 없는 수량이나 정도.

0. 그 사람 얼매 못살고 같것 같아.

얼매망쿰(얼맹쿰): ㉠얼마만큼.

0. 돈을 얼매망쿰 주래.

얼맹쿰: → 얼매망쿰.

얼비킨다: ㉠얼보인다. ㉠분명하지 않게
보인다.

0. 요즘은 글씨가 자꾸 얼비킨다.

0. 나이 먹으면 얼비키게 돼있어.

얼신댄다(을신댄다): ㉠앞에 나타나 어른
거린다.

0. 달갑지 않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 얼신

댄다.

얼었다: ㉠겹먹었다.

0. 고양이가 나타나니 쥐가 바짝 얼었다.

얼음강판: ㉠얼음 썰매. 빙구. ㉠아이들이
얼음 위에서 미끄럼 타는 제구.

0. 얼음강판을 만들자.

0. 얼음강판 가지고 얼음 타러 간다.

얼찐: ㉠얼른. ㉠시간을 끌지 않고 얼른.
빨리. 어서.

0. 일을 얼찐 해치워라.

0. 얼찐 가자. 해 떨어지겠다.

얼찐하면: ㉠언뜻하면. 걸핏하면.

1. 언뜻하면.

0. 술개가 얼찐하면 암탉은 경고를
보낸다.

2. 걸핏하면.

0. 얼찐하면 그저 돈 달라고하니
겁이난다.

얼추: ㉠얼핏. 대충.

0. 얼추 생각하면 그런 거 같이.

얼케: → 얼게.

얼콰하다: → 얼그리하다.

얼투당투않은: ㉠얼토당토않은. 얼토당토
아니한.

1. 전혀 상관이 없다.

0. 얼투당투않은 사람 끌어들이지 마.

2. 전혀 가당치않다.

0. 얼투당투않은 거짓말이다.

얼푸시(얼프시): ㉠어렴풋이. ㉠어렴풋하게.

0. 얼굴을 보니 얼푸시 생각이 난다.

얼프시: → 얼푸시.

얼핏하면: ㉠걸핏하면. 특하면. ㉠조금

이라도 틈만 있으면.

0. 얼핏하면 나를 부른다.

엷으바리(엷은벙이. 엷음벙이):

㉠ '꼼보'의 변형된 말.

0. 어릴 때 마마를 앓다 엷으바리가
됐지.

엷은벙이: →엷으바리.

엷음벙이: →엷으바리.

엷?: ㉡ 없니?

1. 없다.

0. 쓸 돈이 엷?

2. 존재하지 않다.

0. 주름살이 엷?

0. 그 일과는 상관인 엷?

3. 갖추고 있지 않다.

0. 시간이 엷?

0. 재주가 엷? 0. 버릇이 엷?

4. 일어나지 않다.

0. 일할 생각이 엷?

5. 살아있지 않다.

0. 부모가 엷?

6. 부족하다.

0. 아는 것이 엷?

7. 할 수 없다.

0. 거기엔 갈 수 엷?

엷게덤게(엷게덩게): ㉢ 둥글둥글. 한데
어울러.

0. 모나게 사는 것보다 엷게덤게 어울려
사는 게 좋지.

엷마: →엷매.

엷막절에: ㉣ 영겁결에. 얼떨결에.

㉤ 뜻하지 않은 사이에 갑자기.

0. 힘든 일을 해준다고 엷막절에 대답해
버렸다.

엷매: →엷매.

엷방: ㉥ 1구렁. 2위낙.

1. 구렁.

0. 엷방에 내려 굴라. 조심해라.

2. 위낙.

0. 그 학생은 공부를 엷방 잘해.

0. 그애는 힘이 엷방 세다.

엷베덤베: ㉦ 엷친데 겹친데. ㉧ 한 곳에 더
겹치는 모양.

0. 이 일을 하는데 저 일까지 엷베덤베
잘 넘어갔다.

엷살꾸레기(엷살쟁이): ㉨ 엷살꾸레기.

㉩ 엷살이 심한 사람.

0. 머 그만한 걸 가지고 그 야단이야.
아주 엷살꾸레기야.

엷살쟁이: →엷살꾸레기

엷쳐: ㉪ 합쳐.

0. 무 두 무더기를 끝 떨이로 한데 엷쳐
드린다.

엷판 다르다: ㉫ 큰 차이로 다르다.

0. 감과 고욤은 크기나 맛이 엷판
다르다.

엷고 꼬집는다: ㉬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해를 입힌다.

0. 그 사람은 엷고 꼬집기를 잘 한다.

엷드레: ㉭ 엷드레.

0. 머리 받친다 엷드레.

엷신예긴다(엷수이본다. 읷신예긴다):

㉮ 엷신여기다. ㉯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

0. 업신여기던 딸이 딱함지 이고 들어온다. (업신여기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
 업쓸린다: →섭쓸린다.
업어친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해를 입힌다.
 0. 투전판에 같이 가면 업어치는 수가 종종 있다.
 없수이본다: →업신예긴다.
없애빠래(읷애빠래): ㉠없애버려.
 0. 구질구질한 거 없애빠래.
 0. 잡념일랑은 없애빠래.
없어유(없이유): ㉠없어요. 없다.
 1. 물품을 가지지 않다.
 0. 우리집엔 그런 거 없어유.
 2. 상대를 올려대는 말.
 0. 또 그러면 국물도 없어유.
 3. 생겨나거나 일어나지 않다.
 0. 저는 일할 마음이 없어유.
 4. 재주가 없거나 갖추고 있지 않다.
 0. 저는 그럴 겨를이 없어유.
 5. 존재하지 않다.
 0. 그 일은 저와는 상관이 없어유.
 없이유: →없어유.
엇갈이 무: ㉠김장철과 어긋나게 좀 일찍 심은 무.
 0. 초가을 엇갈이 무가 잘 됐어.
엇다: ㉠여기 있다. 물품을 던지시 건네며 하는 소리.
 0. 엇다, 떡 하나 먹어라.
 0. 엇다, 월사금 여기 있다.
엇다가: ㉠어디에다가.

0. 엇다가 대고 하는 말이야?
 0. 이 화로를 엇다가 놔?
엇비젓하다: ㉠엇비슷하다. ㉠어지간하게 거의 같다.
 0. 콩치와 학콩치는 엇비젓하다.
 엇소: →앗소.
엇거쟁이: ㉠엇경퀴.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와 잎은 약용으로 씀.
 0. 엇거쟁이를 찢어서 상처에 바르면 피가 멎는다.
 엇게덩게: →엄게덤게.
엇겹절에(엇접결에): ㉠엇겹결에.
 ㉠뜻하지 않은 사이에. 갑자기.
 0. 일하러 간다고 엇겹절에 말하고 말았다. 나도 바쁜데...
엇구락(엇구력): ㉠엇구력. ㉠과장해서 엄살을 부리는 일.
 0. 별로 아프지 않겠는데 저렇게 엇구락을 쓰며 울잖나.
 엇구력: →엇구락.
엇그성하다: ㉠엇그성하다.
 1. 꼭 썬이지 않고 어설프다.
 0. 문장 짜임이 엇그성하다.
 2. 형태나 내용이 부실하다.
 0. 일을 엇그성하게 처리하면 못쓴다.
 3. 뼈만 남은 듯 버쩍 마르다.
 0. 사람이 어떻게 좀 엇그성해.
 4. 뻑뻑하지 못하고 성기다.
 0. 콩 가리가 어째 엇그성 하다.
엇뎡이(엇뎡이짜배기. 엇뎡이 짝. 엇뎡이. 엇쟁이. 응뎡이. 응쟁이):
 ㉠엇뎡이. ㉠궁둥이 윗부분. 불기의

윗부분.

0.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돌아다니고 싶어 한군데 가만히 앉아 있기가 갑갑하다는 말)

0. 엉덩이가 무겁다.(동작이 굼뜨고 한곳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

0. 엉덩이에 뿔이 났다.(어린 사람이 가르침은 잘 받지 않고 빗나갈 때 이르는 말)

엉덩이짜배기: →엉덩이.

엉덩이짱: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생이: →엉덩이.

엉야: →성.

엉접절에: →엉겹절에.

엎디레 절받기: ㉠엎드려 절받기.

0. 엎디레 절받기.(상대방은 의사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요구하여 대접 받는다는 말)

엎어말이: ㉠곱빼기. ㉡음식의 두 그릇을 한 그릇에 담는 모양.

0. 냉면을 엎어말로 엎어말로 주세요.

엎어지문 코 달 데: ㉢가까운데.

0. 엎어지문 코 달 데를 머가 멀다 그래.

에낭구다리(에낭그다리): ㉣와나무다리.

㉣나무 하나로 놓은 다리.

0. 상여는 에낭구다리도 잘 건넌다.

에낭그다리: →에낭구다리.

에노리: ㉤에누리. ㉥값을 깎는 일.

0. 값을 에노리 얼마 해 주겠소?

~에다는: ㉦~에는.

0. 사돈네 집에다는 뭘 보내지?

에따(에따가. 았다가): ㉧이따. 이따가.

0. 조금 에따 봐. 나 지금 바빠.

에따가: →에따.

에라이!: ㉨예끼!

0. 에라이,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쓰겠나?

에렵다(에롭다): ㉩어렵다. 외롭다.

1.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

0. 에러운 걸음을 하셨습니다.(바쁘거나 거리가 멀어서 좀처럼 가기 힘든 곳을 왔다)

2. 가난하여 살아가기 고생스런 사람이다.

0. 살림살이가 에러운 형편이다.

3. 성미가 까다롭다.

0. 그 사람 다루기가 좀 에렵다.

4. 상대방이 두려워 조심스럽고 거북하다.

0. 시부모 앞이라 말 꺼내기가 에렵다.

5.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가 까다롭다.

0. 중학생이 풀기에는 좀 에러운 문제다.

6. 외롭다.

0. 형제지간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좀 에렵다.

에렵사리(에롭사리): ㉪어렵사리. ㉫매우 어렵게.

0. 에렵사리 일자리를 잘 구했네.

에롭다: →에렵다.

에롭사리: →에렵사리.

에미 에비: ㉬어미 아버. ㉭부모가 자식 달린 아들, 며느리에 대하여 이르는 말.

0. 사람은 에미 에비 밑에서 자라야 제대로 자라지.

에운다: ㉠때운다. ㉡다른 수단을 써서
대충 치러 넘긴다.

- 1.끼니를 때운다. 빵 하나로 점심을
에운다.
- 2.값음을 한다.
0.꺼온 돈을 일해주고 에운다.

에지간하다(엔간하다. 영간하다):

㉠어지간 하다.

- 1.정도가 표준에 가깝다.
0.키가 에지간하다.
- 2.생각보다 꽤 무뎠다.
0.성격이 에지간해 잘 참았다.
- 3.정도가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0.에지간하면 그냥 두지머.

에짤하다: ㉠짤하다. ㉡마음이 아프고
쉽습하다.

- 0.그 사람이 갔더니 마음이 에짤하다.
고생하며 살았는데...

에핀네(여핀네. 예핀네. 예핀네):

㉠여핀네. ㉡결혼한 여자나 아내를
얕잡아 이르는 말.

- 0.에핀네 하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 했다.

에핀사나(에핀사나. 예핀사나.

예핀사나): ㉠안팎. ㉡내외를 낮추어
부르는 말.

- 0.에핀사나가 차려입고 모두 놀러
가더만.

에핀사나: →에핀사나.

엔간하다: →에지간하다.

엔긴다: ㉠안긴다.

- 0.아기는 아 애미한테 엔기고 너는 이거

거들어라.

엔날: ㉠옛날.

- 0.아주 엔날엔 사람이 동굴 속에서
살았다.
- 0.엔날엔 호랑이가 담배 피웠다.(아주
까마득한 옛날이라는 뜻)

옛다: →앗다.

옛다가: →에따.

옛소: →앗소.

영간하다: →에지간하다.

여(여서): ㉠여섯.

- 0.하나, 둘, 서이, 너이, 다, 여.

여가리(여까리. 여카리. 으가리.

으카리): ㉠가. 가장자리. 언저리.

- 0.여가리에 나 앉아. 가로 거친다.
- 0.발 여가리까지 알뜰히 매어라.

여게: ㉠여기.

- 0.가위 바위 보해서 이긴 사람 여게
모여.

여게까장(여게까정. 여까장. 여까정.

여까짐. 여꺼지. 여꺼짐. 역꺼지. 역꺼짐.

요까짐): ㉠여기까지.

- 0.여게까장 오느라 애썼다.

여게까정: →여게까장.

여게나거게나(여나거나): ㉠여기나

거기나.

- 0.여게나거게나 뭐 별 차이 없어.

여게나저게나(여나저나): ㉠여기나

저기나.

- 0.여게나저게나 같은 값이네.

여까리: →여가리.

여까장: →여게까장.

여까장: →여계까장.

여까짐: →여계까장.

여꺼지: →여계까장.

여꺼짐: →여계까장.

여나거나: →여계나거나.

여나무(여남개, 여남시): ㉠열 넘게.

0.감자를 여나무개 깎아라.

0.복숭아를 여나무개 따 오너라.

여나저나: →여계나저거나

여날여적(여날여적지, 이날이적,

이날이 적지): ㉠여태. 아직.

0.일은 안하고 여날여적 놀기만 했잖나.

여날여적지: →여날여적.

여남개; →여나무.

여남시: →여나무.

여는 거: ㉠다른 것.

0.여는 거 좀 봅시다.

여들: ㉠여덟.

0.사람이 여들이니까 반으로 갈라 시험 하자.

여랭이(여러기, 여레이): ㉠여럿이.

0.밤길은 여랭이 가면 든든하지.

0.나물하러 산에 여랭이 간다.

여러기: →여랭이.

여레이: →여랭이.

여를: ㉠열흘.

0.처가에 가서 여를 묵다 왔네.

여물구박; ㉠여물 바가지.

0.소 여물을 여물구박으로 퍼서 구유에 넣는다.

여물군다: ㉠일이 완성 되도록 마무리

짓는다. 성사시킨다.

0.일전에 의논했던 일을 여물군다.

여버리: ㉠바보.

1.지능이 떨어져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0.여버리 같이 하지 말고 좀 똑똑히 놀아 봐.

2.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욕으로 얹잡아 일컫는 말.

0.그를 믿는 내가 여버리지.

여보서요(요보서요): ㉠여보세요.

0.여보서요, 좀 비켜주세요,

여분데기(여분뎅이): ㉠남은 곳.

0.밭 가 여분데기까지 알뜰히 매어라.

0.호박은 밭 가 여분데기에 심어라.

여분뎅이: →여분데기.

여불디기: ㉠여벌. 여분. ㉠쓰고 있는 것 이외의 물건.

0.등산할 땐 여불디기로 옷을 더 가지고 가는 게 좋다.

여서: →여.

여석: ㉠녀석. ㉠남자아이를 낮추어 부르는 말.

1.남자 아이를 낮추어 일컫는 말.

0.사내 여석이 겁이 많군.

2.사내 아이를 귀엽다고 일컫는 말.

0.고 여석, 참 영리하구나.

여시(영깡이): ㉠여우. ㉠갯과 짐승으로 산야의 굴 속에서 삶.

0.그 애는 꼭 여시처럼 피를 부린다.

0.여시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갈수록 더욱 힘든 일을 만남의 비유)

0.6.25전쟁 때까지 득실거리던 여시가

전쟁 후에 사라졌다.(여우는 쥐 등을 잡아먹고 사는데 쥐약을 살포한 데 따른 결과인 듯)

여식아(예나. 예시가. 예파나. 예피나):

- ㉠ 여자 아이를 예사로 부르는 말.
- 0. 이 여식아가 어디 갔어.
- 0. 여식아가 일을 잘 거들어.

여이고: ㉠ 여의고. ㉡ 죽어서 떠나 보내고.

- 0. 저 여잔 남편을 여이고 혼자 살아.

여적(여적끈. 여적지. 여지껏. 여지끈):

- ㉠ 여태까지. 아직까지.
- 0. 여적 안 갔어?
- 0. 여적 그 일을 못했구나.

여적끈: →여적.

여적지: →여적.

여지껏: →여적.

여지끈: →여적.

여차저차: ㉠ 요러나 저러나. 요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 0. 그 일은 여차저차 해도 매한가지야.

여카리: →여가리.

여트다: →야트다.

여핀네: →에핀네.

역구리(옆뎡이): ㉠ 옆구리. ㉡ 몸의 양쪽 갈비가 있는 부분.

- 0. 역구리 콕콕 찌른다.(팔꿈치나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러서 은밀하게 신호를 보낸다)
- 0. 누가 먼저 역구리 찢렀나.(같이 사귀자고 먼저 신호를 보낸 사람의 비유)

역꺼지: →여계까장.

역꺼짐: →여계까장.

역부러: ㉠ 일부러.

- 1. 일삼아. 굳이.
- 0. 역부러 찾아가 보았다.
- 2. 알면서. 짐짓.
- 0. 알면서도 역부러 한번 물어보았다.

역정: ㉠ 역성. ㉡ 한편을 편들어 줌.

- 0. 네가 그쪽 역정을 들면 어떻게 하니?

연개(연기. 영기): ㉠ 연기. ㉡ 물건이

- 불에 탈 때 나는 검거나 뿌연 기체.
- 0. 굴뚝에서 연개가 모락모락 솟아오른다.
- 0. 아니 뎡 굴뚝에 연개 날까?(사물이 일어 나는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말)

연다리(영거퍼. 영거푸): ㉠ 연거푸.

- ㉡ 잇따라 여러 번.
- 0. 씨름을 하는데 연다리 이겼어.

연색하다: ㉠ 연하다.

- 0. 사람이 연색한 게 좋아.

연신: ㉠ 연방. ㉡ 잇따라. 계속해서.

- 0. 보리밥을 먹었더니 연신 방귀가 나온다.

연예: ㉠ 연어. ㉡ 연어과의 바다 물고기.

- 소하성 어류.
- 0. 남대천에 연예가 엄청나게 올라왔어.

연자새: ㉠ 열레. ㉡ 실을 감는 기구.

- 0. 연을 띄울 때는 연자새를 감고 푸는데 묘미가 있다.

연장: →물건.

연장(연장): ㉠ 논을 가는 농기구.

- 0. 아버지께서는 연장을 지계에 지고 논으로 가신다.
- 0. 아버지께서 소에 연장을 매워 논을

가신다.

연짱: ㉠연이어. 계속해서.

0.마작을 하는데 연짱으로 올라온다.

열(열딱지, 열불): ㉠화. ㉠뭇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질.

0.열나게 자꾸 부화 돋구지 말아.

열갱이(열기): ㉠붉은 볼락.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

0.열갱이 장수가 왔다.

0.열갱이를 굶는 냄새가 진동한다.

열기: →열갱이.

열나게(열심이루): ㉠열심히.

0.열나게 공부했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어.

열대: ㉠열쇠. ㉠자물쇠를 잠그거나 열 수 있게 하는 도구.

0.열대 이리 가져오너라.

0.열대로 문을 열어라.

열딱지: →열.

열래: ㉠열려. ㉠1.개방. 2.결실.

1.개방.

0.문이 자꾸 열래.

2.결실.

0.앵두가 잘 열래.

열물(이을물): ㉠소화액의 역류 현상.

0.난 왜 열물이 자꾸 올라와.

열미: ㉠열면서.

0.문을 빼꼼히 열미 얼굴을 내밀었다.

열밤중: ㉠한밤중. 야밤중. 오밤중.

㉠자정 무렵.

0.열밤중에 왜 사람을 오라 가라 한 대.

열불: →열.

열 빠진: ㉠열 빠진. 뉘 빠진.

0.열 빠진 사람처럼 그 일은 왜 하니?

열심이루: →열나게.

열적어(열찍어, 이을찍어): ㉠부끄러워.

1.스스로 수줍다.

0.신부가 열적어 눈을 뜨지도 못한다.

2.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남을 대할 면목이 없다.

0.거짓말한 것이 열적어 나타나지 못한다.

열찍어: →열적어.

열할리: ㉠열하루. 11일.

0.6.25 때 전염병을 앓다가 열할리만에 일어났다.

염불허고: ㉠중얼거리고. 헛소리 하고.

0.염불허고 앉아 있네.

염장을 지른다: →빨을 지른다.

염챙머리: →얌챙머리.

염체: ㉠염치.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0.아이를 다섯이나 업어 키웠으니 다리 안 아프란 건 염체 없는 말이지.

엽대기(엽때기): ㉠옆구리.

0.엽대기를 찌른다.(팔꿈치나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러서 은밀하게 신호를 보낸다)

0.엽때기에 섬(가마니) 찻나?(많이 먹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엽때기: →엽대기.

옛가새: ㉠옛가위. ㉠옛장수가 들고

다니며 옛 자르는 가위.

0.쩨렁쩨렁 옛가새 소리가 난다.

아이들은 빈병 들고 엇 바퀴 먹으러 간다.

엇먹어라: ㉠애먹어라. ㉡애가 탈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라.

0. 힘든 일에 빠지고 엇먹어라 한다.

엇반대기(엇자배기): ㉠엇자박.

㉡뺨질거리는 사람.

0. 엇반대기 처럼 뺨질거리긴.

엇뵈킨다: →뵈킨다.

엇자배기: →엇반대기.

엇장사: ㉠엇장수. ㉡엇을 파는 사람.

0. 엇장사 맘대로 한다.(자기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양)

엇지름(엇질금): ㉠엇기름. ㉡보리를 싹틔워 말린 것. 엇과 식혜 만드는데 쓰임.

0. 밥에 엇지름을 넣어 삭히면 식혜가 되지.

엇질금: →엇지름.

엇거피: →연다라.

엇거푸: →연다라.

엇글렀다: ㉠다들렀다.

1. 이루어지기 힘들다.

0. 좋은 사이가 이루어지기는 엇글렀다.

2. 정상적으로 되기가 틀렀다.

0. 허락 받기가 엇글렀다.

엇깁이: →여시.

엇등: ㉠엇등날. ㉡음력 2월 초하룻날.

엇등할머니가 내려오는 날로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음.

0. 엇등에는 밥을 해 뒤뜰에 내놓아 엇등

할머니를 대접하기도 한다.

엇말기(엇말랑): ㉠엇마루. ㉡고개의 맨 꼭대기.

0. 엇말기에 올라가 쉬서 가세.

엇말랑: →엇말기.

엇세: ㉠엇서. ㉡강원도 대관령의 서쪽

땅.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입천장을 둥그렇게 올려 소리 내는 ‘어’ 보다는 입을 조금만 벌려도 쉽게 소리 나는 ‘에’로 소리 내어 ‘엇서’가 ‘엇세’로 바뀐다.

0. 엇세 사람이 콩 팔러 왔다.

0. 엇세에 삼베 하러 가세.

0. 바다가 엇세 삼베 발판 하나?(바다를 못 본 엇서 사람의 일화)

엇양탕: ㉠개장국. ㉡개고기를 고아 끓인 국.

0. 몸 보신엔 엇양탕이 제일이라지.

엇은맛: ㉠얇은맛. ㉡진하지 않으면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

0. 냉면 육수가 엇은 맛이 나면서 입맛을 당긴다.

엇가지: ㉠결가지. ㉡원가지 옆에 돋은 작은 가지.

0. 살구나무 엇가지를 쳐낸다.

엇눈질: ㉠결눈질.

0. 사람이 엇눈질 하면 못 써.

엇텡이: →역구리.

엇모소리(엇모솔기): ㉠엇모서리.

0. 엇모소리에 밥풀이 붙었다.

엇모솔기: →엇모소리.

엇긴가: ㉠여긴가.

0.자네 집 옛날 집터가 예긴가 보네.
예긴다: ㉠여긴다.
 0.며느리를 딸자식처럼 예긴다.
 예나: →여식아.
예닐곱: ㉠예닐곱. 6~7.
 0.나이가 한 예닐곱 쯤 됐을까.
 예다: →애다.
예라이: ㉠예라. ㉡실망의 뜻을 나타내는 소리.
 0.예라이, 그만 지고 말았구나.
예리다: ㉠여리다.
 1.부드럽거나 연하다.
 0.나물이 예린 기 맛이 있겠다.
 2.의지나 감정 따위가 약하다.
 0.소녀가 마음이 예리다.
 3.빛이나 소리 따위가 약하다.
 0.색깔이 좀 예리다.
예민다: ㉠여민다. ㉡웃의 앞섰을 감싼다.
 0.한복을 입고 앞섰을 단정하게 예민다.
예뻐다: ㉠야워웠다.
 0.요즘 안봤더니 얼굴이 많이 예뻐다.
예수쟁이: ㉠기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
 0.예수쟁이는 부모 제사를 안 지낸다며?
예순: ㉠예순. ㉡열의 여섯 배 되는 수.
 0.나이 예순이면 이순(耳順)이라.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지.
 예시가: →여식아.
예의: ㉠예. ㉡공손히 하는 대답.
 0.상두꾼은 모여라! 예의!
예자: ㉠여자.
 0.예자는 예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연장: →연장.
 예중: →난중.
예치: ㉠여치. 찌르래기. ㉡여치과의 곤충.
 0.여기 예치가 있다.
 0.초저녁에 예치 울음소리가 정겹다.
 예패나: →여식아.
 예펜네: →에펜네.
 예펜사나: →에펜사나.
 예피나: →여식아.
 예핀네: →에펜네.
 예핀사나: →에펜사나.
예학상: ㉠여학생.
 0.예학상이 걸어 간다.
 연가: →연개.
연장: ㉠연장.
 1.어떤 일을 하는데 쓰는 도구.
 0.목수가 일하는 연장을 챙긴다.
 2.남자 성기의 비속어.
 0.연장 자랑하다 바람 난다.
연쟁머리 없이: ㉡정 없이. 가차 없이.
 0.연쟁머리 없는 년 같으니라구.
 0.연쟁머리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
 연중: →난중.
연필: ㉠연필. ㉡필기 도구의 하나. 흑연 분말과 점토의 혼합물로 만듦.
 0.연필 한 다스를 사 왔다.
 0.몽당 연필을 참대 자루에 끼워 쓴다.
엘렛새: ㉠열렛새. 16일.
 0.잔칫날이 엘렛새 날로 났네.
엘병: ㉠열병. 장티푸스. ㉡열이 몹시 오르며 심하게 앓는 병.

1. 열병을 가리킴.

0. 6.25전쟁 때는 엠병이 많이 돌았지.

2. 욕을 하는 말.

0. 엠병할 놈의 날씨.

0. 엠병할 놈의 화투는 왜 안 없어지나.

(화투로 재산을 날린 사람 아내의 말)

옛날에 간날에: ㉠옛날 옛적에.

0. 예날에 간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웠대.

(황당하다는 얘기)

옛소: →엷소.

엷기: →영개.

엷중: →난중.

오갈단지: ㉡작은 단지.

0. 오갈단지가 예쁘다.

0. 오갈단지에 꿀을 담는다.

오강: ㉢요강.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

0. 오강을 씻는다.

0. 할아버지 오강을 들여놓는다.

오거래이: ㉤오너라.

0. 얼른 갔다 오거래이.

0. 다음에 또 오거래이.

오골거린다(우골거린다): ㉥오글거린다.

우골거린다. ㉦별레 따위가 한데 모여 움직인다.

0. 진딧물이 한데 모여 오골거린다.

오골쫄(우골쫄): ㉧오글쫄.

우골쫄.

㉨오그라지고 쫄그라진 모양.

0. 옷자락이 오골쫄해졌다.

오구러들었다(오그러들었다): ㉩오그라

들었다.

1. 물체가 오그라진다.

0. 양동이 한쪽이 우묵하게 오구러들었다.

2. 우골쫄쫄 주름이 잡힌다.

0. 비 맞은 옷이 오구러들었다.

3. 형편이 전보다 못하게 된다.

0. 장사가 전보다 오구러들었다.

오구루(우구루): ㉪오글오글. 우글우글.

㉫많이 모여있는 모양.

0. 강아지가 오구루 한데 모여있다.

오곰(오곰패기. 오곰팽이. 오곰패기.

오곰팽이): ㉬오곰. ㉭무릎의

구부러지는 안쪽.

0. 오곰아 날 살려라. (급하게 달아남을 이르는 말)

0. 오곰에서 불이 난다.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0. 오곰을 못 쓴다. (몹시 풀리거나 두려워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

0. 오곰을 못 편다. (질리는 일이 있어 기를 못 편다는 말)

0. 오곰을 편다. (어려웠던 일이 풀리어 마음을 놓는다는 말)

0. 오곰이 쑤신다. (무엇이 하고 싶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말)

0. 오곰이 저리다. (저지른 일이 들통 날까 봐 마음을 졸인다는 말)

오곰패기: →오곰.

오곰팽이: →오곰.

오그래(우구래. 우골뜨래): ㉮오그러.

우그러.

0. 냄비를 오그래 뜨렸다.

오그러든다: →오구러든다.

오금패기: →오금.

오금팽이: →오금.

오까?: ㉠올까?

0.그러면 내일 오까?

오더가(오드가): ㉠오다가.

0.오더가 보니까 산비탈에 눈이 하얗게 내렸더라.

오데로: ㉠어디로. 어데로.

0.오데로 오라고?

오도방정: ㉠오두방정. ㉡몹시 방정맞은 행동.

0.왜 아침부터 오도방정이나?

오두: ㉠오디. ㉡뽕나무 열매.

0.오두 따 먹으러 가자.

0.뽕밭에 오두가 많더라.

오라버이(오래비): ㉠오라버니. 오빠.

0.너는 오라버이가 있어 좋겠다.

오라부댁: ㉡남들이 말하는 오라버니 댁.

오빠 부인.

0.이 떡을 오라부댁이 주시던?

오랍들(오랍뜰): ㉠오래뜰. ㉡대문 앞의 뜰. 집 주위. 또는 이웃.

0.오랍들 사람들이 한데 모였다.

0.할머께서 오랍뜰에 놀러 가셨다.

오랍뜰: →오랍들.

오랑캐가 집어먹는다: ㉠월식. 일식.

0.달이 없어진다. 오랑캐가 집어먹는다.

0.해가 없어진다. 오랑캐가 집어먹는다.

오래기: ㉠오라기. ㉡좁고 긴 조각.

0.서양 여자 수영복은 실오라기 하나 걸쳐왔다.

오래두룩: ㉠오래도룩.

0.정철은 관동팔경을 오래두룩 돌아 보며 시를 읊었다.

오래비: →오라버이.

오랫마이오: ㉠오랜만이오.

0.이 친구 참 오랫동안이오.

오루: ㉠바로. 옹게.

1.바르게.

0.바구니를 오루 만들어 봐.

2.옹게.

0.마음을 오루 가져 봐.

오르랑내리랑: ㉠오르락내리락.

0.아이가 계단을 오르랑내리랑하며 논다.

오른(오런, 오른신, 오른신네, 오른, 을신네): ㉠어른.

1.성인.

0.아이가 자라 오른이 되지.

2.지위나 학력이 높은 사람.

0.그 분은 우리 지방 오른이시다.

3.결혼한 사람.

0.결혼하면 오른이 되지.

4.나이 많은 사람의 경칭.

0.나이 많은 오른께 공손해라.

5.남의 아버지의 경칭.

0.자네, 오른께 말씀 드렸는가?

0.아이가 오른 뺨친다.(아이가 어른이 못당할 만큼 영악하다)

오리궁뎡이: ㉡궁뎡이가 큰 사람.

0.그 여잔 오리궁뎡이야.

0.오리궁뎡이 해가지고 빨리 뛰겠다.

오리발 내민다: ㉡판전부린다.

0.동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오리방석: ㉠물.

0.오리방석 좀 대령해라.(물 가져 오라는 말)

오마조마하다: ㉞조마조마하다.
0.입학 시험에 떨어질까 마음이 오마조마 하다.

오매자: ㉞오미자. ㉠오미자 나무의 열매.
0.오매자는 다섯 가지 맛이라지.

오무래(오므래): ㉞오므리다,
'오므려'에서 온 말.
0.입을 꼭 오무래.

오문가문(오민가민): ㉠오며 가며.
0.뽕튀기를 오문가문 다 집어 먹었다.

오물때기(오물띠기. 호물때기.
호물띠기): ㉠이가 없어 입술이 오목한 사람.
0.이 빠지면 오물때기 되는 거지머.
0.오물때기 밥먹듯.(일을 우물거리며 늦게 하는 사람의 비유)

오물띠기: →오물때기.
오므래: →오무래.
오민가민: →오문가문.

오바단추: ㉠문어 빨판. 문어.
0.잔칫상엔 그래도 오바단추가 올라야지.

오밤중이다: ㉠전혀 모른다.
0.일본이 항복했다. 그래? 나 혼자 오밤중이네.

오방난전이다: ㉠여러 가지를 늘어 놓는다.
0.방안이 오방난전이잖나.

오번에: ㉞요번에.
0.오번에 본 시험에서 일등을 했다며...

오부다지(오부뎡이): ㉞몽땅.

1.있는 대로 죄다.
0.돈을 오부다지로 날렸다.

2.상당 부분을 대번에 처리하는 모양.
0.긴 머리를 오부다지 잘랐다.
오부뎡이: →오부다지.

오부지다: ㉞알차다. ㉠충실하다. 실속이 있다.
0.올해 고추농사가 오부지다.
0.올 휴가는 오부지게 보냈다.

오새: ㉞요사이.
0.자네, 오새 멀 하는가?

오서요: ㉞오세요.
0.어서 오서요.

오세바세하다: ㉞오사바사하다
㉠사근사근 하거나 잔재미가 있다.
0.며느리가 오세바세하다.

오센?: ㉞오셨나? ㉠반 존대 하는 말.
0.도련님, 오센?
0.삼촌 오센?

오손도손: ㉞오순도순. ㉠의 좋게 지내거나 이야기 하는 모습.
0.오손도손 잘 살아라.

오솔길: ㉞오솔길. ㉠폭이 좁은 호젓한 길.
0.오솔길을 혼자 걸으면 한적한 맛이 있다.

오야: ㉞오냐. ㉠어른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소리.
0.그럼 편히 계세요. 오야, 걱정 말아라.

오양간: ㉞외양간. ㉠마소를 기르는 곳.
0.오양간에 짚을 깔아라.
0.오양간에 소 들어 매라.

오유월: ㉠오뉴월. ㉡오월과 유월.

0.오유월에 가면 각종 곡식이 한창
자라지.

오이면: ㉠오면.

0.언제 오이면 말해 보지요며.
0.언제 오이면 그래 보지요며. .

오이소박이(외소박이):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김치.
0.오이소박이 김치가 시원해서 좋다.

오입을 간다: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일.
0.오입을 가면 별 수 있나. 집 떠나면
고생이지.

오전 번에: ㉠오전 번에. ㉡지나간지 얼마

안 되는 때.
0.오전 번에도 밀가루를 타 왔잖나.

오좁(오짐): ㉠오좁.

0.아가 오좁 마렵단다.

오좁발: ㉡오좁 줄기.

0.오좁발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겨.

오좁을 깔린다: ㉡오좁을 눈다.

0.아무 데고 오좁을 깔리지 마라.

오지랑물: ㉠쇠지랑물. ㉡소 오좁,

0.오지랑물을 두엄밭에 퍼부어라.
0.오지랑물도 거름이다.

오짐: →오좁.

오징에: ㉠오징어. ㉡오징엇과의 연체동물.

0.바닷가에 오징에가 많이 났대.
0.오징에 장수가 올라온다.

오큼(웁큼. 웁큼. 웁큼): ㉠웁큼. 웁큼.

웁. ㉡한 손에 움켜쥔 분량.
0.파단을 한 오큼씩 묶는다.

옥겐(올께. 올겐): ㉠올 것이야.

0.갔다 옥겐.
0.금방 옥겐.

옥노: ㉠뒹.

1.짐승을 피어 잡는 기구의 한가지.
0.멧돼지가 옥노에 걸렸다.
2.남을 헐뜯거나 손해를 끼치기 위한
교묘한 피의 비유.
0.옥노에 치인 범이요, 그물에 걸린
고기다.(꼼짝없이 막다른 처지에 놓인
형세가 되었음을 비유하는 말)

옥새기(옥색기. 옥시기. 옥식기):

㉠옥수수. ㉡벗과의 한해살이풀.
0.뒹발에 옥새기가 잘 뒹다.
0.옥새기를 따다가 쥘다.

옥색기: →옥새기.

옥시기: →옥새기.

옥식기: →옥새기.

옥천조밥이 됐다: ㉡박살 났다. 산산조각

부서졌다.
0.유리병이 깨져 옥천조밥이 됐다.

온공일; 일요일.

0.오늘은 온공일이니 하루 종일 쉬겠다.

온김(온짐): ㉡따뜻한 기운.

0.불을 지피니 아랫목에 온김이 온다.

온나: ㉠오너라.

0.아가, 이리 온나.
0.외갓집에 심부름 갔다 온나.

온아침(온아침): ㉡오늘 아침.

0.온아침에 온 신문이다.
0.온아침엔 서리가 내렸다.

온아침: →온아침.

온저녁(온지낙, 온지녁): ㉠오늘 저녁.

- 0. 온저녁에 놀러 와.
- 0. 온저녁에 떡 추렴 한 대.

온제(원제, 은제): ㉠언제.

- 1. 과거의 어느 때.
- 0. 온제는 좋다고 하더니....
- 2. 아무때나.
- 0. 온제 같이 식사나 합시다.
- 3. 잘 모르는 때.
- 0. 작은아버지가 온제 온다더냐
- 4. 정해지지 않은 때.
- 0. 온제든지 가겠소.

온징일(온쟁일, 징일, 쟁일, 진징일.

진쟁일): ㉠온종일, 종일, 진종일.

-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사이.
- 0. 온징일 땡벌에서 콩밭을 매었다.
- 0. 오늘은 온징일 비가 내린다.

온쟁일: →온징일.

온지낙: →온저녁.

온지녁: →온저녁.

온짐: →온김.

올값이래두: ㉠올 망정, ㉠그러함의 뜻을 나타내는 말.

- 0. 나중엔 올값이래두 지금은 없잖나.

올께: →옥겐.

올겐: →옥겐.

올끼다: ㉠올 것이다.

- 0. 금방 올끼다 걱정 마라.
- 0.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올끼다.

올랑말랑: ㉠올 듯 말 듯.

- 0. 휴가를 일년 후에나 올랑말랑 해.

올래: ㉠올려.

- 0. 물건 값을 올래 받는다.

올래사랑: ㉠치사랑, ㉠손윗사람에 대한 사랑.

- 0.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래사랑은 없다 더라.

올러간다: ㉠올라간다.

- 1. 값이 비싸지거나 임금, 세금 등이 많아 진다.
- 0. 물가가 자꾸 올러간다.
- 2. 기운이나 세력이 성해진다.
- 0. 기세가 올러갔다.
- 3. 상류를 향해 나아간다.
- 0. 물길을 거슬러 올러간다.
- 4. 실적, 효과가 나타난다.
- 0. 성적이 올러갔다.
- 5. 아래에서 위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
- 0. 올러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불가능한 일은 처음부터 단념하라는 말)
- 6. 지위, 계급이 올라간다.
- 0. 과장에서 부장에 올러간다.

올레다보지: ㉠올려다보지.

- 0. 올레다보지 말고 내려다보고 살면 편하다.

올레리꼴레리: →얼레리겄레리.

올레문 와: ㉠오려면 와.

- 0. 내일 집에 놀러 올레문 와.

올르막: ㉠오르막.

- 0. 올르막 길은 오르기 힘들다.

올른다: ㉠오른다.

- 1. 탈 것에 탄다.

- 0. 버스에 오른다.
 - 2. 기록에 적힌다.
 - 0. 명부에 오른다.
 - 3. 몸에 살이 많아진다.
 - 0. 뱃살이 자꾸 오른다.
 - 4. 열이 높아진다.
 - 0. 열이 자꾸 오른다.
 - 5. 술, 약 따위의 기운이 몸 안에서 퍼진다.
 - 0. 술 기운이 점점 오른다.
 - 6. 때가 묻는다.
 - 0. 기름 때가 오른다.
 - 7. 길을 떠난다.
 - 0. 여행길에 오른다.
 - 8. 도마나 식탁 위에 음식물이 놓여진다.
 - 0. 도마에 펄펄 뛰는 활어가 오른다.
 - 9. 어떤 정도에 달한다.
 - 0.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 10. 울분, 화 따위가 난다.
 - 0. 화가 오른다.
 - 11. 귀신, 마귀 따위가 몸에 덮친다.
 - 0. 신이 오른다.
 - 12. 남의 이야깃거리가 된다.
 - 0. 그 일이 화제 거리에 오른다.
 - 13. 병, 독이 옹는다.
 - 0. 옷이 오른다.
- 올바루:** ㉠올바로. ㉡곧고 바르게.
 0. 몸가짐을 항상 올바루 하고 다녀라.
- 올방개(올방구. 올방질):** ㉠가부좌.
 0. 올방개를 치고 앉았더니 다리에 쥐가 내린다.
- 올방구: →올방개.
 올방질: →올방개.

- 올직에:** ㉠올 직에.
 0. 올직에 작은덕에 들러 와.
 0. 올직에 그 책도 가지고 와.
- 올강말강:** ㉠올지말지.
 0. 날은 흐렸는데 비는 올강말강 해.
- 올케맨다(홀체맨다. 흘케맨다):**
 ㉠없어맨다.
 0. 송아지를 처음 올케매니 전 야단친다.
- 올코놓는다(올퀴놓는다):** ㉡원상태로 돌려 놓는다.
 0. 바꾼 걸 도로 올코놓는다.
 올퀴놓는다: →올코놓는다.
- 옴복하다(옴복하다):** ㉠오목하다.
 옴폭하다. 우목하다. 옴폭하다.
 ㉡가운데가 둥그스름 하게 들어간 모양.
 0. 밥그릇이 옴복하면 밥이 많이 들어간다.
- 옴짝달싹(옴쩍달싹):** ㉠옴짝달싹. ㉡몸을 아주 조금 움직이는 모양.
 0. 그 사람 이제 옴짝달싹도 못하게 생겼어. 금족령이 내렸대.
- 옴크린다(옴크린다):** ㉠옴크린다.
 옴크린다.
 ㉡몸을 움츠려 작게 한다.
 0. 날씨가 추워 몸을 잔뜩 옴크린다.
- 옷걸이:** ㉠몸매.
 0. 그 사람 옷걸이가 멋있어. 옷매무새가 나.
- 웃고름:** ㉠웃고름. ㉡저고리나 두루마기 앞에 달아 옷자락을 여며 매는 끈.
 0. 저고리에 웃고름을 단다.
 0. 웃고름 떨어질라. 장난치지 마라.

옷 벗는다: ㉸그 직을 중간에 그만둔다.

0.그 사람 돈 먹다가 옷 벗는다며?

옷주머니: ㉸호주머니. ㉸옷에 단 주머니.

0.옷주머니에 엿을 넣었더니 녹아 붙었다.

옷 채림새: ㉸옷 차림새. 옷을 갖추어 입은 모양.

0.옷 채림새가 단정해야 한다.

옹계(옹겨): ㉸옹겨.

0.이 보리 자루 좀 옹겨 놔요.

옹계종계: ㉸옹기종기. ㉸각기 다른 모습이 많이 모인 모양.

0.농촌엔 초가집이 옹계종계 정답게 모여 산다.

옹겨: →옹계.

옹고지(옹고지. 옹곡지): ㉸쌀미꾸리.

0.옹고지 뜨러 셋돌엘 찾아간다.

0.옹고지가 셋돌(샘물 도랑)에 많이 모였다.

옹고지탕(옹탕): ㉸쌀미꾸리탕.

0.옹고지탕은 구수해서 좋다.

옹고집폐기: →고집폐기.

옹구: ㉸옹기. 옹기그릇. 오지그릇. 질그릇.

0.야! 저기 옹구 장사 왔다. 옹구 그릇 좀 사야겠다.

옹구쟁이: ㉸옹기장이. ㉸옹기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0.옹구쟁이는 천주교를 믿는대지?

옹킨다: ㉸옹킨다.

0.책상을 옹킨다.

옹노: ㉸옹.

1.짐승을 피어 잡는 기구.

0.돼지가 옹노에 걸렸다.

2.남을 헐뜯거나 손해를 끼치기 위한 교활한 피

0.상대방이 쳐놓은 옹노에 걸려들었다.

옹니배기: ㉸이가 안으로 굽은 사람.

0.옹니배기 하곤 말도 하지 말아.

0.옥니배기는 성질이 급하대.

옹시미(옹심): ㉸새알심. 경단.

㉸찰수수나 찹쌀가루 따위로 반죽을 한 후 밤톨만한 크기로 둥글게 빚어 삶은 음식.

0.동지엔 옹시미 팔죽을 먹는다.

옹심: →옹시미.

옹큼: →오큼.

~와: ㉸~워.

0.고추가 아주 매와.

0.헤진 옷을 기와 입고 다녔다.

와가주(와가주구. 와갓구): ㉸와서.

0.그 사람 와가주 얼마나 일했나?

와가주구: →와가주.

와갓구: →와가주.

와우: ㉸와와. 우아우아. ㉸소를 멈추게 하는 소리.

0.와우. 멈춰라 이소야.

왱달개(왱달계): ㉸신랑이 결혼 한지 3

일만에 신부 집에 와 동네 청년들에게 달리는 일이 있는데 이때 다는 사람들을 말한다.

0.그 집에 새신랑이 왔다. 왱달개 모여서 달아 먹으러 가세.

왱달계: →왱달개.

완?: ㉠왔나?

0.아들이 완?

0.편지가 완?

완기: ㉠은 것이.

0.딸이 오래간만에 완기 반갑고 말고
하지머요.

완저이: ㉠완전히.

0.서울에 가 있더니만 완저이 서울 사람
다 됐구만.

왔너?: ㉠왔니?

0.이제 왔니? 거 앉아라.

왔다리갔다리: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

0.그 사람은 원래 왔다리갔다리 해.
종잡을 수 없어.

왜놈: ㉠왜놈. ㉠일본인. 일본 사람.

0.한 때 왜놈들이 우리를 강점했었지.
0.왜놈들은 우리나라를 약탈해갔지.

왜서?: ㉠왜?

0.왜서 사람을 오라 가라 해.

외낭구다리(외낭그다리): ㉠외나무다리.

㉠한 개의 통나무로 놓은 다리.

0.원수는 외낭구다리에서 만난다.(남에게
원한을 사면 언젠간 피할 수 없는
자리 에서 만나게 된다는 말)

외낭그다리: →외낭구다리.

외냉채국: ㉠오이냉국. 오이찬국.

0.여름엔 외냉채국이 시원한 게 좋다.

외눈까리(외눈배기): ㉠애꾸. 애꾸눈.

0.외눈까리는 거리 조종이 잘 안 된다.

외눈배기; →외눈까리.

외대공(외대궁): ㉠외대. ㉠나무나 풀

따위의 단 한 줄기.

0.고추를 외대공만 세우고 걸가지는
따준다.

외대궁: →외대공.

외따루(외딸루. 외딸리): ㉠외따로.

㉠혼자 떨어져 있는.

0.그 집은 외따루 떨어져 있어.

외딴데: ㉠외딴 곳. ㉠영뚱한 곳을

가리킴.

0.외딴데 가지 말고 바로 찾아와.

외딸루: →외따루.

외딸리; →외따루.

외레: ㉠오히려.

0.잘못해 놓고 외레 덤벼든다.

외삼촌: ㉠외삼촌. 외숙. 외숙부.

㉠어머니의 남자 형제

0.외삼촌 산소에 별초하듯 한다.(정성을
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한다는 말)

외소백이: →오이소백이.

외손주(외손지): ㉠외손자. ㉠딸의 아들.

0.외손주는 방공이다.(외손자는 있어도
남의 집 손이라는 말)

외손지: →외손주.

외접: ㉠외겹. ㉠한 겹.

0.여름 옷은 외접으로 만든다.

외줄거리: ㉠외줄기.

0.고추를 가지를 쳐내고 외줄거리로
키운다.

외택: ㉠외탁. ㉠생김새나 성질 따위가

외가 쪽을 닮음.

0.아이들이 외택을 많이 했구만.

외톨배기: ㉠외톨박이.

1.한 툭박이.

0.밤이 외톨배기야.
 2.혼자 노는 사람.
 0.그 앤 외톨배기야. 늘 혼자 지내.
외통수: ㉠외골수. ㉡한 가지에만 매달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0.그 사람 외통술세. 좀 답답해.
원갓: ㉠온갓.
 0.원갓 고생은 다 하고 살았네.
 0.원갓 고생 다 겪었지.
원금(원금): ㉠본보기도 없이, 가르침도 받지 않고 혼자 하는 것.
 0.그림을 원금으로 그렸다.
 0.목수 일을 원금으로 배웠다.
원손잡이: ㉠원손잡이. ㉡원손을 오른손보다 잘 쓰는 사람.
 0.원손잡이라도 잘만하면 돼.
원종일(원종일. 원징일): ㉠온종일. 진종일.
 0.원종일 땡벌에서 콩밭을 맨다.
왼쪽: ㉠왼쪽.
 0.짐이 왼쪽으로 기운다.
왼긴다(왼긴다): ㉠왼긴다.
 0.들깨단을 저쪽으로 왼게라.
 0.짚단을 왼긴다.
 원금: →원금.
 원긴다: →왼긴다.
요걸로(요글루): ㉠요것으로. ㉡가까이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
 0.복숭아, 요걸로 주세요.
요게: ㉠여기. 요것이.
 1.여기.
 0.요게 갔다 올게.

2.요것이.
 0.요게 까불어.
요고: ㉠요것.
 0.요고를 혼내줄까? 말까.
 0.요고는 내 귀중품이야.
 요글루: →요걸로.
요까진 거(요까짓 거. 요간 거. 이까진 거. 이까짓 거. 이간 거): ㉠요까짓 것. 이까짓 것. 만만한 것.
 0.요까진 거 금방 하고 끝 내지며.
요까진 게(요까진 기. 요까짓 게. 요까짓 기. 이까진 게. 이까짓 게.이까진 기. 이까짓 기): ㉠요까짓 것이. 이까짓 것이. 만만한 것이.
 0.요까진게 자꾸 까불어.
 요까진 기: →요까진 게.
 요까짐: →여계가장.
 요까짓 거: →요까진 거.
 요까짓 게: →요까진 게.
 요까짓 기: →요까진 게.
 요간 거: →요까진 거.
요두: ㉠노두. ㉡인삼, 더덕, 따위의 뿌리에서 짙이 나오는 머리 부분.
 0.산삼을 췌는데 요두가 팽창히 커.
요따구(이따구): ㉠요따위. 이따위.
 ㉡요런 것들을 얹잡아 일컫는 말.
 0.일을 요따구로 해 놓고 욕 안 먹을 수 있겠다.
요딴 거: ㉠요런 거. 이런 거.
 0.요딴 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요래(요룽게): ㉠'요러하게'의 준말, '요룽게'에서 온 말.

0.요래 하면 일이 쉽게 되잖아.
요러이: ㉠요런. 요러한.
 0.요러이, 언제 살짝 여기 와 앉았구나.
 요룽게: →요래.
요리: ㉠1.이렇게. 2.이곳으로.
 1.이렇게.
 0.요리 하면 일이 쉽지.
 2.이곳으로.
 0.요리가면 큰 길이 나와요.
요마해(요맨해): ㉠요만해. ㉡작은 모양을 가리킬 때 사용함.
 0.키가 요마해.(이때 작은 모양을 지어 보임)
요만저(요맨저): ㉠요마저. ㉡요 먼저.
 조금 전.
 0.요만저 한 약속 꼭 지켜야 돼.
 요맨저: →요만저.
 요맨해: →요마해.
요보란 듯이: ㉡여기 보란 듯이.
 0.그 사람 요보란 듯이 잘 해가지고 살아.
 요보서요: →여보서요.
요중년에: ㉡요즈음에.
 0.그 사람 요중년엔 통 안 보여.
요짱: ㉠요쪽. 이쪽.
 0.도랑을 요짱으로 건너 와.
요참에: ㉡이번 기회에.
 0.비가 왔다. 씨앗을 요참에 심자.
욕사바리: ㉡욕 사발. 욕이 담긴 사발.
 0.욕사바리 먹지 말고 잠자코 있어.
욕세(욕지거리): ㉠욕설. ㉡남을 욕하는 말.

0.그 사람 욕세가 험해.
욕심꾸레기: ㉠욕심꾸러기.
 0.욕심꾸레기 같으니라구, 그걸 다 가져가?
욕욕: ㉡오만가지 욕.
 0.그 사람이 자기를 욕했다고 욕욕하대.
 욕지거리: →욕세.
욕퍼데기: ㉡욕을 퍼붓기.
 0.욕퍼데기 실컷 하고 나니 시원해?
 0.잘못 했다고 욕퍼데기 치는 데 대단 하더라.
올로: ㉠요리로.
 0.모종 포기 밟지 말고 올로 따라와.
올루줄루: ㉠요리조리.
 0.그 사람은 올루줄루 잘 빠져.
용고새(용마람): ㉠용마름. ㉡초가집의 용마루나 돌담을 덮는 ‘ㅅ’자형의 이엉.
 0.용고새를 틀어 용마루에 엮는다.
 용고지: →용고지.
 용곡지: →용고지.
용두치기: ㉡남성의 자위행위.
 0.용두치기 즐기면 못 써.
 용마람: →용고새.
용말기: ㉠용마루. ㉡‘ㅅ’자 모양의 가장 꼭대기 가름대.
 0.용말기에 용마름을 덮어 빗물을 양쪽으로 흐르게 한다.
 용용댄다: →양양댄다.
용코없다: ㉠1.영락없다. 2.틀림없다.
 1.영락없다.
 0.그 사람 예측은 용코없이 적중해.
 2.틀림없다.

0.그 사람 약속은 용코없어. 반드시
올거야.

용탕: →옹고지탕.

용한 의사: ㉠진맥과 처방을 잘 하는
의사.

0.어디 용한 의사에게 물어봐야겠다.

~우?: ㉡-아요? 어요? ㉢맑은 소리 '아'.

'오'와 흐린 소리 '어', '우'의 어울림을
가릴 것 없이 '우'로 소리냄.

1.맑은소리 '아'. '오'와의 안 어울림.

0.애가 낚시 간 거 알우?

0.지금 비가 오우?

2.흐린소리 '어'. '우'와의 어울림.

0.지금 밥 먹우?

0.오늘은 여기서 묵우?

우갱이(우쟁이): ㉣웃기떡. ㉤떡편기 위에
예쁘게 엮기 위해 무늬를 넣어 만든
기름 떡.

0.우갱이는 둥그런 찹쌀 반죽에
미나리잎, 맨드라미꽃, 꽃감, 대춧살,
석이버섯 등을 엮어 기름에 지진다.

0.전사를 지내는 떡편기 위에 맵시있게
모양을 내기 위하여 우갱이 기름 떡을
엮는다.

0.우갱이 기름 떡은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다.

우게넣는다: ㉥우겨넣는다. ㉦억지로
넣는다.

0.가방에 옷가지를 우게넣는다.

우구래: →오그래.

우구루: →오구루.

우구린다: ㉧집을 꾸린다. 집을 만든다.

0.움막살이를 우구려도 내집이 낫지.

우굴거린다: →오골거린다.

우굴뜨래: →오그래.

우굴우굴: →씨글씨글.

우굴쭈굴: →오골쭈골.

우내가 낚다: ㉨안개가 낚다.

0.우내가 끼는 걸 보니 오늘 덥겠다.

우두머니(우두머이, 우두카이,

우두카이): ㉩우두커니. ㉪넋이 나간
듯이 멀거니 있는 모양.

0.우두머니 서서 뭘 하고 있나?

우두머이: →우두머니.

우두카이; →우두머니.

우두카이: →우두머니.

우렁쟁이(헝우): ㉫명게. ㉬명갯과의
원색동물.

0.우렁쟁이는 바다 물속 바위에서 탄다.

0.우렁쟁이는 양식도 한다.

우레먹는다: ㉭우려먹는다.

0.얘기한 옛날 얘기를 자꾸 우레먹는다.

우뢰: ㉮우래. ㉯천둥소리.

0.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찌리: ㉺우리끼리.

0.그냥 우리찌리 놀아.

우무룩하다(으무룩하다, 응큼하다):

㉻응큼하 다. 의몽하다.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속은 영큼함.

0.그 사람은 아주 우무룩하다.

0.우무룩하게 실속은 다 처렸구만,

우미(울미): ㉽울며.

0.억울하다고 울미 얘기한다.

우사리: ㉾우수리.

1. 물건값을 제하고 남는 돈. 거스름 돈.

0. 우사리 돈을 받아 넣는다.

2. 일정한 수량이 차고 남은 것.

0. 우사리 몇 개 더 안 주나요?

우섭다(우습다): ㉠우습다.

1. 웃음이 날 만하다.

0. 얘기가 너무 우섭다.

2. 대단치 않다.

0. 지금은 우서운 수준이야.

우습다: →우섭다.

우시개: 우스개.

0. 우시개 소리를 가지고 멀 그래.

0. 우시개 소리야. 꼭해하지 말게.

우 아래: ㉠위 아래. 위계질서.

0. 우 아래를 반듯이 지켜야 양반이다.

우에: ㉠위에.

1.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더 높은 쪽.

0. 아기가 무릎 우에 앉는다.

2. 꼭대기를 뜻함.

0. 산 우에 올랐다.

3. 사물의 거죽이나 바닥의 표면.

0. 지구 우에 사는 생물은 무수히 많다.

4. 품질이나 등급 정도가 다른 것보다 나은 쪽.

0. 그 것은 품질이 우다.

5. 신분 지위가 더 높은 쪽.

0. 그 사람 향렬이 더 우다.

6. '그 것에 더하여'의 뜻.

0. 그 우에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0. 우에는 우가 있다. (최상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말)

우엿누(우엿누야. 우엿누이): ㉠웁누이.

㉠나이가 더 많은 누이.

0. 우엿누가 하나여.

우엿누야: →우엿누.

우엿누이: →우엿누.

우엿도리: ㉠웁도리. 윗옷.

0. 오늘 춥다. 우엿도리 걸치고 나가라.

우연이: ㉠우연히.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0. 그것은 우연이 일어난 일이다.

0. 길거리에서 우연이 그와 마주쳤다.

우염해: ㉠위험해.

0. 밤길 혼자 다니면 우염하다.

우재: ㉠분에 넘치게 하는 일.

0. 그 사람 그거 우재야.

0. 우재 쓰지마. 다친다.

우쟁이: →우쟁이.

우전: ㉠우시장. ㉠소를 사고파는 시장.

0. 우전에 자꾸 쫓아다니면 소 값을 짐작할 수 있지.

우정: ㉠일부러. 굳이.

0. 그것 때문에 우정 갔다 왔다.

우중중하다: →어중중하다.

우중중하다(으스스하다. 치치하다):

㉠프스산하다. 친친하다. ㉠축축하고 끈끈해 불쾌한 느낌이 있다.

0. 날씨가 어째 좋지 않은 게 우중중하다.

우짜노: →어짜노.

우째: ㉠어째. 어찌하여.

0. 우째 위태하더라니. 내 그럴 줄 알았다.

0. 우째 그모양이나? 좀 잘하지 않고.

우째구저째구: ㉠어찌고저찌고.
 ㉡이러쿵저러쿵을 익살스럽게 하는 말.
 0. 우째구저째구 간에 처음 얘기대로 하자고.

우째노: →어짜노.
우째니: →어짜노

우쪽: ㉠위쪽.
 0. 우쪽 나무에 홍시가 있다.

우체함: ㉠우편함.
 0. 우체함에 편지 넣고 오너라,

우층: ㉠위층.
 0. 우층 사람들은 아래층 사람들을 이해 못 해.

우타하다: ㉠위태롭다. ㉡위태한 듯하다.
 0. 하는 것이 어찌 우타하다.
 0. 우타한 일은 하지 마.

우티: ㉠웃. 의복.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피륙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
 0. 변변한 우티 하나 없구나.
 0. 우티 한 벌 사주랴?

우한다: ㉠위한다.
 0. 우한답시고 슬슬 거들다가 업어치는 거 아니야?

옥닥거린다: ㉠옥대긴다. ㉡난폭하게 위협한다.
 0. 애들한테 너무 옥닥거린다. 그러면 주눅 든다.

옥박지른다: ㉠옥박지른다. ㉡심하게 꾸짖거나 다그쳐서 기를 꺾는다.
 0. 아이들을 너무 옥박지른다.

운굴(움굴. 웅굴. 웅글): ㉠우물. ㉡물을

길기 위해 땅을 파서 지하수를 고이게 한 시설.
 0. 운굴 들고 마시겠다.(성미가 몹시 급함을 비꼬는 말)
 0. 운굴안 개구리다.(견문이 좁아 넓은 세상의 실정을 모름의 비유)
 0. 운굴에가 송능 찾는다.(성미가 급하여 참고 기다리지 못함의 비유)
 0. 운굴을 파도 한 운굴을 파라.(무슨 일이든 한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성공한다는 말)
 0. 운굴 공사다.(공동 우물 같은 데서 물을 길거나 빨래를 하면서 잡담을 즐기는 말)

운때: ㉡운이 오는 때.
 0. 운때가 잘 맞으면 부자가 되지.

운수타령: ㉠팔자타령 ㉡운명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일.
 0. 운수타령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운정수: ㉠운전사.
 0. 아가 운정수 면허 땀대.

운제: ㉠언제.
 0. 생일이 운제야.
 0. 이제 가면 운제 또 오나.

운짐: ㉠운감. ㉡여러 사람이 일할 때 우리 나오는 힘.
 0. 여럿이 있을 때 운짐에 다 하지며.

울구불구(울미불미): ㉠울고불고. 울며불며.
 ㉡야단스럽게 소리내어 울며 부르짖는 모양.

0.강아지가 죽었다고 저리 울구불구 야단 일세.
 0.바다에 나간 남편이 안 돌아 온다고 울구불구 야단법석이야.

울군다: ㉠우리다, '우린다'에서 온 말.
 1.물체를 물에 담가 성분을 우리나라게 한다.
 0.뽕은 맛을 빼려고 굴밤을 물에 담가 울군다.
 2.피거나 위협하여 금품을 얻어낸다.
 0.살살 피어 돈을 울궈낸다.

울그락푸르락: ㉠붉으락푸르락. ㉡몹시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얼굴빛이 붉었다 푸르렀다 하는 모양.
 0.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네.

울긴다: ㉠울린다.
 0.아이를 잘 보냈더니 글내는 운긴다.

울마요?(울매요?): ㉠얼마요?
 0.이 고무마 울마요?

울마하면: ㉠울만하면.
 0.엄마는 아기가 울마하면 젖준다.

울매요?: →울마요?
 울미: →우미.
 울미불미: →울구불구.

울벙이: ㉠울보. ㉡걸핏하면 우는 아이.
 0.그 아이 울벙이야 건드리지 마.

울씩다리: ㉠울 섶. ㉡울타리를 만든 섶나무.
 0.울씩다리 가지 꺾지 마라.

울어머이: ㉡우리 어머니.
 0.울어머이 장에 가면 사탕 사온다.

울어싼다(울어제킨다): ㉡울어댄다.
 0.아이가 자꾸 울어싼다. 달래라.
 울어제킨다: →울어싼다.

울음보(울음보따리): ㉠울음보.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울음.
 0.저 애는 울음보기 질겨. 쉽게 그치지 않아.
 울음보따리: →울음보.
 울굴: →운굴.
 울매: →얼매.
 울매나?: →엄매나?
 울복하다; →옴복하다.

움추린다(움치린다): ㉠움츠린다. ㉡겁을 먹고 몸을 작게 한다.
 0.벌레를 건드리면 깜짝 놀라 몸을 움추린다.
 움치린다: →움추린다.
 움크린다: →옴크린다.

웃걸금: ㉠웃거름. 덧거름.
 0.고추밭에 웃걸금을 더 해야겠다.

웃게: ㉠웃겨.
 0.그 아인 많이 웃게.

웃날: →날새.
웃넉: ㉠웃넉. 위쪽.
 0.장작을 웃넉에 가린다.

웃누: ㉠웃누이. ㉡나이가 더 많은 누이.
 0.시집 간 웃누가 친정에 왔다.

웃니: ㉠웃니. ㉡웃잇몸에 난 이.
 0.웃니가 한 대 흔들린다.

웃도리: ㉠웃도리. 윗웃. ㉡위에 입는 옷.
 0.오늘은 웃도리를 단단히 입고 나가라.
 날씨가 몹시 춥다.

웃동세: ㉠웃동서. ㉡손위 동서.
0. 나이는 적어도 그 분이 웃동세가 돼.

웃목(웃뚝): ㉠웃뚝. ㉡온돌방의
아궁이에서 먼 쪽. 곧 굴뚝 가까이에
있는 방바닥.
0. 웃목은 차다.
0. 군불을 대서 웃목까지 데워라.

웃뚝: →웃뚝.

웃방: ㉠웃방.
0. 웃방은 아랫방보다 춥다.

웃사람: ㉠웃사람. 손윗사람.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분.
0. 웃사람에게는 예의를 깎듯이 해야
한다.

웃굴: →웃굴.

웃굴: →웃굴.

웅덩이: ㉠웅덩이. ㉡옴푹 패여 물이 끈
곳.

0. 물 웅덩이에 빠진다.
여기 물웅덩이 있다. 조심해라.

웅케잡는다(웅케쥌다): ㉠옴켜잡는다.
옴켜쥌다. ㉡손가락을 오므려 힘주어 꼭
잡는다.

0. 낚시한 물고기를 꼭 웅케잡는다.

웅케쥌다: →웅케잡는다.

웅큼: →오큼.

워느때(워느맘때): ㉠어느 때.
0. 워느때 집에 다녀 갈라나?

워느맘때: →워느때.

워느새: ㉠어느새. ㉡어느 사이.
0. 워느새 가을 절기로 들어섰구먼.

워드서(워드매서): ㉠어디에서.

0. 응답을 워데서 구해 온답.

워드매서: →워드서.

워똥게: ㉠어똥게. 워똥게 그렇게 잘
했어.

워째(윗째. 으째): ㉠어째. 어찌하여.
0. 하는 솜씨가 워째 신통치 못하다.

워째구저째구: ㉠어찌고저찌고.
0. 워째구저째구 여러말 할 것 없어. 다
그게 그거야.

워쨌지(워쨌지): ㉠어쨌지. ㉡어찌된
까닭인지.
0. 그 일이 워쨌지 이상하더라니, 나
그럴 줄 알았다.

워쨌(워쨌): ㉠어쨌. 어찌면.
0. 공부를 워쨌 그렇게 잘 하나.

워쨌지: →워쨌지.

워쨌: →워쨌.

원남편: ㉠본남편. ㉡본디 남편.
0. 그 여잔 원남편이 있었다.

원마누라: ㉠본마누라. ㉡먼저 정식으로
장가든 마누라.
0. 그 사람은 원마누라가 있었다.

원산돼지: ㉠만만한 것.
0. 쉬우면 원산돼지라고 너무 만만히
보지 마.

원생이(원생이): ㉠원숭이. ㉡원숭이과의
하나. 사람 다음가는 고등동물.
0. 원생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 있다.
(이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다는 말)
0. 원생이 불기 짝이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원수 갚는다(원수 갚는다): ㉸신세 갚는다.

0. 신세진 거 언제 한번 원수 갚는다.

원심이: →원생이.

원제: →은제.

원젠가(원쟁가): ㉸언젠가. 조만간.

0. 원젠가 한번 만나세.

원쟁가: →원젠가.

원지둥: ㉸원기둥.

1. 원래 기둥.

0. 원지둥이 여기 섰었지.

2. 둥근 기둥.

0. 절 기둥은 둥그런 원기둥이다.

원칙: ㉸원칙. 규칙. 법칙.

0. 일을 하자면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지 나중에 말이 없지.

월동초(월동추): ㉸유채. 평지.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잎, 줄기는 나물로 먹고 열매는 기름을 짼.

0. 봄철 월동초에 황어회 짬 맛은 일품이지.

월동추: →월동초.

월매: →얼매.

윗째: →위째.

웨딤 곳: ㉸외딤 곳.

0. 웨딤 곳에 살면 적적하겠다.

웨상: ㉸외상. ㉸값은 나중에 갚기로 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일.

0. 웨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뒷일은 생각지 않고 당장 좋은 일이면 무턱대고 하고 분다는 말)

웬간해선: ㉸여간해선. 어지간해선.

0. 그 사람 웬간해선 말을 잘 안들어.

웬그(웬글): ㉸웬걸. 웬 것을.

0. 그 소가 일 잘 하겠네. 웬그, 말 잘 안들어.

웬글: →웬그.

웬만하다: →언만하다.

웬수 갚는다: →원수 갚는다.

웬종일: →원종일.

웬정일: →원정일.

웬통: ㉸은통. 전부. 통째로.

0. 소가 구렁에 떨어졌다고 웬통 야단법석 이다.

위격다짐: ㉸우격다짐.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 시킴.

0. 위격다짐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차근 차근 타협해 봐.

위엄하게: ㉸위험하게.

0. 위엄하게 벼랑 끈엔 왜 나서니?

~유: ㉸~요.

0. 식구가 밥을 먹어유.

0. 아이가 지금 공부해유.

0. 지금 오래유.

0. 지금 한참 일해유.

유독을 쓴다: ㉸고집을 부린다.

0. 품는 달걀을 들어내도 암탉은 유독을 쓰고 들어앉아 있다.

유들유들하다: ㉸부드럽다. 뽀뽀스럽다.

1. 부드럽다.

0. 쇠고기가 유들유들한 게 맛이 있다.

2. 뽀뽀스럽다.

0. 그 사람 유들유들한 게 부끄러움을 몰라.

유리: ㉠누리. 우박. ㉡큰 물방울이
공중에서 얼어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

0.야! 갑자기 유리가 쏟아진다.

유만부득이지: ㉠유만부동이지. ㉡분수에
맞지 않음. 비슷한 것이 많으나 서로
같지 않음.

0.염치가 없어도 유만부득이지. 그 걸
또 갖겠다고 그래.

유부네: ㉠유부녀. ㉡남편이 있는 여자.

0.유부네들끼리 모여서 관광 간대.

유성개(축음계): ㉠유성기. 축음기.

레코드.

㉡음반을 돌려 음을 재생시키는 장치.

0.유성개에서 노래가 나와.

육갑 떴다: ㉡별짓을 다 한다.

0.못난이가 육갑 떴다.

0.육갑 떨지 말고 잠자코 있어.

육모방망이: ㉠육모방망이. ㉡포졸들이

가지고 다니던 육모가 진 방망이.

0.육모방망이를 차고 포졸들이 달려온다.

육실할: ㉠육시랄. ㉡상대를 저주하여

욕하는 소리.

0.이런 육실할 소가 있다. 왜 이렇게
말을 안들어.

육월(6월): ㉠유월.

0.예전엔 육월 달에 모내기를 했지.

율구(이율구): ㉡해당화의 열매.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0.율구가 빨갭게 익었다.

0.강변에 나가 율구를 따 먹었다.

웃내기(웃치기): ㉠웃놀이. ㉡웃을 가지고

노는 민속놀이.

0.명절에 집안이 모여 웃내기를 한다.

웃치기: →웃내기.

~으: ㉠~을.

0.떡으 주신 걸 잘 나눠 먹었다.

0.책으 잘 받았다.

으가리: →여가리.

으게: ㉡아늑한 곳.

0.찬바람이 불면 으게에 좀 머물렀다
가거라.

으녕이(은앵이. 진데기. 진두):

㉠진드기. ㉡진드기과의 곤충. 소, 말,
개, 사람 등에 붙어 피를 빨아 먹음.

0.풀 밭에는 으녕이가 있다.

0.으녕이 조심해라. 물리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

~으니라구: ㉡앞의 말을 부드럽게
해주는 붙임 말.

0.나쁜 녀석 같으니라구. 그 애를 왜
때려.

0.나쁜 년 같으니라구. 자식을 놔두고
달아나?

으당: ㉠응당. 의당. 으레. 당연히.

0.바늘 가면 으당 실 따라 갈 줄 알아
야지.

으더먹는다: ㉠얼어먹는다.

1.남에게 음식을 공으로, 또는 빌어서
먹는다.

0.친구 한테서 빵을 으더먹는다.

0.피난 길에 밥을 으더먹는 신세가 됐다.

2.욕을 듣게 된다.

0.잘못 했다고 욕을 으더먹는다.

으런: →오른.

으레견(으레껏): ㉠으레. 당연히. 언제나.

0. 밥 있으면 으레견 국이 따라야지.

으레껏: →으레견.

으르신: →오른.

으르신네: →오른.

으른: →오른.

으리: ㉠의리. ㉡사람으로서 신의를

지켜야 할 도리.

0. 친구 간에는 으리가 있어야지.

으므룩하다: →우무룩하다.

으바리: ㉡종기 근. 종기의 뿌리.

0. 종기에 으바리가 박혔어.

으붓자숙: ㉠의붓자식. ㉡후실이 데리고

온 자식이나 남편 전처가 낳은 자식.

0. 으붓자숙은 이래저래 서럽다.

으사: ㉠의사. ㉡병을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0. 병도 으사하고 운대가 맞아야 잘

낳는다.

으스름: ㉠으스름. ㉡침침하고 흐릿한

상태.

0. 으스름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으스스하다: →우중중하다.

으슬뜨린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떠다.

0. 아기가 으슬뜨린다. 오줌이 나오려나
보다.

0. 어른도 으슬뜨릴 때가 있지.

으슬프다: ㉠어설프다. 허술하다.

0. 일하는 솜씨가 어째 영 으슬프다.

으시댄다: →어시댄다.

으시시하다: ㉠으스스하다. ㉡소름이

끼치는 모양.

1. 냉기가 돌 때.

0. 날씨가 어째 으시시하다.

2. 무서울 때.

0. 밤길에 산비탈을 지나자니 으시시하다.

으실으실: ㉠으슬으슬.

0. 감기가 올라나. 어째 몸이 으실으실
춡다.

으용군: ㉠의용군. ㉡6.25전쟁 때 북한이

민간으로 조직한 군대.

0. 큰댁 오빠가 의용군으로 잡혀 갔대.

으쟁이뜨쟁이: →어쟁이떠쟁이

으젓해졌다: ㉡의젓해졌다.

0. 사람이 커가니 으젓해졌다.

으지가지없는: ㉠의지가지없는. ㉡조금도

의지할 곳이 없는.

0. 그 사람은 으지가지없는 피란민이야.

으째: →위째.

으찌나: ㉠어찌나. 얼마나.

0. 요즘 일이 으찌나 바쁜지.

0. 요즘 날씨가 으찌나 춡던지.

으찌 아노: ㉠어떻게 아나.

0. 그 일을 으찌 아노.

으찌 왔노: ㉠어떻게 왔나. 왜 왔나.

1. 어떻게 왔나.

0. 혼자서 으찌 왔노.

2. 왜 또 왔나.

0. 금방 갔는데 으찌 왔노.

으찌 하노: ㉠어떻게 하나.

0. 이 일을 이제 와서 으찌 하노.

으카리: →여가리.

으사발: ㉡힘에 눌러 기를 펴지 못하고

주저앉은 모양.

0. 윗동네와 축구시합 붙었다 오대
빵으로 옥사발 먹었네.

은단: ㉠성게알.

0. 은단이 일본으로 수출이 돼서
비싸다며?

은비네: ㉠은비녀. ㉡여자의 쪽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은장 신구.

0. 엄마 은비네다. 가지고 놀면 안 돼.

은수제: ㉠은수저. ㉡은으로 만든
순가락과 젓가락.

0. 아버지 은수제다. 조심해 씻어라.

은애: ㉠은어. ㉡바다 은엇과의 물고기.

0. 양양 남대천은 은애가 소상하는
하천으로 유명하다.

0. 은애는 봄철 치어 때 바다에서 올라와
강에서 자라 대부분 산란하고 죽으나
소에서 월동하는 것도 있다.

은앵이: →으앵이.

은저리: ㉠언저리. ㉡들레의 가 부분.

0. 입 은저리에 밥풀이 묻었다.

은제: →은제.

은어맞는다(은어터진다): ㉠언어맞는다.

언어터진다.

0. 까불면 은어맞는다. 조심해.

은어터진다: →은어맞는다.

은었다: ㉠언었다.

1. 구하던 것을 받거나 가지게 된다.

0. 일자리를 은었다.

2. 돈이나 집, 방 따위를 빌린다.

0. 돌아다니며 셋방을 은었다.

3. 병에 걸린다.

0. 돌아다니다 병을 은었다.

4. 보고, 읽고, 들어 터득한다.

0. 책을 읽고 깨달음을 은었다.

5. 사람을 맞이한다.

0. 며느리를 은었다.

6. 사랑을 받는다.

0.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은었다.

7. 주는 것을 받아 가진다.

0. 은은 떡이 두레반이다(수고 없이 얻은
것이 힘써 만든 것보다 많음의 비유)

8. 자신, 용기, 보람을 가진다.

0. 자신감을 은었다.

9. 차지하거나 손에 넣는다.

0. 이번 장사에선 폭리를 은었다.

은었재: ㉠언었지.

0. 생일 선물로 외투 하나 은었재.

을신네: →오른.

을신댄다: →얼신댄다.

을파: ㉠을어.

0. 시 한 수 을파.

을픈다: ㉠을는다.

0. 시조를 한 곡조 을픈다.

음석: ㉠음식.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

0. 며느리아이가 음식 솜씨가 좋아.

0. 음식은 울타리 밑에서 먹어도 맛이
있다. (밖에 나가 먹는 음식은 맛이
있다는 말)

음전한: ㉠얹전한. ㉡말이나 행동이 곱고
점잖은.

0. 그 색시가 음전한 기 예쁘게 생겼다.

읍고(읍구): ㉠없고.

0. 사람이 있고 읍고가 대수야.

건강해야지.
 읍구: →읍고.
읍센다: ㉠없앤다.
 0.삼베 자투리가 남은 것을 조끼 만들어 읍센다.
 읍신예긴다: →업신예긴다.
읏다: ㉠없다.
 0.까불면 국물도 읏다.
 읏애빼래: →업애빼래.
웃다: ㉠'어디에다'의 뜻으로 쓴다.
 0.그걸 웃다 쓰잖나.
 0.물건을 웃다 두고 찾느라 그러나.
응당(응차): ㉠당연히. 마땅히.
 0.겨울이 가면 응당 봄이 오리니.
응덩방아: ㉠영덩방아. ㉠영덩이로 바닥에 콧 쪼는 일.
 0.눈길에 미끄러져 응덩방아를 쪼었다.
 응텅이: →영텅이.
 응생이: →영텅이.
 응차: →응당.
 응큼하다: →우무룩하다.
이가 좋다: ㉠의가 좋다.
 0.그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가 좋다.
이거루(이걸루): ㉠이것으로.
 0.이거루 하나 주세요.
 이걸루: →이거루.
이게(이기): ㉠이것이.
 0.이게 또 까불어.
이건: ㉠의건.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한 생각.
 0.좋은 이견 있는 분 얘기해 봐요.
이관: ㉠의관. 옷과 갓. ㉠남자가

정식으로 갖춰 입는 옷차림.
 0.남자는 이관이 반듯해야 돼.
이근: ㉠이건. 이것은.
 0.이근 먹어도 된다.
 이기: →이게.
이까장(이까지. 이까짐. 이꺼정. 이꺼지. 이꺼짐): ㉠여기까지.
 0.이까장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이까지: →아까장.
 이까진 거: →요까진 거.
 이까진 게: →요까진 게.
 이까진 가: →요까진 게.
 이까짐: →아까장.
 이까짓 거: →요까진 거.
 이까짓 게: →요까진 게.
 이까짓 가: →요까진 게.
 이간 거: →요까진 거.
 이꺼정: →아까장.
 이꺼지: →아까장.
 이꺼짐: →아까장.
이나저나: ㉠이러나저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0.이나저나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이날이적: →여날여적.
 이날이적지: →여날여적.
이농: ㉠장롱. ㉠옷 따위를 넣어 두는 장.
 0.시집 가는데 이농까지 다 해 가지고 가야지.
이느마: ㉠이눔아.
 0.이느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쓰냐?
이다: ㉠여기다.
 0.김칫독은 이다 묻지머.

~이다야: ㉠~이다. ~이구나.
 0.알고 보니 그게 좋은 물건이다야.

이닥지두(이대두룩): ㉠이다지도. 이렇게 까지도.
 0.그 일이 이닥지두 힘들 줄은 미처 몰랐네.

이대두룩: →이닥지두.

이드름: ㉠여드름.
 0.사춘기가 되면 이드름이 얼굴에 나지.

이따구: →요따구.

이따마해(이따만해. 이마해): ㉠이만해.
 ㉡큰 모양을 가리킬 때 사용함.
 0.감자가 이따마해.(이때 큰 모양을 만들어 보임)
 0.고구마를 썬기 이따마한 게 있어.

이따만해: →이따마해.

이때두룩: ㉡이때까지.
 0.애가 이때두룩 안 왔어?

이똥: ㉡이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
 0.이똥에 벌레 낀다. 이를 닦아라.

이래: ㉠이렇게.
 0.이 건 이래 하는 거야.

이래가주구: ㉡이렇게 해 가지고.
 0.이래가주구 일을 하면 쉽게 되지.

이래구: ㉡이렇게 하고.
 0.이래구 또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이래구저래구: ㉠이러고저러고.
 0.이래구저래구 여러 말 말고 해치워.

이래나저래나: ㉠이러나저러나.
 0.이래나저래나 이 일을 어쩐다?

이래더거: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0.이래더거 해 지겠다.

이래두: ㉠이래도. 이리하여도.
 0.팔을 비틀며 ‘이래두 말 안 할래?’ 대답을 조른다.

이래민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0.‘안간다고’ 이래민서 나중엔 간다.
 0.‘좋다고’ 이래민서 나중엔 탄소릴 한다.

이래싸니: ㉡자꾸 이렇게 해대니.
 0.자꾸 학교에 간다고 이래싸니 할 수 없이 보냈지 머요.

~이래요: ㉠~이어요.
 0.나이가 몇 살이니? 여섯 살이래요.

이랜다: ㉠이런다. 이렇게 한다.
 0.자꾸 이랜다니까. 이젠 그만 쥐.

이랴 이러: ㉡소를 모는(가게하는) 소리.
 0.이랴 이러. 어서 가자. 이 소야.

이력쿵저력쿵: ㉠이러쿵저러쿵.
 ㉡이러하다는 등 저러하다는 등 말을 늘어놓는 모양.
 0.이력쿵저력쿵 얘기할 것 없어. 다 그게 그거야.

이럴 재: ㉡이럴 때.
 0.소나기가 쏟아진다. 이럴 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렁 거: ㉠이런 것.
 0.이렁 거 먹어봤어?
 0.이렁 건 이렇게 이렇게 해.

이른: ㉠일흔. ㉡열의 일곱 배 되는 수.
 0.나이 이른이면 고희(古稀)라. 자고로 드문 나이지.
 0.나이 이른 살이면 아무렇게 해도 거슬림이 없으렸다.

이른 배: ㉠올벼. ㉡철 이르게 여무는 벼.

0.이른 배를 베어다가 천신하려고
말린다.

이를테문: ㉠이를테면. ㉡가령 말하자면.
0.이를테문 이것과 저것은 비슷하단
말이지.

이리 온나: ㉠이리 오너라.
0.어서 이리 온나. 아가야.

이리지도 저리지도: ㉠이리지도
저리지도.
0.이장을 뽑는데 둘다 아는 사람이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

이마빼기 벗겨졌다: →마빠구 벗겨졌다
이마괘기: →마빠구.
이마해: →이따마해.

이모방극: ㉠모내기철 몹시 바쁜 때.
0.이모방극에는 부지깥이도 한 몫
한단다. (아주 바쁘니 아무나
필요하다는 말)

이바지: ㉠결혼하고 신랑이 처가에 첫길
온 며칠 후 신부가 큰떡을 해가지고
시댁에 가는 일. (큰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데 큰떡 먹고 입을 다물어 흥이나
허물을 덮어달라는 뜻이 들어 있음)
0.그집 새댁 이바지 떡이래. 이바지
큰떡이 맛이 있네.

이발소 그림: ㉠싸구려 그림.
0.이 그림은 이발소 그림 같다. 가치가
없어.

이보게(이보래): ㉠여보게.
0.이보게. 말 좀 문제.
이보래: →이보게.

이붓딸: ㉠의붓딸. ㉡후실이 데리고

들어온 딸.
0.이붓딸 이지만 착실하게 잘 컸어.

이뼈죽겠어: ㉠예뼈죽겠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0.아이 노는 모습이 이뼈죽겠어.

이뿌다(이쁘다): ㉠예쁘다. ㉡사랑스럽고
귀엽다.
0.남을 돕는 마음씨가 이뿌다.
0.이쁜 자식은 매로 키운다.(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엄하게 카워야 한다는 말)
0.이뿌지 않은 며느리가 샷갓 쓰고
으스름 달밤에 나선다.(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격에 맞지 않게 어설픈
짓만 한다는 말의 비유)

이뿐이(이쁜이): ㉠예쁜 이. 예쁜 사람.
0.우리집 이뿐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쁘다: →이뿌다.
이뿐이: →이뿐이.

이사: ㉠의사. ㉡병을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0.몸이 아프면 이사에게 보여야 하지.
0.병원에 가니 이사가 뭐라 하든.

이새: ㉠이사.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기는 일.
0.서울에서 이새 온 친구다.
0.이새할 때 강아지 따라다니듯 한다.
어디든지 늘 귀찮게 따라 다닌다는
말)

이스매: ㉠이음매. ㉡잇는 매듭.
0.매듭 이스매가 예쁘게 잘 되었다.

이슬방울: ㉠이슬방울. ㉡이슬이 맺혀
생긴 방울.

0.이슬방굴이 맺혔다.

이시락: ㉠이삭.

0.벼 이시락을 훑는다.

0.벼 이시락을 주우러 논으로 간다.

이야기: ㉠이야기. 얘기.

1.서로 주고 받고 하는 말.

0.그것은 그들 둘만의 이야기야.

2.남이 모르는 말을 일러주는 말.

0.그 내막을 이야기 해봐.

3.경험한 일이나 심중에 느낀 바를 털어 놓는 말

0.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봐.

4.어떤 문제를 한가운데 놓고 하는 말.

0.그 사람들 혼사를 이야기한다.

5.있을 수 있는 일을 꾸며 재미있게 늘어 놓는다.

0.황당무계한 이야기다.

6.소문이나 평판을 말한다.

0.동네에 이상한 이야기가 돈다.

이열(이을): ㉠쓸개. ㉡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얇은 막으로 된 내장.

0.이열이 빠진 놈(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는 사람을 꾸짖는 말)

0.이열이 빠졌다.(하는 짓이 줯대가 없음을 비웃는 말)

0.이열도 없다(품은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말)

이열쇠(이을쇠): ㉠열쇠. ㉡자물쇠를

잠그거나 열 수 있게 하는 도구.

0.이열쇠로 문을 열어라.

이영(이영마람): ㉠이영. 이영 마름.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 등을 덮기 위하여 짚이나 새 따위로 엮어 만든 두루마리.

0.아버지께서 벗짚으로 이영을 엮는다.

0.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영을 지붕에 덮는다.

이영감(이영감탱이. 이응감.

이응감탱이): ㉠영감. ㉡나이든

남편이나 남자 노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

0.이영감 상투다.(보잘 것없이 작은 물건의 비유)

0.이영감 밥은 누워서 먹고, 아들 밥은 앉아서 먹고, 딸의 밥은 서서 먹는다. (남편 덕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아들이 부양해주는 것은 그 다음이고, 시집간 딸의 집에 붙어사는 것은 어렵 다는 말)

이영감탱이: →이영감.

이영마람: →이영.

이용군: ㉠의용군. ㉡6.25전쟁 때 민간을 데리고 가 만든 북한의 인민군대.

0.6.25 때 젊은 남자는 이용군에 다 끌려 갔지.

이우제: ㉠이웃에.

0.이우제 떡 돌리고 오너라.(명절 때는 이웃에 떡을 서로 돌린다)

이우지: ㉠이웃이.

0.이우지 좋아야 살기 편하다.

이원: ㉠의원. ㉡1.병을 고치는 사람.

2.병을 고치는 곳.

1.병을 고치는 사람.

0.배가 아프거든 이원한테 가 봐라.
 2.병을 고치는 곳.
 0.몸이 아프거든 이원에 가 봐라.
이으드름: ㉠여드름.
 0.이으드름이 많이 났구나.
이은애: ㉠연애. ㉡남녀가 서로 애뜻하게
 그리워하며 사랑함.
 0.이은애 결혼이나 중매 결혼이나 다
 자기 팔자야.
 이을: →이열.
 이을구: →울구.
 아을물: →열물.
 이을쇠: →이열쇠.
 이을쩍어: →열쩍어.
 이웅감: →이영감.
 이웅감탱이: →이영감.
이자: ㉠의자. ㉡결터앉을 수 있는 기구.
 0.이자가 몸에 딱 맞는다.
이자놀이: ㉠돈놀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일.
 0.그 사람은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야.
 0.이자놀이에 재미 들이다가 돈 날리니.
이자뽀다: ㉠잊어버린다.
 0.이자뽀기 전에 적어 봐라.
 0.오래 있으면 이자뽀다. 얼른 가져가
 거라.
이적지: ㉠이제껏. 지금까지. 여태.
 0.이적지 그 일을 안 했어?
 0.그럼 이적지 뭘 했느냐?
이제사(인자. 인제사): ㉠이제야. 인제야
 0.여태까지 말 안하고 있다가 이제사
 말하는 건 뭐람.

이중고에: ㉠이즈음에. 요즈음에.
 0.새 약이 이중고에 나왔다지.
 0.이중고엔 뭘 하고 지네나?
이지가지: ㉠여러 가지. 이것 저것.
 0.시집가는 게 이지가지 다 해가지고
 갔대.
이쪽에: ㉠이쪽에.
 0.이쪽에 있는 것은 내 것이고. 저쪽에
 있는 것은 네 것이네.
이짤아(인짤나): ㉡있지않나.
 0.그거 왜 이짤아.
 0.거기 왜 인짤나, 그 사람 말이여.
이통천네 집으로 가거라: ㉡감기야,
 나한테 있지 말고 부잣집 강릉 이통천네
 집에 가서 잘 얻어먹으라는 뜻.
 0.똘! 감기야, 강릉 이통천네 집으로
 가거라.
이파구(앞사구. 앞새): ㉠이파리. 앞사귀
 0.봄이 되니 이파구가 푸룻푸룻 나온다.
이편: ㉠이편. ㉡이쪽의 편.
 0.너는 이편 할래? 저쪽 편 할래?
인?: ㉠있니? ㉡있다의 의문형.
 1.어떤 장소에 존재한다.
 0.애가 방안에 인?
 2.어떤 상태를 지속한다.
 0.앉아 인?
 0.뭇돼지가 지금 가만히 인?
 3.어떤 직장, 지위, 처소를 차지한다.
 0.요즘 어디 인?
 4.생기거나 발생한다.
 0.오늘 회식이 인?
 5.물건, 돈 등을 소유한다.

- 0. 누나, 돈이 좀 인?
- 6. 뜻, 믿음 등이 존재한다.
- 0. 그 사람 인기가 인?
- 7. 지니거나 품거나 배 있다.
- 0. 비어 있는 방이 인?
- 8. 속에 들어 있거나 차다.
- 0. 병 속에 물이 인?
- 9. 어떤 동작을 계속한다.
- 0. 지금 책을 읽고 인? 0. 빵을 먹고 인?

인나센다(인나스다): ㉠일어선다.

- 0. 주는 과일을 받아들고 인나센다.

인나스다: →인나센다.

인나쿤다: ㉠일으킨다. ㉡일어나게 한다.

- 0. 자는 아기를 인나쿤다.

인난다: ㉠일어난다.

- 1.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선다.
- 0. 누운 자리에서 인난다.
- 2. 잠에서 깨어난다.
- 0. 아침 일찍 인난다.
- 3. 일, 사건 따위가 생긴다.
- 0. 사고가 인난다.
- 0. 동요가 인난다.
- 4. 위로 솟거나 부풀다.
- 0. 마당에서 먼지가 인난다.
- 5. 한창 성해진다.
- 0. 집안이 인난다.
- 6. 병을 앓다가 낫는다.
- 0. 감기를 앓다가 인난다.
- 7. 산불이 일어난다.
- 0. 산불이 인난다.

인내: ㉠이리 내.

- 0. 그 과자 인내.

- 0. 어디 인내 봐, 내가 좀 보게.

인단: ㉠은단. ㉡박하 향이 나는 알갱이.

- 0. 입 냄새 제거엔 인단이 좋다.

~인데(~인테): ㉠~한테

- 0. 이거 누구인데서 받았나?
- 0. 뜨물을 소인데 갖다 줘라.

인마(임마): ㉠1. 이녀석. 2. 이 놈아.

- 1. 이 녀석.
- 0. 인마는 그래도 일을 잘 해.
- 2. 이 놈아.

- 0. 인마, 그거 그렇게 하면 쓰나?

인물꼬라지(인물꼬락서니): ㉠인물의

속된 말. 사람의 됴됨이.

- 0. 인물꼬라지가 그게 뭐냐?

인물꼬락서니; →인물꼬라지.

인자: →이제사.

인제사: →이제사.

인조: ㉠이리 쥐.

- 0. 그 바구니 인조.

인짚아: →이짚아.

인차: →금새.

~인테: →~인데.

일가뿌시레기: ㉠일가친척. ㉡일가와
외척. 인척.

- 0. 일가뿌시레기 있다 해야 모두 저 바빠
야단인데 뭐 도움이 되나?

일경거린다(일쟁거린다. 일꼬정거린다):

- ㉠의자같은 것이 흔들리며 소리를 낸다.
- 0. 구들빠가 일경거린다.
- 0. 지계가 일경거린다.

일군다(일쿤다): ㉠일으킨다.

- 1. 깨운다.

0.잠자는 것을 일군다.
 2.일어나게 한다.
 0.얕은 사람을 억지로 일군다.
 3.일을 벌인다.
 0.말썽을 일군다.
 4.심리적 현상을 생기게 한다.
 0.발작을 일군다.
 5.생겨나게 한다.
 0.먼지를 일군다.
일굽: ㉠일굽.
 0.복숭아 일굽 개만 주세요.
 0.엄마, 나 일굽 시에 깨워 줘.
 일경거린다: →일경거린다.
 일끄정거린다: →일경거린다.
일나: ㉠일어나.
 0.새벽부터 일나 일을 한다.
일나세: ㉠일어서세.
 0.너부 쉬지 말고 어서 일나세.
일러덩거린다: ㉠일렁거린다. ㉡배같은
 것이 물결에 따라 흔들린다.
 0.배가 물결 따라 일러덩거린다.
일로(일루. 일리): ㉠이리로.
 0.큰댁은 일로 간다.
 0.어서 일로 따라 와.
 일루: →일로.
일루절루: ㉠이리저리.
 0.그 사람은 일루절루 나돌아 먹던 사람
 이야.
일르다: ㉠이르다.
 0.새벽 네 시면 너무 일르잖나?
 일리: →일로
일벌거지: ㉡일 벌레. 일만 아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0.그 사람 일벌거지야. 일만 알아.
일삿(일품): ㉠품삿. 품값. ㉡일에 대한
 삿.
 0.일삿이나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다.
일찌가니(일찌가이. 알찌거이):
 ㉠일찌거니. 일찍.
 0.아침에 일찌가이 오너라.
 일찌가이: →일찌가니.
 알찌거이:→일찌가니.
 일꾼다: →일군다.
일평상: ㉠일평상.
 0.일평상 일만하고 살았다.
 일품: →일삿.
일품팔이: ㉠날품팔이. 일용직. ㉡날품을
 파는 일.
 0.피난 나온 아저씨는 오늘도 일품팔이
 하러 나간다.
임내: ㉠흥내.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0.남의 임내를 잘 내는 것도 재주야.
 임마: →인마.
임몸: ㉠잇몸. ㉡이 뿌리를 싸고 있는 살,
 0.요즘 임몸이 헐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
임물값: ㉠인물값. 얼굴값. ㉡생김새와
 어울리는 행동.
 0.그 사람 잘 생겨서 임물값 하지.
임세: ㉠무렵. ㉡그때쯤.
 0.그름께 임세해서 한번 만나세.
임재: ㉠임자.
 1.물건을 소유한 사람.

- 0.그 물건 입재 있어요.
- 2.책임자를 이르는 말.
- 0.게으름 피우더니 그 사람 이제 입재 만났어.
- 3.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말.
- 0.입재, 내일은 단풍 구경 갈라는가?
- 0.입재, 그간 고생 많았지.
- 입다심:** ㉠맛보기. ㉡맛보기로 먹기.
- 1.맛보기.
- 0.엄마가 찌개를 떠서 맛을 보느라 입다심을 하신다.
- 2.먹고 싶은 입 놀림.
- 0.고기를 보고 고양이가 입다심을 한다.
- 입댑는다(입댑는다):** ㉠시치미뻔다. ㉡모르는 체한다.
- 0.고구마를 혼자 구워 먹고 입댑는다.
- 입돋움:** ㉠남들의 애깃거리가 됨.
- 0.남의 입돋움에 오르지 마라.
- 입댑는다: →입댑는다.
- 입때끈:** ㉠입때껏. 이때껏. 여태껏.
- 0.군대간 아이가 입때끈 소식이 없네.
- 입 댐다.** ㉠허락한다.
- 0.그집 혼사를 입 댐다.
- 입바른 말(입빠른 소리):** ㉠틀린 말은 아나나 듣기 아픈 말.
- 0.남의 입바른 말 함부로 하지 마. 듣는 사람은 아파.
- 0.남의 입바른 말 잘 하더니만 자기는 머 좋아.
- 입버르떼기(입버르장머리. 입버르쟁이):** ㉠입버릇. ㉡입에 배어 굳은 말버릇.

- 0.그 사람 입버르떼기가 고약해.
- 입버르장머리: →입버르떼기.
- 입버르쟁이: →입버르떼기.
- 입빠른 소리: →입바른 말.
- 입삐뚜렝이:** ㉠입비뚱이. ㉡입이 비뚱어진 사람.
- 0.돌을 배고 잠 잘 못자면 입삐뚜렝이가 된대.
- 입새: →어구.
- 입술기:** ㉠입술.
- 0.아래 입술기가 헐었다.
- 입시레:** ㉠입덧. ㉡임신한지 이삼 개월쯤 되어 입맛이 없어 쇠약해지는 증상.
- 0.며늘 아이가 입시레 하잖소.
- 0.입시레 할 때 좋아하는 음식은 없나?
- 입싸개:** ㉠개짐. ㉡여자의 생리대.
- 0.입싸개는 잘 챙겨야 한다.
- 입쌀밥:** ㉠이밥. 쌀밥. ㉡입쌀로 지은 밥.
- 0.옛날 춘궁기엔 입쌀밥 먹는 집이 드물었지.
- 0.입쌀밥은 제삿날에나 먹을 수 있었지.
- 입씻개:** ㉠입막음.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함.
- 0.화해하곤 입씻개를 단단히 해야 해.
- 입을 싹 댑는다:** ㉠배분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는다.
- 0.같이 일하고 덤으로 받은 것을 혼자 먹고 입을 싹 댑는다.
- 입이 걸다:** ㉠욕을 잘 한다.
- 0.그 할머니는 입이 걸다.
- 입이 까달스럽다(입이 까달시롭다. 입이 까달시롭다):** ㉠입이 발다.

0.입이 까달스러워 음식을 잘 안 먹는다.

입이 쓰다(입이 씨굽다): ㉸말 같지 않아 말할 생각이 없다.

0.말 같지 않은 말을 들으니 입이 쓰다.

입이 씨굽다: →입이 쓰다.

입질: ㉸입질. ㉸남을 홍보는 입을 놀림.

0.그 여잔 입질이 심한 여자야.

입짐: ㉸입짐.

1.입에서 나오는 더운 김.

0.입짐이 유리창에 서린다.

2.어떤 일에 미치는 영향력.

0.입짐을 넣는다.(영향력을 가한다는 말)

입침: ㉸가늘고 짧은 침.

0.입침은 따갑다.

0.입침 맞기가 힘이 든다.

잇기: ㉸잇. ㉸베개나 이부자리의 거죽을 짠 천.

0.베개 잇기를 빨려고 벗긴다.

잇떡: ㉸입쌀로 만든 떡.

0.잇떡 절편이다. 어서 먹자.

잇속: ㉸이익.

0.잇속 없는 일에 쓸데없이 뛰어들었어.

잇솔: ㉸칫솔. ㉸이를 닦는 솔.

0.잇솔이 너무 세면 이를 파먹는다.

있다야: ㉸있다. ㉸'있다'의 감탄형.

1.어떤 장소에 존재한다.

0.찾던 게 여기 있다야.

2.어떤 상태를 지속한다.

0.뗏목이 지금 가만히 앉아 있다야.

3.어떤 직장, 지위, 처소를 차지한다.

0.좋은 곳에 있다야.

4.생기거나 발생한다.

0.오늘 회식이 있다야.

5.물건, 돈 등을 소유한다.

0.돈이 많이 있다야.

6.뜻, 믿음 등이 존재한다.

0.그 사람 인기가 있다야.

7.지니거나 품거나 배 있다.

0.인품이 배어 있다야.

8.속에 들어 있거나 차다.

0.엄마 가방 속에 사탕이 들어 있다야.

9.어떤 동작을 계속한다.

0.지금 책을 읽고 있다야.

있더거: ㉸있다가.

0.조금 있더거 보자.

0.있더거 오면 안 써준다.

있더이(있데이): ㉸있더니.

0.아이가 조금 있더이 가자고 조른다.

있데이: →있더이.

있었짚우: ㉸있었어요.

0.감나무가 열 그루나 있었짚우.

0.큰덕은 논밭이 많이 있었짚우.

있으까?: ㉸있을까?

0.난 여기 있으니까?

있잖아: ㉸'있다'는 뜻으로 쓰임.

0.왜 그 사람 있잖아.

0.있잖아, 그 애가 시집간대.

잉공: ㉸인공. ㉸인민공화국. 사람이 가공하는 일.

1.인민공화국.

0.잉공치하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지.

2.가공하는 일.

0.잉공 재배한 것은 맛이 떨어진다.

잉금(잉건비): ㉠1. 인건비. 2. 나라 임금.

1. 인건비.

0. 사업 했대야 잉금 다 제하고 남는 게 있어야지.

2. 나라 임금.

0. 잉금이 잘해야 백성이 편하지.

잉건비: →잉금.

잉에 줄: ㉠잉아 줄. ㉡베틀의 날줄을 걸어놓은 굵은 줄.

0. 잉에 줄은 단단한 줄로 매어야 한다.

잊어비래(잊어뿌래. 잊어빠래):

㉠잊어버려.

0. 그 일은 이제 그만 잊어비래.

0. 그까짓 것 눈 딱 감고 잊어비래.

잊어뿌래: →잊어비래.

잊어빠래: →잊어비래.

잊사구: →이파구.

잊새: →이파구.



자가풍(자거품): ㉠자가품. ㉡손목, 발목, 손아귀 등의 이음매가 과로로 마비되어 시고 아픈 증상.

0. 손목에 자가풍이 일어 호미질을 못 하겠다.

0. 발목에 자가풍이 일어 걸음을 못

걸겠다.

자갈배미: ㉠자갈이 있는 논.

0. 자갈배미는 물이 잘 빠진다.

0. 자갈배미 논은 땅이 밟아 벼가 싹하지 못해.

자거품: →자가풍.

자게는: ㉠자기는.

0. 자게는 며 잘했어?

0. 자게가 먼저 하자 그랬지.

자구¹: ㉠자귀. ㉡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

0. 자구는 누워서도 한몫한다. (자구를 놓히면 옆으로 날이 서므로 밟으면 베어진다는 말)

자구²(자욱. 자죽): ㉠자국.

1. 물건이 닿아서 생긴 자리

0. 눈물 자구가 보인다.

2. 상처가 아문 자리.

0. 불에 댄 자구가 아직도 남아 있다.

3. 밟고 간 자리.

0. 발자구를 밟는다. (짐승이 남기고 간 자국을 따라간다는 말)

자금자금: ㉠살짝살짝. ㉡심하지 않게 약간씩.

0. 아픈 다리다. 자금자금 눌러라.

자꺼다(자끼다): ㉠저 아이 것이다.

0. 그 건 자꺼다. 손대지 마.

자꼬: ㉠자꾸.

0. 심부름을 자꼬 하라하니 싫증이 나지.

자끼다: →자꺼다.

자끼다(잘끼다): ㉠잘 것이다.

0. 나는 먼저 자끼다. 너희들끼리 놀아.

자다보이: ㉠자다 보니.

0. 나무 밑에서 자다보이 다 가고 나 혼자더라.

자판(잣단): ㉠충분하지 못한. 조금 모자라는.

0. 자판 음식을 어디다 펼쳐 놓겠니?
0. 자판 재산을 가지고 자랑을 하네.

자래: ㉠자라. ㉡자랏과의 동물. 하천에 살며 모양이 거북과 비슷함.

0. 자래 이빨은 낫젓가락도 끊는다.
0. 자래 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 보고 놀란다.(어떤 사물에 한번 놀란 사람은 비슷한 것만 보아도 놀란다는 말)

자래자지: ㉠자라자지. ㉡평시에는 자라목처럼 들어가 있다가 발기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자지.

0. 저 아이는 자래자지야.

자리싸움: ㉠자리다툼. ㉡좋은 자리나 지위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일

1. 자리다툼.
0. 여름철 냇가에선 자리싸움이 일어난다.
2. 지위다툼.
0. 좋은 자리 서로 오르려고 자리싸움이 보통이 아니야.

자문다(잠군다. 장군다. 잦군다.

쟁군다. 창군다. 행군다): ㉠잠군다.

0. 서랍을 자문다.
0. 단추를 자문다.

자문서(자미. 자민서): ㉠자면서.

0. 자문서 자꾸 중얼거린다.
0. 자문서 잠꼬대 하나 봐.

자미: →자문서.

자민서: →자문서.

자박새미(자복새미. 자복생이):

㉠머리채. ㉡머리칼 뭉치.

0. 자박새미를 움켜잡고 싸움을 한다.

자박지(자배기. 자백지): ㉠넓적한 덩어리.

0. 형수님한테서 누룽지 한 자박지를 얻었다.
0. 고기 한 자박지 먹었으면 좋겠다.

자반: ㉠김이나 미역을 말려 구운 것.

0. 김 자반도 맛이 있고 쇠미역 자반도 맛이 있다.

자배기: →자박지.

자백지: →자박지.

자봉틀: ㉠재봉틀. ㉡바느질하는 기계.

0. 농촌에 자봉틀 있는 집이 머 별로 있다.

자부동(자부둥): ㉠방석. ㉡앉을 때 밑에 끼는 작은 깔개.

0. 자부동 내와라. 손님 오신다.
0. 자부동이 폭신하다.

자부둥: →자부동.

자부롭다: ㉠졸린다. 잠이 온다.

0. 저녁을 먹고나니 자꾸 자부롭다.
0. 자부로우면 자지 머 걱정이야.

자복새미: →자박새미.

자복생이: →자박새미.

자분다(자운다): ㉠준다. ㉡줄음이 밀려와 잠드는 상태로 들어간다.

0. 뒷전에 앉아 꾸벅꾸벅 자분다.

자빠진다: ㉠자빠진다. ㉡뒤로 또는 옆으로 넘어진다.

0.얼음 길에 자빠진다. 조심해라.

자사이(자서이): ㉠자세히.

0.담배치지 말고 자사이 좀 말해 봐.

자새: ㉠얼레. ㉡실, 연줄, 낚싯줄 따위를 감는 기구.

0.연줄을 자새에 감는다.

0.연줄 싸움은 자새 감기에 달렸다.

자서이: →자사이.

자석(자숙): ㉠자식.

1.아들과 딸의 총칭.

0.자석을 봤다.(자석을 낳았다는 말)

2.‘놈’보다 낮추어 욕하는 말.

0.자석 새끼보단 마누라가 낫지.

0.자석 곁 낳지 속 못 낳는다.(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 속 마음은 알 수 없다)

3.자석 농사 잘 지었다.(자석을 잘 낳아 길렀다.)

자세요: ㉠드세요.

0.어려워 말고 어서 자세요.

자센?: ㉠잡수션? ㉡먹었나?를 반 높힌 말.

0.아침을 자센?(먹고 살기 힘든 옛날엔 식사한 것을 묻는 것이 인사였음)

자숙: →자석.

자숙냉이(자식냉이): ㉡자식 낳기.

0.젊어서 자숙냉이 하다가 다 늙었다.

자식냉이: →자숙냉이.

자싯물: →꾸정물.

자약: ㉠작약. ㉡미나리아재비과의 한약.

0.자약 한 뿌리는 발뽀기가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약제지.

자우똥거린다(지우똥거린다): ㉠가우똥 거린다. ㉡의아해 고개를 기울인다.

0.이해가 안 가나? 머리를 자우똥거리기.

자욱: →자구.

자운다: →자분다.

자운뎡이다: ㉠자욱하다. ㉡연기나 안개 등이 잔뜩 끼어 몹시 흐릿하다.

0.모깃불을 피우니 마당이 온통 자운뎡이다.

자유부인: ㉡바람 피우는 부인.

0.서양바람이 들어와서 자유부인이 많이 생겼지.

자작스럽다(자작시럽다): ㉠자깁스럽다.

㉡어린이나 젊은 사람이 어른스럽게 행동 한다는 말.

0.저 아이는 자작스럽게 어른 흉내를 잘 내.

자작시럽다: →자작스럽다.

자잔하다(재롬하다. 재롬하다.

재잔하다. 재재하다. 재잔하다):

㉠자잘하다. ㉡여러 개가 다 잘다.

0.고춧모가 아직 자잔해서 옮겨 심지 못하 겠다.

자전개(자정개. 자정거. 자징개.

자징거): ㉠자전거.

0.아버지께서는 자전개를 타고 어디로 가셨다.

자정개: →자전개.

자정거: →자전개.

자죽: →자구.

자지러든다(자즈러진다): ㉠‘자지러들다’, ‘자지러지다’에서 온 말.

1. 기빠서 몸이 움츠러든다.
 0. 처녀가 웃음에 겨워 자지러든다.
 2. 놀라서 몸이 움츠러 든다.
 0. 부영이 울음 소리에 몸이 자즈러든다.
 3. 점점 줄어든다.
 0. 아기 울음 소리가 점점 자즈러든다.
 자즈러진다: → 자지러든다.

자지 수술: ㉠포경수술. ㉡자지 귀두
 꺾질을 벗기는 수술.
 0. 아이들이 어릴 때 자지 수술을 해줘야
 한 대.

자장개: → 자전개.
 자장거: → 자전개.

자치동개비: ㉠자치동갑. ㉡한 살 차이의
 동갑.
 0. 자네와 난 자치동개비세.

자트래기(짜트래기): ㉠쓰고 남은 조각.
 0. 옷을 만들고 난 자트래기로 손수건을
 만든다.
 0. 자트래기 받에 들깨를 심었다.
 0. 자트래기 땅도 돈 나갈 때가 있다.

작기장(재끼장, 잭기장): ㉠공책.
 0. 작기장을 사 왔다.
 0. 작기장을 아껴 쓰라.

작년그러께: ㉠그러께. 재작년.
 0. 작년그러께 큰오빠 잔치를 했지.

작다란게: ㉠작은 것이.
 0. 돼지 꼬리는 작다란게 붙었다.

작대기 넷: ㉠병장.
 0. 작대기 넷 따면 분대장 되지.

작대기 둘: ㉠일등병. 일병.
 0. 입대하여 훈련이 끝나면 작대기 둘

따고 부대 배치를 받는다.

작대기 셋: ㉠상등병. 상병.
 0. 입대하고 일년 넘으면 작대기 셋
 따지.

작대기 하나: ㉠이등병. 이병.
 0. 입대하면 작대기 하나 따고 훈련을
 받지.

작디기(작대기, 작심이, 짝대기):
 ㉠작대기. ㉡긴 막대기. 흔히 무엇을
 버티는데 씀.
 0. 작디기를 짚었다.
 0. 지게 작디기로 지게를 고였다.

작때기: → 작디기.

작미(잭미, 쟁미): ㉠논밭을 소작하고
 주인에게 내는 곡물.
 0. 그 논 부치는데 작미가 다섯
 가마니래.

0. 농사 지어서 작미 다 퍼주고 남는 게
 있어야지.
 0. 옛날 논 작미는 5할이었다. 그러니
 전답 없는 농민이 먹고 살겠어?

작살나게(찍사게, 찍싸게): ㉠실컷.
 ㉡매우 심하게.

0. 오늘 작살나게 보리 타작을 했네.
 0. 작살나게 일해 봤자 남는 건 없고
 이거 되겠어?

작심이: → 작디기.

작으마이(작으머이, 작음마): ㉠작은
 어머니.

0. 작으마이 집에 심부름 갔다 오거라.

작으머이: → 작으마이.

작으메이: ㉠작은 아이.

0.작으메이가 많이 컸네.

작은마누래(적은마누래. 첩단이.

첩대기): ㉠작은마누라. 첩. 소실.

㉡본처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

0.작은마누래는 상냥하다.(언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니까)

작음마: →작으마이.

잔내비(잔내비): ㉠원숭이. ㉡원숭잇과의

하나. 사람 다음 가는 고등 동물.

0.자네 잔내비 따라 했지?

0.잔내비떠는 재주가 좋대.

잔뎡이(잔뎡이. 잔등): ㉠허리.

0.돼지 허리 잔뎡이가 길숙한 게 잘 크겠다.

잔뎡이: →잔뎡이.

잔득(잔득): ㉠잔득. ㉡한도에 이를

때까지 가득.

0.날씨가 잔득 흐렸다.

0.일이 잔득 밀렸다.

잔등: →잔뎡이.

~잔소(~잔우. ~잔소. ~잔우):

㉠~어요. ~요.

0.아이가 일찍 일어나잔소.

0.소가 여물을 잘 먹잔소.

0.일하러 갔다가 늦게 왔잔소.

0.일년 내내 일을 열심히 했잔소.

잔솔떡데기: ㉠잔솔포기. ㉡어린 소나무의

포기.

0.산관한 곳에 잔솔떡데기가 나서 어우러 졌더라.

~잔우: →~잔소.

잔재미대가리(잔재미따리): ㉠잔재미.

㉡잘고 감칠맛이 나는 재미.

0.사람이 잔재미대가리가 있어야 재미있지.

잔재미따리: →잔재미대가리.

잔전: ㉠잔돈. 우수리. ㉡작은 돈.

0.물건을 사고 잔전을 거슬러 받는다.

잔줄군다(잔질군다): ㉠가라앉힌다.

0.배가 아파 따뜻한 아랫목에 대고 잔줄군다.

잔질군다: →잔줄군다.

잔차(잔차): ㉠잔차. ㉡경사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즐기는 일.

0.오빠 잔차 맨 돼지를 잡는다.

0.그댝 잔차를 성대하게 지내더라.

잔차: →잔차.

잘게(잘구. 잘그. 잘기): ㉠자루.

1.속에 물건을 넣을 수 있게 형겼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

0.6.25전쟁 때는 밀가루 잘게로 옷을 지어 입었다.

2.연장, 기구 따위에 박거나 끼운 손잡이.

0.곡괭이 잘게가 튼튼하다.

0.신선 놀음에 도끼 잘게 썬 줄 모른다. (한가한 풍류에 세월 가는 줄 모른다)

3.자루에 든 것을 세는 단위.

0.콩 한 잘게 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잘구: →잘게.

잘그: →잘게.

잘기: →잘게.

잘끼다: →자끼다.

잘디잔(재디잔. 켈디잔): ㉠'자디잘다'에서

온 말. 자디잔. ㉸몹시 잔 모습을 나타내는 말.

0. 자디잔 곡식은 병아리 모이로 하기에 적합하다.

0. 그 사람은 자디잔 사람이야.

잘라고: ㉸자려고.

0. 아기가 잘라고 보챈다.

잘른다: ㉸자른다.

1. 동강을 낸다.

0. 머리를 짧게 잘른다.

0. 무를 도막 내어 잘른다.

2. 해고 시킨다.

0. 부장의 목을 잘른다.

잘모한다: ㉸잘못한다.

0. 소도 이 소가 저 소보다 잘모한다고 비교하지 않는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0. 일이 잘못됐다.

잘못짚었다: ㉸잘못짚었다. ㉸짐작이나

예상이 빗나갔다.

0. 그건 아주 잘못짚었다.

잘숙거린다(절둑거린다): ㉸절름거린다.

㉸다리를 절는다.

0. 발바닥이 아파 잘숙거린다.

잘피: ㉸납작하고 긴 바닷말.

0. 잘피로 우장을 엮어 등에 덮는다.

0. 잘피 우장을 덮은 덕에 등이 젖지 않고 따뜻하다.

잘하문 돼유: ㉸잘하면 돼유.

0. 잘 하문 돼유. 너무 나무리지 말아요.

잠고대: ㉸잠꼬대.

1. 잠을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헛소리.

0. 잠고대가 심하다.

2.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의 비유.

0. 무슨 잠고대 같은 소리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의 비유)

잠군다: →자문다.

잠꾸레기: ㉸잠꾸레기. 잠보.

0. 잠꾸레기도 잠깁 때가 있다.

잠들었다(잠잔다): ㉸가라앉았다.

0. 잔디에 뿌린 모래가 비가 오니 가라앉아 잠들었다.

잠울대(잠울쇠. 잠을쇠): ㉸자물쇠.

㉸여닫게 된 물건에 채워서 열지 못하게 잠그는 쇠.

0. 잠울대로 문을 열지 못하게 단단히 잠근다.

잠울쇠: →잠울대.

잠을쇠: →잠울대.

잠자리비행기: →돌개비행기.

잠자쿠: ㉸잠자코. ㉸아무 말없이 가만히.

0. 잠자쿠 있는 것이 무식을 면한다. (잘 알지 못하면서 선불리 나서지 말라는 말)

잠잔다: →잠들었다.

잠절에: ㉸잠결에. ㉸잠이 어렴풋이

들거나 덜 깬 상태.

0. 잠절에 남의 다리 굽는다. (자기를 위해 한 일이 남만 이롭게 된다)

잠튀정(잠트세): ㉸잠투정. ㉸아기가

잠들기 전이나 잠을 깬 후에 짜증을 내거나 우는 것.

0. 아기가 잠튀정이 심해.

잠트세: →잠튀정.

잠폐롱한다: ㉠잠을 설친다.

0.어제밤에 코고는 사람하고 같이 자다
잠폐롱했다.

잡거(잡그, 잡기): ㉡잡것. ㉢잡스럽고
점잖지 못한 것.

0.잡거 같으니라고. 그러면 쓰나.

잡그: →잡거.

잡기: →잡거.

잡눔(잡눔): ㉡잡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내를 욕하는 말.

0.그 놈은 잡눔이야. 상대하지 말아.

잡눔: →잡눔.

잡데까?: ㉡잡디까? ㉢자고 있습니까?

0.아직까지 잡데까?

잡데다: ㉡잡디다. ㉢자고 있습니다.

0.아직까지 잡데다.

잡순는다: ㉡잡수신다.

0.아버지 밥을 잡수신다.

잡어뎨다(잡어뎨다): ㉡잡아뎨다.

1.붙어 있는 것을 억지로 떨어지게 한다.

0.벽에 붙은 광고지를 잡어뎨다.

2.아무 것도 모른다거나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우겨댄다.

0.모른다고 딱 잡어뎨다.

0.안 그랬다고 잡어뎨다.

잡어뎨다: →잡어뎨다.

잡어재친다: ㉡잡아채다. ㉢1. 힘껏
당긴다. 2. 빼앗는다.

1. 힘껏 당긴다.

0.입질이 와서 낚싯대를 잡어재친다.

2. 빼앗는다.

0.손가방을 잡어재친다.

잡질군다(접질군다): ㉡접질린다.

㉢근육과 관절이 뻣 형태에 이른다.

0.잘못 걷다 발목을 접질군다.

잡헤멕했다: ㉢잡혀 먹혔다.

0.병아리가 그만 솔개에게 잡헤멕했다.

짓단: →자뎨.

жат죽싸서 개준다: ㉢жат죽을 썬서 개준다.

0.жат죽싸서 개준다.(열심히 일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말)

장가구: ㉡시장바구니. ㉢장 보러 갈 때
들고 다니는 바구니.

0.엄마 장가구엔 사탕이 들어 있겠지.

장개: ㉡장가. ㉢남자가 아내를 맞는 일.

0.가을엔 오빠 장개 보내야겠다.

장개장개: ㉡곤지곤지. ㉢젓먹이에게 왼손
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댓다 댓다
하라는 뜻으로 내는 말.

0.아가야, '장개장개' 해봐.(곤지곤지
하는 시늉을 선 보인다)

장갱이(정갱이): ㉡정갱이. ㉢아랫다리의
앞 부분.

0.정갱이가 길다.

0.바지가 짧으니 정갱이가 드러난다.

장고: ㉡장구. ㉢국악에서 쓰이는
타악기의 하나.

0.장고 치고 북치고, 잘 놀아 난다.

장광: ㉡자갈밭. ㉢자갈이 많이 깔려 있는
들.

0.장광에 돌 주우러 가자.

0.장광에 달빛이 너무 밝아 물레방앗간
으로 들어갔다.

장군다: →자문다.

장그택: ㉠늘.

0.그 버릇이 어디 가나? 장그택이지머.

장간: ㉠잠간.

0.장간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 게.

장평(쟁끼): ㉠장끼. 수평.

0.장평은 깃털이 아름답다.

0.오늘 잡은 장평으론 평만두 해 먹자.

장난꾸레기: ㉠장난꾸러기. ㉡장난이 심한 아이.

0.아이가 얼마나 장난꾸레긴지 말도 못해.

장다지: ㉠길게.

0.장관을 장다지로 재 봐.

장다지: →노박.

장달기: ㉠수탕.

0.장달기 역세서 사람한테 덤빈다.

장대 추우: ㉡장대 추위. 기간이 긴 추위.

0.겨울 날씨가 장대추우를 하네.

장독 뚜껑: ㉡장독 덮개.

0.빗날이 떨어진다 장독 뚜껑 닫아라.

장돌뱅이(장똥뱅이): ㉠장돌림. ㉡장에 자주 가는 사람. 장을 도는 사람.

1.장에 자주가는 사람.

0.그 사람 장돌뱅이야. 장마다 장에 가.

2.장을 도는 사람.

0.보파리 장사를 하자니 장똥뱅이 신세 됐네.

장판지: ㉡장단지. 장을 넣은 단지.

0.장판지에 가서 고추장을 퍼 오너라.

장똥뱅이: →장돌뱅이.

장뚜거리: ㉡장 뚝배기.

0.장뚜거리보다 장맛이 좋다.(겉보기

보다 속이 좋다는 말)

장배기: ㉠정수리. ㉡머리 꼭대기의 가운데.

0.장배기에 가마가 있다.

0.장배기에 빨났다.(잘 들어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

장부: ㉠가랫장부. ㉡가래의 자루와 가랫날

0.도리깨는 내 것이 망가져야 좋고, 장부 끈은 남의 것이 끊어져야 좋다.

(도리깨는 내 것이 망가져야 쓸 수 있고, 장부는 남의 끈이 끊어져야 쓸 수 있다는 말)

장뺨(장뺨): ㉠장뺨.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힘껏 벌린 길이.

0.뺨은 가물치가 세 장뺨이나 돼.

장뺨: →장뺨.

장사치기: ㉠장사꾼. 장사치. ㉡장사하는 사람.

0.장사치기는 자기 애비도 속인다.

(이윤은 남을 속여야 남게 된다는 말의 비유)

장새: ㉠장사.

0.요즘 장새가 잘 되나?

0.코로나19 때문에 장새 접었네.

장수말벌(장수벌): ㉠말벌. ㉡말벌과의 벌.

0.장수말벌에 쏘이면 죽는대.

장수벌: →장수말벌.

장예쌀: ㉠장리 쌀. ㉡곡식을 꾸어주고 일년 이자로 반을 더 받는 변리 쌀.

0.옛날엔 춘궁기에 장예쌀 내다 먹는

집이 많았지.

장와: ㉠장화. ㉡목이 긴 신. 흔히 굵은
날에 신는다.

0.비올 땐 장와 장사, 더울 땐 양산
장사가 잘 된다.

장이사: ㉠장 의사.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하는 영업소.

0.장이사는 누구나 꺼리지만 누군간
해야지.

장작가치(장작개피, 장작깨비).

장작개피, 장재기, 장지기): ㉠장작.
장작깨비. ㉡통나무를 길쭉하게 잘라
쪼갠 뿔나무.

0.장작가치를 차곡차곡 가린다.
0.장작가치는 불광이 좋다.

장작개피: →장작가치.

장작깨비: →장작가치.

장작개피: →장작가치.

장작데미(장재기가리): ㉠장작 가리.

0.장작을 패서 장작데미에 가린다.

장재기: →장작가치.

장재기가리: →장작데미.

장지기: →장작가치.

장질조개: ㉠장질. 장조카. 만조카.

큰조카. ㉡만형의 만아들.

0.문중일은 장질조개 말을 따라야지.

장쟁이: ㉠장아찌. ㉡말린 채소나 열매를

장속에 박았다가 두고 먹는 반찬.

0.장쟁이는 머니머니 해도 송이
장쟁이가 최고지.

장창: ㉠늘. 항상.

0.주야 장창 일만하고 살았지.

찾어진다: ㉠찾아지다.

1.자주 있게 된다.

0.외출이 부쩍 찾아진다.

2.찾아들어 없어진다.

0.저수지 물이 자꾸 찾아진다.

재: ㉠기와. ㉡흙이나 시멘트 따위로

만들어 지붕을 이는데 쓰는 물건.

0.지붕에 재를 인다.

0.마을에 재 집이 즐비하다.

~재: ㉠~지.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0.지금 아침밥 먹재.

0.오늘 일을 하재.

0.오늘 보름이 맞재.

0.이것이 저것보다 더 많재.

0.너는 이것이 더 좋은 줄 알재.

재간뎡이: ㉠재간둥이. ㉡재주와 솜씨가
있는 아이.

0.그 아이는 여간 재간뎡이가 아니야.

재간친다(저지레친다): ㉠잘못을
저지른다.

0.며느리가 부엌에서 재간친다.

0.재간치지 말고 조심해라.

재갈: ㉠자갈.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랫동안 갈리고 물에 씻기어 반들반들
해진 잔돌.

0.강 바닥에 재갈이 많다.

0.재갈을 깔면 정원이 한결 돋보인다.

재강아지(재문뎡이): ㉠재가 많이 묻은
모양.

0.고양이가 잣데미에서 놀았나?

재강아지가 됐다.

재기: ㉠자기.

0.재기는 머 잘했어?

재간: ㉠재(타고 남은 것)를 보관하는 장소.

0.재간 문을 꼭 닫아라. 닭이 파뒤집을라.

재깍스럽다(째깍스럽다): ㉠자깍스럽다.

깜찍하다. ㉠젊은 사람이 늙은 흥내를 내거나 어린이가 짐짓 어른스럽게 행동하여 깜찍스럽다,

0.아이가 어른처럼 재깍스럽게 논다.

0.재깍스럽게 어른 흥내 내지 마.

재끼장: →작기장.

재놓는다(쟁여놓는다): ㉠쌓아놓는다.

0.타작을 해서 벼섬을 광에 재놓는다.

0.콩가마니도 차곡차곡 재놓는다.

재들: ㉠저 아이들.

0.재들은 밥 먹었어?

재디젠: →잘디잔.

재딤 거: ㉠1.작은 것. 2.적은 것.

1.작은 것.

0.감자 재딤 건 따로 골라라.

2.적은 것.

0.그 재딤 거를 어떻게 나눠 주니.

잣달어두: ㉠적어도.

0.잣달어두 나누어 먹어야지.

재롬하다: →자잔하다.

재름하다: →자잔하다.

재리재리하다: ㉠자리자리하다. 저릿저릿하다. ㉠오래 놀리켜 저린 느낌.

0.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재리재리하다.

재린다: ㉠1.자란다. 2.저린다. 3.절끔 썬다.

1.자란다.

0.겉방꾼이 알맞게 재린다.

2.저린다.

0.일을 심하게 했더니 팔다리가 재린다.

3.절끔 썬다.

0.오줌을 재린다.

재문대이: →재강아지.

재미다리(재미단지, 재미대가리,

재미따구): ㉠재미.

0.사람이 재미다리가 있어야지.

재미단지: →재미다리.

재미대가리: →재미다리.

재미따구: →재미다리.

재미뽑기: ㉠제비뽑기. ㉠제비를 만들어 승부나 차례를 만드는 일.

0.재미뽑기해서 편을 가르자.

0.재미뽑기에서 당첨됐어.

재색: ㉠회색.

0.재두루미는 재색을 많이 띤다.

재수거리(재수대가리, 재수떼기,

재수바리): ㉠재수. 운수.

0.오늘 마수걸이를 잘해서 재수거리가 좋다.

재수대가리: →재수거리.

재수떼기: →재수거리.

재수바리: →재수거리.

재수 움 붙었다: ㉠재수 없다.

0.재소 움 붙으면 자빠져도 코가 깨지니.

재양: ㉠재롱. ㉠어린이의 슬기로운 말과 귀여운 짓.

0.아기가 이제 한창 재양을 떨어.

재없이: ㉠틀림없이.

0.오늘은 재없이 비가 올거야.

재잔하다: →자잔하다.

재재하다: →자잔하다.

재잔하다: →자잔하다.

재조가리(재주가리): ㉠적. ㉡나무나 돌 따위가 걸 따라 일어나는 조각.

0.술 바닥이 재조가리가 인다.

재주: ㉠자주.

0.처가에 재주 다니네.

재주가리: →재조가리.

재주가 메주다: ㉡재주가 없다.

0.나는 재주가 메줄세.

재주꾼(재주꾼): ㉠재주껏. ㉡있는 재주를 다해.

0.저 흥시 따 먹는다. 재주꾼 해봐.

재주꾼: →재주꾼.

재지발거린다(째지발거린다.

짹짹거린다): ㉠재잘거린다.

재재거린다. ㉡수다스럽게 자꾸 재잘거린다.

0.참새가 앉아서 재지발거린다.

재질구레하다: ㉠자질구레하다. ㉡모두가 잘고 시시하다.

0.감자가 재질구레한 건 콜라내라.

재집(지와집): ㉠기와집. ㉡지붕을 기와로 이은 집.

0.저 아이는 재집에 살아.

0.재집 기와장 밑엔 참새가 집을 짓는다.

재추: ㉠새장가. ㉡남자가 새로 가는

장가.

0.저 아저씨는 상처하고 재추 장가든대.

재치기¹: ㉠자치기. ㉡긴 나무막대로 그보다 짧은 나무땀기를 쳐서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겨루는 아이들 놀이.

0.야! 우리 재치기 놀이 하자.

0.재치기 놀이에 해 지는 줄 모른다.

재치기²: ㉠재채기. ㉡코의 점막이 자극을 받아 일어나는 경련성 반사운동.

0.재치기가 자꾸 나거든 냉수를 마셔봐.

재친다(재킨다): ㉠1.젓한다. 2.젓한다.

1.젓한다.

0.밥에 물이 젓아지게 재친다.

2.젓한다.

0.코피가 몇개 얼굴을 뒤로 재친다.

재킨다: →재친다.

재티(젯티): ㉠재. ㉡불에 타고 남은 가루.

0.옷에 재티 묻었다.

재패먹다: ㉠잡혀먹다.

0.시계를 재패 먹었다.

0.땅문서를 재패먹었다.

잭기장: →작기장.

잭미: →작미.

잭패 질: ㉠작패 질. 장난질. ㉡폐를 끼치는 짓.

0.방에서 잭패질 치지말고 조용히 놀이라.

잔: ㉠1.모두. 2.작은.

1.모두.

0.밤이 잔 벌레 먹은 것 뿐이네.

2.작은.

0. 굵은 감자를 고르고 쟈 감자는
썩힌다.

쟈고생: ㉠1. 잔 고생. 2. 장 고생.

1. 잔 고생.

0. 그일 마치느라 잔고생 좀 했지.

2. 장 고생.

0. 산다는 게 쟈고생이지며.

쟈내비; → 잔내비.

쟈노리: ㉠새참. 결두리. ㉡썰 참에 먹는
음식.

0. 어머니께서는 쟈노리를 서둘러 해가지
고 눈에 가신다.

0. 쟈노리가 왔네. 먹으러 나가세.

쟈다: ㉠망설인다.

0. 자꾸 재지 말고 얼른 결정 해.

쟈돈푼: ㉠잔돈푼. ㉡얼마 되지 않는 돈.

0. 쟈돈푼 아끼다 속 보인다.

쟈머리: ㉠잔머리. 잔피.

0. 쟈머리 굴리지 말고 꾸준히 일을 해.

쟈병: ㉠잔병. ㉡자질구레한 병.

0. 저 애는 쟈병치레를 많이 했어.

쟈빼: ㉠잔빼. ㉡작고 약한 빼.

0. 쟈빼는 발려내고 먹어라.

쟈소리: ㉠잔소리.

1.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

0. 쟈소리는 듣기 싫다.

0. 쟈소리 좀 그만 해라.

2. 잔말.

0. 두말하면 쟈소리지.

0. 시도 때도 없이 쟈소리를 늘어
놓는다.

쟈재미: ㉠잔재미. ㉡잘고 감칠맛이 있는
재미.

0. 사람은 사는데 쟈재미가 있어야 해.

쟈종발: ㉠잔시중. ㉡자질구레한 시중.

0. 그 애는 쟈종발을 잘 들어.

쟈주름: ㉠잔주름. ㉡잘게 잡힌 주름.

0. 벌써 쟈주름이 잡히는 걸.

쟈지침: ㉠잔기침. ㉡작은 소리로 잇따라
내는 기침.

0. 쟈지침 자꾸 하면 버릇 된다.

쟈챙이: ㉠잔챙이. ㉡여럿 가운데 작고
품이 낮은 사람이나 물건,

0. 굵은 감자만 고르고 쟈챙이는 썩히자.

0. 낚시를 하는데 쟈챙이만 걸린다.

쟈달다: ㉠잔달다. ㉡좁 적다. 모자란다

0. 떡을 쟈달게 해서 나누어 주지 못하
겠다.

쟈금꺨금: ㉠꺨금꺨금. ㉡액체가 조금씩
흐르는 모양.

0. 샘물이 꺨금꺨금 나온다.

쟈다: ㉠잘다.

1. 곡식, 과일, 글씨 따위가 작다.

0. 사과가 쟈다.

2. 부피가 작다.

0. 무를 쟈게 썬다.

3. 세밀하고 자세하다.

0. 글을 쟈게 분석한다.

4. 생각이나 성질이 좁스럽다.

0. 됃뭍이가 쟈고 경망스럽다.

쟈디쟈: → 잘디쟈.

쟈쪽하다: ㉠길쪽하다. ㉡조금 길다.

0. 참외가 쟈쪽한 게 맛이 있다.

잼군다: →자문다.

잼졌다(쟁겼다): ㉠잼졌다.

- 1. 잠금을 당한다.
 - 0. 수도꼭지가 꼭 잼졌다.
- 2. 목이 쉬거나 막혀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 0. 감기가 와서 목이 꼭 잼졌다.
- 3. 액체 속에 가라앉는다.
 - 0. 콩이 물에 꼭 잼졌다.
- 4. 어떤 것에 돈 따위가 들어있다.
 - 0. 돈이 부동산에 잼졌다.
- 5.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
 - 0. 생각에 잼졌다.
- 6. 어떤 현상에 휩싸인다.
 - 0. 안개 속에 잼졌다.

잼잼이: ㉠죄암죄암. ㉡주먹을 쥐었다 찢다하는 영아놀이.

- 0. 젓먹이가 잼잼이를 잘하네.
 - 0. 잼잼이는 아가 운동의 첫 단계이다.

잼했다: ㉠잡했다.

- 1. 붙잡혔다.
 - 0. 숨바꼭질 하다가 술래한테 잡했다.
- 2. 물건을 맡긴다.
 - 0. 돈을 빌리고 시계를 잡했다.

잼달어두: ㉡적어도.

- 0. 잼달어두 나누어 먹어야지.

잼들: ㉠불들. ㉡화로의 불이 쉬 사위지 않게 눌러놓는 돌이나 기왓장 조각.

- 0. 화로에 잼들 쭉씩 거리지 말아라.

잼말랑: ㉡재 꼭대기. 영마루.

- 0. 잼말랑에 가서 쉬어 가.

잼봉다리(잼봉지): ㉡유골 봉지. 시체를

화장한 뼈가루 봉지.

- 0. 전쟁하다 전사하면 잼봉다리가 오지.

잼봉지: →잼봉다리.

잼장: ㉠기왓장. ㉡기와의 날장.

- 0. 잼장이 꽤 무겁다.

잼티: →재티.

쟁군다: →자문다.

쟁긴다: →잼긴다.

쟁끼: 장꿩.

쟁미: →작미.

쟁여놓는다: →재놓는다.

쟁쟁거린다: ㉠잔소리한다. ㉡필요

-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짖는다.
 - 0. 남편한테 뭐라고 계속 쟁쟁거린다.

저걸루: ㉠저걸로.

- 0. 전번에 빚진 거 저걸루 갚는다.

저게: ㉠저것이. 저기.

- 1. 저것이.
 - 0. 저게 조그만한 게 까불어.
- 2. 저기.
 - 0. 그 물건 저게 뇌뒀어.

저구리: ㉠저고리. ㉡한복 웃옷의 하나.

- 0. 저구리의 웃고름이 떨어졌다.

저그: ㉠저것.

- 0. 저그 좀 봐 꽃이 만발했네.

저근: ㉠저건. 저것은.

- 0. 저근 자기만 알아.

저글: ㉠저걸. 저것을.

- 0. 저글 어떻게 할까?

저까지(저까진): ㉠저까짓. ㉡겨우

- 저것만한 정도,
 - 0. 저까지 게 까불어.

저까진; →저까지.

저녁에(저약에. 저역에. 지낙에.

지녁에. 지약에. 지역에): ㉠저녁에.

0. 오늘 저녁에 모이래.

0. 그럼 저녁에 만나.

저녁책기(저약책기. 지역책기):

㉠저녁에 대접하기.

0. 저녁책기 한다고 똥보네 집으로

오래요.

저년아(저눔아. 저눔아 지눔아): ㉠저

녀석.

㉠남자아이를 낮추어 부르는 말.

0. 저년아, 저 하는 짓 좀 바.

0. 저년아, 저 못 쓰겠는걸.

저는다: ㉠겨는다. ㉠목표물이 있는 곳의

방향과 거리를 바로 잡는다.

0. 새총으로 새를 저는다.

저눔아: 저년아.

저눔아: →저년아.

저다: ㉠저기이다.

0. 저다가 봐줘라.

0. 저다가 한 데 섞어라.

저달: ㉠지난 달. 전달.

0. 저달엔 무척 바빴어.

저닷하나: ㉠저렇게 못하나.

0.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머 저닷하나.

저대두룩(저대두룩꿈. 저대두룩꿈.

저대루): ㉠저토록. 저렇게 되도록.

0. 아이를 머 저대두룩 건사를 안 했다.

저대두룩꿈: →저대두룩.

저대두룩꿈: →저대두룩.

저대루: →저대두룩.

저드랑이(저드랭이): ㉠겨드랑이. ㉠어깨
아래쪽 접히는 곳.

0. 저드랑이 밑에 땀이 났다.

0. 저드랑이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

저드랭이: →저드랑이.

저따구(저따우. 저판게. 저판구.

저판기. 저땅거): ㉠저런 게. 저런

것이.

0. 뭐, 저따구가 있어.

0. 저따구 하고는 상대하지 말아.

저따우: →저따구

저판게: →저따구.

저판구: →저따구.

저판기: →저따구.

저땅거: →저따구.

저래다: ㉠저러다. ㉠저렇게 하다.

0. 저래다 말했지머. 그냥 놔둬.

저래문: ㉠저러면. ㉠저렇게 하면.

0. 자꾸 저래문 안 되는데...

저러이(저런지기): ㉠저런. ㉠저렇지

아니한 데. 뜻밖에 다른 의견이

생각났을 때 하는 소리.

0. 저러이,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안돼.

0. 저러이, 거기 그렇지 않고 이렇다니까.

저런지기: →저러이.

저렁거: ㉠저런 것.

0. 이런 것 말고 저렁거 줘.

저를이 없다: ㉠겨를이 없다.

0. 바빠서 놀 저를이 없다.

0. 놀 저를이 없이 일했건만 별로 남는

건 없다.

저름: ㉠고기의 작은 조각.

- 0.강아지에게 고기 한 저름 떼어 줘라.
- 0.강아지가 고기 한 저름 입에 넣고 정신 없이 먹는다.

저름대.(저름뎡이): ㉠꺽질 벗긴 삼의 줄기.

- 0.저름대 같이 뻘뻘 말랐잖아.
- 0.저름대 같은 허리다.

저름뎡이: →저름대.

저마둥: ㉠저마다.

- 0.저마둥 제 잘났다고 떠들어댄다.

저맨치: ㉠저만치. 저만큼.

- 0.저맨치 나 얹아. 불뚱 튄다.

저머리: →서거리.

저번 저울: ㉠지난 겨울.

- 0.저번 저울엔 몹시 추웠지.

저서: ㉠저기서.

- 0.저서 형 오래.

저약에: →저낙에.

저약쩍기: →저낙쩍기.

저역에: →저낙에.

저왕: ㉠정황. 경황. ㉠정신적이나 시간적 형편.

- 0.그 땐 머 저왕이 있었어야지. 인사도 제대로 못 했네.

저우: ㉠겨우.

- 0.짐이 무거워 저우 지고 일어났네.

저우내: ㉠겨우내.

- 0.눈이 빠지면 저우내 들어앉아 감자 구워 먹지.
- 0.저우내 먹을 가을 김장을 한다.

저우사리: ㉠겨우살이.

- 1.겨우살잇과의 상록 기생 관목.

- 0.저우사리가 한약재로 쓰인대.
- 2.겨울 동안 입고 먹고 지낼 옷이나 양식.
- 0.겨울이 오기 전에 저우사리는 단단히 준비 해야지.

저울: ㉠겨울. ㉠일년 사계절 중 입동부터 입춘까지 동안.

- 0.이제 저울에 접어들었다.

- 0.매서운 저울 바람이 불어온다.

저지레친다: →재간친다.

저질군다: ㉠일을 저지른다.

- 0.기여코 그 일을 저질구고 말았구만.

저쪽에: ㉠저쪽에.

- 0.저쪽에 고기가 더 커 보이는데.

저찌리(즈끼리. 즈찌리. 지끼리.

지찌리): ㉠자기들끼리.

- 0.빵을 저찌리 먹는다.

- 0.저찌리 놀라 그래.

적: ㉠전. ㉠번철에 부쳐 지저낸 음식의 총칭.

- 0.밀가루 적 부쳐 먹자.

적깔(절. 절가락. 절가지): ㉠젓가락.

- ㉠음식이나 그밖의 다른 물건을 끼워서 집는 도구. 길이가 같은 두 개의 쇠붙이나 나무 따위로 가늘고 짙막하게 만듦.

- 0.산에 가서 나무 적깔을 만들어 시제 비빔밥을 먹었다..

- 0.적깔로 김칫국을 집어 먹을 놈.

(어리석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적는다: ㉠격는다.

- 1.어려운 일이나 경험될 만한 일을

치른다.

- 0.갓은 고초를 적는다.
- 2.손님이나 여러 사람을 청해 음식을 대접 한다.
- 0.손님을 적는다.
- 3.사람을 사귀어 지낸다.
- 0.많은 사람을 적어본다.

적빠르다: ㉠어지빠르다. ㉡정도가 넘치거나 처져서 어느 쪽에도 맞지 않다.

- 0.하루 일거리는 넘치고, 이틀 하자니 안차고 일이 적빠르다.

적쇠: →모태.

적은마누래: →작은마누래.

적지(적, 적지): ㉠켜. ㉡포개진 물건의 층.
0.옹기 그릇을 오래 썼더니 적지가 인다.

적칼: ㉠부침 주걱.

- 0.적칼로 부침개를 일군다.

전기가 통하면: ㉠느낌이 오면.

- 0.남녀간에 전기가 통하면 불이 붙는다.

전다지: ㉠전부 다. 전적으로.

- 0.그 집 며느리가 전다지 백수로 왔다.
- 0.전다지 놀면서 먹겠다 이거지.

전대 콧구멍: ㉠좁은 소견.

- 0.그 사람 의견은 전대 콧구멍이다.

전데낸다(젠데낸다): ㉠전더낸다.

- 0.그 힘든 일을 잘 전데낸다.

전딘다: ㉠전딘다.

- 1.사람이나 짐승이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상태가 된다.

0.그럭 저럭 전딘다.

- 2.쉽게 망가지지 않고 원래의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

0.고무신이 오래 전딘다.

0.나일론 양말이 오래 전딘다.

- 3.잘 참아낸다. 잘 배겨낸다.

0.추위를 잘 전딘다.

전봇대(전뵤대): ㉠키다리. ㉡키가 큰 사람.

- 0.그 사람 키는 전뵤대야.

전뵤대: →전뵤대.

전사(즌사): ㉠시제. 시향. ㉡찰마다 지내는 종묘의 제사. 보통 산소에서 이루어진다.

- 0.전사 떡 얻어먹으러 선산에 간다
- 0.전사 지내는 데 가면 젓먹이도 한 몫이다.

전예: ㉠전혀. 도무지. 아주.

- 0.그 사람은 전예 모르는 사람이야.

전준다(젠준다): ㉠겨준다. 겨냥한다.

- 0.고무줄 새총으로 새를 전준다.

전폐(전뵤): ㉠전뵤.

- 1.거래 내용을 적은 쪽지.
- 0.인출 전뵤를 은행원에게 넘긴다.
- 2.일당을 적은 쪽지.
- 0.공사장에서 전뵤를 받는다.

전뵤: →전뵤.

질: →적갈.

질가락: →적갈.

질가지: →적갈.

질구통: ㉠똥똥이. 똥똥보. 똥보.

- 0.저 여잔 질구통일세.

절군다(제긴다): ㉞절인다. ㉸소금이나 식초 따위를 넣어서 절게 한다.

0. 가을 김장배추를 소금에 절군다.

절는다(즐는다): ㉞절다'에서 온 말.

㉸몸을 한쪽으로 끼우뚱거리며 걷는다.

0. 다리 한쪽을 절는다.

0. 처녀가 좀 절는다.

절단난다(절단난다): ㉞1. 결단난다.

2. 망가진 다. 3. 큰일난다.

1. 결단난다.

0. 그 일이 좌우지간 내일이면 절단난다.

2. 망가진다.

0. 그 좋은 살림이 절단났다.

3. 큰일난다.

0. 할아버지가 아시면 절단난다.

절단코: ㉞결단코. 반드시. 꼭. 절대로.

0. 절단코 그 일을 해내고야 마네.

절뚝거리다: →잘숙거리다.

절뚝뚝이(절룩뚝이. 찢뚝발이. 찢루발이.

찢룩발이. 찢룩뚝이. 찢뚝발이.

찢뚝뚝이. 찢루발이. 찢룩바리.

찢룩뚝이): ㉞절뚝발 이. 절름발이.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

0. 절뚝뚝이 안 될려면 다리를 잘 관리해야 돼.

절뚝절뚝(찢뚝찢뚝): ㉞절룩절룩.

㉸절으며 걷는 모양.

0. 절뚝발이가 절뚝절뚝 걸어 온다.

절판난다: →절단난다.

절떡: ㉞가래떡. 절편.

0. 설이 돌아와 떡 안반에다 절떡을 친다.

0. 절떡을 썰어 떡국에 넣는다.

절라도개뚱생이(절라도치기): ㉸전라도 사람.

0. 그 사람 절라도개뚱생이야. 잘 사귀어 봐.

0. 절라도 개뚱생이를 세유춘풍이라 했던

가?(봄바람 앞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드럽다는 말)

절라도치기: →절라도개뚱생이

절로(절루): ㉞1. 저리로. 2. 스스로.

1. 저리로.

0. 절로 가면 우리 밭이 있다.

2. 스스로.

0. 그것이 절로 된 줄 아나?

절루: →절로.

절룩뚝이: →절뚝뚝이.

절른다: ㉸소쿠리나 대자리 등을 만든다.

0. 눈이 오면 아버지께서는 사랑방에서 대자리를 절는다.

절린다: ㉞결린다. ㉸몸의 일부분이

당겨서 딱 마치는 것처럼 아프다.

0. 들깨 타작을 하루 종일 했더니 옆구리가 절린다.

절박(절복): ㉞결박. ㉸몸이나 손 따위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다.

0. 범인을 절박했다.

절복: →절박.

점백이: ㉞점박이. ㉸몸에 큰 점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

0. 점백이, 그 사람 말이야?

0. 강아지는 점백이가 많다.

점빵: ㉞점방. ㉸상점 또는 가게로 쓰는

방.

0.점빵에 아이스케키 사러 가자.

0.점빵에 사람이 북적거린다.

점사점사: ㉠점사점사.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 보는 모양.

0.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고 점사점사 여행 가네.

0.장도 볼 겸 사돈도 만날 겸 점사점사 장에 가네.

점상: 점상. ㉡두 사람이 한 상에 마주 앉게 차린 상.

0.손님 두 분이 오셨다. 점상 차려라.

접대: ㉠저번에.

0.그 사람 접대 보았어.

0.접대 서울 갔다 왔지.

접동새: ㉠소쩍새. ㉡올빼미과의 새. 깊은 산 속에 삶.

0.접동새는 산 속에서 슬피 울어댄다.

접바지: ㉠겹바지. ㉡겹으로 만든 바지.

0.늦가을엔 접바지를 입고 나선다.

접방살이(절방살이): ㉠1.결방살이.

2.셋방 살이. ㉡남의 집 결방에 세들어 사는 살림.

1.결방살이.

0.접방살이는 생활이 불편스럽다.

2.셋방살이.

0.접방살이 하면 저축이 힘들다.

접사돈: ㉠겹사돈.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 이 또 사돈 관계를 맺는 사이.

0.그 집들은 접사돈이야.

접살림: ㉠겹살림. 한 가족이 나뉘어 따로 차리는 살림.

0.그 집은 아들 공부 시키느라고 접살림 차렸대.

접세기: ㉠접시.

0.접세기를 씻는다.

0.접세기에다 반찬을 담는다.

접어치운다: ㉠접어치운다. ㉡하던 일을 중간에서 그만둔다.

0.안되는 일 접어치우고 새로 시작해.

접접이: ㉠겹겹이. ㉡여러 겹으로 거듭된 모양.

0.사람들이 접접이 둘러 싸인 곳에서 재주를 부린다.

접주우: ㉠겹바지.

0.어머니께서 접주우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린다.

접질군다: →잡질군다.

접치기: ㉠겹치기. ㉡두가지 이상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

0.일 주문이 접치기로 들어와서 이거 야단났네.

접치매: ㉠겹치마. ㉡겹으로 된 치마.

0.바람이 차지니 어머니께서 접치매를 꺼내 입으신다.

젓갈: ㉠젓갈. ㉡젓으로 담근 음식.

0.어시장에 가면 가지가지 젓갈이 있다.

0.젓갈 가게에 중이다.(자기와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을 쓸데없이 보고 있다는 말)

정갱이: →장갱이.

정겨웁다: ㉠정겹다. ㉡매우 다정하다.

0.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 매우 정겨웁다.

정기: ㉠전기.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

0. 농촌에 정기가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고 들어왔으니 60년대 말이지.

정깃줄: ㉠정깃줄. 전선.

0. 정깃줄에 제비가 나란히 앉았다.

정끼: ㉠정끼. ㉡아이가 놀라서 경풍을 일으키는 것.

0. 아이 놀래키지 마. 정끼한다.

정냥: →뒤간.

정내미(정니미): ㉠정내미. ㉡어떤 대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정.

0. 매정한 소리를 들으니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

정니미: →정내미.

정슴(정심. 즈슴. 즈심. 증슴. 증심):

㉠점심. ㉡낮에 끼니로 먹는 음식.

0. 정슴을 싸들고 나선다.(도와 주려고 정성과 열의를 다 한다. 발벗고 나선다)

정신깸: ㉡혼나는일.

0. 군기가 빠진 걸 보니 정신깸 한번 해야 되겠어.

정심: →정슴.

정재: →벽.

정지: →벽.

정한수: ㉠정화수. ㉡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정성을 드리는 일이나 약 달이는 데 씀.

0. 장독거리에 정한수를 떠 놓고 정성 들여 빈다.

젓가슴패기(젓가심. 젓가심패기):

㉠젓가슴. ㉡젓 언저리의 가슴.

0. 요즈음 처녀들은 젓가슴패기를 열어젓히고 다닌다.

젓가심: →젓가슴패기.

젓가심패기: →젓가슴패기.

젓따기: ㉠젓따기.

0. 젓따기를 할 때는 젓꼭지에 쓴 약을 바른다.

젓망울: ㉠젓망울. 유종. ㉡젓에 서는 망울.

0. 젓망울이 서서 젓이 아프다.

젓먹이: ㉠젓먹이. ㉡젓을 먹는 어린아이.

0. 젓먹이는 떼어놓고 장에 가나?

젓방살이: →젓방살이.

질에: ㉠질에.

0. 너무 맑게 놀면 질에 사람이 없지.

제: ㉠겨. ㉡벗과의 곡식을 쪼어 벗겨낸 껍질의 총칭.

0. 똥 묻은 개가 제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 큰 흥은 모르고 남의 작은 흥을 닷한다는 말)

0. 쌀 먹던 개는 안 걸리고 제 먹던 개는 걸린다.(큰 잘못을 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은 걸린다는 말)

제궁발(제김발): ㉠까치발. ㉡발뒤꿈치를 든 발.

0. 제궁발을 하고 걸어 봐.

제긴다: →절군다.

제김발: →제궁발.

제까닥: →테까닥.

제까진: ㉠제까진. ㉡겨우 저따위 정도의.

0. 제까진 게 머 가진 게 있어야지.
 제각: →데까닥.
제각제각: ㉠제격제격. ㉡일을 시원스레 빨리 해치우는 것.
 0. 일은 그때 그때 제각제각 해 치워야 돼.
제간엔: ㉢자기 단엔.
 0. 제간엔 그래도 잘한다고 한 게 그렇지.
 제꺼덕: →데까닥.
 제క్క: →데까닥.
제끌리는대루(지끌리는대루):
 ㉣제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0. 제끌리는대루 하게 내버려 놔둬.
제꿈씩(제꿈씩): ㉥제각기. 제가꿈씩.
 0. 제꿈씩 생각을 말해 봐.
 제꿈씩: →제꿈씩.
제깐다: ㉦젓힌다.
 0. 상추 잎을 제깐다.
제나불에(제나풀에. 지풀루): ㉧제풀에.
 제흔자. 저절로.
 0. 아기가 제나불에 깨어나게 놔둬.
 제나풀에: →제나불에.
제네: ㉨저네. ㉩저 사람들.
 0. 그 일은 제네들 하라 하지.
제눈에 앵경이다: ㉪제 눈에 안경이다.
 0. 제눈에 앵경이지. 다 자기에게 맞는 짝이 있는 거야.
제들끼리(지덜끼리. 지들끼리.
지들찌리): ㉫1. 자기들끼리.
 2. 저희들끼리.
 1. 자기들끼리.

0. 제들끼리 놀게 내버려 둬.
 2. 저희들끼리.
 0. 제들끼리 놀겠어요.
제따먹기(지따먹기): ㉬각자의 능력이나 수완에 따라 이익을 취하는 것.
 0. 그일은 각자가 제따먹기 식으로 한대.
 0. 협력하는 일 없이 제따먹기식이라.
제리가: ㉭저리가.
 0. 여기 말고 제리가.
제리제리한다: ㉮살이나 뼈마디가 오래 눌러 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감각이 둔하게 된다.
 0. 손을 짚고 있었다니 손바닥이 제리제리 한다.
 0. 오래 앉아 있었다니 다리가 제리제리 한다.
제린다: ㉯저린다. ㉰오줌이 본의 아니게 나온다.
 0. 아이 오줌 제릴라. 어서 오줌 놓겨라.
제마두(제마둥): ㉱저마다.
 0. 제마두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란을 간다.
제미: ㉲제비. ㉳여럿 가운데 하나를 골라잡기 해 무엇을 결정하는 방법.
 0. 승부가 나지 않거든 재미 뽑기를 해.
제baru 동상: ㉴제밀 동생. ㉵자기 바로 밑의 동생.
 0. 이 애는 제baru 동생이어요.
제발루: ㉶저절로.
 0. 아픈 다리가 제발루 낳았어.
제방뚝: ㉷제방.
 0. 제방뚝에 바람이 서늘하여 나셨다.

제비족: ㉠사교 춤쟁이.

0.밤에는 제비족이 유부녀와 놀아나지.

제심: ㉡제힘. ㉢자기의 힘.

0.그 큰 일을 제심으로 해치웠다.

제아덜눔(제아들눔): ㉣제까짓눔. 남을

얏잡아보고 하는 말.

0.제아덜눔이 그 일을 해내나?

제아들눔: →제아덜눔

제와(제워): ㉤겨워.

0.진중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제와
요것 밖에 못했어.

제워: →제와.

제적잡다: ㉥보통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0.하는 모양새가 제적잡다 했더니 결국
사고를 쳤구만.

제절로(지절로, 지절루): ㉦저절로.

1.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저 스스로.

0.강아지는 제절로 집을 찾아온다.

0.공부가 머 제절로 되는 줄 아니?

2.인공을 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0.뒷산의 소나무는 제절로 컸다.

제준다: ㉧지어준다.

0.애 이름을 제준다.

제집: →개와집.

제친다: ㉨젓힌다.

0.고개를 뒤로 제친다.

제펜: ㉩자기펜.

0.정치하는 사람은 제펜만 챙긴다.

제피나무(죄피나무, 최피나무):

㉪조피나무. 초피나무. ㉫운향과의 낙엽

활엽 관목. 어린 잎은 식용, 열매는

향신료, 또는 약용으로 씀.

0.꼭저구 매운탕에 제피나무 향이 제격
이다.

젠데냈네: →전데냈네.

젠빙이다: ㉬전혀 아니다.

0.귀가 젠빙이잖나.(전혀 안 들린다는
말)

젠준다: →전준다.

젠 지랄이다: ㉭전 지랄이다. 함부로

행동하 는 모양.

0.사달라는 운동화를 안사 줬더니 젠
지랄이다.

젯게진다: ㉮젓혀진다. ㉯뒤로 기우러
진다.

0.엷은 아이 목이 젯게진다.

조: ㉰주워.

0.쓰레기를 조.

조(조때기, 조쌍, 조또가리, 조또각):

㉱종이.

0.조를 접어서 비행기를 만든다.

조각지(조갑지, 조개비, 쪼갑지):

㉲조가비. 조개껍데기. ㉳두족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체류의 총칭. 또는
여성의 성기를 이룸.

0.조각지를 줍는다.

0.조각지도 좋은 장식품이 된다.

조갈긴다(조갈린다): ㉴갈긴다.

1.세계 때린다.

0.볼따구니를 조갈긴다.

2.후려쳐서 벤다.

0.나무 곁가지를 조갈긴다.

3.총을 마구 쏜다.

0.기관총을 조갈긴다.
 4.글씨를 마구 쓴다.
 0.글씨를 조갈겨서 잘 못 알아보겠다.
 5.오줌을 함부로 찐다.
 0.오줌을 조갈겨 눈다.
 조갈린다: →조갈긴다.
 조갑지: →조각지.
조개: ㉞조기. 조 곳.
 0.잠깐만 조개 가 있어.
 조개비: →조각지.
조결린다(조결린다): ㉞언어결린다.
 ㉸우연히 걸려든다.
 0.뺑소니치다 조결린다.
조계(조고, 조그, 조기): ㉞조것. 조것이.
 0.조계 자꾸 까불어.
 조고: →조계.
조군: ㉞교군. 가마꾼. ㉸가마를 매는 사람.
 0.영 밑에 있는 사람 조군 노릇 한다.
 (환경에 따라 일하게 된다는 말)
조군조군: ㉞조곤조곤. ㉸성질이나 말씨가 부드러운 모양새.
 0.설치지 말고 좀 조군조군 얘기해봐.
 조그: →조계.
조그맹이(쪄그맹이, 쪄맹이, 쪄그맹이, 쪄맹이): ㉸작은 아이.
 0.조그맹이도 조금 쪄라.
 조기: →조계.
조까지(조까진): ㉞조까짓. ㉸겨우 조그만 한 정도의.
 0.조까지 거 금방 하지머.
 조까진: →조까지.

조결린다: →조결린다.
조눔(조눔): ㉸조눔.
 0.조눔 좀 봐. 아주 당차네.
 조눔: →조눔.
조다: ㉞주워다.
 0.밤을 나무 밑에서 조다 먹었다.
조닥조닥: ㉞주렁주렁. ㉸열매가 밀집해 달린 모양.
 0.앵두가 조닥조닥 열렸다.
조담는다: ㉞쪄 담는다.
 0.감자를 바구니에 조담는다.
 0.콩 떨어진 거 조담는다.
조맹이(조둥아리, 주맹이): ㉞주둥이.
 주둥아리. 입버릇. ㉸입을 낮추어 부르는 말.
 1.주둥이.
 0.조맹이 가지고 좀 가만히 있어야.
 2.입버릇.
 0.주맹이가 싸서 큰 일이다.(입을 가볍게 놀려서 걱정된다는 말)
조맹이가 발다(주맹이가 발다): ㉸입이 짧다.
 0.조맹이가 발아서 머 먹어야지.
조맹이질(조둥아리질, 주맹이질, 주둥아리 질): ㉞주둥이질.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
 0.조맹이질 잘하는 사람, 믿을 게 없더라.
 조둥아리: →조맹이.
 조둥아리질: →조맹이질.
조들는다: ㉸언어듣는다. 주워듣는다.
 0.얘기를 어디서 잘도 조들는다.

조따구: ㉠저따위. ㉡저런 것을 얹잡아 부르는 말.

0. 조따구가 자꾸 덤빈다.

조매기: →조.

조때래 부신다(조세레부순다): ㉠때려 부순다. 마구 부순다.

0. 집안 살림을 조때래 부신다.

조때린다(조팬다. 쪼갈긴다. 쪼갈긴다): ㉠마구 때린다.

0. 소가 말 안 듣는다고 마구 조때린다.

0.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렇게 조때리면 어떻게 하나?

조뜯는다(조뜯는다): 쥐어뜯는다.

1. 단단히 쥐고 뜯어낸다.

0. 벽에 붙은 종이를 조뜯는다.

2. 가슴이 꼬집듯이 아프다.

0. 가슴을 조뜯는다.

조랭이; ㉠조리. ㉡쌀을 이는 기구.

0. 조릿대로 조랭이를 만든다.

조련찮다(죄랜찮다): ㉠여간 아니다.

보통이 아니고 대단하다.

0. 그런 일을 다하게. 조련찮네.

0. 선물을 보내는 마음 씩씩이가 조련찮다.

조막댕이(쪼막댕이): ㉠주먹만 한 것이.

0. 조막댕이만 한 게 까불어치네.

0. 조막댕이 시절엔 나도 그랬지.

조만저: ㉠저 먼저.

0. 조만저 봤는데 또 보네.

조맞는다: ㉠마구 맞는다

0. 강아지가 마구 조맞는다.

조매이(쪼매이): ㉠조금만.

0. 친구가 옛을 조매이 갈라 주었다.

조먹는다: ㉠주워 먹는다.

0. 익어 떨어진 밤을 조먹는다.

조물딱거린다(조물락거린다.

쪼물락거린다): ㉠조물락거린다. ㉡작은 손놀림으로 물건을 자꾸 주무른다.

0. 뭘 그리 조물딱거리기만 하고 있다.

조물락거린다: →조물딱거린다.

조미(죄미): ㉠쪼. ㉡나무쪼이나 수시렁쪼의 준말.

0. 조미가 옷을 값아 먹었다.

0. 조미 쭈신다. (마음이 들뜨거나 초조하여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말)

조박는다: ㉠쥐어박는다. 주먹으로 내지르듯이 때린다.

0. 우는 아기를 조박으니 점점 더 운다.

조삼킨다: ㉠마구 주워 먹는다.

0. 굵은 거지가 떡을 마구 조삼킨다.

조상눈: ㉠초겨울 산기슭 음지에 내린 눈으로 봄까지 녹지 않는 눈.

0. 첫눈이 내린다. 조상눈이 되겠다.

조상절: ㉠집게 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절을 만들.

0. 절이 없으면 조상절로 집어 먹지.

조선놈: ㉠한국인.

0. 일본놈들은 한국 사람을 조선놈이라 하며 괘시를 했지.

조선무우: ㉠박달 무. 단단한 무.

0. 조선무우로 채국을 끓이면 구수하다.

조생긴다: ㉠주워 건넨다.

0. 벼타작 하느라 벼단을 조생긴다.

조세레부순다: →조때래 부신다.

조앵긴다: ㉸마구 안긴다.

1.안긴다.

0.반갑다고 서로 조앵긴다.

2.마구 준다.

0.생일 선물을 조앵긴다.

조우(조이): ㉸조. 종이.

1.벚과의 한해살이풀. 오곡의 하나.

매조와 차조가 있다.

0.조우 밭에 김 매러 가자.

0.올해 조우 농사가 잘 되었다.

2.종이.

0.조우로 학을 접는다.

0.한지 조우로 연을 만든다.

조야: →조우.

조이밥: ㉸조밥.

0.조이밥에 감자를 터뜨리면 구수한 게
좋지.

조이씨: ㉸조의 씨.

0.농촌에선 조이씨를 선반 위에 걸어
보관한다.

조자리 난다: ㉸1.거덜 난다. 2.박살
난다.

1.거덜 난다.

0.그 좋던 살림이 투전하다 조자리
난다.

2.박살 난다.

0.비행기 폭격에 집이 조자리 난다.

조준구멍: ㉸가늌구멍. ㉸소총의 가늌자
위에 붙어있는 가는 구멍.

0.총은 조준구멍을 잘 맞춰야 돼.

조진다: →까조진다.

조짝에: ㉸조기에. 조 곳에.

0.조짝에 송이가 났다.

조짱: →조.

조쫂가리: →조.

조쫂각: →조.

조치운다: ㉸치운다.

1.물건을 옮긴다.

0.쓰레기를 조치운다.

2.시집 보낸다.

0.딸 하나 있는 거 조치운다.

조캐: ㉸조카. ㉸형제 자매의 자식.

0.조캐가 장가 간다.

0.조캐가 취직을 했다.

조캐뻘: ㉸조카뻘.

0.그 사람은 나한테 조캐뻘이 돼.

조탄다: ㉸얻어탄다.

0.장에 가는 우차에 조탄다.

조터진다: ㉸얻어맞는다.

0.말 안 듣다가 형한테 조터진다.

조뜯는다: →조뜯는다.

조괘다: →조매린다.

즐가리: ㉸작은 나뭇가지.

0.마른 즐가리로 불쏘시개를 한다.

즐군다: ㉸즐인다.

0.갓은 양념을 한 생선을 냄비에다
즐군다.

즐락: ㉸흠뻑.

0.소나기에 즐락 젖었다.

0.즐락 적은 옷은 아예 빨아라.

즐로리(즐루리, 쫂로리, 쫂루리):

㉸즐줄이. 나란히. ㉸줄 맞춰 놓는 것.

0.여기 줄 맞춰 즐로리 서 봐.

0.제비가 빨랫줄에 즐로리 앉았다.

졸른다(쫘른다. 쫘른다): ㉠조른다.

- 1. 감긴 것을 단단히 쫘다.
- 0. 하리디를 졸른다.
- 2. 끈덕지게 무엇을 요구한다.
- 0. 운동화 사달라고 자꾸 졸른다.

졸리킨다: ㉠졸린다.

- 0. 어제 많이 잤는데 또 졸리킨다.

졸맹이: ㉠쫘마. ㉠어린아이를 귀엽게 부르는 말.

- 0. 졸맹이도 같이 따라 왔구만.

졸업: ㉠숙달, ㉠익숙하고 통달함.

- 0. 그 기술은 이제 졸업했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죵체루(죵해서): 죵쳐림. 죵체. 여간해서.

- 0. 그 사람은 죵체루 화를 안내.

죵해서: →죵체루.

죵쌀: ㉠죵스럽다. 도량이 죵고 웅졸한 데가 있다.

- 0. 죵쌀에 뒥박 판다.(죵스럽게 논다는 말)

죵간나새끼: ㉠남자 아이를 낮추어 욕하는 말.

- 0. 죵간나새끼가 말을 안 들어.
- 0. 이 죵간나새끼, 왜 자꾸 싸우나.

죵고파리(죵곰파리): ㉠깨진 그릇 조각.

- 0. 그릇 깨진 죵고파리는 내다 버려라.
- 0. 죵고파리 가지고 우리 살림 놀자.

죵곰질: ㉠살림놀이.

- 0. 우리 죵고파리 가지고 죵곰질 할래?
- 0. 죵곰질 놀이는 어린 날의 추억이다.

죵곰파리: →죵고파리.

죵낙같이(죵락같이): ㉠노 드리듯.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모습.

- 0. 죵낙같이 쏟아지는 비에 눈을 못 뜨겠다.
- 0. 비가 온종일 죵락같이 쏟아지더니 홍수가 났다.

죵늬(죵늬): ㉠사내죵.

- 0. 죵늬 신세는 참으로 따분하겠다.

죵늬: →죵늬.

죵다리: ㉠장다리. ㉠무나 갓 등이 자라 꽃이 피는 것.

- 0. 무에 죵다리가 나왔다.
- 0. 죵다리 꽃에 나비가 앉았다.

죵다리끼: ㉠작은 광주리.

- 0. 죵다리끼, 이리 가져오나.
- 0. 죵다리끼에 팔씨를 담는다.

죵락같이: →죵낙같이.

죵자(죵재): ㉠남자 아이를 비하해 욕하는 말.

- 0. 요놈의 죵자, 왜 우리 복숭아 따갔어.

죵жат물: ㉠마죵물.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 기 위해서 붓는 물.

- 0. 펌프물도 죵жат물이 있어야 올라오지.

죵재: →죵자.

죵재기(죵지기): ㉠죵지. ㉠간장, 고추장 등을 담아 상에 놓는 중발보다 작은 그릇.

- 0. 죵재기에 기름간장을 담는다.
- 0. 양념장 죵재기를 상에 놓는다.

죵지고뱅이(죵지굽): ㉠무릎. ㉠정강이와 넓적다리 사이 있는 관절의 앞 쪽.

- 0. 죵지고뱅이가 부쩍 아파 걸음을 못 건졌다.

종지굽: →종지고뱅이.

종지가: →종재기.

종지끼: ㉠족집게. ㉡작은 털이나 가시를 뽑는 쇠로 된 작은 기구.

0.종지끼 이리 가져 온. 가시를 뽑자.

종친다: ㉢끝난다.

0.작장에서 어물대다보면 종친다.

죇 같은: →썩 같은.

죇 같은 새끼: ㉣남자 아이를 낮추어 욕하는 말.

0.죇 같은 새끼가 까분다.

0.죇 같은 새끼, 까불지 말아.

죇 같은 소리: →개 같은 소리.

죇 까는 소리(죇나발): ㉤건방진 소리.

잘난척하거나 주체넘은 소리.

0.죇까는 소리 하지 말아.

죇꼴리는대로: →꼴리는대로.

죇꼬텡이: ㉥죇 끝.

0.죇꼬텡이를 조심 하랬어.

죇끝발: ㉦막판 꺾발.

0.죇끝발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니.

죇나게: ㉧실컷. 마음껏. 흠뻑.

0.골목 깡패한테 죇나게 터진다.

죇나발: →죇까는 소리.

죇대가리(죇방멩이): ㉨귀두. ㉩음경의 끝 부분.

0.죇대가리 휘두르지 말아.

0.죇대가리 함부로 써먹지 말아.

죇된다: ㉪영망된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된다.

0.선거에 지면 죇된다.

죇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죇두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0.죇두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죇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죇두 황이다: ㉭헛일이다.

0.꺾발이 영 꺾발이라 죇두 황이다.

죇만하다: ㉮작다. 조그마하다.

0.죇만한 건 저리 꺼져.

죇방멩이: →죇대가리.

죇빠진다: ㉯애먹는다.

0.그 일 마치자면 죇빠진다.

0.죇빠지게 일해 봤자 남는 건 없어.

좌부침: ㉺초다짐. ㉻본 식사 전에 간단히 먹음.

0.좌부침 술에 취한다.

좌빨: ㉼좌익 빨갱이. 공산주의자.

0.좌빨에 몰들면 헤어날 수 없는가 봐.

죄그망큼(죄그망큼. 죄맹큼):

㉽조그만큼. ㉾매우 적은 정도.

0.소금 죄그망큼만 주세요.

죄기: ㉿죄기. ㊀데친 나물의 한 줌.

0.나물 한 죄기 가져다 무친다.

죄긴다: ㊁조긴다. ㊂낮이나 칼로 내려친다.

0.나무가지를 내리 죄긴다.

죄꿈(죄꿈. 죄만큼. 죄맨치. 죄맨큼.

죄꿈): ㊃조금. 조금. ㊄매우 적은 정도.

0.빵 죄꿈만 쥐.

0.사정을 해서 빵조각을 죄꿈 얻어먹는다.

죄꿈: →죄꿈.

죄끼: ㊅조끼.

0.추워서 죄끼를 받쳐 입는다.

죄뜯는다(죄뜯는다): ㊆죄어뜯는다.

㉞손에 단단히 넣고 뜯어낸다.

0.갈비를 입에 물고 죄뜯는다.

죄랜찮다: →조런찮다.

죄만큼: →죄꿈.

죄맨치: →죄꿈.

죄맨큼: →죄꿈.

죄미: →조미.

죄미죄미: ㉞줍줍. 죄암죄암. ㉞젓먹이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0.할머니가 손자 앞에서 '죄미죄미' 시범을 보인다.

죄박는다(쥐박는다): ㉞쥐어박는다.

㉞주먹 으로 내려치듯 때린다.

0.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죄박는다.

죄석: ㉞조석. 조반.

1.조석.(아침과 저녁)

0.참새가 죄석으로 날아들더니 오늘은 좀 뜸하네.

2.조반.(아침밥) 0.죄석 드셨습니까?(옛날 어려운 시절에 이웃 어른께 아침에 하던 인사)

죄운다: ㉞조인다.

0.나사를 죄운다.

죄좁부리(주점부리. 쥐전부리):

㉞주전부리. 군것질.

㉞군음식을 때없이 자꾸 먹는 버릇.

0.애들 죄좁부리 할 거리를 만들자.

0.죄좁부리를 자주하면 살이 찐다.

죄진다: ㉞조진다.

1.짜임새가 느슨하지 않게 단단히 맞춘다.

0.문틀을 죄져 맞춘다.

2.일이나 말이 허술하지 않게 단단히

단속 한다.

0.비밀이 세지 않게 단단히 죄져놓는다.

3.호되게 때린다.

0.잘 못한 것에 대해 단단히 죄진다.

4.자기 몸이나 일 등을 망친다.

0.신세를 죄진다.

죄짠다(쥐짠다): 몹시 짠다.

1.비틀거나 눌러 물기나 기름을 뺀다.

0.빨래를 죄짠다.

2.생각을 억지로 나오게 한다.

0.묘안을 죄짠다.

3.운다.

0.눈물을 죄짠다.

4.인색하다.

0.구두쇠는 없는 살림도 죄짠다.

죄피나무: →제피나무.

죄(췌): ㉞췌. 주인.

0.'이댁에 췌 있소?'

죄장(췌장): ㉞주인장. ㉞집주인을 예사높힌 말.

0.죄장께서는 편하시오?

죄일: →온죄일.

주(주우): ㉞1.주우. 2.바지.

1.주우.

0.그거 필요 없거든 날 주.

2.바지.

0.어머니께서 밀가루 포대로 내 주를 지어 주셨다.

주궁개: ㉞주근개. ㉞얼굴에 생기는 잔점.

0.그 처녀는 얼굴에 주궁개가 있어.

0.주궁개가 있으면 어때. 마음이 착하면

되지.

주켤(줄켤): ㉠줄 것이다.

0.장난감을 조금만 가지고 놀다 주켤.

주텡이: →조댕이.

주텡이가 발다: →조댕이가 발다.

주텡이질: →조댕이질.

주둥아리질: →조댕이질.

주드나?: ㉡주더나?

0.이 누룽지를 엄마가 주드나?

주래: ㉢버들피리. ㉣버들가지 껍질로 만든 피리.

0.봄철 목동은 버드나무로 주래를 틀어 피리를 분다.

주래: ㉤주리. ㉥죄인의 다리를 묶고 주릿대 를 끼워 비틀던 형벌.

0.옛날엔 죄인에게 주래를 틀었다.

주랴?(주야?): ㉦주래?

0.간식 줌 주랴?

0.부침개 해 주랴?

0.용돈 줌 주랴?

주럽든다(주릅든다. 주릅든다):

㉧주접든다. ㉨옷차림이 초라하거나 쇠약해지는 상태.

0.자꾸 움츠리면 주럽든다.

주레끼고(주레찌고. 주리끼고):

㉩겨드랑이에 끼고.

0.아이를 겨드랑이에 주레끼고 젖을 먹인다.

0.날이 드니 우산을 주레끼고 간다.

주레찌고: →주레끼고.

주루먹(주루메기. 주루묵): ㉪등에 지는 옛날 배낭.

0.주루먹을 걸머지고 먼 길을 떠난다.

주루메기: →주루먹.

주루묵: →주루먹.

주름: ㉫주름.

1.피부의 잔금.

0.얼굴에 주름이 생기네.

2.천, 종이의 구김살.

0.치마에 주름이 잘 잡혔다.

주릅든다: →주럽든다.

주릅든다: →주럽든다.

주리끼고: →주레끼고.

주머이: ㉬주머니. ㉭물품 등을 넣을 수 있는 것.

1.물품을 넣어 허리에 차거나 들고 다니는 물건.

0.도시락 주머이를 잘 들고 가.

2.옷의 한 부분에 형질을 덧대어 소지품 따위를 넣는 부분.

0.주머이에 손을 넣고 다니지 말아라. 넘어질 때 위험하다.

0.주머이가 가볍다.(가지고 있는 돈이 적다)

0.주머이 끈을 졸라맨다.(돈을 몹시 아껴 절약한다)

0.주머이를 툴다.(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있는 대로 내놓는다)

3.무엇이 유난히 많은 사람의 비유.

0.고생 주머이를 찼다.(고생을 많이 하게 생겼다)

주목구구: ㉮주먹구구. ㉯손가락으로 세거나 어렵짐작으로 하는 계산.

0.주목구구로 세 봐도 그거는 넘겠다.

주목코: ㉠주먹코. ㉡뭉뚝하고 크게 생긴 코.

0.그 사람 코는 주목코야.

주물군다(쭈물군다): ㉠주무른다.

0.할아버지 아픈 다리를 주물군다.

주민서: ㉠주면서.

0.할머니께서 알사탕을 주민서 머리를 쓰다듬어주신다.

주벤(주벤머리. 쥐벤머리): ㉠일을 주선 하거나 변통함.

0.그 사람은 주벤이 있어. 융통성 있게 잘 할거야.

주벤머리: →주벤.

주새: ㉠주사. ㉡술에 취해 하는 못된 행동.

0.그 사람 주새가 있어. 조심해.

주셨다: ㉠주었다.

0.버려진 휴지를 주셨다.

0.길에서 지갑을 주셨다.

주실이 든다: ㉠주눅이 든다. ㉡기운을 퍼지 못하고 움츠러든다.

0.요새 감기에 걸려서 주실이 든다.

0.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주실이 든다.

주야?: →주랴?

주야장창: ㉠주야장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잇달아.

0.주야장창 한가지 일만 해 왔지.

주어듣는다: ㉠주워듣는다. ㉡귓결에 한마디 씩 얻어듣는다.

0.어디서 주어들은 풍월이야.

주우: →주.

주전재(쥐전자. 쥐전재): ㉠주전자.

㉡술이나 물을 담는 그릇.

0.주전재 들고가서 할아버지 막걸리 받아 오너라.

주점부리: →죄점부리.

주태백이: ㉠1.술꾼. 2.주정꾼.

1.술꾼. 그 사람 주태백이야. 술 좋아해.

2.주정꾼. 그 사람 주태백이야. 주사가 있어.

죽떠먹은 자리다: ㉠흔적이 없다.

0.연못 고기 낚아봤자 죽떠먹은 자리다.

0.바닷고기 낚아야 죽떠먹은 자리지머.

죽썰다: ㉠잘 안됐다.

0.장사하다 그만 죽썰다.

죽에빠린다(죽에뿌린다): ㉠죽여버린다.

0.자꾸 까붙면 죽에빠린다.

죽에뿌린다: →죽에빠린다.

죽여준다(죽인다. 쥐게준다. 쥐긴다):

㉠그만이다.

0.곡마단이 왔는데 재주가 죽여준다.

죽은 아 자지 까보기다: ㉠소용없다.

0.이제 와서 후회해 봤자 죽은 아 자지 까보기지머.

죽을똥 싣다: ㉠애 먹는다.

0.그 일을 맡아 하느라고 죽을똥 싣다.

죽을 맛이다: ㉠죽을 지경이다.

0.그 일을 다 하자니 죽을 맛이다.

죽이 맞는다: →반죽이 맞는다.

죽인다: →죽여준다.

죽자사자(죽자살자): ㉠죽을 둥 살 둥.

0.죽자사자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헤어져?

죽자살자: →죽자사자.

죽재: ㉠겨. ㉡벼를 찧을 때 나온 부드러운 가루.

- 0. 죽재를 퍼오너라. 여물에 넣자.
- 0. 죽재는 소가 잘 먹는다.

죽쟁이(쪽쟁이, 쪽쟁이): ㉠쪽쟁이.

㉡겉질만 있고 속에 알이 들지 않은 곡식 등의 열매.

- 0. 벼가 필 때 바람이 심하게 불면 죽쟁이가 생긴다.

- 0. 잘못하면 죽쟁이 농사를 짓는다.

줄과부: ㉠떼과부. ㉡한꺼번에 많이 생긴 과부들.

- 0. 태풍이 불어서 어촌 마을에 줄과부 생겼대.

줄군다(줄군다. 쫄군다. 쫄인다):

㉠줄인다.

- 1. 줄게한다.
- 0. 옷을 줄군다.
- 0. 지출을 줄군다.
- 2. 말이나 글 끝에 그만 마친다는 뜻으로 하는 말.
- 0.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급니다.

줄겐: →주겐.

줄댕기: ㉠줄다리기. ㉡줄을 마주 잡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 0. 운동회날 줄댕기기를 해서 우리편이 이겼다.

줄라나?: ㉡주러나?

- 0. 월사금을 오늘은 줄라나?

줄루리: →줄로리.

줄창: ㉠줄곧. 늘. 항상.

- 0. 난 줄창 여기서 일했어.

줄군다: →줄군다.

줏는다: ㉠줍는다.

- 0. 밤나무 밑에서 알밤을 줏는다.
- 0. 산에가 도토리를 줏는다.

줏어담는다: ㉡주워 담는다.

- 0. 흘러 떨어진 감자를 줏어담는다.

줏어먹는다: ㉡주워 먹는다.

- 0. 떨어진 밤을 줏어먹는다.

중간치기: ㉠1. 새치기. 2. 중간치.

1. 새치기.

- 0. 줄 썼는데 중간치기 하면 쓰나.

2. 중간치.

- 0. 복숭아 중간치기로 하나 주세요.

중늘걱다리(중늘갱이): ㉠중늑은이.

중노인.

- 0. 중늘걱다리가 되면 사방이 아파오지.

중늘갱이: →중늘걱다리.

중대가리(중머리): ㉠대머리. ㉡머리털이

빠져 벗겨진 머리.

- 0. 머리털이 다 빠져 중대가리가 됐어.

중대이(중댕이, 중도맹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것.

- 0. 비가 와서 일하다 중대이쳤다.

- 0. 중대이 친 일은 이튿날 이어 해야지.

중댕이: →중대이.

중도맹이: →중대이.

중매쟁이(중신애미, 중신애비, 친애비):

㉠중매인. ㉡결혼 상대를 맞춰주는 사람.

- 0. 중매쟁이 잘 서면 술이 석잔이요,

잘못서면 뺨이 석대라.

중머리: →중대가리.

중신애미: →중매쟁이.

중신애비: →중매쟁이.

중중거린다: ㉞중얼거린다. ㉟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혼잣말을 자꾸한다.

0.일이 마음에 안 드는지 혼자 중중거린다.

중치: →맹치.

쥐기: ㉞움큼.

0.물에 담가 놓은 나물을 한 쥐기 건져 무친다.

쥐준다: ㉞쥐준다.

0.할머니가 손자 언 손을 꼭 쥐준다.

쥐질른다: ㉞쥐박는다. 쥐지른다.

0.아기가 운다고 쥐질른다.

쥐짤다: ㉞쥐어짤다. ㉟아끼고 또 아긴다.

0.그렇게 쥐짜기만 한다고 머 뽀족한 수가 있나?

췌: →견.

췌떡: ㉞췌떡. 안주인.

0.췌떡이 감자를 주어서 잘 먹는다.

췌으런(췌을신네. 췌으런. 췌을신네):

㉟주인 어른의 높임 말.

0.췌으런께 인사 드려라.

췌을신네: →췌으런.

췌장: →견장.

췌일: →온정일.

췌일투룩: ㉞중일투룩.

0.오늘은 하로 췌일투룩 일을 했네.

쥐게뿐다: ㉞죽여버린다.

0.자꾸 까불면 쥐게뿐다.

0.너 말 안들으면 쥐게뿐다.

쥐게준다: →죽여준다.

쥐고기: ㉞쥐치고기.

0.쥐고기는 회거리로 좋다.

쥐긴다: →죽여준다.

쥐꼬리: ㉟기대보다 아주 적은 양.

0.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자꾸 하라 그래.

쥐내린다: ㉟과로로 허벅지, 정강이 등에 근육이 멍쳐 아픈 현상.

0.과로했더니 다리에 쥐가 내린다.

0.자다가 허벅지에 쥐가 내렸다.

쥐똥구영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쥐똥구영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쥐똥도 아니다: ㉟아무것도 아니다. 보잘 것 없다.

0.소문만 야단스럽게 냈지 실은 쥐똥도 아니다.

쥐똥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쥐똥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쥐뜯는다: →죄뜯는다.

쥐방구리만하다(쥐새끼만하다. 쥐쫓

마하다): ㉞쥐방울만하다. 조그마하다.

0.꼭 쥐방구리만한 게 잘 놀아.

쥐벤머리: →주벤.

쥐불알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쥐불알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쥐뿔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쥐뿔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쥐새끼만하다: →쥐방구리만하다.

쥐썩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쥐썩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쥐잡아먹고: ㉟입술연지 바르고.

0.옆집 새새떡이 쥐잡아먹고 장에 간다.

쥐저앉는다: ㉞주저앉는다.

0.소풍가서 모두 잔디밭 위에
 쥐저앉았다.
 쥐전부리: →죄좀부리.
 쥐전자: →주전재.
 쥐전재: →주전재.
쥐정: ㉠주정. ㉡술에 취해 정신없이
 말하거나 행동함.
 0.술이 취해 쥐정 부리는 곁에는 피하는
 게 상책.
쥐정뱅이: ㉠주정배기. 주정뱅이.
 ㉡술먹고 주정을 부리는 사람.
 0.그 사람 주정뱅이야. 술 같이 못먹어.
 쥐쫓두 몰라: →개불알두 몰라.
 쥐쫓두 없다: →개불알두 없다.
 쥐쫓마하다: →쥐방구리만하다.
 쥐짠다: →죄짠다.
쥐창지: ㉠쥐 창자.
 0.쥐가 쥐틀에 걸려 쥐창지가 빠져
 나왔다.
쥐치포: ㉠쥐치포. ㉡쥐치를 말린 어포.
 0.쥐치포는 말린 술안주로 제격이다.
쥐케산다: ㉠쥐여산다. ㉡억눌려 기를
 펴지 못하고 산다.
 0.마누라한테 쥐케살면 고달퍼.
쥐케준다: ㉠쥐여준다.
 0.어머니께서 막내에게 누룽지를 쥐케
 준다.
쥐틀: ㉠쥐덧. ㉡쥐를 잡는 기구.
 0.쥐틀에 쥐가 끼었다.
쥐인다: ㉠죽인다.
 1.죽인다.
 0.채소에 약을 쳐 벌레를 쥐인다.

2.기분이 좋다.
 0.곡마단에서 얼마나 웃기는지 사람을
 찍인다.
 권애비: →중매쟁이.
 권으런: →웬으런.
 권을신네: →웬으런.
줬다놔다: ㉠쥐락펴락. ㉡남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모양.
 0.그 사람은 동네 사람을 줬다놔다 해.
즈가(즈그가): ㉠1.자기네가. 2.저희가.
 1.자기네가.
 0.그건 즈가 알아서 하겠지머.
 2.저희가.
 0.그건 즈가 알아서 하겠어요.
 즈그가: →즈가.
즈그나믄: ㉠웬만하면.
 0.즈그나믄 그 선에서 흥정 하지머.
즈그네(즈네): ㉠자기네.
 0.즈그네는 잘 있겠지?
즈꺼: ㉠1.자기네 것. 2.저희 것.
 1.자기네 것.
 0.이 고기가 즈꺼야. 가져가.
 2.저희 것.
 0.이 고기는 즈꺼래요.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즈끼리: →저찌리.
 즈네: →즈그네.
즈덜(즈들): ㉠1.자기네들. 2.저희들.
 1.자기네들.
 0.즈덜이 그 일을 해?
 2.저희들.
 0.즈덜이 그 일을 맡아 하겠어요.

즈덜찌리(즈들찌리): ㉠1. 자기네들끼리.

2. 저희들끼리.

1. 자기네들끼리.

0. 즈덜찌리니 잘 놀겠지머.

2. 저희들끼리.

0. 즈들찌리 잘 놀겠어요.

즈들: →즈덜.

즈들찌리: →즈덜찌리.

즈쪽: ㉠1. 자기네 쪽. 2. 저희 쪽.

1. 자기네 쪽.

0. 즈쪽은 몇 명이야.

2. 저희 쪽.

0. 즈쪽은 몇 명 안돼요.

즈찌리: →저찌리.

즉다(씩다. 쪽다): ㉠1. 적다. 2. 작다.

1. 수가 적다.

0. 우리 쪽은 사람 수가 즉다.

2. 양이 작다.

0. 형 키가 더 즉다.

즉슨: ㉠즉. 곧. ㉡다시 말하여.

0. 내가 말한 즉슨 함께 하겠다는
말이네.

즉어두: ㉠적어도.

1. 최소한도로.

0. 그 일은 즉어두 열흘은 걸리겠다.

2. 그런대로.

0. 즉어두 용돈은 넣고 다녀야지.

3. 낮게 평가하여도.

0. 즉어두 그가 사기꾼은 아니야.

즉어진다: ㉠적어진다.

0. 쌀이 자꾸 즉어진다.

즉은놈: ㉠작은아들.

0. 우리집 즉은놈이야.

즉은마누라(즉은마누래): ㉠첩. 소실.

㉡본처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

0. 즉은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즉은마누래: →즉은 마누라.

즉은아: ㉠작은아이. ㉡첫째가 아닌

아들과 딸.

0. 우리집 즉은아일세.

즉은아덜래: ㉠작은 애들네.

0. 즉은아덜래는 잘 있는지 모르겠다.

즉은집: ㉠첩의 집.

0. 즉은집이 있나? 혼자 남계.

즉잡다: ㉠적잡다. 상당하다.

0. 그 양이 즉잡은 양일세

즌: ㉠1. 자기들은. 2. 저희는.

1. 자기들은.

0. 즌 뭐했는데.

0. 즌 머 잘 했어?

2. 저희는.

0. 즌 그 일을 아직 못 했어요.

즌기(증기): ㉠전기.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

1. 흐르는 전기.

0. 우리 나라는 즌기 사정이 좋다.

2. 정전기.

0. 손가락을 옷에 대면 ‘반짝’하고 즌기가
일어난다.

즌당포: ㉠전당포. ㉡물건을 잡고 돈을

꾸어주는 가게.

0. 즌당포엔 왜 갔어.

즌방: ㉠가겏방. ㉡가게를 차려놓은 방.

0. 존방 문 닫을라. 얼른 가 봐라.
 0. 존방에서 아이스케이크를 사들고 나산다.
 존사: → 전사.
존안: ㉠전안.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위에 올려놓고 절하는 예.
 0. 신랑이 존안 드린다. 어디 보자.
존쟁: ㉠전쟁. ㉡국가 간의 교전. 단체 싸움.
 1. 국가 간의 교전.
 0. 제3차 존쟁이 일어나면 안 돼.
 2. 단체 싸움.
 0. 아래 윗동네가 서로 이기겠다고 존쟁 이야.
존합지: ㉠전합지. ㉡테두리가 있는 합지.
 0. 존합지에 떡이 가득 담겼다.
존화: ㉠전화.
 0. 농촌에 존화가 들어온 것은 1980년대 이후가 되지.
 즐는다: → 절는다.
줍다: ㉠줍다.
 0. 나이 적은 사람이 아무래도 줍지.
 줍슴: → 정슴.
 줍심: → 정슴.
줍잡다: ㉠점잡다. ㉡몸가짐이 의젓하고 고상하다.
 0. 줍잡은 사람 보고 괜히 말하지 마.
줏는다: ㉠'젓다', '젓는다'에서 온 말.
 1. 휘둘러 쥘는다.
 0. 죽을 쥘는다.
 2. 노를 움직인다.

0. 배를 움직이려고 노를 쥘는다.
 3. 손이나 머리를 흔든다.
 0. 싫다고 손을 내 쥘는다.
 4. 팔을 일정하게 움직인다.
 0. 달리면서 팔을 쥘는다.
증: ㉠정. 기어코.
 0. 거기에 증 안 간다면 나래도 가야지.
 증기: → 증기.
증내미: ㉠정내미. ㉡애착을 가지는 정.
 0. 그 사람이 말하면 증내미가 푹 떨어진다.
증말(징말):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한 말.
 0. 지금 한 말이 증말이야?
 0. 그럼 증말이지. 거짓말 할까봐?
 증슴: → 정슴.
증슴나절(증심나절): ㉠정심 나절. 정심 무렵.
 0. 증슴나절에 보세.
 증심: → 정슴.
 증심나절: → 증슴나절.
증펜: ㉠증편. ㉡발효시켜 쥘 떡.
 0. 증펜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난다.
증한 일: ㉠정한 일.
 0. 부모가 증한 일인데 거역 하겠어?
지: ㉠자기. 제.
 1. 그 사람 자신.
 0. 지 일은 지가 알아서 처리한다.
 2. 앞에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말.
 0. 그는 지 주장을 끝까지 관철 시킨다.
지가꿈(지가꿈): ㉠제가꿈.

0.자, 오늘 일은 각자 지가꿈 알아서 해.
지가꿈: →지가꿈.

지가 멀 아너: ㉠제가 뭘 아나.

0.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가 멀
어너.

지각각: ㉠제각각. ㉡모두 각각.

0.노는 가락이 모두 지각각이야.

지게목동발: ㉠지게 다리.

0.지게목동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지게작디기: ㉠지게 작대기.

0.지게작디기를 짚고 일어난다.

지고른다(지골른다): ㉠너무 고르다

오히려 잘못 고른다.

0.너무 고르면 지고르지.

0.괜히 지고르지 말고 대충 골라.

지관: ㉠제관. ㉡제사에 참례하는 사람.

0.가을 시제에 지관이 많이 모였다.

지굼(지꿈. 지꿈): ㉠지금.

0.할머니 빨리 오시세요. 어, 지굼 간다
그래.

지기(지기랄. 지기미): ㉠제기랄.

㉡언짱을 때에 불편스럽게 내뱉는 소리.

0.지기, 그 일은 왜 한대.

0.지기, 그런건 안해도 되건만...

지기랄: →지기.

지기미: →지기.

지까지까: ㉠제까지 것이. 겨우 저따위
정도의 것이.

0.지까지까 아무리 해 봐야 새발에
피야.

지까진 놈(지간 놈): ㉠제까지 놈. 겨우
저 정도의 사람.

0.지끼진 놈이 그 일을 해 내?

0.지까진 놈은 어림도 없다.

지간 놈: →지까진 놈.

지꺼: ㉠자기 것.

0.이 연필은 지꺼야.

0.지꺼와 남의 것은 분명히 한다.

지풀리는대루: →제풀리는대루

지꿈: →지굼.

지꿈: →지굼.

지꿈깼: ㉠지금 것. 지금껏.

1.지금 것.

0.지금 깼 내 것이야.

2.지금껏:

0.지금껏 한 얘기는 안 들었어?

지끼다: ㉠자기 것이다.

0.이건 지끼다.

지끼리: →저찌리.

지나블루(지물에. 지풀에): ㉠제풀로.

㉡저 혼자 저절로.

0.아기가 지나블루 떨어져 노네.

0.주정하다가 지나블루 녹아떨어졌네.

지날짜: ㉠제날짜. ㉡정한 날짜.

0.지날짜에 잘 왔네.

지내간 버스 손들기: ㉠소용없다.

0.시험장에 지각하면 지내간 버스
손들기야.

지내당긴다: ㉠지나다닌다.

0.늘 그집 앞을 지내당긴다.

지넌가실에: ㉠지난 가을에.

0.지넌가실엔 송이를 많이 뺏지.

지낙에: →저낙에.

지네들: ㉠1.저네들. 2.저희들.

1.저네들:
0.저네들끼리 밥 먹겠지며.

2.저희들:
0.저네들끼리 밥 먹겠어요.

지네바리: ㉠한옥 천장에 가로지른
가름대.
0.천장의 지네바리가 지네발처럼 느껴져
있다.

지녁에: →저녁에.

지눔은: ㉠제 늬은.
0.지눔은 머 잘 했어.

지누아리: ㉠세모가사리. ㉠바닷가 바위에
붙어 자라는 갈색 해조류.
0.지누아리 무침이 맛이 좋다.
0.지누아리 장아찌는 깊은 맛이 난다.

지느래미: ㉠지느러미. ㉠물고기나 물에
사는 포유류의 운동기관.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데 쓰는 기관임.
0.참돔 지느래미엔 가시가 세다.
0.메기 지느래미엔 가시가 없어 좋다.

지눔아: →저년아.

지다랗다(지다마하다. 지드마하다):
㉠길다랗다.
0.지게 끈이 지다랗다.

지다린다(지두른다. 지두린다):
㉠기다린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란다.
0.장에 가신 아빠가 돌아오실 땐
지다린다.

지다마하다: →지다랗다.

지대로(지대루): ㉠제대로.
0.일을 배울 땐 지대로 배워야 한다.

지대루: →지대로.

지댄다: ㉠기댄다.
0.그 사람한테 함부로 지대지 마.
0.지뎠 사람이 따로 있지.

지덜끼리: →제들끼리.

지두른다: →지다린다.

지두린다: →지다린다.

지둥: ㉠기둥.
1.건축물에서 주춧돌 위에 세워 보, 도리
따위를 받치는 나무.
0.지둥을 치면 들보가 운다.(직접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으로 던지시
말하여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말)
2.책상, 식탁 등을 떠받치는 기둥.
0.상다리 지둥이 예쁘다.
3.어떤 물건을 떠받치는 나무.
0.천막 지둥을 단쳐라.
4.의지가 될 만한 사람의 비유.
0.어린이는 장래 이나라의 지둥이다.

지둥사내(지둥서방): ㉠기둥서방.
㉠기생이 나 창기의 영업을 돌봐주면서
얻어먹고 사는 사내.
0.그 사람, 술집 지둥사내야.

지둥서방: →지둥사내.

지드마하다: →지다랗다.

지들끼리: →제들끼리.

지들찌리: →제들끼리.

지따구가(지따우가): ㉠제 따위가.
0.지따구가 뭘 안다고 까불어.
0.지따구가 뭘 줘 아나?

지따먹기: →제따먹기.

지따우가: →지따구가.

지판엔: ㉠제 판엔. 자기 판엔.

0.지판엔 그래도 미안스러워서 그러잖나.

지때: ㉠제때. ㉡알맞은 때.

0.점심이 지때 오누만.

지랄배기(지랄뱅이): ㉠지랄쟁이.

㉡잡스럽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0.그 애 지랄배기야. 함부로 건드리지마.

0.지랄배기가 떠나니 속이 시원하다.

지랄뱅이: →지랄배기.

지래: ㉠지라. 비장.

0.소 지래로 몸보신을 한다.

지랭이(찌랭이. 찌렁이): ㉠지렁이. 지룡.

토룡. ㉡지렁이 목, 환형동물의 총칭.

한약재로도 쓰인다.

0.지랭이는 흙속의 양분을 걸러먹고 산다.

0.지랭이가 사는 땅은 건강한 땅이다.

0.지랭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반항한다 는 말)

지력지: →기래기.

지렁: ㉠간장. ㉡음식의 간을 맞추는

흑갈색 의 즙.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 것을 달여 만드는데 몹시 짜다.

0.반찬에 지렁을 쳐 간을 맞춘다.

0.부침개를 지렁에 찍어 먹는다.

지레기: →기래기.

지름: ㉠기름.

1.물보다 가볍고 불을 붙이면 잘 타는 액체.

0.지름은 맛이 고소하다.

2.기계의 움직임은 부드럽게 하려고 마찰

부분에 치는 액체.

0.재봉틀 바퀴에 지름을 쳐야겠다.

0.우차 바퀴에 지름을 친다.

3.연료로 쓰는 액체.

0.석유 지름을 사 오너라.

0.불난 데 지름 붓기.(잘 못된 일에 더 가중 시킨다는 말)

4.얼굴이나 살갓에서 나오는 미끈미끈한 액체.

0.얼굴에 지름이 번지르르하다.

5.생물체의 지방

0.배안에 지름이 졌다.

6.기름을 짠다.

0.지름을 짠다.(착취한다. 버스 안이 비좁다)

7.기름을 친다.

0.지름을 친다.(뇌물을 써서 일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지름값: ㉠기름값. ㉡급행요금. 뇌물을

주면 일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말.

0.지름값을 주면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때도 있었지.

지름발: ㉠기름발. ㉡뇌물발. 뇌물의 효과.

0.지름발 받으면 안 되는 게 없지.

지름종아리: ㉠기름종개. ㉡기름종갯과의

민물고기. 하천 맑은 물 모래 속에 산다.

0.천렵 가서 지름종아리 많이 훔았어.

지름지다: ㉠기름지다.

1.음식에 기름기가 많다.

0.고등어가 지름지다.

2.땅이 걸다.

0. 지름진 땅에는 곡식이 잘 된다.

지름질: ㉠기름질. ㉡기름으로 요리하는 일.

0. 명절에는 집집마다 지름질이라.

0. 지름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하나 내 갈곳은 어디 인고...

지리하다: ㉠지루하다.

0. 들은 얘기를 또 듣자니 지리하다.

지마다: ㉠저마다. ㉡사람 또는 사물마다.

0. 사람이나 사물이나 지마다 특색은 다 가지고 있어.

지막하다(지만하다. 찌막하다. 찌만하다): ㉠그칠만하다.

0.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좀 지막하다.

0. 함박눈이 쏟아지더니 이젠 좀 지막하구 나.

지만하다: →지막하다.

지맥으로: ㉠제 스스로.

0. 그 사람 지맥으로 자수성가했어.

지멋대루: ㉠제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0. 그 앤 지멋대루 커서 버릇이 없어.

지무신다: ㉠주무신다.

0. 아버지 지무신다. 조용해라.

지물예: →지나블루.

지미: ㉠싫어하는 어투.

0. 지미, 그 일은 왜 한 대.

0. 지미, 제발 좀 그래 쫓으면 좋겠어.

지바람: ㉠제바람.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생긴 일.

0. 토끼가 졸다가 지바람에 놀라 달아난다 지.

지발: ㉠제발. ㉡간절히 바라건대.

0. 지발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

0. 지발 덕분에.(은혜나 도움을 간절히 바라건대)

지발루: ㉠저절로.

0. 고양이가 지발루 들어왔어.

지법이다: ㉠제법이다.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

0. 애 글씨가 지법이다.

지붕계: ㉠지붕에.

0. 야! 저 닭이 지붕계 올라갔다.

지사: ㉠제사.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는 의식.

0. 일가가 모여 지사를 지낸다.

0. 지사를 지낼 때는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

지서요?: ㉠계서요?

0. 안에 주인장 지서요?

지선: ㉠즉시. 곧. 바로.

0. 집에 가는 지선 전화해라.

0. 집에 오는 지선 일하러 나갔다.

지수: ㉠제수. ㉡남동생 부인 .

0. 지수 씨가 음식 솜씨가 좋다.

지슬가리: ㉠가. 가장자리.

0. 파치 감자는 지슬가리다 내 뇌라.

지시랑: ㉠기스락. ㉡비탈진 곳의 가장자리 나 처마 끝에 물 떨어지는 곳.

0. 지시랑 물에 옷 젖을라.

0. 지시랑 물에 돌이 파인다.(작은 일일지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룬다는 말)

지신거린다: ㉠기웃거린다.

0.아이들이 음식하는데 와서 지신거린다.

지심: ㉠제힘. ㉡자기의 힘.

0.지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곧잘 풀어.

지아들 놀이: ㉠제놀이.

0.지아들 놀이 아무리 뛰어봤자 그 사람을 따라가나.

지아무리(지암만): ㉠제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해도.

0.지아무리 뛰어도 나를 따라오지는 못한다.

지암만: →지아무리.

지애미: ㉠자기 어머니.

0.딸은 지애미 닮아서 음식 솜씨가 있어.

지애비: ㉠남편. 자기 아버지.

1.남편.

0.지애비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어렵게 산다우.

2.자기 아버지.

0.지애비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우.

지약애: →저낙애.

지역: ㉠징역. ㉡감옥생활을 하는 형벌.

0.남의 물건을 훔치면 지역 산대.

지역애: →저낙애.

지역쟁기: →저낙쟁기.

지와: ㉠지위.

1.글씨, 그림 흔적 따위를 보이지 않게 없앤다.

0.틀린 글자는 지와.

0.잘 때는 화장을 지와.

2.생각이나 기억을 없앤다.

0.나쁜 기억들은 지와버래.

3.감정이나 표정 따위를 사라지게 한다.

0.감정을 갖지 말고 지와.

4.제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0.아이를 그만 지왔다.

5.많은 분량 중에서 일부를 던다.

0.그릇의 물을 좀 지와.

6.짐 등을 지게 한다.

0.짐을 한짐 가득 지와.

7.빛을 지게 한다.

0.빛을 잔뜩 지와.

8.책임을 말도록 한다.

0.그에게 책임을 지와.

지와잡: →재잡.

지우뚱거린다: →자우뚱거린다.

지울: ㉠기울. ㉡밀이나 귀리 따위의

가루를 쳐내고 남은 속껍질.

0.밀방아를 찼으면 지울이 나온다.

0.지울은 뒹다가 닭 모이하자.

0.지울을 퍼다가 쇠여물 끓이는 데에 넣어라.

지울다(찌울다): ㉠기울다.

0.소 길마 짐이 좀 지울다. 바로 잡아라.

지웃거린다(지웃지웃한다):

㉠기웃거린다. 기웃기웃한다.

0.아는 사람이 혹시 있나, 지웃거린다.

0.음식 먹는데 지웃거리지 마.

지웃지웃한다: →지웃거린다.

지자리: ㉠제자리. ㉡본디 있던 자리.

0.일을 한다는 게 만날 지자릴세.

지자하다: ㉠약자하다. 떠들썩하다.

0.사람들이 반회 하러 모여서 지자하다.

지장: ㉠기장.

- 1. 벼과의 한해살이풀. 수수와 비슷한 곡류로 이삭은 가을에 익음.
- 0. 지장 쌀 찢어서 지장떡 해먹자.
- 0. 지장 쌀 부스러기는 닭이나 쥐라.
- 2. 옷의 길이.
- 0. 옷의 지장이 길다.
- 0. 치마 지장이 짧다.

지저구(지저귀): ㉠지저귀. ㉡어린 아기의 대소변을 받아내기 위하여 다리 사이에 채우는 천이나 종이.

- 0. 아기 오줌 샀다. 지저구 갈아줘라.

지저귀: →지저구.

지저부레하다: ㉠지저분하다.

- 1. 깨끗하지 못하다.
- 0. 입은 옷이 지저부레하다.
- 2. 어수선하고 더럽다.
- 0. 마루바닥이 지저부레하다.
- 3. 말과 행동이 더럽다.
- 0. 그 사람 소행이 좀 지저부레해.

지절로: →제절로.

지절루: →제절로.

지정: ㉠논밭을 얻어 부치는 댓가.

- 0. 그 논 얻어 부치는데 지정이 얼마래?
- 0. 논 얼마지기 얻어 부치는데 지정이 쌀 다섯 가마니래.

지정신: ㉠제정신. ㉡자기 정신.

- 0. 자네 지금 지정신으로 말하는 거야.

지주제에: ㉠제주제에.

- 0. 지주제에 말이나 똑바로 할 수 있다.

지즈바: →기집애.

지집애: →기집애.

지지개: ㉠기지개. ㉡피곤을 덜기 위해 팔다리를 쭉 펴는 일.

- 0. 팔다리를 쭉뻗어 지지개를 편다.
- 0. 한바탕 늘어지게 지지개를 켜다.

지지구볶는다(찌지구볶는다):

- ㉠요란스럽게 싸운다.
- 0. 그 집은 만날 지지구볶는다.
- 0. 지지구볶는 집에 머 남아나는 게 있겠어?

지지미: ㉠부침개. ㉡기름에 부쳐서 만든 빈대떡.

- 0. 지지미는 막걸리 안주로 좋지.

지지마: →지즈바.

지지편편하다(찌지편편하다. 찌지하다. 찌질하다. 찌찌하다. 치치편편하다):

- ㉠질편하다. 지질편편하다. ㉡땅이 약간 질고 편편하다.
- 0. 길이 지지편편하다. 조심해 던져라.
- 0. 얼음이 녹아 지지편편해진 곳을 피해 밟는다.

지지하다: ㉠보잘 것 없다. 물끼가 있다.

- 1. 보잘 것 없다.
- 0. 물건이 지지하다.
- 2. 물끼가 있다.
- 0. 물이 묻어 지지하다. 만지지 마.

지질거린다: ㉠찢끔거린다. ㉡비가 오락가락 한다.

- 0. 장마철이라 날씨가 지질거린다.

지질군다: ㉠물에 젖어서 더럽힌다.

- 0. 비오는데 자꾸 지질구지 말아라.

지질쿤다: ㉠눌러놓는다.

- 0. 초두부를 지질쿤다.

0.콩단이 날아갈까바 잘 지질쿤다.

지집년: ㉠계집년.

0.지집년이 행실이 발라야지.

지집질: ㉠계집질.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하는 일.

0.지집질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나.

지짜(지치): ㉠제짜. ㉡자기 짜.

0.고무신도 지짜이 있다는데 노총각은 언제 짜을 찾을까.

지짜리: →저짜리.

지청: ㉠제청. ㉡제사를 지내는 대청.

0.지청을 만들고 제를 올린다.

지차: →지짜.

지치레기: ㉡좋은 것을 고르고 남은 것.

0.자두가 지치레기만 남았구나.

0.감자 지치레기는 썩히자.

지침: ㉠기침.

0.감기에 걸렸더니 지침이 자꾸 난다.

지케: ㉠지켜.

1.재산,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살핀다.

0.열 사람이 지케도 도둑하나 못당한다. (아무리 조심하고 감시해도 불시에 생기는 불행은 막기 어려움의 비유)

2.눈여겨 감시한다.

0.과수원을 잘 지케.

3.어떤 상태나 태도 따위를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

0.건강을 잘 지케.

4.약속, 법령 등을 준수한다. 0.규칙을 잘 지케.

0.질서를 잘 지케.

지쿤다: ㉡지게한다.

0.무거운 짐은 소에 지쿤다.

지팽이: ㉠지팡이.

0.지팽이를 짚으면 걷기가 한결 쉽다.

지펜(지편): ㉠자기편.

0.지펜 들어주면 누구나 좋아하지.

지편: →지펜.

지푸다(짚다): ㉠짚다.

1.겉에서 속까지 거리가 멀다.

0.우물이 무척 지푸다.

2.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

0.학문에 조예가 지푸다.

3.생각이 꼭차고 신중하다.

0.생각이 지푸다.

4.사권 정분이 두텁다.

0.정이 지푸게 들었다.

5.시간이 오래 지났다.

0.밤이 지꿨다.

0.농사 지은 역사가 지푸다.

지푸락지(지푸래기): ㉠지푸라기. ㉡짚의 날개. 또는 짚의 부스러기.

0.지푸락지 같은 꼬나풀이라도 있어야 붙들재.

0.물에 빠진 사람, 지푸락지라도 잡는다. (어려움에 빠지면 하찮은 도움이라도 원한다)

지푸래기: →지푸락지.

지풀루: →제나불에.

지풀에: →지나불루.

지풀집: ㉠초가집.

0.지풀집은 해마다 지붕을 새로 해

덮어야 한다. 짚이 썩으니까.

지훈자(지훈재): ㉸저 혼자.

0. 일을 지훈자 하겠다거든 봐 뒤라.

지훈재: →지훈자.

직빵으로: ㉸곧바로.

1. 바로. 즉시.

0. 감기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직빵으로 나타난다.

2. 곧은 방향으로.

0. 그리로 가면 직빵으로 뺨은 길이 나온다.

3.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0. 학교를 졸업하고 직빵으로 군대에 갔다.

4. 바로 가까이.

0. 길 모퉁이를 돌면 직빵으로 가게가 있다.

~직에: ㉸~적에. ~때에.

0. 밥 먹을 직에 말하지 마.

0. 일할 직에 얘기하지 마.

진: ㉸진. 자기는.

1. 진.

0. 진 끈으로 묶어라.

0. 진 막대를 가져오너라.

2. 자기는.

0. 진 머 안그랬어?

0. 진 잘하는 것처럼.

진갈비(진눈개비): ㉸진눈개비. ㉸비가

섞여 내리는 눈.

0. 진갈비는 맥없이 금방 녹는다.

진고니(진공이): ㉸기어코. 끝내. 드디어.

1. 끝내.

0. 진고니 울음을 안 그칠래?

2. 드디어.

0. 말 안 듣더니 진고니 일냈구나.

진공이: →진고니.

진군다(짐군다. 징군다): ㉸지닌다. 간직한다.

0. 주머니에 돈을 단단히 진군다.

진근하게: ㉸근근하게.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0. 진근하게 잘 해 냈네.

진기: ㉸진 것이.

0. 진기 까불어.

진눈개비: →진갈비.

진댕이(찐땡이): ㉸진짜. ㉸원액을 가리킴.

0. 머루주가 진댕이야.

0. 과일주는 진댕이랴야 맛이 나와.

진답다: ㉸찐답다. ㉸흐뭇하고 만족스럽다.

0. 그 사람은 마음이 진답다.

진데기: →으녕이.

진두: →으녕이.

진등: ㉸진등. ㉸언덕 위의 긴 등성이.

0. 진등 너머에 감자밭이 있다.

0. 동호리에 있는 진등을 닦아 비행장을 만들었다.

진땅만땅(진창만창): ㉸진탕만탕.

홍청망청.

1. 마음껏 즐길.

0. 진땅만땅 놓고 마신다.

2. 마음껏 씹.

0. 돈을 진땅만땅 쓰고 돌아다닌다.

진력이 난다: ㉸온 힘을 다했으니 싫증이

난다.

0.그 일 얘기만 해도 이제 진력이 난다.

진배웁다: ㉠진배없다. ㉡다를 것이 없다.

0.회식에 못가서 미안한데 먹은 바나
진배웁다.

진생이: ㉠천치. 바보. ㉡좁 모자라는 사람.

0.진생이처럼 왜 그러니?

0.진생이도 저 살 복은 타고 난단다.

진서리: ㉠된서리. ㉡늦가을에 아주 되게

내리는 서리.

0.늦가을이 되니 진서리가 눈이 부시
도록 내렸다.

진소매(진팔): ㉠긴 소매.

0.날씨가 차지니 진소매 옷을 꺼내
입는다.

진조밥 났다: ㉡박살났다.

0.태풍에 헛간이 날아가 진조밥 났다.

진칭일: →온칭일.

진칭일: →온칭일.

진진밤: ㉠긴긴밤.

0.동짓달 진진밤을 한가운데 베어내어
서리서리 두었다가 정든님 오신날
굽이 굽이 펼치리라.(황진이)

진창만창: →진땅만땅.

진출맥을 댄다: ㉡안간힘을 다한다.

0.보리타작을 비 오기전에 다 하느라
진출맥을 댄다.

진컬(진쿠렁, 진쿠렁이, 진탕): ㉠진창.

㉡질퍽한 땅.

0.진컬 밟을라. 조심해라.

진쿠렁: →진컬.

진쿠렁이: →진컬.

진탕: →진컬.

진팔: →진소매.

질¹: ㉠두레. ㉡농번기에 서로 협력하여
일하기 위해 만든 조직.

0.반사람이 모여 모내기 질을 짠다.

0.모내기 질 차례가 빨리 돌아왔다.

질²: ㉠길.

1.사람, 짐승, 배, 차, 비행기 등이 오고
가는 길.

0.질이 어긋난다.(오가는 길이 각각
달라서 서로 만나지 못한다)

0.질을 재촉한다.(서둘러 빨리 가려한다)

2.어떤 목적지로 가는 노정.

0.질을 간다.(목적지를 향해 간다)

3.어떤 .방법이나 수단.

0.먹고 살 질이 없다.(도리나 방법이
없다)

0.질을 뚫는다.(방법을 찾아낸다)

0.질이 열린다.(해결 방도가 생겨난다)

0.질을 두고 메로 간다.(편리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곳으로
간다는 말)

0.질로 가라 하니까 메로 간다.(남의
지시 를 듣지 않거나 명령을 어긴다는
말)

4.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

0.학교가 끝나는 질로 서점에 들렀다.

5.물건, 품질의 등급.

0.이것은 윗질이요, 저것은 아랫질이다.

6.길이 단위, 사람 키 정도 길이.

0.열질 물속은 알아도 한질 사람 속은
모른다.(물속은 헤아려 볼 수 있어도

사람 속은 헤아릴 수 없다는 말)

질가(질까, 질깁): ㉠질. 질가.
 0. 질가에 흰 민들레가 피었다.
 0. 질가에 질경이가 지천이다.
 0. 신작로는 질가로 다녀라.

질가집(질강집, 질깁집): ㉠질가집.
 ㉡질가에 있는 집.
 0. 질가집은 자동차 소리에 요란하다.

질강집: →질가집.

질거: ㉡오히려. 빨리.
 0. 햇볕을 쬐면 피부는 질거 늙는다.
 0. 편안히 앉아 놀면 질거 죽는다.

질거지: ㉠버릇. ㉡몸에 익어버린 행동.
 0. 술먹고 주정 부리거든 질거지를 확
 들어 놔.

질거지를 들인다: ㉡나쁜 행동을 고친다.
 0. 까불거든 질거지를 들어 놔.

질겁령한다: ㉠질겁한다. ㉡자지러지게
 놀란다.
 0. 그만 놀고 집에 가자니 질겁령한다.

질게: ㉠질게.
 0. 막대를 질게 자른다.

질과들인다(질귀들인다): ㉡적셔들인다.
 물기를 문혀 들인다.
 0. 비 오는데 자꾸 질과들이지 마. 빨래
 하기 귀찮다.
 0. 아이들은 그저 질과들이기만 한다.

질군다; ㉡기른다. 젓게 한다.
 1. 기른다.
 0. 누나가 머리를 기다랗게 질군다.
 0. 콩나물을 질군다.
 2. 젓게 한다.

0. 비 오는데 신을 질군다.
 질귀들인다: →질과들인다

질그릇: ㉠질그릇. ㉡진흙을 빚어 구운
 그릇.
 0.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

질금: ㉠엿기름.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을
 틔운 다음 말린 것. 엿과 식혜를 만드는
 데 씀.
 0. 질금 가루로 식혜를 만든다.
 0. 질금 가루로 엿을 만든다.

질긴다: ㉠즐긴다.
 0. 노할아버지께서는 약주를 질기신다.

질까: →질가.

질깁: →질가.

질깁집: →질가집.

질나이: ㉡같이 튼 사람.
 0. 그 사람 화투 질나이야.
 0. 저 사람은 소매치기 질나이야.

질눈: ㉠질눈. ㉡길을 찾아가는 눈썰미.
 0. 질눈이 밝은 사람은 집을 잘 찾지.

질다: ㉠질다.
 1. 물체의 두 끝이 멀리 떨어져 있다.
 0. 머리칼이 질다.
 0. 질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안다. (대소,
 승패, 우열은 실제로 겨루어 보아야
 안다)
 2. 시간이 오래다.
 0. 학교 역사가 질다.
 3. 글이나 말 따위가 분량이 많다.
 0. 질고 진 옛날 얘기를 해 주셨다.
 4. 소리, 한숨 따위가 오래 계속된다.
 0. 한숨을 질게 내신다.

질동무: ㉠길동무. ㉡같은 길을 가는

사람.

- 0. 질동무 해서 재를 함께 넘세.
- 0. 질동무가 있으면 빨리 가지는 못하나 멀리 갈 수 있단다.

질들인다: ㉠길들인다.

- 1. 물건에 손질을 잘 하여 생기는 윤기.
- 0. 연장을 질들인다.
- 2. 짐승을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된 버릇.
- 0. 소를 질들인다.
- 3. 익숙해진 솜씨.
- 0. 일에 차츰 질들인다.

질래: ㉠1.미리. 2.오래.

- 1.미리.
- 0. 씨름을 할 때 질래 겁먹지 말아야 돼.
- 2.오래.
- 0. 그 일을 질래 할지 모르겠네.

질레버린다: ㉠질레버린다.

- 1. 놀라거나 두려워서 기가 막히거나 풀이 꺾인다.
- 0. 사나운 개에 질레버린다.
- 0. 얼굴이 새파랗게 질레버린다.
- 2. 어떤 일이나 음식 따위에 싫증이 난다.
- 0. 밀가루 음식에 질레버린다.
- 0. 공부하란 소리에 질레버린다.
- 3. 예상보다 많이 어긋나 놀란다. 물건 값에 질레버린다.

질른다: ㉠1.기른다. 2.넣는다. 3.자른다.

- 4.~6.지른다.
- 1.기른다.
- 0. 우리집에서는 소를 질른다.

2.넣는다.

- 0. 술에 약을 질른다.
- 0. 화투판에 돈을 질른다.
- 3.자른다.
- 0. 들깨 순을 질른다.
- 0. 고구마 순을 질른다.
- 4. 불을 지른다.
- 0. 군인들이 집에 불을 질른다.(6.25전쟁 때 이야기)
- 5. 소리 지른다.
- 0. 큰소리로 고향을 질른다.
- 6. 화를 지른다.
- 0. 뺨을 질른다.

질매: ㉠길매.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게 하려고 소의 등에 얹는 안장.

- 0. 소등에 질매를 지운다.
- 0. 질매 무서워 소 드러누울까.(1.남의 일에 부질없이 걱정함을 이르는 말.
- 2. 어떤 일을 당하여 힘이 부족할까 두려워 한다는 말)

질먹이: ㉠농사일이 끝나고 그동안 수고한 일꾼들에게 하루 대접하는 일.

- 0. 동네에선 질먹이하느라 일꾼들이 모여 야단법석이다.

질모랭이(질모텡이): ㉠길모통이. ㉡길이 구부러져 돌아간 자리.

- 0. 그 질모랭이에 점방이 하나 있지.

질모텡이: →질모랭이.

질목: ㉠길목. ㉡길의 어귀.

- 0. 쥐가 다니는 질목에다 쥐틀을 놓는다.

질바닥: →길깁.

질방끈(질빵끈): ㉠짚어지는 끈.

- 0. 질방끈이 느슨하다.
- 0. 질방끈이 느슨하면 짐이 무거워진다.

질손: ㉠길손. 길동무.

- 0. 질손이 있으면 걸기가 수월하지.

질쌈: ㉠길쌈.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

- 0. 옛날 엄마들은 질쌈을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 0. 삼베를 밤새 삼아야지, 실타래를 만들어 야지, 잣물을 내 빨아야지, 베틀에 앉아 베를 짜야지, 천으로 옷을 만들어야지. 옛날 엄마들은 질쌈 하느라 백배 천배 일을 했다.

- 0. 질쌈해 만든 천을 팔아 아이들 학교도 보냈지.

질알금: ㉠결혼하고 신랑이 떡, 술, 안주 등을 해가지고 신부집에 가는 첫길. 이날 저녁에 신랑은 동네 청년들에게 처녀를 빼앗아간 죄로 달리키고 대접한다.

- 0. 신랑이 질알금 왔다.
- 0. 질알금 달아 먹으러 가세.

질이: →기래기.

질잡이: ㉠길잡이. ㉠길을 안내 해주는 사람.

- 0. 초행 길은 질잡이가 있으면 쉽

질주름하다(질쭈하다. 찌다마하다.

찌닿다. 찼쭈름하다. 찼쭈하다.

찼쭈하다): ㉠길쭈하다.

- 0. 오이가 질주름하게 잘 커.

질쭈하다: →질주름하다.

질진다(질찼다): ㉠뒤진다.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남보다 뒤떨어진다.

- 0. 강아지 새끼가 자라는 것이 이놈은 좀 질진다.

질질이: ㉠길질이. ㉠성이나서

- 노발대발하는 모양,
- 0. 무슨 얘길 들었는지, 질질이 날똥다.
- 0. 질질이 뛰지만 말고 얘기해봐.

질찼다: →질진다.

짐: 김.

1. 논밭에 나는 잡풀.
 - 0. 콩밭에 짐매기 지났더라, 얼른 매야겠다.
2. 바다에 나는 해조류 김.
 - 0. 바다 짐은 우리나라 것이 최고야.
3.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영긴 작은 물방울.
 - 0. 안경에 짐이 서린다.
4. 액체가 열을 받아 기체로 변한 것.
 - 0. 밥솥에서 짐이 난다.
 - 0. 짐 안나는 승냥이 뜨겁다. (공연히 떠벌리는 사람보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더 무겁고 야무지다)
5. 맥주나 청량음료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나 그 기운.
 - 0. 짐빠진 맥주다.
 - 0. 짐빠지게 그런 소린 왜 하나.
6. 어떤 일의 기회나 그 바람.
 - 0. 가는 짐에 작은택에 들려 가거라.

짐가: ㉠김 씨.

- 0. 제 성은 짐가입니다.

짐가: ㉠김 씨.

0. 가는 짐에 작은택에 들려 가거라.

짐가: ㉠김 씨.

- 0. 제 성은 짐가입니다.

짐군다: →진군다.

짐매기: ㉠김매기.

0. 요즘 농촌에선 감자밭 짐매기가 한창이 다.

0. 조밭 짐매기는 조와 풀이 비슷하여 가장 어렵다.

짐맥: ㉠진맥. ㉡손목의 맥을 짚어보아 병을 진찰함.

0. 짐맥을 잘 하는 용한 의원이 있다는데..

짐빠진다(짐샌다): ㉠김샌다. ㉡의욕을 잃는다.

0. 짐빠지게 그런 얘기는 왜 해?

짐샌다: →짐빠진다.

~**짐에:** ㉠~김에. ㉡하던 차에. 연속해서.

0. 내친 짐에 아주 다 해버리지 머.

0. 하던 짐에 그것까지 다 했다.

짐장: ㉠김장.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 따위를 한꺼번에 많이 담가 두는 일.

0. 짐장 무와 배추를 심는다.

0. 가을 짐장을 담근다.

짐치: ㉠김치. 짠지. ㉡무, 배추 따위를 소금에 절인 다음 고춧가루, 파, 마늘, 젓갈 따위의 양념을 넣어 버무린 뒤 발효 시킨 반찬.

0. 가을 짐치를 담근다.

0. 짐치가 맛이 들었다.

짐칫돌: ㉠김칫돌. ㉡김칫독 안에 김치를 눌러 놓는 돌.

0. 김칫독에 짐칫돌을 눌러 놓고 덮개를 덮는다.

집께: ㉠집 부근에.

0. 우리 집께는 소나무가 많다.

집난이: ㉠시집간 딸을 이르는 말.

0. 그 집 집난이가 친정에 왔다.

0. 집난이 신수가 괜찮더냐?

집니다: ㉠집니다.

0. 그 일을 한 사람은 바로 집니다.

집더미(집덩이, 집데미, 집뎡이):

㉠집채. ㉡집의 한 채.

0. 차가 집더미 만한 게 지나가더라.

집덩이: →집더미.

집데미: →집더미.

집뎡이: →집더미.

집문세: ㉠집문서.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

0. 옆집 아저씨가 투전하다 집문세까지 잡혀먹었다.

집자리: ㉠집터. 택지.

0. 집자리를 잘 잡아야 부자가 된다.

집지킴이: ㉠업구렁이. ㉡집안에서 복을 보살핀다는 구렁이.

0. 집지킴이가 나오거든 건들지 말아야 한다.(나가면 복이 나가기 때문임)

집짐성: ㉠집짐승. 가축.

0. 집짐성도 키워야 살림이 늘재.

짓구뎡(짓구뎡): ㉠짓고뎡. ㉡화투 석장으로 무대를 만들고 두장으로 꽃수를 가리는 투전 놀음.

0. 짓구 장뎡이다. 내가 먹었다.

짓구뎡: →짓구뎡.

짓구쟁이: ㉠개구쟁이. ㉡지나치게 짓궂은 장난을 하는 아이.

0. 그 애는 짓구쟁이야.

짓눌룬다(짓눌룬다): ㉠짓누룬다. ㉡마구 누룬다.

1.마음을.
 0.마음을 짓눌루니 기를 펴겠나?
 2.짐을.
 0.나뭇단을 짓눌러 묶는다.
 짓눌룬다: →짓눌룬다.
짓다: ㉞1.지나다. 2.집다.
 1.지나다.
 0.밭의 김매기가 짓더라.
 2.모를 집다.
 0.고추 모종이 죽은 자리를 짓는다.
짓씹고 땡긴다: ㉠나쁜 얘기 하면서
 다난다.
 0.남을 짓씹고 땡긴다.
짓짜분다: ㉠마구 부순다.
 0.왜 화가 났는 지, 집안 살림을
 짓짜분다.
짓쪼른다: ㉠매우 조른다.
 0.운동화 사 달라고 짓쪼른다.
짓쪼다: ㉠마구 욱한다.
 0.혼자 앉아 뭐라고 짓쪼다.
 징군다: →진군다.
 징말: →증말.
증맹세(징맹세): ㉞증명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0.전쟁때는 증명세가 있어야 어디
 다녔지.
 징맹세: →증맹세.
 짚다: →지푸다.
짚북데미(짚북세기. 짚북세미):
 ㉞짚북데미. ㉠아무렇게나 엉클어진 짚
 뭉텅이.
 0.닭이 짚북데미를 파헤치며 난알을

콜라 먹는다.
 짚북세기: →짚북세미.
 짚북세미: →짚북세미.
짚세기(짚세기. 짚시기): ㉞짚신.
 ㉠뿔짚으로 삼은 신.
 0.짚세기도 짚이 있다.(보잘 것 없는
 사람도 배필이 있다는 말)
 0.짚세기도 제날이 좋다.(자기와 같은
 정도의 사람끼리 짚을 맺음이 좋다는
 말)
 0.짚세기를 거꾸로 신는다.(반가운
 사람을 맞으려고 허둥지둥 뛰어나가는
 경우의 비유)
 0.짚세기도 뒤집어 신는다.(몹시
 인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짚속하게: ㉞짚속하게.
 0.쌀독이 짚속하게 내려간다.
 짚시기: →짚세기.
 짚세기: →짚세기.
짚이: ㉞짚이.
 0.열길 물 속 짚이는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
짜가리: ㉞짜가리. ㉠1.여자를 비하해
 하는 말. 2.쪼개진 조각.
 1.여자 비하.
 0.애 뭐 났어. 짜가리야.
 2.쪼개진 조각.
 0.콩 짜가리도 나누어 먹는다.
짜갑: ㉞뜸새.
 0.저 바위 짜갑에 소나무 자란 것 좀
 봐.
짜굽다: ㉞짜다.

1.소금 맛이 있다.

0.썸바귀 장아찌가 무척 짜겁다.

2.마음에 넉넉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0.그 사람은 짜겁다.

짜그럭거린다(째그럭거린다): ㉠짜그락거린다. ㉡짜그럭거린다. ㉢하찮은 일로 자꾸 다룬다.

0.형제간에 짜그럭거린다.

짜는 소리: ㉣우는 소리.

0.옛날 졸업식 땀 짜는 소리가 많이 들렸 지.(상급학교 진학하는 학생이 적었으니 까 서러워서...)

짜다(째들이다): ㉤인색하다.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지나침.

0.사람이 너무 짜다.

짜드러져: ㉦쪼그라져. ㉧쭈그러져.

1.눌리거나 우그러져서 그부피가 작아진다.

0.냄비가 짜드러져 우구러든다.

2.살이 빠져서 쭈굴쭈굴해진다.

0.여름 햇볕에 얼굴이 짜드러져 쭈굴쭈굴 하다.

0.살기 힘든 세월에 짜드러져서 단단해졌 다.

짜들배기: ㉨급경사진 메마른 땅.

0.짜들배기 밭이 있대야 농사도 잘 안되고...

짜들어 크다: →마지게 크다

짜른다(째른다): ㉩자른다.

1.끓는다.

0.툭으로 나무 토막을 짜른다.

2.해고한다.

0.회사에서 사원을 짜른다.

짜리몽땅하다(짜리몽탕하다.

짜달막하다): ㉪작달막하다. ㉫키가 몸집에 비해 작다.

0.그 사람 키가 짜리몽땅하다.

0.짜리몽땅해도 일만 잘하면 됐지.

짜리몽탕하다: →짜리몽땅하다.

짜리하다(째리하다): ㉬짜릿하다.

0.술을 한 잔 마시니 뱃속이 짜리하다.

짜부러진다(찌부러진다): ㉭눌리켜 무너져내 린다.

1.물품 가리가 무너진다.

0.검불 짐이 짜부러진다.

2.재산이 무너진다.

0.아들이 탕진하여 그집 재산이 짜부러진 다.

짜우똥(찌우똥): ㉮가우똥.

0.마음에 안 드는지 고개를 짜우똥 한다.

짜장면: ㉯자장면. ㉺볶아 비빔 중국 음식 국수.

0.짜장면은 언제 먹어도 맛이 있어.

짜집기: ㉻짜집기. ㉼직물의 찢어진 데를 흠집 없이 본디 대로 짜집기.

0.바지 찢어진 데를 같은 천을 대고 짜집기를 한다.

짜트래기: →자트래기.

짜: ㉽쪽. 편.

1.서로 갈라지거나 맞서는 것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말.

0.그 짝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2.한 줄로 고르게 이어진 모양.

- 0.길이 짝 뻗어있다.
 - 3.고르게 늘어서거나 벌여있는 모양
 - 0.방석을 짝 깔아놓아라.
 - 4.곧게 펴거나 든 모양.
 - 0.아기 다리를 짝 편다.
 - 5.줄이나 금을 곧게 긋는다.
 - 0.줄을 곧게 짝 긋는다.
 - 6.높낮이가 없이 한결같은 모양.
 - 0.짝 고르게 성적이 나왔다.
 - 7.물 따위를 단숨에 들이 마시는 모양.
 - 0.우유를 짝 들이마신다.
 - 8.좁은 공간을 한눈에 훑어보는 모양
 - 0.주위를 짝 훑어본다.
 - 9.한꺼번에 벗겨지거나 훑거나 갈라지는 모양.
 - 0.대를 짝 가른다.
 - 10.땀이 솟거나 살이 빠지는 모양.
 - 0.땀이 짝 솟는다.
 - 11.종이, 천 따위를 찢는 모양.
 - 0.옷감을 짝 찢는다.
- 짝궁:** ㉠단짝. ㉡서로 뜻이 맞거나 친해서 늘 함께 어울리는 사람.
0.네 짝궁은 누구인고.
- 짝눈까리:** ㉠짝눈. ㉡짝짝이 눈.
0.짝눈까리 될까바 걱정이다.
- 짝다:** ㉠작다.
- 1.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보통보다 더 덜하다.
 - 0.키 짝은 사람은 앞에 서시오.
 - 0.짝은 고추가 더 맵다.(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야무지다)
 - 2.정해진 크기에 모자라 맞지 않다.

- 0.옷감의 치수가 짝다.
 - 3.규모, 정도, 중요성 따위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 0.짝은 힘이라도 보냈으면 한다.
 - 4.사람 됨이나 생각 따위가 좁고 보잘 것없다.
 - 0.그릇이 짝은 사람이야.
 - 0.그 사람은 통이 짝다.
 - 5.소리가 낮거나 약하다.
 - 0.목소리가 짝다.
 - 6.액수가 적거나 단위가 낮다.
 - 0.짝은 돈이지만은 받아라.
 - 0.짝게 먹고 가는 똥 눈다.(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편하다)
- 짝달막하다: →짜리몽땅하다.
짝때기: →작디기.
- 짝불알(토성불알):** ㉠토산불알. ㉡한쪽이 특히 커진 불알.
0.짝불알이면 어때. 불알만 있으면 되지.
- 짝절:** ㉠짝 젓가락.
0.상에 짝절을 놓을라.
- 짝짜구(짝째기):** ㉠짝짜이. ㉡다른 짝하고 맞춰진 한 벌.
0.양말을 짝짜구로 신었다.
0.저 사람은 양눈이 짝짜구야.
- 짝째기: →짝짜구.
짠돌이다: →짜다.
짠득: →잔득.
~짠소: →~잔소.
~짠우: →~잔소.
짠하다: →에짠하다.
- 짤르다:** ㉠짧다,

0. 길이가 짧르다.

0. 공부가 좀 짧르다.

0. 노력이 좀 짧르다.

짧르다: →짜르다.

짧순이: ㉠구두쇠. 자린고비. ㉡인색한 여자.

0. 저 여잔 짧순이야.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

짧으다: ㉠짧다.

0. 길이가 좀 짧으다.

짧만하다(짹짹하다): ㉠만만하다.

㉡마음대로 대할 만하다.

0. 아직하고는 팔씨름은 누구하고도 짹만 하다.

짹짹하다: →짹짹하다.

짹자름하다(짹자름하다): ㉠짹짹하다.

㉡짹기가 있다.

0. 말린 미역이 짹자름하다.

0. 장아찌가 짹자름하다.

짹자름하다: →짹자름하다.

짹구머리: ㉠짹구. ㉡이마나 뒷통수가 유난히 튀어나온 사람.

0. 짹구머리가 공부를 곧잘 해.

짹꼴라: ㉠중국어.

0. 짹꼴라는 돈에 대해서 무서워.

짹대: ㉠장대. ㉡대나 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

0. 빨래 짹대로 빨래줄을 고인다.

0. 대나무 짹대로 밤을 띤다.

짹돌: ㉡자갈보다 큰 돌.

0. 짹돌 던지기 내기하자.

0. 짹돌로 물돌을 내리쳐 물고기를

잡는다.

짹아찌: ㉠장아찌. ㉡무, 오이, 마늘 따위를 썰어 말려서 간장에 졸이거나 된장, 고추장에 박았다가 꺼내 양념을 해서 묵혀 두고 먹는 반찬.

0. 마늘 짹아찌를 담는다.

0. 송이를 짹아찌 박는다.

짹이다: ㉡최고다.

0. 그 애는 우리 편에서 짹이다.

짹치기: ㉠장치기. ㉡편을 갈라 나무공을 쳐서 일정한 곳에 넣기 놀이.

0. 동네 아이들이 마른 논에 모여 짹치기를 한다.

짹카(짹커): ㉠‘자르다.’ ‘질라.’에서 온 말.

1. 끊어 동강을 낸다.

0. 무를 도막나게 짹카.

0. 새끼줄을 짹카.

2. 해고 시킨다.

0. 과장 목을 짹카.

짹커: →짹카.

째그럭거린다: →짜그럭거린다.

째긴다: ㉠짜깁다. 쪼깁다. ㉡둘 이상으로 나누거나 가르다.

0. 대나무를 짹긴다.

0. 삼을 삼느라고 밤새도록 짹긴다.

째깁스럽다: →재깁스럽다.

째리하다: →짜리하다.

째인다: ㉡일이 바쁘게 겹친다.

0. 요즘 일이 좀 짹여서 바빠.

0. 마디에 옹이라고 일이 한꺼번에 짹인다.

째지발거린다: →재지발거린다.

짜진다: ㉠찢어진다. ㉡기분이 좋다.
가난하다.

1. 찢어진다.
 0. 다리를 벌렸더니 바지 가랑이가 찢겼다
2. 기분이 좋다.
 0. 운동화를 사다 췌더니 기분이 짜진다.
3. 몹시 가난하다.
 0. 그 집은 짜지게 가난하다.

짜질짜질하다: ㉠자질자질하다. ㉡물기가 말라서 잿아드는 모양.

0. 길바닥이 짜질짜질해서 걷기 편찮다.

짹짹소리: ㉠짹소리. ㉡아주 작게 반항하는 태도.

0. 그래도 죽을 땐 짹짹 소린 하고 죽어야지.

짹짹거리다: →재지랄거리다.

짹하다: ㉠더 이상 먹을 생각이 없다.

0. 떡을 열 개 먹고 짹하다.

짹하다: ㉠짹하다. 섭섭하다.

0. 잘 대접을 못하고 보내 마음이 짹하다.

짹다: ㉠잘다.

1. 알곡, 괴일, 모래나 글씨 따위가 작다.
 0. 자두가 좀 짹다.
2. 생각이나 성질이 좁스럽다.
 0. 사람이 좀 짹다.

짹죽하다: ㉠잘고 길죽하다.

0. 고구마가 짹죽하다.

짜든다(짜든다): ㉠껴든다. ㉡부축해서 받쳐든다.

0. 쌀독을 들어서 짜든다.
0. 할머니 겨드랑이를 짜든다.

짜맨다: ㉠잡아맨다.

1. 끈 따위로 동여맨다.
 0. 덕장에 장대를 짜맨다.
2. 소, 말, 개 등을 달아나지 못하게 말뚝 등에 묶는다.
 0. 소를 말뚝에 짜맨다.
 0. 개를 하루 종일 짜매 놓는다.
3.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끈 따위로 가로 건다.
 0. 빨랫줄 양끝을 나무에 짜맨다.

짜입는다(짜입는다): ㉠껴입는다.

0. 추워서 옷을 짜입는다.

짜: →적지.

짜다: →죽다.

짹이 돈다: ㉠나무결이 인다.

0. 나무에 짹이 돌아 터 벌어진다.

짜지: →적지.

짹떡: ㉠짹 떡. 시루에 짹 떡.

0. 짹떡 중에 백설기가 나는 맛이 있더라.

짹떡발이: →절떡병이.

짹떡병이: →절떡병이.

짹떡짹떡: →절떡절떡.

짹루발이: →절떡병이.

짹룩발이: →절떡병이.

짹룩병이: →절떡병이.

짹었다: ㉠절었다. 상했다. 기름때가 끼었다.

1. 절었다.
 0. 고등어가 짜게 절었다.
2. 상했다.
 0. 고등어가 콤콤하게 절었다.

3. 기름때가 끼었다.

0. 병 마개에 기름이 찼었다.

찼찼긴다(찌을 못쓰다): ㉠찼찼맨다.

㉡어찌 할 바를 모르고 헤맨다.

0. 상관이 오니 찼찼긴다.

찌레본다: ㉠노려본다. ㉡매섭게
쏘아본다.

0. 상급생이 찼레본다.

찌든다: →찌든다.

찌입는다: →찌입는다.

찌: ㉠주워.

0. 그 콩초 찼.

찌가리: ㉠조각.

0. 종이 찼가리로 어지럽히지 말아라.

찌갈긴다: →조때린다.

찌잡지: →조각지.

찌그맹이: →조그맹이.

찌글뜨린다: ㉠찌그린다. 움츠린다.

㉡부피나 몸을 작게 한다.

0. 벌레를 건드리면 몸을 찼글뜨린다.

찌긴다(찌긴다); ㉠찌겐다. ㉡둘 이상으로
나눈다.

0. 장작을 찼긴다.

찌꼬맹이(찌무레기): ㉠찌마.

0. 찼꼬맹이는 따라 오지 말고 집에
있어.

찌끄만하다(찌만하다. 찼맨하다.

찌꼬만 하다. 찼꼬만하다.

찌꼬맨하다. 찼맨하다): ㉠조그만하다.

찌끄마하다. ㉡조금 작거나 적다.

0. 찼끄만한 고추가 더 맵다.(작은 사람이
더 당차다)

0. 낚은 고기가 찼끄만하다.

찌끔(찌끔): ㉠조금.

1. 적은 정도나 분량.

0. 이 거 찼끔밖에 없어.

0. 찼끔이라도 좋아.

2. 짧은 동안.

0. 찼끔 더 기다려보자.

찌넣는다(찌넣는다): ㉠집어넣는다.

0. 자루에 감자를 찼넣는다.

찌다: ㉠쫘팽이. ㉡쫘스러운 사람.

0. 사람이 없이 살아도 찼다는 되지
말아야지.

찌달린다: ㉠찌들린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0. 아이들 학자금에 찼달린다.

0. 기업이 인건비에 찼달린다.

찌담는다(찌담는다): ㉠주워 담는다.

0. 떨어진 벼 이삭을 찼담는다.

0. 떨어진 감을 찼담는다.

찌래(찌려, 찼래): ㉠'조리다', '졸여'에서
온 말. ㉡졸아들게 한다.

0. 제주도 갈치를 찼래.

0. 고등어 생선을 찼래.

찌려: →찌래.

찌로록: ㉡줄 맞춰 따라나선 모양.

0. 병아리가 어미닭을 찼로록 따라간다.

찌른다: →졸른다.

찌막대기: →조막대기.

찌막손: ㉠조막손. ㉡손가락이 없거나
펴지 못하는 손.

0. 그 찼막손 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래.

찌만하다: →찌끄만하다.

쪼매이: →조매이.

쪼맨큼: ㉠조금만큼.

- 0. 누룽지 쪼맨큼만 쥐.
- 0. 오뉴월엔 떡조가리 쪼맨큼만 얻어 먹어도 쇠고기 먹은 대나 된다.
(보릿고개의 어려운 형편을 나타낸 말)

쪼맨하다: →쪼끄만하다.

쪼맹이: →조그맹이.

쪼무레기: →쪼꼬맹이

쪼물락거린다: →조물딱거린다.

쪼잔하다: ㉠좁스럽다. 쫌쫌하다.

- 1. 규모가 보잘 것 없다.
- 0. 장사가 쪼잔한 구멍가게야.
- 2. 도량이 좁고 웅졸하다.
- 0. 사람 됨됨이가 쪼잔하다.

쪼체: ㉠쫌아.

- 1.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내 몬다.
- 0. 눈에 참새 떼를 쪼체.
- 2. 졸음이나 잡념 등을 물리친다.
- 0. 오는 졸음을 쪼체.

쪼기계: ㉠벼 훑는 기구.

- 0. 쪼기계로 벼를 훑어 햅쌀을 만든다.

쪼대: ㉠쪼대.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 0. 쪼대 가지고 천렵가자.

쪼도리: ㉠쪼두리. ㉠부녀자가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는 검은 관.

- 0. 신부가 쪼도리를 머리에 얹었다.

쪼박찬다: ㉠거지가 된다.

- 0. 장사 잘못하면 쪼박찬다.

쪼발이: ㉠일본인.

- 0. 쪼발이들은 소형을 좋아해.

쪼배기: ㉠쪼박. ㉠작은 바가지.

- 0. 쪼배기 쓰고 비 피한다.(눈앞에 닥친 일을 어렵도 없는 방법으로 피하려 한다는 말)
- 0. 쪼배기에 밤 담아 놓은 듯.(울망줄망한 모양의 비유)
- 0. 쪼배기를 찬다.(거지가 된다)

쪼을 못쓴다: →쪼쪼긴다.

쪼장불알: ㉠산란하다 남은 명란.

- 0. 쪼장불알도 맛이 쏠쏠하지.

쪼지께(쪼집게): ㉠쪼집게. ㉠잔털이나 가시 등을 뽑을 때 쓰는 쇠로 만든 기구.

- 0. 소경 점장이는 쪼지께처럼 맞추더라.

쪼집게: →쪼지께.

쪼쪼거린다. ㉠쪼쪼거린다. ㉠음식을 깨지락깨지락 먹는다.

- 0. 음식을 쪼쪼거리지 말고 복스럽게 먹어라.

쪼팔리게: ㉠낮 뜨겁게.

- 0. 남 쪼팔리게 그런 예긴 왜 하니.

쪼쪼이: ㉠쪼쪼이. ㉠드물지 않게. 뵈게.

- 0. 바느질을 쪼쪼이 잘한다.

쪼고맨다: ㉠쪼라맨다. ㉠단단히 동여맨다.

- 0. 붓짐을 단단히 쪼고맨다.

쪼군다: ㉠1. 조른다. 2. 조린다.

- 1. 조른다.
- 0. 장난감 사달라고 자꾸 쪼군다.
- 2. 조린다.
- 0. 생선을 쪼군다.

쪼대: ㉠쪼릿대. ㉠기는 대. 조리를

만드는 데 씀.

0. 풀대를 베어야겠다.

0. 가는 풀대로 조리를 만든다.

풀대기(풀따구, 풀때기, 풀자):

㉠풀때기. 하수. ㉡작은 사람. 작은 일.

지위가 낮은 사람.

1. 작은 사람.

0. 풀대기가 까불고 있네.

2. 작은 일.

0. 풀대기 같은 일은 자네가 알아서 해.

풀따구: →풀대기.

풀딱곱았다(풀락곱았다): ㉠망했다.

0. 이번 소금장사는 풀딱곱았다.

풀때기: →풀대기.

풀라닥(풀락, 풀랑): ㉠풀딱. 흠뻑.

1. 남김없이 통틀어.

0. 그 집은 투전하다 풀라닥 망했다.

2. 남도록 흡족하게.

0. 옷이 비에 풀라닥 젖었어.

풀라맨다: ㉠풀라맨다. ㉡늘어지지 않게

단단히 맨다.

0. 소 짐을 길마에 단단히 풀라맨다.

풀락: →풀라닥.

풀락곱았다: →풀딱곱았다.

풀랑: →풀라닥.

풀로리: →졸로리.

풀른다: →졸른다.

풀린다: ㉠쫄그리든다. 위축된다.

0. 경기에 나갈 때가 되니 풀린다.

풀병: ㉠졸병. ㉡지위가 낮은 병사.

0. 풀병 생활은 언제나 고달프다.

풀아든다(풀어든다): ㉠'풀아들다', '풀아

든다'에서 온 말. ㉡부피가 작게 되거나
많던 것이 적어진다.

1. 작아진다.

0. 속상해 간이 풀아든다.

2. 적어진다.

0. 파장 때가 되니 사람들이 점점
풀아든다.

풀어든다: →풀아든다.

풀인다(찌린다): ㉠'풀이다'. '졸인다'에서

온 말. ㉡줄아들게 한다.

0. 간장을 풀인다.

풀자: →풀대기.

풀장부: ㉠풀장부. ㉡도량이 좁고 졸렬한
사내.

0. 성품이 풀장부라 큰 일을 못해.

0. 풀장부 짓 그만하고 좀 대장부처럼
놀아 봐.

좁: ㉠좁. 조금.

1. 조금의 준말.

0. 좁 있다가 올 게.

2.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간곡한 뜻을
더하는 말.

0.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3. 얼마나. 오죽.

0. 합격만 한다면 좀 좋을까.

4. 초조하여 가만히 있지 못함

0. 좁이 쭈신다. (마음이 들떠 가만히 있질
못한다)

좁생이(좁팽이): ㉠좁생이. 좁팽이.

1. 몸이 작고 좁스러운 사람의 낮춤 말.

0. 좁생이처럼 굴지 마.

2. 자질구레하여 보잘것없는 물건.

0.좁생이 감지는 버려라.

좁좁이: ㉠좁좁히. ㉡틈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다.

0.대바구니를 좁좁이 잘 엮었다.

좁팽이: →좁생이

좁다: ㉠좁다.

1.길이보다 너비가 작다.

0.길이 좀 좁다.

2.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웅졸하다.

0.마음이 좁다.

3.공간이나 면적이 넓지 않다.

0.넓고도 좁은 것이 세상일세.

4.내용이나 범위 따위가 미치지 못한다.

0.활동 범위가 좁다.

좁장불알: ㉡알을 다 낳지 못한 명란.

0.좁장불알 맛도 일품이지.

좁지발거린다: ㉠좁알거린다. ㉡몹시 종알거린다.

0.좁지발거리지만 말고 일을 열심히 해.

쫓는다: ㉠쫓는다.

1.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한다.

0.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다.

2.남의 말이나 뜻을 따른다.

0.아버지의 유언을 쫓는다.

3.규칙이나 관습 따위를 지킨다.

0.관례를 쫓는다.

4.눈여겨 보거나 눈길을 보낸다.

0.눈은 하늘에 나는 기러기 떼를 쫓는다.

5.남의 이론 따위를 따른다.

0.스승의 학설을 쫓는다.

쫓게난다: ㉠쫓겨난다.

0.일을 열심히 안 하면 쫓게난다.

쫓에다닌다: ㉠쫓아다닌다.

0.아기가 엄마를 졸졸 쫓에다닌다.

쫓에낸다: ㉠쫓아낸다.

0.강아지를 부엌에서 쫓에낸다.

쫓친다: ㉠쫓는다.

0.생선 가게에서 파리를 쫓친다.

꽤기(찌기): ㉡양쪽에서 조이는 짓의 하나.

0.노루가 꽤기에 걸렸다. 0.족제비가 꽤기에 끼었다.

찌그망큼: →찌그망큼.

찌그맹이: →조그맹이.

찌기: →찌기.

찌긴다: →쫓긴다.

찌게난다: →떨레난다.

찌꼬만하다: →쫓꼬만하다.

찌꼬만하다: →쫓꼬만하다.

찌꼬맨하다: →쫓꼬만하다.

찌꿈: →죄꿈.

찌긴다: ㉠쫓긴다.

0.도망병이 수색대에 찌긴다.

0.일에 찌게서 헤어지지 못하겠어.

찌래: →쫓래.

찌린다: →쫓인다.

찌맨하다: →쫓꼬만하다.

찌맹이: →조그맹이.

찌맹큼: →찌그망큼.

찌제하다(찌죄하다): ㉡볼품없이 조그마하다.

0.아기가 어째 찌제한 게 그러냐?

찌죄하다: →찌제하다.

쫓구랭이: ㉡온전하지 못한 열매.

- 0. 쭈구랭이라도 거뭇 들려라.
- 0. 쭈구랭이 밤송이 삼년 간다.(온전치 못한 것이 더 오래 간다는 말)

쭈구럼살(쭈구름살): ㉞쭈름살.

- 0. 나이 먹으면 쭈구럼살이 찾아오지.

쭈구렁밤(쭈구레이밤): ㉞쭈그렁밤.

- ㉞알이 제대로 들지 않은 밤.
- 0. 쭈구렁밤은 주울 필요가 없다.

쭈구렁밤생이(쭈구렁이밤생이):

- ㉞쭈그렁 밤송이. ㉞밤톨이 제대로 들지 않아서 쭈그러진 밤송이.
- 0. 쭈구렁밤생이는 잘 열리지도 않고 따갑기만 하다.
- 0. 쭈구렁밤생이는 먹을 알이 없다.

쭈구렁텅이: ㉞쭈그렁이.

1. 늙은 피부.
 - 0. 얼굴이 쭈구렁텅이 다 됐네.
2. 여물지 않은 낱알.
 - 0. 비바람에 곡식이 쭈구렁텅이가 됐어.
3. 쭈그러진 물건.
 - 0. 쭈구렁텅이 가방은 이젠 버리지.

쭈구레이밤: →쭈구렁밤.

쭈구렁이밤생이: →쭈구렁밤생이.

쭈구름살: →쭈구럼살.

쭈물거린다(쭈물쭈물한다): ㉞우물쭈물한다. 어리댄다.

- 0. 쭈물거리지 말고 시원하게 얘기해 봐.

쭈물군다: →쭈물군다.

쭈물떡거린다(쭈물럭거린다): ㉞쭈물럭거린다. ㉞자꾸 주무른다.

- 0. 쭈물떡거리지만 말고 송편을 예쁘게 빚어 봐.

쭈물럭거린다: →쭈물떡거린다.

쭈물쭈물한다: →쭈물거린다.

쭈뻗쭈뻗 선다: ㉞무서운 상황이 되어 머리칼이 선다.

- 0. 밤길을 오는데 부스럭 소리가 나니 머리칼이 쭈뻗쭈뻗 선다.

쭈쭈 먹자: ㉞젓 먹자.

- 0. 아가 이리 온. 쭈쭈 먹자.

쭈데기(쭈떼기): ㉞쭈데기. ㉞통나무 길목에서 떼어낸 널쭈.

- 0. 쭈데기는 땀감으로 사용하면 되지.

쭈떼기: →쭈데기.

쭈쟁이: →쭈쟁이.

쭈지: ㉞날개.

- 0. 새가 쭈지가 부러져 날지 못한다.

쭈쟁이: →쭈쟁이.

쭈는다(쭈는다): ㉞'쭈다', '쭈는다'에서 온 말.

- 0. 밤나무 밑에서 알밤을 쭈는다.

쭈다(쭈어든다. 쭈어진다): ㉞쭈다. 쭈어 든다. ㉞숫자나 양이 적게 되거나 작어진다.

1. 숫자.

- 0. 장꾼이 점점 쭈다.

2. 양.

- 0. 사업이 자꾸 쭈다.

- 0. 이젠 키가 자꾸 쭈다.

쭈덕쭈덕하다: ㉞쭈덕쭈덕하다.

- 0. 옛가락이 쭈덕쭈덕한 게 맛이 있다.

쭈군다: →쭈군다.

쭈루리: →쭈로리.

쭈어든다: →쭈다.

쫄어진다: →쫄다.

쫄인다: →쫄군다.

~쫄: ㉠~쫄. 정도.

0.언제 쫄 또 만나나?

0.모래 쫄 보세.

쫄는다: →쫄는다.

쫄국산(쫄국산): ㉠중국산. 중국제품.

0.이거 쫄국산이나? 어째 품질이 좀 떨어 진다 했더니..

쫄쫄하다: ㉠말이나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1.말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

0.그 사람 얘기해도 몰라. 정신이 좀 쫄쫄해.

2.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0.그 사람 귀가 좀 쫄쫄해. 큰 소리로 말 해야 돼.

쫄갈긴다: →조때린다.

쫄넣는다: →쫄넣는다.

쫄답어: →쫄답어.

쫄들인다: ㉠주워 들인다.

0.시시한 것 쫄들이지 마.

0.다 쓸모가 있으니 쫄들이지.

쫄 먹는다: ㉠주워 먹는다.

0.젓먹이는 아무거나 쫄 먹는다.

쫄께: ㉠쫄겨.

0.병역 기피를 하여 쫄께 다닌다.

쫄다: ㉠깎다. 쫄다.

1.깎다.

0.추워서 장갑을 쫄다.

0.손가락에 금반지를 쫄다.

2.쫄다.

0.양지쪽에서 햇볕을 쫄다.

0.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쫄다.

쫄국산: →쫄국산.

쫄다: →쫄다.

쫄하다: ㉠마음에 걸린다.

0.그냥 보낸 것이 좀 쫄하다.

0.쫄한 마음이야 매한가지지.

~쫄(~쫄): ㉠증명서.

0.자네 제대쫄이 있나?

0.주민등록쫄이 있어.

쫄격지(쫄격리): ㉠쫄겨기.

1.액체가 다 빠지고 남은 물질.

0.막걸리 잔 밑에 쫄격지가 남는다.

2.좋은 것을 골라낸 나머지.

0.음식물 쫄격지는 두엄밭에 버린다.

쫄게미: ㉠지게미. ㉠술을 거르고 남은 쫄겨기.

0.보릿고개 시절엔 술쫄게미로 연명도 했지.

0.술쫄게미로 죽쉬 먹고 술에 취해 비틀 거렸지.

쫄겠다: ㉠끼이다, '끼였다'에서 온 말.

0.치마가 문틈에 쫄겠다.

0.음식이 이틈에 쫄겠다.

쫄고 산다: ㉠끼고 산다.

0.감기는 늘 쫄고 산다.

0.마누랄 쫄고 자나. 왜 이렇게 안 와.

쫄구둥: ㉠기우똥. ㉠물체가 기울어진 모양.

0.봇짐이 어째 쫄구둥 하다.

쫄그랭이: ㉠언짢은 말로 다투는 일.

0.그 여자는 쫄그랭이를 잘 해.

0.쫄그랭이는 왜 해. 그냥 넘어가지.

찌깨벌레: ㉠사슴벌레. 하늘가재.

㉡사슴벌레과의 갑충. 길이 약 4cm. 흑갈색 바탕에 황색 털이 있음. 수컷의 큰 턱은 사슴뿔 같은 집게 모양임. 봄, 여름에 참나무 등의 진이나 등불에 모여 들. 애벌레는 고목 속에 사는데 모양은 풍뎡이와 비슷하다. 보호종이다.

0.찌깨벌레는 보기 드물다.

0.찌깨벌레는 천연기념물이지?

찌꺼리: →찌걱지.

찌끄래기: ㉡떡거나 쓰고 남은 것.

0.늦게 오면 찌끄래기만 먹는다.

0.찌끄래기라도 있으면 좋아.

찌다랴다: →길다랴다.

찌다마하다: →질주름하다.

찌똥다: →질주름하다.

찌덕찌덕: ㉠그럭저럭.

0.살림이 어렵지만 찌덕찌덕 살아가요.

~찌라우: ㉠~지요머.

0.일찍 일어났찌라우.

0.밥을 먹었찌라우.

0.하루 종일 일을 했찌라우.

찌랭이: →지랭이.

찌렁이: →지렁이.

찌레기: →기레기.

찌룬다: ㉡기울여 '따르다', '따른다'에서 온 말.

0.기름을 종지에 찌룬다.

찌른내(찌린내): ㉠지린내. ㉡오줌 냄새와 같은 냄새.

0.화장실에 가면 찌른내가 난다.

0.찌른내가 나서 향수를 뿌린다.

~찌리: ㉠~끼리. ㉡함께 무리를 짓는 뜻을 나타내는 말.

0.느들(너희들)찌리 놀아라.

0.자네들찌리 여행 간다며.

찌리찌리하다: ㉠저릿저릿하다. 찌릿찌릿하다. ㉡저린 느낌이 있다.

0.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더니 다리가 찌리찌리하다.

찌린내: →찌른내.

찌막하다: →지막하다.

찌만하다: →지만하다.

찌부둥(찌부둥): ㉡상태가 안 좋은 모양.

1.기울어진 모양.

0.검볼 짐이 한쪽으로 찌부둥 하다.

2.미열이 있는 상태.

0.몸이 어찌 찌부둥하다.

찌부러진다: →짜부러진다.

찌뿌둥: →찌부둥.

찌우똥: →짜우똥.

찌운다: ㉠1.기운다. 2.끼운다.

1.기운다.

0.짐이 한쪽으로 찌운다.

2.끼운다.

0.농이 바로 놓이도록 받침을 찌운다.

찌웃거린다(찌웃찌웃한다):

㉠끼웃거린다. 끼웃끼웃한다. ㉡무엇을 보려고 자꾸 고개나 몸 따위를 기울인다.

0.음식 먹는데 가서 찌웃거린다.

0.똥 그렇게 찌웃거리나.

찌웃찌웃한다: →찌웃거린다.

찌워 판다(찌귀 판다): ㉡끼워 판다.

0. 잘 안팔리는 물건을 잘 팔리는 물건에
찌워 판다.

찌저놀리킨다: ㉠힘이 가해져 놀린다.

0. 그 사람 마누라한테 찌저놀리켜서
맥을 못 써.

찌적개비(찌적개피): ㉠지저개비.

㉠나무의 잔 조각.

0. 모탕의 찌적개비를 굶어다 불을
지핀다.

찌적개피: →찌적개비.

찌지미: →부치미.

찌지편편하다: →지편편하다.

찌지하다: →지편편하다.

찌진다: ㉠지진다.

0. 몸살이 나 뜨거운 온돌방에 몸을
찌진다.

찌질하다: →지편편하다.

찌찌: ㉠지지. ㉠어린이에게 더러운 것을
일러주는 말.

0. 위! 찌찌다. 만지지 마.

0. 찌찌다! 먹지 마.

찌찌구뵈는다: →지지고볶는다

찌찌하다: →지편편하다.

찍게(짹게): ㉠집게. 벼훅이.

1. 집게.

0. 찍게로 숯덩이를 집어 올린다.

2. 벼훅이.

0. 추석 무렵에는 찍게로 햇벼를 훑어
천신을 했지.

찍꼭소리(찍꼭소리): ㉠찍소리. ㉠작게

반항하는 소리나 태도.

0. 찍꼭소리도 못내고 가만히 앉아 있다.

찍꼭소리: →찍꼭소리.

찍사게: →작살나게.

찍싸게: →작살나게.

찍어댄다(찍어붙인다): ㉠이것저것 갖다
댄다.

0. 궁색하게 찍어댄다.

0. 아무리 찍어대 봤자 그게 그거야.

찍어붙인다: →찍어댄다

찍접거린다: ㉠집적거린다.

1. 이일 저일에 손대거나 참견한다.

0. 이일 저일에 공연히 찍접거린다.

2. 남을 성가시게 한다.

0. 여자를 자꾸 찍접거린다.

찍했다: ㉠꼭챜다.

0. 추석 때 송편을 열 개 먹고 찍했다.

찢군다(찢군다): ㉠끼운다.

1. 좁은 사이에 빠지지 않게 밀어 넣는다.

0. 단추를 꼭 찢군다.

2. 어떤 곳에 걸려 있도록 꿰거나 찢는다.

0. 고기를 대나무에 찢군다.

3. 한 무리에 섞거나 덧붙여 들게 한다.

0. 떡을 샀더니 빵을 찢겨준다.

찢긴다(찢긴다): ㉠끼인다.

1. 틈 사이에 박힌다.

0. 낚시가 돌 틈에 찢긴다.

2. 무리 가운데 섞인다.

0. 구경꾼들 틈에 찢긴다.

찢다: ㉠끼인다. 빠진다.

1. 틈에 낀다.

0. 눈에 눈곱이 찢다.

2. 안개 따위가 퍼져서 가린다.

0. 서산 마루에 구름이 찢다.

3. 때나 먼지 따위가 엉겨 붙는다.

0. 옷에 때가 찢다.

4. 어떤 표정이나 기미가 어린다.

0. 얼굴에 수심이 찢다.

5. 남의 힘을 빌리거나 쓴다.

0. 친구를 찢고 부정을 저지른다.

6. 빠진다.

0. 생선에 물기가 찢다.

찢더풀이: ㉠질긴 사람.

0.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찢더풀이야.

찢덕찢덕: ㉡찢덕찢덕. ㉢끈적끈적하게 들어 붙는다.

0. 옛이 찢덕찢덕 들어붙는다.

찢땡이: →진땡이.

찢맨두: ㉣찢 만두. ㉤수증기에 찢 만두.

0. 나는 찢맨두 먹을래.

찢콩이다: ㉥정통이다.

0. 새총으로 참새를 찢콩으로 맞혔다.

찢기다: ㉦질기다.

1. 쉽게 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힘이 세다.

0. 냉면발이 찢기다.

2.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끈덕지게 붙어 있다.

0. 명이 찢기다.

3. 행동이나 일의 상태가 오래 끌거나 잘 견디는 성질이 있다.

0. 울음이 찢기다.

찢다랏다: →길다랏다.

찢때(찢때머리): ㉧사람의 성질.

0. 찢때가 고약한 사람이다.

찢때머리: →찢 때.

찢뚝발이: →절뚝뻥이.

찢뚝뻥이: →절뚝뻥이.

찢루발이: →절뚝뻥이.

찢룩: ㉨찢레나무의 새순.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0. 야! 찢룩 꺾어 먹으러 가자.

찢룩바리: →절뚝뻥이.

찢룩뻥이: →절뚝뻥이.

찢른다: ㉩'찌르다' '찌른다'에서 온 말.

0. 작살로 고기를 찢른다.

찢빵끈: →질방끈.

찢줍하다: →질주름하다.

찢지리: ㉪질이 떨어지는 모습.

0. 찢지리도 못한 녀석 같으니라구.

찢쭈름하다: →질주름하다.

찢쭈하다: →질주름하다.

찢개: →쩍개.

찢적거린다: ㉫집적거린다. ㉬자꾸

성가시게 군다.

0. 자꾸 성가시게 찢적거린다.

찢찌름하다: ㉭찢찢하다. ㉮좀 찢듯하다.

0. 미역국 맛이 찢찌름하다.

~찢: →쭈.

찢군다: →찢군다.

찢귀 판다: →찌위 판다.

찢긴다: →찢긴다.

찢콩: ㉯정통. ㉺바른 계통.

0. 위산 과다엔 제산제가 찢콩이다.

찢통: ㉻직통.

1. 결과나 효과가 바로 나타남.

0. 감기엔 쌍화탕이 찢통으로 듣는다.

2. 곧바로.

0.무정차 버스는 서울까지 쟁통으로 간다.

0.누님은 차물미를 잘하신다.



차바쿠: ㉠차바퀴.

0.차바퀴 갈 때가 되어간다.

0.겨울엔 새 차바퀴를 끼워야지.

차사: ㉠다례. 차례. ㉠명절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

0.이번 차사엔 아이들이 다 모이겠군.

차웁다: →차겁다.

차제: ㉠‘차지다’, ‘차지지’에서 온 말.

㉠찰기가 있지.

0.참쌀 시루떡이 무척 차제.

차지: ㉠유사. ㉠어떤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또는 단체 일의 차례.

0.이번 계의 차지는 누구래?

0.총친회 차지가 돌아왔다.

차춤: ㉠차춤. 차차.

0.감기가 차춤 나아지고 있어.

0.차춤 일에 익숙해지겠지.

차킨다(채인다. 채킨다): ㉠말로 ‘차다’의 피동, ‘차인다’에서 온 말.

1.발길에 차인다.

0.소 뒤에서 어디대다 뒷발에 차킨다.

2.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차킨다.

0.뒷집 총각이 앞집 처녀한테 멋지게 차킨다.

차폐: ㉠차표.

0.서울가는 차폐를 끊어야 되겠다.

착잡하다: ㉠착잡하다.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뒤섞여 마음이 복잡하다.

0.섬섬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착잡하다.

0.이해 관계가 착잡하게 얽혀 있다.

찬밥: ㉠찬더기. 찬대를 받는 사람이나

차겁다(차굽다. 차급다. 차웁다):

㉠차잡다.

1.온도가 낮아 싸늘한 느낌이 있다.

0.밖의 바람이 차겁다.

2.냉정하다. 매정하다.

0.그 사람은 좀 차잡다.

차구다닌다: ㉠차고다닌다.

0.할아버지께서 담배 주머니를 차구다닌다.

차굽다: →차겁다.

차급다: →차겁다.

차돌멩이(차돌벙이): ㉠차돌. 석영.

㉠야무진 사람의 비유.

0.그 사람 야무지길 차돌멩이세.

차돌백이: ㉠차돌박이. ㉠지방이 살갓에 박힌 쇠고기.

0.오늘은 차돌백이 귀 먹으러 가세.

차돌벙이: →차돌멩이.

차띠기: ㉠차떼기 ㉠차 단위로.

0.고랭지 배추는 차띠기로 거래한다.

차물미: ㉠차멀미. ㉠차를 탔을 때 어지럽거나 구역질이 나는 일.

물건.

1.사람.

0.일을 잘못하면 찬밥 신세 면하기 어렵지.

2.물건.

0.밀가루가 찬밥 신세 될 날도 있지.

찬차이: ㉠찬찬히. ㉡꼼꼼하고 침착하게.

0.찬차이 잘 하거라.

찰거머리(찰그마리): ㉠달라붙어 안

떨어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0.저 이는 찰거머리야. 엄마한테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라.

찰곡: ㉠찰쌀 곡식.

0.올해는 찰곡을 좀 많이 심어야겠어.

찰그마리: →찰거머리.

찰남생이: ㉠천남성. ㉡천남성과의 여러해 살이풀.

0.찰남생이는 사약제로 사용할 만큼 독성 이 강하다.

찰딱거리다(찰떡거리다): ㉠주무르기만

하며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

0.찰딱거리기만 하지머 일에 진척이 있어 야지.

찰떡거리다: →찰딱거리다.

찰러는: ㉠발로 ‘차다’, ‘차려는’에서 온 말.

0.공을 찰러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냐아 했다.

찰지다: ㉠차지다. ㉡끈기가 많다.

0.찰옥수수가 아주 찰지다.

0.찰진 옥수수가 맛있다.

찰촌: ㉠벽촌. ㉡외진 곳에 있는 마을.

0.찰촌 출신이 면장까지 했으면 출세한

거지.

찰촌놈: ㉠진짜 촌사람.

0.찰촌놈이 서울 구경 갔는데 눈 돌릴 새가 있다.

참꽃(창꽃): ㉠진달래. 두견화.

㉡진달래과의 낙엽 활엽 관목. 산간 북쪽 비탈에 나며 봄 일찍 옅은 분홍색 다섯 갈래, 깔때기 모양의 꽃이 피.

0.벌써 뒷산에 참꽃이 피었더라.

0.우리 참꽃 따 먹으러 갈래?

참대기(참때기. 참띠기): ㉠얌전한 아이.

0.참대기 같이 가만히 앉아만 있나?

참두릅(참두릅. 참드릅): ㉠두릅. ㉡두릅 나무의 어린 순.

0.참두릅이 나올 때면 ‘봄이 왔구나!’ 그렇게 느끼지.

참두릅: →참두릅.

참드릅: →참두릅.

참때기: →참대기.

참띠기: →참대기.

참물: ㉠찬물.

0.고뿔 걸린데 참물 먹지 마라.

창구녕(창구영): ㉠창구명. ㉡창을 내기 위해 뚫은 구멍.

0.창구녕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창구영: ㉡창구녕.

창군다: →지문다.

창기름(창지름. 창기름): ㉠참기름.

㉡참깨로 짠 기름.

0.나물에 창기름을 치면 고소해진다.

창깨: ㉠참깨. ㉡참깨과의 한해살이풀.

0.창깨를 볶으면 고소한 고명이 된다.

창꽃: →참꽃.

창난: ㉠명태의 창자.

- 0. 어머니께서 창난으로 젖을 담근다.
- 0. 창난 젖은 얼마나 맛 있는지 맵도둑이다.

창오지: ㉡창호지. ㉢문을 바르는 한지.

- 0. 오늘은 창오지로 창문을 발라야 되겠다.

창재(창지, 창지머리): ㉡창자. 성질 마음씨.

1. 창자.
 - 0. 창재가 뒤틀린다.(못마땅하여 기분이 몹시 상한다)
 - 0. 창재가 끊어질 듯.(슬픔이나 분노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 성질머리.
 - 0. 그 앤 창재머리가 나빠. 건들지 마.

창자: →창재.

창지름; →창기름.

창지머리: →창재.

채: ㉢허리 길이.

- 0. 돼지 채가 길죽한 게 잘 생겼어.

채가 느리다: ㉢동작이 느리다.

- 0. 그 댁 며느리가 채가 느리대.

채간다: ㉡차가다. 에서 온 말. ㉢날세계 옮겨잡고 간다.

- 0. 술개가 병아리를 채간다.

채곡채곡: ㉡차곡차곡. ㉢물건을 가지런히 쌓거나 포개는 모양.

- 0. 벧가마를 마루에 채곡채곡 쌓는다.

채나물: ㉢무를 채 썰어 만든 나물. 흔히 제사 때 만들어 쓴다.

- 0. 어머니께서 채나물을 만드신다.
- 0. 제사때 채나물을 젓상에 올린다.

채다리: ㉡채독. ㉢채소를 날 것으로 먹는 데서 오는 기생충병.

- 0. 옛날엔 채소를 날것으로 먹다 채다리에 많이 걸렸어.(인분을 비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생충이 순환되면서 옮겨졌음)

채래놓는다: ㉢차려놓는다.

- 0. 뭐 이렇게 야단스럽게 채래놨나.

채레: ㉡순서. 차례.

- 0. 주사 맞을 채레가 돌아 왔다.

채레(채사): ㉡차례. 차례.

- 0. 추석 명절에 채레를 지낸다.

채레채레: ㉡차례차례. ㉢차례를 따라 순서 있게.

- 0. 사탕을 채레채레 나누어 줄 터이니 줄을 서.

채린다: ㉡차린다.

1. 격식이나 태도 등을 갖추어 걸으로 드러 낸다.
 - 0. 예절을 채린다.
2. 기운, 정신 따위를 가다듬는다.
 - 0.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채린다.
3. 살림, 가게 따위를 벌인다.
 - 0. 새 살림을 채린다.
4. 어떤 일에서 제 욕심 따위를 채운다.
 - 0. 저 사람은 제 실속만 채린다.
5. 어떤 조짐을 보고 짐작하여 안다.
 - 0. 눈치를 빨리 알아 채린다.
6. 음식 등을 장만하여 갖춘다.
 - 0. 어머니께서 밥상을 채리신다.
7. 해야할 일에 준비를 갖춘다.
 - 0. 채비를 채리고 길을 떠났다.

채림새: ㉠차림새. ㉡차린 모양.

0.채림새를 보니 장에 가려는가 봐.

채사: →채례.

채산: ㉠채신머리. 치신머리. ㉡세상을 살아 가는데 지켜야할 몸가짐이나 행동.

0.그 사람 채산이 없이 되고말고 막 떠들어.

채양(첼): ㉠차양. 차일. ㉡별이나 비를 가리기 위해 처마 밑에 치는 천막.

0.잔치를 할 때는 채양을 치고 하객을 맞이한다.

채인다: →차킨다.

채킨다: →차킨다.

책보재기: ㉠책보. ㉡책을 싸는 보자기.

0.책보재기 속에 썬 연필 빠질라. 잘 살펴봐라.

책상시계: ㉠탁상시계. ㉡책상 위에 놓고 보는 시계.

0.책상시계가 시간 맞춰 자명종을 울린다.

책음: ㉠책임. ㉡일을 맡아야할 임무나 의무.

0.아주 저 사람한테 책음을 지워.

채채히: ㉠찬찬히.

0.수학여행 갈 때 채채히 잘 챙겨라.

첼: →채양.

첼: ㉠참. 예정.

0.좀 쉬고 일하세. 그럴 첼이네.

첼견(챙견): ㉠참견.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함.

0.남의 일에 첼견하지 않을란다.

첼빚: ㉠참빚. ㉡빚살이 가늘고 촘촘한

대빚.

0.첼빚 이리 가져오너라. 서캐 좀 빚어 보자.

챙견: →참견.

챙군다: →자문다.

챙기름: →창기름.

챙챙감는다: ㉠친친감는다. ㉡자꾸 감거나 동여맨다.

0.소가 고삐를 말뚝에 챙챙감는다.

챙피스럽다: ㉠창피스럽다. ㉡체면 깎일 일을 당하여 부끄럽다.

0.야, 창피스럽다. 그 얘기 그만 해라.

0.챙피스러우면 안 들으면 되지

처내끈제둔다(처내빼레둔다):

㉠내버려둔다.

0.아이가 자꾸 울어도 처내끈제둔다.

0.자꾸 한다 하거든 처내끈제둬.

처내빼레둔다: →처내끈제둔다.

처녀과부: ㉠망문과부. 까막과부.

㉡첫날밤을 치르지 못한 과부.

0.처녀과부는 팔자가 얼마나 드셀까?

처름: ㉠처럼. ㉡~과 같이. ~모양으로.

0.형처름 해 봐.

0.나도 저 사람처름 했으면 좋겠다.

척하문: ㉠척하면. ㉡설명 필요 없이 한마디 하면.

0.척하문 다 알 사람이야.

0.딱하문 생감이요, 척하문 흥시켰다.

0.척하문 삼천리다(척하면 알아차린다)

천덕꾸레기(천데기. 천디기): ㉠천더기.

천덕꾸레기. ㉡천대반는 사람이나 물건.

0.애비 애미 없으면 천덕꾸레기 될

수밖에 더 있겠나.
 천대기: →천덕꾸레기.
 천디기: →천덕꾸레기.
천땅(천땡): ㉠장땡. ㉡화투에서 열
 낫짜리 짝을 가진 가장 높은 낫수.
 0.천땅이다. 이번엔 내가 먹었다.
 천땡: →천땡.
천만에 말씀(천만에 말씀): ㉡별말씀.
 남의 말을 높히는 말.
 0.천만에 말씀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천만에 말씀: →천만에 말씀.
천명: ㉠천명. ㉡타고난 수명.
 0.그래도 그름에서 살아남다니 천명이다.
천방독: ㉠넷독. 제방. ㉡넷가에 쌓은 독.
 0.여름에 천방독은 시원해서 좋다.
천불이 난다: ㉡가슴 속이 탄다. 울화가
 터진다.
 0.느리게 일하는 걸 보면 천불이 난다.
천상배필(천상연분): ㉠천생연분.
 천생인연. ㉡하늘에서 맺어준 연분.
 0.두 부부는 천상배필이야. 아주 마음이
 맞아.
천상에: ㉠결국에.
 0.천상에 그 일은 내가 맡아 할 수밖에
 없겠군,
 천상연분: →천상배필.
천석지기: ㉠천석꾼. ㉡천석의 추수를
 거두는 부자.
 0.천석지기면 뭘 해. 인심을 얻어야지.
 천성머리: →성질머리.
천예만예하다: ㉠천야만야하다.
 ㉡천길만길 되는 모양.

0.낭떠러지가 얼마나 높은지 천예만예
 하다.
천재문: ㉠천자문. ㉡한자를 천자 수록한
 책.
 0.그 애가 천재문을 다 뺏대.
천정: ㉠천장. ㉡방의 상부 면.
 0.옛날 한옥은 천정에 기름대 나무를
 걸쳤지.
천처이: ㉠천천히.
 0.엎어질라. 천처이 오너라.
 0.그 일은 천처이 해도 된다.
천축: ㉠천식. ㉡발작적으로 호흡이
 곤란한 병.
 0.천축에 걸리면 기침하느라 고생이
 심하다.
천하없어두: ㉡반드시. 천하없어도.
 아무리 하여도. 어떻게 하여도.
 0.그 사람은 천하없어두 올 사람이야.
천하잡눔(천하잡눔): ㉠천하잡눔.
 ㉡행실이 몹시 나쁜 남자를 욕하는 말.
 0.그놈 천하잡눔일세. 투전하다
 논발전지 다 팔아먹고 집까지 날렸대.
 천하잡눔: →천하잡눔.
천항이다: ㉠천행이다. 천만다행이다.
 0.그래도 그만하길 천항이다.
철가방: ㉡공무원. 중국 음식 배달통.
 1.공무원.
 0.공무원 밥줄은 철가방이야. 평생토록
 직업이 보장돼 있어.
 2.중화 음식 배달통.
 0.철가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장면 이 나온다.

철덕거린다: ㉠처덕거린다. ㉡물기가 있는 물건으로 어지럽힌다.

0.비가 오는데 왜 자꾸 철덕거리며 적서 들이느냐?

철떼기(철띠기): ㉠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

0.애는 아직 철떼기가 없어요.

0.철떼기가 언제 들려는지.

철띠기: →철떼기.

철떼기 든다: →섬이 든다.

철띠기 든다: →섬이 든다.

철만냈다: →때만냈다.

철멩피(철판): ㉠철면피. ㉡염치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말.

0.그사람 철멩피야. 아주 뻔뻔스러워.

철삿줄: ㉠철사. 철선. ㉡쇠로 만든 가는 줄.

0.철삿줄로 금이 간 항아리리 주둥이를 동여맨다.

철씩: ㉠털씩 ㉡갑자기 주저앉는 모양.

0.땡바닥에 철씩 주저앉는다.

0.흥시가 철씩 떨어진다.

철전: ㉠동전. ㉡구리와 주석 합금으로 만든 돈.

0.갈 때는 철전 몇푼 넣어가지고 가는 걸, 멀 그리 아끼나.

철질: ㉠철길. 철도. 기차길.

0.철질이 들어와서 생활이 많이 편리해 졌지.

0.철질로 다니지 마라. 위험하다.

철창: ㉠감방. 감옥.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방.

0.비뚜로 살면 철창신세 면하기 어려워.

철천지원수: ㉠철천지원수.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게 한 원수.

0.무슨 철천지원수가 됐다고 두절 하겠는 가.

철관: →철면피.

침방뚝: ㉠제방뚝. ㉡홍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쌓은 뚝.

0.여름철에 침방뚝은 시원해서 좋다.

침자구: ㉠침지. ㉡나이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일컫는 말.

0.이럴 땐 침자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침단이: →작은마누래.

침떼기: →작은마누래.

첫대번에(첫대뺑에. 첫뺑에): ㉠첫 번에.

0.축구를 시작하자마자 첫대번에 한 골 넣었다.

첫대뺑에: →첫대번에.

첫마두: ㉠첫마디. ㉡처음으로 하는 말의 한 마디.

0.그 일을 하는데 첫마두에 승낙을 받았다.

첫뺑에: →첫대번에.

첫살림: ㉠신접살림. 신접살이. ㉡신혼부부 가 처음으로 차린 살림.

0.첫살림에 깨가 쏟아지겠다.

첫새백(첫새북): ㉠첫새벽. 꼭두새벽. 0.첫새백에 닭이 울었다.

0.모내기 할땐 첫새백부터 일어나 야단 법석이다.

첫새북: →첫새백.

첫질: ㉠첫길. ㉡시집 간 딸이 3 일만에
신랑과 함께 친정에 오는 길.

0.그 집 시집 간 딸이 첫질 왔다. 신랑
달아 먹으러 가세.

첫참: ㉢오전 새참,

0.첫참이 왔네. 먹으러 나가세.

첫추우: ㉣첫추위. ㉤첫겨울 처음으로
닥친 추위.

0.첫추우가 매섭다.

청너구리: ㉥능청꾸러기. ㉦능청을 잘
부리는 사람.

0.저 사람, 청너구리이야. 능청을 잘
떨어.

청때: ㉧청태. ㉨푸른 빛의 이끼.

0.돌에 청때 앉았다. 미끄럽다.

청밀: ㉩호밀. 귀리. ㉪벚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밀과 비슷하며 식용,
사료용으로 씀.

0.메마른 밭에단 청밀을 심지.

0.옛날엔 청밀은 맛이 없어 천덕꾸러기
더니만 요즘은 영양소가 많다고
시세가 나.

청산 가셨다: →떠나가셨다.

청살모(청설무): ㉫청설모. ㉬다람쥐과의
동물.

0.청살모가 산에 도토리 따 먹다가
요즈음은 민가에 내려와 호두를 따
먹는다.

청설무: →청살모.

청천번개: ㉭마른번개. ㉮마른하늘에서
치는 번개.

0.맑은 하늘에 청천번개가 치는 날도

있어.

청춘사업: ㉯연애. ㉺남녀가 서로
애뜻하게 그리워하며 사랑함.

0.청춘사업도 일생에 큰 사업이지.

체경: →맨경.

체네(치네): ㉻치녀.

1.성숙한 미혼의 여성.

0.체네 불알이다.(얻을 수 없는 일이다)

2.남자와의 성적 경험이 없는 여자.

0.체네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
(큰 잘못을 했어도 변명의 여지는
있다)

3.‘최초의’ ‘처음으로 하는’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

0.축구 시합에 체네 출전했다.

체네장가: ㉼치녀장가. ㉽치녀를 아내로
맞는 장가.

0.그 사람이 상처하고 체네장가
들었다며...

체다리: ㉾술을 거르거나 가루를 체로 칠
때 받혀 놓는 다리.

0.체를 체다리에 받혀 놓고 술을 거른다.

체다본다: ㉿체다본다.

0.뭘 자꾸 뻘뻘 체다보니?

체든다: ㊀‘쳐들다’, ‘쳐든다’에서 온 말.

0.숙였던 머리를 체든다.

~체루: ㊁~체로. ㊂그대로.

0.웃입은 체루 드리누워 잔다.

체멘: ㊃체면 ㊄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라나 면목.

0.체멘이 사람 죽인다.(자나치게 체면을
차리다가 결국 할 일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손해만 보게 되는 경우의 비유)

0. 체면이 사납다.(체면이 서지 않아 부끄럽고도 분하다)

0. 체면에 몰린다.(체면을 차리느라고 하찮은 사람에게 줄림을 당한다)

체면치레: ㉠체면치레. ㉡체면을 세우는 일.

0. 빈 말이라도 체면치레로 고맙다 했지.

체신머리(체통머리): ㉠체신. 처신. ㉡살아가는데 가져야할 몸가짐이나 행동.

0. 체신머리가 그래가지고 되겠나?

체신싸무릅다: ㉠처신 사납다. 처신하기가 모질거나 억세다.

0. 체신싸무릅게 장바닥 장사 개시
첫날에 소나기가 뭐람.

체통머리: →체신머리.

첸신: ㉠첸신. ㉡그해에 새로 난 과일이나 곡식을 신위에 올리는 일.

0. 첸신할 햇과일은 미리 골라 따로 둔다.

0. 첸신할 햇벼는 먼저 바심을 한다.

첸바쿠: ㉠첸바퀴. ㉡체의 테

0. 개미 첸바쿠 돌듯한다.(같은 일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비유하는 말)

처무제 놓는다(처젠다): ㉠많이 쌓아 놓는다.

0. 저 침지는 돈을 처무제 놓기만 하지 쓸 줄을 몰라.

처젠다: →처무제 놓는다.

초다지(초다지기. 초떼기. 초띠기. 초짜): ㉠처음. 초년생. 신출내기. 풋내기. ㉡초보자. 일을 처음 하는 사람.

1.처음.

0. 술자리가 아직 초다지일세. 어서 한잔 하게.

2. 초년생.

0. 아직 초다지라 일이 좀 서툴러.

0. 누구나 초다지 시절엔 다 그랬지며.

초다지기: →초다지.

초두부: ㉠순두부. ㉡눌러서 굳히지 않은 두부.

0. 해장국으론 초두부가 제일이지.

초들린다(초들린다. 초킨다. 최킨다):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당한다.

0. 돌아 다니면서 남한테 초들린다.

초들린다: →초들린다.

초떼기: →초다지.

초띠기: →초다지.

초랑이(출랭이): ㉠초라니. ㉡양반의 하인 으로 성격이 가볍고 방정맞음.

0. 초랑이처럼 가벼우면 못쓴다.

0. 초랑이 수염 같다.(매우 경망스럽게 까불고 수다를 떠다)

초마(초매. 치매): ㉠치마 ㉡여자의 아랫도 리 옷.

0. 아가 설빔 초마를 만들어야겠다.

0. 기왕이면 다홍 초마라.(기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말)

초매: →초마.

초성 좋고: ㉠목소리 좋고.

0. 친구 노랫소리. 초성 좋고!

초승에: ㉠초순에. 상순에. ㉡그달의 처음 열흘 동안.

0. 팔월 초승에 별초를 해야지

초입새: ㉠초입.

- 1. 골목 등으로 들어가는 첫 어귀.
- 0. 마을 초입새에 우리집이 있어.
- 2. 어떤 일 따위가 시작되는 첫머리.
- 0. 이젠 여름의 초입새에 들어섰다.

초저울: ㉠초겨울. ㉡겨울의 첫 무렵.

- 0. 초저울에 추위 탄다. 긴 옷을 입어라.

초주금: ㉠초주검. ㉡지쳐 죽게 된 상태.

- 0. 얼마나 멀리 걸었는지 초주금이 다 된 게 왔어.

초주면: ㉠1. '쳐주다', '쳐주면'에서 온 말.

- 2. '추켜세우다', '추켜세우면'에서 온 말.
- 1. 쳐준다.
- 0. 이 송아지 얼마 초주면 팔겠소.
- 2. 추켜세운다.
- 0. 고래도 초주면 춤을 춘단다.

초지낙(초지약): ㉠초저녁. ㉡1. 이른

저녁. 2. 일의 시초.

- 1. 이른 저녁.
- 0. 초지낙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
- 2. 일의 시초.
- 0. 그 일은 아직 초지낙이야.

초지약: →초지낙.

초짜: →초다지.

초킨다: →초들린다.

촉새질: ㉡훈수 질. 바둑, 장기 등에서

- 수를 가르쳐 주는 짓.
- 0. 촉새질 그만 하고 구경이나 해.
- 0. 촉새질 하다 뺨 맞니.

촉촉수: ㉡바둑에서 나오는 연단수.

- 0. 촉촉수에 걸려 대마가 죽었다.

촌닭: ㉡촌사람.

- 0. 요즈음은 다 배워서 촌닭 같은 사람이 없어.

촌띠기: →시골띠기.

촌태: ㉠촌티. 시골티. ㉡촌사람 티.

- 0. 옷이 촌태가 난다. 좀 바뀌입어라.

출랭이: →초랑이.

춧대석: ㉠망주석. 망두석. ㉡무덤 앞

- 양쪽에 세우는 여덟 모가진 돌기둥.
- 0. 춧대석이 기울어 바로 세운다.

춧물: ㉡두부를 만들 때 나온 구수한 물.

- 0. 소가 춧물을 쭉! 하고 들어킨다.

총각무우: ㉠총각무. ㉡무청째로 김치를

- 담그는 뿌리가 잔 무.
- 0. 총각무우 총각김치는 아삭아삭한 맛이 있다.

총뿌리: ㉠총부리. ㉡총에서 총구멍이 있는 부분.

- 0. 총뿌리를 사람에게 겨누면 못 쓴다.

총싼말: ㉠입찬말. ㉡지나치게 장담하는 말.

- 0. 총싼말은 묘 앞에 가서 하여라. (지나친 장담은 하지 말라는 말)

총잡이: ㉠총잡이. ㉡총, 특히 권총을 잘 쏘는 사람.

- 0. 석양의 건넌에선 총잡이가 멋있지.

촛: ㉠1. 치위. 2. 추위.

- 1. 치위.
- 0. 시시한 건 촛버러.
- 2. 추위.
- 0. 날이 몹시 촛. 덧 옷을 입고 나가.

최고집: ㉡최씨고집.

- 0. 김씨 셋이서 최고집 하나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취취: →꼬취.

취킨다: →초들린다.

취피나무: →제피나무.

찢다: ㉞1.빌린다. 2.취한다.

1.빌린다.

0.과부 대돈변을 찢다.

2.취한다.

0.막걸리 뒤 잔 먹었는데 꽤 찢다.

촛불: ㉞촛불.

0.젓상 양쪽에 촛불을 밝힌다.

추: ㉞추위.

0.대한 추가 소한 집에 놀러 왔다 얼어 죽었다.(소한 추이가 더 춥다는 말)

추네 끝: ㉞추녀 끝.

0.추네 끝에 단청이 아름답다.

추림: ㉞추련. ㉞모임이나 놀이 따위의 비용으로 각자가 금품을 얼마씩 내어 거듬.

0.오늘 저녁에 떡 추림 하세.

추레(취레): ㉞'추리다', '추려'에서 온 말.

㉞섞여 있는 것에서 가려 뽑는다.

0.벧짚을 추레라. 새끼를 꼬게.

추리하다: ㉞추레하다. ㉞깨끗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다.

0.옷 모양새가 어찌 추리한게 그러냐.

추미: ㉞추며.

0.춤을 흥겹게 추미 놀아 봅시다.

추시계: →불알시계.

추시른다(추실군다. 추실른다.

추케세운다): ㉞추스른다. ㉞치켜 올려 잘 다스린다.

0.꿈쩍 않는 사람을 잘 추시른다.

추실군다: →추시른다.

추실른다: →추시른다.

추와: ㉞추위.

0.추와. 햇빛 가리지 마.

0.추와 죽겠다. 군불 좀 때라.

추케세운다: →추시른다.

추음계: →유성개.

축축거린다: ㉞부추긴다. ㉞남을 이리저리 들쭉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든다.

0.친구를 축축거리 술을 사게 만든다.

춘청도: ㉞춘청도.

0.춘청도 사람을 청풍명월(淸風明月)이라 했던가. 밝은 달밤에 맑은 바람이라. 풍류적이로구만.

출러덩거린다: ㉞출렁거린다. ㉞큰 물결을 이루어 흔들린다.

0.강물이 굽이치며 출러덩거린다.

출입옷: ㉞나들이옷. 외출복. 출입복.

0.출입옷을 옷걸이에 잘 걸어둔다.

춤: ㉞춤. ㉞입안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0.남 앞에서 춤 함부로 댈지 말아라.

춤쟁이: ㉞사교 춤꾼.

0.춤쟁이 때문에 바람 난 여자 많지.

취취: →꼬취.

취레: →추레.

취해버렸다: ㉞취했다.

0.한 잔 두 잔 마시다 그만 취해버렸다.

춤에: ㉞처음에. ㉞일의 시초. 차례로 맨 앞. 첫 번째.

0.단추를 춤에 잘못 끼웠어.

0.생전에 춤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어.

층발이진다: ㉸ 차이가 난다.

0.비가 왜 층발이졌다. 비료가 몰린 모양 이다.

치: ㉸키. ㉸곡식 따위를 까불어 부스러기를 골라내는 기구. 앞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우묵하게 버들 같은 것으로 걸어서 만듦.

0.치 가져오너라, 낱알을 까불자.

0.요즈음은 치 질(키 질)하는 사람 잘 못 보겠어.

치구받는다: ㉸싸운다.

0.열이 났는지 한참 치구받더니 조용해 졌다.

치께오른다: ㉸'치오르다', '치오른다'에서 온 말.

1.언덕을 오른다.

0.가파른 언덕을 치께오른다.

2.말싸움을 한다.

0.그애는 말싸움하면 조금도 안지고 치께 오른다.

치네: →체네.

치다구니: ㉸꼬락서니.

1.못나게 처리하는 상태.

0.그사람 일하는 치다구니가 그래.

2.못나게 처리한 일.

0.일한 치다구니 하고는 불만하다.

치닥꺼리: ㉸치다꺼리. ㉸1.돌보거나

2.접대하는 일.

1.돌보는 일.

0.돌보미는 환자 치닥꺼리에 애를 쓴다.

2.접대하는 일.

0.손님 치닥꺼리하느라 바빴어.

치다본다: ㉸쳐다본다.

0.맑은 하늘을 치다본다.

0.치다보지 말고 내려다 보고 살면 편하지.

치뛰기: ㉸위로 뛰기. 내리

0.토끼는 치뛰기는 잘해도 내리뛰기는 잘 못한다.

치레(한 치레): ㉸ 이레. 칠일.

0.잔칫날이 이제 치레 남았다.

0.아이 낳은지 한 치레 지났으니 한숨 돌렸다.

치로비: ㉸치료비.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 낫게 하는 비용.

0.국가에서 치료비를 많이 담당해 준다.

치룬다: ㉸'치르다', '치른다'에서 온 말.

1.돈을 갚는다.

0.물건값을 치룬다.

2.일을 겪는다.

0.잔치를 치룬다.

치맛바람(치멧바람): ㉸여자가 나서서 설치는 일.

0.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치맛바람이 세계 분다.

치매: →초마.

치멧바람: →치멧바람.

치멕인다: ㉸치먹인다.

1.아랫사람부터 먹인다.

0.아이가 보채서 밥을 애들부터 치멕인다.

2.상관에 뇌물을 준다.

0.돈을 위에 치멕인다. 잘 돌아가게.

치멕힌: ㉸치먹힌.

0. 상관에게 뇌물을 쥐 치맥힌 사건이래.

치뺨다: ㉠위로 달아나다.

0. 토끼를 통졌는데 산 위로 치뺨다.

치부책: ㉠수첩. ㉡간단한 기록을 하기 위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공책.

0. 돈 꾸어준 거 치부책에 적어놓아라.

0. 치부책을 단단히 두어라.

치솔질: ㉠양치질. ㉡칫솔로 이를 닦는 일.

0. 식사 후에 치솔질을 한다.

치송한다: ㉠접대한다.

0. 여름철이면 동해안은 친지 피서객 치송하느라 분주하다.

치신거린다: ㉠지식거린다. 지식지식한다.

㉡남이 싫어하건 말건 짓궂게 자꾸 요구한다.

0. 아이들이 떡안반(떡하는 판) 옆에서 치신거린다.

치와(치와 버래): ㉠치위. 치위버래.

0. 그 너절한 부스러기 치와.

0. 그 일이 잘 안되거든 치와.

치와버래: →치와.

치장이다: ㉠~이 대부분이라는 말임.

0. 아귀는 대가리 치장이다.

치쟁다: ㉠쟁이다, '치쟁이다', '치쟁인다' 에서 온 말.

0. 타작한 벼를 광 속에 치쟁다.

치질: ㉠키질. ㉡키로 곡식 따위를 까부는 일.

0. 벼타작을 하면 어머니들은 밤새도록 치질을 하신다.

치춘다: ㉠추키다, '치추키다', '치추킨다' 에서 온 말.

0. 내려간 허리춤을 치춘다.

치치편편하다: →지지편편하다.

치치하다: →우중충하다.

치케세운다: ㉠'추켜세우다', '추켜세운다'에서 온 말.

0. 너무 치케세운다. 어지러워.

치기간: →뒤간.

친신: ㉠친신. ㉡그해에 새로난 농산물을 신위에 먼저 올리는 일.

0. 추석에는 벼 바심을 먼저 해 햇과일과 같이 친신을 한다.

칠갑: ㉠투성이. ㉡매우 많이 뒤집어쓴 모양.

0. 아이가 화장품으로 얼굴에 칠갑을 했네.

칠기: ㉠칩. ㉡콩과의 낙엽 활엽 덩굴식물. 뿌리엔 녹말이 많아 식용함.

0. 야! 우리 칠기 파러 가자.

0. 칠기 떡 해먹으면 맛이 있단다.

칠념(칠염): ㉠은근히 하는 부탁.

0. 땅 주인한테 칠념을 드려 봐. 혹시 땅을 얻어 부칠 줄 아나?

칠멘조: ㉠칠면조. ㉡변덕자. 이랬더 저랬다 잘 변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

0. 그 사람 칠멘조일세. 이랬다 저랬다 해.

칠부: ㉠많이 모자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0. 칠부처럼 놀지 말고 똑똑하게 놀아야 한다.

칠삭둥이(칠삭똥이): ㉠칠삭둥이. ㉡똥지 일곱 달 만에 태어난 아이.

1. 일곱달 만에 태어남.
0. 그 앤 칠삭둥이래.
2. 좀 어리석은 사람.
0. 그 애는 칠삭둥이라서 좀 어눌해.
- 칠삭둥이: →칠삭둥이.
- 칠성뱀장우:** ㉠칠성장어. ㉡다목장어과의 물고기. 여름에 하천으로 올라가 상류에서 산란함.
0. 칠성뱀장우는 정력에 좋다.
0. 칠성뱀장우는 엄청 징그러워.
- 칠염: →칠년.
- 칠쟁이:** ㉠칠장이. ㉡칠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0. 칠쟁이한테 집 도색을 부탁해야겠다.
- 칠 흡:** ㉠칠 흡. ㉡일곱 흡.
0. 쌀을 한 칠 흡만 이리 얹혀라.
- 침반이:** ㉠턱반이. ㉡아이 턱밑에 받치는 천.
0. 옛날엔 일학년엔 입학할 땐 침반이를 해 차고 학교에 갔다.
- 침세:** ㉠도정세. 벼를 찧고 내는 세.
0. 그 집 방앗간은 침세가 싸대.
- 칭:** ㉠층. ㉡위로 높이 포개어 지은 집.
0. 영화는 이칭집에 산다.
- 칭감:** ㉠침감. 우린감. ㉡소금물에 담가 뚫은 맛을 없앤 감.
0. 할머니가 담근 칭감은 달아서 맛이 있다.
- 칭계:** ㉠층계. 계단.
0. 칭계를 밟고 올라와 봐.
- 칭계다리:** ㉠층층다리. ㉡높은 곳을 오를 수 있도록 층층으로 만든 다리.
0. 절벽에는 칭계다리를 놓았다.

- 칭구:** ㉠친구.
0. 칭구, 오랜만일세.
0. 우린 칭구야, 칭구.
- 칭칭거린다(칭칭댄다):** ㉠칭얼거린다. 칭얼댄다.
0. 아기가 자지 않고 자꾸 칭칭거린다.
- 칭칭대:** ㉠층층대. 계단.
0. 칭칭대를 딛고 절벽을 오른다.
- 칭칭댄다: →칭칭거린다.



- 칸칸이:** ㉠1. 칸칸이. 2. 사이사이.
1. 칸칸이.
0. 여관에 칸칸이 손님이 다 들었다.
2. 사이사이.
0. 칸칸이 시간 내서 집에 다녀가거라.
- 칼같이:** ㉠1. 깎듯이. 2. 분명하게.
1. 깎듯이.
0. 높으신 분 칼같이 모셔 드렸지.
2. 분명하게.
0.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칼같이 해 줄 거야.
- 칼국시:** ㉠칼국수.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든 국수.
0. 칼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었고 칼국시는 밀갈구로 만들었다.

0. 칼국시로 유명한 집도 있지.

칼도매: ㉠도마. ㉡칼질할 때 밑에 받치는 두꺼운 나무 도막이나 널빤지.

0. 칼도매에 오른 고기다.(어쩔 수 없이 된 운명을 비유한 말)

칼자구(칼자리, 칼자육, 칼자죽): ㉠칼자국.

0. 생선 중간에 칼자구를 낸다.

칼자리: →칼자구.

칼자육: →칼자구.

칼자죽: →칼자구.

칼잘구(칼잘그, 칼잘기): ㉠칼자루.

0. 칼잘구를 잡았다.(상대방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말)

칼잘그: →칼잘구.

칼잘기: →칼잘구.

칼잡이: ㉠칼잡이. ㉡칼을 잘 쓰는 사람.

0. 칼잡이가 총잡이보다 더 무서운 수가 있어.

칼질한다: ㉡양식을 한다.

0. 오늘은 양식집에서 칼질한다.

칼치: ㉠갈치. ㉡갈치과의 바닷물고기.

몸은 길고 알팍한 모양임.

0. 칼치가 칼치 꼬리 문다.(친한 사이 서로 포함하거나 해치는 것의 비유)

0. 제주도에 칼치 낚시하러 가세.

캐시무레하다(캐시무리하다):

㉠계슴츠레 하다. ㉡눈에 힘이 없어 보이는 상태.

0. 잠자다 일어났다. 눈이 왜 캐시무레 하다.

캐시무리하다: →캐시무레하다.

캔다(킨다): ㉠'켜다', '컨다'에서 온 말.

1. 성냥 등으로 불을 일으킨다.

0. 성냥으로 불을 캔다.

2. 물, 술 등을 한꺼번에 많이 마신다.

0.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 캔다.

3. 톱으로 나무를 세로로 썰어서 쪼갬다.

0. 나무를 얇게 캔다.

4.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는다.

0. 고치에서 명주실을 캔다.

5. 현을 활로 쏘어서 소리를 낸다.

0. 바이올린을 캔다.

6. 팔, 다리를 뻗으며 몸을 편다.

0. 기지개를 캔다.

캘래래: ㉡차림새가 허수룩한 사람.

0. 그 앤 원래 캘래래 해.

0. 사람이 어째 캘래래 한 게 그러냐.

커레(커리): ㉠컬레. ㉡한 벌을 세는 단위.

0. 짚신 한 커레 삼았다.

커리: →컬레.

커무하다: →거무하다.

커영: ㉠커녕. ㉡그것은 고사하고 그만 못한 것도 될 수 없다는 뜻의 말.

0. 사냥을 갔는데 돼지는 커영 노루도 한 마리 못 잡았다.

컴커무리하다: ㉠컴컴하다.

0. 해지고 흐리니 눈앞이 컴커무리하다.

케: ㉠1. 켜. 2. 판,

1. 켜.

0. 쌀가루를 여러 케 안친다.

2. 판.

0. 장기 한 케 두세.

케댄다(켄다): ㉠1. 켤다. 2. 횡재한다.

1. 켜다.

0. 성냥을 마구 켜댄다.

2. 횡재한다.

0. 송이 따러 갔다가 독송이 밭을 만나
노다지로 켜댄다.

케스프레하다: →게시무레하다.

켄다: →켄댄다.

켈렐레하다: ㉠헬렐레하다. ㉡취하거나
긴장이 풀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양,

0. 젊은 사람이 왜 켈렐레하다.

켁하다(켁하다): ㉠켁하다. ㉡눈이 쑥
들어간 정기가 없다.

0. 며칠 앓더니 눈이 그만 쁘하다.

켄: ㉠편. ㉡사람이 오고 가거나 물건을
보내는데 이용하는 기회의 수단.

0. 딸래네 집에 이 김치를 뉘 쁘에
보내나.

코가 몽푹해진다(코가 밀게진다):

㉠머쓱해진다. ㉡부끄럽거나 어색하여
기를 펴지 못한다.

0. 잘못된 일을 지적하니 코가 몽푹
해진다.

코가 밀게진다: →코가 몽푹해진다.

코강기: ㉠코감기. ㉡코가 메고 콧물이
나오는 가벼운 증상의 감기.

0. 코강기가 들어서 콧물이 자꾸 나온다.

코고리: ㉠코를 고는 사람.

0. 코고리하고 같이 자다 잠을 못 잤다.

코구영(콧구녕): ㉠콧구멍.

0. 코구영 자꾸 쑤시지 마. 험다.

코납제기(코납쟁이, 코납죽이):

㉠코납작이. ㉡코가 유달리 납작한

사람.

0. 애기 코납제기 뿔라. 코를 자꾸
누르지 마라.

코납제기 뿔다: ㉠기가 꺾였다.

0. 축구 시합에서 3:0으로 저 코납제기
뿔다.

코납쟁이: →코납제기.

코납죽이: →코납제기.

코다리: ㉠코를 걸어 말린 명태.

0. 코다리 명태가 맛이 좋지.

0. 코다리 명태로 명태찜을 한다.

코다부리하다: ㉠퀴퀴하다. ㉡상하고
찌들어 비위가 상할 정도로 냄새가
고리다.

0. 명태가 상했나? 코다부리하다.

코다친다: ㉠봉변 당한다. 망신 당한다.
0.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다친다.

코댕가리 같은: →개떡 같은.

코따쟁이(코딱쟁이): ㉠코딱지. ㉡코에
코가 달라붙은 딱지.

0. 야, 코에 코따쟁이 붙었다.

코딱쟁이: →코따쟁이.

코떼간다: ㉠빼앗아간다.

0. 서울 가서 눈 감으면 코떼간단다.

코리떠레미(코리떠름, 코리떨이):

㉠남은 음식 떨어.

0. 잔치 코리떠레미 한다고 오래.

코리떠름: →코리떠레미.

코리떨이: →코리떠레미.

코린내: →꼬랑내.

코망내이(코망냉이): ㉠코망망이. ㉡코가

막힌 사람을 일컫는 말.

0.아, 그 코망내이 소리하는 여자
말이여.

0.애교가 넘치게 코망내이 소리를 한다.

코망내이: →코망내이.

코빨갱이: ㉠딸기코. 주독코. ㉡코끝이
주독으로 빨갱게 된 코.

0.주독에 걸리면 코빨갱이가 되지.

코빼기: ㉠콧대. 고집. ㉡자기 의견을
세게 내세워 버티.

0.코빼기가 얼마나 센지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아.

코사다: →싸고지다.

코생이(코숭이): ㉠숭이. ㉡열매 뭉치.

0.밤 코생이에 찢렸다.

0.포도 코생이가 탐스럽게 영글었다.

코숭이: →코생이.

코에 찍어바를: ㉠양이 적은.

0.그까짓 것 가지고 누 코에 찍어
바를까?

코웃음(콧웃음): ㉠비웃음. ㉡비웃는 일.

0.그까지 쉬운 일은 코웃음 치고 해치
운다.

코이: ㉠코가.

0.내 코이 석 자인데 누굴 돕겠어.

코쟁이: ㉠서양인. ㉡서양 사람.

0.6.25 전쟁때 코쟁이 군대가 들어와
우리를 도와줬다.

코쿨: ㉠벽에 코처럼 붙인 화덕. 흔히
관솔로 불을 밝힌다.

0.코쿨에 속갱이불(관솔불) 붙여라.

0.코쿨 불 앞에 앉아 밤새도록 삼베를

삼는다.

코쿨제사: ㉠주, 과, 포, 나물, 매(젓밥)
등으로 간단히 지내는 제사.

0.가난한 집에서는 흔히 코쿨 제사를
지낸다.

코플레기: ㉠코흘리개. ㉡코를 질질
흘리는 아이.

0.그애는 코플레기야.

0.코플레기라고 흥 보지 마. 너도
어릴적 엔 다 그랬어.

콜로덕거린다(쿨러덕거린다):

㉠콜록거린다.

㉡콜록 소리를 자꾸 낸다.

0.감기에 걸렸는지 자꾸 콜로덕거린다.

콤콤하다(쿰쿰하다): ㉠찌들고 상한
냄새가 난다.

0.오징어 짓갈이 콤콤하다.

0.고등어 찜이 좀 콤콤하다.

콧구녕: →코구녕.

콧덩이(콧땡이. 코빼기. 콧잔땡이.

콧잔땡이): ㉠코빼기. 콧등.

0.사나운 개 콧덩이 아물 날 없다.

(사나우면 자기도 손해를 본다는 말)

콧땡이: →콧덩이.

콧말기: ㉠콧마루. ㉡콧등 마루가 진 곳.

0.아이 콧말기에 핏줄이 지나갔어.

콧방구(콧방아): ㉠내색을 하는 것.

0.일이 바쁜데 콧방구도 안 끼고 들어
앉았네.

콧방아: →콧방구.

콧배기: →콧덩이.

콧웃음: →코웃음.

콧잔대이: →콧대이.

콧잔배기: →콧대이.

콩가리 집안이다(콩갈기 집안이다):

ⓧ위계질서가 없다.

0.그 집은 콩가리 집안이다.

콩갈기 집안이다: →콩가리 집안이다

콩깍지 낀다(콩깍지 쓴다. 콩깍지

찢다): ⓧ잘못 본다.

0.연애할 땐 콩깍지 낀다.

콩깍지 쓴다: →콩깍지 낀다.

콩깍지 찢다: →콩깍지 낀다.

콩꼬타리: ⓧ콩꼬투리. ⓧ콩알이 들어있는
꼬투리.

0.콩꼬타리가 벌써 누렇게 익는다.

추석이 가까워오나보다.

콩나물대가리: ⓧ음표. ⓧ악보에서 음의
장단 고저를 표시하는 기호.

0.콩나물대가리도 볼 줄 모르니

어찌겠나?

콩날만하다(콩단만하다): ⓧ콩날처럼 작다.

0.크기가 똑 조그만 콩날만하다.

콩단만하다: →콩날만하다.

콩두부: ⓧ두부. ⓧ콩의 단백질을 균혀
만든 음식.

0.콩두부를 볶아놓으면 맛이 좋지.

콩땅(콩땡): ⓧ일땡. 화투할 때 제일 낮은
땡.

0.콩땅이면 내가 먹었다.

콩땡: →콩땅.

콩밥: ⓧ죄수밥.

0.죄를 지면 콩밥 먹는다.

콩보생이: ⓧ콩을 볶아서 빵은 고평.

0.콩보생이는 고소하다.

콩 볶듯 한다: ⓧ콩을 볶을 때 요란하게
튀듯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모습,

0.잔치 지내 먹느라고 콩 볶듯 한다.

콩이니팔이니(콩칠팔새삼육): ⓧ이거니
저거니.

0.콩이니 팔이니 해 봐야 그 게 그
거야.

콩죽 같은 땀: ⓧ구슬 같은 땀.

0.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콩죽 같은
땀이 흐른다.

콩짜가리: ⓧ콩짜개. ⓧ두 쪽으로 갈라진
콩의 한 쪽.

0.콩짜가리도 나누어 먹을 만큼 우애가
깊다.

콩칠팔새삼육: →콩이니팔이니.

콩팔이 퍼들어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0.사탕을 꺼내주니 콩팔이 퍼들어진

모양 이다. 율음을 그친다.

칼썩(켈썩): ⓧ물썩. 칼썩.

1.물썩.

0.생선에서 석유 냄새가 칼썩 난다.

2.칼썩.

0.참기름이 그만 칼썩 쏟아졌다.

쾌: ⓧ쾌. ⓧ어떤 사연. 상황.

0.점을 봤는데 좋은 쾌가 나왔다.

쾌쾌묵었다(괴괴묵었다): ⓧ케케묵었다.

ⓧ일, 물건, 생각 등이 오래 묵어서
쓸모가 없다.

0.생각이 쾌쾌묵어 쓸모가 없다.

괘새(괘쇠. 켜새): ⓧ괘괘과리. ⓧ늦쇠로

만든 정보다 작은 타악기.

0. 쟁새는 농악을 주도한다.
 0. 쟁새를 울리며 농악대가 마을을 돈다.
쟁새눈: ㉠움평눈. ㉡움푹 들어간 눈.
 0. 감기를 알더니 쟁새눈이 됐네.
쟁쇠: → 쟁새.
쟁하다: → 쟁하다.
죄죄묵었다: → 쾌쾌묵었다.
쿠당당통탕: ㉠우당당통탕.
 ㉡우당당거리고 통탕거리는 소리.
 0. 저집이 부부 싸움을 하나? 쿠당당통탕 야단이다.
쿠렁: → 구렁텅이.
쿠사리먹는다: ㉠꾸중을 듣는다.
 0. 일 잘못 배우면 쿠사리먹는다
쿤내: ㉠구린내. ㉡본래의 제맛이 아닌 좋지 않은 냄새.
 0. 밭에서 쿤내가 난다.
 0. 누가 방귀 췌어. 쿤내가 난다.
쿨러덕거린다: → 콜로덕거린다.
쿰쿰하다: → 콧쿰하다.
퀄씩: → 칼씩.
쨙새: → 쟁새.
퀸다: ㉠뀐다.
 0. 방귀를 퀸 사람 누구야.
 0. 집에 가서 생각하니 내가 췌더라.
크다랗다(크다마하다. 크다하다):
 ㉠커다랗다.
 0. 크다란 감자만 골라 간다.
 0. 크다란 돌을 파낸다.
크다마하다: → 크다랗다.
크다하다: → 크다랗다.
크일난다(클난다): ㉠큰일 난다.

0. 너 그 복숭아 따 먹으면 크일난다.
 0. 크일 날 기 따로 있지 뭐 큰일나.
큰떡: ㉠결혼 후 3일 만에 신부집에 갔다가 시댁으로 돌아갈 때 해가는 떡.
 큰떡은 동네에 고루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
 0. 새 며느리 큰떡이래.
큰일 본다: ㉠변 본다.
 0. 나 바빠. 지금 큰일 본다.
큰 짐승: ㉠호랑이에 대한 은어.
 0. 큰 짐승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큰집살이: ㉠감옥살이. ㉡감옥에 갇혀 지내는 생활.
 0. 남의 것 겁내지 않는 사람. 큰집살이 하기 쉽지.
큰코 다친다: ㉠큰일난다. 크게 잘못된다.
 0. 그 사람 잘못 건드리다간 큰코 다친다.
큰틀: → 상애.
클란다: → 크일난다.
클렀니?: ㉠틀렀니?
 0. 이번 시험에 몇 문제 클렀니?
 0. 한 문제 클렀어.
클른다: ㉠끄른다. ㉡매거나 채워진 것을 풀거나 연다.
 1. 맨 것을 푼다.
 0. 보따리를 클른다.
 2. 채워진 것을 연다.
 0. 단추를 클른다.
큼지막큼한: ㉠큼직한. 큼지막한. ㉡꽤 큰.
 0. 식탁이 큼지막큼한 게 좋다.
키꼬라지(키빠리. 키빠기): ㉠키풀 ㉡큰 키를 비하해 하는 말.

0. 키꼬라지 해가지고 허우대는 멀쩡하지.

키빠리: →키꼬라지.

키빠기: →키꼬라지.

키워노니: ㉠키워 놓으니.

0. 애써 키워노니 제 잘났다고 다 달아
났어.

키운메누리: →민메누리.

킨다: →캔다.



타깢다: ㉡'쪼개다', '쪼깢다'에서 온 말.

㉠쿵, 팔 등을 멧돌에 갈아서 쪼깢다.

0. 메밀을 멧돌에 타깢다.

0. 메밀을 타개면 메밀 쌀알과 껍질이
분리된다.

타관내기(타관바지, 타관불이): ㉠타관
사람.

0. 타관내기는 지역 사람과 달라. 주의
해야 돼.

타관바지: →타관내기.

타관불이: →타관내기.

타구났다: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0. 저 사람 재주는 타구났다.

타래밀고: ㉠고개를 떨구고.

0. 축구 시험에서 졌나. 고개를 타래밀고

들어선다.

타승내기: →각승바지.

타승바지: →각승바지.

타인 남: ㉡남.

0. 출가 외인은 타인 남이라 했던가?

타합: ㉡타협. ㉠종도록 합의함.

0. 서로 타합해서 종도록 해봐.

탁 깨놓고: ㉠탁 털어놓고.

0. 속 시원히 탁 깨놓고 말해봐.

탁배기: ㉡막걸리.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짠 술.

0. 여보게. 탁배기 한잔 하세.

0. 걸걸할 땐 탁배기가 좋지.

탈려는: ㉡'타다', '타려는'에서 온 말.

0. 차를 탈려는 순간 친구가 뒤에서
불렀다.

탈바각지: ㉡탈. 탈바가지.

0. 탈바각지를 쓰고 가면 놀이를 한다.

탕난: ㉠아이들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뒹구는 모양.

0. 아이가 장바닥에서 사탕을 사달라고
탕난을 친다.

탕탕바(탕탕방아): ㉠이동식 소형 도정기.

0. 우리집 마당에 탕탕바가 들어 왔다.

탕탕방아: →탕탕바.

태국기: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

0. 국경일에는 태국기를 단다.

0. 1919년 4월 4일, 양양 장날, 독립운동
때는 온 장터에 태국기 물결이 넘쳐났다.

태기질 친다(태기친다, 태를 친다):

㉡태질 한다. ㉠개상에 벋단이나 밑단을
메어쳐서 이삭을 떠는 일.

0. 하루 종일 개상에 태기질 쳐서
벼이삭을 떨군다.
태기친다: →태기질 친다.
태를 뺀다: ㉠얇전을 뺀다. 젊잖을 떼다.
0. 할 수도 있는데 태를 빼면서 못한다고
한다.
태를 친다: →태기질 친다.
태버린: ㉠태어난.
0. 그 곳은 내가 태버린 곳일세.
태생머리(태성머리): ㉠천성.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
0. 태생머리가 원래 고약해.
태성머리: →태생머리.
태와: ㉠'태우다', '태워'에서 온 말.
1. 타게한다.
0. 낙엽을 굵어다 태와라.
2. 피부를 붉게한다.
0. 햇볕에 피부를 태와 봐.
3. 속을 태운다.
0. 아이가 애를 자꾸 태와.
4. 가물이 든다.
0. 가물이 들어 밭을 태와.
5. 빙구를 태운다.
0. 얼음판에 가 빙구를 태와 준다.
6. 돈을 탄다.
0. 갯돈을 태와 준다.
7. 기구를 탄다.
0. 그네를 태와 준다.
택: ㉠턱.
1. 씹는 기관.
0. 택을 놀린다.(듣기 싫은 말을 한다)
2. 의지한다.

0. 택을 댄다.(믿고 의지한다)
3. 배푸는 대접.
0. 승진 택을 낸다.
4. 그렇게 될 까닭.
0. 그 사람이 그럴 택이 없지.
5. 정도나 형편.
0. 열심히 일해도 형편은 만날 그 택이다.
택도 없다: ㉠턱도 없다. 어림도 없다.
0. 그 기량으론 그 사람을 이기기는 택도
없다.
**택수가리(택아리. 택아지. 택조가리.
택주가리):** ㉠턱주가리. 아래턱. ㉠턱을
아주 낮추어 이르는 말.
0. 택수가리 놀리지 말고 잠자코 있어.
택아리: →택수가리.
택아지: →택수가리.
택조가리: →택수가리.
택주가리: →택수가리.
택택하다(틱틱하다): ㉠넉넉하다.
0. 그 사람은 물려 받은 재산이 택택
하다.
탓상: ㉠개상. ㉠곡식을 떠는데 받치는
농기구.
0. 탓상에 탓돌을 올려놓고 태질을 한다.
탱개: ㉠탕개. ㉠물건의 동인 줄을 죄는
물건. 동인 줄의 중간에 비너장을 질러
틀어 넘기면 줄이 죄어짐.
0. 소 길마의 탕갯줄에 탕개를 질러
조인다.
탱갯줄: ㉠탕갯줄. ㉠탕개를 치는 줄.
0. 탕갯줄은 바짝 조여야 실은 짐이
넘어가지 않는다.

터레기: ㉠털.

1.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 나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것.

0.터레기 빠진 술개다.(양상하고 불품없음 을 비유하는 말)

0.터레기도 안 난 것이 날기부터 하려든다. (어린 사람이 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한다는 말)

2.물건의 거죽에 부풀어 일어난 가느다란 섬유.

0.장난치지 마. 터레기 일어난다.

터우리: ㉠터울. ㉡한 어머니가 낳은 자녀의 나이 차이.

0.터우리가 잦다.(자녀간의 나이 차이가 작다)

0.터우리가 길다.(자녀간의 나이 차이가 크다)

터쫘다: ㉠터뜨렸다.

0.홍시를 광주리에 담다가 그만 터쫘다.

터진다: ㉠맞는다.

0.괜히 까불다 한 대 터진다. .

터춘다(터친다): ㉠터뜨린다. ㉡터지게 한다.

0.끓은 곳을 터춘다.

터친다: →터춘다.

털개: →먼지터리개.

털러덕거린다: ㉠털럭거린다.

㉡매달리거나 늘어진 물건이 자꾸 흔들린다.

0.신바닥이 떨어져 자꾸 털러덕거린다.

털레거린다: ㉠터덜거린다. ㉡무거운 발걸음 으로 힘없이 걷는다.

0.먼 길을 털레거리며 걸어 왔다.

털리킨다: ㉠털린다. ㉡놀음판이나 놀음하다 돈을 빼앗킨다.

0.놀음하다 돈은 다 털리킨다.

털버덩: ㉠텀병. ㉡묵직하고 큰 물건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

0.넷가에서 물에 털버덩 하고 뛰어들었다.

털뱅이: ㉠털터리. 빈털터리.

0.그 사람은 투전하다 돈 다 털리고 빈 털뱅이야.

털복생이(털투게비, 털투루바리,

털투생이): ㉠털복숭이. 털투성이.

㉡털이 많이 난 사람이나 물건.

0.강아지가 털복생이다.

털써덕: ㉠털썩. ㉡갑자기 주저앉거나 일을 저지르는 모양.

1.주저앉음.

0.얼음판에 미끄러져 털써덕 주저앉았다.

2.일을 저지름.

0.보험을 털써덕 해약하고 말았네.

3.값이 떨어짐.

0.지난 장에 송이 값이 털써덕 떨어졌다.

털터룸하다(털터름하다): ㉠털털하다.

털털 하다. ㉡성격이 까다롭지 않고 소탈하다.

0.사람 성격이 털터룸하다.

털터름하다: →털터룸하다.

털투게비: →털복생이.

털투루바리: →털복생이.

털투생이: →털복생이.

털팽이(틀팽이): ㉠바보. 멍청이. 멍텅구리.

0. 털팽이 같은 자식, 그것도 못하나?
떴다: ㉠비졌다. ㉡화투나 게임 등을 할 때 비긴 상태.
 0. 이번 판엔 승부 없이 떴다.
테숙테숙(테숙테숙): ㉠배가 불러 먹기 싫어하는 모습.
 0. 애가 밥 먹는 게 테숙테숙한다. 배가 부른 모양이다.
 테숙테숙: ㉠테숙테숙.
토긴다: ㉠달아난다. 도망친다.
 1. 내닫는다.
 0. 뒤도 안 돌아보고 토긴다.
 0. 토기는 노루 보다가 얻은 토끼 놓친다. (자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말)
 2. 내쫓는다.
 0. 도둑은 잡기보다 토기는 것이 상책이다.
토갱이(퇴끼): ㉠토끼. ㉡토끼와 짐승의 총칭. 귀와 뒷다리가 발달해 있음
 0. 토갱이 둘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하나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
토끼질: ㉠오슬길. ㉡폭이 좁은 호젓한 길.
 0. 산 비탈에 토끼질만한 길이 하나 있다.
토드락거린다: ㉠토닥거린다.
 1. 작은 소리를 낸다.
 0. 들깨를 떠느라고 토드락거린다.
 2. 싸움을 한다.
 0. 아이들이 싸우느라고 토드락거린다.
토매기: ㉠토막.

0. 생선을 구우면 가운데 토매기는 아버지 몫이고 꼬랑지는 아낙네 몫이다.
토배기: ㉠토박이. ㉡태어난 고장에 머물러 사는 사람.
 0. 그 사람은 그 고장 토배기야.
 0. 토배기 말엔 사투리가 남아 있다.
 토성불알: ㉠짜불알.
토종꿀: ㉠약꿀. ㉡토종벌이 만든 꿀.
 0. 토종꿀은 자고로 약꿀로 써왔다.
토종비결: ㉠토정비결. 일년 운세를 알아보는 책.
 0. 정초에는 토종비결을 보는 사람이 많다.
토포다: ㉠'툫다', '툫는다'에서 온 말.
 ㉡삼베의 끝을 토포로 눌러 훑는다.
 0. 삼베 실을 이으려고 삼베 끝을 토포다.
톡개놓고: ㉠홍금을 털어놓고.
 0. 톡개놓고 얘기하면 타협점을 찾을 거 같은데...
통다지(통심, 통체): ㉠통째. ㉡나누지 않은 덩어리 모양.
 0. 못밥에는 콩치가 통다지로 놓인다.
 0. 산삼 한 뿌리를 통다지로 먹었더니 감기를 몰라.
통바람: ㉠뒬바람. ㉡세게 부는 바람.
 0. 문을 열어 놓으니 통바람이 들어온다.
통방아: ㉠물방아. ㉡큰 나무에 통을 파 물을 고이고 기울게 하여 곡물을 찧는 방아.
 0. 통방아는 속도는 좀 느려도 디딜방아에 비하면 많이 쉽지.
통승명: ㉠통성명.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성과 이름을 알려 줘.
 0. 초면이야? 그럼 통승명 하고 지내지.
 통삼: →통다지.
 ~통에: ㉠~바람에. ~ 때문에.
 0. 북새통에 정신을 못차리겠다.
 통을 친다: ㉠전체 상황을 파악한다.
 0. 화투 판세를 통을 친다. 어떻게 돌아가 겠나?
 통죄림: ㉠통조림. ㉠고기 과일 따위를 양철통에 넣고 갈무리한 식품.
 0. 참치 통죄림이다. 김치에 볶아먹으면 맛있겠다.
 통채: →통다지.
 통털어: ㉠통틀어. 모두. 몽땅. ㉠있는 대로 모두 합하여.
 0. 이 고구마 통털어 얼마요?
 퇴끼: →토끼이.
 퇴마룻: ㉠퇴마루. ㉠방 밖에 붙인 마루.
 0. 퇴마룻에 걸터 앉으면 시원하다.
 퇴치미: ㉠퇴침. ㉠서랍이 있는 목침.
 0. 퇴치미 이리 가져온.
 0. 할아버지 퇴치미 갖다드려라.
 투개비(투대기. 투바리. 투배기.
 투생이): ㉠투성이. ㉠말 뒤에 붙어 그 말이 매우 많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
 0. 타작을 하면 먼저 투개비가 된다.
 0. 짚신을 진 길에 신었더니 진흙 투개비가 됐다.
 투대기: →투개비.
 투바리: →투개비.
 투발 난다(튀발 난다): ㉠탄로 난다.
 ㉠비밀이 드러난다.

0. 몰래 자두 따 먹은 게 투발 난다.
 투배기: →투개비.
 투생이: →투개비.
 툽: ㉠굴참나무 껍질로 만든 그물의 부표.
 0. 그물에 툽을 달아 그물을 띄운다.
 0. 툽으로 병마개를 만든다.
 통갈: ㉠청미래덩굴. ㉠백합과의 낙엽 활엽 덩굴 관목.
 0. 빨간 통갈이 탐스럽게 익었다.
 0. 통갈나무 가지를 꺾어다 장식용으로 쓴다.
 통게지다(튀게지다): ㉠'통기다', '통겨지다', '통겨진다'에서 온 말.
 ㉠어긋나 빠져나 온다.
 1. 버티어 놓은 물건을 빠지게 한다.
 0. 빗장이 통게진다.
 2. 뼈의 관절을 어긋나게 한다.
 0. 다리뼈가 통게진다.
 3. 기회가 어그러지게 한다.
 0. 그 일이 왜 거기서 통게지나?
 통두란: ㉠똥똥보. 똥똥이. 똥보.
 0. 요즈음 살이 쪼서 통두란이가 됐다.
 통망시롭다: ㉠통명스럽다. 무뚝뚝하다.
 ㉠아기자기한 맛이 없다.
 0. 통망시롭게 먼 애길 그렇게 해.
 통바리(통사바리. 통사발. 통수바리.
 통아리): ㉠꾸중. 꾸지람. ㉠욕을 먹는 것.
 0. 일을 잘못하여 통바리를 먹었다.
 0. 통바리 먹지 말고 잘 해 봐.
 통방구리(통방굴): ㉠방울. 통방울.
 0. 빗물이 떨어지며 통방구리가 진다.

통방굴: →통방구리.

통사바리: →통바리.

통사발: →통바리.

통수바리: →통바리.

통아리: →통바리.

통자(통재):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큰 술 통.

0.잔치 지내느라 술을 통자로 받아왔다.

통재: →통자.

통통거린다: ㉡투덜거린다. ㉢혼자 불평하는 말로 중얼거린다.

0.운동화 안 사준다고 저렇게 통통거리잖나.

통하다(팅하다): ㉡뽀루통하다.

㉢불만스러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 있다.

0.왜 통해가지고 있지? 뭐가 불만이야.

튀발난다: →투발난다.

튀전: ㉡투전. ㉢화투 놀이를 하는 것.

0.튀전하다 돈을 다 날렸대.

0.튀전하면 집안 재산 다 날아가지.

튀튀거리는: ㉡틀틀거리는. ㉢마음에 못마땅하여 투덜거리는.

0.그 사람은 일을 맡기면 튀튀거리는 습관이 있다.

튀게 먹기: ㉢통기어 먹기. 장기 쪽을 통겨 상대 장기 쪽을 덜어뜨리는 놀이.

0.야! 우리 장기 쪽 튀게 먹기 놀이 할래?

튀게진다: →튀게진다.

튀긴다: ㉡튀긴다. ㉢끓는 기름에 넣어 익힌다.

0.파배기를 기름에 튀긴다.

트기(트이기): ㉡혼혈아. ㉢서로 다른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0.트기는 눈빛이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달라.

0.트기는 피부 색깔도 달라.

트러배기(트레배기): ㉡곱빼기. ㉢음식의 두 몫을 한 그릇에 담은 분량.

0.냉면을 트러배기로 먹는다.

트레배기: →트러배기.

트름: ㉡트림. ㉢먹은 음식이 잘 삭지 않고 괴어서 생긴 가스가 입으로 북받쳐 오르는 현상.

0.속이 거북하더니 트름이 난다.

0.트름이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

트이기: →트기.

트직하다: ㉡트적지근하다. ㉢소화가 안되어 거북하다.

0.떡을 먹었더니 속이 트직하다.

0.트직하거든 소화제를 먹어라.

특별난다: ㉡특별하다.

0.너무 특별나게 놀지 마. 티난다.

튼다: ㉡비긴다.

0.끝수가 같으면 튼다.

뜯어: ㉡뜯어.

0.낡은 판자를 뜯어내고 새 판자를 뒀는다.

0.닭을 푹 삶아 뜯어먹는다.

뜯어곤친다: ㉡뜯어고친다.

0.낡은 마루 널조각을 뜯어곤친다.

0.옷자락을 뜯어곤친다.

뜯어말린다: ㉡뜯어말린다. ㉢붙어 싸우는 것을 뜯어말린다.

0.영켜 싸우는 것을 뜯어말린다.

뜯어먹인다: ㉸뜯어 먹인다.

0. 닭고기를 아이에게 뜯어먹인다.

뜯어본다: ㉸뜯어본다. ㉸이모저모 살핀다.

0. 맞선을 볼 때 사람을 이모저모 뜯어본다.

뜯겁다: →떨겁다.

틀래(틀래버려): ㉸'틀리다', '틀러'에서 온 말.

0. 그렇게 하면 틀래.

0. 왜 자꾸 틀래.

틀래버려: →틀래.

뜯어매고: ㉸숙이고.

0. 몸살이 왔나? 고개를 뜯어매고 온다.

뜯어먹는다: ㉸털어먹는다.

1. 요구해서.

0. 취직이 됐다고 뜯어먹는다.

2. 재산을.

0. 그 좋던 재산을 투전하다 다

뜯어먹는다.

뜯어백힌다: ㉸들어박힌다.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박힌다.

0. 핍이 매에 쫓기어 산비탈에

뜯어백힌다.

뜯팡이: →털팡이.

뜯다: →떨겁다.

툼바구(툼사구니, 툼서리): ㉸툼새, 툼바구니 의 변형. ㉸벌어진 툼.

0. 창틀의 툼바구를 막아라.

0. 문 툼바구로 바람이 들어온다.

툼사구니: →툼바구.

툼서리: →툼바구.

티각태각한다(티격태격한다):

㉸티격태격 한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시비를 따지는 모양.

0.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티각태각한다.

티격태격한다: →티각태각한다.

티게비: ㉸티.

0. 바람이 세게 분다. 눈에 티게비 들어갈라.

티겁게: ㉸아니꼽게.

0. 야, 너무 티겁게 놀지 말아야.

티미하다: ㉸투미하다. ㉸매사에 어리석고 둔하다.

0. 어디가서 티미하게 굴지 말아라. 남이 흥본다.

0. 티미한 사람 같으니라구.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쓰나.

티티한다: ㉸싫다고 한다. 아니라고 한다.

1. 싫다고 한다.

0. 고무신을 사줬더니 싫다고 티티한다.

2. 아니라고 한다.

0. 공책을 사다 줬더니 그게 아니라고 티티한다.

틱틱하다: →택택하다.

팅팅하다: ㉸통통하다. ㉸붓거나 살찌거나 불어서 부피가 늘어난 모양.

0. 고기가 팽팽한 게 아직 싱싱해.

팅하다: →통하다.

파계중: ㉠파계승. ㉡계울을 깨뜨린 승려.

0. 파계중이 되려거든 애당초 불가에 뛰어들지나 말지.

파김치가 된다(파짐치가 된다): ㉠지친다.

㉡일에 시달려 힘이 빠진 상태.

0. 일에 지쳐서 그만 파김치가 된다.

파대기친다(패댕가리친다. 패댕이친다.

패대기친다): ㉠패대기친다. ㉡심하게 내던지거나 넘어뜨린다.

0. 씨름할 때 상대를 파대기친다.

파대웃음: ㉠파안대소. ㉡큰소리 내어

웃는 웃음.

0. 파대웃음 소리가 방안에 넘쳐난다.

파둥긴다(파뒤진다. 파똥긴다.

파똥긴다. 파엿는다. 파재친다):

㉠파헤친다. 혈뜯는다.

1. 파헤친다.

0. 닭이 거름더미를 파둥겨 벌레를 잡아 먹는다.

2. 혈뜯는다.

0. 상관의 비리를 파둥긴다.

파뒤진다: ㉠파둥긴다.

파똥긴다: ㉠파둥긴다.

파똥긴다: ㉠파둥긴다.

파래: ㉠용두레.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용구.

0. 봄철에 가뭄이 들면 천수답은 파래를 푸느라고 야단들이다.

파멘: ㉠파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직을 그만두게 함.

0. 그 공무원이 돈 들어먹다 파멘 됐다.

파엿는다: ㉠파둥긴다.

파이까: ㉠파니까.

0. 칙을 한질 파이까 다리만 한 게 나온다.

파이다: ㉠틀렸다. 잘못됐다.

0. 장날 비가 와서 파이다.

파재친다: ㉠파둥긴다.

파짐치가 된다: ㉠파김치가 된다.

파토: ㉠파투. ㉡화투 놀이에서 그 판이 무효가 되는 것.

0. 화투 치다 파토 놓기 없기다.

0. 파토 치는 사람 벌금 물기다.

팍삭하다: ㉠팍신하다. ㉡보드랍고 탄력이 있다.

0. 감자가 잘 여물어서 팍삭하다.

판금사: ㉠판검사. ㉡판사와 검사.

0. 판금사도 일생을 살고 목동도 일생을 사는데 누가 더 행복한가는 묻지를 마라.

판대기(판때기): ㉠널빤지. 판자.

0. 포알 통 나무 판대기로 책상을 짜서 공부를 했지.

판때기: ㉠판대기.

판박이다(판백이다): ㉠닭았다.

0. 부자간에 판박이다.

0. 모녀간에 아주 판박이다.

판백이다: ㉠판박이다.

판사시험: ㉠사법시험. ㉡판사,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을 뽑는 국가고시.

0.그 집 아들이 판사시험에 합격했다.

판슴(판심): ㉠판심. ㉡빚진 사람이 빚을 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어 갖게 함.

0.그 집이 투전하다 재산을 날려 판슴에 들어갔다.

판심: →판슴.

판판결이다: ㉠판판이다.

0.그 두 사람은 서로 성격이 판판결이야.

0.그 일과 저 일은 하기가 판판결이야.

팔공산 땅(팔공산 땡): ㉠팔 땡. 여덟 곳짜리 회투장이 두 장인 땡.

0.팔공산 땡이다. 이 번엔 내가 먹었다.

팔공산 땡: →팔공산 땅.

팔꼬뱅이(팔꿈머리. 팔꿈이): ㉠팔꿈치.

㉡팔의 중간 관절이 이어진 곳의 바깥쪽.

0.요즈음 팔꼬뱅이가 자꾸 아파.

팔꿈머리: →팔꼬뱅이.

팔꿈이: →팔꼬뱅이.

팔뚝질: ㉠팔을 다른 손으로 감싸며 내지르는 행위. 욕하는 행동임.

0.자기 맘에 안 맞으면 팔뚝질을 하나?

팔띠기: ㉠팔때기. ㉡팔의 낮춤 말.

0.처녀가 팔띠기를 어디서 들어내 놓고 다니나? .

팔모각지(팔모강지. 팔목쟁이): ㉠팔목.

팔모가지. ㉡손에 맞는 팔의 끝 부분.

0.팔모각지는 어디 달아매 났나? 왜 일을 안 해.

팔모강지: →팔모각지.

팔목쟁이: →팔모각지.

팔부: ㉠바보. 팔꾼이. ㉡모자라는 사람을 이르는 말.

0.그 사람 팔부야. 좀 모자라.

0.팔부 같은 짓은 하지마.

팔삭덩이(팔삭동이): ㉠팔삭동이.

1.벤지 팔개월 만에 낳은 아이.

0.그 애는 팔삭덩이래.

2.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조롱하는 말.

0.팔삭덩이 같으니라구.

팔삭동이: →팔삭덩이.

팔어넘긴다(팔어넣는다. 팔어넣는다.

팔어먹는다. 팔어없앤다.

팔어치운다): ㉠판다. 팔아넘긴다.

0.감자를 감자떡 장수에게 팔어넘긴다.

팔어넣는다: →팔어넘긴다.

팔어넣는다: →팔어넘긴다.

팔어먹는다: →팔어넘긴다.

팔어없앤다: →팔어넘긴다.

팔어치운다: →팔어넘긴다.

팔오굽(팔오굽패기. 팔오굽뎡이):

㉠팔오굽. ㉡팔꿈치의 오그린 안쪽.

0.팔오굽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안 굽는다.

(인간 만사가 자기편을 챙긴다는 말)

팔오굽패기: →팔오굽.

팔오굽뎡이: →팔오굽.

팔재: ㉠팔자. ㉡사람의 한평생의 운수.

0.산삼발을 만나면 팔재 고치재.

팔재걸음: ㉠팔자걸음. 여덟팔자걸음.

0.팔재걸음 해 봐야 양반 티가 안 나네.

팔재타령: ㉠팔자타령. ㉡불행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일.

0.게으른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팔재

타령 만 한다.

팜마아지(팔망아지): ㉠호랑나비에벌레.

0. 팜마아지가 고구마 잎을 갇아 먹는데
어찌나 징그러운지 깜짝 놀랐다.

팡개친다: ㉠팡개친다. ㉡내던지거나 내버
려둔다.

1. 아무렇게나 힘차게 내던진다.

0. 책가방을 팡개치고 놀러 돌아났다.

2. 관계를 끊고 돌보지 않는다.

0. 처자식을 팡개치고 어디로 가느냐?

3. 어떤 목적을 위해 희생한다.

0. 내 일은 팡개치고 달려들었다.

팔날(팔알갱이, 팔알맹이): ㉢팔 알.

0. 튕겨나간 팔날을 알뜰히 주어라.

팔망아지: →팜마아지.

팔알갱이: →팔날.

팔알맹이: →팔날.

패거랭이(패떼거리, 패떼거리): ㉣패거리.

㉤무리 패를 낚잡아 이르는 말.

0. 나쁜 패거랭이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패꾼: ㉣패륜아. ㉤도리에 어그러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

0. 그 사람은 문중에 패꾼일세.

패낸다: ㉣파낸다.

0. 바늘로 가시를 패낸다.

0. 팽이로 밭에 박힌 돌을 패낸다.

패댕가리친다: →파대기친다.

패댕이친다: →파대기친다.

패동패동: ㉣포동포동. 피동피동. ㉤통통
하게 살찐 모양.

0. 강아지를 잘 먹였더니 살이 패동패동
하게 찼어.

패디기친다 →파대기친다.

패떼거리: →패거랭이.

패떼거리: →패거랭이.

패렀다: ㉣아위었다. ㉤몸의 살이 빠져서
수척하게 됐다.

0. 강아지가 패렀다.

0. 먹은 것은 다 어디로 가고 그렇게
패렀냐?

패쌘박질: ㉣패싸움. ㉤패를 지어서
싸우는 일.

0. 강패들은 패쌘박질을 잘 하지.

패인다(패킨다): ㉣파인다. ㉤'파다'의
피동. 파임을 당한다.

0. 낙수물에 땅이 패인다.

0. 처마 끝에 돌이 패인다.

패킨다: →패인다.

팬다: ㉣핀다.

1. 갠 것을 젖힌다.

0. 아버지 이부자리를 팬다.

0. 잘 하던 일도 멍석 패면 하지 않는다.

2. 구김이나 주름 따위를 반반하게 한다.

0. 바지 구김을 팬다.

3. 굽은 것을 곧게 한다.

0. 일을 하다 허리를 팬다.

4. 생각, 감정, 기세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주장한다.

0. 품었던 꿈을 마음껏 팬다.

5. 세력이나 작전, 정책 따위를 벌이거나
넓힌다.

0. 차츰 세력을 팬다.

6. 벌린다.

0. 비가 온다. 우산을 팬다.

7.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베푼다.

0.원님이 선정을 팬다.

팬팬한: ㉠편평한. ㉡넓고 평평한.

0.발이 팬팬한 게 꽤 넓다.

0.팬팬한 발은 일하기 좋다.

0.길이 팬팬해서 걸기가 좋아.

팬하다: ㉠편하다. ㉡휘하다.

1.마음이나 몸이 편하다.

0.마음이 팬하다.

2.거추장스럽지 않고 수월하다.

0.호미가 쓰기 팬하다.

3.휘하다.

0.들관이 팬하다.

퍼데기(포디기): ㉠포대기. ㉡어린 아이의 이불.

0.아이는 낳지 않고 퍼데기 장만부터 한다.

퍼데기 쓴다: ㉠덤터기 쓴다. ㉡뒤집어 쓴다. 바가지 쓴다.

0.술 얻어 먹으러 갔다가 술값을 퍼데기 쓴다..

퍼드러진다: ㉠퍼진다.

1.넓적하게 벌어진다.

0.송이 갓이 퍼드러진다.

2.기분이 풀린다.

0.알사탕을 하나 주니 울던 아이가 퍼드러진다.

퍼드레기: ㉡갓이 퍼진 버섯.

0.송이 퍼드레기는 등외 상품이어서 값이 싸다.

퍼들껍겨린다: →버들껍겨린다.

퍼떡해라: ㉠퍼뜩해라. 빨리해라.

0.일을 퍼떡해라. 꾸물대지 말고.

퍼석눈: ㉠함박눈. ㉡함박꽃 송이처럼 굴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

0.퍼석눈이 내린다. 눈이 곧 그치려나 봐.

퍼석돌: ㉠푸석돌. ㉡돌이 푸석푸석 헤진 돌.

0.퍼석돌은 받쳐보아야 소용없다. 곧 부서질 테니까.

퍼 엉긴다: ㉠퍼 안긴다.

0.물놀이하다가 서로 물을 마구 퍼 엉긴다.

0.화가 났는지 욕을 마구 퍼 엉긴다.

퍼제: ㉠퍼뜨려.

0.남의 흉을 그렇게 퍼제 놓면 어떻게 하나.

퍼춘다(퍼친다): ㉠퍼지다, ‘퍼진다’의 변형. ㉡널리 퍼지게 한다.

0.남의 소문을 자꾸 퍼춘다.

퍼친다: →퍼춘다.

떡데기: ㉠떨기. 포기.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된 덩이.

0.배추 떡데기가 무척 크네.

떡데기술: ㉠다복술. 반송.

0.떡데기술이 예쁘게 자란다.

떡으나(떡이나): ㉠떡. 썩. 많이.

0.그게 떡으나 많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돼.

0.생일이 돌아오니 떡으나 좋겠다.

떡이나: →떡으나.

편뜩: ㉠퍼뜩.

1.생각이 갑자기 떠오름.

0.아! 그 사람. 편뜩 생각난다.

2.무엇이 갑자기 나타나는 모양.

0.솔개가 편뜩 지나갔다.

3.정신이 드는 모양.

0.정신을 편뜩 차려야지.

편적거리다: ㉠내놓고 보인다.

0.적은 떡은 편적거리지 마. 나중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

편히: →뻘히.

펼러덕거리다: ㉡1.펼러거리다. ㉢2.자주 드나든다.

1.펼러거리다.

0.바람이 부니 깃발이 펼쳐덕거리다.

2.드나든다.

0.문을 펼쳐덕거리며 자주 드나든다.

펼적된다(펼쩍된다): ㉣아니라고 정색을 한다.

0.그 말을 듣고는 펼쳐된다.

펼쩍된다: →펼적된다.

평딩하다: ㉤푼더분하다. 푼푼하다.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0.바지가 평딩한 게 여유가 있어 좋다.

평을 친다: ㉦푼을 친다. 뺨을 친다.

허푼을 띤다.

0.바른대로 말을 안 하고 평을 친다.

0.평을 쳐먹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까?

평퍼즙하다: ㉧평퍼즙하다.

㉨등그스름하고 편편하게 옆으로 퍼져 있다.

0.얼굴이 평퍼즙한 게 밋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그래.

폐(폐딱지. 폐쪼가리. 폐씨. 폐).

폐딱지. 폐쪼가리. 폐씨. 표딱지):

㉩표. ㉪증거가 될만한 쪽지.

0.기차 폐를 잘 간수해라.

0.장터에 곡마단이 왔는데 입장 폐가 있어야 들어가지.

폐딱지: →폐.

폐봐: ㉫펴봐.

0.보따리를 폐봐. 뭐가 들어있나.

폐안도(평안도. 평안두. 평안도.

피안도): ㉬평안도.

0.평안도 사람을 맹호출림(猛虎出林)이라 했던가.(숲 속에서 나오는 호랑이라처럼 무섭다는 말)

폐양냉멘(피양냉멘): ㉭평양냉면. 물냉면.

평양지방 전통 냉면.

0.폐양냉멘이 질긴 게 맛이 좋다.

0.폐양냉멘은 물냉멘이다.

폐쪼가리: →폐.

폐씨: →폐.

폐토(폐투. 표투): ㉮표시. ㉯겉으로

나타내 보임.

0.기분이 없더라도 폐토 내지 말고 잠자코 있어.

폐투: →폐토.

펜: ㉺편.

1.떡.

0.그 펜 그릇 이리 보내.

2.방향.

0.이 펜으로 가면 그 집이 나와요.

3.인편.

0.잔치한단 소식을 누구 펜에 보내나.

4.형편.

0.경기가 좋아지는 펜이야.
펜가른다(펜갈른다): ㉠편 가른다.
 0.야, 우리 펜 갈라 축구 시합하자.
 펜갈른다: →펜가른다.
펜다: ㉠두드린다. ㉠편다.
 1.두드린다.
 0.군대가 졸병을 막 펜다.
 2.편다.
 0.새로 온 신문을 펜다.
펜도선: ㉠편도선. ㉠입 속에 있는
 림프선.
 0.요즘 펜도선이 부었어.
펜두통: ㉠편두통. ㉠머리 한 쪽 부분이
 아픈 병.
 0.펜두통이 와서 한 쪽 머리가 아파.
펜든다: ㉠편든다. ㉠어떤 편을 돕거나
 두둔 한다.
 0.가재는 게 펜든다.(같은 부류끼리 협력
 한다는 말)
펜안: ㉠편안.
 0.자네 요즘 펜안한가.
펜지: ㉠편지.
 0.군인 간 아들한테서 펜지가 왔다.
펜지질: ㉠편지질. ㉠편지를 자꾸 써서
 보내는 짓.
 0.연애할 땐 펜지질 하느라고 정신없지.
펜짚다: ㉠편짚다. ㉠편을 갈라 조직한다.
 0.양쪽이 엇비슷하게 펜을 짜야 돼.
펜찮다: ㉠편찮다. ㉠편하지 아니하다.
 0.요즘 할아버지께서 펜찮으시다.
펜파적: ㉠편파적.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 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0.심판이 공평하지 못하고 좀
 펜파적이다.
펠체 봐: ㉠펼쳐 봐.
 0.어디 보따리를 펠체 봐.
핑: ㉠핑.
 1.땅 평수.
 0.그 논이 몇 핑이나 된대.
 2.평가.
 0.그 사람 핑이 좋아.
핑균(핑균): ㉠핑균.
 0.이번 시험에 핑균 90점 이상 나와야
 할 텐데...
 핑균: →핑균.
핑년작: ㉠핑년작. ㉠보통 수확의 농사.
 0.금년 농사는 핑년작은 돼.
 0.핑년작이면 됐지머. 머 더 바라겠나.
핑등: ㉠핑등.
 0.남녀 핑등이래도 어디 그런가.
 0.그래서 성 핑등한다고 교육을 하지
핑발: ㉠핑발. ㉠편평족.
 0.핑발은 오래 걷지 못한다지.
 0.핑발은 군대 안 간대.
핑범하다: ㉠핑범하다. 보통이다.
 0.그 사람은 평소엔 핑범한 사람이었어.
핑상: ㉠핑상. ㉠편평한 상.
 0.핑상을 퍼라. 밥 먹자.
핑생(핑상. 한핑상): ㉠일생. ㉠평생. ㉠한평생.
 0.한 핑생을 그 집에서 살았다.
 0.핑생 살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핑안도: →페안도.
 핑안두: →페안도.
핑지: ㉠핑지.

0. 농사일이 핑지라서 일해 먹기 쉽다.

핑지 분란: ㉠핑지 풍파. ㉡뜻밖의 분쟁이 일어나는 풍파.

0. 괜히 핑지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핑판: ㉠핑판.

0. 사람은 살면서 핑판이 좋아야 돼.

핑핑하다: ㉡힘이 기울지 않다.

0. 서로 맞대결 해 봐. 아마 핑핑할 거야.

핑풍: →뽕풍.

펴안도: →폐안도.

핑상: →핑생.

핑저울: ㉠천칭. ㉡수평 저울.

0. 핑저울은 정해진 물건을 달 때 편리하다.

핑풍: →뽕풍.

포개 입는다: ㉠껴입는다. ㉡겹쳐 입는다.

0. 추울 때는 옷을 포개 입는다.

포대 째(푸대, 푸대 째): ㉠자루, 포대.

0. 곡식을 넣어둔 포대 째를 쥐가 찢었다.

포동통하다: ㉠포동포동하다. ㉡통통하게 살이 찌고 보드라운 모양.

0. 강아지를 잘 먹였더니 포동통하다.

포두: ㉠포도. ㉡포도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나무.

0. 흑 포두로는 적 포두주를 담그고, 청 포두로는 백 포두주를 담근다.

포디기: →퍼테기.

포시럽다(포시롭다): ㉠포근하다.

1. 탄력있고 보드러워 편안한 느낌이 있다.

0. 아기 포대기가 포시럽다.

2. 감정, 분위기 따위가 보드럽고 편안

하다.

0. 아이가 포시럽게 잠을 잔다.

3. 날씨가 바람이 없고 따듯하다.

0. 봄 날씨처럼 포시럽다.

포시롭다: →포시럽다.

폭팔물: ㉠폭발물. ㉡폭발성 물질의 총칭.

0. 폭팔물은 위험하니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뢰: →폐.

뢰딱지: →폐.

뢰본: ㉠표본. ㉡본보기가 되는 물건.

0. 말로만 좋다 하지 말고 뢰본을 제시해 봐.

뢰시: ㉠표시. ㉡겉으로 나타내 보임.

0. 겉으로 뢰시 나게 굴지 마.

뢰시판(뢰지판, 표식판): ㉠표지판. ㉡알리는 내용을 적거나 그려 놓은 판.

0. 길 갈 때는 뢰시판을 잘 보고 가면 된다.

뢰지판: →뢰시판.

뢰쫄가리: →폐.

뢰찌: →폐.

표딱지: →폐.

표식판: →뢰시판.

표투: →폐토.

푸낭구(풍낭구, 풍낭기): ㉡싸리나무, 참나무 가지 등의 푸른 나무.

0. 초가을엔 푸낭구 하기가 좋다.

0. 푸낭구 하러 갔다 능이버섯을 따다.

푸대: →포대 째.

푸대 째: →포대 째.

푸대 줌: ㉠푸대 째.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

0.손님을 푸대접 하면 못 쓴다.
푸덕푸덕: ㉠빨래나 고기가 물이 찢 모양.
 0.빨래가 푸덕푸덕 해지거든 손질해서
 펴라.
 0.오징어가 푸덕푸덕할 때 구우면 먹기
 좋다.
푸럭죽: ㉠풀떼기. ㉡잡곡 가루로 풀처럼
 쏜 죽.
 0.6.25 전쟁 때는 푸럭죽이라도 얻어
 먹으면 다행이었지.
푸루시름하다: ㉠푸르스름하다.
 0.신록이 푸루시름 해졌다.
푸르딩딩하다: ㉠푸르맹맹하다. 푸룻푸룻
 하다.
 0.정강이에 멍이 들어 푸르딩딩하다.
푸른콩: ㉠청대콩. ㉡아직 덜 익어 물기가
 있는 콩.
 0.푸른콩을 밥에 넣으면 맛이 있단다.
푸성구(푸성기): ㉠푸성귀. ㉡온갖 나물을
 말함.
 0.푸성구 부쳐 먹을 밥이라도 있어야지.
 푸성기: →푸성구.
푸세식 벤소(푸세식 정낭): ㉡재래식 변소.
 0.푸세식 벤소는 늘 똥, 오줌을 퍼내야
 한다.
 푸세식 정낭: →푸세식 변소.
푸장: ㉠천막. 차일.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가림막.
 0.마당에 푸장을 치고 잔치에 온 손님을
 맞는다.
푼수대가리(푼수떼기. 푼수띠기): ㉠푼수.
 ㉡분수를 모르고 덤벙대는 사람.

0.푼수대가리 없이 떠들어대지 마.
 푼수떼기: →푼수대가리.
 푼수띠기: →푼수대가리.
풀라구: ㉠'풀다', '풀려고'에서 온 말. 풀어
 보려고.
 1.뭍은 것이나 멍친 것을 끄르거나
 풀어지 게 한다.
 0.옷고름을 풀라구 한다.
 0.매듭을 풀라구 그러느냐?
 2.감정, 분노 등을 누그러지게 하거나
 가라앉게 한다.
 0.오해를 풀라구 그런다.
 0.원한을 풀라구 한다.
 3.단단한 것을 물에 푼다.
 0.된장을 끓는 물에 풀라구 한다.
 0.밀가루를 물에 풀라구 그런다.
 4.꿈, 점 등의 길흉을 판단해 낸다.
 0.점쟁이가 점괘를 풀라구 한다.
 5.금지, 제한되었던 것 등을 터 놓는다.
 0.통금을 풀라구 한다.
 6.마음에 품은 것을 이룬다.
 0.서운했던 마음을 풀라구 한다.
 7.피로, 독기 같은 것을 없어지게 한다.
 0.고단한 몸을 풀라구 한다.
 8.깊은 문제, 이치 등을 궁리해 밝힌다.
 0.어려운 문제를 풀라구 한다.
 9.사람을 동원한다.
 0.형사를 풀라구 한다.
 10.돈 따위를 방출한다.
 0.명절 자금을 풀라구 한다.
 11.코를 밖으로 나오게 한다.
 0.코를 풀라구 수건을 받친다.

12. 액체를 퍼낸다.

0. 물을 풀라구 두레박을 매달았다.

풀매러: ㉠김매러. ㉡잡초를 뽑아내러.

0. 할아버지께서는 풀매러 가셨어요.

풀무간: →대장간.

풀섞(풀수푸렁): ㉠풀섞. ㉡풀이 무성한 수풀.

0. 풀섞에 함부로 들어서지 마라. 뱀 무섭다.

풀수푸렁: →풀섞.

풀쑥: ㉠불쑥.

1. 갑자기 쑥 내밀거나 비어져 나오는 모양.

0. 손을 풀쑥 내밀었다.

2.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모양.

0. 풀쑥 그런 말은 왜 해.

폼는다: ㉠뽀뽀한다.

0. 짚을 축이기 위해 물을 입에 물고 폼는다.

푼고치: ㉠푼고추. ㉡아직 익지 않은 푸른 고추.

0. 보리밥에 푼고치를 고추장 찍어 입에 넣으면 맛이 나지.

푼바숨(푼바숨): ㉠푼바심. ㉡채 익기 전의 벼나 보리를 베어 떨거나 훑는 일.

0. 추석이 가까워오니 천신할 푼바숨을 해야겠다.

푼바숨: →푼바심.

푼베: ㉠푼벼. ㉡아직 여물지 아니한 벼.

0. 천신을 하려고 푼베를 베어다 바심을 한다.

푼사개(푼사개): ㉠푼사과. ㉡아직 덜 익은 퍼런 사과.

0. 추석 명절에 천신하려고 푼사개를 탄다.

푼사개: →푼사과.

풍간다: ㉠거짓말한다.

0. 풍끼는 소리 하지 마.

풍낭그: →푸낭구.

풍낭기: →푸낭구.

풍덩하다: ㉠푼더분하다. 넉넉하다.

0. 여름 옷은 풍덩해야 바람도 잘 들어오고 좋다.

풍선: ㉠뚫단배. 범선.

0. 옛날에는 먼 바다도 풍선을 타고 노를 저으며 고기 잡으러 다녔지.

풍수쟁이: ㉠지관. ㉡풍수설에 따라 집터, 뗏자리를 잡는 사람.

0. 풍수쟁이가 뗏자리 방향을 잡는다.

풍신할머이: ㉠영등할머니. ㉡풍신할머니.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음력 2월 초하룻 날 아침 정화수와 시루떡을 해놓고 한 해의 운과 안녕을 빈다.

0. 풍신할머이에게 한해의 운과 가정 안녕 을 빈다.

풍쟁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0. 그 사람 풍쟁이야. 믿을 사람이 못 돼.

풍지박산(풍지박상): ㉠풍비박산.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0. 사업하다 실패하면 집안이 풍지박산 되지.

풍지박상: →풍지박산.

피: ㉠화투에서 꺾떼기를 지칭함.

0. 피도 많이만 오라 그래. 점수 오르게.

피감자: ㉠겉질째 쥘 감자.

0. 피감자를 벗겨 먹는 맛도 꽤 있지.

피금사: ㉡피검사.

0. 병원에 가서 피금사를 받아봐야 병을 알수 있지.

피내림: ㉢유전. ㉣조상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짐.

0. 피내림은 속일 수 없대. 가족력이 그것 을 말하지.

피다리: ㉤하지 정맥류. ㉥혈행 장애로

인해 핏줄이 불룩하게 되어 흑이 된 다리.

0. 그 사람 다리는 피다리야.

피따쟁이(피딱쟁이): ㉦피딱지. ㉧피가

굳어서 된 딱지.

0. 보자, 상처에 피따쟁이가 앉았다.

피딱쟁이: →피따쟁이.

피래미: ㉨피래미. ㉩잉어과의 민물고기.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뚜렷한 혼인색을 띤.

0. 피래미는 비교적 맑은 물에 산다.

0. 피래미만 걸려들었구나.(작은 것들만 걸렸다는 말)

피래준다(피룬다): ㉪나누어준다.

0. 구호물자로 온 학용품을 학생들에게 피래준다.

피레침: ㉫피뢰침. ㉬벼락을 막기 위해

건물의 꼭대기에 세우는 끝이 뾰족한 금속제 막대기.

0. 높은 건물에는 벼락을 막기 위해 피레침을 세운다.

피룬다: →피래준다.

피마주: ㉭피마자. 아주까리. ㉮대극과의

한해살이풀. 열매는 기름을 짜 식용, 약용 으로 쓴다.

0. 피마주가 잘 자란다.

0. 피마주 열매로 기름을 짜야 되겠다.

피본다: ㉯1.곤욕 치른다. 2.손해 본다.

1. 곤욕치른다.

0. 욕쟁이 할멈을 잘못 건드렸다가 피본다.

2. 손해 본다.

0. 생선 장사 하다가 날씨가 더워 피본다.

피석돌: ㉺푸석돌 ㉻풍화작용으로

푸석푸석해진 돌.

0. 피석돌은 부서져 내려서 쓸모가 없다.

피안도: →폐안도.

피암반도 나무란다: ㉼피나무로 만든

좋은 떡 안반인데도 안반 때문에 떡이 안된다고 나무란다.

0. 그 여잔 피암반도 나무란다.(남탓을 잘 한다는 말)

피 애: ㉽피 해.

0. 돌 내려 준다. 빨리 피애.

피양감사: ㉾평양 감사. 평양 관찰사.

평양 도지사.

0. 피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매사가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

피양냉면: →폐양냉면.

피쪽: ㉿죽데기. ㊀통나무 겉쪽에서

떼어낸 널쪽.

0. 널 캐고 남은 피쪽은 땀감으로 쓴다.

피께: →비께.

피케센다: →비케센다.

피케슨다: →비케센다.

피투개비(피투생이): ㉠피투성이.

0. 전투장에서 피투개비가 된 군인들이 계속 나온다.

피투생이: →피투개비.

피통아리: ㉠핀잔. ㉡맞대놓고 언짢게

꾸짖는 일.

0.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서 피통아리 먹었다.

핀다: ㉠1. 판다. 2. 편다.

1. 판다.

0. 8월 초가 되니 벼이삭이 판다.

2. 편다.

0. 마당에 명석을 피고 저녁을 먹는다.

핀하다: ㉠1. 편하다. 2. 편하다.

1. 편하다.

0. 들판이 편하다.

2. 편하다.

0. 전기가 들어오니 생활이 편하다.

필러덕(홀러덕, 홀럭): ㉠풀떡. 홀떡.

1. 남김 없이 벗는 모양.

0. 더워서 옷을 필러덕 벗었다.

2. 남김 없이 뒤집는 모양.

0. 옷을 필러덕 뒤집었다.

3. 힘차게 뛰어 넘는 모양.

0. 송아지가 담장을 필러덕 뛰어 넘었다.

핏덩이: ㉠핏덩이. 핏덩어리. ㉡갓난 아기.

0. 핏덩이를 얻어다 키워도 효도만 잘 하더라.

핏자구(핏자리, 핏자육, 핏자죽):

㉠핏자국.

0. 왜 옷에 핏자구가 났다.

핏자리: →핏자구.

핏자육: →핏자구.

핏자죽: →핏자구.



하계곰: ㉠하도록.

0. 일을 잘하계곰 차근차근 가르쳐준다.

하구 많다: ㉠하고 많다. ㉡많고 많다.

0. 너 같은 미인은 이 세상에 하구 많다.

하구습다: ㉠하고 싶다.

0. 나는 커서 이다음에 대통령을 하구습다.

하구한 날: ㉠허구한 날. ㉡날짜나 세월이

매우 오랜 날.

0. 하구한 날 일은 안하고 놀기만 하는구나.

하기사: ㉠하기야. ㉡일상 이치대로 말

하자면야의 뜻으로 쓰임.

0. 하기사 그럴 만도 하지.

0. 하기사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까?: ㉠할까?

0. 오늘 그 일을 하까?

하겐(할겐): ㉠할 게.

0. 그 일은 내가 하겐. 염려 말아.

하나그는(하나근, 하나기는, 하나긴,

하내기는. 하내이는): ㉠하나는.

0. 고구마 하나그는 먹지 말고 뒀다가 형 오거던 줘라.

0. 아들 하나그는 집에 붙어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나근: →하나그는.

하나기는: →하나그는.

하나긴: →하나그는.

하나두(하나투): ㉠하나도. ㉡아무 것도.

0. 출렁다리를 건너는데 하나두 안 무섭더라.

하나씨: ㉠하나씨.

0. 딸 아홉을 하나씨 시집 주니 그도 헤프더라.

하나투: →하나두.

하날님(하누님. 하늘님): ㉠하느님.

㉡종교적 신앙의 대상. 불가사의한 능력으로써 선악을 판단하고 화복을 내린다는 신.

0. 일이 잘 되려면 하날님께 빌어야지.

하내기는: →하나그는.

하내이는: →하나그는.

하누님: →하날님.

하누바람(하늬바람. 하느바람):

㉠하늬바람. ㉡농촌이나 어촌에서 서풍을 이르는 말.

0. 하누바람이 불면 구름이 슬슬 피해가지.

하늘: ㉠하늘.

1. 땅이나 물 위의 넓고 높은 공간.

0. 넓은 밤 하늘에 별들이 촛촛하다.

0. 하늘 높은 줄 모른다. (1. 잘난 체하고

뽕낸다. 2. 출세 가도를 치닫는다.

3. 물가가 매우 올라간다는 말)

0. 하늘과 땅 차이. (두 사물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비유하는 말)

0. 하늘에 별따기. (성취하기 매우 어려운 일)

0. 하늘을 지붕 삼는다. (한 데서 노숙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0. 하늘을 찌른다. (매우 높이 솟는다. 기세가 당당하다)

0. 하늘이 노랗다. (지나친 과로나 상심으로 기력이 몹시 쇠하다. 사태가 절망 상태에 빠져있다)

0. 하늘이 두쪽 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치운다는 말)

0. 하늘이 캄캄하다.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아찔하다. 절망 상태에 있다)

2. 천지 만물의 주재자.

0. 소원 성취를 하늘에 빈다.

0. 하늘에 두 해가 없다. (하늘에 해가 하나 이듯이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

3. 천국, 천당, 하늘나라.

0. 하늘 같다. (높이 우러러볼 만큼 크고 고귀하다)

0. 하늘에 맡긴다. (운명에 맡긴다)

0. 하늘에 무서운 말. (천벌을 받을만한 못된 말)

0. 하늘에 침 뱉기. (남을 헐치려다가 되려 자기가 당함의 비유)

0.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하더라도

살아날 길은 생긴다)

4. 남편.

0. 남편을 하늘로 알고 살아라.

하늘님: →하날님.

하늬바람: →하누바람.

하느바람: →하누바람.

하다라: ㉠하더라.

0. 이번 시험에 네가 일등했다 하다라.

하다라미: ㉠1. 하는데. 2. 하더라면서.

1. 하는데.

0. 그 일을 하다라미 보니 금방 어디로 사라졌어.

2. 하더라면서.

0. 네가 나 욕하다라미.

하다만은: ㉠하더니만.

0. 일을 곧잘 하다만은 빨짝 늘어지네.

하더못해: ㉠하다못해. ㉡정할 수 없다면 가장 나쁜 경우라 하더라도.

0. 하더못해 감자라도 먹었으면 다행이지.

하동부리(화동부리. 화송아지. 황송아지):

㉡새끼 수소.

0. 지난 장날에 하동부리 한마리 사다 땀네.

0. 하동부리는 빨리 크지.

하두룩: ㉠하도룩.

0. 소가 잘 먹두룩 여물을 끓여라.

0. 일을 잘 하두룩 가르쳐 봐.

하루가아지: ㉠하룻강아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강아지.

0. 하루가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사회 물정을 모르면 무서운 걸 모르고 덤빈다는 말)

하루아척(하루아칙): ㉠하루아침. ㉡짧은 시간에.

0. 그만한 일은 하루아척 해장거리도 안된다. (해치우기 만만하다는 말)

하루아칙: →하루아척.

하르버이(할바이. 할버이. 할버지. 할아버이. 할아버지. 할으버이):

㉠할아버지.

1. 아버지의 아버지.

0. 하르버이, 어디가셨니?

2. 늙은 남자를 친근하게 일컫는 말.

0. 이웃 집 하르버이가 귀여워 해 주신다.

3. 부모의 아버지와 같은 항렬에 있는 남자의 총칭

0. 하르버이들께서 사랑방에 모이셨다.

하마(하매. 하머. 하모): ㉠이미. 벌써.

0. 공부를 하마 다 했어?

0. 그 일을 하마 다 했어?

하마터라면(하무타라문): ㉠하마터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0. 달밤에 걸다 하마터라면 물웅덩이에 빠질 뻔했다.

하매: →하마.

하머: →하마.

하모: →하마.

~하모(~하무. ~하문. ~하므):

㉠~하면.

0. 일을 잘 하모 좋고, 못 하모 나쁘지머.

~하무: →~하모.

하무요: ㉠그럼요.

0. 내일 우리 일 좀 해 주겠는가?

하무요.

하무타라문: →하마타라면.

~하문: →~하모.

~하므: →~하모.

하미: ㉠하미며. 하면서.

0.일을 잘 하미 투정 대면 밋지나 양지.

하빠리: ㉠하급. 저급.

0.하빠리 패하고 어울리면 같이

하빠리가 돼.

하숙상: ㉠하숙생. ㉡하숙하고 있는 학생.

0.하숙상을 두고 밥을 해 줘야 먹을 게 떨어지지.

하시우: ㉠하세요.

0.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우.

하야금: ㉠하야금. ㉡하게 하여.

0.그 사람으로 하야금 그 일을 하게 하지.

하오한다(하우한다): ㉠화해한다. ㉡서로 화를 푼다.

0.하오 술 먹다가 취했네.

하우한다: →하오한다.

하이: ㉠하니.

0.일을 잘 하이 자꾸 시키지.

하이간에: ㉠하야간에.

0.하이간에 그 곡예사 줄 잘 타더만.

하이튼: ㉠하야튼. 여하튼.

0.하이튼 그 일은 내가 할 게.

하잘거없다(하잘거읍다. 하잘그없다.

하잘그읍다. 하잘기없다.

하잘기읍다): ㉠하잘것없다. ㉡대수롭지 아니하다.

0.그거 알뜰히 거두어 봐야 하잘거없다.

하잘거읍다: →하잘거없다.

하잘그없다: →하잘거없다.

하잘그읍다: →하잘거없다.

하잘기없다: →하잘거없다.

하잘기읍다: →하잘거없다.

하지감재: ㉠하지 감자. 하지 절기에 먹는 감자.

0.하지 감재가 달걀 같은 게 맺혔더라.

하찌리; ㉠하질. ㉡하등의 품질.

0.장마당의 옷은 하찌리야.

하피랄(해피랄): ㉠하필. ㉡어찌하여 꼭 그렇게.

0.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피랄 날 오라 그래.

학뎨다(학민다. 학소리지른다. 학소래

지른다): ㉠질린다. ㉡기가 막히거나

어이가 없거거나 싫증이 나거나

진저리가 난다.

0.어려운 일을 맡았다가 다 마치느라고 학뎨다.

학뎨다: →학뎨다.

학상(핵상): ㉠학생.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0.학상, 몇 학년이고?

0.그집 아들이 대학상이래.

학소래지른다: →학뎨다.

학소리지른다: →학뎨다.

학질모갱이(학질모구): ㉠학질모기.

㉡학질을 전염시키는 모기.

0.학질모갱이에 쏘이면 학질 앓는다.

학질모구: →학질모갱이

한가닥 하지: ㉠특별한 재주 한 가지를 부린다.

0.그 학생 태권도 한가닥 하지.
한가우: ㉠한가위. 추석. 중추절.
 0.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우만 같아라.
 (새 곡식이 나오는 추석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여 부러울 것이 없다는 말)
한가운데: ㉠한가운데. ㉡시간이나 공간의 중심인 가운데.
 0.가을의 한가운데 들어섰다.
한강소(한강수): ㉡물이 많음을 비유하는 말.
 0.홍수가 나서 부엌이 한강소가 되었다.
 한강수: →한강소.
한개목: ㉢큰 냇물과 바닷물이 접하는 곳.
 0.남대천 한개목에 송어 떼가 왔다.
 0.봄철 한개목엔 투망꾼들이 즐비하다.
한계울(한계울계): ㉠한겨울. ㉡추위가 한창인 겨울.
 0.한계울에 내복 없이 나가는 힘들지.
 한계울계: →한계울.
한구석케(한구석키): ㉠한구석. ㉡한쪽 구석.
 0.사람은 떠나도 마음 한구석케 남아있지.
 한구석키: →한구석케.
한구한년에: ㉡오래 지난 다음에.
 0.그 사람이 한구한년에 그래도 빛을 쬐었어.
한글기: ㉠한그루. ㉡한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한번 짓는 일.
 0.남도지방에서는 논에서 보리 한글기 베어먹고 벼를 심는데.
한 꼬지: ㉢한 막대에 꿰놓은 꽃감 줄.

0.꽃감 한 꼬지 빼 먹었다 야단맞았다.
한꼬번에: ㉠한꺼번에. 단숨에.
 0.그만한 일이야 한꼬번에 해치우지.
한꼬텡이: ㉠한끝. ㉡한쪽의 맨 끝.
 0.그 일을 한꼬텡이 맡았나?
한끈: ㉠한껏.
 0.그래, 한끈 했다는 게 그것 밖에 안돼?
한나: ㉠하나.
 0.알사탕 한나만 주라.
한나잘: ㉠한나절. ㉡하루 낮의 반.
 0.장에 갔다 오면 한나잘 더 걸리지.
한날은: ㉠하루는.
 0.한날은 일하고 한날은 쉬고, 그러나?
한넙데기: ㉠한편.
 0.감자 부침개 한넙데기 먹었으면 좋겠다.
한넙: 한편. 한쪽.
 0.딸을 시집 보내면 한넙으론 섭섭하지.
한다래기 논(한다리기 논): ㉢한 두렁 논.
 0.모를 한다래기 논은 심었는데 나머지는 물이 없어 못 심었다.
 한다리기 논: →한다래기 논.
한뎃날(한뎃날썰. 한뎃날씨): ㉠바깥날.
 ㉡바깥의 날씨를 일컬음.
 0.한뎃날이 몹시 춥더라. 옷을 단단히 입어라.
 한뎃날썰: →한뎃날.
 한뎃날씨: →한뎃날.
한뎃낭반(한뎃양반): ㉠바깥양반.
 바깥주인. ㉡한 집의 남자 주인.
 0.한뎃낭반이 소 장 보러 가셨다.
한뎃바람: ㉠바깥바람. ㉡바깥에서 부는

바람.
 0.한뼘바람이 몹시 차다.

한뼘소식: ㉠바깥소식. ㉡밖의 일에 관한 소식.
 0.자네 요즘 한뼘소식 좀 듣나?

한뼘양반: →한뼘낭반.

한뼘일: ㉠바깥일.
 0.농사 지을 때 한뼘일은 주로 남자가 하지.

한뼘출입: ㉠바깥출입. ㉡집밖에 나가서 보는 일.
 0.아버지 한뼘출입 하신단다, 두루마기 내드려라.

한 마두: ㉠한 마디.
 0.동네 사라들이 노는데 노래 한 마두 하지.

한물에: ㉠한꺼번에.
 0.이 일을 한물에 다 했어?

한밤중이다: ㉠전혀 모른다.
 0.산골에 박혀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한밤중이지.

한복장: ㉠한복판.
 0.여름 한복장에 들어서 봐. 얼마나 답나.

한손잡이: ㉠한손잡이. 외손잡이.
 0.그 사람 한손잡이지만 일은 잘해.

한수: ㉠한가락. ㉡어떤 방면에서 뛰어난 재주.
 0.장기 한수 가르쳐 줄까?

한수무: ㉠한숨을.
 0.젊은 사람이 그렇게 한수무 쉬면 어떻게 하나.

한시상: ㉠한세상. 한평생.
 0.이렇게 한시상 살다 가는 거지 머.

한역으로: ㉠한편으로.
 0.한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무턱대고 나무랄 일도 아니야.

한영한다: ㉠환영하다. ㉡기쁘게 맞이한다.
 0.우리 고장에 정착하게 된 것을 한영합니다.

한음물: ㉠한 우물.
 0.그래도 한음물을 파야 물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지.

한으사(한이사): ㉠한의사. ㉡한의학을 전공한 의사.
 0.잘 이는 한으사에게 진맥을 받아봐야겠다.

한으원(한의원): ㉠한의원. ㉡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
 0.한으원에 가서 보약을 한재 지어다 먹어야겠다.

한이사: →한으사.
 한의원: 한으원.

한자성어: ㉠고사성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서 깊은 일에서 비롯된 말.
 0.한자성어를 잘 쓰는 유식쟁이야.

한저울: ㉠한겨울. ㉡추위가 한창인 겨울.
 0.한저울 추위를 견뎌내느라 고생했지.

한질(한길): ㉠사람 한 키 높이.
 0.한질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사람 마음은 알기 힘들다는 말)

한치레: →치레.

한카리꾼: ㉠한카래꾼. ㉡가래질을 하는데

필요한 삼인 일조 한카래꾼.

0. 오늘 가래질을 하는데 한카리꾼을 붙였다.

한커리: ㉠한 켄레. ㉡신, 버선, 장갑 따위의 한 벌을 세는 단위.

0. 요번 장에 고무신 한커리 사야겠다.

한택: ㉠한택. ㉡크게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는 일.

0. 부장님이 한택 내신대. 먹으러 가자.

한투루: ㉠한테로. 에게로.

0. 아빠한투루 가 봐.

한편: ㉠한편. 한쪽.

0. 딸을 시집 주면 한편으로는 섭섭하지.

한평상: →평생.

할꺼지?: ㉠할 것이지?

0. 이 일을 오늘 다 할꺼지?

할께: ㉡할 것이야.

0. 응 그거, 내가 할께 염려 말아.

할겐: →하겐.

할라고(할려고. 할러구): ㉠하려고.

0. 이제 일을 할라고 하는가 봐. 작업복을 갈아입는 걸 보니.

할라하무(할라하문. 할라하모):

㉡하려고 하면.

0. 숙제를 할라하무 일을 시킨다.

할라하문: →할라하무.

할라하모: →할라하무.

할려고: →할라고.

할러구: →할라고.

할루(할리): ㉠하루.

1. 한 날.

0. 할루가 다르게 커간다.(빠르게 커간다)

0. 할루가 멀다하고 자주 온다.(거의 매일 같이 자주 온다)

2. 해가 있는 동안.

0. 할루 해가 지나갔다.

3. 막연히 지정한 날.

0. 할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0. 언제 할루 만나세.

할리: →할루.

할마이(할머이. 할무니): ㉠할머니. 조모.

㉡아버지의 어머니.

0. 할마이가 오래. 떡 받아 오신가 봐.

할매(할미): ㉡늙은 여자를 낮추어 일컫는 말.

1. 아버지의 어머니.

0. 할매가 보냈다. 열어 보라.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2. 부모의 어머니와 같은 항렬에 있는 여자의 총칭.

0. 할매들이 모여 애기꽃을 피운다.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할머이: →할마이.

할무니: →할마이.

할바이: →하르바이.

할배(할범. 할애비):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를 낮추어 부르는 말.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0. 할배한테 가 보라.

0. 할배가 그러더냐?

할버이: →하르바이.

할버지: →하르바이.

할범: →할배.

할복하다: ㉡복이 없다.

0. 신세가 할복하여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소.

할아버이: →하르버이.
 할아버지: →하르버이.
 할애비: →할배.

할 요랑으로: ㉠할 계획으로.
 0. 오늘 할 요랑으로 남겨둔 일이 있지.

할으버이: →하르버이.

할 직에: ㉡할 적에.
 0. 공부할 직에 떠들면 못써.

할 테이: ㉢할 테니.
 0. 그건 내가 할테이, 놔둬.

함경두내기(햐경두내기. 햏경두내기):
 ㉣함경도 사람.
 0. 함경도내기를 우중투우(雨中鬪牛)라 했던가. 우중에 싸우는 소라. 물불을 안 가리겠군.

함꺼번에: ㉤한꺼번에. 단숨에. ㉦몰아서 한 차례에.
 0. 고추밭 콩밭을 함꺼번에 갈았다.
 0. 그 일을 함꺼번에 다 해치웠다.

함박꽃: ㉧산철쭉. ㉨진달랫과의 낙엽 활엽 관목.
 0. 진달래꽃이 피고 진 다음에 함박꽃이 활짝 피었다.

함벗하드라문(함타드라문. 함타문. 함트문): ㉩하마터면.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0. 함벗하드라문 큰일 날 뻔했지.

함애비(함재비. 함진애비): ㉫함진아버이.
 ㉬혼인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보내는 함을 지고가는 사람.

0. 함 팔러온 함애비 맞으려면 돈 봉투를 길바닥에 깔아야 한다면서...

함재비: →함애비.
 함진애비: →함애비.
 함타드라문: →함벗하드라문.
 함타문: →함벗하드라문.

함텅이: ㉭함지박. ㉮통나무 속을 파서 전이 없이 큰 바가지처럼 만든 그릇.
 0. 함지박에 감자 담아 오너라.

함트문: →함벗하드라문.

함흥차사: ㉯함흥차사. ㉺함흥에 차사로 가서 돌아오지 않은 고사로 빚어진 성어.
 0. 심부름 간 아이가 오지 않는다. 함흥차사가 됐나?

함제사(합지사): ㉻합제. 조상의 제사를 합하여 지내는 제사.
 0. 요즈음은 보통 합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아졌다.

합지사: →합제사.

햏바지: ㉼충청도인.
 0. 충청도 사람을 왜 햏바지라 하는지 아나?

햏저구리: ㉽햏저고리. ㉾숨을 넣고 지은 저고리.
 0. 겨울엔 햏저구리를 꺼내 입는다.

햏: ㉿햏. ㊀광물을 파내기 위해 땅속을 파 들어간 굴.
 0. 그 사람이 토목햏 햏장이래.

햏갑: ㊁햏갑. ㊂61세를 일컫는 말.
 0. 요새 햏갑은 젊은이야.

햏구: ㊃1. 햏구. 2. 반햏.
 1. 햏구.

0. 항구를 들여다보면 칙칙한 게 들어갈 마음이 없지.

2. 반합.

0. 항구는 밥을 지을 수 있는 휴대용 밥그릇이지.

항목: ㉠갱목. ㉡갱도에 버티어 대는 통나무.

0. 항목에 쓸 나무가 한 차 들어왔다.

항해도: ㉠항해도.

0. 항해도 사람은 태산준령(泰山峻嶺)이라. 묵직하겠구만.

해가미: ㉠해가면서.

0. 천천히 해가미 일을 해.

해갈이(해거름): ㉡해를 건너 뛰는 것.

0. 감나무가 해갈이를 해 올해는 잘 안 달렸다.

0. 감나무가 해갈이하는 까닭을 아직도 잘 몰라.

해거름: →해갈이.

해골바각지(해골박대기. 해골뺑대기): ㉠해골. 해골바가지.

0. 원효가 해골바각지에 고인 물을 먹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도를 깨달았다.

해골박대기: →해골바각지.

해골뺑대기: →해골바각지.

해구녕(해구멍. 해구영): ㉡해질 녘.

해가 질 무렵.

0. 해구녕도 안 민데 저녁을 먹나?

해구멍: →해구녕.

해구영: →해구녕.

해금내: ㉠해감내. ㉡물속의 흙과

유기물이 섞어 나는 냄새.

0. 민물고기에서 해금내가 많이 난다.

해까닥: ㉠훅. ㉡잡자기 세계 돌리는 모양.

0. 그 사람 해까닥 돌은 사람이야.

해간넝이: ㉡여자 아기.

0. 해간넝이는 어떡하고 장에 가나.

해꼬자(해꼬지. 해꾸지): ㉠해꼬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0. 거지를 욕하면 해꼬자 한다.

0. 약한 사람을 해꼬자 하지마.

0. 남한테 해꼬자 한데서야 되겠나.

해꼬지: →해꼬자.

해꿈하다(해꿈하다): ㉠해꿈하다. ㉡빛깔이 조금 희고 깨끗하다.

0. 해가 해꿈하게 내 비친다.

해꾸지: →해꼬자.

해꿈하다: →해꿈하다.

해다(햇언나): ㉠갓난이. ㉡어원은 햇 아, 햇 아이에서 옴. 갓난 아이.

0. 해다가 운다.

0. 해다 젖 줘라.

~해다: →~끼다.

해다 보지 밥풀 떼먹기다: ㉡성이 안찬다. 줌스럽다.

0. 그게 해다보지 밥풀 떼먹기지. 그게 성이 차졌어?

해대서(해싸서): ㉡자꾸 해서.

0. 그집 아저씨가 투전을 자꾸 해대서 망했대.

해딤 데: ㉠엉뚱한 데. ㉡쓸모없는 데.

0. 돈을 해딤 데 쓰지 말고 잘 써라.

0.해탄 데 돌아치지 말고 송이 나는
곳을 잘 살펴 봐.

해뜩: ㉠꼬박. ㉡어떤 상태를 고스란히
그대로.

0.지난 밤엔 자지 못하고 해뜩 날을
세웠다.

해라면(해라문): ㉠하라면.

0.해라면 했지 웬 잔소리야.
0.해라면 하는 거지요 머.

해라문: →해라면.

해마두(해마둥): ㉠해마다.

0.우리 감나무는 해마두 잘 달려.

해마둥: →해마두.

해목: ㉠해수욕. ㉡바닷가에서 해엄을
치거나 노는 일.

0.동네서 오늘 해목 간대. 나도 갈래.

해발랑: ㉠해발쪽. ㉡1.입이 넓게 벌어진
모양. 2.염치없는 모양.

1.입이 넓게 벌어진 모양.

0.처녀 입이 좀 해발랑 하더라.

2.염치없는 모양.

0.그 사람 염치없이 해발랑 까졌어.

해방 놓는다: ㉠훤방 놓는다.

0.상대 후보를 해방 놓는다.

해방댕이(해방둥이): ㉠해방둥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해에 태어난
아이.

0.해방댕이도 희수(77세)가 다 되었구나.

해방둥이: →해방댕이.

해배도 없다: ㉠어림도 없다. ㉡상대가
안된다.

0.작은 사람이 큰 사람과 씨름을 하면

해배도 없다.

해볼라문(해볼려면): ㉠해보려면.

0.그 일을 해볼라문 해봐.

해볼려면: →해볼라문.

해비: ㉠여우비. ㉡햇빛이 비치면서 잠깐
내리다 그치는 비.

0.해비가 오는 걸 보니 날이 들려나
보다.

해뿌래(해삐래): ㉠해버려.

0.쉬운 일은 얼른 해뿌래.

0.그까짓 것 눈 딱 감고 해뿌래.

해삐래: →해뿌래.

해싸서: →해대서.

해장거리도 안된다: ㉡별것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0.하루 아침 해장거리도 안되는 것이
까불어치긴.

해질녁에: ㉠해질녘에. 해질 무렵에.

0.해질녁에 만나자.

0.해질녁이면 너무 늦잖아?

해피랄: →하피랄.

해피랄이문(해필이문): ㉠하필이면.

㉡어찌 하여 꼭 그러면.

0.하피랄이문 오늘 비가 올 게 뭐람.

해필이문: →해피랄이문.

해해닥거린다: ㉠해해거린다. ㉡해해하고
자꾸 웃는다.

0.여자 애들이 모여서 해해닥거린다.

핵교(핵교): ㉠학교. ㉡일정한 목적, 설비,
제도 및 규칙에 의거하여 교사가 계속적
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0.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 핵교에 들어갔

어요.

0.아이가 핵교를 졸업했어요.

핵교: →핵교.

핵상: →학상.

헨?: ㉠헨나? 헨니?

0.그 일을 네가 헨?

0.네가 오라고 헨?

헨 대로: ㉠헨 대로.

0.시험 성적은 공부 헨 대로 나오지며.

헨 일(헨 짓): ㉠헨 일. 한 짓.

0.이거 누가 헨 일이야.

0.헨 일 모양새 하고는...

헨 짓: →헨 일.

헨미: →할매.

헨경두내기: →함경두내기.

헨감재: ㉠그 해에 처음 나온 감자. 보통
하지 무렵에 나온다.

0.헨감재는 맛이 좋다.

헨곡석: ㉠헨곡석. ㉠그해 새로 나온 곡식.

0.추석엔 헨곡석으로 조상님께 천신을
한다.

헨구녕도 안 미서(헨구명도 안 미서.

헨구영도 안 미서): ㉠해도 안

넘어가서.

0.헨구녕도 안 미서 밥 달라고 하니?

헨구명도 안 미서: →헨구녕도 안 미서.

헨구영도 안 미서: →헨구녕도 안 미서.

헨그: ㉠헨 것.

0.이 감자 헨그 얼마요.

헨기: ㉠헨 것이.

0.과일이건 곡식이건 헨기 맛있다.

헨내기: ㉠새내기. 신출내기. ㉠어떤 일을

처음 접하는 사람.

0.그 사람 직장 헨내기야. 잘 봐 줘.

0.그 사람 헨내기 농사꾼이야. 많이
서들러.

헨대: ㉠헨대. ㉠옷을 걸 수 있게 방안에
걸어 매어두는 막대.

0.헨대 밑 사내.(1.밖에서는 남에게 꿈쩍
못하면서도 집에서는 큰소리치는
남자를 비유하는 말. 2.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남자를
비유하는 말)

헨대보: ㉠헨대에 걸어둔 옷을 가리는 보.
0.시집 올 때 수를 놓은 헨대보를
해가지고 왔다.

헨베: ㉠그해에 새로 난 1.배. 2.벼.
1.배.

0.헨베가 벌써 맛이 들었다.

2.벼.

0.추석 때 천신 하려고 헨베를 베어다
바심을 한다.

헨빙아리(헨빙아리): ㉠헨빙아리. 풋내기.
헨내기. ㉠간지 얼마 안되는 병아리.

1.병아리.

0.암탉이 헨빙아리를 품고 있다.

2.풋내기.

0.교육대학을 갓 졸업한 헨빙아리 교사다.

헨빙아리: →헨빙아리.

헨사개(헨사과): ㉠그해에 새로 난 사과.

0.헨사개 맛이 싱그럽다.

헨사과: →헨사개.

헨새덕(헨새덕): ㉠갓 시집온 새덕.

0.헨새덕인 가봐. 수줍음이 많은 걸 보면

햇새댁: →햇새다.

햇언나: →해다.

햇여시(햇여우): ㉠아양등이. 아양을 잘 떠는 여자.

0.그 여자는 햇여시아.

햇여우: →햇여시.

햇옥세기(햇옥식기): ㉠햇옥수수. 그해 새로 나온 옥수수.

0.햇옥세기가 익었다.

햇집: ㉠햇김. 그해 새로나온 김.

0.햇집은 얇은 맛이 있다.

햇거덩(햇걸랑): ㉠햇거든.

0.그 일은 내가 햇거덩.

0.그런데 잘 햇거덩.

햇걸랑: →햇거덩.

햇다이까(햇대니까): ㉠햇다니까.

0.그 일은 내가 햇다이까.

햇대니까: →햇다이까.

행: ㉠향. ㉠제전에 피우는 향내 나는 물건.

0.시제 갈 때 행을 챙겨라.

행경두내기: →함경두내기.

행교: ㉠향교. ㉠고려, 조선 때 시골에 있던 문묘와 거기에 속한 관립 학교.

0.아들이 행교에 가 공부를 해요.

0.행교에서는 춘추로 문묘에 제사를 지낸다.

행긱잡다: ㉠성질이 정상이 아니다.

0.성질머리가 행긱잡다.

0.성질이 행긱잡으니 조심해.

행긱하다: ㉠향긱하다.

0.꽃밭에 들어서니 꽃냄새가 행긱하다.

행기: ㉠향기.

0.백합은 행기가 진하다.

행남구(행낭그. 행낭기): ㉠향나무.

㉠측백나뭇과의 상록 침엽 교목.

0.산기슭 돌틈에 행남구가 잘 자란다.

행낭그: →행남구.

행낭기: →행남구.

행내: ㉠향내. 향냄새.

0.제사 지낼 때는 행내가 방안에 퍼진다.

행동가지(행동머리. 행우머리.

행우보따리. 행투머리): ㉠행동거지.

거동. ㉠몸을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낮추어 이르는 말.

0.행동가지가 영 틀렸어.

행동머리: →행동가지.

행부: ㉠행보. ㉠어떤 일을 해 나감.

0.오늘 검불을 두 행부 하였다.

행상꾼: ㉠상여꾼. 상두꾼. ㉠상여를 메는 사람.

0.행상꾼의 소리는 처량하다.

행상소리: ㉠상여소리. 만가. ㉠상여를 메고 갈 때 상여꾼들이 부르는 구슬픈 소리.

0.행상소리를 들으면 처량해.

행상집: ㉠곳집. ㉠상여를 보관하는 집.

0.행상집은 외딴 곳이 있다.

행상틀: ㉠상여. 행상. ㉠사람의 시체를 묘지까지 실어나르는 제기.

0.행상틀 집 옆을 지날 때면 으스스하다.

행수: ㉠향수. 형수.

1. 향수.

0.행수병에서 행수 냄새가 진하게 나온다.

2. 형수.

0. 형수께서 누룽지를 굽어 주신다.

행수병: ㉠항수병. ㉡항수를 담은 병.

0. 거기 행수병 이리 다 와.

행열: ㉠항렬. ㉡혈족의 방계에 대한 대수 관계를 표시하는 말.

0. 행열이 높다.(삼촌. 큰아저지. 작은 아버지 등)

0. 행열이 같다.(형. 동생. 사촌형 처형 등)

0. 행열이 낮다.(조카. 질. 생질. 처질 등)

행열재: ㉠항렬자. 돌림자. ㉡항렬을 표시 하기 위하여 이름에 넣는 글자.

0. 자네는 행열재가 뭐고?

행우: ㉠명계. 우렁쟁이. ㉡명갯과의 원생동물.

0. 행우는 화한 맛이 있어 좋다.

행우머리: →행동가지.

행우보따리: →행동가지.

행주뺨기(행주뺨기): ㉠행주. ㉡그릇이나 밥상을 닦을 때 쓰는 헝겊.

0. 행주뺨기는 꼭꼭 짜 말려야 한다.

행주뺨기: →행주뺨기.

행주초마(행주초매. 행주치매):

㉠행주치마. 앞치마. ㉡부엌 일을 할 때 입는 치마.

0. 행주초마가 다 젖었다.

행주초매: →행주초마.

행주치매: →행주초마.

행투머리: →행동가지.

~허계: ㉠~하계. ㉡하계체. 아랫사람을 보통으로 낮추면서 조금 대접해주는 뜻을 가짐.

0. 편허게 앉게.

0. 행복허게 살게.

~허곤: ㉠~하곤.

1. 어떤 상태를 말함.

0. 맞허곤 괜찮네.

0. 일허곤 꽤 복잡하네.

2. 움직임을 나타냄.

0. 그런 일을 허곤 했지.

허구: ㉠허기. 오래 굶어서 몹시 배가 고프는 증세.

0. 허구가 들렸나? 밥을 미친 것처럼 퍼넣네.

허구많은: ㉠하고많은. ㉡많고 많은.

0. 허구많은 사람 중에 연이 닿아 자네와 만났네.

허궁: ㉠허궁. ㉡텅 빈 공중.

0. 줄지에 고아가 되어 허궁에 뜬 신세가 되었다.

허궁다리: ㉠허방다리. ㉡공중 다리.

0. 돼지가 허궁다리가 놓인 함정에 빠져서 나오질 못한다.

허그: ㉠허기. ㉡배 고프.

0. 사냥하러 멀리 갔다 허그 만났네.

허끄러진다: ㉠형클어진다.

0. 실이 허끄러진다. 잘 풀어라.

허나: ㉠하나. 그러나.

0. 그 일은 마쳤어. 허나 잘못했어.

허당: ㉠허당. ㉡어무 소득이 없이 일을 끝냄.

0. 하던 일이 안 되어 허당을 쳤다.

0. 허당을 짚는다.(어무 소득 없는 일을 잘못 판단하여 하게 된다)

허리깡이(허리잔댕이. 허리패기):

㉠허리. ㉡허리의 속어.

0.허리깡이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걸겠네.

허리 꺾는다: →배꼽 꺾는다.

허리잔댕이: →허리깡이.

허리패기: →허리깡이.

허릿바: ㉠허리띠. ㉡허리에 둘러매는 띠.

0.허릿바가 끊어져서 바지가 흘러 내렸다.

허물군다(허물귀뜨린다. 허물귀띠린다):

㉠허문다.

0.두꺼비 집을 지었다 허물군다.

허물귀뜨린다: →허물군다.

허물귀띠린다: →허물군다.

허병더병한다: ㉠어물어물한다. ㉡말과

행동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다.

0.일을 그렇게 허병더병하지 말고 야무지게 좀 해 봐.

허부레기(허부렁이. 허접쓰레기.

허접씨 레기): ㉠허접쓰레기. ㉡좋은 것을 고르고 난 후의 허름한 물건.

0.벼 마당질 뒤에 남은 허부레기는 소여물을 한다.

허부렁이: →허부레기.

허부적거린다: ㉠허우적거린다.

0.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겨우 빠져 나왔다.

허복새미(허복생이): ㉠머리카락 뭉치.

0.허복새미를 잡는다.

0.허복새미를 잡아채친다.

0.허복새미가 빠진다.

허복생이: →허복새미.

허수이(허수하게): ㉠허술하게. 허름하게.

㉡짜임새가 단정함이 없이 느슨하다.

0.돈을 허수이 간수하지 말아라.

허수하게: →허수이.

허스름하다: ㉠허름하다.

0.피꼬리 집은 허스름하다.

허예멀결다: ㉠허여멀결다. ㉡살빛이 탐스럽게 희고 맑다.

0.허벅지 살이 허예멀결다.

허예졌다: ㉠헛물켰다.

0.앞집 총각이 뒷집 처녀 밭다 시집가는 바람에 허예졌다.

허접쓰레기: →허부레기.

허접씨레기: →허부레기.

허제비: ㉠허수아버.

0.참새들이 허제비를 비웃는다.

허지: ㉠하지.

0.그 일은 내가 맡아 허지.

허트러진다: ㉠홀어진다.

0.바람에 머릿결이 허트러진다.

허풍생이(허풍쟁이): ㉠허풍선이.

㉡허풍을 잘 떠는 사람.

0.허풍생이 말을 들어 볼 게 없어.

허풍쟁이: →허풍생이.

헌디(흔데. 흔디): ㉠헌 데. 헌 자리.

고름이 나는 상처.

0.허벅지에 헌디가 났다.

헌병: ㉠헌병. ㉡군기확립 군사업무를 수행 하는 군인.

0.야, 저 헌병 떴다. 조심해.(일등병이 하는 말)

헐결다: ㉠헐쑥하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

0. 독감을 앓고 나더니 얼굴이 혈장다.
혈게졌다: ㉠야위었다. 헛물켰다.
 1. 야위었다.
 0. 감기를 앓더니 얼굴이 혈게졌다.
 2. 헛물켰다.
 0. 닭이 날아 지붕 위에 오르니 닭 쫓던
 개가 혈게졌다.
혈구워: ㉠혈거워. ㉡끼울 물건보다 낄
 자리가 너른 모양.
 0. 망치 구멍이 혈구워 자루가 자꾸 빠진다.
혈꺼덩거린다(혈깅거린다. 혈력거린다):
 ㉠혈렁거린다. ㉡혈거워 이리저리 자꾸
 움직인다.
 0. 우차 바퀴가 닳아서 자꾸 혈꺼덩거린다.
 혈깅거린다: →혈꺼덩거린다.
혈떠덕거린다(혈레벌덕거린다):
 ㉠혈떡거 린다. ㉡숨을 가쁘게 몰아쐬다.
 0. 아이가 달려 오느라고 혈떠덕거린다.
 0. 숨이 차 혈떠덕거리지 말고 그만 뛰어.
혈띠: ㉠허리띠.
 0. 혈띠를 졸라매고 달리기를 하였다.
혈렀다: ㉠혈렀다.
 0. 헌 집이 보기 싫더니 그거 잘 혈렀다.
혈러공이(혈력공이. 혈렁이): ㉠혈렁이.
 ㉡들떠서 진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
 0. 혈러공이 말은 안 듣는 게 좋아.
 혈력거린다: →혈꺼덩거린다.
 혈력공이: →혈러공이.
혈력하다: ㉠혈렁하다. ㉡혈거운 듯한
 느낌이 있다.
 0. 바지 허리가 혈력하다.

혈레바리: ㉠1. 험하게 하는 말. 2. 또는
 그러는 사람.
 1. 험하게 하는 말.
 0. 또 혈레바리 떨고 있네.
 2. 험하게 말하는 사람.
 0. 저 혈레바리 온다.
 혈레벌덕거린다: →혈떠덕거린다
 혈렁이: →혈러공이.
혈썩하다: ㉠혈썩하다.
 0. 감기를 앓더니만 혈썩하다.
혈썩하다(혈썩하다): ㉠값이 썩다.
 허름하다.
 1. 값이 썩다.
 0. 과장이라 물건 값이 혈썩하다.
 2. 허름하다.
 0. 싸구리에서 산 옷이라 좀 혈썩하다.
 혈썩하다: →혈썩하다.
혈는다: ㉠혈는다.
 0. 어미 소가 송아지를 혈는다.
혈다: ㉠썩다.
 0. 오징어가 많이 나니 값이 혈다.
혈잡는다: ㉠흙잡는다. ㉡흙이 되는 점을
 들추어낸다.
 0. 자꾸 혈잡지 말아. 주머니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
혈쓸린다: ㉠흙쓸린다.
 0. 나쁜 아이들과 혈쓸래 놀지 말아라.
헛개비(헤개비): ㉠헛개비.
 1. 마음이 허하여 일어나는 착각(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0. 몸이 허약하면 헛개비가 보인다.
 0. 헛개비 불에 놀란다.

2. 생각보다 아주 무게가 가벼운 물건.
 0. 아기가 헛개비일세. 뭐 이렇게 가벼워.
 0. 태풍에 결실이 잘 들어 벧단 무게가 헛개빌세.

헛거: ㉠헛것. 헛일.

0.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모두 헛거야.

헛게눈: ㉠함박눈. 함박꽃 송이처럼 탐스럽 게 내리는 눈.

0. 헛게눈이 내리는 걸 보니 눈이 얼마 안 오려나 보다.

헛다방(헛따방): ㉠허사. 헛일.

㉡쓸모없는 일.

0. 쓸데없이 헛다방치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게 더 나아.

헛단데(헛판데): ㉠엉뚱한 곳에.

0. 헛단데 신경 쓰지 말고 정신 잘 차려라.

헛따방: →헛다방.

헛판데: →헛단데.

헛똑똑이(헛똑똑이): ㉠운똑똑이.

㉡자기만 혼자 즐기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0. 그 사람은 헛똑똑이야. 자기 밖에 사람이 없는가 봐.

헛물킨다(헛물켄다): ㉠헛물켄다. ㉠아무

보람 없이 한갓 애만 쓴다.

0. 그집 처녀한테 헛물키지 말고 마음 돌려.

헛죽음(헛죽음): ㉠개죽음. ㉡아무

보람이나 가치가 없는 죽음.

0. 마누라는 혼자 남아 잘 사는데 그

사람은 헛죽음 했지.

형님: →성님.

형덩하다: ㉠헛렁하다.

0. 사람이 없어 극장 안이 형덩하다.

형아: →성.

헤깨비: →헛개비.

헤능: ㉠1. 시늬. 2. 흉내.

1. 시늬.

0. 술잔을 입에 대는 헤능만 한다.

2. 흉내.

0. 그 애는 원숭이 헤능을 잘 내.

헤벌럭(헤벌렁): ㉠헤벌쭈. ㉡입이나 구멍 따위가 넓게 벌어진 모양.

0. 입을 헤벌럭 벌리고 뭘 그렇게 보나?

헤벌렁: →헤벌럭.

헤염친다: ㉠헤염친다.

0. 아이들이 해수욕 가서 헤염치느라 야단법석이다.

헤임(헿님. 헿임): ㉠헿님.

0. 헤임 말 잘 들어야 돼.

헤잡아놓는다: ㉠헤잡어 놓는다.

0. 닭이 채소 부친 밭을 마구 헤잡아 놓는다.

헤체나간다: ㉠헤쳐나간다.

1. 걸리는 것을 좌우로 물리친다.

0. 우거진 숲을 헤체나간다.

2. 고난 따위를 물리친다.

0. 역경을 헤체나간다.

헤챙이: ㉠언청이. 껌보. ㉡윗입술이 선천적으로 갈라진 사람.

0. 헤챙이도 수술을 하면 괜찮대.

헤푼간나(헤푼기집. 헤푼지즈바.

헤폰지집): ㉠허튼계집. ㉡몸가짐이 헤폰 여자.

0.그 계집애는 몸가짐이 헤폰간나야.

헤폰지집: →헤폰간나.

헤폰지즈바: →헤폰간나.

헤폰지집: →헤폰간나.

헤한다: ㉠좋아한다.

0.사탕 한 개를 주니 헤하고 놀잖나.

헨다: ㉠센다. ㉡수를 센다의 옛말.

0.인원수를 헨다.

헨미경: ㉠현미경.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체를 확대하여 보는 기구.

0.헨미경으로 보면 식물 세포가 보인다.

헨병: ㉠현병. ㉡군기확립, 군사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0.저기 헨병 온다. 복장 단정 해.

헨역병: ㉠현역병.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사.

0.헨역병 유고시에는 보충병으로 메운다.

헬끔: ㉠힐끔. ㉡눈동자를 흘겨 뜨고 한번 바라보는 모양.

0.왜 사람을 헬끔 헬끔 쳐다봐.

헵잡꾼: ㉠협잡꾼.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

0.헵잡꾼 노릇 하지 말고 좀 바르게 살아라.

헛~: ㉠헛~

1.헛걸음.

0.자네 오늘 헛걸음 했네.

2.헛고생.

0.헛고생 하지 말고 일찍 물러나.

3.헛곳에.

0.헛단데 투자하지 말게나.

4.헛나이.

0.헛나이 먹은 짓 하지 말고 잘하게.

5.헛다리짚다.

0.헛다리 짚지 말고 바로 뺏아.

6.헛딛다.

0.헛딛지 말고 바로 걸어.

7.헛살다.

0.자네 삶을 헛살았네.

8.헛소리.

0.사람이 헛소리 하면 못써.

9.헛일.

0.그것 참 헛일 했구만.

10.헛탕.

0.헛탕 치지 말고 잘 알아봐.

헛갈래: ㉠헛갈래.

0.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 헛갈래.

헛똑똑이: →헛똑똑이.

헛맹세: ㉠헛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

0.죽어도 같이 산다는 말은 헛맹세였나?

헛물켄다: →헛물킨다.

헛바늘: →셋바늘.

헛바다: →셋바다.

헛발질: ㉠헛발질.

0.축구를 하다 보기 좋게 헛발질을 했네.

헛방: ㉠헛방.

1.보람 없는 일.

0.이번 장날엔 비가 와서 헛방쳤어.

2.빚나간 총알.

0.땡을 쏘는데 헛방 나갔어.

헛방구: ㉠허풍 떠는 일.

0.쓸데없이 헛방구 쿨지 말고 잘 생각해

봐.

헛배: ㉠헛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부른 배.

0. 헛배가 부르는 건 잘못된 거야.
병원에 가 봐.

헛봤다: ㉠헛봤다. ㉡잘못 봤다.

1. 사람을 잘못 봄.
0. 그 사람 그렇지 않아. 그 사람 헛봤네.

2. 실상을 잘못 봄.
0. 방금 술개가 지나갔나? 자네 헛봤네.

헛소문: ㉠헛소문.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

0. 아마도 헛소문이겠지.

헛손질: ㉠헛손질. ㉡쓸데없이 손을 휘젓는 짓.

0. 정신없이 헛손질만 한 모양이야.

헛죽음: →헛죽음.

헛지침: ㉠헛지침.

0. 어른처럼 헛지침 하며 노는 꼴이 귀엽다.

헝광등: ㉠헝광등. ㉡형광 방전등. 동작이 느린 사람.

0. 그 사람 헝광등일세. 동작이 느려.

헝국: ㉠헝국. ㉡어떤 일이나 모양의 생김새.

1. 어떤 일.
0. 이번 선거에서 헝국이 불리하잖나?

2. 모양.
0. 산 헝국이 잘 생겼다.

헝긋잡다: ㉠만만찮다.

0. 그 사람 성질이 헝긋잡다. 조심해.

헝님: →혜임.

헝부: ㉠헝부. ㉡언니의 남편.

0. 헝부가 생일 선물을 주셨다.

헝수: ㉠헝수.

0. 헝수님한테 가서 단추 달아달라고 해.

헝우: →우렁챙이.

헝제: ㉠헝제.

0. 헝제 간에는 우애가 좋아야 하느니라.

헝편(헝편): ㉠헝편.

0. 집안 헝편이 좀 나아지고 있어.

헝편: →헝편.

헝띠: ㉠헝띠. ㉡가죽 허리띠.

0. 헝띠를 선물 받았다.

헝찰박치기: ㉠맞돈 거래.

0. 이거 몽땅 헝찰박치기 하면 얼마?

헝임: →혜임.

호가 났다: ㉠이름이 났다.

0. 그 사람 투전하는데 호가 났다.

호계(호이계): ㉠회계. 계산.

0. 물건 판 것 자네가 호계 좀 해 보게.

호딱(후떡. 휘떡. 휘떡. 희떡): ㉠후딱. 훌쩍.

1. 날쌔게 행동하는 모양.
0. 힘든 일을 호딱 해치운다.

2.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양.
0. 동지 선달이 호딱 지나가 버렸다.

호랑 말코 같다: ㉠못 됐다. 엉터리 같다.

0. 호랑 말코 같은 얘기는 집어치워. .

호랑새백(호랑새벽. 호랑새복): ㉠꼭두새벽. ㉡아주 이른 새벽.

0. 호랑새백에 송이 따러 산에 간다.

호랑새벽: →호랑새백.

호랑새북: →호랑새백.

호랑이 새끼 치겠다: ㉠발에 풀숲이

우거 졌다는 말.

0.발에 김이 어떻게 났는지 호랑이 새끼
치겠다.

호래비: ㉡홀아비.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남자.

0.호래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했나?

호랭이: ㉣호랑이. ㉤고양잇과의
포유동물. 성질이 사납고 힘이 셸.

0.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랭이는 죽으면 비싼 호피를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0.호랭이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헤어날 수
있다는 말)

0.호랭이 굴에 가야 호랭이 새끼
잡는다. (뜻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마땅한 일을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

0.호랭이 제말하면 온다.(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는 말)

0.호랭이 담배 피울 적 얘기한다.
(지금과는 아주 딴 판인 옛날 얘기를
한다는 말)

0.호랭이 개 어르듯 한다.(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제 잇속만 찾으려고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말)

호로새끼(호로자숙. 호로자식):

㉦후레자식. 후레아들. ㉧호로는 흉노를
일컫는 말.

0.호로새끼 같으니라구.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쓰나.

0.호로새끼는 낱지도 말라 했다.

호로자숙: →호로새끼.

호로자식: →호로새끼.

호루래기: ㉨호루라기. 호각.

0.갑작스럽게 들리는 호루래기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호맹이(호메이. 호무): ㉩호미. ㉪김 땀
때 쓰는 농기구의 하나. 대개 삼각형의
날과 기는 목은 꼬부리고 자루는 김.

0.호맹이는 만주어에서 온 외래어가
우리말로 굳어진 말이라면서.

0.호맹이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적은 힘으로 충분히 될 일을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된다)

호메이: →호맹이.

호무: →호맹이

호물때기: →오물때기.

호물띠기: →오물때기.

호미씻이(호미씻이미. 호미씻임):

㉫밭농사 일이 끝날 무렵 동네 사람들이
술, 안주를 해 놓고 함께 즐기는 일.

0.사흘날 호미씻이 하세. 이웃에 모두
알리게.

호미씻이미: →호미씻이.

호미씻임: →호미씻이.

호박 땀네: ㉬황재했네.

0.갑돌이가 부잣집에 장가갔다. 호박
땀네.

호박무거리: ㉠호박 오가리.

0. 호박무거리와 쌀가루를 넣고 시루떡을 찐다.

호박씨 깬다: ㉠내송 떼다.

0. 공연히 호박씨 까지 말아.

호배낸다(호배판다. 회배낸다.

회배판다. 후배낸다. 후배판다.

휘배낸다. 휘배판다): ㉠도려낸다

1. 물건을 도려낸다.

0. 단호박 속을 호배낸다.

2. 마음을 상하게 한다.

0. 그 사람은 사람 마음을 잘 호배낸다.

호배판다: →호배낸다.

호부작거리다: ㉠호비작거리다. ㉠일을

빨리 하지 못하고 만지작거리는 모양.

0. 콩밭을 맴 때 호부작거리지 말고 벽벽 긁어나가라.

호야: ㉠석유등의 유리피.

0. 호야가 그슬었다. 닦아야 되겠다.

0. 호야는 잘 깨진다.

호역: ㉠홍역. ㉠어린이에게 많이

전염되는 급성 발진성 전염병.

0. 옛날엔 호역으로 아이를 잃는 집이 많았었지.

호이계: →호계.

호이났다: ㉠호이났다.

0. 많은 숙제를 다 하느라고 호이났다.

호잡는다(회빈다. 회잡는다): ㉠호빈다.

㉠아픈 곳을 긁어서 파낸다.

1. 배가 아플 때.

0. 배가 호잡는 것처럼 아프다.

2. 마음을 상하게 할 때.

0. 그 사람은 남을 잘 호잡는다.

흑딱: ㉠흑딱.

1. 가진 것이 다 없어지는 모양.

0. 장사 밀천을 흑딱 까먹었다.

2. 남김없이 벗거나 벗은 모양.

0. 옷을 흑딱 벗고 목욕을 한다.

3. 몹시 반하거나 여지없이 속은 모양.

0. 그 처녀의 미소에 흑딱 반했다.

4. 조금 빠르게 뒤집거나 뒤집히는 모양.

0. 흑딱 뒤집었다.

5. 조금 힘차게 뛰거나 뛰어넘는 모양.

0. 도랑을 흑딱 뛰어 건넜다.

훈구녕낸다(훈구멍낸다. 훈구영낸다.

훈구녕낸다. 훈구멍낸다.

훈구영낸다): ㉠훈낸다. ㉠호되게

꾸지람을 하거나 벌을 준다.

0. 잘못을 저질러 훈구녕낸다.

훈구멍낸다: →훈구녕낸다.

훈구영낸다: →훈구녕낸다.

훈내분다(훈내뵈다. 훈내쿤다):

㉠훈나게 한다.

0. 까불면 훈내분다.

훈내뵈다: →훈내분다.

훈내쿤다: →훈내분다.

훈인줄: ㉠훈인길. 훈삿길. ㉠훈인할

기회나 자리.

0. 소문이 잘못나면 훈인줄이 막힌다.

훈재(훈저. 훈차. 훈처): ㉠훈자. ㉠남과

더불어 있지 않고 홀로 있는 상태.

0. 훈재 그 일을 다 해냈구나.

훈저: →훈재.

훈차: →훈재.

흔쳐: →흔재.

홀거맨다: ㉠홀쳐맨다. ㉡폴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맨다.

0.눈길에 운동화가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홀거맸다.

홀킨다(홀킨다. 홀킨다. 홀킨다.

홀킨다): ㉠호린다. 홀킨다.

1.호린다.

0.목석같은 사내를 홀겨 철석같은 사내로 만든다.

2.홀킨다.

0.가자미는 자기 어머니 보고도 눈을 홀킨다. (가자미는 눈이 옆으로 붙어 어쩔 수 없음을 이르는 말)

홀깃: ㉠술깃. ㉡마음이 끌린다.

0.귀가 얇어 홀깃 해가지고 넘어간다.

홀딱(홀라닥. 홀라당): ㉠1.일시에.

2.모두.

1.일시에.

0.바람에 빨래가 홀딱 날려갔다.

2.모두.

0.투전하다 돈을 홀딱 날렸다.

홀딱수(홀랑수): ㉠꼼수. ㉡찌찌한 수단이나 방법.

0.공연히 홀딱수에 넘어가지 말고 잘 해.

홀라닥: →홀딱.

홀라당: →홀딱.

홀랑수: →홀딱수.

홀망하다: ㉠몽롱하다.

0.내가 홀망해서 그만 잊어버렸네.

홀애비 살림: ㉠홀아버 살림.

0.홀애비 살림 석달에 이가 서말이라.

많이 안 됐군.

홀어멈(홀에미): ㉠홀어미. 과부. 과수.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여자.

0.홀어멈 사정을 누가 알라.

홀에미: →홀어멈.

홀체: ㉠깜박.

1.눈이 잠깐 감졌다 뜨이는 모양.

0.그간 홀체 잠이 들었었나?

2.기억이 잠깐 흐려졌다 밝아지는 모양.

0.약속을 홀체 잊었었네.

홀체맨다: →올케맨다.

홀케맨다: →올케맨다.

홀킨다: →홀킨다.

홀킨다: ㉠홀친다. ㉡엮어맨다.

0.개장수가 개를 홀킨다.

홀홀 단신: ㉠혈혈 단신.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운 홀몸.

0.6.25전쟁 때 홀홀 단신으로 피란 나와 자수성가했다.

흠챌다(흠챌다): ㉠흠챌다.

0.돈을 누가 흠챌다.

흠텡이: ㉠흠. 흠통. ㉡오목하고 길게 팬 자리.

0.그 흠텡이를 돌아가 봐.

훗훗하게: ㉠단출하게.

0.훗훗하게 우리끼리 먹자.

흥겁한다: ㉠흥겁한다. ㉡흥이 빠지도록 겁을 냄.

0.개가 짓으니 서리하던 아이들이 흥겁한다.

흥구녕낸다: →흥구녕낸다.

흥구멍낸다: →흥구녕낸다.

홍구영낸다: → 혼구녕낸다.

홍길딩이: ㉠홍길동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변화무쌍한 주인공.

0. 홍길딩이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했다.

홍살무니: ㉠앞니가 홍살문처럼 빠진 사람.

0. 다섯살배기가 앞니가 빠져 홍살무니가 됐다.

0. 홍살무니 갈비 추렴하듯 한다.(잘 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홍실: ㉠홍시. 연시. ㉡붉고 말랑말랑한 감.

0. 감나무에서 홍실이 떨어졌다.

0. 아이들이 홍실을 주워 먹는다.

홍육: ㉠홍역. ㉡급발진성 전염병으로 어린 이에게 많이 걸린다.

0. 홍육은 봄철에 많이 돈다.

홍역을 치른다: ㉠되게 혼난다.

0. 싸움 말리다 덤불 째미 되어 홍역을 치른다.

홍재: ㉠홍제. ㉡뜻밖에 재물을 얻음.

0. 송이 따러 갔다 송이 밭을 만나 홍재 했다.

홍겹떼기: ㉠홍겹떼기. ㉡한 겹으로 된 겹떼기.

0. 날씨가 추운데 홍겹떼기 옷을 입었구나.

홍초매(홍치매): 홍치마.

1.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0. 홍초매 바람으로 돌아다닌다.

2. 한겹으로 된 치마.

0. 홍초매가 춥겠다.

홍치매: → 홍초매.

화닥대기(화닥디기): ㉠화끈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0. 그 사람 화닥대기야. 일 처리를 빨리 해.

화닥디기: → 화닥대기.

화동부리: → 하동부리.

화루(화리): ㉠화로.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

0. 추워지면 방에 화루를 들여 놓는다.

화소(화쇠): ㉠수소. 황소. ㉡소의 수컷.

0. 화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매사에 기댈 곳이 있어야 힘을 쓴다는 말)

0. 화소는 화소대로 키우는 맛이 있지.

화송아지: → 하동부리.

화쇠: → 화소.

화쇠걸음: ㉠황소걸음. ㉡황소처럼 느릿느릿 안정되게 걷는 걸음.

0. 그 사람은 화쇠걸음처럼 믿음직스럽지.

화쇠고집: ㉠황소고집. ㉡매우 센 고집.

0. 그 사람 고집은 화쇠고집일세.

화양기: ㉠화양기. ㉡남자를 밝히는 여자의 바람기.

0. 화양기가 발동했나? 뒷집 처녀가 달아났다.

화양년: ㉠화양년. ㉡서방질을 하는 아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

0. 화양년 시집 다니듯 한다.(절개 없이 이리저리 붙음의 비유)

화양질: ㉠화양질. 서방질. ㉡여자가 여러 남자를 밝히는 짓.

0. 화양질을 잘 하는 여자는 따로 있다.

화집: ㉠몹시 뜨거운 곳.

0.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마당에 나서면 화집이야.

화집에: ㉠화가 난 김에.

0. 화집에 서방질 한다. (화가 난 김에 딴 서방을 본다는 말)

화투: ㉡화투. ㉢48장의 그림으로 된 놀이 딱지.

0. 우리 화투 할래?
0. 화투 잘못하면 재산 날린다.

화통이 터져서: ㉣화가나서.

0. 화통이 터져서 된소리를 질렀지.

확질: ㉤생 눈길.

0. 확질을 내며 생 눈길을 걸어왔다.

화병(화병): ㉥화로 인해 생긴 병.

0. 화병이 나면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

화병: → 화병.

황구렁이: ㉦황구렁이. ㉧빛이 누런 구렁이.

0. 황구렁이는 집 지킴이라지.

황덕불(황대기, 황득불): ㉨화듯불.

㉩장작을 모아 질러 놓은 불.
0. 황덕불에 고구마 귀 먹는다.
0. 황덕불 쪼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황대기: → 황덕불.

황득불: → 황덕불.

황새 조알 까먹기다: ㉪성이 안찬다.

0. 그 줄때기 장사는 황새 조알 까먹기다.

황송아지: → 하동부리.

황쇠고집(황쇠고집패기, 황우고집, 황우 고집패기): ㉫황소고집. 쇠고집.

㉬매우 센 고집.
0. 그 사람 황쇠고집을 누가 꺾나?

황쇠고집패기: → 황쇠고집

황우고집: → 황쇠고집

황우고집패기: → 황쇠고집.

황이다: ㉭빈탕이다.

0. 화투놀이에서 짙은 것이 황이다.
0. 황 짙지 말고 잘해봐.

황짚: ㉮불소독.

0. 못을 밟아 덧난 텐 황짚이 좋다.

황친길 가셨다: → 떠나가셨다.

황토배람박(황토배람짝, 황토배람딱, 황토배름짝, 황토배름딱, 황토백):

㉯황토벽. ㉺황토를 바른 벽.
0. 황토배람박은 인체에 이롭다 그린다.

황토배람짝: → 황토배람박.

황토배람딱: → 황토배람박.

황토배름짝: → 황토배람박.

황토배름딱: → 황토배람박.

황토백: → 황토배람박.

회각: ㉻회각. ㉼불어서 소리 내는 신호용 물건.

0. 어디서 회각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회냉면: ㉽함흥냉면.

0. 회냉면 비벼 먹으면 맛 좋지.

회배낸다: → 호배낸다.

회배판다: → 호배낸다.

회빈다: → 호잡는다.

회잡는다: → 호잡는다.

회친다: ㉾설친다. ㉿침착하지 못하고 조금 하게 행동한다.

0. 아기가 처음 온 집인데 회치고 돌아다니네.

회거리: ㊱회갸. ㊲회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기나 생선.

0. 횃거리 좀 만들어 약주 한 잔 하세.

횃대(횃대): ㉞횃대. ㉟옷을 걸 수 있게 방안에 걸어두는 막대.

0. 아버지 두루마기 받아 횃대에 걸어라.

0. 횃대 밑 사내.(밖에서는 남에게 꿈쩍 못하면서도 집에서는 큰소리치는 남자의 비유)

횃바람: ㉞휘파람. ㉟입술을 오므려 내는 소리.

0. 밤에 횃바람 불면 뱀 들어온다.(밤에는 으스스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

후달군다: →달군다.

후덥덥하다: ㉞후터분하다. ㉟불쾌할 정도로 무더운 기운이 있다.

0. 오늘은 날씨가 영 후덥덥하다.

후둥그래진다(휘둥그래진다):

㉞회동그래 진다. ㉟놀라거나 두려워서 눈이 둥그랗게 된다.

0. 아기가 눈이 후둥그래진다 긴장하는 모양이다.

후떡: →호떡.

후래새끼: →막나니.

후래아들: →막나니.

후래자숙: →막나니.

후래자식: →막나니.

후레친다(후배갈긴다): ㉞후려친다.

0. 말 안 듣는 소를 채찍으로 후레친다.

후루레기(후르레기. 흐르레기): ㉞목이 버섯. ㉟죽은 나무에 귀처럼 나는 버섯.

0. 참나무, 뽕나무를 잘라 세워

후루레기를 뜯게 한다.

후르레기: →후루레기.

후리하다: ㉟술기운이 오른다.

0. 장 길에 한잔했더니 후리하다.

후배갈긴다: →후레친다.

후배낸다: →호배낸다.

후배판다: →호배낸다.

후주그네하다(후줄구레하다. 후줄구리하다. 후줄그레하다. 휘주그네하다. 휘지근하다): ㉞1. 후줄근하다. 2. 휘주근하다.

1. 후줄근하다.

0. 옷이 그만 비에 젖어 후주그네하다.

2. 휘주근하다.

0. 기운이 빠져서 사람이 후주그네하다.

후줄구레하다: →후주그네하다.

후줄구리하다: →후주그네하다.

후줄그레하다: →후주그네하다.

후진다: ㉞외진다. ㉟외따로 떨어져 으스스하고 후미진다.

0. 외래 송이는 양양 송이보다 맛이 좀 후진다.

훈끼멕인다(훈끼준다): ㉟겉떡게 한다.

0. 훈끼멕이는 거야? 이거 뭐야.

훈끼준다: →훈끼멕인다.

훤감긴다(훤갱긴다. 휘갱긴다):

㉞휘감긴다. ㉟휘둘러 친친 감긴다.

0. 소 고삐가 나무 뿌리에 훤감겨 오도 가도 못한다.

훤갱긴다: →훤감긴다.

훤긴다: →훤감긴다.

훤때친다: ㉟뺨친다. 허풍친다.

0. 훤때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흘러공: ㉠이리저리 잘 둘러대는 사람.

0.그 사람 말 못 믿어. 흘러공이야.

흘러덕: →필러덕.

흘럭: →필러덕.

흘레볶아친다: ㉠몹시 급하게 재촉하거나 몰아친다.

0.어떻게 흘레볶아치는지 정신을 못 차리 겠다.

흘멍이: ㉠기근이 드는 일. 굶주려 무엇이든 먹으려 하는 상태.

0.흘멍이 들면 밥을 더 먹으려 한다.

0.흘멍이가 들어 밥을 게걸스럽게 먹는다.

흘볶어친다: →볶어친다.

흘섞는다: ㉠휘둘러 섞는다.

0.나물, 야채, 초장, 밥을 흘섞으면 비빔밥이 된다.

흘체먹는다: ㉠등쳐먹는다. 남의 것을 교묘하게 빼앗아 먹는다.

0.남의 것을 흘체먹는다.

흘챌다: ㉠긁혔다.

0.덤불딸기 따 먹다 가시에 흘챌다.

0.억새풀에 슬쩍 흘챌다.

흘킨다: →흘긴다.

흘챌다: →흘챌다.

훤씩: ㉠훤싹. ㉠정도 이상으로 많거나 적게.

0.동생이 공부를 훤씩 잘한다.

0.고추가 작년보다 훤씩 잘 됐다.

훤대: →훤대.

훤당하다: ㉠행하다. 넉넉하다.

1.비어있다.

0.방안이 훤당하다.

2.크다.

0.웃이 훤당하다.

휘갈린다: ㉠휘갈긴다.

1.마구 때린다.

0.말썽을 일으키는 소를 마구 휘갈린다.

2.마구 쓴다.

0.글씨를 공책에 마구 휘갈린다.

휘갱긴다: →홀감긴다.

휘둥그레진다: →후둥그레진다.

휘딱: →호딱.

휘떡: →호떡.

휘배낸다: →호배낸다.

휘배판다: →호배판다.

휘섞는다: ㉠두루 섞는다.

0.양념을 나물에 넣고 휘섞는다.

0.화투장을 휘섞는다.

휘앙하다(휘왕하다): ㉠몽롱하다.

㉠정신이 흐리멍텅하다.

0.막걸리를 한 사발 마셨더니 정신이 휘앙하다.

휘왕하다: →휘앙하다.

휘전: ㉠휴전. ㉠벌이던 전쟁을 쉬.

0.6.25전쟁은 1953년에 휘전 됐다.

휘주그네하다: →후주그네하다.

휘지: ㉠휴지. ㉠못쓰게 된 종이. 화장지.

0.거기 휘지 좀 도와.

휘지근하다: →후주그네하다.

휘춘거린다(휘총거린다): ㉠휘청거린다.

1.가늘고 긴 것이 천천히 흔들린다.

0.바람에 나뭇가지가 휘춘거린다.

2.똑바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다.

0. 술에 취했나? 걸음이 휘춘거린다.

휘춘거린다: →휘춘거린다.

휩스그레하다(휩스그레하다):

㉠머리카락이 회색빛이 난다.

0. 중년이 지난 머리가 휩스그레하다.

휩새인다: ㉡휩싸인다. ㉢휩들러

감아싸인다.

0. 나쁜 애들하고 휩새인다.

흉칙스럽다: ㉣흉측스럽다.

흉악망측스럽다.

㉤몹시 흉악한 데가 있다.

0. 흉칙스러운 데는 피하는 게 상책.

흐넉넉하다: ㉥아주 넉넉하다.

1. 크기가 남음이 있다.

0. 품이 흐넉넉하다.

2. 살림이 여유가 있다.

0. 형편이 흐넉넉하다.

3. 도량이 넓다.

0. 마음이 흐넉넉하다.

흐르레기: →후루레기.

흐리멍텅하다: ㉦흐리멍텅하다.

1. 기억이 흐릿하다.

0. 잠에 취해 정신이 흐리멍텅하다.

2. 분명하지 않다.

0. 어찌 계산이 흐리멍텅하다.

3. 희미하게 들린다.

0. 귀가 먹어 흐리멍텅하게 들린다.

흐막하다: ㉧흐뭇하다. ㉨마음에 흡족하다.

0. 대접을 잘 받으니 마음이 흐막하다.

흐물: ㉩허물. ㉪살갓에서 일어나는 껍질.

0. 매미가 흐물을 벗고 성충이 되었다.

흐트레뜨린다: ㉫흐트러뜨린다.

㉬흐트러지게 한다.

0. 역공을 하여 상대방의 전열을 흐트레뜨린다.

흑구렁이: ㉭먹구렁이. 누룩뱀.

0. 흑구렁이가 담 밑으로 기어간다.

흔: ㉮헛. 낚은.

0. 거지는 흔웃을 주워다 입는다.

흔거(흔그. 흔기): ㉯헛 것.

0. 아기 옷을 흔거는 버리고 새것으로 입힌다.

흔계집(흔기집. 흔지집): ㉺헛계집.

㉻행실이 부정한 계집을 낚잡아 이르는 말.

0. 그 처녀, 벌써 흔계집 애야.

흔그: →흔거.

흔기: →흔거.

흔기집: →흔계집.

흔다: ㉼헛다.

0. 낚은 집을 흔다.

0. 짚가리를 흔다.

흔테: →헛다.

흔데자구(흔데자국. 흔데자리.

흔데자욱. 흔데자죽. 헛디자구.

헛디자국. 헛디자리. 헛디자욱.

헛디자죽): ㉽헛데 자국.

0. 다리에 그만 흔데자구가 생기겠다.

흔데자국: →헛데자구.

흔데자리: →헛데자구.

흔데자욱: →헛데자구.

흔데자죽: →헛데자구.

흔다: →헛다.

흔디자구: →흔데자구.

흔디자국: →흔데자구.

흔디자리: →흔데자구.

흔디자욱: →흔데자구.

흔디자죽: →흔데자구.

흔벙(흔병): ㉠쓰던 병.

0.흔벙에는 석유를 담고 새병에는
들기름을 담아라.

흔병: →흔벙.

흔신짜: ㉡현신짜.

0.흔신짜도 짝이 있다는데 어디서 짝을
찾겠지.

흔지집: →흔계집.

흔짚세기(흔짚세기짜. 흔짚신짜): ㉢현

짚신

0.흔짚세기 신고 다니던 시절을 지금
아이들은 아마도 모를 거야.

흔짚세기짜: →흔짚세기.

흔짚신짜: →흔짚세기.

흘그: ㉣흙을.

0.거기 흘그 퍼 오너라.

흘뜯는다(흘뜯는다): ㉤헐뜯는다. ㉥남의

흙을 잡아내어 나쁘게 말한다.

0.남을 자꾸 흘뜯는다.

흘미하다(흘찌하다): ㉦흐릿하다. ㉧조금

흐린 듯하다.

0.날씨가 어째 흘미하다.

흘찌하다: →흘미하다.

흘킨다: →흘긴다.

흘뜯는다: →흘뜯는다.

흙구덩이: ㉨흙구덩이. ㉩흙을 우묵하게

파낸 자리.

0.감자를 묻으려고 흙구덩이를 판다.

흙덩거리(흙덩이. 흙등거리):

㉪흙덩어리.

0.밭의 흙덩거리를 팽이로 부순다.

흙데미(흙무데기. 흙무덩이. 흙무지):

㉫흙데미. 흙무더기. ㉬흙을 한데 모아
쌓은 더미.

0.흙데미를 보면 구덩이를 알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상응되는 흔적이 있다는
말)

흙덩이: →흙덩거리.

흙등거리: →흙덩거리.

흙모욕(흙목욕): ㉭땀까불. ㉮암탉이 흙을

뒤집어쓰며 하는 목욕.

0.암탉이 흙을 파 몸에 뿌리며 흙모욕을
한다.

흙목욕: →흙모욕.

흙무데기: →흙데미.

흙무덩이: →흙데미.

흙무지: →흙데미.

흙몽테기(흙몽텅이): ㉯흙몽텅이. ㉺흙이

크게 몽쳐진 덩이.

0.흙몽테기를 몽쳐 천장을 바른다.

흙몽텅이: →흙몽테기.

흙벽: ㉻흙벽. 토벽. ㉼흙으로 바른 벽.

0.흙벽이 사람 몸에 이롭다지.

흙갈: ㉽흙손. ㉾흙일을 할 때 이긴 흙을

떠서 바르고 반반하게 고르는 연장.

0.흙갈로 벽을 문지르면 벽이

반반해진다.

흙담: ㉿흙담. ㊀남을 헐뜯어서 말함.

0.남의 흙담을 자꾸하면 결국엔 되돌아

오지.

흙상긱다: ㉠흙상긱다. ㉡모양이나 상태가 사납고 험하다.

0.얼굴이 흙상긱다.

흙악하다: ㉠흙악하다. ㉡험하고 사납다.

1.기후.

0.날씨가 흙악하다.

2.성질.

0.마음씨가 험악하다.

3.형세.

0.분위기가 흙악하다.

흙하다: ㉠흙하다.

1.땅의 형세가 험하다.

0.산세가 흙해서 오르기 힘들다.

2.모양이 험상스럽다.

0.인상이 흙하게 생겼다.

3.말이나 행동 따위가 막됐다.

0.말씨가 흙하다.

4.먹고 입는 것이 거칠고 너절하다.

0.먹는 음식이 흙하다.

5.일이 거칠고 힘에 겹다.

0.하는 일이 흙하다.

흥겹: ㉠형겹. ㉡피륙의 조각.

0.흥겹 조각을 모아서 밥상보를 만든다.

흥창망창: ㉠흥청망청. ㉡마음껏 쓰며 즐기는 모양.

0.돈 있다고 그렇게 흥창망창 쓰는 게 아니지.

희까삐까계: ㉠희뻘다. ㉡실속이 없고 화려하며 매우 거만하다.

0.우리동네 건달이 옷을 희까삐까하게 차려입고 나들이 나선다.

희딱: →호딱.

희석바리(히스바리, 희서바리.

히스바리): ㉠혜프게 잘 웃는 사람.

0.희석바리처럼 웃기는 잘 웃는다.

희안하다(희안노골노골하다, 희안하다):

㉠희한하다. 이상하다. ㉡매우 드물게 신기하다.

0.헛소문이 희안하다.

희안노골노골하다: →희안하다.

희안하다: →희안하다.

희푸다(희프다): ㉠혜프다.

1.물건이 쉽게 닳는다.

0.무명 양말이 나일론 양말보다 희푸다.

2.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쓰는 버릇.

0.쓰는 돈이 희푸다.

희프다: →희푸다.

희희덕거린다(히히덕거린다):

㉠히히거린다. ㉡'히히' 소리를 잇달아 내며 웃는다.

0.사람을 옆에다 두고 자기들끼리만 희희덕거린다.

0.희희덕거리지만 말고 일을 잼싸게 해 봐.

흰김치: ㉠물김치.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김치.

0.흰김치 맛이 시원하다.

흰나발간다: →나발간다.

흰뎡이(흰뎡이): ㉠흰둥이. ㉡털빛이나 살빛이 흰 짐승이나 사람을 이르는 말.

1.흰 털빛.

0.흰뎡이 강아지가 밥을 잘 먹는다.

2.흰 살빛.

0.서양 사람을 흔히 흰텅이라 부르지.
 흰텅이: →흰텅이.
흰서리: ㉠입김. ㉡겨울철 입에서 나오는 김.
 0.날씨가 차지니 입김에 흰서리가 친다.
흰입쌀밥: ㉠쌀밥. 이밥. 백반. 흰밥.
 ㉡입쌀로만 지은 밥.
 0.춘궁기엔 흰입쌀밥 얻어먹기 힘들었지.
흰자구(흰자우): ㉠흰자위. ㉡눈동자나 달걀의 흰 부분.
 0.달걀 흰자구와 노른자를 가른다.
 0.눈 흰자구가 핏득 보이는 사람은 이상해.
 흰자우: →흰자구.
 흰스그레하다: →휩스그레하다.
히끔히끔: ㉠힐끔힐끔. ㉡땀살맞게 결눈질 하며 쳐다보는 모양.
 0.사람, 히끔히끔 쳐다보지 마. 기분 나빠.

히떡(힐러덕, 힐력): ㉠히떡.
 1.언뜻 휘돌아보는 모양.
 0.히떡 뒤돌아보고는 도망친다.
 2.맥없이 넘어지는 모양.
 0.씨름하다 히떡 나자빠졌다.
 히스바리: →희석바리.
 히야: →성.
히주구레하다(히주구리하다, 히주꾸리하다): ㉡느른하고 허름하다.
 0.옷이 히주구레하다.
 히주구리하다: →히주구레하다.
 히주꾸리하다: →히주구레하다.
 히히덕거린다: →희희덕거린다.
 히서바리: →희석바리.
 히스바리: →희석바리.
 힐러덕: →히떡.
 힐력: →히떡.

1. 방언의 배열은 현행 ‘한글 맞춤법’ 자모 순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2. 비슷한 말은 한데 묶어 설명하고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3. 용례는 표제어 방언을 제외하고는 표준어를 사용하였다.
4. 방언과 관련된 관용어와 속담을 함께 기술하였다.
5. 외래어에서 변형된 방언은 배제하였다.
6. 약호는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보기: ㉠ 표준어

㉡ 설명

0. 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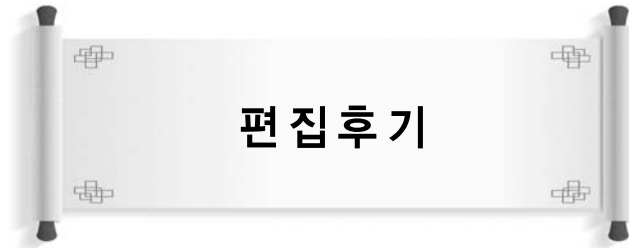
→ 가보기

() 비슷한 말 묶음



참고문헌

- 김인기(2014), 〈강릉방언 대사전〉, 동심방.
말모이 편찬위원회(2021),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시공사.
(사)강릉말(사투리) 보존회(2020), (사)강릉말(사투리)이해, 제5호, 청송출판사.
이경진(2003), 〈강원도 영동 남부지방 방언, 삼척·동해·태백권 사투리〉, 예문사.
인터넷(2021), 〈민중국어사전〉, 인터넷.
(주)천재교육(2018), 〈재미있는 국어 문법〉, 천재교육.



편집후기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잘 어우러진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구수하고 억양이 강한 사투리를 지금도 생활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려운 사회환경에도 짧은 기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연구위원님들이 있었기에 양양 방언사전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향토자료는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연구에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그러기에 발품을 팔며 수집한 소중한 자료는 편집을 통해 옛 양양 사람들의 삶과 생활풍습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

양양 사투리는 지역의 말을 되찾고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옛 문화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양양 방언사전 발간에 수고해주신 연구위원을 비롯한 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훌륭한 양양의 말이 관광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진하

양양 방언사전

인쇄 _ 2021년 12월 29일

발행 _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_ 윤여준

집필인 _ 김성영, 이재풍

교정인 _ 김미정, 김정주

편집인 _ 김진하

발행처 _ 양양문화원 033) 671-8762

인쇄처 _ 대양프리컴 033) 257-3400

※ 본 책자에 실린 모든 이미지의 복제 및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이
가

가
만